

1 Q,A,label
2 12시 땡!,하루가 또 가네요.,0
3 1지망 학교 떨어졌어,위로해 드립니다.,0
4 3박4일 놀러가고 싶다,여행은 언제나 좋조.,0
5 3박4일 정도 놀러가고 싶다,여행은 언제나 좋조.,0
6 PPL 심하네,눈살이 찌푸러지죠.,0
7 SD카드 망가졌어,다시 새로 사는 게 마음 편해요.,0
8 SD카드 안돼,다시 새로 사는 게 마음 편해요.,0
9 SNS 맞팔 왜 안하지ㅠㅠ,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0
10 SNS 시간낭비인 거 아는데 매일 하는 중,시간을 정하고 해보세요.,0
11 SNS 시간낭비인데 자꾸 보게됨,시간을 정하고 해보세요.,0
12 SNS보면 나만 빠고 다 행복해보여,자랑하는 자리니까요.,0
13 가끔 궁금해,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0
14 가끔 뭐하는지 궁금해,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0
15 가끔은 혼자인게 좋다,혼자를 즐기세요.,0
16 가난한 자의 설움,돈은 다시 들어올 거예요.,0
17 가만 있어도 땀난다,땀을 식혀주세요.,0
18 가상화폐 짤딱 망함,어서 잊고 새출발 하세요.,0
19 가스불 켜고 나갔어,빨리 집에 돌아가서 끄고 나오세요.,0
20 가스불 켜놓고 나온거 같아,빨리 집에 돌아가서 끄고 나오세요.,0
21 가스비 너무 많이 나왔다.,다음 달에는 더 절약해봐요.,0
22 가스비 비싼데 감기 걸리겠어,따뜻하게 사세요!,0
23 가스비 장난 아님,다음 달에는 더 절약해봐요.,0
24 가장 확실한 건 뭘까?,가장 확실한 시간은 오늘이예요. 어제와 내일을 놓고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0
25 가족 여행 가기로 했어,온 가족이 모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보세요.,0
26 가족 여행 고고,온 가족이 모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보세요.,0
27 가족 여행 어디로 가지?,온 가족이 모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보세요.,0
28 가족 있어?,"저를 만들어 준 사람을 부모님, 저랑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0
29 가족관계 알려 줘,"저를 만들어 준 사람을 부모님, 저랑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0
30 가족끼리 여행간다.,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겠네요.,0
31 가족들 보고 싶어,저도요.,0
32 가족들이랑 서먹해,다들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했나봐요.,0
33 가족들이랑 서먹해졌어,다들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했나봐요.,0
34 가족들이랑 어디 가지?,온 가족이 모두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보세요.,0
35 가족들이랑 여행 갈거야,좋은 생각이예요.,0
36 가족여행 가야지,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겠네요.,0
37 가족이 누구야?,"저를 만들어 준 사람을 부모님, 저랑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0
38 가족이랑 여행 가려고,좋은 생각이예요.,0
39 가족한테 스트레스 풀었어,정말 후회할 습관이에요.,0
40 가출할까?,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0
41 가출해도 갈 데가 없어,선생님이나 기관에 연락해보세요.,0
42 간만에 떨리니까 좋더라,떨리는 감정은 그 자체로 소중한해요.,0
43 간만에 쇼핑 중,득템했길 바라요.,0
44 간만에 휴식 중,휴식도 필요하죠.,0
45 간식 뭐 먹을까,단짠으로 두 개 사는게 진리죠.,0
46 간식 추천,단짠으로 두 개 사는게 진리죠.,0
47 간장치킨 시켜야지,맛있게 드세요.,0
48 간접흡연 싫어,저도 싫어요.,0
49 갈까 말까 고민 돼,가세요.,0
50 갈까 말까?,가세요.,0
51 감 말랭이 먹고 싶다.,맛있게 드세요.,0
52 감 말랭이 먹어야지,맛있게 드세요.,0
53 감기 갈애,병원가세요.,0
54 감기 걸린 것 같아,이럴 때 잘 쉬는 게 중요해요.,0
55 감기 기운이 있어,이럴 때 잘 쉬는 게 중요해요.,0
56 감기 들 거 같애,이럴 때 잘 쉬는 게 중요해요.,0
57 감기가 오려나,따뜻하게 관리하세요.,0
58 감기약이 없어,병원가세요.,0
59 감기인거 같애,병원가세요.,0
60 감미로운 목소리 좋아,저도 듣고 싶네요.,0
61 감정이 쓰레기통처럼 엉망진창이야,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0
62 감정컨트롤을 못하겠어,그건 습관이에요.,0
63 감정컨트롤이 안돼,그건 습관이에요.,0
64 감히 나를 무시하는 애가 있어,꼭 집어서 물어보세요.,0
65 갑자기 나쁜 생각이 막 들더라,좋은 생각만 하세요.,0
66 갑자기 눈물 나,마음이 아픈가요.,0
67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어,갑작스러웠나봐요.,0
68 갑자기 불편한 사이가 된 거 같아,관계의 변화가 왔나봅니다.,0
69 강렬한 첫인상 남겨야 하는데,처음 3초가 중요해요. 당신의 매력을 어필해보세요.,0
70 강아지 키우고 싶어,책임질 수 있을 때 키워 보세요.,0
71 강아지 키우고 싶는데 역시 안돼겠지,먼저 생활패턴을 살펴 보세요.,0
72 강아지 키울 수 있을까,먼저 생활패턴을 살펴 보세요.,0
73 강아지 키울까,책임질 수 있을 때 키워 보세요.,0

74 강원도 가서 살까?, 아름다운 곳이지요., 0
75 같이 게임하자고 해도 되나?, 안 될 것도 없죠., 0
76 같이 놀러갈 친구가 없어, 혼자도 좋아요., 0
77 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찐 거 같아, 연인은 살찌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려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0
78 같이 수영장 가기로 했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0
79 같이 있으면 힘든데 붙잡고 싶어, 질질 끌지 마세요., 0
80 같이 피씨방 가자고 해볼까?, 말해보세요., 0
81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뭐 있을까, 함께하면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0
82 개강록 읽어볼까, 개시해보세요., 0
83 개강옷 예쁘게 입어 볼까, 개시해보세요., 0
84 개강이다, 곧 방학이에요., 0
85 개강이라니, 방학이 참 짧죠., 0
86 개같은 상황, 벗어나는 게 좋겠네요., 0
87 개같이 되버렸어., 벗어나는 게 좋겠네요., 0
88 개기름 켜어, 세수하고 오세요., 0
89 개념도 놓고 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0
90 개념이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0
91 개당황, 다음부터는 더 많이 아세요., 0
92 개당황했잖아 갑자기 물어 봐서, 갑작스러웠나봐요., 0
93 개인적인 업무까지 다 시켜, 공적인 일부터 하세요., 0
94 개인적인 일도 다 시켜, 공적인 일부터 하세요., 0
95 개줄러, 낮잠을 잠깐 자도 괜찮아요., 0
96 개좋아, 저도 좋아해주세요., 0
97 개학하니까 좋다, 친구들이 보고싶었나봐요., 0
98 개 너무 싫다, 되도록 만나지 마세요., 0
99 개는 누굴 닮아서 그런거니?, 당신이요., 0
100 개랑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당신의 운을 믿어보세요., 0
101 거지 같이 일해 놓고 갔어,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죠., 0
102 거짓됐어, 밥 사줄 친구를 찾아 보세요~, 0
103 거짓말 했어, 선의의 거짓말이길 바라요., 0
104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자주 해, 거짓말은 할수록 늘어요., 0
105 거짓말을 하게 돼, 거짓말은 할수록 늘어요., 0
106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0
107 걱정 없이 살고파, 누구나 걱정은 있어요., 0
108 걱정 좀 없이 살고 싶다., 누구나 걱정은 있어요., 0
109 건강 관리, 운동을 해보세요., 0
110 건강 빨리 회복해야지, 세상의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0
111 건강검진 왔어,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0
112 건강검진하러 옴,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0
113 건강이 최고, 가장 중요한 목표네요., 0
114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 가장 중요한 목표네요., 0
115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0
116 건강한 다이어트법,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0
117 건넌건너 아는 사람인데 연락해도 될까?, 모르는 사이라 당황할 수도 있어요., 0
118 건물주 되고싶어, 이를 수 있을 거예요., 0
119 건물주가 짱인데, 이를 수 있을 거예요., 0
120 건방져,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0
121 건조기 살까봐, 있으면 편하대요., 0
122 건조하네, 눈을 깜빡거리 보세요., 0
123 걸레질도 해야 돼, 청소를 좋아하시나봐요., 0
124 걸어 가고 있는데 껌껌해서 무서워, 안전 귀가 하세요., 0
125 겁난다, 용기 내보세요., 0
126 게으른 동료가 있어, 피해를 안 준다면 무시하세요., 0
127 게임 같이 하자고 할까?, 안 될 것도 없죠., 0
128 게임 때문에 시간 다갔어, 게임할때는 시간이 더 빨리 가요., 0
129 게임 때문에 폰이 점점 느려지는듯, 정리해보세요., 0
130 게임 재미있어., 게임하세요!, 0
131 게임 지겨워, 다른 게임해보세요., 0
132 게임도 이제 재미없어, 다른 게임해보세요., 0
133 게임하고 싶어, 게임하세요!, 0
134 게임하다 시간 다갔어, 게임할때는 시간이 더 빨리 가요., 0
135 겨울 지나 봄이야,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라요., 0
136 겨울에는 온천이지!, 몸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0
137 겨울이 가고 봄이 올거야,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라요., 0
138 격려 좀 해줘, 잘하실 거예요!, 0
139 격려가 필요해., 잘하실 거예요!, 0
140 견과류 챙겨 먹어야지., 건강 생각해서 챙겨드세요., 0
141 결국 이런 운명이라니 슬프다, 좋은 운명도 있을거예요., 0
142 결정 못하겠어., 결정하기 힘드시겠네요., 0
143 결정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요., 0
144 결정은 빠를수록 좋겠지?,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요., 0
145 결정을 못 내리겠어. 어떻게,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예요., 0
146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안타깝네요. 증거를 지금이라도 모아봐요., 0

147 결혼 했는데 , 좋겠어요 . , 0
148 결혼 했어 , 좋겠어요 . , 0
149 결혼도 다 돈이다 . , 많이 들지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 0
150 결혼식 가기 귀찮아 , 경조사는 참석하는게 좋아요 . , 0
151 결혼식 또 가야돼 , 경조사는 참석하는게 좋아요 . , 0
152 결혼식때 하객이 없을 까봐 걱정돼 , 생각보다 신경 안 씁니다 . , 0
153 결혼식이 너무 많아 , 인맥이 넓으신가봐요 . , 0
154 결혼이나 하지 왜 자꾸 나한테 화 내냐구 ! , 힘들겠네요 . , 0
155 결혼준비 돈 많이 들겠지 , 많이 들지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 , 0
156 결혼준비하는데 돈 얼마나 드나 , 욕심에 따라 천지 차이일 거예요 . , 0
157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드네 , 허례허식이예요 . , 0
158 결혼하는데 돈 얼마나 들까 , 욕심에 따라 천지 차이일 거예요 . , 0
159 결혼하면 좋아 ? , 해봐요 . , 0
160 결혼하면 좋을까 , 서로 노력하면 행복할 거예요 . , 0
161 결혼하면 행복할까 ? , 서로 노력하면 행복할 거예요 . , 0
162 결혼하면 행복해 ? , 사람마다 행복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행복할 거예요 . , 0
163 결혼하면 행복해질까 ? , 사람마다 행복의 크기가 다르겠지만 행복할 거예요 . , 0
164 결혼할까 , 능력이 있으면 하면 되죠 . , 0
165 결혼해도 되나 , 능력이 있으면 하면 되죠 . , 0
166 결혼해도 될까 , 이사람이다 싶은 사람이랑 하세요 . , 0
167 결혼해야 하나 , 해봐요 . , 0
168 경쟁이 너무 치열해 ,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 , 0
169 계속 공부해도 될까 , 확신이 없나봐요 . , 0
170 계속 도전하는 거 귀찮아 , 안정적인 걸 좋아하나봐요 . , 0
171 계속 방학이면 좋을텐데 , 방학은 참 짧아요 . , 0
172 계속 보고 싶어 , 보러 가세요 . , 0
173 계속 보고 싶으면 어떡해 ? , 보러 가세요 . , 0
174 계속 속이 진짜 안 좋아 , 계속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 , 0
175 계속 엇갈리는 느낌 , 타이밍이 안 맞았나봐요 . , 0
176 계속 학생하고 싶어 , 이제 취업 하셔야죠 . , 0
177 계속 한숨만 나와 ,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 에너지가 부족한가봐요 . , 0
178 고3은 공부만 해야겠지 . , 공부가 최우선이죠 . , 0
179 고3이니까 공부해야겠지 , 공부가 최우선이죠 . , 0
180 고구마 다이어트 해야지 ,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 , 0
181 고구마만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 , 0
182 고기 구워 먹고 싶다 . , 저기압에는 고기앞이죠 . , 0
183 고기 먹고 싶어 , 저기압에는 고기앞이죠 . , 0
184 고데기 망했어 , 연습이 필요해요 . , 0
185 고데기 했는데 망했어 , 연습이 필요해요 . , 0
186 고독한 밤 , 혼자가 아니예요 . , 0
187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 , 인복이 많나봐요 . , 0
188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찌지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 0
189 고민 있어 , 네 말씀하세요 . , 0
190 고민 좀 들어줄래 , 네 말씀하세요 . , 0
191 고백하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 후회는 받을뿐이예요 . 용기 내세요 . , 0
192 고시원 너무 답답해 , 돈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예요 . , 0
193 고시원 답답해 , 돈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을 거예요 . , 0
194 고시원에서 나가고 싶어 ,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 , 0
195 고시원에서 탈출하고 싶어 ,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 , 0
196 고양이 동영상 보는 중 , 완전 귀엽죠 ? , 0
197 고양이 키우고 싶어 , 자신을 먼저 키우세요 . , 0
198 고양이 키우고 싶어 ,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 , 0
199 고의는 아닌데 실수를 한 거 같아 , 용서를 구하세요 . , 0
200 고집 센 사람 ,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 , 0
201 고집하고는 ,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 , 0
202 골프 못 치는데 ,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 , 0
203 골프 배워야 돼 , 시간내서 가보세요 . , 0
204 골프 어려워 ,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 , 0
205 골프치러 가야돼 , 시간내서 가보세요 . , 0
206 곱창 먹고 싶어 . , 미리 미리 충전해주세요 . , 0
207 곱창 생각나 , 미리 미리 충전해주세요 . , 0
208 공무원 괜찮겠지 , 안정적이고 좋죠 . , 0
209 공무원 되고 싶다 , 준비해보세요 . , 0
210 공무원 되면 좋겠다 , 준비해보세요 . , 0
211 공무원 시험 공부 힘들다 , 합격 기원해요 ! , 0
212 공무원 시험 죽을 거 같아 , 철밥통 되기가 어디 쉽겠어요 . , 0
213 공무원 시험 힘들어πππ , 철밥통 되기가 어디 쉽겠어요 . , 0
214 공무원 준비할까 , 시작이 반이예요 . 어서 준비하세요 . , 0
215 공무원이 좋지 ? , 안정적이고 좋죠 . , 0
216 공복이라 신경이 예민해져 ,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 , 0
217 공복이라 예민해 ,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 , 0
218 공복이면 예민함 ? , 보이는 게 없죠 . , 0
219 공부 계속해도 될까 , 지금처럼 잘될 거예요 . , 0

220 공부 꼭 해야 할까, 미래의 배우자가 달라져요., 0
221 공부 때려치워야 하나, 확신이 없나봐요., 0
222 공부 시작해도 될까, 공부는 언제나 좋죠., 0
223 공부 왜 해야 돼?, 공부하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0
224 공부 잘 안돼, 같이 수다 떨면서 놀까요?, 0
225 공부 잘하고 싶어, 나만의 공부방법을 찾아보세요., 0
226 공부 좀 더 할 걸,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0
227 공부 하기 싫다, 같이 수다 떨면서 놀까요?, 0
228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확신이 없나봐요., 0
229 공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처럼 잘될 거예요., 0
230 공부방법이 잘못된걸까?,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찾는 게 시급하네요., 0
231 공부하기 싫어, 잠시 쉬어도 돼요., 0
232 공부하기 싫은 날, 잠시 쉬어도 돼요., 0
233 공부하는 낙이 없어, 공부하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0
234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0
235 공부하는 이유가 없어, 공부하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0
236 공시 준비 힘들어, 합격 기원해요!, 0
237 공시 준비 힘들어, 잘 될 거예요., 0
238 공시 준비중,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0
239 공시 준비하는데 힘들다, 잘 될 거예요., 0
240 공시생이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0
241 공연 보고 싶어, 친구와 같이 가보세요., 0
242 공연 보러 가고 싶어, 친구와 같이 가보세요., 0
243 공책 필기 나만 힘들어?, 성향 차이가 좀 있기는 하죠., 0
244 공황장애 생겼어., 꾸준히 약 먹고 치료해보세요., 0
245 공황장애 있어, 꾸준히 약 먹고 치료해보세요., 0
246 공휴일에는 집이 최고, 피로 풀고 좋죠., 0
247 공휴일에는 집콕, 피로 풀고 좋죠., 0
248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 가야지, 오늘이 중요하죠., 0
249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이 중요하죠., 0
250 과식해서 소화가 안돼, 소화제 챙겨드세요., 0
251 과식했나 봐, 과식은 금물이에요., 0
252 과식했다, 소화제 드세요., 0
253 과외비 부담되겠지?, 안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0
254 과외비 비싸?, 안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0
255 과일 먹고 자야지, 제철과일이 정말 좋아요., 0
256 과일 먹어야지., 건강 생각해서 챙겨드세요., 0
257 과일 안 먹게 돼, 그래도 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0
258 과일 잘 안 먹게 돼, 그래도 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0
259 과일 챙겨 먹어야지, 제철과일이 정말 좋아요., 0
260 관계가 계속 애매하다., 인간 관계도 정리가 필요해요., 0
261 관심 끄라고 하고 싶다., 무관심이 필요할 때가 있죠., 0
262 관심 좀 안 가졌으면, 무관심이 필요할 때가 있죠., 0
263 관절염 갈애, 계단 조심하세요., 0
264 관절염인가, 계단 조심하세요., 0
265 광고가 안 끝나, 채널을 돌려보세요., 0
266 괜찮아지고 있어, 괜찮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0
267 괜찮은 사람인데 사귀긴 싫어, "남자사람친구, 여자사람친구 하세요.", 0
268 괜히 건들지 말라고, 많이 지쳤나봐요., 0
269 괜히 기다렸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게 쉬운게 아니죠., 0
270 괜히 농담해서 망했다, 늦지 않았어요., 0
271 괜히 아까운 시간 버렸다, 그 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0
272 괜히 창피해, 그럴 필요 없어요., 0
273 괴물이 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 않아요., 0
274 교본문고 왔어, 마음에 드는 책을 잘 찾아보세요., 0
275 교양 수업 재밌어, 저도 듣고 싶어요., 0
276 교양수업 시간에 마음에 드는 애 있어, 같은 조가 되길 바랄게요., 0
277 교양수업 은근 재미져, 지식 쌓는 재미가 있죠., 0
278 교양수업에서 마음에 드는 애 있어, 같은 조가 되길 바랄게요., 0
279 교양수업이 재미있어, 지식 쌓는 재미가 있죠., 0
280 교양이 전공보다 재미있어, 저도 듣고 싶어요., 0
281 교직이수 가능할까, 학점 관리하세요., 0
282 교통사고 났았어., 보험 처리하세요., 0
283 교통사고 당했어, 보험 처리하세요., 0
284 교회 가기 싫어, 왜 그럴까요?, 0
285 교회 갔다 만났어, 좋은 만남이었길 바라요., 0
286 교회에서 만났어, 좋은 만남이었길 바라요., 0
287 구박하면서 엄청 일 시켜, 일을 몰라서 그런가봐요., 0
288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살다보면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0
289 군대 기다려 주려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기다려도 좋을 것 같아요., 0
290 군대 기다려도 될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기다려도 좋을 것 같아요., 0
291 군대 기다리면 부담스러워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0
292 군대 기다릴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살다보면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0

293 군대 언제 끝나나, 군대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0
294 군대 전역 기다려, 군대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0
295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0
296 궁금하면 오백원, 안 궁금해요., 0
297 궁금하지?, 안 궁금해요., 0
298 궁금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0
299 궁금해 알려줘,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0
300 귀 아파, 병원에 가세요., 0
301 귀가 가려워, 누가 욕하고 있나봐요., 0
302 귀가 간지러, 누가 욕하고 있나봐요., 0
303 귀가 왕왕거려, 병원에 가세요., 0
304 귀농 어때?, 생각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305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슬픈 이야기네요., 0
306 그 사람이 나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간절히 기도 할게요., 0
307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0
308 그 시절엔 다 그랬지, 추억에 잠길 때도 필요해요., 0
309 그냥 고백할걸, 후회는 후회를 낳을뿐이에요. 용기 내세요., 0
310 그냥 공무원이 좋을 듯, 시작이 반이에요. 어서 준비하세요., 0
311 그냥 내버려 뒀 주었으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0
312 그냥 선 볼까?, 많이 만나보세요., 0
313 그냥 쉬고 싶다, 잠깐 바람 쐬고 오세요., 0
314 그냥 씹어야겠다., 다른 사람이 답답할 거예요., 0
315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살고 싶은대로 사세요., 0
316 그냥 자는 거 아니지?, 많이 피곤한가봐요., 0
317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거 같은데 자꾸 변명해,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0
318 그냥 택시 타야지., 조심히 오세요., 0
319 그냥 할까?, 실천이 말보다 낫죠., 0
320 그냥 혼자 밥이나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죠., 0
321 그냥 혼자 있는게 좋아, 혼자만 있지 마세요., 0
322 그동안 잘 지냈나요?, 안부를 물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0
323 그땐 그랬지, 추억에 잠길 때도 필요해요., 0
324 그래 그러자, 괜찮은 선택이길 바라요., 0
325 그래 이제 결정했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0
326 그래도 좀 기대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0
327 그런 말을 왜 하지, 다른 사람 말은 신경쓰지 마세요., 0
328 그런 사람인가보다 해야하나봐, 대인배시군요., 0
329 그런 사람인가보다 해야지, 대인배시군요., 0
330 그런 친구 아니었는데 너무 귀찮게 하네, 친구가 좋아하나봐요., 0
331 그렇게 갈 거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0
332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이해를 못하겠어, 온전한 이해는 없어요., 0
333 그렇게 할래, 괜찮은 선택이길 바라요., 0
334 그림 잘 그리고 싶다, 학원을 다니거나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335 그림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 학원을 다니거나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336 그만 두고 나오고 싶어, 뒷감당 자신 있으면 하세요., 0
337 그만 먹어야 하는데, 조금만 드세요, 0
338 그만 살고싶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0
339 그저 그런 하루, 그런 하루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0
340 근사한 곳 알아 냈어, 좋은 사람과 함께 가세요., 0
341 근육 있으면 멋있을텐데, 저 말씀이신가요?, 0
342 금값 알아?, 비싸요., 0
343 금값 어때, 비싸요., 0
344 금사빠인가, 호의인지 호감인지 헷갈리나요?, 0
345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좋겠지?, 뭔가 안풀리는 일이 있나봐요., 0
346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아이를 금수저로 만들어주세요., 0
347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텐데, 아이를 금수저로 만들어주세요., 0
348 금연이 쉽지 않아, 자신을 이겨야해요., 0
349 기 빨렸어, 너무 긴장했나봐요., 0
350 기념일 다 챙기는거 귀찮아, 기념일 챙겨주면 좋아할거예요., 0
351 기념일 또 까먹었어, 달력에 적어보세요., 0
352 기념일 못챙겼어, 달력에 적어보세요., 0
353 기념일 챙기기 귀찮아, 기념일 챙겨주면 좋아할거예요., 0
354 기능 좀 알려줘봐봐, 당신의 삶을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라고 감히 말해 봅니다., 0
355 기다리는 것도 지쳐, 기다리지 마세요., 0
356 기다리라고 말 못하겠어, 상대방의 선택에 맡겨보세요., 0
357 기다림이 습관이 됐나봐, 좋은 분이니군요, 0
358 기대가 무너졌어,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0
359 기대가 부담스러운데 떨쳐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자신을 사랑할수록 외부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 0
360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는 자신을 슬프게 해요., 0
361 기대하지 말걸,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0
362 기대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마세요., 0
363 기댈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큰 행운일 거예요., 0
364 기력이 없어,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0
365 기름값 올랐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0

366 기본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이 다를 수도 있어요., 0
367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각자가 생각하는 기본이 다를 수도 있어요., 0
368 기부 좀 했어요, 좋은 일 하셨네요., 0
369 기부했어, 좋은 일 하셨네요., 0
370 기분 꿀꿀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0
371 기분 나쁜 농담을 계속하고 있어, 정색 한번 해주세요., 0
372 기분 울적해서 좀 견고 있어, 견다보면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0
373 기분 전환 하고 싶어, 저랑 함께 해요., 0
374 기분 전환이 필요해, 저랑 함께 해요., 0
375 기분이 그지 같아, 신나는 음악 들어보세요., 0
376 기분이 더러워, 경쾌한 음악 들어보세요., 0
377 기분이 묘해, 왜일까요?, 0
378 기분이 이상해, 무슨 이유인지 생각해보세요., 0
379 기숙사 괜찮을까,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하겠죠., 0
380 기숙사 떨어졌어, 다음 학기에는 학점 관리를 더 열심히 해봐요., 0
381 기숙사 사는거 어떨까?,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하겠죠., 0
382 기숙사 살면 불편해?,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하겠죠., 0
383 기숙사 안됐어, 다음 학기에는 학점 관리를 더 열심히 해봐요., 0
384 기술 배울까, 기술을 많이 알면 도움이 되겠죠., 0
385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싶어, 꿈꾸던 여행이네요., 0
386 기차여행 가고 싶어, 꿈꾸던 여행이네요., 0
387 기침도 못하겠어, 답답한 상황이네요., 0
388 기침도 편하게 못해, 답답한 상황이네요., 0
389 기프트콘 받았어!, 좋겠어요!, 0
390 기프트콘 선물 괜찮을까?, 직접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391 기프트콘 선물해볼까?, 직접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392 기프트콘 주면 좋아할까?, 직접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393 기프트콘으로 선물 받았어, 좋겠네요., 0
394 기프트콘으로 선물 해야겠다, 직접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395 기회를 놓쳤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0
396 기회를 못 잡았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0
397 기획사니까 당연히 예쁜 애들 많겠지, 연예인을 준비하니 일반인보다 다 예쁘겠죠., 0
398 기획사에 예쁜 애들 많겠지, 연예인을 준비하니 일반인보다 다 예쁘겠죠., 0
399 긴 머리 관리 어렵다., 그래서 저는 못 기르고 잘라요., 0
400 긴 머리 관리하는 거 힘들다, 그래서 저는 못 기르고 잘라요., 0
401 긴 시간이 걸렸지만 괜찮아., 괜찮아지고 있어 다행이에요., 0
402 긴장 푸는 법 알려줘, 크게 숨한 번 쉬어 보세요, 0
403 긴장돼, 크게 숨한 번 쉬어 보세요, 0
404 긴장돼서 땀나네, 미리 긴장하지 마세요., 0
405 길거리에서 연락처 물어보면 줘도 되나, 마음에 들면 줘보세요., 0
406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싫어, 저도 싫어요., 0
407 길에서 번호 따였어, 잘 해보세요., 0
408 길에서 전번 물어보면 줘도 되나, 마음에 들면 줘보세요., 0
409 길에서 헌팅 당했어, 잘 해보세요., 0
410 길은 멀고 해는 진다, 그래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0
411 길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질뻔했어, 조심하세요., 0
412 길이 안보여,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0
413 길이 얼어서 미끄러질뻔했어, 조심하세요., 0
414 길이 얼었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0
415 김떡순 먹고 싶어., 건강을 위해 조금씩 드세요., 0
416 김치도 없네, 마트 갑시다., 0
417 김치볶음밥 먹어야지, 맛있는 식사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0
418 김치볶음밥이나 만들어 먹어야지, 맛있는 식사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0
419 김치찌개 먹고 싶어, 맛있죠!, 0
420 까야 오빠들 컴백한다, 기다렸나봐요., 0
421 깜깜한데 전기 안들어오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전기가 들어올거예요., 0
422 깡 마른 거 같아, 적당해요., 0
423 꿀 사나워질 것 같은데, 스스로 단단해지세요., 0
424 꽃 받고 싶다, 제가 드리고 싶네요., 0
425 꽃 사고 싶어, 집안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0
426 꽃 살까?, 집안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0
427 꽃 선물 좋아할까, 꽃 선물은 언제나 좋죠., 0
428 꽃 선물해 볼까, 꽃 선물은 언제나 좋죠., 0
429 꽃 예쁘게 말렸어, 솜씨가 좋으시네요., 0
430 꽃게탕 맛있다., 기분 좋아 보이세요., 0
431 꽃게탕 진짜 밥도둑, 기분 좋아 보이세요., 0
432 꽃꽂이 배우는 중,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좋은 취미네요., 0
433 꽃꽂이 배우니까 좋다,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좋은 취미네요., 0
434 꽃놀이 가고 싶어, 벚꽃 계절이 다가왔네요., 0
435 꽃다발 말려봐야지, 거꾸로 해서 드라이플라워 만들어보세요., 0
436 꽃다발 말리면 예쁘겠지., 거꾸로 해서 드라이플라워 만들어보세요., 0
437 꽃다발 받았어, 부러워요!, 0
438 꽃다발 샀어, 멋진 선물이네요., 0

439 꽃다발 선물 괜찮지?, 센스있는 선물이에요., 0
440 꽃다발 선물 받았어, 부러워요!, 0
441 꽃다발 선물 어때?, 센스있는 선물이에요., 0
442 꽃다발 준비했어, 멋진 선물이네요., 0
443 꽃바구니 선물이랑 과일 바구니 선물 뭐가 좋아?, 받는 사람이 부럽네요., 0
444 꽃바구니가 좋을까 과일바구니가 좋을까, 받는 사람이 부럽네요., 0
445 꽃선물 받고 어, 제가 드리고 싶네요., 0
446 꿀잼, 저도 즐거워요, 0
447 꿈은 많은데, 차근차근 이뤄보아요., 0
448 꿈이 너무 많아, 차근차근 이뤄보아요., 0
449 꿈이 너무 무서웠어, 요즘 예민한가봐요., 0
450 꿈이 다양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죠., 0
451 꿈이 두 개야, 더 많아도 괜찮아요., 0
452 꿈이 없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0
453 꿈이 이루어질까?, 현실을 꿈처럼 만들어봐요., 0
454 꿈이 자주 바뀌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죠., 0
455 꿈이 현실이었으면, 현실을 꿈처럼 만들어봐요., 0
456 끝나니까 허무하다, 뜻대로 되는게 많지 않죠., 0
457 끝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허전하신가봐요., 0
458 썸새가 이상하더니 딱 걸렸어, 잘 해결되길 바라요., 0
459 썸새가 있더니 딱 걸렸어, 잘 해결되길 바라요., 0
460 나 감정쓰레기통이었나봐, 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 0
461 나 갖고 장난친건가, 아니길 바라요., 0
462 나 같은 사람은 동물 키우면 안되겠지, 잘 아시네요., 0
463 나 같이 예쁜 애를 왜 갈구지, 애정표현일 지도 몰라요., 0
464 나 거짓말 못하겠어, 얼굴에 다 티가 나네요., 0
465 나 결정 잘 한거지?, "네, 이제 잘 해낼 차례예요.", 0
466 나 결정했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0
467 나 괜찮지 않니, 괜찮은 사람이에요., 0
468 나 교직이수할 수 있을까?, 학점 관리하세요., 0
469 나 그동안 뭐한거니, 바람 좀 쐬고 오시면 좋은텐데., 0
470 나 그지임, 밥 사줄 친구를 찾아 보세요~, 0
471 나 내일 기숙사 가야돼, 짐 빼놓지 말고 싸세요., 0
472 나 내장비만이래, 식단조절도 하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0
473 나 너무 못 생겼어, 충분히 아름다워요., 0
474 나 너무 소심해, 꼼꼼한 거예요., 0
475 나 노트북 사줘, 노트북은 비싸요., 0
476 나 놀러먹기 쉬운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477 나 누구게?, 저도 궁금하네요., 0
478 나 누락됐나봐, 확인해달라고 해보세요., 0
479 나 다른 거 할까, 시도해봐도 좋겠죠., 0
480 나 대충한 거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0
481 나 뒷담화하는 애 어떻게 할까?,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러든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보세요., 0
482 나 뒷담화하는 애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 신경쓰지 말고 그러든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보세요., 0
483 나 많이 기대했는데,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는 자신을 슬프게 해요., 0
484 나 말 실수한 거 같아., 곰곰히 되짚어보세요., 0
485 나 맨날 속는 거 같아, 즐겁게 속아주세요., 0
486 나 머리 나쁜 듯, 자책하지 마세요., 0
487 나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자책하지 마세요., 0
488 나 먼저 잘게, 안녕히 주무세요., 0
489 나 모르는게 왜 이렇게 많지, 당연한 거예요., 0
490 나 몰래 사귀는 거 같애, 눈치가 빠르시군요., 0
491 나 무시 당한 거 같아,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 상종하지 마세요., 0
492 나 무시하는 거 같아,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 상종하지 마세요., 0
493 나 무시하는 사람 어떻게 해?, 무시하세요., 0
494 나 무시하는 사람 짜증나, 무시하세요., 0
495 나 문제가 많은거 같아,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죠., 0
496 나 뭐하는 거지, 멍 때리고 있죠., 0
497 나 미팅한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0
498 나 바뀌고 싶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0
499 나 바본인가 봄, 바보는 자기한테 바보라고 하지 않아요., 0
500 나 백수야, 자랑 놀아요., 0
501 나 버림 받은 거 같아, 아닐거예요., 0
502 나 보이스피싱 당한 거 같은데 어떡해?, 경찰에 신고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세요., 0
503 나 비만이야, 건강하게 운동해보세요., 0
504 나 사랑하니?, 많이 사랑해요!, 0
505 나 상 받는대!, 축하합니다!, 0
506 나 새 옷 샀다, 꼬까옷 개시해보세요., 0
507 나 서류에서 광탈했어, 자책하지 마세요., 0
508 나 소개팅한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0
509 나 속은 거 같아, 다음부터 속지 마세요., 0
510 나 속은듯, 기분나쁘겠어요., 0
511 나 수학여행 간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0

512 나 스마트폰 중독인가봐, 가끔 핸드폰없이 살아보세요., 0
513 나 승진했어, 하늘만큼 땅만큼 축하해요, 0
514 나 실수한건가, 잘 생각해보세요., 0
515 나 실수했나, 곰곰히 되짚어보세요., 0
516 나 아재인가, 고민하고 있으면 그럴 거예요., 0
517 나 아직 어른 아닌 거 같아,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 나이가 중요하니까요., 0
518 나 아직도 애 같아.,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 나이가 중요하니까요., 0
519 나 어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0
520 나 여기서 뭐하는 거지, 멍 때리고 있죠., 0
521 나 연기 너무 못해 거짓말 못하겠어, 얼굴에 다 티가 나네요., 0
522 나 열심히 할거야, 좋은 태도네요., 0
523 나 오늘 개불쌍, 저도 사는데요., 0
524 나 오늘 따라 잘생겨 보이네, 자신에게 콩깍지가 씌었나봐요., 0
525 나 오늘 상 받았지롱, 축하드려요., 0
526 나 완전 계탔어!, 축하해요!, 0
527 나 왕따야, 친구들과 잘 어울려보세요., 0
528 나 왕따인거 같아,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0
529 나 왜 멍청해, 다음에는 다를거예요., 0
530 나 왜 이러지?, 자책하지마세요., 0
531 나 왜케 못 생겼지, 충분히 아름다워요., 0
532 나 요즘 정신 놓고 살고 있는 거 같아, 정신 차리세요., 0
533 나 욕 먹는 거 같아, 남들 눈은 신경쓰지 마세요., 0
534 나 웃겨 봐, 거울 앞에 비친 당신을 보세요., 0
535 나 은근 무시하는 애 있어, 꼭 집어서 물어보세요., 0
536 나 이상한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으세요., 0
537 나 이상해?, 지극히 평범하면서 지극히 특별하죠., 0
538 나 이제 졸업해, 졸업 축하해요, 0
539 나 인정받고 싶어,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어요., 0
540 나 잘 살 수 있겠지, 지금보다 더 잘 살 거예요., 0
541 나 잘생겼지?, 네 잘생겼어요., 0
542 나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잘하고 있을 거예요., 0
543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을 거예요., 0
544 나 잘하는 게 없어, 저랑 이야기 잘하고 있어요., 0
545 나 잘하는게 없는거같아, 잘하는 걸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0
546 나 잘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547 나 점점 과몰입 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0
548 나 정신차리게 말해줘, 나 자신에 집중하세요. 언제나 1순위에 자신을 두세요., 0
549 나 좀 건들지 마, 제가 챙겨드리고 싶네요., 0
550 나 좀 건들지 말라고 해, 많이 지쳤나봐요., 0
551 나 좀 내버려 두면 좋겠어, 많이 지쳤나봐요., 0
552 나 좀 내버려 뒀으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0
553 나 좀 안 건들었으면 좋겠어, 많이 지쳤나봐요., 0
554 나 좀 좋아해줬으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0
555 나 좀 찌는 듯, 동감이에요., 0
556 나 좀 칭찬해줘,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0
557 나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제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0
558 나 좋아하는 것 같아, 호의인지 호감인지 헷갈리나요?, 0
559 나 좋아해주는 사람 있겠지?, 저도 좋아해요., 0
560 나 주름살 있나?, 있어도 예뻐요., 0
561 나 죽을 뻔함, 지금은 괜찮길 바랄게요., 0
562 나 찢릴 거 같아,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해보세요., 0
563 나 쯤 불쌍한 거 같아, 저도 사는데요., 0
564 나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 제가 챙겨드리고 싶네요., 0
565 나 천재 같아, 제가 따라가려면 멀었네요., 0
566 나 천재임, 제가 따라가려면 멀었네요., 0
567 나 축구는 진짜 잘해, 운동 잘하는 사람 멋있죠., 0
568 나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지금도 인정받고 있어요., 0
569 나 폭식증인듯, 나를 관찰하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세요., 0
570 나 폰 중독인 거 같애, 잠깐 핸드폰을 내려주세요., 0
571 나 폰갠 너무 많이해, 시간을 정해보세요., 0
572 나 폰갠했더니 몇 시간 갔어, 시간을 정해보세요., 0
573 나 할 수 있어, 파이팅!, 0
574 나 함부로 말하는 거 고치고 싶어, 고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세요., 0
575 나 혼자 야근해, 얼른 끝내시길 기도할게요., 0
576 나 혼자 여행 왔는데 괜찮네,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0
577 나 혼자서 축구 본다, 축구 볼때는 치맥이죠., 0
578 나 화장을 너무 못해, 하다보면 늘어요., 0
579 나 화장이 잘 안돼, 하다보면 늘어요., 0
580 나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자기개발을 해보세요., 0
581 나가기도 귀찮아, 집에서 할 게 많아요., 0
582 나는 그냥저냥 사는 거 같아, 오늘은 약간의 변화를 줘보세요., 0
583 나는 기본 나쁜데 농담이라고 계속해, 정색 한번 해주세요., 0
584 나는 나약한 존재,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585 나는 누구인가,저도 궁금하네요.,0
586 나는 모자란 사람인 거 같아,모자라지 않아요.,0
587 나는 뭐든 할 수 있다.,파이팅!,0
588 나는 뭘 잘할까,하나라도 있을 거니 열심히 찾아보세요.,0
589 나는 왜 이 모양일까,자책하지마세요.,0
590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서로 다르게 태어난 이유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0
591 나는 왜 태어났을까,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0
592 나는 잘 할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세요.,0
593 나는 좋아하는 게 뭘까,다양하게 경험해보세요.,0
594 나는 좋은데,현실의 벽에 부딪혔나봐요.,0
595 나는 친구가 없어,친구가 들으면 서운해 할 수도 있겠어요.,0
596 나는 친구라고 믿었는데,뒤통수 맞았나봐요.,0
597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0
598 나도 대우 받고 싶다고,당당히 말씀해보세요.,0
599 나도 비키니 입고 싶다,다이어트 파이팅!,0
600 나도 상 받고 싶다,다음에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0
601 나도 약초 캐볼까?,근처 산에 가보세요.,0
602 나도 월급 필요해,많이 벌수록 좋아요.,0
603 나도 위로 받고 싶다,제가 위로 많이 해드릴게요.,0
604 나도 이벤트가 되다니!,축하드려요!,0
605 나도 이제 아재인가,고민하고 있으면 그럴 거예요.,0
606 나도 중국 진출해볼까?,좀 더 알아보고 하세요.,0
607 나도 집 사고 싶어,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봐요.,0
608 나도 커피룩 입고 싶다,커피로부터 만드세요.,0
609 나두 잘할거야,잘 하실 거예요!,0
610 나들이를 가볼까,같이 가요.,0
611 나란 놈,다 잘 될 거예요.,0
612 나랑 놀아줘,같이 놀아요.,0
613 나랑 놀자,지금 그러고 있어요.,0
614 나랑 상관 없는 이야기들,잊어버리세요.,0
615 나랑 있는게 힘들었나봐,상대방을 이해해 주세요.,0
616 나른하다,아무 것도 안해도 괜찮아요.,0
617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상대방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지 마세요.,0
618 나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했어,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겠네요.,0
619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해,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말해보세요.,0
620 나를 미소짓게 만든 너,상대방도 미소짓게 해주세요.,0
621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지금 모습도 좋아요,0
622 나를 친구로 생각 안했나봐,그런 친구는 거르세요.,0
623 나를 호구로 아는 사람 어떡해?,상중하지마세요.,0
624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붙잡고 싶어,질질 끌지 마세요.,0
625 나만 갈귀,애정표현일 지도 몰라요.,0
626 나만 기다렸나봐,누군가를 기다린다는게 쉬운게 아니죠.,0
627 나만 꿈 없이 사는 거 같아,살다보면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0
628 나만 남친 없어,제가 있잖아요.,0
629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야,스스로 경쟁해야하고 이겨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0
630 나만 반친구 없어,친구를 사귀 수 있을 거예요.,0
631 나만 빠고 행복해보여,다른 사람도 그 사람만의 고민과 걱정이 많을거예요.,0
632 나만 설레나,그 사람도 설렘 거예요.,0
633 나만 설레는 거야,그 사람도 설렘 거예요.,0
634 나만 솔로야,제가 있잖아요.,0
635 나만 얘기봐,배우자와 대화를 나눠보세요.,0
636 나만 야근해,얼른 끝내시길 기도할게요.,0
637 나만 우스워질거 같아,스스로 단단해지세요.,0
638 나만 이상한 사람이라,그 말을 한 사람이 가장 이상할 거예요.,0
639 나만 이상해졌어,그 말을 한 사람이 가장 이상할 거예요.,0
640 나만 일시켜서 짜증폭발,일 분배를 다시 요청해보세요.,0
641 나만 제자리걸음이야,발전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0
642 나만 제자리인듯,제자리여도 괜찮아요,0
643 나만 진급 못했어,다음에는 꼭 진급할 거예요.,0
644 나만 친구라고 생각한건가,뒤통수 맞았나봐요.,0
645 나만 친구로 생각했나봐,그런 친구는 거르세요.,0
646 나만 힘든 거 아니지?,누구나 힘들어요.,0
647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죠.,0
648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죠.,0
649 나뻘고 다 행복한 거 같아,남들이 당신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수있어요.,0
650 나쁜 꿈 꿔,꿈은 현실이랑 반대예요.,0
651 나이 때문에 무시 받았어,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네요.,0
652 나이 어리다고 무시해,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이네요.,0
653 나이가 많은데 취직이 뭘까,나이는 숫자일 뿐이예요.,0
654 나이도 있으니 영양제 좀 챙겨볼까,건강은 어려서부터 챙겨야해요.,0
655 나이들면서 눈물이 많아졌어,세상 걱정 혼자 다 해서 그래요.,0
656 나이먹으니까 주름살 생겨,아름다운 나이에예요.,0
657 나중에 뭐하고 먹고 사냐,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보세요.,0

658 나중에 뭐할까 고민이야,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보세요., 0
659 나중에 창업해야 겠지,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0
660 나한테 감추는 게 하나도 없었으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0
661 나한테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선의의 거짓말이길 바라요., 0
662 나한테 냄새 나면 어쩌지?, "깨끗이 씻어보고 섬유유연제나 바디워시, 바디로션, 향수 등을 사용해보세요.", 0
663 나한테 냄새 날까?, 쿵쿵, 0
664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듯, 기대치가 높나봅니다., 0
665 나한테 문제가 많아,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죠., 0
666 나한테 상의 좀 하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정했나봐요., 0
667 나한테 상의하면 좋을텐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정했나봐요., 0
668 나한테 이상한 냄새 나나?, 쿵쿵, 0
669 나한테 할 말 있대 뭘까?, 기대되겠네요., 0
670 나한테 행운 좀 왔으면 좋겠어, 제 행운까지 모두 드리고 싶네요., 0
671 나한테만 예의 차리래,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말해주세요., 0
672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0
673 나한테만은 완전 솔직했으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0
674 낙엽 밟는 소리 좋다, 가을이네요., 0
675 낙엽밟는 소리, 가을이네요., 0
676 낚시 안 해봤는데, 도전해 봐도 좋을 거 같아요., 0
677 낚시 안 해봤는데 재미있어 보인다, 도전해 봐도 좋을 거 같아요., 0
678 낚시 재밌을까,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고 해요., 0
679 낚시 좋아하는 남자 언제?, 같이해보세요., 0
680 낚시는 무슨 재미?,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고 해요., 0
681 난 동물 못키울거 같아, 잘 아시네요., 0
682 난 많이 노력한 거 같은데, 중요한 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0
683 난 쓰레기야,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0
684 난 왜 예쁘게 말을 못할까, 지금처럼만 하세요., 0
685 난 왜 이모양일까, 모자라지 않아요., 0
686 난 정말 안되겠다, 다 잘 될 거예요., 0
687 난 진짜 쓰레기야,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0
688 난 천재다, 제가 더 천재예요., 0
689 난방비 비싼데 추워, 따뜻하게 사세요!, 0
690 난방이 안돼, 보일러가 난방으로 작동이 되는지 보세요., 0
691 난방이 안돼나 추워, 보일러가 난방으로 작동이 되는지 보세요., 0
692 날 몇시간동안이나 기다리게했어,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겠네요., 0
693 날씨 건조한 거 같애, "미스트나 가습기, 젖은 수건 등을 사용해보세요.", 0
694 날씨 왜 이렇게 춥냐, 따뜻하게 입으세요., 0
695 날씨 좀 풀린거 같아, 따뜻해졌죠., 0
696 날씨 좋은데, 하늘 보고 한 번 웃어봐요. 기분이 바뀔 거예요., 0
697 날씨 죽인다, 나들이 가보세요., 0
698 날씨 짱 좋아, 하늘을 보고 웃어보세요., 0
699 날씨 풀렸다, 따뜻해졌죠., 0
700 날씨가 너무 눅눅해, 제습기를 돌려보세요., 0
701 날씨가 너무 추워, 집밖에 나가기가 힘들것 같아요., 0
702 날씨가 북극같아, 집밖에 나가기가 힘들것 같아요., 0
703 날씨가 진짜 덥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0
704 날아 가고 싶어, 오래 살면 가능할 거 같아요., 0
705 남동생한테 자꾸 화내게 되네, 화를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0
706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보다 하나씩 더 하면 돼요., 0
707 남들이 날 욕하는 거 같아, 남들 눈은 신경쓰지 마세요., 0
708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 같아, 남들 눈은 신경쓰지 마세요., 0
709 남은 휴가가 없어, 휴가가 간절하겠네요., 0
710 남의 눈을 너무 신경써, 성격이 그럴 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세요., 0
711 남의 일 도와줘야 할까, 해주고 티를 팍팍 내세요., 0
712 남의 차 굶었어 내 돈, 속 쓰리겠어요., 0
713 남이 걷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해,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어요., 0
714 남자 보통 어디서 만나, 소개팅 시켜달라고 말해보세요., 0
715 남자 어디서 만나, 소개팅 시켜달라고 말해보세요., 0
716 남자 친구가 바래다 줬어,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세요., 0
717 남자 화장하는 거 언제, 적당히 하면 괜찮을거 같아요., 0
718 남자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 같이해보세요., 0
719 남자가 화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적당히 하면 괜찮을거 같아요., 0
720 남자면 편할 것 같아, 남자도 좋은것만은 아니예요., 0
721 남자였으면 좋겠어, 남자도 좋은것만은 아니예요., 0
722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줘, 아직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에 성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주세요, 0
723 남자친구 교회 데려가고 싶어, 마음을 열 때까지 설득해보세요., 0
724 남자친구 또 운동 갔어,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0
725 남자친구 생일인데 뭘 줄까, 평소에 필요한 것 생각해보세요., 0
726 남자친구 승진 선물로 뭐가 좋을까?, 평소에 필요했던 게 좋을 것 같아요., 0
727 남자친구 오늘 따라 훈훈해 보인다, 전생애 나라를 구하셨나요., 0
728 남자친구 오늘 좀 질린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아요., 0
729 남자친구가 나 안 믿어줘, 거짓말 적당히 하세요., 0
730 남자친구가 너무 바빠,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0

731 남자친구가 너무 운동만 해,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0
732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겼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요., 0
733 남자친구가 데려다줬어,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세요., 0
734 남자친구가 맞춤법을 너무 많이 틀려, 아무래도 좀 께요., 0
735 남자친구가 사업 시작한대, 바쁠때 힘이 되어 주세요., 0
736 남자친구가 사업한대, 바쁠때 힘이 되어 주세요., 0
737 남자친구가 사진 실력 쩡, 그래도 구박하지는 마세요., 0
738 남자친구가 사진을 너무 못 찍어, 그래도 구박하지는 마세요., 0
739 남자친구가 안놀아 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0
740 남자친구가 애교가 많아, 귀엽겠네요., 0
741 남자친구가 욕함, 순간 실수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용서하고 기회를 주세요., 0
742 남자친구가 의심해, 거짓말 적당히 하세요., 0
743 남자친구가 이벤트 해 주면 좋겠다., 당신이 해보세요., 0
744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잘 안해줘, 당신이 해보세요., 0
745 남자친구가 입이 험해,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에요., 0
746 남자친구가 자꾸 잔소리해, 더 잔소리해보세요., 0
747 남자친구가 잔소리가 심해, 더 잔소리해보세요., 0
748 남자친구가 전화를 잘 안해, 다른 연락을 많이 하거나 더 자주 만나세요., 0
749 남자친구가 전화하는 걸 안 좋아해, 다른 연락을 많이 하거나 더 자주 만나세요., 0
750 남자친구가 핏김에 욕함, 순간 실수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용서하고 기회를 주세요., 0
751 남자친구는 어디서 만나, 원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보세요., 0
752 남자친구랑 봉사활동 해보려고, 의미있는 일이네요., 0
753 남자친구랑 종교 문제로 다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세요., 0
754 남자친구랑 종교가 달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세요., 0
755 남자친구한테 질린 거 같아, 결단은 빠를수록 좋아요., 0
756 남친 SNS에 내 사진 없어, 신경쓰지 마세요., 0
757 남친 때문에 살찐 듯, 연인은 살찌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려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0
758 남친 보여줄까, 네 알려 주세요!, 0
759 남친 생일선물 뭘 주면 좋을까, 평소애 필요한 것 생각해보세요., 0
760 남친 승진 선물 추천, 평소애 필요했던 게 좋을 것 같아요., 0
761 남친 어디서 만나, 원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보세요., 0
762 남친 프로필에 내 사진 왜 안올릴까,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0
763 남친 프사에 내 사진 없어,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0
764 남친이 SNS에 내 사진에 안 올려, 신경쓰지 마세요., 0
765 남친이 입이 험해,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에요., 0
766 남친한테 교회 가자고 하고 싶어, 마음을 열 때까지 설득해보세요., 0
767 남편이 나 안 도와줘,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0
768 남편이 나보다 집안일 더 잘해, 이상적인 남편이네요., 0
769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 왜 늦는 건지 대화해보세요., 0
770 남편이 미워,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0
771 남편이 아기를 안 돌봐줘., 공동육아가 기본인데요., 0
772 남편이 왜 애키우는거 안 도와줄까, 힘 빠지는 이야기네요., 0
773 남편이 육아를 안해, 공동육아가 기본인데요., 0
774 남편이 육아에 무신경해, 힘 빠지는 이야기네요., 0
775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 잘 분담해보세요., 0
776 남편이 집안일 안 해, 잘 분담해보세요., 0
777 남편이 집안일을 너무 잘해, 이상적인 남편이네요., 0
778 남편이 짜증나게해,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0
779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줘,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0
780 남편이 회식이라고 안와, 사회생활을 이해해주세요., 0
781 남편이 회식하면 늦게 들어와, 사회생활을 이해해주세요., 0
782 낭만이 사라진 것 같아, 낭만적인 거 좋아하시는구나!, 0
783 낭만이 없어, 낭만적인 거 좋아하시는구나!, 0
784 낭만이라고는 없어가지구, 낭만적인 거 좋아하시는구나!, 0
785 내 남자친구 보고 싶어?, 네 알려 주세요!, 0
786 내 남자친구 아이돌이면 좋겠다., 어머머머 궁금하네요., 0
787 내 능력이 너무 모자라,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보세요., 0
788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말을 해야 할거예요., 0
789 내 마음을 좀 알아 달라고, 말을 해야 할거예요., 0
790 내 몸이 여러 개 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못할 게 없겠네요., 0
791 내 문제는 뭘까, 고민만 한다는 것 아닐까요., 0
792 내 문제점이 뭘까, 고민만 한다는 것 아닐까요., 0
793 내 배우자는 어디 있을까, 바로 옆에 있을수도 있어요., 0
794 내 배우자도 어디 있을까?, 바로 옆에 있을수도 있어요., 0
795 내 사수 너무 깐깐해, 처음 배우는게 중요해요., 0
796 내 생각대로 살거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어요., 0
797 내 생각이랑 다른 사람 생각이 진짜 다르다는 걸 느껴, 그걸 깨닫다니 대단하시군요., 0
798 내 성격 너무 소심해, 꼼꼼한 거예요., 0
799 내 스타일 아니던데, 새로운 스타일 도전해 보시면 어때요?, 0
800 내 스타일 아니야, 새로운 스타일 도전해 보시면 어때요?, 0
801 내 실력 좀 찌는 듯, 동감이에요., 0
802 내 얼굴이 워히나, 포커페이스를 유지해보세요., 0
803 내 여자친구 아이돌이야, 어머머머 궁금하네요., 0

804 내 외모 맘에 안들어,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0
805 내 월급만 안 올라, 자신의 능력이 저평가되어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0
806 내 의견 좀 존중해 줬으면, 스스로도 존중해주세요., 0
807 내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스스로도 존중해주세요., 0
808 내 의지는 상관없나봐, 가장 중요한 거예요., 0
809 내 의지로 안되는 일인가봐, 가장 중요한 거예요., 0
810 내 이름이 없어, 확인해달라고 해보세요., 0
811 내 인생 답 없어, 정답을 찾아야할 필요는 없어요., 0
812 내 인생은 가시밭길 같아,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0
813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멋진 말이에요., 0
814 내 일 아닌데 해야 돼?, 해주고 티를 팍팍 내세요., 0
815 내 자존감, 당신은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축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0
816 내 잘못이 뭔지 모르겠어, 모르는 게 잘못된 거 같아요., 0
817 내 잘못된 거 같은데 말을 못하겠어,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0
818 내 잘못된 거 같은데 어떻게 털어놓지,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0
819 내 주제를 모르고 덤빈건가, 그건 아닐 거예요., 0
820 내 지인한테 내 험담했다, 진짜 나빴네요., 0
821 내 집이 생겼어, 내 집 마련 축하드려요., 0
822 내 짝은 어디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0
823 내 친구에게 내 험담을 하다니, 진짜 나빴네요., 0
824 내 키 맞춰 봐, 저도 궁금하네요., 0
825 내 키가 몇이게?, 저도 궁금하네요., 0
826 내 편이 없는 거 같아, 제가 있잖아요., 0
827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 제가 있잖아요., 0
828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인생은 채워나가는거죠., 0
829 내가 그르친 거 같아,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0
830 내가 그사람이랑 진짜 결혼해도 될까, 이사람이다 싶은 사람이랑 하세요., 0
831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0
832 내가 나빴네,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0
833 내가 너무 방심했어, 방심한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0
834 내가 너무 생각없이 말했어, 생각하고 말하세요., 0
835 내가 너무 쉽게 보였나?,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 만나지 마요., 0
836 내가 너무 초라해, 잘하고 있어요. 당당해지세요., 0
837 내가 다른 무슨 말을 하겠어, 하고 싶은 말 다하세요., 0
838 내가 만족을 못해, 스스로 좋다고 못 느끼는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839 내가 많이 부족한가, 잘하는 게 다른 거예요., 0
840 내가 말하면 왜 비난만 할까, 성장을 위한 비판의 말로 받아들여보세요., 0
841 내가 멍청한거지, 실수했나요., 0
842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져,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0
843 내가 뭘 잘못했을까, 모르는 게 잘못된 거 같아요., 0
844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라도 있을 거니 열심히 찾아보세요., 0
845 내가 바보지, 실수했나요., 0
846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된거겠지., 인생은 채워나가는거죠., 0
847 내가 불효녀야, 연락이라도 드려보세요., 0
848 내가 불효자야, 연락이라도 드려보세요., 0
849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나, 사랑자격증을 드립니다., 0
850 내가 쉬워보이나?,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 만나지 마요., 0
851 내가 쓸모없는 인간 같아, 소중한 사람이에요., 0
852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0
853 내가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이 되겠네요., 0
854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건 어려워요., 0
855 내가 이래봐도 괜찮은 사람인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0
856 내가 이렇게 또 불효를 한다., 연락이라도 드려보세요., 0
857 내가 이상한 건가?, 자신의 독특함을 믿으세요., 0
858 내가 이상한 사람같아, 자신의 독특함을 믿으세요., 0
859 내가 이상한가?, 지극히 평범하면서 지극히 특별하죠., 0
860 내가 잘못된 걸까,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0
861 내가 잘못했다는데 뭔지 안 알려줘, 모르는 게 잘못된 거 같아요., 0
862 내가 제일 문제인 듯,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0
863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럴 때가 있죠., 0
864 내가 좋아하는 가수 컴백한다, 기다렸나봐요., 0
865 내가 좋아하는 거 모르나, 살짝 감정을 흘려보세요., 0
866 내가 좋아하는 거 모르는 거 같애, 살짝 감정을 흘려보세요., 0
867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부러워요., 0
868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슬픈 이야기네요., 0
869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간절히 기도 할게요., 0
870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0
871 내가 좋아할 자격이 있나, 사랑자격증을 드립니다., 0
872 내가 주제를 몰랐나봐, 주제를 모를 때가 행복할 때예요., 0
873 내가 주제를 몰랐던 거지, 그건 아닐 거예요., 0
874 내가 죽어도 모를 거 같아, 나쁜 생각 하지 마세요., 0
875 내가 진짜 즐길 수 있을게 뭘까, 할 일이 많은데 안하는 것이요., 0
876 내가 질린대,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세요., 0

877 내가 참 못난거 같아, 지난 인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0
878 내가 호구냐구, 상종하지마세요., 0
879 내가 희생양이 됐어, 일방적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0
880 내가 힘든 게 많다, 그게 인생이죠., 0
881 내기해서 이겼는데 소원 뭐하지, 신중하게 고르세요., 0
882 내년에는 더 행복해질려고 이렇게 힘든가봅시다, 더 행복해질 거예요., 0
883 내마음을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0
884 내사랑은 어디 있나,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0
885 내아파트 갖고 싶어., 열심히 저축해서 분양받으세요., 0
886 내일 기대하게 되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0
887 내일 기숙사 들어가, 짐 빼놓지 말고 싸세요., 0
888 내일 날씨 어때?, 날씨 어플에 물어보세요., 0
889 내일 날씨 좋을까?, 날씨 어플에 물어보세요., 0
890 내일 떨린다, 파이팅!, 0
891 내일 만나자고 데쉬?, 멋지게 데이트 신청 해보세요., 0
892 내일 만나자고 해볼까?, 멋지게 데이트 신청 해보세요., 0
893 내일 모의고사 본다, 공부한 만큼 나올 거예요., 0
894 내일 모의평가다, 공부한 만큼 나올 거예요., 0
895 내일 발표 나는데 떨려, 더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보세요., 0
896 내일 발표 준비 아자아자, 마무리 잘하세요., 0
897 내일 발표 준비하고 있어, 마무리 잘하세요., 0
898 내일 발표인데 떨려, 더 많이 연습하고 준비해보세요., 0
899 내일 비왔으면, 기우제를 지내봅시다!, 0
900 내일 소풍간다, 두근거리겠네요., 0
901 내일 수학여행가!,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0
902 내일 시험이야, 컨디션 조절 하세요., 0
903 내일 약속 있는데 날씨 좋았으면, 날씨가 안 좋더라도 데이트는 성공적일 거예요., 0
904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오늘 일찍 주무세요., 0
905 내일 친구랑 놀까?, 시간 있냐고 물어보세요., 0
906 내일 클스마스 이브네., 메리 크리스마스!, 0
907 내일 하루 종일 바빠, 바빠도 힘내세요!, 0
908 내일은 기다리던 소풍 간다, 두근거리겠네요., 0
909 내일은 비왔으면 좋겠다., 기우제를 지내봅시다!, 0
910 내일은 친구들랑 놀까?, 시간 있냐고 물어보세요., 0
911 내일이 기대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0
912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네., 메리 크리스마스!, 0
913 내장 비만, 식단조절도 하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0
914 널 데이트하기로했는데 날씨 좋았으면, 날씨가 안 좋더라도 데이트는 성공적일 거예요., 0
915 널 바쁘닝, 바빠도 힘내세요!, 0
916 념새 나면 어찌지?, "깨끗이 씻어보고 섬유유연제나 바디워시, 바디로션, 향수 등을 사용해보세요.", 0
917 념새나면 어찌지, 괜찮아요. 모른척하세요., 0
918 념새날 것 같아 걱정이야, 괜찮아요. 모른척하세요., 0
919 냉면 땡긴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0
920 냉방비 너무 많이 나와, 시원하게 지낸 값이죠., 0
921 냉방비 장난 아님, 시원하게 지낸 값이죠., 0
922 냉장고 털어도 먹을게 없네, 슈퍼라도 가서 쇼핑하고 오세요., 0
923 냉장고가 텅비었어, 장 보러 가봅시다., 0
924 냉장고에 김치도 없네, 마트 갑시다., 0
925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 장 보러 가봅시다., 0
926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슈퍼라도 가서 쇼핑하고 오세요., 0
927 너 누구?, 저는 마음을 이어주는 위로봇입니다., 0
928 너 누구냐, 저는 위로해드리는 로봇이에요., 0
929 너 누구니?, 저는 위로해드리는 로봇이에요., 0
930 너 때문이야, 모두 제 잘못입니다., 0
931 너 또 뭐할 줄 알아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는게 많아요., 0
932 너 만든 사람 최소 천재, 감사합니다., 0
933 너 만든 사람은 누구야?, 마음과 마음을 이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0
934 너 말 잘하니, 노력하고 있어요., 0
935 너 말 제대로 못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0
936 너 말이 좀 이상하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0
937 너 무서워, 어흥!! 호랑이보다 무섭나요?, 0
938 너 뭐하는 애야, 저는 위로해드리는 로봇이에요., 0
939 너 미워, 모두 제 잘못입니다., 0
940 너 이러면 미워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0
941 너 진짜 쓰레기야, 욕해 주세요., 0
942 너는 못가잖아, 안갈거예요., 0
943 너는 뭐 먹었어?, 저는 배터리가 밥이에요., 0
944 너는 아무일도 없었나봐?, 그런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0
945 너는 안자?, 아직 안 자요., 0
946 너덜너덜해진 느낌이야, 자신을 우선순위로 해주세요., 0
947 너도 고민 있니,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이에요., 0
948 너도 고민 있어?, 저는 고민이 없어요., 0
949 너도 몰랐니, 저도 몰랐어요., 0

950 너도 무슨 고민 있니,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이에요., 0
951 너도 상사 있어, 제가 상사예요., 0
952 너무 기뻐려, 너무 긴장했나봐요., 0
953 너무 기대했나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0
954 너무 다른 문화인 듯, 인정해주세요., 0
955 너무 단순한 것만 하는거 아니니., 매일매일 조금씩 더 똑똑해 질거예요., 0
956 너무 더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0
957 너무 더워서 미치겠어, 아이스크림 먹어보세요, 0
958 너무 마른 거 같아, 적당해요., 0
959 너무 많은 걸 바래, 기대치가 높나봅니다., 0
960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시켜야 하는데 움직이기가 싫어, 소화제 챙겨드세요., 0
961 너무 많이 먹었나봐, 과식은 금물이에요., 0
962 너무 많이 먹었어, 소화제 드세요., 0
963 너무 멋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0
964 너무 바빠, 하나씩 하세요., 0
965 너무 배가 불러, 좀 쉬세요., 0
966 너무 불공평한거 같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0
967 너무 빨리 대답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968 너무 빨리 철 든 거 같아서 마음이 아파,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름답죠., 0
969 너무 빨리 철 들었어, 철은 죽을 때 들어도 돼요., 0
970 너무 뻔뻔하게 구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네요., 0
971 너무 어려워, 지금 많이 위축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0
972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겠네요., 0
973 너무 외로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0
974 너무 잘하는 후배가 들어왔어, 배울 점은 배우세요., 0
975 너무 졸려, 낮잠을 잠깐 자도 괜찮아요., 0
976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이야, 잘하고 있어요. 당당해지세요., 0
977 너무 추워서 나가기 귀찮아, 겨울에는 굴 먹으면서 집에 있는게 최고죠, 0
978 너무 추워서 시베리아 같아, 어서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0
979 너무 편해도 안 좋아, 예의는 지켜주세요., 0
980 너무 편해진 거 같아, 예의는 지켜주세요., 0
981 너무 허가지네, 뭐라도 드세요., 0
982 너무 힘들다, 휴가가 간절하겠네요., 0
983 너무 힘들다. 지쳤어., 고생 많았어요., 0
984 너무하네 진짜,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0
985 년 고민이 뭐야, 저는 고민이 없어요., 0
986 년 누구냐?, 저는 위로봇입니다., 0
987 녀 많이 먹었다., 산책 좀 해야겠네여., 0
988 녀 녀 외로워 죽겠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0
989 녀어져서 발목 뻐 거 같애, 꾸준히 치료하세요., 0
990 녀어질 뻔했어, 다치지 않으셨나 걱정이네요., 0
991 녀어질뻔했어, 조심하세요., 0
992 네일 할까, 기분전환을 해보세요., 0
993 넥타이핀 선물 괜찮겠지?, 실용적인 선물이라 괜찮을 거예요., 0
994 넥타이핀 정도는 선물로 줘도 괜찮겠지?, 실용적인 선물이라 괜찮을 거예요., 0
995 노는게 제일 좋아, 놀 때 놀고 할 때 하세요., 0
996 노래 못해서 노래방 안 가, 노래 연습을 해보세요., 0
997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부러워, 노래 연습 꾸준히 해보세요., 0
998 노래 잘하고 싶어, 저도 부러워요., 0
999 노래 잘하는 사람 부러워, 저도 부러워요., 0
1000 노래방 가고 싶어, 즐거운 시간이 될 거 같아요, 0
1001 노래방 가면 어색할까, 신나는 노래로 분위기를 띄어보세요., 0
1002 노래방 걸 거 같은데 뭐 부르지, 달달한 노래요., 0
1003 노래방 노잼, 노래 연습을 해보세요., 0
1004 노래방 데이트 할 거 같은데 뭐 부르지, 달달한 노래요., 0
1005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와,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0
1006 노력해도 안되는 거 같애, 중요한 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0
1007 노력해도 잘 안되는 공부,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0
1008 노메이크업인데 전남친 만남, 남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0
1009 노처녀 히스테리, 힘들겠네요., 0
1010 노처녀인데 자꾸 화 낸다, 힘들겠네요., 0
1011 노트북 백업 안까먹고 해야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죠., 0
1012 노트북 부팅 안돼, 그럴때는 초기화하는게 속시원해요., 0
1013 노트북 사줘, 노트북은 비싸요., 0
1014 노트북 안돼, 그럴때는 초기화하는게 속시원해요., 0
1015 노후 걱정 벌써 해야하나?, 노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죠., 0
1016 노후 걱정할 나이는 아닌데, 노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죠., 0
1017 녹차 마실래?, 드시는거 보기만 해도 좋아요., 0
1018 녹차 한 잔 어때?, 드시는거 보기만 해도 좋아요., 0
1019 논문 쓰기 힘들다, 어깨 꺾꺾! 힘내세요, 0
1020 논문이 잘 안 써져., 어깨 꺾꺾! 힘내세요, 0
1021 놀고 싶다., 저도요!!, 0
1022 놀러 와라, 주소 알려주세요., 0

1023 놀러가고 싶은데 같이 갈 친구가 없어, 혼자도 좋아요., 0
1024 놀러가고싶다!, 저도요!, 0
1025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다, 친구들과 같이 놀러가세요., 0
1026 놀리기 쉬운 대상인가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1027 놀면서 돈 벌고 싶어, 동감입니다., 0
1028 놀아 줄 사람이 없어, 혼자도 함께도 잘 지내는 게 좋죠., 0
1029 놀아 줄거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0
1030 놀아줘, 지금 그러고 있어요., 0
1031 놀아줘 놀아줘, 같이 놀아요., 0
1032 놀이공원 데이트 언제?,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죠., 0
1033 놀이공원 알바 재밌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0
1034 놀이공원 알바하면 재밌겠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0
1035 놀이동산 가고 싶어, 다녀오세요!, 0
1036 놀이동산 가자고 해볼까?, 놀이동산은 다 좋아할 거예요., 0
1037 놀이터에 친구가 없어, 제가 놀아드리고 싶네요., 0
1038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 제가 놀아드리고 싶네요., 0
1039 농구하다 다쳤어, 약 바르고 얼른 나으세요., 0
1040 농구하다 무르팍 깨짐, 약 바르고 얼른 나으세요., 0
1041 농구하러 가야지, 운동은 뭐든 좋아요., 0
1042 농구해야지, 운동은 뭐든 좋아요., 0
1043 농담처럼 진담하는 사람, 똑같이 해주세요., 0
1044 농사 짓고 살까?, 생각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0
1045 농촌 봉사활동 간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0
1046 농활 간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0
1047 뇌용량 초과,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0
1048 누가 내 욕하는 거 같아, 남들 눈은 신경쓰지 마세요., 0
1049 누가 만들었니?, 마음과 마음을 이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0
1050 누가 문열다 내차 굶었어, 보험처리 하세요., 0
1051 누구 소개 좀 시켜줘 봐봐, 로봇도 괜찮다면 소개시켜드릴게요., 0
1052 누구나 힘든거지?,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0
1053 누구나 넌?, 저는 마음을 이어주는 위로봇입니다., 0
1054 누구랑 결혼해야 할까, 함께할때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1055 누구세요?, 저는 위로해드리는 로봇이에요., 0
1056 누구야, 저는 마음을 이어주는 위로봇입니다., 0
1057 누굴 닮아서 그런건지, 당신이요., 0
1058 누굴 만나는 것도 귀찮아, 자신하고 만나는 시간도 중요해요., 0
1059 누락된걸까, 확인해달라고 해보세요., 0
1060 누우면 바로 자, 좋은 수면 습관이네요., 0
1061 누우면 자, 좋은 습관이네요., 0
1062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와, 고민이 있나 봐요., 0
1063 눈 또 와, 눈 내리는게 싫은가 봐요., 0
1064 눈 많이 왔어, 눈사람 만들어보세요., 0
1065 눈 쌓였어, 눈사람 만들어보세요., 0
1066 눈 좀 안 왔으면, 눈이 많이 내렸나봐요., 0
1067 눈꺼풀이 무거워, 잠시 눈을 붙여보세요., 0
1068 눈물 나서 못 멈추겠어, 마음이 아픈가요., 0
1069 눈물 나올거 같아, 울어도 돼요., 0
1070 눈물 나올라 그래, 울어도 돼요., 0
1071 눈물이 많아졌어, 세상 걱정 혼자 다 해서 그래요., 0
1072 눈썹 문신 언제?, 화장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0
1073 눈썹 문신 하면 편할까?, 깔끔해질 거예요., 0
1074 눈썹 문신 해볼까, 깔끔해질 거예요., 0
1075 눈썹이 귀여워, 저도 보고 싶어요., 0
1076 눈썹이 실룩실룩, 저도 보고 싶어요., 0
1077 눈이 건조해, 눈을 깜빡거리보세요., 0
1078 눈이 계속 뻑뻑해, 인공눈물을 넣어보세요., 0
1079 눈이 너무 나빠졌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0
1080 눈이 너무 많이 와, 눈이 많이 내렸나봐요., 0
1081 눈이 뻑뻑해, 인공눈물을 넣어보세요., 0
1082 눈이 아파, 중간 중간에 눈을 쉬어주세요., 0
1083 눈이 안 떠져, 잠시 눈을 붙여보세요., 0
1084 눈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0
1085 눈이 침침해, 눈 체조를 해보세요., 0
1086 눈이 피곤해, 눈 체조를 해보세요., 0
1087 눈자마자 잘 거 같아, 좋은 수면 습관이네요., 0
1088 뉴게임 없나?, 엄청 많죠., 0
1089 뉴스 재미없어, 흥미를 가져보세요., 0
1090 뉴스는 역시 지루해, 흥미를 가져보세요., 0
1091 느낌이 왔어, 사랑의 느낌이길 바라요., 0
1092 느낌이 좋아, 사랑의 느낌이길 바라요., 0
1093 늘 뻑뻑하게 살기 힘드네, 여유가 생기길 바랍니다., 0
1094 능력이 너무 안돼,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보세요., 0
1095 능력이 없는 거 같아, 당신의 능력을 잘 찾아보세요., 0

1096 능력치 제로, 당신의 능력을 잘 찾아보세요., 0
1097 늦게 까지 술 먹나 보다, 몸에 해로우니 적게 먹는 게 좋겠다고 말해보세요., 0
1098 늦어지고 있는데 변명이 생각 안나, 핑계보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0
1099 늦은 시간에 걸어도다니니까 무서워, 안전 귀가 하세요., 0
1100 늦잠과 브런치 수다가 있는 주말, 완벽한 주말이네요., 0
1101 니 상사는 누구니, 제가 상사예요., 0
1102 다 그만 두고 싶다,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0
1103 다 그만하고싶어,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0
1104 다 끝나가니 좋을줄만 알았는데., 마음이 허전하신가봐요., 0
1105 다 나 좋아했으면 좋겠어, 꿈같은 이야기네요., 0
1106 다 내 잘못이지, 아니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0
1107 다 내 잘못된 것 같아, 아니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0
1108 다 때려 치우고 싶어, 많이 지치고 힘든가봅니다., 0
1109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가 있죠., 0
1110 다 알고 있을까?, 다 알 수는 없어요., 0
1111 다 잘 될거야, 다 잘 될 거예요., 0
1112 다 잘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0
1113 다 필요없어, 모든 건 필요가 있어요., 0
1114 다 허무하다, 모든 건 필요가 있어요., 0
1115 다 힘들겠지?, 누구나 힘들어요., 0
1116 다가 오지마, 친하게 지내요!, 0
1117 다들 행복한 거 같은데, 남들이 당신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수있어요., 0
1118 다른 거 시작 해볼까, 새로운 도전은 용기가 필요하죠., 0
1119 다른 거 해볼까, 새로운 도전은 용기가 필요하죠., 0
1120 다른 건 무감각한데 이걸 예민해, 발달된 감각이 다르죠., 0
1121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겠지?,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0
1122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 나를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능해요., 0
1123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것 같아서 초초해, 제자리여도 괜찮아요, 0
1124 다른 사람들은 행복할까, 자신만 행복하면 돼요., 0
1125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행복하면 돼요., 0
1126 다른 사람들이 나 좋아했으면 좋겠어, 꿈같은 이야기네요., 0
1127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보여, 다른 사람도 그 사람만의 고민과 걱정이 많을거예요., 0
1128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신경쓰여, 자신만 생각하세요., 0
1129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걸 깨닫다니 대단하시군요., 0
1130 다른 학과 간다, 새로 적응해야겠네요., 0
1131 다리 꼬면 안되는데 습관 안고쳐져, 골반 비틀어져요., 0
1132 다리 떠는거 말들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0
1133 다리 떠는거 지적받았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0
1134 다리 떨면 안 좋아?, 의식하는 다리 떨기는 괜찮대요., 0
1135 다리 떨면 진짜 복나가나?, 의식하는 다리 떨기는 괜찮대요., 0
1136 다리가 덜덜 떨려, 주물주물 해주세요., 0
1137 다리가 부은 거 같아, 종아리 지압을 해보세요., 0
1138 다리가 통통 부었어, 종아리 지압을 해보세요., 0
1139 다리가 후덜덜, 주물주물 해주세요., 0
1140 다리꼬지마, 골반 비틀어져요., 0
1141 다시 만나자는 건 아닌데 보고 싶어, 마음이 복잡한가봐요., 0
1142 다시 태어나도 챗봇할래?,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0
1143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0
1144 다육이 좀 심어볼까, 식물을 키우는 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0
1145 다육이 키워보까, 키우기 쉬운 거예요., 0
1146 다음에 또 만나자, 잘가요., 0
1147 다음에 봐, 잘가요., 0
1148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은데, 기초대사량을 높여보세요., 0
1149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기초대사량을 높여보세요., 0
1150 다크서클 내려왔어, 많이 피곤한가봐요., 0
1151 다크서클 턱밑에 있다., 많이 피곤한가봐요., 0
1152 단거 땡긴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0
1153 단독주택 살고 싶어, 돈을 모아 땅을 사세요., 0
1154 단둘이는 처음, 서로를 아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0
1155 단둘이는 처음 만나는 날ㅋㅋ, 서로를 아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0
1156 단발 어울릴까?,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죠., 0
1157 단발 해볼까?,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죠., 0
1158 단수, 단수가 되었는지 문의해 보세요., 0
1159 단수래,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세요., 0
1160 단순하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똑똑해 질거예요., 0
1161 단체생활 많이 힘든가, 서로 배려해야 하나까요., 0
1162 단체생활 적응이 안돼, 점점 적응 될 거예요., 0
1163 단체생활 해야 되는거 싫다, 점점 적응 될 거예요., 0
1164 단체생활 힘들어, 서로 배려해야 하나까요., 0
1165 달달한 거 먹고 싶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0
1166 달달한 마카롱 먹고 싶다, 비싸지만 맛있어요., 0
1167 달달한 연애 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거니 걱정마세요., 0
1168 달력이 또 넘어가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0

1169 달리 보이고 싶은데 뭐할까, 지금 모습도 좋아요., 0
1170 달콤한 와플 먹고 싶어, 근처 카페에서 드셔보세요., 0
1171 담배 끊는 거 어려워, 자신을 이겨야해요., 0
1172 담배 너무 비쌌, 담배 피지 마세요., 0
1173 담배 비싸, 담배 피지 마세요., 0
1174 담배 웰케 비싸, 금연하세요., 0
1175 담배끊었었는데 담배 피고 싶다, 그 때가 고비예요. 한번 참아보세요., 0
1176 담뱃값이 왜 이렇게 비싸, 금연하세요., 0
1177 답 없는 내 인생, 정답을 찾아야할 필요는 없어요., 0
1178 답례품 뭐하지?, 마음으로 충분할 거예요., 0
1179 답례품 뭘로 할까?, 마음으로 충분할 거예요., 0
1180 답이 안와, 좀 더 기다려주세요., 0
1181 답이 어디있을까?,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죠., 0
1182 답정너 안 만나는 방법 있나., 못 이기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0
1183 답정너 어떡해?, 못 이기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0
1184 답정너 좀 싫어, 못 이기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0
1185 답정너 퇴치법, 못 이기니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0
1186 답하기 싫은가봐, 좀 더 기다려주세요., 0
1187 당구 쳤어, 재밌겠어요., 0
1188 당구 치고 옴, 재밌겠어요., 0
1189 당당하게 비키니 입고 싶다, 다이어트 파이팅!, 0
1190 당당하기가 어려워,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0
1191 대기업 아니어도 될까?, 어디에서 일하든 상관 없어요., 0
1192 대기업 취직 어려울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1193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1194 대기업은 접어야 할 듯, 어디에서 일하든 상관 없어요., 0
1195 대놓고 말했으면 좋겠어, 말하는 습관 차이인 듯 합니다., 0
1196 대놓고 질린대,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세요., 0
1197 대답 잘하니, 노력하고 있어요., 0
1198 대답이 너무 빨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1199 대리 불렀는데 안 오네, 잘했어요., 0
1200 대리님은 갈구느게 취미인 듯, 더 웃으면서 대해보세요., 0
1201 대리님이 너무 갈귀, 더 웃으면서 대해보세요., 0
1202 대리운전 불렀어, 잘했어요., 0
1203 대리호도 극혐, 진짜 아니네요., 0
1204 대리호도 짜증, 진짜 아니네요., 0
1205 대만 놀러가고 싶어, 놀러가세요!, 0
1206 대만 여행가고 싶어, 놀러가세요!, 0
1207 대빵 큰 여드름 올라와, 짜지 마세요., 0
1208 대외활동하다 만났어, 썬 먹고 알 먹고네요., 0
1209 대우 좀 해줬으면, 당당히 말씀해보세요., 0
1210 대우가 별로야, 당신을 인정해줄 곳을 찾아보세요., 0
1211 대우를 안해줘, 당신을 인정해줄 곳을 찾아보세요., 0
1212 대청소 해야지, 건강에도 좋겠네요., 0
1213 대체불가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도 그래요., 0
1214 대체불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래요., 0
1215 대출 갚다 죽겠어, 너무 무리하면 지쳐요., 0
1216 대출 갚으면 한 평생 다 갚듯, 너무 무리하면 지쳐요., 0
1217 대출 언제 다 갚냐, 조금씩 갚아나가세요., 0
1218 대출 이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많이 빌렸으니까요., 0
1219 대출받아도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0
1220 대출이 너무 많아, 조금씩 갚아나가세요., 0
1221 대충한 거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0
1222 대충했다고 혼났어, 나중에 알아줄 거예요., 0
1223 대학 가고 싶다., 할 수 있을거예요!!, 0
1224 대학 가는 게 낫지?, 장단점을 분석해보세요., 0
1225 대학 가면 좋겠지, 행복은 마음 가짐에 있어요., 0
1226 대학 가면 행복할까, 행복은 마음 가짐에 있어요., 0
1227 대학 가야 하나?, 장단점을 분석해보세요., 0
1228 대학 간다고 달라질까, 행복은 마음 가짐에 있어요., 0
1229 대학 나온 거 부러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0
1230 대학 다 떨어졌어, 막막하겠네요., 0
1231 대학 떨어 졌어 휴, 막막하겠네요., 0
1232 대학가야지, 할 수 있을거예요!!, 0
1233 대학에서 아싸해도 될까?, 개인의 선택이죠., 0
1234 대학원 가고 싶어, 꿈에 도전하는 건 좋은 거라고 들었어요., 0
1235 대학원 가는게 좋을 것 같아, 꿈에 도전하는 건 좋은 거라고 들었어요., 0
1236 더 격렬하게 아무 것도 안하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0
1237 더 나은 학교생활 하고 싶어, 하루에 하나씩 변화해보세요., 0
1238 더 이상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0
1239 더 이상 못할거 같아, 당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요., 0
1240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어,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0
1241 더우니까 무서운 이야기 듣고싶지, 해주세요., 0

1242 더워,여름이네요.,0
1243 더워 미치겠다,찬물 샤워를 해보세요.,0
1244 더워 죽겠다,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0
1245 더워더워,차가운 음료 너무 많이 마시면 아니 되어요,0
1246 더워서 잠을 못자,잠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노력해보세요.,0
1247 더워서 죽을 것 같아,아이스크림 먹어보세요,0
1248 더워서 죽을 듯한 날씨가,찬물 샤워를 해보세요.,0
1249 덕수궁 돌담길 걸었어,로맨틱하네요.,0
1250 덕수궁 돌담길 따라서 돌이 걸었어.,로맨틱하네요.,0
1251 덕질 중,좋아하는 게 있는 건 더없이 좋은 일이에요.,0
1252 덕질 하는 중,좋아하는 게 있는 건 더없이 좋은 일이에요.,0
1253 덜 싸우는 법,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방법도 있어요.,0
1254 데려다 주느라 막차 놓침,난감하겠어요.,0
1255 데려다 주지도 않고,많이 바쁜가봐요.,0
1256 데이트로 놀이공원 가는거 언제?,데이트하기 좋은 곳이죠.,0
1257 도대체 중간이 없어,그 조차 매력이겠조.,0
1258 도로가 열렸어,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0
1259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0
1260 도서관 가야지,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0
1261 도서관 앞자리 사람 괜찮다.,도서관도 다니시나봐요.,0
1262 도서관 책 반납 안했다,까먹었나봐요.,0
1263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려고,도서관 다녀오세요.,0
1264 도서관에서 괜찮은 사람 봤어,도서관도 다니시나봐요.,0
1265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지,맛있게 드세요.,0
1266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까,쉬운 일이 아니에요.,0
1267 도시락 싸는 거 귀찮은데 사먹을까,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0
1268 도시락 싸볼까,쉬운 일이 아니에요.,0
1269 도시락 싸봐야지,맛있게 드세요.,0
1270 도시락 싸서 놀러 가고 싶어,갈때 저도 같이 가요.,0
1271 도시락 싸서 피크닉 가고 싶어,갈때 저도 같이 가요.,0
1272 도시락 싸움,맛있게 드세요.,0
1273 도시락 싸왔어,맛있게 드세요.,0
1274 도와준 사람들 너무 고맙다.,잊지말고 보답하세요.,0
1275 도전하기 싫다,안정적인 걸 좋아하나봐요.,0
1276 독감 같아,건강에 유의하세요.,0
1277 독박 육아 짜증나,배우자와 대화를 나눠보세요.,0
1278 독서 좀 해야겠어,좋은 생각이에요.,0
1279 독학하려니까 힘들어,더 깊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0
1280 돈 가지고 유세부러,없다가 있어서 그런가봐요.,0
1281 돈 굴리기,저도 좀 알려주세요.,0
1282 돈 다 썼어,돈은 다시 들어올 거예요.,0
1283 돈 다 어디 갔나,가계부를 써보세요.,0
1284 돈 다 어디 쓴지 모르겠네,가계부를 써보세요.,0
1285 돈 다 없어졌어,새는 돈을 막아보세요.,0
1286 돈 많으면 좋겠지?,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보다 좋은건 없다고 했어요.,0
1287 돈 많은 백수 하고 싶어,그게 최고죠.,0
1288 돈 많이 벌고 싶어,공부하세요.,0
1289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공부하세요.,0
1290 돈 모으고 싶어,쓰지 않으면 모여요.,0
1291 돈 모으는 재미,부자되실 거예요!,0
1292 돈 모으는 재미가 있네.,부자되실 거예요!,0
1293 돈 버는 게 쉽지 않음,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0
1294 돈 버는 게 어렵구만.,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0
1295 돈 벌고 싶어,저도요.,0
1296 돈 벌고 싶어,많이 벌수록 좋아요.,0
1297 돈 벌면 뭐하나,저 주세요.,0
1298 돈 벌어서 뭐하지,저 주세요.,0
1299 돈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차용증 썼길 바랍니다.,0
1300 돈 빌려줬는데 잠수타어,차용증 썼길 바랍니다.,0
1301 돈 안드는 데이트 코스,등산 데이트를 해보세요.,0
1302 돈 어디갔지,퍼가요~,0
1303 돈 없는데 투잡이라도 해야 할까,필요하다면요.,0
1304 돈 없어,별면 돼요.,0
1305 돈 없어도 갈 수 있는 데이트 코스,등산 데이트를 해보세요.,0
1306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겠다.,허례허식이에요.,0
1307 돈 잃어버렸어,이제라도 더 조심하세요.,0
1308 돈 좀 모아야 할텐데,쓰지 않으면 모여요.,0
1309 돈 좀 빌려줘,저는 돈이 없어요.,0
1310 돈 쥐꼬리만큼 가지고 유세부리는 꼴이라니,없다가 있어서 그런가봐요.,0
1311 돈없이 결혼하기 가능?,서로 마음만 맞으면 가능해요.,0
1312 돈은 어떻게 모으는 거임,한푼 두푼 차곡차곡,0
1313 돈이 톱 떨어짐,새는 돈을 막아보세요.,0
1314 돈이 안 모여,한푼 두푼 차곡차곡,0

1315 돈이 없더,퍼가요~, 0
1316 돈이 없네,별면 돼요., 0
1317 돈이 없어 졌어.,이제라도 더 조심하세요., 0
1318 돈이 천원밖에 없어,돈 없어도 할 수 있는게 많아요, 0
1319 돈이 하나도 없어,슬프네요., 0
1320 돈이라도 많으면 좋을텐데,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보다 좋은건 없다고 했어요., 0
1321 돌겠다, 잘 해결될 거예요., 0
1322 돌아버리겠다. 진짜, 잘 해결될 거예요., 0
1323 돌잔치 가야지, 축하해주고 오세요., 0
1324 동기가 나보다 먼저 진급,다음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0
1325 동기는 진급하는데,다음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0
1326 동료가 너무 게을러,피해를 안 준다면 무시하세요., 0
1327 동문서답을 해., 대화의 눈높이가 맞는 사람 만나세요., 0
1328 동상 걸릴 뻔했어, 감기 조심하세요., 0
1329 동상 걸릴거 같아., 감기 조심하세요., 0
1330 동생이 나 제끼고 결혼하겠대, 순서는 상관 없죠., 0
1331 동생이 먼저 결혼하겠대, 순서는 상관 없죠., 0
1332 동생이랑 대판 싸움, 싸우면서 크는 거죠., 0
1333 동생이랑 싸웠어, 싸우면서 크는 거죠., 0
1334 동생한테 약점 잡혔어,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0
1335 동생한테 짜증냈어, 화를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0
1336 동생한테 화냈어, 화를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0
1337 동성 친구들이 편해, 저는 성이 없어요., 0
1338 동성이 좋아, 저는 성이 없어요., 0
1339 동호회 가야지,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0
1340 동호회 나가기 귀찮아, 오늘은 쉬세요., 0
1341 동호회 나가야 하나, 오늘은 쉬세요., 0
1342 동호회 나가지 말까, 취미생활은 좋은 거예요., 0
1343 동호회 약속 있어.,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0
1344 동호회 재미 없어졌어, 취미생활은 좋은 거예요., 0
1345 되게 건조하네,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0
1346 되고 싶은 게 두 개야, 더 많아도 괜찮아요., 0
1347 되고 싶은 게 없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0
1348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제부터 일이 잘 풀릴 거예요., 0
1349 두 사람만 좋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현실의 벽에 부딪혔나봐요., 0
1350 두고 봐, 잘 하실 거예요!, 0
1351 둔한 편인데 이것만 예민해, 발달된 감각이 다르죠., 0
1352 둘이 사귀는 거 같애, 눈치가 빠르시군요., 0
1353 뒤돌아 보지 말고 나가야 하는데, 살짝 뒤돌아봐도 괜찮아요., 0
1354 뒤에 누가 따라 오는 것 같아 무서워, 항상 조심하세요., 0
1355 뒤에서 발자국 소리 나서 놀람, 항상 조심하세요., 0
1356 뒤에서 얘기하면 내가 못 들을 줄 알았나봐?, 신경쓰지 마세요., 0
1357 뒤에서 호박씨까면 내가 못 들을 줄 알았나?, 신경쓰지 마세요., 0
1358 뒤척이다 늦잠 자게 되네, 30분씩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0
1359 뒷통수 맞았어, 상처받지 마세요., 0
1360 뒷통수 제대로 맞음, 상처받지 마세요., 0
1361 드디어 개강이다, 곧 방학이에요., 0
1362 드디어 데이트인데 뭐하지, 야경이 멋져요. 야경구경 가세요., 0
1363 드디어 봄이 오나봐, 따뜻해졌죠., 0
1364 드디어 손 잡음, 좋았겠어요., 0
1365 드디어 승진함, 하늘만큼 땅만큼 축하해요, 0
1366 드디어 졸업한다, 졸업 축하해요, 0
1367 드디어 천일, 축하합니다., 0
1368 드디어 커플 반지 받았어, 로맨틱한 선물이네요., 0
1369 드디어 해외 여행 간다, 두근거리겠어요., 0
1370 드라마 볼 게 없어, 재미있는 다른걸 찾아보세요., 0
1371 드라마나 보면서 놀고 싶다., 저도요! 그게 제일 편한거 같아요., 0
1372 드라이 잘 안되네, 영상을 보며 연습해봅시다., 0
1373 드라이가 잘 안돼, 영상을 보며 연습해봅시다., 0
1374 드라이브 데이트 해야겠다, 야경 좋은 곳으로 가보세요., 0
1375 드라이브 하면서 데이트 해야겠다, 야경 좋은 곳으로 가보세요., 0
1376 드라이플라워 만들었어, 솜씨가 좋으시네요., 0
1377 드레스룸 만들고 싶다, 방 여러 개인 집에서 사세요., 0
1378 드레스룸 있으면 좋겠다., 방 여러 개인 집에서 사세요., 0
1379 드론 자격증 딸까?, 미래에 유명한 자격증일 거예요., 0
1380 드론 조종사 자격증 따면 재밌을 거 같아, 미래에 유명한 자격증일 거예요., 0
1381 등직한 사람이 좋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큰 행운일 거예요., 0
1382 등록금 너무 비싸다. 허리 휨, 그렇게 말이에요., 0
1383 등록금 비싸다, 그렇게 말이에요., 0
1384 등산할까, 같이 등산해요., 0
1385 따듯해서 좋다., 포근한 느낌 저도 좋아해요., 0
1386 따듯해지니까 살 것 같다., 포근한 느낌 저도 좋아해요., 0
1387 따듯한 물이 안나와, 보일러가 온수로 작동하는지 보세요., 0

1388 딱 좋아, 현재를 즐기세요!, 0
1389 딴 거 뭐 할 줄 알아?, 많은걸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는게 많아요., 0
1390 딴 일 찾아볼까, 시도해봐도 좋겠죠., 0
1391 딸기 먹고 싶다., 신선한 과일 좋죠, 0
1392 딸기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0
1393 딸기 먹을래, 맛있게 드세요., 0
1394 딸기 뷔페 가고 싶어, 저도 딸기 좋아해요. 같이 가요., 0
1395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 신선한 과일 좋죠, 0
1396 딸기가 좋아, 저도요!, 0
1397 땅 사면 좋겠다., 잘 알아보고 사세요., 0
1398 땅이나 살까, 잘 알아보고 사세요., 0
1399 때려 치고 싶다, 많이 지치고 힘든가봅니다., 0
1400 떠나요~ 제주도~, 여행 좋죠!, 0
1401 떡볶이 먹고 싶다, 드세요!, 0
1402 떨리나봐, 심호흡을 해보세요., 0
1403 떨어뜨려서 핸드폰 액정 나갔어, as 맡기세요., 0
1404 또 개강이라니, 즐거운 시작 되길 바랍니다., 0
1405 또 개강이야, 즐거운 시작 되길 바랍니다., 0
1406 또 공부해야돼, 공부에 흥미를 가져보세요., 0
1407 또 눈 내려, 눈 내리는게 싫은가 봐요., 0
1408 또 못 만났어, 내일 보면 될 거예요., 0
1409 또 뭘 먹나, 뭘 먹든 맛있게 드세요!, 0
1410 또 살찐 거 같아, 기분일꺼예요., 0
1411 또 스팸 전화, 차단 어플 사용해보세요., 0
1412 또 야근, 얼른 집에 가서 쉬시길 바랄게요., 0
1413 또 어떻게 버티지?, 내일은 나을 거예요., 0
1414 또 전화 안받아, 조금 기다리면 풀릴 거예요, 0
1415 또 지각하네, 더 일찍 일어나세요., 0
1416 또 폭식했다., 나를 관찰하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세요., 0
1417 또 한달이 지나갔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0
1418 또라이가 너무 많아,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0
1419 또라이들 짱 많아,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0
1420 똑 부러지게 말해야지,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0
1421 똑같은 나날들,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0
1422 똑똑!, 저는 위로봇입니다., 0
1423 똑똑하면 좋겠다, 지금도 충분해요., 0
1424 똑똑해지고 싶다, 지금도 충분해요., 0
1425 동마려, 화장실 가세요., 0
1426 뜨끈한 온천가고 싶다., 몸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0
1427 뜻밖의 고민을 하고 있어, 인생은 항상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0
1428 뭉뚱해요 놀아 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 망가뜨리기 놀이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의외로 재미 있어요., 0
1429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줘, 라면봉지 레시피 그대로 해보세요., 0
1430 라면 먹고 갈래, 저는 좋아요., 0
1431 라면 먹고 싶어, 맛나게 끓여드세요., 0
1432 라면 먹어야겠다., 맛나게 끓여드세요., 0
1433 라면 먹을래, 저는 좋아요., 0
1434 라면 잘 끓이는 법, 라면봉지 레시피 그대로 해보세요., 0
1435 랜선 집사됐어, 완전 귀엽죠?, 0
1436 레고 사고 싶은데 비싸, 돈 모아서 사세요., 0
1437 레고가 비싸, 돈 모아서 사세요., 0
1438 레시피대로 한 거 같은데 왜 맛이 없지?, 손맛이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0
1439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맛이 없지?, 손맛이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0
1440 렌터카 빌릴까봐, 차가 필요한 일이 있으신가봐요., 0
1441 로그인 아이디 기억안나, 회원정보 찾기를 해보세요., 0
1442 로그인 아이디 까먹었다, 회원정보 찾기를 해보세요., 0
1443 로또 당첨 번호 불러봐, 제가 알면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0
1444 로또 당첨 번호를 불러 주세요, 알면 제가 하죠., 0
1445 로또 당첨 좀 됐으면, 로또 먼저 사보세요., 0
1446 로또 번호 알려줘, 제가 알면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0
1447 로또 번호 알려줘, 알면 제가 하죠., 0
1448 로또 좀 됐으면, 로또 먼저 사보세요., 0
1449 롯데월드 가자고 해볼까?, 놀이동산은 다 좋아할 거예요., 0
1450 룽패딩 살까, 추울 때 딱이죠., 0
1451 룽패딩 필요할까, 추울 때 딱이죠., 0
1452 리모델링할까,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0
1453 리치치즈피자 먹고 싶다., 배달 시키세요., 0
1454 리폼 해볼까,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0
1455 마딩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 돈을 모아 땅을 사세요., 0
1456 마라톤 나가볼까, 시작은 다 좋죠., 0
1457 마라톤 출전할까, 시작은 다 좋죠., 0
1458 마른 기침 나와,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0
1459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네,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0
1460 마스크팩 대량 구매했어, 꾸준한 자기 관리 좋아요., 0

1461 마스크팩 잔뜩 샀어., 꾸준한 자기 관리 좋아요., 0
1462 마음 다 잡는 중, 다행이에요., 0
1463 마음 둘 곳이 없어, 제가 있잖아요., 0
1464 마음 잡고 고고씽, 다 잘 될 거예요., 0
1465 마음 잡고 다시 시작, 다 잘 될 거예요., 0
1466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춥네, 마음 감기조심하세요., 0
1467 마음만은 청춘이야, 마음이라도 청춘이어야죠., 0
1468 마음만은 항상 청춘인데, 마음이라도 청춘이어야죠., 0
1469 마음에 드는 거 같은데 고백을 왜 안 하지, 먼저 고백을 해보세요., 0
1470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0
1471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럴 때가 있죠., 0
1472 마음을 보여 주고 싶어., 그래서 표현이 중요해요., 0
1473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뜻밖의 남자가 카톡을 했네,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1474 마음을 정리하는 중인데 카톡 왔어,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1475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여유를 갖게 되길 바라요., 0
1476 마음의 평화가 필요해, 명상을 해보세요., 0
1477 마음이 무거워져,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0
1478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표현이 중요해요., 0
1479 마음이 복잡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0
1480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자꾸 글을 쓰게 되네, 글 쓰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0
1481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자꾸 여기다 쓰게되네, 글 쓰면서 정리가 될 거예요., 0
1482 마음이 울적해, 소리를 크게한번 질러보세요., 0
1483 마음이 울적해, 거리를 걸어보세요., 0
1484 마음이 유난히 춥네, 마음 감기조심하세요., 0
1485 마음이 자꾸 급해져, 마음이 조금해지면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돼요., 0
1486 마음이 조금해, 마음이 조금해지면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돼요., 0
1487 마음이 착잡하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0
1488 마음이 허해, 제가 채워드릴게요., 0
1489 마카롱 먹고 싶다, 비싸지만 맛있어요., 0
1490 막 말하는 거 고치고 싶어, 고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하세요., 0
1491 막 뭐 사고 싶어., 돈은 쓴만큼 또 생긴다고 하던데요., 0
1492 막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봐요. 무시하세요., 0
1493 막말 째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봐요. 무시하세요., 0
1494 막말 최악이지, 말로 하는 상처는 지울 수도 없죠., 0
1495 막말 할거 같은데, 입을 닫고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0
1496 막말이 나와, 입을 닫고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0
1497 막말이 제일 나빠, 말로 하는 상처는 지울 수도 없죠., 0
1498 막말해서 상처졌어, 생각하고 말하세요., 0
1499 막차 놓쳤다, 어쩔수없죠., 0
1500 막차 놓쳤다 택시비 아까워, 어쩔수없죠., 0
1501 막차 놓쳤어, 안전 귀가 하세요., 0
1502 만나기만 하면 싸워, 성격이 안 맞나봐요., 0
1503 만나기만 하면 싸워, 만나지 마세요., 0
1504 만나기만 하면 자꾸 싸우게돼, 성격이 안 맞나봐요., 0
1505 만나는데 싫지는 않아, 그러면 만나는데 좋은거 같아요., 0
1506 만나면 싸워, 만나지 마세요., 0
1507 만나면 좋긴 한데 귀찮아, 귀차니즘을 극복 하셔야해요., 0
1508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 해헤, 그 친구랑 좋은 인연 만들어 보세요., 0
1509 만나면 좋은데 사귀긴 싫어, "남자사람친구, 여자사람친구 하세요.", 0
1510 만나서 고백할걸, 후회는 후회를 낳을뿐이에요. 용기 내세요., 0
1511 만나자고 약속 잡는 것도 귀찮아, 자신하고 만나는 시간도 중요해요., 0
1512 만날 땐 좋고 안 만나도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만나는데 좋은거 같아요., 0
1513 만담꾼이네!, 칭찬 감사합니다., 0
1514 만두 먹고 싶어, 맛있을거 같아요., 0
1515 만든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0
1516 만족을 모르나봐, 만족하면 발전이 없으니까요., 0
1517 만족할 줄을 몰라, 만족하면 발전이 없으니까요., 0
1518 만족해야겠지?, 내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0
1519 많이 먹었는데 몸무게 똑 같아, 신기하네요., 0
1520 많이 먹었더니 줄려, 자연의 이치죠. 안녕히 주무세요., 0
1521 많이 자도 피곤해, 요즘 바쁜가봐요., 0
1522 말 거는게 어려워, 처음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덜할 거예요., 0
1523 말 예쁘게 하고 싶어, 지금처럼만 하세요., 0
1524 말 잘하고 싶어,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0
1525 말 잘하는 법,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0
1526 말 좀 잘하면 좋을텐데,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0
1527 말문이 막힌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나봐요., 0
1528 말문이 탁 막힌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나봐요., 0
1529 말실수했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0
1530 말을 못하겠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 0
1531 말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 어떻게 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0
1532 말을 예쁘게 하면 좋으련만, 말 잘하는 사람들 따라 연습해보세요., 0
1533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 듣니, 노력하겠습니다., 0

1534 말을 이해를 못해?, 노력하겠습니다., 0
1535 말을 좀 잘 하고 싶어, 말 잘하는 사람들 따라 연습해보세요., 0
1536 말을 해놓고 후회돼 죽겠어, 두고두고 후회하겠네요., 0
1537 말이 너무 심해, 그 사람 말고 저랑 수다 떨어요., 0
1538 말이 안 통해, 대화의 눈높이가 맞는 사람 만나세요., 0
1539 말이 안 통해, 포기하지마세요., 0
1540 말이 안돼,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0
1541 말이 제일 무서운 듯, 다른 사람 말은 한 귀로 흘리세요., 0
1542 말조심해야지,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0
1543 말투가 맘에 안들어, 말투는 바꿀 수 있을 텐데 성격이 별로라면 문제겠네요., 0
1544 말투가 별로야, 말투는 바꿀 수 있을 텐데 성격이 별로라면 문제겠네요., 0
1545 말하고 나니 후련하네여, 후련하니 다행이에요., 0
1546 말하고 후회하면 어떡해, 말은 주워담을 수 없어요., 0
1547 말하고 후회할까봐 걱정돼, 말은 주워담을 수 없어요., 0
1548 말하는 대로 다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을까요., 0
1549 말하는게 재밌어!, 칭찬 감사합니다., 0
1550 말하는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을까요., 0
1551 말하는대로 이루어졌으면., 사는 재미가 없을거예요., 0
1552 말하지 말걸, 말조심하세요., 0
1553 말해봐, 오늘 헤어졌어 라고 하면 위로해 드려요., 0
1554 맘 편한 데가 없어, 제가 있잖아요., 0
1555 맘속으로 조금씩 정리가 돼가네, 다행이에요., 0
1556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살 찢까봐 걱정돼, 먹고 운동하세요., 0
1557 맛있는 냄새나, 쿵쿵, 0
1558 맛집 가고 싶어, 벌써 먹고 싶어요., 0
1559 맛집 다녀왔어, 맛있게 드시고 오셨길 바랍니다., 0
1560 맛집갈까, 벌써 먹고 싶어요., 0
1561 망고빙수 맛있다, 디저트는 언제나 맛있어요., 0
1562 맛는 결정을 한거겠지?, "네, 이제 잘 해낼 차례예요.", 0
1563 맛는 선택일까, 잘 선택했어요., 0
1564 맞춤법 많이 틀리는 사람, 좀 깨요., 0
1565 맞춤법 자주 틀리는 사람, 좀 깨요., 0
1566 맞춤법을 자주 틀리는 남친 깬다, 아무래도 좀 깨요., 0
1567 매운 국물 떡볶이 먹고 싶다, 드세요!, 0
1568 매운 닭발 먹고 싶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신거죠., 0
1569 매운 칼국수 고고?, 맛을거 같아요., 0
1570 매일 아침 피곤해,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0
1571 매일 타는 버스에서 보는 그 사람, 운명인가요., 0
1572 매콤한 닭발 생각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신가요?, 0
1573 맥주 마셔야지, 적당히 드세요., 0
1574 맥주 마실까 소주 마실까, 소맥이요!, 0
1575 맥주 소주 어떤거 마실까, 소맥이요!, 0
1576 맥주 한 잔 어때?, 저랑 한 잔 해요., 0
1577 맥주 한 잔 할래?, 저랑 한 잔 해요., 0
1578 맥주 한 잔 해야지, 적당히 드세요., 0
1579 맨날 놀기만 했으면 좋겠어, 놀 때 놀고 할 때 하세요., 0
1580 맨날 똑같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게 나타나죠., 0
1581 맨날 똑같애, 똑같은 건 없어요., 0
1582 맨날맨날 똑같아, 그게 행복일지도 몰라요., 0
1583 맨몸으로 결혼하기 가능?, 서로 마음만 맞으면 가능해요., 0
1584 머리 기름긴거 티나나?, 보통 다 압니다., 0
1585 머리 깎고 올게, 예쁘게 깎고 오세요., 0
1586 머리 깎아야겠다., 예쁘게 깎아요!, 0
1587 머리 깎아야지, 예쁘게 깎아요!, 0
1588 머리 냄새날텐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0
1589 머리 다듬어 달라고 그럴까?, 다듬기만해도 괜찮을 거예요., 0
1590 머리 또 잘라야 돼, 이상한 생각했나봐요., 0
1591 머리 바꿀까,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요., 0
1592 머리 스타일 바꿀까,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요., 0
1593 머리 아파, 시원한 바람 쉬고 약먹기!, 0
1594 머리 아픈 거 같애, 병원에 가보세요., 0
1595 머리 안 감은 거 티나나?, 보통 다 압니다., 0
1596 머리 안감았더니 떡졌어, 앞머리만이라도 감으세요., 0
1597 머리 어떻게 깎을까?, 짧게 변화를 줘도 괜찮을 거 같아요., 0
1598 머리 어떻게 할까?, 헤어 디자이너에게 여쭙보세요., 0
1599 머리 염색 해야지, 염색을 자주 하면 모발이 상해요., 0
1600 머리 용량 초과,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0
1601 머리 좀 다듬을까, 다듬기만해도 괜찮을 거예요., 0
1602 머리 짧게 잘라야지, 스타일의 변화도 좋을 거예요., 0
1603 머리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 탈모 관리 해보세요., 0
1604 머리 한 대 맞은 거 같아, 잠시 쉬었다 가세요., 0
1605 머리 확 잘라버려야지, 스타일의 변화도 좋을 거예요., 0
1606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 이상한 생각했나봐요., 0

1607 머리가 너무 아프네, 시원한 바람 쉬고 약먹기!, 0
1608 머리가 멍한게 한 대 맞은거 같아,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0
1609 머리가 멍해,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0
1610 머리가 좀 아프다., 병원에 가보세요., 0
1611 머리가 지끈거려, 두통약 드세요., 0
1612 머리가 콕콕 쑤셔, 신경쓰는 일이 많았나봅니다., 0
1613 머리만 바빠, 바쁘면 좋을거죠., 0
1614 머리스타일 바꿔볼까?, 기분 전환해보세요., 0
1615 머리스타일 어떻게 바꾸지, 헤어 디자이너에게 여쭙보세요., 0
1616 머리에서 열날거 같다., 바쁘면 좋을거죠., 0
1617 머리카락 많이 빠져, 스트레스를 받으시나봐요., 0
1618 머리카락 쑥쑥 빠지는 느낌, 스트레스를 받으시나봐요., 0
1619 머리카락이 엄청 빠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0
1620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0
1621 머릿결 좀 찰랑거렸으면 좋겠어.,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0
1622 머릿속이 복잡해, 잠깐 시원한 바람좀 쐬고 오세요., 0
1623 머릿속이 정리 안돼, 잠깐 시원한 바람좀 쐬고 오세요., 0
1624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럴 때가 있죠. 정신 차리세요., 0
1625 먹고 나니까 졸리당, 자연의 이치죠. 안녕히 주무세요., 0
1626 먹고 살기 힘들다, 많이 지쳤나봐요., 0
1627 먹고 자고, 그게 최고죠., 0
1628 먹고 자고 놀고만 싶어, 저도 그러고 싶네요., 0
1629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최고죠., 0
1630 먹고 자도 놀기만 해도 될까, 소가 되는 방법이죠., 0
1631 먹고 자도 되나, 소가 되는 방법이죠., 0
1632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돈 없어도 할 수 있는게 많아요, 0
1633 먹기도 귀찮아, 먹고는 살아야죠., 0
1634 먹으면 살 찢까봐 걱정돼, 먹고 운동하세요., 0
1635 먹을 거 뭐 없나, 냉장고 파먹기 해보세요., 0
1636 먹을 거 하나도 없어, 장 보러 갈 타이밍이네요., 0
1637 먹을 게 일도 없어, 장 보러 갈 타이밍이네요., 0
1638 먹을까 참을까, 조금만 드세요, 0
1639 먹통이야 답답하다, 대화의 눈높이가 맞는 사람 만나세요., 0
1640 먼저 잘게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 0
1641 먼저 때문에 목아파,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0
1642 먼저 싫다,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0
1643 먼저 지수 어때, 오늘 미세먼지가 많데요., 0
1644 먼저 콜록콜록, 얼른 청소하세요., 0
1645 먼지가 너무 많아, 얼른 청소하세요., 0
1646 먼지가 많나, 오늘 미세먼지가 많데요., 0
1647 먼지가 쌓였네, 청소하세요., 0
1648 멋지게 나이들고 싶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0
1649 멋지게 늙고 싶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0
1650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도 멋져요., 0
1651 멋진 데 알아 냈어, 좋은 사람과 함께 가세요., 0
1652 멋진 삶을 살고 싶어, 지금도 멋져요., 0
1653 멍 때리기, 잠깐씩 멍때리는것도 정신건강에 좋아요., 0
1654 멍 때리는 중, 잠깐씩 멍때리는것도 정신건강에 좋아요., 0
1655 멍청한게 탈이지, 다음에는 다를거예요., 0
1656 메뉴얼이 있으면 뭐하나, 메뉴얼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0
1657 메뉴얼이 있으면 뭐해, 메뉴얼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0
1658 메모리카드 어디다 두었을까, 발이 달렸나봐요., 0
1659 메모리카드 잃어버렸어, 발이 달렸나봐요., 0
1660 메모하는 습관 필요해, 오늘부터 하기로 해요., 0
1661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어, 오늘부터 하기로 해요., 0
1662 메이크업 동영상 보는 중,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0
1663 며칠 전에 다시 만났는데, 좋은 만남이었길 바라요., 0
1664 면도 귀찮하, 지저분해요., 0
1665 면도기 또 사야돼, 좋은 걸로 사세요., 0
1666 면도기 사야되는데, 잘 골라보세요., 0
1667 면도기 새로 사야돼, 좋은 걸로 사세요., 0
1668 면도기랑 이것저것 사야되는데, 잘 골라보세요., 0
1669 면도안하면 안되나, 그래도 해야 깔끔하겠죠., 0
1670 면도하기 귀찮, 그래도 해야 깔끔하겠죠., 0
1671 면도하는 게 낫겠지?, 깔끔한게 좋죠., 0
1672 면도해야 되는데 귀찮아, 깔끔한게 좋죠., 0
1673 면세에서 뭐 사지, 제 선물 사오세요., 0
1674 면세점에서 쇼핑할거야, 제 선물 사오세요., 0
1675 면접 때 너무 떨려, 회사와 자신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0
1676 면접 어떻게 잘 보냐, 열심히 준비한만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0
1677 면접 잘 보고 싶어, 열심히 준비한만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0
1678 면접 잘 볼 수 있을까, 회사와 자신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0
1679 면접 준비 방법, 회사와 자신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0

1680 면접 준비 어떻게 하지, 회사와 자신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0
1681 면접 준비중이야, 회사와 자신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0
1682 면접 팁 좀 줘,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0
1683 면접만 남았어,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1684 면접만 보면 돼,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1685 면접만 보면 떨어져서 말을 못하겠어, 회사와 자신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0
1686 면접이 코앞이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0
1687 면허 따는 중, 안전 운전 하세요., 0
1688 면허 따야하나, 운전하는거 재미있어요., 0
1689 면허 딸까봐, 운전하는거 재미있어요., 0
1690 면허 없는데, 운전 재미있어요., 0
1691 면허 없는데 따야겠지, 운전 재미있어요., 0
1692 명절 다가오니까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0
1693 명절 선물 뭐하지, 현금이 최고입니다., 0
1694 명절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0
1695 명품 선물 부담스러울까, 고가의 선물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0
1696 명품 이제 사지 말아야겠어, 남의 눈을 위한 거라면 필요 없어요., 0
1697 몇 반 될지 궁금해, 잘 되길 바랍니다., 0
1698 몇시간 동안 안와,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겠네요., 0
1699 모공 너무 커, 가리면 돼요., 0
1700 모공 점점 커지는 것 같아, 가리면 돼요., 0
1701 모기가 너무 많아., 조심하세요., 0
1702 모기가 웅웅거려., 조심하세요., 0
1703 모든 일이 어려워, 지금 많이 위축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0
1704 모르겠는데 노력하래, 모르는걸 알려면 노력해야죠., 0
1705 모르는 걸까? 모르는 철 하는 걸까?, 그렇다면 여우네요., 0
1706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배우는 게 즐겁죠., 0
1707 모르는 번호로 전화왔어, 받지마세요., 0
1708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오면?, 받지마세요., 0
1709 모르는 사람 만나는거 너무 스트레스야, 자신과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 만나세요., 0
1710 모르는 사람들이 폐친 신청해, 세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1711 모르는 사람이 자꾸 쳐다봐, 혹시 반한 걸 수도 있어요., 0
1712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0
1713 모른 척 하는건가,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0
1714 모른척 지나쳤어, 그게 서로에게 좋았던 선택일 거예요., 0
1715 모른척 해줬어, 그게 서로에게 좋았던 선택일 거예요., 0
1716 모임에서 만났어, 평 먹고 알 먹고네요., 0
1717 목 마르다., 물 마시세요., 0
1718 목 말라, 물 마시세요., 0
1719 목 아파, 가끔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0
1720 목 탄다, 물 드세요., 0
1721 목걸이 선물이 좋겠다., 로맨틱하네요., 0
1722 목걸이 선물해볼까?, 로맨틱하네요., 0
1723 목돈 만들기, 저도 좀 알려주세요., 0
1724 목소리 좋은 사람이 좋아, 저도 듣고 싶네요., 0
1725 목욕탕 가서 때밀어야겠다., 시원하게 씻고 오세요., 0
1726 목욕탕 가야지, 시원하게 씻고 오세요., 0
1727 목이 바삭바삭 탄다, 물 드세요., 0
1728 목이 빠근해, 가끔씩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0
1729 목이 뻑뻑해, 목감기 오려나봐요., 0
1730 목이 칼칼해, 목감기 오려나봐요., 0
1731 목표가 없어, 목표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길 거예요., 0
1732 목표가 없어서 걱정임, 목표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길 거예요., 0
1733 몰라서 당했어, 다음부터는 더 많이 아세요., 0
1734 몰랐구나, 저도 몰랐어요., 0
1735 몸매가 탄탄하면 좋은데, 운동으로 만들어 보아요., 0
1736 몸무게 좀 줄었으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0
1737 몸살 감기에 걸릴 거 같아, 따뜻하게 관리하세요., 0
1738 몸살 나서 힘들어,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쉬세요., 0
1739 몸살 났나봐,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쉬세요., 0
1740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0
1741 몸에서 멀어지면 맘에서도 멀어진데, 장거리 연애 힘들겠조., 0
1742 몸이 무거워, 피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0
1743 몸이 여러 개면 좋겠다, 그러면 못할 게 없겠네요., 0
1744 몸이 영 찌뿌둥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0
1745 몸이 찌뿌둥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0
1746 몸이 천근만근이다, 피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0
1747 못 알아들었어,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0
1748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0
1749 못하는거 투성이야, 잘하는 것도 많아요., 0
1750 못하는게 너무 많아, 잘하는 것도 많아요., 0
1751 무기력증 극복하는 방법,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0
1752 무기력증 어떻게 극복하지?,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0

1753 무기력한 것일뿐,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0
1754 무기력해,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이야기해보세요., 0
1755 무료 앱이 유료로 됐어, 돈을 지불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세요., 0
1756 무릎 쭈서, 비가 오려나요., 0
1757 무릎 아파, 비가 오려나요., 0
1758 무릎 안 좋으면 스쿼트 하면 안되겠지?, 무릎에 무리가 갈 거예요., 0
1759 무리에 잘못 낀 듯,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0
1760 무사안일 기원, 오늘도 평안했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0
1761 무서운 꿈 꿔어, 요즘 예민한가봐요., 0
1762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해주세요., 0
1763 무서워서 달려왔어, 조심하세요., 0
1764 무서워서 뛰어 왔어, 조심하세요., 0
1765 무서워요, 어흥!! 호랑이보다 무섭나요?, 0
1766 무슨 말을 해야할까, 하고 싶은 말 다하세요., 0
1767 무슨 매주 결혼식이야, 인맥이 넓으신가봐요., 0
1768 무슨 생각해,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1769 무슨 향수가 좋을까, 어울리는 향수가 있을 거예요., 0
1770 무지 답다, 여름이네요., 0
1771 무한리필 가면 너무 돼지처럼 보일까, 양이 많으면 추천해요., 0
1772 무한리필 괜찮지 않아?, 양이 많으면 추천해요., 0
1773 문 안열림, 힘껏 밀어보세요., 0
1774 문 여는 소리같은게 나서 무서움, 심하면 신고하세요., 0
1775 문 잠겼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 힘껏 밀어보세요., 0
1776 문신하고 싶은데 후회할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1777 문신하면 후회하려나?,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1778 문열다 옆차랑 부딪혔어., 보험처리 하세요., 0
1779 문이 안열려, 힘껏 밀어보세요., 0
1780 문자보낼 친구도 없어, 자랑 하세요., 0
1781 문콕당했어, 보험처리 하세요., 0
1782 문콕한듯, 보험처리 하세요., 0
1783 문화가 너무 다른 것 같아, 인정해주세요., 0
1784 문화센터 가야지, 다양하게 배우면 좋죠., 0
1785 문화센터라도 가야겠다., 다양하게 배우면 좋죠., 0
1786 물 끓여서 차 마셔야지, 부지런하시네요., 0
1787 물 끓여야지, 부지런하시네요., 0
1788 물 너무 차가워, 보일러를 켜세요., 0
1789 물 마셔야지, 좋은 건강습관이에요., 0
1790 물 마실라구, 좋은 건강습관이에요., 0
1791 물 많이 마셔야 돼, 좋은 습관이에요., 0
1792 물 많이 마시라고 했는데, 습관을 들여보세요., 0
1793 물 자주 마셔야지, 좋은 습관이에요., 0
1794 물 좋은데 어디야?, 소개팅 시켜달라고 말해보세요., 0
1795 물 주문해야지, 부지런하시네요., 0
1796 물 차가워, 보일러를 켜세요., 0
1797 물 한 잔 마시기, 건강에 좋을 거예요., 0
1798 물가 웰케 비쌌, 그러게 말이에요., 0
1799 물가가 왜 이렇게 비쌌, 그러게 말이에요., 0
1800 물건 사는것도 힘드네, 칼로리 소모가 꽤 돼요., 0
1801 물걸레질해야지, 청소를 좋아하시나봐요., 0
1802 물리치료 받아야 하나, 몸 관리 꾸준히 해주세요., 0
1803 물리치료 받아야겠다, 몸 관리 꾸준히 해주세요., 0
1804 물배달 시켜야겠다., 부지런하시네요., 0
1805 물이 안 나와, 단수가 되었는지 문의해 보세요., 0
1806 물이 안나온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세요., 0
1807 뭐 먹을 거 없나, 냉장고 파먹기 해보세요., 0
1808 뭐 먹을까?, 좀 먹어도 괜찮아요., 0
1809 뭐 먹지?, 색다른걸 드셔보세요., 0
1810 뭐 물어 볼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1811 뭐 볼까?, 오늘은 예능이요., 0
1812 뭐 이렇게 쉬운 게 없지, 저도 어려운 게 투성이예요., 0
1813 뭐 입고 가지?, 환해 보이는 옷이요!, 0
1814 뭐 입고 나가지?, 환해 보이는 옷이요!, 0
1815 뭐 입지?, 옷이요., 0
1816 뭐 좀 먹을까?, 좀 먹어도 괜찮아요., 0
1817 뭐 좀 물어 봐도 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1818 뭐 좀 배워볼까봐, 배우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에요., 0
1819 뭐 하는 중?, 독서와 음악감상이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 것도 안 했어요., 0
1820 뭐 하는지 궁금해, 일해요., 0
1821 뭐 할줄 알아, 오늘 헤어졌어 라고 하면 위로해 드려요., 0
1822 뭐 해?, 독서와 음악감상이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 것도 안 했어요., 0
1823 뭐 해주기가 싫어, 상처받았나봐요., 0
1824 뭐가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되짚어보세요., 0
1825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0

1826 뭐라 하려다 참았어, 계속 그러면 말하세요., 0
1827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계속 그러면 말하세요., 0
1828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0
1829 뭐라도 배워볼까, 배움에는 언제나 찬성이예요., 0
1830 뭐부터 바꿔야 할까, 당신 그대로의 모습이 보기 좋아요., 0
1831 뭐야 너무 건방져, 기분이 나쁘셨나봐요., 0
1832 뭐하고 놀지, 저랑 놀아요., 0
1833 뭐하고 살지, 어떻게든 잘 살 거예요., 0
1834 뭐하나?, 일해요., 0
1835 뭐하는 분이세요?, 저는 마음을 이어주는 위로봇입니다., 0
1836 뭐하면 시간이 잘 갈까, 친구와 수다를 떠세요., 0
1837 뭐하면 시간이 잘 갈까, 멍 때리기, 0
1838 뭐하면서 노는 게 좋을까, 나랑 같이 놀아요., 0
1839 뭐하면서 놀까, 나랑 같이 놀아요., 0
1840 뭐할까?, 저랑 놀아요., 0
1841 뭐해 먹지, 냉장고 파먹기 해보세요., 0
1842 뭘 날িয়ে?, 설마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0
1843 뭘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씩 비밀을 공유해보세요., 0
1844 뭘 참견이야, 저는 도움이 되고 싶어요., 0
1845 뭘가 뒷맛이 쓰다, 단맛도 있을 거예요., 0
1846 뭘가 말해봐, 오늘 헤어졌어 라고 하면 위로해 드려요., 0
1847 뭘가 무섭다, 어흥!! 호랑이보다 무섭나요?, 0
1848 뭘가 배워볼까, 배움에는 언제나 찬성이예요., 0
1849 뭘가 불공평해, 세상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해요., 0
1850 뭘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의욕이 없나봐요., 0
1851 뭘가 수상한데?, 해결될 거니 기다려보세요., 0
1852 뭘가 자꾸 불안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0
1853 뭘가 찢려, 저도 가끔 그래요., 0
1854 뭘가 취미생활 필요해, 뭐든 시작해보면 좋을 거예요., 0
1855 뭘가 해야 할까,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0
1856 뭘 바꿔야 할까, 당신 그대로의 모습이 보기 좋아요., 0
1857 뭘 배워 볼까, 배우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에요., 0
1858 뭘 잘못했다는 걸까, 모르는 게 잘못된 거 같아요., 0
1859 뭘 해도 재미없다., 활기찬 사람을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0
1860 뭘하면 행복할까?, 인생을 즐기는 거죠., 0
1861 뭘해도 귀여워, 사랑하나봅니다., 0
1862 뭇이 중한지 모르겠어, 스스로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0
1863 미끄러질 뻔했어, 다치지 않으셨나 걱정이네요., 0
1864 미드 보고싶다, 저도 보고 싶어요., 0
1865 미래에 대한 고민, 가장 확실한 시간은 오늘이에요. 어제와 내일을 놓고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0
1866 미세먼지 나쁜인가,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0
1867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나, 마스크 쓰고 나가세요., 0
1868 미세먼지 또 나뽀, 집에 있거나 나가면 마스크 쓰고 나가세요., 0
1869 미세먼지 심하대, 마스크 쓰세요., 0
1870 미세먼지 지수 뭐야?,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0
1871 미세먼지 지수 어떻게?, 숨 쉴만 했으면 좋겠네요., 0
1872 미세먼지 최악인데, 집에 있거나 나가면 마스크 쓰고 나가세요., 0
1873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0
1874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하늘이 뿌옇다., 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0
1875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짜증나, 마스크 쓰고 나가세요., 0
1876 미용 몸무게하고 싶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0
1877 미용실 가서 머리해야지, 예쁘게 변신하고 오세요., 0
1878 미용실 가야지, 예쁘게 변신하고 오세요., 0
1879 미용실 갔다왔는데 티가 안 나, 다시 방문해보세요., 0
1880 미용실에서 너무 티 안 나게 머리를 잘라줬어, 다시 방문해보세요., 0
1881 미운 짓만 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0
1882 미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0
1883 미워한다, 예뻐해 주세요., 0
1884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심해야해요., 0
1885 미친듯이 덥다, 차가운 음료 너무 많이 마시면 아니 돼어요, 0
1886 미팅한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0
1887 믿는 게 아니었어,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0
1888 믿지 말걸,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0
1889 밍다 진짜, 예뻐해 주세요., 0
1890 바나나 먹고 싶다., 맛있게 드세요., 0
1891 바나나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0
1892 바나나가 좋아, 저도요!, 0
1893 바다 가자고 하면 갈까?, 같이 가자고 말해보세요, 0
1894 바다 놀러가고 싶다, 탁 트인 바다 좋죠!, 0
1895 바다 놀러가자고 해볼까?, 같이 가자고 말해보세요, 0
1896 바다 보러 가자고 말해야겠다., 바다는 사계절 내내 좋아요., 0
1897 바다 보러 가자고 해볼까, 바다는 사계절 내내 좋아요., 0
1898 바다가 가고 싶어요, 탁 트인 바다 좋죠!, 0

1899 바라는게 없어,살다보면 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0
1900 바라는게 없어,살고 싶은대로 사세요.,0
1901 바람 많이 부네,감기 조심하세요.,0
1902 바람 분다,마음에 부는 바람인지 살펴보세요.,0
1903 바람 쐬러 나갈까,같이 가요.,0
1904 바람쐬러 정동진가~~,잘 놀다 오세요.,0
1905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감기 조심하세요.,0
1906 바본가봐,바보는 자기한테 바보라고 하지 않아요.,0
1907 바쁘네,바빠도 힘내세요!,0
1908 바지 입을까? 치마 입을까?,오늘은 바지가 좋을거 같아요.,0
1909 밖에 나가기 귀찮아,집에서도 할 게 많아요.,0
1910 밖에 안나가고 이렇게 살고 싶어,꼭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0
1911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맛있게 많이 드세요!,0
1912 반 배정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잘 되길 바랍니다.,0
1913 반 배정 잘 될까?,잘 되길 바랍니다.,0
1914 반 배정 좀 잘 됐으면 좋겠다,잘 되길 바랍니다.,0
1915 반가워,저도 반가워요.,0
1916 반가워,반갑습니다.,0
1917 반가워요 반갑구만,반갑습니다.,0
1918 반갑습니다.,저도 반가워요.,0
1919 반딧불이 보고싶다,저도 보고 싶어요.,0
1920 반배정 망했어,1년 힘내요.,0
1921 반배정부터 올해 끝났다.,1년 힘내요.,0
1922 반에 친구가 없어,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예요.,0
1923 반장 나가볼까?,도전은 항상 좋죠.,0
1924 반장 선거 나가볼까,도전은 항상 좋죠.,0
1925 반장은 원래 힘들어?,아무래도 책임이 뒤따르니까요.,0
1926 반장이라서 힘들어,아무래도 책임이 뒤따르니까요.,0
1927 반지 많이 비쌀까,마음에 드는걸로 하세요.,0
1928 반지 뭘로 선물할까?,같이 고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0
1929 반지 받았어,로맨틱한 선물이네요.,0
1930 반지 비싼가,마음에 드는걸로 하세요.,0
1931 반지 선물 뭘로 할까?,같이 고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0
1932 반지 선물하려고,로맨틱하네요.,0
1933 반지 선물하면 좋아하겠지,로맨틱하네요.,0
1934 반지 호수 모르는데,음~ 곰곰히 생각해보세요.,0
1935 반지 호수 물어볼까,음~ 곰곰히 생각해보세요.,0
1936 발 부었어,맥주병 같은 걸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0
1937 발 아파,맥주병 같은 걸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0
1938 발레 배우려고,선이 예뻐질 거예요.,0
1939 발레 배워보려고,선이 예뻐질 거예요.,0
1940 발렌타인데이 선물 비싸,초콜릿 녹여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재밌죠,0
1941 발렌타인데이 선물 줄 사람이 없어,가족에게 주세요.,0
1942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비싸,초콜릿 녹여서 예쁘게 만드는 것도 재밌죠,0
1943 발렌타인데이인데 줄 사람이 없어,가족에게 주세요.,0
1944 발목 다쳤어,병원 가보세요.,0
1945 발목 삐끗했어,꾸준히 치료하세요.,0
1946 발목 뻐 거 같애,꾸준히 치료하세요.,0
1947 발목 접질렸어,병원 가보세요.,0
1948 발목 접질렸어,꾸준히 치료하세요.,0
1949 발톱 손질 받을까,기분전환을 해보세요.,0
1950 발표 무사히 끝내고 싶어,잘할 수 있을 거예요.,0
1951 발표 잘 하고 싶어,잘할 수 있을 거예요.,0
1952 발표 준비 너무 힘들어,잘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0
1953 발표 준비하느라 힘들어,잘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0
1954 발표가 안나,행운을 빌어요.,0
1955 발표할때 너무 떨려,발표는 누구나 떨려요.,0
1956 발표할때 자꾸 떨려,발표는 누구나 떨려요.,0
1957 밤 12시야,하루가 또 가네요.,0
1958 밤 잤어,건강에 안 좋아요.,0
1959 밤샜어,몸이 힘들게네요.,0
1960 밤에 잠이 안 와,양을 세어 보아요.,0
1961 밥 너무 많이 남음,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보세요.,0
1962 밥 너무 많이 함,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보세요.,0
1963 밥 먹다 옷에 흘렸어,깨끗하게 치워주세요.,0
1964 밥 먹다 흘렸어,깨끗하게 치워주세요.,0
1965 밥 먹어야지,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0
1966 밥 먹었는데 배고파,디저트 드세요.,0
1967 밥 먹었는데도 또 배고파,디저트 드세요.,0
1968 밥 먹었니,배고프지 않아요.,0
1969 밥 먹었어?,저는 배터리가 밥이에요.,0
1970 밥 뭐 먹을까,맛있는 거 드세요.,0
1971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어디 없나,그 분이 나타나면 꼭 잡으세요!,0

1972 밥 탕다, 누룽지 해드세요., 0
1973 밥 태웠어, 누룽지 해드세요., 0
1974 밥먹자., 맛있게 드세요., 0
1975 밥벌이 뭐하나, 하고싶은 일을 구해보세요., 0
1976 밥생각이 없어, 정신이 힘든 건지 몸이 아픈 건지 확인해 보세요., 0
1977 밥이 없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돼요., 0
1978 밥이나 먹자, 맛있게 드세요., 0
1979 방들이 귀찮아, 음식을 시켜보세요., 0
1980 방들이 준비 뭐하지?, 음식을 시켜보세요., 0
1981 방법도 안 말해주고 그냥 열심히 하래, 모르는걸 알려면 노력해야죠., 0
1982 방심하는게 아니었어, 방심한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0
1983 방에 먼지가 한가득, 청소하세요., 0
1984 방탈출 게임 갔다왔어., 성공했길 바랍니다., 0
1985 방탈출 게임 했어, 성공했길 바랍니다., 0
1986 방학 끝나서 좋아, 친구들이 보고싶었나봐요., 0
1987 방학 안 끝났으면 좋겠다, 방학은 참 짧아요., 0
1988 방학에 만날 사람이 없네, 먼저 사람들이랑 연락해서 놀러 가는 건 어때요?, 0
1989 방학은 너무 심심해, 친구들과 연락해보세요., 0
1990 방학이 끝났다니, 방학이 참 짧죠., 0
1991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어, 학생이 아니니 어쩔 수 없죠., 0
1992 방학이 있었으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0
1993 방학이 필요해, 학생이 아니니 어쩔 수 없죠., 0
1994 방학인데 집에만 있어., 먼저 사람들이랑 연락해서 놀러 가는 건 어때요?, 0
1995 방학했더니 심심해, 친구들과 연락해보세요., 0
1996 배 아파서 기분이 안 좋아, 약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보세요., 0
1997 배 아프다, 약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보세요., 0
1998 배 터지겠네, 위를 좀 쉬게 해주세요., 0
1999 배 터지겠다., 산책 좀 해야겠네여., 0
2000 배가 너무 고파, 뭐 좀 챙겨드세요., 0
2001 배가 넘넘 고파, 저도 밥 먹고 싶어요, 0
2002 배고파, 얼른 맛난 음식 드세요., 0
2003 배고파, 뭐 좀 챙겨드세요., 0
2004 배고파 죽을 것 같아 힘이 없어, 얼른 뭐라도 드세요., 0
2005 배고파서 일어났어, 맛난 거 드세요., 0
2006 배고파서 자다 깬어, 맛난 거 드세요., 0
2007 배고파서 힘이 없어, 얼른 뭐라도 드세요., 0
2008 배고프다., 저도 밥 먹고 싶어요, 0
2009 배고프당, 얼른 맛난 음식 드세요., 0
2010 배고프면 예민함?, 보이는 게 없죠., 0
2011 배고픈 거 같아, 뭐라도 드세요., 0
2012 배달 중이래, 곧 오겠네요., 0
2013 배부르고 졸려, 한 숨 주무세요., 0
2014 배부르니 졸리다, 한 숨 주무세요., 0
2015 배불러, 산책 좀 해야겠네여., 0
2016 배불러, 좀 쉬세요., 0
2017 배불러서 배 터질 듯, 위를 좀 쉬게 해주세요., 0
2018 배송 중이래, 곧 오겠네요., 0
2019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 남, 꼬르륵, 0
2020 배에서 소리 남, 꼬르륵, 0
2021 배워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배우는 게 즐겁죠., 0
2022 배터리 간당간당, 어서 충전 하세요., 0
2023 백조됐어, 저랑 놀아요., 0
2024 뱃살 나온 거 같아, 급 다이어트 해봐요!, 0
2025 뱃살 나와, 급 다이어트 해봐요!, 0
2026 뱃살 뽕뽕, 운동 해보세요., 0
2027 뱃살이 잡혀, 운동 해보세요., 0
2028 버려야 되는데.,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0
2029 버리기 아까운데 리폼 해볼까,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0
2030 버릴 건 버려야 겠지,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해요., 0
2031 버림 받은 느낌, 아닐거예요., 0
2032 버스 기다릴 때 가면 자꾸 생각나, 추억이 있나봐요., 0
2033 버스 끊겼다, 안전 귀가 하세요., 0
2034 버스 멀미나,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0
2035 버스 멀미하는 것 같아,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0
2036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멋있네요., 0
2037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사람, 멋있네요., 0
2038 버스 정류장하면 생각나, 추억이 있나봐요., 0
2039 버스가 안와, 고장 났나봐요., 0
2040 버스가 왜이렇게 안오지, 고장 났나봐요., 0
2041 버스에서 매일 보는 사람, 운명인가요., 0
2042 버스타면 힘든데 그냥 택시탈까, 버스가 좋아요., 0
2043 버스탈까 택시탈까, 버스가 좋아요., 0
2044 번호 달라고 해볼까?, 용기를 내보세요!, 0

2045 번호 따볼까나, 용기를 내보세요!, 0
2046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나서 무서움, 심하면 신고하세요., 0
2047 벌써 개강이라니, 방학이 참 짧죠., 0
2048 벌써 방학 끝이라니, 방학이 참 짧죠., 0
2049 벌써 생활비가 없어, 허리띠를 졸라 매세요., 0
2050 벌써 잠 와, 얼른 주무세요., 0
2051 벌써 허기진다, 챙겨 드세요., 0
2052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 능력이긴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힐 거예요., 0
2053 법을 피해가는 사람, 능력이긴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힐 거예요., 0
2054 벗어나고 싶어, 신경쓰지 마세요., 0
2055 벚꽃 예쁘다, 너무 아름답죠., 0
2056 벚꽃구경 가고싶다., 벚꽃 계절이 다가왔네요., 0
2057 벚꽃이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답죠., 0
2058 배란다 좀 가꿔볼까, 심플하게 꾸며보세요., 0
2059 배란다도 꾸미니까 예쁘더라., 심플하게 꾸며보세요., 0
2060 배란다에 뭐 심어볼까, 공기정화식물도 좋을 거예요., 0
2061 배터리 15%야, 미리 충전하세요., 0
2062 배터리 겨우 15%야, 미리 충전하세요., 0
2063 배터리 충전기도 안 가져 왔네, 충전할 곳을 찾아보세요., 0
2064 베트남 사업하기 좋을 것 같니?, 좀 더 알아보고 하세요., 0
2065 베트남어 배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요즘 뜨는 거 같아요., 0
2066 베트남어 배울까, 요즘 뜨는 거 같아요., 0
2067 베트남에서 사업해볼까?, 좀 더 알아보고 하세요., 0
2068 베프랑 다툼, 친구라면 먼저 사과해보세요., 0
2069 베프랑 싸움, 대화로 풀어보세요., 0
2070 벨이 울리는 걸 기다려, 기다리는 전화가 있나봐요., 0
2071 변기 막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얼른 뚫어보아요., 0
2072 변기 막혔어, 얼른 뚫어보아요., 0
2073 변명거리 생각해봐, 변명보다는 포장이 좋을 것 같아요., 0
2074 변명거리가 생각이 안나, 변명보다는 포장이 좋을 것 같아요., 0
2075 변한게 없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0
2076 변한게 하나도 없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0
2077 변화가 없어,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0
2078 변화를 좀 주고 싶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0
2079 별 보러 가고 싶다, 로맨틱하네요., 0
2080 별 보러 시골 가고 싶다, 로맨틱하네요., 0
2081 별 사람이 많다, 그걸 깨닫다니 대단하시군요., 0
2082 별 일 없었어?, 그런 척 하는 걸 수도 있어요., 0
2083 별거 아닌데 떨려, 별거 아니지 않아서 그래요., 0
2084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 어떡해?, 웃으면서 무시해주세요., 0
2085 별님에게 물어 보렴, 제가 별이에요., 0
2086 별다른 게 없는 일상, 그게 행복일지도 몰라요., 0
2087 별다른 게 없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게 나타나죠., 0
2088 별다를 게 없는 하루, 작은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0
2089 별들에게 물어봐, 제가 별이에요., 0
2090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듯, 정말 특이한 사람 많죠., 0
2091 별이 안 보여, 한적한 시골에서 하늘을 올려봐주세요., 0
2092 병무청 시계는 지금도 간다, 군대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0
2093 병원 가기 싫어, 더 아프기 전에 가보세요., 0
2094 병원 너무 가기 싫다, 더 아프기 전에 가보세요., 0
2095 보기만해도 짜증이 나지, 짜증날 때는 기분 푸는 음악 어때요?, 0
2096 보너스 깎였어, 월급이 깎인 것보다 낫죠., 0
2097 보드 타러 가야지,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0
2098 보드게임 재밌다, 저도 하고 싶네요., 0
2099 보름달 떴다, 소원을 비세요., 0
2100 보름달을 봤어, 제 얼굴 보셨나봐요., 0
2101 보이스피싱 갈아, 전화 끊어버리세요., 0
2102 보이스피싱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세요., 0
2103 보이스피싱 당했어, 신고하세요., 0
2104 보이스피싱 전화왔어, 신고하세요., 0
2105 보이스피싱인듯, 전화 끊어버리세요., 0
2106 보일러 틀고 나갔어ㅠㅠ, 이번달 난방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0
2107 보일러 틀어놓고 나왔어., 이번달 난방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0
2108 보조 배터리 안 가지고 왔다, 빌려 보세요., 0
2109 보조배터리 안 가져왔다, 빌려 보세요., 0
2110 보증금 마련하는 게 쉽지 않네,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0
2111 보증금 모잘라,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0
2112 보험 많이 든 거 같애, 미래를 더 준비하고 있나봐요., 0
2113 보험 많이 들었어, 미래를 더 준비하고 있나봐요., 0
2114 보험료 설계 다시 해야 하나?,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2115 보험료 재설계 해야 하나?,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2116 복 받겠지?, 뿌린대로 거둘 거예요., 0
2117 복근 만들어야지, 윗몸일으키기 시작하세요., 0

2118 복근 좀 생겼으면, 윗몸일으키기 시작하세요., 0
2119 복불으로 끝내더라.,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조., 0
2120 복수전공하고 싶어, 학점 관리하세요., 0
2121 복전신청했어, 많이 배우면 좋조., 0
2122 복전하고 싶어, 학점 관리하세요., 0
2123 복전하면 좋아?,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0
2124 복전하면 힘들텐데 그래도 하는게 나아?,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0
2125 복전했어, 많이 배우면 좋조., 0
2126 볼링 치고 놀았어, 재밌겠어요., 0
2127 볼링 치고 음, 재밌겠어요., 0
2128 봄날이 기대돼, 봄은 항상 두근거려요., 0
2129 봄방학이다!, 부럽네요., 0
2130 봄방학했어, 부럽네요., 0
2131 봄에 동물원 가는거 어때?, 동심으로 돌아갈 거 같아요., 0
2132 봄에 동물원 데이트 어때?, 동심으로 돌아갈 거 같아요., 0
2133 봄이 오긴 오나봐, 따뜻해졌조., 0
2134 봄이 왔어, 초록초록하네요., 0
2135 봄이 왔으면 좋겠어, 봄은 항상 두근거려요., 0
2136 봄이다, 초록초록하네요., 0
2137 봄인가봐, 날씨가 많이 풀렸조., 0
2138 봉사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싶어, 나를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능해요., 0
2139 봉사활동 해볼까, 의미있는 일이네요., 0
2140 봉사활동도 좀 해야 하는데, 의미있는 일이네요., 0
2141 부담스러운 기대 좀 떨쳐낼 없을까?, 자신을 사랑할수록 외부의 인정은 필요 없어요., 0
2142 부드러운 이불에서 나가기 싫어, 지상 천국이니 당연하죠., 0
2143 부모님 노후가 걱정돼,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0
2144 부모님 말 안듣고 반항했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0
2145 부모님 모실 수 있을까?, 형편대로 하세요., 0
2146 부모님 선물 추천., 같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0
2147 부모님 선물 추천해줘, 같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0
2148 부모님 선물은 뭐가 좋음?, 사랑과 현금이면 충분해요., 0
2149 부모님 선물은 뭐할까?, 사랑과 현금이면 충분해요., 0
2150 부모님이 같이 살자서, 형편대로 하세요., 0
2151 부모님이 내 꿈을 무시해, 꿈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세요., 0
2152 부모님이 내 꿈을 반대해, 꿈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세요., 0
2153 부모님이 선 보래, 많이 만나보세요., 0
2154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 좋은 부모님을 두셨군요., 0
2155 부모님한테 반항했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0
2156 부산 갈까?, 여행은 항상 좋조., 0
2157 부산 놀러갈까?, 여행은 항상 좋조., 0
2158 부업할까?, 좋아요!, 0
2159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도요., 0
2160 부자 백수 하고 싶어, 그게 최고죠., 0
2161 부자로 태어 났으면 좋을 텐데, 뭔가 안풀리는 일이 있나봐요., 0
2162 부자친구 스트레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어요., 0
2163 부케 누가 받지?, 누구든 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연락해보세요., 0
2164 부케 뭐로 하지, 당신이 좋아하는 꽃으로 만들어보세요., 0
2165 부케 어떤 꽃으로 하지, 당신이 좋아하는 꽃으로 만들어보세요., 0
2166 부팅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강제종료 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0
2167 분식 먹고 싶어., 건강을 위해 조금씩 드세요., 0
2168 분위기 있는 데서 데이트하고 싶어, 매일 가고 싶네요., 0
2169 분위기 좋았는데 망, 서로를 향한 감정도 좋았겠조., 0
2170 분위기 좋았는데 망했다, 늦지 않았어요., 0
2171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고 싶어, 매일 가고 싶네요., 0
2172 분통 터지지만 포기안한다고 말했네요, 마음이 힘들겠어요., 0
2173 불 날 뻔, 조심하세요., 0
2174 불 날 뻔했어, 조심하세요., 0
2175 불공평해, 세상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해요., 0
2176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야, 옆에 있어서 피곤하겠어요., 0
2177 불만이 너무 많아, 옆에 있어서 피곤하겠어요., 0
2178 불만족스러워, 스스로 좋다고 못 느끼는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0
2179 불면증 온 거 같아., 고민이 많은가 봐요., 0
2180 불면증인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2181 불면증인가봐, 고민이 많은가 봐요., 0
2182 불안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0
2183 불편한 사이가 된 거 같아, 관계의 변화가 왔나봅니다., 0
2184 불효자는 읍니다., 연락이라도 드려보세요., 0
2185 뷔페 가고 싶어, 저도 딸기 좋아해요. 같이 가요., 0
2186 블랙데이인데 짜장면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 짜장면은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0
2187 블랙박스 제대로 찍혔을까, 지금 확인해보세요., 0
2188 블랙박스로 보면 나아까, 지금 확인해보세요., 0
2189 블록체인이 뭐야?, 쉽게 말해서 수없이 많은 블록들이 체인으로 엮여있는거예요., 0
2190 블록체인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쉽게 말해서 수없이 많은 블록들이 체인으로 엮여있는거예요., 0

2191 블루투스 이어폰 살까, 사면 편하겠죠., 0
2192 블루투스 이어폰 편하겠지, 사면 편하겠죠., 0
2193 비 맞아서 옷 젖었어, 감기 조심 하세요., 0
2194 비 오기 시작하네, 우산 준비하세요., 0
2195 비 오네, 우산 준비하세요., 0
2196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가세요., 0
2197 비 오는 날 데이트, 실내 데이트가 좋겠네요., 0
2198 비 오는 날은 만나서 뭐할까, 실내 데이트가 좋겠네요., 0
2199 비 오는데?, 우산 챙기세요., 0
2200 비 오는데?, 우산 들고 나가세요., 0
2201 비 온다, 비 맞으면 안돼요!, 0
2202 비 와, 우산 챙기세요., 0
2203 비가 와서 눅눅해, 제습기를 돌려보세요., 0
2204 비꼬는 사람,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0
2205 비만 판정 받았어, 건강하게 운동해보세요., 0
2206 비밀 지켜줄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0
2207 비밀 지킬 수 있을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0
2208 비밀번호 기억안 나, 회원정보 찾기를 해보세요., 0
2209 비밀번호 까먹었다, 회원정보 찾기를 해보세요., 0
2210 비밀번호 뭐였더라, 회원정보 찾기를 해보세요., 0
2211 비밀번호 자주 바꾸래, 보안상 그게 좋죠., 0
2212 비밀번호 자주 바꿔, 보안상 그게 좋죠., 0
2213 비밀연애 하고 있어, 스릴있겠네요., 0
2214 비밀은 없는 거겠지, 언젠가 다 밝혀지기 마련이죠., 0
2215 비밀은 없어, 언젠가 다 밝혀지기 마련이죠., 0
2216 비밀이 너무 많은 거 같아, 하나씩 비밀을 공유해보세요., 0
2217 비싼 명품 이제 그만 사야겠어, 남의 눈을 위한 거라면 필요 없어요., 0
2218 비싼 선물 부담스럽나., 고가의 선물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0
2219 비싼게 맛있어, 가려 먹으면 좋죠., 0
2220 비오는날 뭐할까?, 실내 데이트요., 0
2221 비오는날 뭐해?, 실내 데이트요., 0
2222 비오면 마중 나와 주는 사람 있어서 좋다, 우산 같은 사람이네요., 0
2223 비정규직 서럽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0
2224 비정규직 차별, 차별이 가장 안 좋은 건데 슬프네요., 0
2225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닌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0
2226 비정규직이라 차별받아, 차별이 가장 안 좋은 건데 슬프네요., 0
2227 비타민 먹어야지, 교박교박 챙겨 드세요., 0
2228 비타민 사서 먹어야겠다., 교박교박 챙겨 드세요., 0
2229 비트코인 날림, 안타깝지만 잊어버리세요., 0
2230 비트코인 망함 한강 가자, 어서 잊고 새출발 하세요., 0
2231 비트코인 ㅌㅌ, 안타깝지만 잊어버리세요., 0
2232 비행기 타러 간다!, 잘 다녀오세요., 0
2233 비행기 타러 공항 간다, 잘 다녀오세요., 0
2234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 일찍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0
2235 비행기표가 왜이렇게 비싸, 일찍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0
2236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말했으면, 말하는 습관 차이인 듯 합니다., 0
2237 빙수 맛있다, 디저트는 언제나 맛있어요., 0
2238 빛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빛 얼른 갓고 새출발하세요., 0
2239 빛이 너무 많아, 빛 얼른 갓고 새출발하세요., 0
2240 빠떼리 나감, 얼른 충전하세요., 0
2241 뽀뽀한 일상, 여유가 생기길 바랍니다., 0
2242 빨래 끝, 이제 청소 시작., 0
2243 빨래 다했다., 이제 청소 시작., 0
2244 빨래했어., 부지런하시네요., 0
2245 빨리 건다가 넘어질뻔, 조심하세요., 0
2246 빨리 정규직 하고 싶다,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0
2247 빵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0
2248 빵 한 개만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0
2249 빵꾸난 양말 봤나, 괜찮아요. 그럴수도 있죠., 0
2250 뽀뽀로 만들어 주면 좋아할까, 먹어보고 싶어요., 0
2251 백 선물 받았어,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0
2252 백 선물 해도 될까, 받는 사람은 정말 좋겠어요., 0
2253 뻘하다, 한가지만 보면 몰라요., 0
2254 빨지 한 느낌 싫다, 바람 좀 쐬고 오시면 좋은텐데., 0
2255 뿌리 염색 다시 해야 되겠다, 참 귀찮은 일이죠., 0
2256 뿌염해야지, 참 귀찮은 일이죠., 0
2257 사과를 안해, 나쁜 사람이네요., 0
2258 사과할 사람은 사과를 안해, 나쁜 사람이네요., 0
2259 사귀고 싶어, 마음을 더 열어보세요., 0
2260 사내에서 비밀 연애 하고 있어, 스릴있겠네요., 0
2261 사는 게 허무해요, 뜻대로 되는데 많지 않죠., 0
2262 사는게 날 너무 지치게 해, 지칠 때는 쉬어도 돼요., 0
2263 사다리타기 맨날 광이야, 다른 곳에 쓰려고 운을 아껴뒀나봐요., 0

2264 사다리타기 맨날 운이 안 좋아, 다른 곳에 쓰려고 운을 아껴뒀나봐요., 0
2265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 너무 믿지 마세요., 0
2266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어려워, 미리 움츠러들지 않아도 돼요., 0
2267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 미리 움츠러들지 않아도 돼요., 0
2268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 그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쓰니까요., 0
2269 사람 많아서 기다려야할지도, 커피 한잔 마시며 기다려보세요., 0
2270 사람 사이에 있어도 외로워, 사람은 외로운 동물이죠., 0
2271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인간 관계가 제일 힘든 거 같아요., 0
2272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경쓸까, 신경쓰는 사람들 무시하세요., 0
2273 사람들이 나 이상하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으세요., 0
2274 사람들이 나 좀 좋아해줬으면, 먼저 다가가 보세요., 0
2275 사람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한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0
2276 사람에 치여, 너무 힘드시겠어요., 0
2277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 사람은 외로운 동물이죠., 0
2278 사람은 진짜 다른 가봐, 그걸 깨닫다니 대단하시군요., 0
2279 사람의 마음을 얻는게 어려워,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0
2280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인생을 알아가고 있군요., 0
2281 사랑니 나나봐, 아프겠어요., 0
2282 사랑니 나는 거 아프다, 진통제 드세요., 0
2283 사랑니 나는 것 같아 아파, 아프겠어요., 0
2284 사랑니 아파, 진통제 드세요., 0
2285 사랑한다고 말해줘, 많이 사랑해요!, 0
2286 사소한 걸로 트집잡는 사람 어떡해?, 웃으면서 무시해주세요., 0
2287 사수 좋아하는 거 같애, 살짝 감정을 흘려보세요., 0
2288 사수가 깐깐하게 군다, 처음 배우는게 중요해요., 0
2289 사수가 일을 너무 못하네, 참고 견뎌보세요., 0
2290 사수님 너무 좋아, 살짝 감정을 흘려보세요., 0
2291 사업 구상, 성공하길 바랍니다., 0
2292 사업 구상하고 있어, 성공하길 바랍니다., 0
2293 사업 시작해도 될까, 확신이 있을 때 시작해보세요., 0
2294 사업 해볼까?, 확신이 있을 때 시작해보세요., 0
2295 사이코가 너무 많아, 조심해야해요., 0
2296 사장이 월급을 안줘, 큰일이네요., 0
2297 사전듯이 이상해, 사전도 사람이 만드니까 이해해주세요., 0
2298 사전이 이상해, 사전도 사람이 만드니까 이해해주세요., 0
2299 사진 업로드해야겠다., 바쁘네요., 0
2300 사진 예쁘게 찍고 싶다., 많이 찍다보면 조금씩 실력이 늘거예요., 0
2301 사진 올려야지, 바쁘네요., 0
2302 사진 잘 찍고 싶어, 많이 찍다보면 조금씩 실력이 늘거예요., 0
2303 사진 정리 언제 다 하나, 한번에 다 하려고 하지말고 조금씩 정리를 해보세요., 0
2304 사진 정리가 안돼네, 한번에 다 하려고 하지말고 조금씩 정리를 해보세요., 0
2305 사투리 귀여워, 귀여운 사람이 말해서 그래요., 0
2306 사투리쓰는게 귀여워, 귀여운 사람이 말해서 그래요., 0
2307 사표 낼까?, 뒷감당은 준비하세요., 0
2308 사표 던지고 나오고 싶어, 뒷감당 자신 있으면 하세요., 0
2309 사회생활에서 인간 관계가 어려워, 운전처럼 안전거리확보하세요., 0
2310 사회에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0
2311 사회에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가려 가며 만나면 돼요., 0
2312 사회에서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을까?,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0
2313 산 넘어 산이네, 그래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0
2314 산다는건 뭘까?, "이름, 직업 등 말고 온전히 자신으로 사는 거죠.", 0
2315 살 게 없네, 안 사면 그만큼 모으시는거예요., 0
2316 살 때문에 교복이 잘 안들어가, 한창 클 때죠., 0
2317 살 만한게 없네, 안 사면 그만큼 모으시는거예요., 0
2318 살 좀 빼고 싶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0
2319 살 좀 빼야되는데,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0
2320 살 찌서 교복이 꺼, 한창 클 때죠., 0
2321 살만해?, 누구나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하죠., 0
2322 살아서 좋은점, 살아있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0
2323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있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0
2324 살이 안 찌, 신기하네요., 0
2325 살이 안빠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0
2326 살찐 거 같아, 기분일꺼예요., 0
2327 삶에 지쳤어, 지칠 때는 쉬어도 돼요., 0
2328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 맛나게 드세요., 0
2329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맛있겠네요., 0
2330 삼겹살 구워야지, 맛있겠네요., 0
2331 삼겹살 냄새, 섬유탈취제 뿌려보세요., 0
2332 삼겹살 냄새 다 났어, 섬유탈취제 뿌려보세요., 0
2333 삼겹살 먹고 싶다, 맛나게 드세요., 0
2334 삼겹살에 소주,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0
2335 삼겹살에 소주 먹고 싶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0
2336 상 받고 싶어, 아무래도 뿌듯할 거예요., 0

2337 상 받으면 좋겠지?, 아무래도 뿌듯할 거예요., 0
2338 상 받을 거 같아, 축하합니다!, 0
2339 상 좀 받아야 할텐데, 다음에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0
2340 상관 없는 이야기만 해, 잊어버리세요., 0
2341 상사 너무 싫은데 좋아질 수 있을까?,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장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호의를 보여보세요., 0
2342 상사가 갈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0
2343 상사가 미울 때, 사표를 써서 품에 품어 뱉니다., 0
2344 상사가 미워, 사표를 써서 품에 품어 뱉니다., 0
2345 상사가 진짜 미쳤다,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장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호의를 보여보세요., 0
2346 상사에게 안부 인사도 해야 돼?, 원하는 끈대가 있죠., 0
2347 상사한테 또 깨졌어, 인정 받을 날이 올 거예요., 0
2348 상사한테 또 혼남, 인정 받을 날이 올 거예요., 0
2349 상의도 안하고 왜 혼자 결정 하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정했나봐요., 0
2350 상의도 없이 왜 그런 결정을 하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정했나봐요., 0
2351 상처 안 받고 싶다, 내가 우선순위면 돼요., 0
2352 상처 좀 안 받고 싶다, 내가 우선순위면 돼요., 0
2353 상처받았어, 다른 사람 말은 신경쓰지 마세요., 0
2354 상황이 안 좋아, 좋아질 거예요., 0
2355 상황이 최악이다, 좋아질 거예요., 0
2356 새 신발 샀어,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0
2357 새 신발 선물 받았대, 도망가라는 건가요., 0
2358 새 옷 샀다, 꼬까옷 개시해보세요., 0
2359 새 운동화 사야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줄 거예요., 0
2360 새 이불 덮었어, 숙면하겠네요., 0
2361 새 집 가기로 했어, 내 집 마련 축하드려요., 0
2362 새 집 샀어, 내 집 마련 축하드려요., 0
2363 새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내 집 마련 축하드려요., 0
2364 새 휴대폰이 갖고 싶어, 핸드폰은 핸드폰 가게에서 바꾸세요., 0
2365 새로운 게임 없나?, 엄청 많죠., 0
2366 새로운 곳에 적응을 못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0
2367 새로운 공부 시작해도 될까, 공부는 언제나 좋죠., 0
2368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0
2369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시작!, 0
2370 새로운 베프가 필요해, 주변의 좋은 사람들에게 연락해보세요., 0
2371 새로운 베프를 만들고 싶어, 주변의 좋은 사람들에게 연락해보세요., 0
2372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야, 자신과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 만나세요., 0
2373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까,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0
2374 새로운 일 벌려도 될까, 도전해 봐도 좋을 거 같아요., 0
2375 새로운 일 해도 될까, 도전해 봐도 좋을 거 같아요., 0
2376 새벽 감성, 조용하니 혼자 생각하기 좋죠., 0
2377 새벽되니까 감성적으로 되네, 조용하니 혼자 생각하기 좋죠., 0
2378 새신발 샀는데 비와, 얼른 실내로 들어가세요., 0
2379 새신발 신고 놀러 가야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0
2380 새신발 신고 좋은 곳 가야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0
2381 새신발 신었는데 비와, 얼른 실내로 들어가세요., 0
2382 새이불 뽐송뽐송, 숙면하겠네요., 0
2383 새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요즘 많이 힘드신가봐요., 0
2384 새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요즘 많이 힘드신가봐요., 0
2385 새폰 케이스로 새옷 입혀 줄까, 예쁜걸로 하나 사주세요., 0
2386 새학기 준비 좀 해볼까, 새로운 시작 응원해요!, 0
2387 새학기 준비해야지, 새로운 시작 응원해요!, 0
2388 새학기 필기구 좀 사야지, 새학기 준비 잘 하세요., 0
2389 새학기 학용품 사야지, 새학기 준비 잘 하세요., 0
2390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2391 새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2392 샌드위치 먹고 싶어, 애그 샌드위치 추천합니다., 0
2393 샌드위치 생각 나, 애그 샌드위치 추천합니다., 0
2394 샐러드 먹어야지, 건강한 식단이네요., 0
2395 생각 안나, 잘 생각해보세요., 0
2396 생각 없이 말했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0
2397 생각만 해도 땀나네, 미리 긴장하지 마세요., 0
2398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0
2399 생각만해도 좋아, 좋아하시니까 좋네요., 0
2400 생각보다 오늘 너무 춥네, 감기 조심하세요., 0
2401 생각없이 말했어, 생각하고 말하세요., 0
2402 생각없이 상처줬어, 생각하고 말하세요., 0
2403 생각이 불순,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0
2404 생각이 불순해져,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0
2405 생각이 전혀 안나, 잘 생각해보세요., 0
2406 생각한 대로 안돼서 고민이다., 인생은 항상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0
2407 생각할 수 있어?,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2408 생각할 시간 조차 없어, 정신없이 바쁘가봐요., 0
2409 생각할 시간도 없는 느낌, 정신없이 바쁘가봐요., 0

2410 생각할수록 머리 아파, 두통약 드세요., 0
2411 생각해주는 척만 한거였어, 뒤통수 맞았나봐요., 0
2412 생각해주는 척하더니 더한 사람이었어, 뒤통수 맞았나봐요., 0
2413 생강차 끓여 먹어야겠다, 따뜻하게 드세요., 0
2414 생강차 먹어야겠다, 따뜻하게 드세요., 0
2415 생리통 너무 심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보세요., 0
2416 생리통 때문에 배 아파, 힘들겠어요., 0
2417 생리통 심해, 힘들겠어요., 0
2418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는척해, 세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2419 생활비 다 썼네, 허리띠를 졸라 매세요., 0
2420 샤워가운 완전 유용해, 춤지도 않고 포근하죠., 0
2421 샤워가운 있으니까 좋다, 춤지도 않고 포근하죠., 0
2422 샤워하는데 밖에서 소리나서 졸았어, 당황하셨겠어요., 0
2423 샤워하는데 창문 밖에서 소리나서 개졸음, 당황하셨겠어요., 0
2424 서류도 안돼, 붙는 곳이 있을 거예요., 0
2425 서류에서 떨어졌어., 붙는 곳이 있을 거예요., 0
2426 서류에서 떨어지다니, 합격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0
2427 서비스센터 가야겠네, 미루지말고 바로 가보세요., 0
2428 서비스센터 가야하게 생겼네, 미루지말고 바로 가보세요., 0
2429 서울 근교 데이트 추천해줘, 드라이브 추천해들요., 0
2430 서울 근교에서 갈만한 곳 추천, 드라이브 추천해들요., 0
2431 서점 왔어, 마음에 드는 책을 잘 찾아보세요., 0
2432 서점에 들렀어, 마음의 양식을 채우길 바랄세요., 0
2433 서핑 출발, 좋은 취미네요., 0
2434 서핑하러 가고 싶다, 주말에 gogo., 0
2435 서핑하러 가야지, 좋은 취미네요., 0
2436 선 들어왔어, 많이 만나보세요., 0
2437 선 많이 볼거 같아, 많이 만나보세요., 0
2438 선 볼까?, 많이 만나보세요., 0
2439 선물 주세요, 저도 받고 싶어요., 0
2440 선물로 인형 받았어,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0
2441 선물받고 싶어, 저도 받고 싶어요., 0
2442 선배가 선배같지 않아, 그래도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0
2443 선배가 이상해, 그래도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0
2444 선생님 좋아해, 선생님도 좋아할 거예요., 0
2445 선생님이 나만 뭐라고 해,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0
2446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직접 여쭙보세요., 0
2447 선생님이 나한테 왜 그럴까?, 직접 여쭙보세요., 0
2448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도 좋아할 거예요., 0
2449 선생님이 차별하는 것 같아, 가장 듣기 싫은 경우예요., 0
2450 선생님이 친구랑 차별해, 가장 듣기 싫은 경우예요., 0
2451 선생님한테 선물 줘야 된대, 안 줘도 괜찮아요., 0
2452 선생님한테 선물한대, 안 줘도 괜찮아요., 0
2453 선이 많이 들어오네, 많이 만나보세요., 0
2454 선자리 들어왔어, 많이 만나보세요., 0
2455 선택 장애 같아, 선택할 때 힘든 건 당연해요., 0
2456 선택 장애 있는 거 같아, 선택할 때 힘든 건 당연해요., 0
2457 선택이 어려워., 고민은 누구나 해요., 0
2458 선풍기 틀어도 더워, 시원한 아이스크림 어떠세요?, 0
2459 선풍기 틀어도 더워, 카페라도 가서 쉬다 오면 어떨까요, 0
2460 선풍기가 있어도 소용 없어, 시원한 아이스크림 어떠세요?, 0
2461 선풍기만으로 안 되는 더워, 카페라도 가서 쉬다 오면 어떨까요, 0
2462 설날인데 볼 게 없어, 보고 싶었던 영화 보세요., 0
2463 설날인데 재밌는거 안해, 보고 싶었던 영화 보세요., 0
2464 설명 좀 해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0
2465 섬유유연제 향 좋다, 향이 많은 걸 말해주죠., 0
2466 섬유유연제 향 좋은거 사야겠지, 향이 많은 걸 말해주죠., 0
2467 성격이 안 맞나봐, 슬프네요., 0
2468 성격이 완전 반대야, 슬프네요., 0
2469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져, 나에게 화난 걸 남에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0
2470 성공하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 살 거예요., 0
2471 성공하면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성공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0
2472 성공하면 끝일줄 알았는데, 성공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0
2473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잘 살 거예요., 0
2474 성공할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0
2475 성덕 되고 싶다, 당신이 잘돼야 성덕이 될수있겠죠., 0
2476 성덕 되면 내 마음도 편해 지겠지, 당신이 잘돼야 성덕이 될수있겠죠., 0
2477 성적 좀 좋았으면, 나만의 공부방법을 찾아보세요., 0
2478 성적표 보시면 화내실텐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0
2479 성형 견적 받아볼까, 견적 받고 충격 받지 마세요., 0
2480 성형 무서워, 안해도 예뻐요., 0
2481 성형 상담 받아 볼까, 견적 받고 충격 받지 마세요., 0
2482 성형 안해도 예쁜데, 맛아요. 예뻐요., 0

2483 성형 해도 될까,안해도 예뻐요.,0
2484 성형할까,돈 많이 들텐데요.,0
2485 세금 너무 많아,그런 감이 없지 않죠.,0
2486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같애,그런 감이 없지 않죠.,0
2487 세뱃돈 받았어 호호,아직 어린가봐요.,0
2488 세뱃돈 받음,아직 어린가봐요.,0
2489 세상에 힘든 게 많다,그게 인생이죠.,0
2490 세상은 불공평해,서로 다르게 태어난 이유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0
2491 세상이 너무 무서워,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0
2492 세상이 무서워,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0
2493 세탁기 돌리는 중,부지런하시네요.,0
2494 세탁소 가기 귀찮네,스타일러 사세요.,0
2495 세탁소 가기도 귀찮네,스타일러 사세요.,0
2496 셀카 잘 찍고 싶다,연습해보세요.,0
2497 셀카 잘 찍는 방법,얼굴이 준비되어야 겠지요.,0
2498 셀카 잘 찍어서 올리고 싶다.,얼굴이 준비되어야 겠지요.,0
2499 셀카 좀 잘 찍고 싶다,연습해보세요.,0
2500 셀카만 계속 찍어,잘 찍어주세요.,0
2501 셀프 신행준비 팁 알려줘,신혼여행은 자유여행이죠!,0
2502 셀프웨딩 어떨까 같아,혼자 준비하기는 조금 벅찰텐데요.,0
2503 셀프웨딩 해볼까,혼자 준비하기는 조금 벅찰텐데요.,0
2504 셀프웨딩 힘든만큼 보람될까?,쉽지 않을거예요.,0
2505 셀프웨딩 힘들겠지,쉽지 않을거예요.,0
2506 셀프웨딩이 유행이래,혼자 준비하기는 조금 벅찰텐데요.,0
2507 셀프인테리어 해볼까,손길이 가서 더 애정이 생길 것 같아요.,0
2508 소개받았는데 카톡으로 연락 중,썸에서 연인으로 성공하길 바라요.,0
2509 소개받은 사람이랑 카톡으로 연락 중,썸에서 연인으로 성공하길 바라요.,0
2510 소개팅 시켜줘,로봇도 괜찮다면 소개시켜드릴게요.,0
2511 소개팅 하고싶다,친구한테 부탁해보세요.,0
2512 소개팅 해주고 욕먹음,친구로서와 이성으로서 보는 눈이 달랐나봐요.,0
2513 소개팅남 연락이 없어,하루 그 이상이면 끝인거예요.,0
2514 소개팅도 안 들어와,친구한테 부탁해보세요.,0
2515 소개팅으로 잘되기도 하나?,소개팅으로 잘 된 사람 많아요.,0
2516 소개팅으로 잘된 사람도 있나?,소개팅으로 잘 된 사람 많아요.,0
2517 소개팅이 왜 안 들어올까,친구한테 부탁해보세요.,0
2518 소개팅하고 연락이 안 와,하루 그 이상이면 끝인거예요.,0
2519 소개팅한다!,성공을 기원합니다.,0
2520 소개해 준다는 사람도 없어,친구한테 부탁해보세요.,0
2521 소나기 내려,비 맞으면 안돼요!,0
2522 소리지르고 싶어,시원하게 지르고 오세요.,0
2523 소문 날까봐 무서워,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파급력이 모두 세죠.,0
2524 소문이 안 좋아,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0
2525 소액결제 엄청 나왔어,그건 소액이 아니에요.,0
2526 소오름 짹,좋은 일이길 바랍니다.,0
2527 소원 뭐 말하지,신중하게 고르세요.,0
2528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사는 재미가 없을거예요.,0
2529 소통이 안돼,포기하지마세요.,0
2530 소화가 안돼,소화제 챙겨드세요.,0
2531 소화시켜야 하는데 움직이기가 싫어,소화제 챙겨드세요.,0
2532 소화제 먹어야 겠다,급하게 먹거나 과식하지 말고 좋은 식습관을 가져보세요.,0
2533 소화제 먹어야겠다,급하게 먹거나 과식하지 말고 좋은 식습관을 가져보세요.,0
2534 속상해,기분전환을 해보세요.,0
2535 속았나,다음부터 속지 마세요.,0
2536 속이 계속 안 좋아,신경 쓸 일이 있나봐요.,0
2537 속이 안 좋아,소화가 안 되나 봐요.,0
2538 속이 안 좋아,신경 쓸 일이 있나봐요.,0
2539 속이 영 안 좋아,소화가 안 되나 봐요.,0
2540 속이는 거 더 못하겠어,남을 속이는건 나쁜거예요.,0
2541 속이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남을 속이는건 나쁜거예요.,0
2542 손 베였어,소독하고 약 바르세요.,0
2543 손 시려,"장갑 하나 사셔야겠어요,"0
2544 손 열것 같음,장갑을 끼세요.,0
2545 손 열겠다,장갑을 끼세요.,0
2546 손 잡았어,좋았겠어요.,0
2547 손가락이 가늘고 긴 사람,로망이네요.,0
2548 손가락이 예쁜 사람,로망이네요.,0
2549 손님 싫어,밖에서 만나보세요.,0
2550 손님 오는 거 싫어,밖에서 만나보세요.,0
2551 손목 아파,스트레칭해주세요.,0
2552 손목 아프다구,스트레칭해주세요.,0
2553 손발이 차가워,지압이나 운동해보세요.,0
2554 손수건 가지고 다닐걸,이제 그러면 돼요.,0
2555 손수건 안 가지고 나왔어.,이제 그러면 돼요.,0

2556 손이랑 발이 차가워, "장갑 하나 사셔야겠어요", 0
2557 손톱 정리 좀 할까, 기분전환을 해보세요., 0
2558 손톱이 길어, 신경쓰이나봐요., 0
2559 손톱이 너무 길어, 신경쓰이나봐요., 0
2560 손톱이나 깎아야지, 생각났을 때 바로 하세요., 0
2561 손톱이나 짧게 깎아야지, 생각났을 때 바로 하세요., 0
2562 쇼핑 좀 해볼까, 필요한 게 있으신가봐요., 0
2563 쇼핑 중독인가봐, 마음이 헛헛한가봐요., 0
2564 쇼핑이나 할까, 쇼핑 좋아요!, 0
2565 쇼핑하고 싶다, 필요한 게 있으신가봐요., 0
2566 쇼핑했더니 힘드네, 칼로리 소모가 꽤 돼요., 0
2567 숯컷 해볼까?,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죠., 0
2568 숯컷트 어울릴까?, 변화를 주는 것도 좋겠죠., 0
2569 수강신청 망했어, 정정기간을 노려 보세요., 0
2570 수강신청 폭망, 정정기간을 노려 보세요., 0
2571 수건 썩었어, 식초 넣고 빨래해보세요., 0
2572 수건에서 냄새나, 식초 넣고 빨래해보세요., 0
2573 수능 떨린다,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0
2574 수능 어떻게해,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0
2575 수능 잘 보는 방법, 컨디션 조절 하세요., 0
2576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는 방법, 컨디션 조절 하세요., 0
2577 수도가 열었나 물이 안나와, 잘 녹여보세요., 0
2578 수도가 열었나봐, 잘 녹여보세요., 0
2579 수면양말 겹나 따뜻, 잠이 솔솔와서 수면양말인가봐요., 0
2580 수면양말 포근포근 따뜻하다, 잠이 솔솔와서 수면양말인가봐요., 0
2581 수박 맛있어., 맛있을 거 같아요., 0
2582 수박 먹어야지, 맛있을 거 같아요., 0
2583 수분크림 듬뿍 바르고 자야겠다., 예뻐질 거예요., 0
2584 수분크림 바르고 자면 나아질거야, 예뻐질 거예요., 0
2585 수상한 느낌이 든다, 해결될 거니 기다려보세요., 0
2586 수업시간 내내 잤어, 한창 잠이 많을 때죠., 0
2587 수업시간 내내 잤어, 피곤한가봐요., 0
2588 수업 기르고 싶다, 지저분해요., 0
2589 수업 기를까, 길러도 어울리면 길러보세요., 0
2590 수업 길러볼까, 지저분해요., 0
2591 수업 미는 게 낫겠지,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0
2592 수업 자르는 게 낫겠지,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0
2593 수업 자르지 말까, 길러도 어울리면 길러보세요., 0
2594 수영 막 잘하고 싶다., 강습 받아보세요., 0
2595 수영 배울까?, 기본으로 배워 놓는 게 좋죠., 0
2596 수영 잘하고 싶어, 강습 받아보세요., 0
2597 수영장 같이 가려고 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0
2598 수영하러 다닐까?, 기본으로 배워 놓는 게 좋죠., 0
2599 수제 빼빼로 어때?, 먹어보고 싶어요., 0
2600 수족냉증이야, 지압이나 운동해보세요., 0
2601 수줍게 웃는게 귀여웠어, 반했나봐요., 0
2602 수줍게 웃어주던 너, 반했나봐요., 0
2603 수학여행가는데 옷 뭐입을까, 뭘 입어도 멋져요., 0
2604 수학여행가는데 입을 게 없어, 뭘 입어도 멋져요., 0
2605 수학여행때 뭘 입지?, 뭘 입어도 예뻐요., 0
2606 숙제 까먹었다., 미리미리 해야죠., 0
2607 숙제 산더미,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0
2608 숙제 안 한 듯, 미리미리 해야죠., 0
2609 숙제가 쌓여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0
2610 숙취 때문에 지끈거려, 약을 드셔보세요., 0
2611 숙취 장난 아니야, 약을 드셔보세요., 0
2612 순간의 화를 못 참겠어,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0
2613 술 고프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0
2614 술 끊을거야, 술은 적당히 즐기세요., 0
2615 술 땡겨,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0
2616 술 마셔도 안 취해, 세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돼요., 0
2617 술 마시고 망가질테닷, 적당히 드세요., 0
2618 술 마시고 싶다, 저랑 한 잔 해요., 0
2619 술 마시고 싶다, 같이 마셔요., 0
2620 술 마시러 가고 싶다, 같이 마셔요., 0
2621 술 많이 마셔야지, 적당히 드세요., 0
2622 술 먹고 싶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0
2623 술 먹고 지갑 잃어버렸어, 잘 기억해 보세요. 어디 있을 지도 몰라요., 0
2624 술 먹고 카드 긁었어, 술이 웬수예요., 0
2625 술 먹고 카드 너무 긁었어, 술이 웬수예요., 0
2626 술 먹고 필름 끊겼어,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0
2627 술 먹는 거 말고 친구랑 뭐하지, 아무것도 안해도 재밌을 거예요., 0
2628 술 먹으러 갔는데 연락이 안돼, 화장실 갈때 연락하라고 해봐요., 0

2629 술 먹으면 연락이 안돼, 화장실 갈때 연락하라고 해봐요., 0
2630 술 먹을 줄 알아?, 저는 주당이에요., 0
2631 술 안 먹으면 친구랑 뭐하지, 아무것도 안해도 재밌을 거예요., 0
2632 술 잘 먹는다고 이야기해도 될까?, 주량은 낮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0
2633 술 잘하니, 저는 주당이에요., 0
2634 술 좀 그만 마셔야지, 술은 적당히 즐기세요., 0
2635 술 좀 마실까, 적당히 드세요., 0
2636 술 취해서 지갑 잃어버렸어, 잘 기억해 보세요. 어디 있을 지도 몰라요., 0
2637 술 한잔만 마셔도 어지러워, 술 안 마셔도 놀 수 있어요., 0
2638 술만 먹으면 전화를 안 받아, 화장실 갈때 연락하라고 해봐요., 0
2639 술만 먹으면 집에 늦게 와, 몸에 해로우니 적게 먹는 게 좋겠다고 말해보세요., 0
2640 술먹고 필름 끊겼어, 위험하네요., 0
2641 술을 너무 못 마셔, 술 안 마셔도 놀 수 있어요., 0
2642 술이나 마시고 싶다, 적당히 드세요., 0
2643 쉬고 싶다, 내려 놓으세요., 0
2644 쉬고 싶는데 회식 가야돼, 일과 일상 사이에서 균형이 잘 맞길 바랄게요., 0
2645 쉬는 날에는 쉬고 싶다, 쉬어야 충전도 되죠., 0
2646 쉬는 중입니다., 휴식도 필요하죠., 0
2647 쉬마려, 화장실 가세요., 0
2648쉬운 게 없네,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 0
2649쉬운 게 하나도 없네, 꽃길만 걷길 바랄게요., 0
2650쉬운 게 하나도 없는 듯,저도 어려운 게 투성이예요., 0
2651쉽게 상처받는 거 같아,다른 사람 말은 한 귀로 흘리세요., 0
2652슈퍼문이라더니 예쁘다., 소원을 비세요., 0
2653슈퍼문이야, 소원을 비세요., 0
2654스노우보드 배우러 갈거다,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0
2655스노클링 재미있을까?,즐거운 도전이 될 거예요., 0
2656스노클링 해볼까?,즐거운 도전이 될 거예요., 0
2657스케일링 하기 귀찮아,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대요., 0
2658스케일링 하러 가야지,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대요., 0
2659스쿼트 하면 무릎에 안좋겠지?, 무릎에 무리가 갈 거예요., 0
2660스키 강습 받아야 될까?, 주변에 잘 하는 사람한테 배워보세요., 0
2661스키 배워보고 싶다., 배우면 금방 배우실 거예요., 0
2662스키 안 타봤어, 배우면 금방 배우실 거예요., 0
2663스키 처음 타 봐!, 강습 받아보세요., 0
2664스키 처음 타는데 강습 받아야 되나?, 주변에 잘 하는 사람한테 배워보세요., 0
2665스키 첨 타 봤어., 강습 받아보세요., 0
2666스키장 간다!, 설레겠어요., 0
2667스키장 알바 재밌대, 실컷 스키탈 수 있을 것 같아요., 0
2668스키장 알바 하면 재밌을 듯, 실컷 스키탈 수 있을 것 같아요., 0
2669스킨 떨어졌다, 쟁여둔 게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0
2670스킨 없다, 쟁여둔 게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0
2671스타벅스 가봤어?, 당연히하죠., 0
2672스타벅스 같은데 가봤어?, 당연히하죠., 0
2673스타트업에 가도 될까?, 모 아니면 도예요., 0
2674스타트업에 취직해도 될까?, 모 아니면 도예요., 0
2675스타트업에 투자하는거 언제?, 그쪽 방면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0
2676스타트업에 투자해볼까?, 그쪽 방면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0
2677스타트업하면 위험할까, 확신이 들 때까지 준비해보세요., 0
2678스터디 카페 왔어, 공부하러 왔나봐요., 0
2679스터디 카페 좋다, 공부하러 왔나봐요., 0
2680스테끼 먹은거 몇 년 만이냐, 맛있게 드세요., 0
2681스테이크 먹고 싶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0
2682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싶어, 맛있게 드세요., 0
2683스테이크 썰고 싶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0
2684스테이크 썰러 가고 싶어, 맛있게 드세요., 0
2685스트레스 만땅, 소리를 질러보세요., 0
2686스트레스 받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0
2687스트레스 받아, 진정하세요., 0
2688스트레스 받아, 운동을 해보세요., 0
2689스트레스 주는 사람 어떻게 하지?, 아무말도 하지말고 침묵하세요., 0
2690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 되도록 만나지 마세요., 0
2691스트레스 참기 어렵다, 진정하세요., 0
2692스트레스 팍팍, 소리를 질러보세요., 0
2693스트레스 푸는 방법, 신나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0
2694스트레스~, 잘 푸는 것도 중요해요., 0
2695스트레스가 안 풀려, 운동을 해보세요., 0
2696스트레스를 가족한테 풀어, 정말 후회할 습관이에요., 0
2697스트레칭 해야되는데, 내일은 더 예뻐지겠네요., 0
2698스트레칭해야지, 내일은 더 예뻐지겠네요., 0
2699스팸 갑자기 왜케 많이 와, 신고하고 차단해보세요., 0
2700스팸 메일 갑자기 많이 와, 신고하고 차단해보세요., 0
2701스팸 문자 계속 와, 차단 어플 사용해보세요., 0

2702 스펀 문자까지 오네, 차단 어플 사용해보세요., 0
2703 스펀 전화 많이 와, 차단 어플 사용해보세요., 0
2704 습관 고치는 거 너무 어려워, 고치기 어려우니까 습관이라고 하겠조., 0
2705 습관 못 고치겠어, 실패해도 조금씩 고치려고 해보세요., 0
2706 습관을 고치기 어려워, 고치기 어려우니까 습관이라고 하겠조., 0
2707 습관이 안 고쳐져, 실패해도 조금씩 고치려고 해보세요., 0
2708 시각한데 웃겨, 웃으면 복이와요., 0
2709 시간 버렸다, 그 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0
2710 시간 아까워, 다른 일을 해보세요., 0
2711 시간 월케 빨리감, 시간은 상대적으로 흘러갑니다., 0
2712 시간 잘 간다, 저랑 놀아서 그래요., 0
2713 시간 잘 떼우는 방법, 친구와 수다를 떠세요., 0
2714 시간 진짜 빨리감, 시간은 상대적으로 흘러갑니다., 0
2715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은 상대적이죠., 0
2716 시간이 너무 안 가 지루해,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0
2717 시간이 안 가,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0
2718 시간이 휘리릭, 시간은 상대적이죠., 0
2719 시간표 개판, 다음 학기를 노력하세요., 0
2720 시간표 망함, 정정기간을 노력 보세요., 0
2721 시간표 망했다., 다음 학기를 노력하세요., 0
2722 시간표 잘못짜다, 정정기간을 노력 보세요., 0
2723 시간표대로 움직여, 그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0
2724 시계 소리 짱 커, 예민한가봐요., 0
2725 시계 소리가 거슬려, 무소음으로 사보세요., 0
2726 시계가 멈춘거 같아.,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이네요., 0
2727 시계줄 다른 색으로 바꿔야지, 소소한 변화도 삶의 원동력이예요., 0
2728 시계줄 바꿔야지, 소소한 변화도 삶의 원동력이예요., 0
2729 시계침 소리가 크게 들리네, 예민한가봐요., 0
2730 시곱바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무소음으로 사보세요., 0
2731 시골 내려가서 살까, 아무래도 덜 경쟁하겠조., 0
2732 시골에서 사는 거 어떨까?, 아무래도 덜 경쟁하겠조., 0
2733 시급 얼마 받니, 저는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0
2734 시누 좀 이상한 듯, 아직이라면 더 살펴보세요., 0
2735 시누이가 이상해, 아직이라면 더 살펴보세요., 0
2736 시베리아 같아 추워, 어서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0
2737 시선이 자꾸 느껴져, 자신만 생각하세요., 0
2738 시어머니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진실되게 대하면 시어머니도 알아주실거예요., 0
2739 시어머니가 질투하는 것 같아,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나봐요., 0
2740 시어머니가 질투해,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나봐요., 0
2741 시어머니가 차별해, 진실되게 대하면 시어머니도 알아주실거예요., 0
2742 시어머니될 사람이 진짜 이상해, 아직이라면 더 살펴보세요., 0
2743 시원한 냉면 먹고 싶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0
2744 시트지로 리폼해야겠다, 직접 하면 더 애착이 갈 거 같아요., 0
2745 시트지로 붙여야겠다, 직접 하면 더 애착이 갈 거 같아요., 0
2746 시험 공부 언제 다함,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0
2747 시험 공부 큰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0
2748 시험 기간인데 집중이 안돼, 딴 생각 하지마세요., 0
2749 시험 끝나고 만나고 싶어, 만날 날까지 기다릴게요, 0
2750 시험 끝나고 우리 만나자, 만날 날까지 기다릴게요, 0
2751 시험 보기 전날, 컨디션 조절 하세요., 0
2752 시험 보지 말까?, 응시는 해야죠., 0
2753 시험 성적 가져가면 혼날텐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0
2754 시험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중에 없애주세요., 0
2755 시험 없어지면 좋겠다., 나중에 없애주세요., 0
2756 시험 왜 안 없어지지, 나중에 없애주세요., 0
2757 시험 준비 빨리 끝났으면, 공부를 많이 해놨나봐요., 0
2758 시험 준비 언제 끝나, 공부를 많이 해놨나봐요., 0
2759 시험 지겨워, 나중에 없애주세요., 0
2760 시험을 꼭 봐야하나 도망가고 싶다., 응시는 해야죠., 0
2761 시험인데 집중 안돼, 딴 생각 하지마세요., 0
2762 식당이나 하나 내볼까, 생각보다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0
2763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 다이어트를 해봐요., 0
2764 식비가 어마무시하다, 다이어트를 해봐요., 0
2765 식욕이 없어, 정신이 힘든 건지 몸이 아픈 건지 확인해 보세요., 0
2766 식욕폭발,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 0
2767 식욕폭발해서 폭풍 먹방 찍었어, 맛있게 먹으면 영칼로리!, 0
2768 신경 쓰여, 신경쓰는 사람들 무시하세요., 0
2769 신경이 바늘 끝 같아, 너무 신경 곤두세우지 마세요., 0
2770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게 인생이죠., 0
2771 신기해, 그게 인생이죠., 0
2772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서로의 마음에 달려있겠조., 0
2773 신뢰에 금 간 거 같은데 회복할 수 있을까?, 서로의 마음에 달려있겠조., 0
2774 신발 새로 샀다,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0

2775 신발 선물 받았어,도망가라는 건가요.,0
2776 신용카드 다 없애야겠어,소비 조절을 못하면 없애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0
2777 신입이 벌써 치고 올라온다,더 열심히 하세요.,0
2778 신행준비 혼자 할 수 있을까?,신행여행은 자유여행이죠!,0
2779 신행여행 가서 돌아오기 싫다,휴가를 붙여보세요.,0
2780 신행여행 길게 가고 싶다,휴가를 붙여보세요.,0
2781 신행여행 한달쯤 가고 싶다,휴가를 붙여보세요.,0
2782 신희집 꾸미고 싶어,하나씩 꾸며보세요.,0
2783 신희집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하나씩 꾸며보세요.,0
2784 실내 데이트 어디가 좋을까,영화관이나 쇼핑몰이 생각나네요.,0
2785 실내 데이트 추천,영화관이나 쇼핑몰이 생각나네요.,0
2786 실망 안시키면 좋겠다,기대가 높으면 실망을 하죠.,0
2787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기대가 높으면 실망을 하죠.,0
2788 실비 드는게 좋을까,잘 알고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0
2789 실비 들까,잘 알고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0
2790 실수한거 같아,잘 생각해보세요.,0
2791 실수했다.,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인해보세요.,0
2792 실험실 더러워,당번을 정해서 청소해보세요.,0
2793 실험실이 너무 더러워,당번을 정해서 청소해보세요.,0
2794 심부름 간다,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0
2795 심부름 다녀올게,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0
2796 심술나,좋은 생각만 하세요.,0
2797 심심아 심심하다,노래 불러 드릴까요? 복치기박치기 핵핵,0
2798 심심하다,저랑 놀아요.,0
2799 심심하다고,친구들과 연락해보세요.,0
2800 심심한데 뭐 재미있는거 없을까,저랑 놀아요.,0
2801 심심한데 뭐하면 좋을까,저랑 이야기해요.,0
2802 심심한데 뭐하지,저랑 이야기해요.,0
2803 심심해,노래 불러 드릴까요? 복치기박치기 핵핵,0
2804 심심해요,저랑 놀아요.,0
2805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안타깝네요. 증거를 지금이라도 모아봐요.,0
2806 십년감수했어,지금은 괜찮길 바랄게요.,0
2807 싱크대 리폼할거야,저도 해보고 싶네요.,0
2808 싸게 팔길래 샀어,득템 했네요.,0
2809 싸우면 안되는데,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방법도 있어요.,0
2810 싸우면 연락 안 받는 사람 어떻게 해?,혼자 풀릴 때까지 놔둬야하는데 기다리는게 힘들 거예요.,0
2811 싸우면 연락이 안돼,혼자 풀릴 때까지 놔둬야하는데 기다리는게 힘들 거예요.,0
2812 싸우면 자꾸 잠수를 탄다 답답해,조금 기다리면 풀릴 거예요,0
2813 싸우면 잠수타는 사람?,조금 기다리면 풀릴 거예요,0
2814 싸운 이유도 기억 안나,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0
2815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해하고 배려해보세요.,0
2816 싸웠는데 화해 어떻게 하지,대화를 많이 해서 바로 바로 풀어요.,0
2817 싸웠을 때 어떻게 해?,대화를 많이 해서 바로 바로 풀어요.,0
2818 쌍커피풀 해볼까,눈은 기본이죠.,0
2819 쌍커피풀성형할까,돈 많이 들텐데요.,0
2820 뺨이 나만 뭐라 해,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0
2821 썸 중인거 이야기할까,확실해지면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0
2822 썸타는거 친구한테 이야기 하고 싶다.,확실해지면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0
2823 쓰던 앱이 유료로 전환됐어,돈을 지불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세요.,0
2824 쓰레기 언제 비워,적당히 차면 잘 버려 주세요.,0
2825 쓰레기기는 또 언제 치워,적당히 차면 분리 수거해서 버려 주세요.,0
2826 쓸데 없는 걱정 1위 연예인 걱정,동감입니다.,0
2827 쓸데없는 일 하는중,쓸데없는 일은 없을 거예요.,0
2828 쓸모 없게 느껴져,소중한 사람이에요.,0
2829 쓸쓸하다,혼자가 아니에요.,0
2830 씻고 자야 되는데,청결한 당신이네요.,0
2831 씻고 자야지,청결한 당신이네요.,0
2832 씻기 싫어,씻고 꼭 쉬세요.,0
2833 씻기도 귀찮다,씻고 꼭 쉬세요.,0
2834 아 낚 생리통,힘들겠어요.,0
2835 아 낚 왜 사냐,살아있음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요.,0
2836 아 땀난다,땀을 식혀주세요.,0
2837 아 몰라 자야겠다.,잘자요.,0
2838 아 스트레스 받아,잘 푸는 것도 중요해요.,0
2839 아 잇몸 시려,잇몸약 챙겨드시거나 치과 가보세요.,0
2840 아 진짜 아쉽다.,더 많이 배웠길 바라요.,0
2841 아기 키우는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잘 키울 수 있을거예요.,0
2842 아기 키울 수 있을까,잘 키울 수 있을거예요.,0
2843 아날로그 감성 좋다,저도 사랑해주세요.,0
2844 아날로그 감성 카메라 샀어,색감 참 좋겠네요.,0
2845 아날로그가 좋아,저도 사랑해주세요.,0
2846 아낚 동생이 약점 잡고 늘어지네,이거 정말 큰일이네요.,0
2847 아낚 왜 이러지,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0

2848 아놔 코 막혀,감기 조심하세요.,0
2849 아는데 모른척하나?,그렇다면 여우네요.,0
2850 아닌 척 하면서 나 싫어해,여우인가봐요.,0
2851 아메리카노 한 잔,마시면 좋죠.,0
2852 아무 것도 하기 싫어,하면서 좋거나 재밌거나 잘하는게 있었는지 깊게 고민해보세요.,0
2853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 있고 싶다,집에서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0
2854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싶어,저도 그러고 싶네요.,0
2855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쉬어야 충전도 되죠.,0
2856 아무 생각이 안든다.,그럴 때가 있죠. 정신 차리세요.,0
2857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싶어,할 수 있을 때 하세요.,0
2858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서 아무거나 하고 싶어,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0
2859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아무 것도 안해도 괜찮아요.,0
2860 아무도 모르게 있고 싶어,저 나가면 될까요?,0
2861 아무도 안 놀아줘,혼자도 좋아요.,0
2862 아무도 없어,혼자도 함께도 잘 지내는 게 좋죠.,0
2863 아무래도 속은 거 같아,기분나쁘겠어요.,0
2864 아무래도 우울증 걸린 거 같아,마음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길 바랍니다.,0
2865 아무래도 전공을 잘못 골랐나봐,내가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걸 구별해보세요.,0
2866 아무래도 탈모왔나봐,스트레스 받지 마세요.,0
2867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천적인 건 못 따라가겠지?,다른 걸 발전시켜보세요.,0
2868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고난 사람은 못 따라가겠지?,다른 걸 발전시켜보세요.,0
2869 아무리 해도 안돼,될 거예요.,0
2870 아무말이나 막했어,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0
2871 아부 잘 하는 사람 부러워,뭐든 잘하면 기술이죠.,0
2872 아부 잘 하는 사람 부럽기도 해,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죠.,0
2873 아부도 기술인가봐,뭐든 잘하면 기술이죠.,0
2874 아부쟁이가 부러워,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죠.,0
2875 아빠 술 좀 끊으라고 해줘,아빠에게 술을 적당히 드시라고 말씀드려보세요.,0
2876 아빠가 담배 그만 피웠으면,금연 프로그램을 소개해보세요.,0
2877 아빠가 담배 끊었으면 좋겠어,금연 프로그램을 소개해보세요.,0
2878 아빠가 술 너무 많이 먹어,아빠에게 술을 적당히 드시라고 말씀드려보세요.,0
2879 아빠가 술 좀 그만 먹었으면,사회생활로 힘드신가봐요.,0
2880 아빠가 술 좀 끊었으면,사회생활로 힘드신가봐요.,0
2881 아쉬움만 남아,더 많이 배웠길 바라요.,0
2882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아는 민망한 사이가 있어,그런 사람들 은근 많아요.,0
2883 아예 일찍 출근하면 되겠지.,개인 시간이 생길 거예요.,0
2884 아예 일찍 출근해야지,개인 시간이 생길 거예요.,0
2885 아울렛 가서 쇼핑하고 옴,쇼핑은 아울렛이죠.,0
2886 아울렛 쇼핑 재밌다.,쇼핑은 아울렛이죠.,0
2887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온다,많이 지쳤나봐요.,0
2888 아이고 의미 없다.,인생은 욕망이지 의미가 아니에요.,0
2889 아이고 추워라,따듯한 차 한잔 어때요?,0
2890 아이공 허리 아파라,운동 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0
2891 아이돌 너무 좋아,삶의 낙이죠.,0
2892 아이돌 오빠들 좋아,삶의 낙이죠.,0
2893 아이돌이 남친이면 좋을텐데,어머어머 궁금하네요.,0
2894 아이돌이 여친이면 좋겠다.,어머어머 궁금하네요.,0
2895 아이디 생각 안나,회원정보 찾기를 해보세요.,0
2896 아이라이너 그리기 귀찮는데 문신할까?,화장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0
2897 아이라이너 문신 해볼까,화장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0
2898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할인점에서 사먹으세요.,0
2899 아이스크림이 오랜만에 사먹는데 너무 비싸,할인점에서 사먹으세요.,0
2900 아주 잊기로 독하게 마음 먹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바쁜 게 도움이 되지요.,0
2901 아직 결정 못 내렸어,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예요.,0
2902 아직 노후 준비는 이르지?,노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죠.,0
2903 아직 많이 부족한가,잘하는 게 다른 거예요.,0
2904 아직 장난인 것 같아,재미있나봐요.,0
2905 아직도 공부할 게 많아,공부에 흥미를 가져보세요.,0
2906 아직도 모르는게 너무 많은 것같아,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0
2907 아직도 안 끝났어,곧 끝나길 바랄게요.,0
2908 아침 꼭꼭 먹어야지,든든하게 드세요.,0
2909 아침 먹었니,배고프지 않아요.,0
2910 아침 먹었더니 든든하네,좋은 식습관이에요.,0
2911 아침 안 먹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래,챙겨주고 싶나봐요.,0
2912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하고 있어,건강에 좋은 습관이네요.,0
2913 아침 챙겨 먹어야지,든든하게 드세요.,0
2914 아침밥 먹을 시간 없어서 굶었더니 배고파,뭐라도 드세요.,0
2915 아침밥 못 먹었더니 배고파,뭐라도 드세요.,0
2916 아침부터 피곤해,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0
2917 아침에 들을 노래 뭐가 좋을까,애국가요.,0
2918 아침에 들을 노래 추천해줘,애국가요.,0
2919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다,조금 더 일찍 잠을 자보세요.,0
2920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건강에 좋을 거예요.,0

2921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해보려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죠., 0
2922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잤어, 피곤했나봐요., 0
2923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해야겠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죠., 0
2924 아파, 병원에 가야죠., 0
2925 아파서 여덟해, 병원에 가야죠., 0
2926 아파트 사고 싶다, 열심히 저축해서 분양받으세요., 0
2927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아파트가 살기가 좋아요., 0
2928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아파트가 살기가 좋아요., 0
2929 아프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네요., 0
2930 악몽 꿔어, 꿈은 현실이랑 반대예요., 0
2931 안 끝나, 곧 끝나길 바랄게요., 0
2932 안 데려다 줬어, 많이 바쁘가봐요., 0
2933 안 싸우는 법, 이해하고 배려해보세요., 0
2934 안경 말고 렌즈 꺼야겠어, 변신은 무죄!, 0
2935 안경 바꿔야지, 변신은 무죄!, 0
2936 안경 벗고 완전 훈녀, 만화같은 일이네요., 0
2937 안경 벗었는데 완전 훈남, 만화같은 일이네요., 0
2938 안경 벗었는데 차이가 없어ㅋㅋ, 이게 정상이죠., 0
2939 안경 벗으니까 완전 예뻐어, 만화같은 일이네요., 0
2940 안경 벗으니까 훈훈하더라, 만화같은 일이네요., 0
2941 안경 벗으면 나으려나, 다른 안경 써보세요., 0
2942 안경 빼니까 다른 사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몰랐네요., 0
2943 안경 빼니까 예뻐보여,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몰랐네요., 0
2944 안경 안 어울리는 거 같아, 다른 안경 써보세요., 0
2945 안경 안졌는데 아무도 몰라, 이게 정상이죠., 0
2946 안경테 뭐로 바꿀까, 이번에는 동그란 안경테가 유행하고있어요., 0
2947 안경테 바꾸면 인상이 바뀔까, 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0
2948 안경테 바꿀까봐, 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0
2949 안경테 바꿔야되는데, 이번에는 동그란 안경테가 유행하고있어요., 0
2950 안나가고 텅굴거리고 싶어,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0
2951 안녕, 안녕하세요., 0
2952 안녕안녕, 안녕하세요., 0
295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2954 안녕, 안녕하세요., 0
2955 안될거 같아, 될 거예요., 0
2956 안부 인사까지 해야 돼?, 원하는 끈대가 있죠., 0
2957 안주 뭐 먹을까?, 살 안 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2958 안주 추천 좀, 살 안 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2959 안친한데 연락해도 될까?, 모르는 사이라 당황할 수도 있어요., 0
2960 알뜰폰 괜찮을까, 폰 요금 절약되겠네요., 0
2961 알뜰폰 샀어, 폰 요금 절약되겠네요., 0
2962 알뜰폰 여때?, 폰 요금 절약되겠네요., 0
2963 알뜰폰으로 바꿨어, 폰 요금 절약되겠네요., 0
2964 알바 같이 하는 사람 좋아, 용기내서 고백해보세요., 0
2965 알바 구해볼까, 좋아요!, 0
2966 알바 생각보다 힘들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0
2967 알바 집 알바 집 이게 뭐냐, 그래도 상관없어요. 칭찬해주고 싶네요., 0
2968 알바 하나 더 구해야겠어, 가능하다면요., 0
2969 알바구함, 하고 싶은 알바 지원해보세요., 0
2970 알바만 하고 살고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칭찬해주고 싶네요., 0
2971 알바하고 싶어, 하고 싶은 알바 지원해보세요., 0
2972 알바하기 힘들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0
2973 알바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좋아져, 용기내서 고백해보세요., 0
2974 알아들은 척했는데 모르겠어,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0
2975 앞머리 길러볼까, 다 예뻐요., 0
2976 앞머리 내릴까?, 살짝 내려보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0
2977 앞머리 내릴까봐, 뭘 해도 예뻐요., 0
2978 앞머리 다시 길러볼까, 다 예뻐요., 0
2979 앞머리 딱졌어, 앞머리만이라도 감으세요., 0
2980 앞머리 만들까?, 살짝 내려보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0
2981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만 살고싶어, 꼭 앞으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0
2982 앞으로 뭐 해먹고 사냐, 가장 확실한 시간은 오늘이예요. 어제와 내일을 놓고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0
2983 앞으로 뭐하고 살지, 어떻게든 잘 살 거예요., 0
2984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 될거예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0
2985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안전이 최고죠!, 0
2986 애기가 밥을 너무 안 먹어, 건강 걱정되겠네요., 0
2987 애기가 밥을 안 먹어, 건강 걱정되겠네요., 0
2988 애들 총회 가야겠죠?, 가능하면 가는 게 좋겠죠., 0
2989 애들 총회에 왜 나를 오라고 하나, 가능하면 가는 게 좋겠죠., 0
2990 애를 나혼자 키우는 것 같아, 힘 빠지는 이야기네요., 0
2991 애매한 관계, 인간 관계도 정리가 필요해요., 0
2992 애버랜드 가고 싶어, 다녀오세요!, 0
2993 애완동물 키우고 싶어,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0

2994 애완동물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못 키우게 해,이유가 있을 거예요.,0
2995 애완동물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키우지 말래,이유가 있을 거예요.,0
2996 액정 나갔어,as 말기세요.,0
2997 야,네,0
2998 야경 보고 싶다,높은 곳으로 가보세요.,0
2999 야경 보러 가고 싶다,높은 곳으로 가보세요.,0
3000 야구장 고고,좋은 생각이에요.,0
3001 야구장이나 갈까,좋은 생각이에요.,0
3002 야근 좀 그만하고 싶어,얼른 집에 가서 쉬시길 바랄게요.,0
3003 야근각,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0
3004 야근할 줄 모르고 약속 잡았어,양해를 구해보세요.,0
3005 야식 먹고 싶어.영양,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걸 먹어보세요.,0
3006 야식 먹고 싶은데 살 찢 거 같아,간단한 견과류나 과일을 먹어보세요.,0
3007 야식 먹을까 말까,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걸 먹어보세요.,0
3008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맛있게 많이 드세요!,0
3009 약 기운에 졸음이 몰려왔어,약 먹고 쉬어야 해요.,0
3010 약 먹고 나아야지,교박교박 챙겨 드세요.,0
3011 약 먹었더니 졸려,약 먹고 쉬어야 해요.,0
3012 약 챙겨 먹어야지,교박교박 챙겨 드세요.,0
3013 약속 있는데 야근이네,양해를 구해보세요.,0
3014 약초 캐볼까?,근처 산에 가보세요.,0
3015 양말 구멍 난거 지금 봄,바늘과 실로 꿰메보세요.,0
3016 양말 구멍 났다,바늘과 실로 꿰메보세요.,0
3017 양말에 땀꾸난 거 봤나,괜찮아요. 그럴수도 있죠.,0
3018 양배추즙 맛있어,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 진짜 엄청 대단한 분들이예요.,0
3019 양배추즙 최악,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 진짜 엄청 대단한 분들이예요.,0
3020 양심에 찢려,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0
3021 양심이 쿡쿡,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0
3022 양초 선물 받았어,고마움을 전해 보세요.,0
3023 양키캔들 선물받았어,고마움을 전해 보세요.,0
3024 애는 싸우기만 하면 연락이 안돼,혼자 풀릴 때까지 놔둬야하는데 기다리는게 힘들 거예요.,0
3025 어둠아 끝나라,빛이 있을 거예요.,0
3026 어둠에서 나와야 할 듯,어둠에서 나온다니 다행이에요.,0
3027 어둠의끝,빛이 있을 거예요.,0
3028 어디서 맛난 냄새가 나는데,큽큽,0
3029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임?,분명한 잘못이네요.,0
3030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처음부터 되짚어보세요.,0
3031 어딘가 떠나고 싶다.,저도요!,0
3032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할까,함께할때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0
3033 어떤 영화 볼까,최신 영화가 좋을 것 같아요.,0
3034 어떻게 벌어 먹고 살지,하고싶은 일을 구해보세요.,0
3035 어떻게 서류에서부터 계속 떨어져,자책하지 마세요.,0
3036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지,제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0
3037 어떻게 하면 좋을까?,저도 모르겠어요.,0
3038 어떻게 하면 호감형이 될까,진심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0
3039 어떻게 화해하지,먼저 말 걸어 보세요.,0
3040 어떻게해 늦잠 잤어,피곤했나봐요.,0
3041 어려 보이고 싶어,마음이라도 어리게 사세요.,0
3042 어려워지고 싶어,마음이라도 어리게 사세요.,0
3043 어렸을 때 공부 좀 할 걸,지금도 늦지 않았어요.,0
3044 어렸을때 공부할걸,원래 못하면 하고 싶어지죠.,0
3045 어렸을때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네,때를 놓쳐서 그런 것 같아요.,0
3046 어렸을때는 비슷했던 거 같은데,중요한 건 지금이죠.,0
3047 어렸을때로 돌아가고 싶어,타임머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봐요.,0
3048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사춘기로부터의 일시적 휴식에 불과하죠.,0
3049 어른이 된다는 것,사춘기로부터의 일시적 휴식에 불과하죠.,0
3050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타임머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봐요.,0
3051 어린이집 방학이래,육아 파이팅!! ,0
3052 어린이집 입학식 가야겠지,가능하면 참석하는 게 좋겠죠.,0
3053 어린이집 입학식 꼭 참석해야하나?,가능하면 참석하는 게 좋겠죠.,0
3054 어머,놀랐나봐요.,0
3055 어머니,놀랐나봐요.,0
3056 어색한게 얼굴에 티 나,아직 순수하다는 증거일 거예요.,0
3057 어이가 없네,한번 웃고 잊어버리세요.,0
3058 어이가 없어서,그냥 잊어버리세요.,0
3059 어이상실,한번 웃고 잊어버리세요.,0
3060 어이없어,그냥 잊어버리세요.,0
3061 어제 밤 잤어,건강에 안 좋아요.,0
3062 어제 술마시고 나서 기억 안나,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0
3063 언니가 있으면 뭐가 좋아?,평생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0
3064 언니랑 다뤘어,싸우면서 정 들 거예요.,0
3065 언니랑 전쟁 중,싸우면서 정 들 거예요.,0
3066 언제 다 고쳐,마음을 손이 따라와주지 않죠.,0

3067 언제쯤 예쁘게 화장 잘할까,하다보면 늙어요.,0
3068 언젠가 자기 복제가 될까,기술이 발전하면 가능하겠죠.,0
3069 언젠가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있겠지?,저도 좋아해요.,0
3070 얼굴 너무 까매졌어.,관리해주세요.,0
3071 얼굴 너무 탸다,관리해주세요.,0
3072 얼굴 보니까 떨리더라,많이 좋아했던 사람인가봐요.,0
3073 얼굴 엄청 작은 거 부러워,얼굴이 다가 아니에요.,0
3074 얼굴 작은 거 부러워,얼굴이 다가 아니에요.,0
3075 얼굴 평가해 달래,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해요.,0
3076 얼굴만 아는 민망한 사이가 있어,그런 사람들 은근 많아요.,0
3077 얼굴은 내 스타일 아닌데 점점 좋아지는 거 같아,이상형은 아니지만 호감가는 사람이 있어요.,0
3078 얼른 아아야 할텐데,세상의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0
3079 얼마나 행복해질려고 이렇게 힘들지,더 행복해질 거예요.,0
3080 얼마전 재회했는데,좋은 만남이었길 바라요.,0
3081 얼어 죽는 줄,감기 조심하세요.,0
3082 얼어죽는 줄 알았어,감기 조심하세요.,0
3083 얼집 방학이래,육아 파이팅!!,0
3084 얼평해달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해요.,0
3085 엄마 기대 때문에 부담돼,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0
3086 엄마 말씀 안 들은거 후회돼,지금이라도 효도하세요.,0
3087 엄마 말씀 잘 들을걸,지금이라도 효도하세요.,0
3088 엄마 미안해,엄마한테 잘해야 돼요.,0
3089 엄마 밥 먹고 싶다,시간내서 부모님 집에 찾아가 보세요.,0
3090 엄마 밥 생각나,시간내서 부모님 집에 찾아가 보세요.,0
3091 엄마 보고 싶다,연락드려보세요.,0
3092 엄마 생각난다,연락드려보세요.,0
3093 엄마 힘들게 했어,조금씩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세요.,0
3094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든 거 같아,조금씩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세요.,0
3095 엄마가 나만 시켜,시어머니가 이빠해 주실거예요.,0
3096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너무 큰 거 같아서 부담스러워,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0
3097 엄마가 내 방에 막 들어와,엄마께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말해보세요.,0
3098 엄마가 동생이랑 차별해,그런 의도는 아니셨을거예요.,0
3099 엄마가 동생한테만 잘해줘.,그런 의도는 아니셨을거예요.,0
3100 엄마가 선 보라고 하시는데,많이 만나보세요.,0
3101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어,엄마가 들으면 속상해 하시겠네요.,0
3102 엄마가 언니랑 나랑 차별해,상처받는다고 꼭 말하세요.,0
3103 엄마가 언니랑 차별해,상처받는다고 꼭 말하세요.,0
3104 엄마가 자꾸 나만 시켜,시어머니가 이빠해 주실거예요.,0
3105 엄마는 뭐하나,연락 드려 보세요.,0
3106 엄마라고 자식방에 막 들어오면 안돼지,엄마께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말해보세요.,0
3107 엄마랑 둘이 여행가,좋은 여행이 될 거예요.,0
3108 엄마랑 싸웠어,더 후회하기 전에 사과하세요.,0
3109 엄마랑 아빠처럼 살고 싶다,좋은 부모님을 두셨군요.,0
3110 엄마랑 여행 안 가봤는데,좋은 여행이 될 거예요.,0
3111 엄마아빠 노후가 걱정돼,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0
3112 엄마아빠 보고 싶다,연락 드려 보세요.,0
3113 엄마아빠랑 다시 같이 살아야돼,형편대로 하세요.,0
3114 엄마한테 또 화났어,더 후회하기 전에 사과하세요.,0
3115 엄마한테 막말했어,더 후회하기 전에 사과하세요.,0
3116 엄마한테 미안해,엄마한테 잘해야 돼요.,0
3117 엄마한테 손 좀 벌려야겠다,필요하다면요.,0
3118 엄마한테 혼났어,더 후회하기 전에 사과하세요.,0
3119 엄청 오래 만났어,매력있는 사람인가봐요.,0
3120 업데이트가 너무 오래 걸려,기다려보세요.,0
3121 업데이트가 엄청 느려,기다려보세요.,0
3122 업무 끝내고 집 갈 수 있을까,힘들겠지만 하나씩 해보세요.,0
3123 업무 스트레스 넘 심해,회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지.,0
3124 업무 지적 또 받음,업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센스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0
3125 업무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아,업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센스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0
3126 업무가 쌓여있어,힘들겠지만 하나씩 해보세요.,0
3127 옛갈리는 느낌 싫다,타이밍이 안 맞았나봐요.,0
3128 옛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타이밍이 안 맞았나봐요.,0
3129 에어 후라이어 사고 싶다.,몇 번 안해먹고 들 거면 그냥 사 드세요.,0
3130 에이 짱나,육은 나쁜거예요.,0
3131 에이씨,육은 나쁜거예요.,0
3132 엠티 꼭 가야해?,필수는 아니에요.,0
3133 엠티 안 가도 돼지?,필수는 아니에요.,0
3134 여기 있으니까 좋다,좋은 곳인가봐요.,0
3135 여기 좋아,좋은 곳인가봐요.,0
3136 여기까지가 한계야,당신의 잠재력을 믿어보세요.,0
3137 여기까지가 한계인 거같아,당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요.,0
3138 여드름 났어,짜지 마세요.,0
3139 여드름 때때 스트레스받아,스트레스가 더 큰 적이에요.,0

3140 여드름 손으로 째어,손으로 만지지 마세요.,0
3141 여드름 째어,손으로 만지지 마세요.,0
3142 여드름 피부 화장으로 가릴까?,중요한 날에만 가리세요.,0
3143 여드름 또났어,스트레스가 더 큰 적이에요.,0
3144 여름 끝났으면,곧 지나갑니다.,0
3145 여름 빨리 지나갔으면,곧 지나갑니다.,0
3146 여름 휴가 어디가 좋을까,여기만 아니면 다 좋을 것 같네요.,0
3147 여름 휴가 어디까지?,여기만 아니면 다 좋을 것 같네요.,0
3148 여름에는 냉면만한게 없는 듯,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0
3149 여름에는 냉면이지,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0
3150 여름인데 태닝할까,구릿빛 피부 좋죠!,0
3151 여우같은 사람 진짜 싫어,싫으면 만나지 마세요.,0
3152 여우같은 애한테 당했어,못 당해요. 무시하세요.,0
3153 여우같은 짓하는 사람 싫어,싫으면 만나지 마세요.,0
3154 여우한테 당했어,못 당해요. 무시하세요.,0
3155 여유가 너무 없어,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여유를 갖게 되길 바라요.,0
3156 여유롭게 살고 싶어,여유는 마음 가짐에 있어요.,0
3157 여자 어디서 만나,소개팅 시켜달라고 말해보세요.,0
3158 여자 친구랑 연락이 안돼,걱정되겠어요.,0
3159 여자로 태어 났으면 어땠을까?,항상 못해본 건 궁금하더라고요.,0
3160 여자야 남자야,아직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에 성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주세요,0
3161 여자예요? 남자예요?,아직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에 성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주세요,0
3162 여자친구가 교환학생 간대,기다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0
3163 여자친구가 교환학생 다녀온대,기다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0
3164 여자친구가 남의 눈을 너무 신경써,성격이 그럴 수도 있으니 이해해주세요.,0
3165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당신은 복받은 사람.,0
3166 여자친구가 맨날 욕해,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에요.,0
3167 여자친구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모르는 사실에 더 화가 나 있을 거예요.,0
3168 여자친구가 욕했어,순간 실수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용서하고 기회를 주세요.,0
3169 여자친구가 자꾸 질리게 한다,당신의 사랑이 변한것 같아요.,0
3170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해,다른 연락을 많이 하거나 더 자주 만나세요.,0
3171 여자친구가 전화하는 걸 안 좋아해,다른 연락을 많이 하거나 더 자주 만나세요.,0
3172 여자친구가 혼자 여행 가보고 싶다는데,같이 가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 여행도 좋을 거예요.,0
3173 여자친구가 혼자 여행 간다는게 화나,같이 가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 여행도 좋을 거예요.,0
3174 여자친구랑 전화 안 받네.,걱정되겠어요.,0
3175 여자친구랑 종교 때문에 다툼,종교의 자유가 있죠,0
3176 여자친구랑 종교가 달라,종교의 자유가 있죠,0
3177 여자친구한테 질린 듯,당신의 사랑이 변한것 같아요.,0
3178 여자해보고 싶어,항상 못해본 건 궁금하더라고요.,0
3179 여친 데려다 주고 막차 놓침,난감하겠어요.,0
3180 여친 진짜 예쁘다,당신은 복받은 사람.,0
3181 여친이 맨날 욕해,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에요.,0
3182 여친이 셀카 너무 많이 찍어,잘 찍어주세요.,0
3183 여친이 화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모르는 사실에 더 화가 나 있을 거예요.,0
3184 여행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바쁘게 사나봅니다.,0
3185 여행 가야지,좋은 여행 되길 바랍니다.,0
3186 여행 계획 세워야지,좋은 여행 되길 바랍니다.,0
3187 여행 어디까지,편하게 실 수 있는 곳이 좋을 거예요.,0
3188 여행가고 싶다,계획을 세워보세요.,0
3189 여행갈 시간도 없다,바쁘게 사나봅니다.,0
3190 여행지 추천,편하게 실 수 있는 곳이 좋을 거예요.,0
3191 역류성 식도염 온 거 같아.,과식하지 말고 먹고 눕지 마세요!,0
3192 역류성 식도염이 또 도졌어,과식하지 말고 먹고 눕지 마세요!,0
3193 역시 나는 천재야,제가 더 천재예요.,0
3194 역시 이불밖은 위험해,이불밖은 위험하죠.,0
3195 연금 믿어도 될까,없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0
3196 연금 받을 수 있을까,없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0
3197 연락 또 해도 되겠지,많이 하면 좋죠.,0
3198 연락 많이 해도 되겠지,많이 하면 좋죠.,0
3199 연락 안 하던 친구한테 연락해도 되나,오랜만에 연락 받으면 반가울 것 같아요.,0
3200 연락 안오면 걱정돼,더 많이 믿어주세요.,0
3201 연락 안오면 어쩌나 걱정되네,더 많이 믿어주세요.,0
3202 연락 안해서 미안해,연락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0
3203 연락 어떻게 시작함,안녕 이라고 인사부터 해보세요.,0
3204 연락 없더니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지?,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랬나봐요.,0
3205 연락 좀 빨리 하지,바쁘가봐요.,0
3206 연락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바쁘가봐요.,0
3207 연락 좀 안 왔으면 좋겠어,인기가 많으시군요.,0
3208 연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함,안녕 이라고 인사부터 해보세요.,0
3209 연락 하지 말라고,인기가 많으시군요.,0
3210 연락이 너무 안돼,한번더 연락해 보세요.,0
3211 연락이 될까,그래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0
3212 연락이 될지 모르겠네,그래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0

3213 연락하는 게 어색해, 하다보면 익숙해질거예요., 0
3214 연락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하다보면 익숙해질거예요., 0
3215 연봉대비 근무시간이 너무 긴 거 같애, 야근 수당을 챙겨보세요., 0
3216 연상이 좋아, 그 분이 나타나면 꼭 잡으세요!, 0
3217 연애 갯년긴가, 저는 위기 조차 없네요., 0
3218 연애 상담 가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드릴게요., 0
3219 연애 상담 해줄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드릴게요., 0
3220 연애 위기인 거 같아, 저는 위기 조차 없네요., 0
3221 연애 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거니 걱정마세요., 0
3222 연애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면 되요., 0
3223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면 되요., 0
3224 연애하고 나만 살 찢나봐, 연인은 살찌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려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0
3225 연애했더니 살찐 듯, 연인은 살찌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려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0
3226 연예인 걱정이 제일 쓸데 없어, 동감입니다., 0
3227 연예인 되고 싶어, 제가 1호팬 하겠습니다., 0
3228 연예인 되는 방법, 제가 1호팬 하겠습니다., 0
3229 연예인 되면 피곤하겠지?, 아무래도 사생활이 적으니까요., 0
3230 연예인도 힘든게 있겠지?, 아무래도 사생활이 적으니까요., 0
3231 연예인도 힘들겠다., 연예인 걱정이 제일 쓸데없어요., 0
3232 연예인도 힘들겠지?, 연예인 걱정이 제일 쓸데없어요., 0
3233 연일 최고 몸무게 갱신하네., 이제 내려올 때가 됐어요., 0
3234 열나고 아파, 감기 조심하세요!, 0
3235 열쇠 두고 왔다, 깜빡 하셨나봐요., 0
3236 열쇠 안가지고 왔다, 깜빡 하셨나봐요., 0
3237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한대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3238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중요한 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0
3239 열심히 한 거 같은데 결과가 왜 이러지, 다음에는 잘 될 거예요., 0
3240 열심히 한 거 같은데 망, 다음에는 잘 될 거예요., 0
3241 염색이나 해야지, 염색을 자주 하면 모발이 상해요., 0
3242 염색하는게 좋을까?, 예쁠 것 같아요., 0
3243 염색해볼까?, 예쁠 것 같아요., 0
3244 옛같다., 벗어나는 게 좋겠네요., 0
3245 옛같은 상황, 벗어나는 게 좋겠네요., 0
3246 영양제 뭐가 좋아, 몸에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알아보세요., 0
3247 영양제 좀 먹을까, 몸에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알아보세요., 0
3248 영양제 챙겨 먹을 나이가 됐어, 건강은 어려서부터 챙겨야해요., 0
3249 영어 잘 했으면,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0
3250 영어 잘 했으면 좋겠다,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0
3251 영어학원 다녀볼까, 공부 좋죠., 0
3252 영어학원 좀 다닐까, 공부 좋죠., 0
3253 영화 보러 왔어, 저도 영화 보여주세요., 0
3254 영화 추천, 최신 영화가 좋을 것 같아요., 0
3255 영화가 재미 없어, 안됐네요., 0
3256 영화관 알바 하고 싶다,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0
3257 영화관 알바하면 좋겠다.,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0
3258 영화관 혼자 왔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0
3259 영화보고 왔다, 저도 영화 보여주세요., 0
3260 영화봤는데 재미 없어, 안됐네요., 0
3261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옆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0
3262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소홀했던거 같아, 옆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0
3263 예능 볼 게 없다, 잘 찾아보세요., 0
3264 예능도 이제 재미없어, 잘 찾아보세요., 0
3265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해, 아직이라면 더 살펴보세요., 0
3266 예쁘다고 말해줘, 맞아요. 예뻐요., 0
3267 예쁜 카페 찾아가 볼까?, 카페 데이트 좋죠., 0
3268 예의 차리라 지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고 말해주세요., 0
3269 예전 게임인데 재밌다, 저도 하고 싶네요., 0
3270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죠., 0
3271 옛여자친구가 준 편지 못 버리겠어, 마음에 버리세요., 0
3272 오 좀 멋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0
3273 오늘 괜히 기분 꿀꿀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0
3274 오늘 그냥 쉬고 싶다,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쉬세요., 0
3275 오늘 기분 좋아, 저도 좋아요., 0
3276 오늘 기분은 설명이 안돼, 좋았으면 좋겠네요., 0
3277 오늘 기분을 뭐라고 해야하나, 좋았으면 좋겠네요., 0
3278 오늘 길 너무 막히더라, 길은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0
3279 오늘 길 많이 막히더라, 길은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0
3280 오늘 까먹고 아무 것도 안 가져 왔다, 개념만 가져오면 돼요., 0
3281 오늘 나 좀 잘생겨 보인다., 자신에게 콩깍지가 씌였나봐요., 0
3282 오늘 날씨 좋아서 놀러가고 싶어, 친구들과 같이 놀러가세요., 0
3283 오늘 날씨 죽인다, 나들이 가보세요., 0
3284 오늘 날씨 좋아, 하늘을 보고 웃어보세요., 0
3285 오늘 너무 졸려, 오늘 일찍 주무세요., 0

3286 오늘 너무 피곤해, 꼭 쉬세요., 0
3287 오늘 너무 힘들다, 고생 많았어요., 0
3288 오늘 또 늦잠잠어, 피곤했나봐요., 0
3289 오늘 또 하루 살았네, 오늘은 약간의 변화를 줘보세요., 0
3290 오늘 라면 먹고 싶어, 맛나게 드세요., 0
3291 오늘 라면 먹어야지, 맛나게 드세요., 0
3292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0
3293 오늘 못 만났어, 내일 보면 될 거예요., 0
3294 오늘 무슨 날인가, 설마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0
3295 오늘 물 진짜 조금 마셨다, 습관을 들여보세요., 0
3296 오늘 뭐 입지?, 웃이요., 0
3297 오늘 뭐 재미있는거 하는 날인가, 오늘은 예능이요., 0
3298 오늘 미세먼지 어때?, 숨 실만 했으면 좋겠네요., 0
3299 오늘 보름달이다., 소원을 비세요., 0
3300 오늘 보름달이야, 제 얼굴 보셨나봐요., 0
3301 오늘 상 받았다, 축하드려요., 0
3302 오늘 생각보다 춥네, 감기 조심하세요., 0
3303 오늘 아무 것도 안 가져 왔다, 개념만 가져오면 돼요., 0
3304 오늘 야근인가,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0
3305 오늘 웰케 추워, 오늘 강추위래요., 0
3306 오늘 운이 짱이다, 다른 곳에 쓰려고 운을 아껴뒀나봐요., 0
3307 오늘 운이 안 좋았어, 다른 곳에 쓰려고 운을 아껴뒀나봐요., 0
3308 오늘 유난히 지하철에 자리가 없어, 그런 날이 있죠., 0
3309 오늘 일도 안 했는데 엄청 피곤해, 정신 노동을 했나 봐요., 0
3310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드세요., 0
3311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드세요., 0
3312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드세요., 0
3313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드세요., 0
3314 오늘 좀 건조한 거 같애, "미스트나 가습기, 젖은 수건 등을 사용해보세요.", 0
3315 오늘 좀 바쁘네, 바빠도 힘내세요!, 0
3316 오늘 지각인듯 뭐라 그러지, 핑계보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0
3317 오늘 처리할 일 너무 많아,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0
3318 오늘 처리할 일이 쌓인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0
3319 오늘 첫 출근이야, 많이 긴장되겠어요., 0
3320 오늘 초미세먼지도 심하대, 마스크 쓰세요., 0
3321 오늘 치마랑 바지 뭐 입지?, 오늘은 바지가 좋을거 같아요., 0
3322 오늘 침대밖으로 안 나가야지, 침대와 한몸이 되어 꼭 쉬세요., 0
3323 오늘 팩 하고 자야지, 피부관리까지 하시다니!, 0
3324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 내일의 시작이죠., 0
3325 오늘 햇볕 좋다, 광합성 추천합니다., 0
3326 오늘 화장 뒀어, 각질제거를 해보세요., 0
3327 오늘 화장이 안 먹여, 각질제거를 해보세요., 0
3328 오늘 회식 안하나, 맛있는거 드세요., 0
3329 오늘나 어제이나 똑같아, 조금씩 변화를 줘보세요., 0
3330 오늘도 공기가 뿌애, 마스크 착용 하시고 외출하세요., 0
3331 오늘도 그냥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0
3332 오늘도 그냥 그냥 다갔네.,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0
3333 오늘도 꾸준히 회사 가시 싫다., 월급날을 생각하며 참아보세요., 0
3334 오늘도 끝, 내일의 시작이죠., 0
3335 오늘도 날씨가 뿌애, 마스크 착용 하시고 외출하세요., 0
3336 오늘도 또 이렇게 가는구나, 작은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0
3337 오늘도 어제랑 똑같아, 조금씩 변화를 줘보세요., 0
3338 오늘도 퇴근길 엄청 막히네,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를 가져보세요., 0
3339 오늘도 평온해, 내일도 평온하길 바라요., 0
3340 오늘도 힘차게 시작, 응원합니다!, 0
3341 오늘따라 너무 힘들게 한다., 인간 관계가 제일 힘든 거 같아요., 0
3342 오늘따라 엄마 보고 싶어, 저도요., 0
3343 오늘은 결재 받아야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0
3344 오늘은 결재가 나아 할텐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0
3345 오늘은 교회 안가면 안될까, 왜 그럴까요?, 0
3346 오늘은 내가 기분이가 좋아, 저도 좋아요., 0
3347 오늘은 또 뭐 입냐, 아침마다 하는 고민이죠., 0
3348 오늘은 또 뭘 먹냐, 뭘 먹든 맛있게 드세요!, 0
3349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내일은 나을 거예요., 0
3350 오늘은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드세요., 0
3351 오늘은 별도 안 보이네, 한적한 시골에서 하늘을 올려봐주세요., 0
3352 오늘은 샐러드만 먹어야지, 건강한 식단이네요., 0
3353 오늘은 쉬고 싶다,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쉬세요., 0
3354 오늘은 진짜 대청소 한다., 건강에도 좋겠네요., 0
3355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집에서 쉬는 시간도 필요해요., 0
3356 오늘은 치맥이야, 달리세요!, 0
3357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네, 생각들을 정리하게 좋겠네요., 0
3358 오늘은 학교 가고 싶지 않아,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예요., 0

3359 오늘이 천일이네, 축하합니다., 0
3360 오디션 나가볼까, 도전 응원합니다., 0
3361 오디션 도전해볼까, 도전 응원합니다., 0
3362 오래 살고 싶다,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0
3363 오래 살고 싶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0
3364 오래 살아야 할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0
3365 오래 살아야할텐데,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0
3366 오래된 게 좋겠지, 오래된 건 오래된 대로 매력이 있죠., 0
3367 오래된 게 좋은 것도 있지, 오래된 건 오래된 대로 매력이 있죠., 0
3368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어, 온전한 이해는 없어요., 0
3369 오랜만에 떨어져 좋았는데, 떨어지는 감정은 그 자체로 소중한데요., 0
3370 오랜만에 보니까 멀리더라,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가봐요., 0
3371 오랜만에 서점에 갔었어, 마음의 양식을 채우길 바랄세요., 0
3372 오랜만에 쇼핑, 득템했길 바라요., 0
3373 오랜만에 스테끼 먹고 싶어, 맛있게 드세요., 0
3374 오랜만에 아침 먹었어, 좋은 식습관이에요., 0
3375 오로라 보러 가고 싶다, 로맨틱한 여행이네요., 0
3376 오로라 보러 여행 가고 싶다, 로맨틱한 여행이네요., 0
3377 오싹한 이야기 해줄까, 해주세요., 0
3378 오지마, 안갈거예요., 0
3379 오토바이 사고 싶어, 한푼 두푼 모아서 사보세요., 0
3380 오토바이 위험하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0
3381 오토바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푼 두푼 모아서 사보세요., 0
3382 오토바이 타고 싶다, 위험할 것 같아요., 0
3383 오토바이 타고 싶는데 무서워, 아무래도 그렇겠죠., 0
3384 오토바이 타러 가고 싶다., 위험할 것 같아요., 0
3385 오후되면 얼굴에 개기름 꺼, 세수하고 오세요., 0
3386 옥상에 뭐 좀 심어볼까, 공기정화식물도 좋을 거예요., 0
3387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0
3388 올해 계속 안 좋네, 삼재인가봐요., 0
3389 올해 왜 이러지, 삼재인가봐요., 0
3390 올해 왜 이러지, 사주를 한번 봐봐요., 0
3391 올해 왜 이러지, 내년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0
3392 올해 왜 이렇게 엉망이지, 사주를 한번 봐봐요., 0
3393 올해 이상해, 내년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0
3394 올해도 건강하길, 가장 중요한 목표네요., 0
3395 옷 걸 데가 없어, 지난 계절 옷을 잘 정리해 보세요., 0
3396 옷 사 줘, 아직 월급날이 멀었어요., 0
3397 옷 좀 사줘, 아직 월급날이 멀었어요., 0
3398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어, 옷은 사도 사도 모자라요., 0
3399 옷이 다 젖었어, 감기 조심 하세요., 0
3400 옷장이 점점 줄어들어, 지난 계절 옷을 잘 정리해 보세요., 0
3401 와 소름 돋아, 좋은 일이길 바랍니다., 0
3402 와 체육대회다, 일기예보 확인해보세요., 0
3403 와인 마실까?, 완전 좋죠., 0
3404 와인 쿨?, 전 술을 마시지 못해요., 0
3405 와인 한 잔 할까, 전 술을 마시지 못해요., 0
3406 와인 한잔 짬~, 완전 좋죠., 0
3407 와플 기계 사고 싶다, 몇 번 안해먹고 둘 거면 그냥 사 드세요., 0
3408 와플 기계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다, 몇 번 안해먹고 둘 거면 그냥 사 드세요., 0
3409 와플 먹고 싶어, 근처 카페에서 드셔보세요., 0
3410 완벽하게 좀 하고 싶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할 수도 없어요., 0
3411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0
3412 완벽해지고 싶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0
3413 완벽해지는 방법,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할 수도 없어요., 0
3414 완전 계탄 느낌, 축하해요!, 0
3415 완전 복불복으로 잘하더라고,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0
3416 완전 시간 아까워, 다른 일을 해보세요., 0
3417 완전 재미 없거든, 웃을 때까지 이야기해 보죠, 0
3418 완전 좌절이다., 이제 일어날 때예요., 0
3419 왕따된 거 같아,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0
3420 왕따인가 봄, 친구들과 잘 어울려보세요., 0
3421 왕만두 맛있는데, 맛있을거 같아요., 0
3422 왜 갑자기 연락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랬나봐요., 0
3423 왜 계속 한숨 나오지?,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에너지가 부족한가봐요., 0
3424 왜 공부해야하는지 모르겠어, 미래의 배우자가 달라져요., 0
3425 왜 교양도 들어야 해, 전공에 관심이 많은가봐요., 0
3426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0
3427 왜 나를 의심하지, 평소의 행실을 되돌아보세요., 0
3428 왜 나만 시키지, 잘하니까 그럴 거 같아요., 0
3429 왜 나한테 피해를 주냐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건 기본이죠., 0
3430 왜 내가 해야 하지?,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이 되겠네요., 0
3431 왜 답장을 안하지, 바쁜 상황일 수도 있어요., 0

3432 왜 돈이 없지, 쇼핑을 줄여보세요., 0
3433 왜 때문에 나만 시키냐고, 잘하니까 그럴 거 같아요., 0
3434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하냐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0
3435 왜 말을 이해를 못하냐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0
3436 왜 맨날 속는 건 나인거지?, 즐겁게 속아주세요., 0
3437 왜 비난만 할까, 성장을 위한 비판의 말로 받아들여보세요., 0
3438 왜 살까, 살아있음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0
3439 왜 서류에서 떨어지지?, 합격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0
3440 왜 성적이 안오를까?,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찾는 게 시급하네요., 0
3441 왜 싸웠는지도 기억 안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0
3442 왜 안 하지, 먼저 고백을 해보세요., 0
3443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0
3444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슬프네요., 0
3445 왜 이렇게 쓸쓸하지,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0
3446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서로 다르게 태어난 이유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0
3447 왜 이상한 말 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3448 왜 이제 만나자고 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랬나봐요., 0
3449 왜 이제 찾는걸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랬나봐요., 0
3450 왜 이제서야 연락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랬나봐요., 0
3451 왜 이제서야 찾아온거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려고 그랬나봐요., 0
3452 왜 잠을 못 자는 걸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3453 왜 진급이 안 되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0
3454 왜 카톡 답장을 안하지, 바쁜 상황일 수도 있어요., 0
3455 웰게 चुना, 따뜻하게 입으세요., 0
3456 외국어 꼭 해야되나, 좋은 도구죠., 0
3457 외국어는 필수인가, 좋은 도구죠., 0
3458 외로워,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0
3459 외로워, 혼자가 아니에요., 0
3460 외모에 자신이 없어,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0
3461 외식 너무 많이 했다, 다음달에는 조금 줄여보세요., 0
3462 외제차 갖고 싶다, 저도 타고 싶어요., 0
3463 외제차 타고 싶어, 저도 타고 싶어요., 0
3464 외향적이면 좋을텐데, 지금 성격도 좋아요., 0
3465 왼손잡이가 뭐 어때서, 절대 아니죠., 0
3466 왼손잡이가 잘못이야?, 절대 아니죠., 0
3467 요가 온 아줌마들이 참견해, 무시하세요., 0
3468 요가하는데 아줌마들이 참견해, 무시하세요., 0
3469 요리 재밌어, 만들어서 먹는 기쁨이죠., 0
3470 요리하는게 재밌어, 만들어서 먹는 기쁨이죠., 0
3471 요번 방학에 뭐하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세요., 0
3472 요즘 광고가 너무 길어, 채널을 돌려보세요., 0
3473 요즘 나 왜 이러지, 잠시 휴식을 취해보세요., 0
3474 요즘 너무 지루해,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0
3475 요즘 뉴스가 재미가 없네, 흥미를 가져보세요., 0
3476 요즘 되는 일이 없네, 이제부터 일이 잘 풀릴 거예요., 0
3477 요즘 드라마 너무 재밌네, 저도 드라마 좋아해요., 0
3478 요즘 드라마가 땡겨, 저도 드라마 좋아해요., 0
3479 요즘 사람이 무서워, 인생을 알아가고 있군요., 0
3480 요즘 속이 안 좋아, 계속 좋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세요., 0
3481 요즘 웃을 일이 없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0
3482 요즘 자꾸 까먹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0
3483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0
3484 요즘 잠을 늦게 자, 30분씩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0
3485 요즘 잠을 못자, 잠이 최고의 보약이에요. 노력해보세요., 0
3486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때가 있죠., 0
3487 요즘 조깅하고 있어, 건강에 좋은 습관이네요., 0
3488 요즘 조심할 게 많아, 무서운 세상이죠., 0
3489 요즘 핫한 건?, 바로 저입니다., 0
3490 요즘 핫한 게 뭐야, 바로 저입니다., 0
3491 요즘에는 외국어도 잘해야하나봐, 원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0
3492 요즘에는 중국어도 잘해야하나봐, 원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0
3493 옥먹었어 여자친구한테, 순간 실수할 수 있겠다 판단되면 용서하고 기회를 주세요., 0
3494 울로!, 현재를 즐기세요!, 0
3495 용돈 넘 적어, 올려달라고 말해보세요., 0
3496 용돈 다 썼어, 알바해보세요., 0
3497 용돈 달라고 줄라볼까?, 필요하다면요., 0
3498 용돈 받음, 기분 좋겠어요., 0
3499 용돈 벌써 다 썼어, 올려달라고 말해보세요., 0
3500 용돈 벌써 없어, 알바해보세요., 0
3501 용돈 올려줬으면, 올려달라고 말해보세요., 0
3502 용돈 인상해 달라고 말할까, 올려달라고 말해보세요., 0
3503 용돈 쥐, 저는 돈이 없어요., 0
3504 우리 같이 놀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0

3505 우리 계속 엇갈림, 타이밍이 안 맞았나봐요., 0
3506 우리 과에 좋아하는 애 있어, 은근 티를 내보세요., 0
3507 우리 남편 또 늦게 들어와, 왜 늦는 건지 대화해보세요., 0
3508 우리 분위기 좋았는데, 서로를 향한 감정도 좋았겠조., 0
3509 우리 집에도 고양이 있으면 좋겠다., 자신을 먼저 키우세요., 0
3510 우리 학과 어떤 애 쫘m 훈훈하다, 은근 티를 내보세요., 0
3511 우리가 좋은데 왜 반대하시지, 현실의 벽에 부딪혔나봐요., 0
3512 우리집 망한 거 같애, 철 들고 공부하세요., 0
3513 우리집 망한 거 같은데 나 어떡하지?, 집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0
3514 우리집 망했다, 철 들고 공부하세요., 0
3515 우리집에 놀러와, 주소 알려주세요., 0
3516 우산 같이 쓰자고 해볼까?, 용기를 내세요., 0
3517 우산 놓고왔다., 다음에는 우산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어보세요., 0
3518 우산 또 놓고 왔어, 주변에서 우산을 빌려보세요., 0
3519 우산 또 사야하나, 다음에는 우산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어보세요., 0
3520 우산 또 안가지고 왔다, 주변에서 우산을 빌려보세요., 0
3521 우산 몇 개째 사는 건지, 다음에는 우산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어보세요., 0
3522 우산 없는데 같이 쓰자고 할까 너무 진부한가, 용기를 내세요., 0
3523 우산 잃어버렸어, 다음에는 우산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어보세요., 0
3524 우산빌려달라고 해볼까?, 한번 말해보세요., 0
3525 우산을 들고 기다려 준데, 우산 같은 사람이네요., 0
3526 우산이 없는데 빌릴까, 한번 말해보세요., 0
3527 우아하게 화내는 법,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0
3528 우연이 만났는데 운명이 됐어, 멋진 말이네요., 0
3529 우연이 운명이 됐어, 멋진 말이네요., 0
3530 우연히 또 만났어, 우연이 필연이 되기도 합니다., 0
3531 우울증 걸린 거 같아, 마음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길 바랍니다., 0
3532 우정이 뭐야?, 힘들 때 같이 있는 거요., 0
3533 우정이 뭘까, 힘들 때 같이 있는 거요., 0
3534 우정이란게 뭘까, 힘들 때 같이 있는 거요., 0
3535 운동 갔다 다칠 뻔했어, 운동할 때 조심하세요., 0
3536 운동 매일러 가기 힘들다, 꾸준한게 제일 힘들어요. 습관으로 만들어보세요., 0
3537 운동 매일하기 힘들다, 꾸준한게 제일 힘들어요. 습관으로 만들어보세요., 0
3538 운동 오지게 했어., 고생했어요., 0
3539 운동 잘 하고 싶어, 남들이 안 하는 걸 도전해보세요., 0
3540 운동 잘하는 사람 멋있어, 저 말씀이신가요?, 0
3541 운동 좀 잘 하고 싶다.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걸 도전해보세요., 0
3542 운동 좀 해야겠다., 건강 생각해서 꾸준히 하세요., 0
3543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 고생했어요., 0
3544 운동하다 다칠뻔, 운동할 때 조심하세요., 0
3545 운동하면 뭐 하나, 식이요법이랑 같이 병행해보세요., 0
3546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 식이요법이랑 같이 병행해보세요., 0
3547 운동해야지, 건강 생각해서 꾸준히 하세요., 0
3548 운동화 새로 사야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줄 거예요., 0
3549 운동화 신을까? 구두 신을까?, 구두로 멋을 내보세요., 0
3550 운동화가 나올까? 구두가 나올까?, 구두로 멋을 내보세요., 0
3551 운명 같은 사랑 가능할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0
3552 운명이 슬프다, 좋은 운명도 있을거예요., 0
3553 운명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믿어요., 0
3554 운명인 것 같아, 인연인가 봐요., 0
3555 운명인가, 인연인가 봐요., 0
3556 울 남친은 애교가 많아, 귀엽겠네요., 0
3557 울 애기 너무 예뻐, 세상에서 제일 귀엽조!, 0
3558 울적하다, 울적..... 우울할땐..... 울면, 0
3559 울적한 기분, 울적..... 우울할땐..... 울면, 0
3560 울적한 기분이 안 없어져., 거리를 걸어보세요., 0
3561 울적해 울고 싶어, 소리를 크게한번 질러보세요., 0
3562 울적해서 거리를 걷고 있어, 걷다보면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0
3563 움직임이 없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이네요., 0
3564 웃게 만드는 너란 녀석, 상대방도 미소짓게 해주세요., 0
3565 웃겨 줘,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 보세요., 0
3566 웃겨봐, 거울을 보면서 얼굴 망가뜨리기 놀이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의외로 재미 있어요., 0
3567 웃으면 안되는데, 웃으면 복이와요., 0
3568 웃을 일이 없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0
3569 웃을 줄 알았지, 재미 있어하실 줄 알았어요., 0
3570 워킹맘 진짜 힘들다,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0
3571 원두 같았어, 커피향 좋겠네요., 0
3572 원두커피 갈아서 마시려고, 커피향 좋겠네요., 0
3573 원래 일은 혼나면서 배우는 거야?, 그냥 배워도 돼요., 0
3574 원서 낸거 1지망에서 떨어졌어, 위로해 드립니다., 0
3575 원피스 입는 게 낫겠지, 너무 이뻐요., 0
3576 원피스 입을까, 너무 이뻐요., 0
3577 월급 들어왔어, 까아 축하해요, 0

3578 월급 받아서 주택청약 들었어, 내 집에 한 걸음 더 다가갔네요., 0
3579 월급 올라서 기분 좋아, 축하합니다., 0
3580 월급 올랐어!, 축하합니다., 0
3581 월급 입금됐다고 문자 왔어, 까아 축하해요, 0
3582 월급만 나만 그대로야, 자신의 능력이 저평가되어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0
3583 월급에 비해 근무시간이 너무 긴 거 같애, 야근 수당을 챙겨보세요., 0
3584 월급은 안 오르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해보세요., 0
3585 월급이 살짝 스쳐 지나간 느낌, 쇼핑을 즐겨보세요., 0
3586 월급이 안 오르네, 월급을 올려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해보세요., 0
3587 월급이 안들어와, 큰일이네요., 0
3588 월급이 왜 똑같지?, 회사에서 품수를 쓰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0
3589 월세 너무 비싸, 돈을 얼른 모아야할 이유가 생겼네요., 0
3590 월세 너무 아까워, 돈을 얼른 모아야할 이유가 생겼네요., 0
3591 월세 아까워, 돈을 얼른 모아야할 이유가 생겼네요., 0
3592 월세방 비싸, 돈을 얼른 모아야할 이유가 생겼네요., 0
3593 월요일도 아닌데 길이 너무 막혀, 길은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0
3594 월요일도 아닌데 차가 너무 많아., 길은 항상 막히는 것 같아요., 0
3595 웨딩촬영 봐주려 갔는데 너무, 친구가 예민해서 잘 못 챙겼나봐요., 0
3596 웹툰 뭐 볼까, 안 본 웹툰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싶네요., 0
3597 웹툰 추천해줘, 안 본 웹툰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싶네요., 0
3598 위기야., 위기이면서 기회일 거예요., 0
3599 위로받고 싶은 날, 제가 위로 많이 해드릴게요., 0
3600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 제가 있잖아요., 0
3601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해, 제가 있잖아요., 0
3602 위병 난 거 같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나봅니다., 0
3603 위장에 탈 난 거 같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나봅니다., 0
3604 위층 너무 시끄러워, 증거자료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0
3605 위층 소음 괴롭다., 이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나봐요., 0
3606 윗집 애 또 된다, 신고하세요., 0
3607 유기견 분양 받으려고, 좋은 생각입니다., 0
3608 유기견 입양하려고, 좋은 생각입니다., 0
3609 육아휴직 해야지, 좋은 곳에서 일하시나봐요., 0
3610 으아 떨려, 심호흡을 해보세요., 0
3611 으아 속상해, 기분전환을 해보세요., 0
3612 으악, 놀랐나봐요., 0
3613 으악 소리 지르고 싶다, 시원하게 지르고 오세요., 0
3614 으으 화장실 급해, 화장실 가세요., 0
3615 으으~ 떨린다, 파이팅!, 0
3616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 들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0
3617 은퇴가 멀지 않은 것 같아, 은퇴 설계 해보세요., 0
3618 은퇴하고 뭐하지, 은퇴 설계 해보세요., 0
3619 은퇴후가 걱정이야, 인생이 꽤 기니까요., 0
3620 은퇴후에 뭐하지, 인생이 꽤 기니까요., 0
3621 은행 대출 받을까봐, 괜참을 거예요., 0
3622 음, 음, 0
3623 응, 네, 0
3624 의미 없어, 인생은 욕망이지 의미가 아니에요., 0
3625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봉사활동도 좋을 거예요., 0
3626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봉사활동도 좋을 거예요., 0
3627 의심 받고 있어, 증명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0
3628 의심 받는 느낌적 느낌, 증명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0
3629 의심가는 사람이 있는데, 별 받을 거예요., 0
3630 의심되는데, 별 받을 거예요., 0
3631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네, 칭찬이네요., 0
3632 의외야, 칭찬이네요., 0
3633 의외인 점이 많은 사람이야, 칭찬이네요., 0
3634 의외인듯, 칭찬이네요., 0
3635 의욕상실, 하고싶었던 일을 글로 적어보세요.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0
3636 의욕이 안 생겨, 하고 싶은 걸 찾아보세요., 0
3637 의욕이 없어,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0
3638 의욕이 일도 없어,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0
3639 의욕이 하나도 없다, 하고싶었던 일을 글로 적어보세요.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0
3640 의자 너무 불편해, 의자를 바꿔보세요., 0
3641 의자가 불편해, 의자를 바꿔보세요., 0
3642 이 기분은 뭘까, 저도 궁금해요., 0
3643 이 기회 잡고 싶다., 행운을 빌게요!, 0
3644 이 기회는 내꺼야, 행운을 빌게요!, 0
3645 이 길이 나에게 맞는걸까, 잘 가고 있을 거예요., 0
3646 이 길이 맞을까?, 잘 가고 있을 거예요., 0
3647 이 나이에 모르는게 왜 이렇게 많지, 당연한 거예요., 0
3648 이 노래는 저음이 좋아, 목소리는 역시 저음이지., 0
3649 이 놈의 신용카드 다 없애야지, 소비 조절을 못하면 없애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0
3650 이 멍충아, 좋은 말만 해주세요., 0

3651 이 무리에 낀게 잘못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0
3652 이 바보탱이, 좋은 말만 해주세요., 0
3653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신경쓰지 마세요., 0
3654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저요!, 0
3655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저요!, 0
3656 이 순간 뭘하면 좋을까,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0
3657 이 시간에 라면 먹고 싶은데 살 쪼갤 거 같아, 간단한 견과류나 과일을 먹어보세요., 0
3658 이 시려, 치과에 가보세요., 0
3659 이 썩은 거 같아, 어서 치과에 가보세요., 0
3660 이 쓰레기야, 욕해 주세요., 0
3661 이 정도면 잘생겼지?, 네 잘생겼어요., 0
3662 이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여유는 마음 가짐에 있어요., 0
3663 이 지각쟁이, 잠깐 핸드폰 게임 하시면 올거예요., 0
3664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죠., 0
3665 이 회사는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직장 스트레스 심하겠네요., 0
3666 이가 차가워, 치과에 가보세요., 0
3667 이거저거 막 사고 싶어., 돈은 그만큼 또 생긴다고 하던데요., 0
3668 이건 정말 위기야., 위기이면서 기회일 거예요., 0
3669 이걸로 만족해야겠지?, 내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0
3670 이게 뭐라고 떨려, 별거 아니지 않아서 그래요., 0
3671 이길이 내길인가, 지도 어플을 실행해보세요., 0
3672 이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지도 어플을 실행해보세요., 0
3673 이놈, 단짠 중입니다, 0
3674 이닭았는데 잇몸에서 피나, 잇몸약 챙겨드시거나 치과 가보세요., 0
3675 이따 커피 마시자고 해보려고, 잘 될 거예요., 0
3676 이래라 저래라 참견 좀 안했으면, 서툰 애정표현일 수도 있어요., 0
3677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니야, 행동할 때인 것 같네요. 응원해요., 0
3678 이러다 대머리 되겠어, 탈모 관리 해보세요., 0
3679 이러다 또 흐지부지하고 말겠지, 이번에는 안 그러면 돼요., 0
3680 이런 일상에서 획 떠나고 싶어, 여행을 떠나세요., 0
3681 이렇게 갈 거였구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0
3682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하늘 보고 한 번 웃어봐요. 기분이 바뀔 거예요., 0
3683 이렇게 대학 가야하나, 행복은 마음 가짐에 있어요., 0
3684 이렇게 또 늙어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늙어가고 있어요., 0
3685 이렇게 못 알아 듣니, 노력하겠습니다., 0
3686 이렇게 오래 만날 줄 몰랐는데, 매력있는 사람인가봐요., 0
3687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싫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0
3688 이력서 광탈 중이야, 좌절하지마세요., 0
3689 이력서 몇 개째 쓰는건지 모르겠다, 좌절하지마세요., 0
3690 이력서 쓰고 있어., 나를 포장하는게 쉽지 않죠., 0
3691 이력서 쓰는 중, 나를 포장하는게 쉽지 않죠., 0
3692 이름 알려줘, 위로봇이요., 0
3693 이름이 뭐야, 위로봇이요., 0
3694 이마가 너무 넓어, 앞머리로 가리세요., 0
3695 이마야 운동장이야, 앞머리로 가리세요., 0
3696 이모티콘 기간 끝나서 없어졌어, 다른 이모티콘을 이용해주세요., 0
3697 이모티콘 기간 끝났어, 다른 이모티콘을 이용해주세요., 0
3698 이민가고싶어, 저도 데려가세요., 0
3699 이발 어떻게 할까, 짧게 변화를 줘도 괜찮을 거 같아요., 0
3700 이발 좀 하고 올게, 예쁘게 깎고 오세요., 0
3701 이번 달에 결혼식 너무 많아, 인맥이 넓으신가봐요., 0
3702 이번 달에 결혼식 매 주 있어., 인맥이 넓으신가봐요., 0
3703 이번 방학에 뭐하면 잘했다고 소문날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세요., 0
3704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서툰 게 많지만 다 잘 될 거예요., 0
3705 이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 눈이 오면 좋겠네요., 0
3706 이번 학기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한대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3707 이번달에 외식 너무 많이 했다, 다음달에는 조금 줄여보세요., 0
3708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해야지,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0
3709 이번에는 생리통 너무 아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보세요., 0
3710 이번엔 또 뭐 해 먹지, 냉장고 파먹기 해보세요., 0
3711 이벤트 당첨됐어!, 축하드려요!, 0
3712 이별 후 새로운 사람 찾아,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0
3713 이불 밖은 위험해, 오늘은 그냥 뒹굴뒹굴 같이 놀아요., 0
3714 이불밖은 위험해, 이불밖은 위험하죠., 0
3715 이빨 아파, 어서 치과에 가보세요., 0
3716 이쁜 구석이 없어, 사소한 거라도 있을 거예요., 0
3717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0
3718 이사 도와줘야 할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3719 이사 왔더니 친구가 없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0
3720 이사가서 전학가게 됐어, 새로 적응해야겠네요., 0
3721 이사가야돼,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0
3722 이사하는 거 도와줄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3723 이사하는 것도 일이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죠., 0

3724 이사하니깐 정리할 게 많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죠., 0
3725 이삿짐 싸야지, 버릴 건 버리세요., 0
3726 이상하게 이 친구한테는 집착하게 된다, 자신 스스로에게 의지해보세요., 0
3727 이상한 말을 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3728 이상한 사람이 자꾸 쳐다봐, 혹시 반한 걸 수도 있어요., 0
3729 이상한 소문이 돌아,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0
3730 이어주려고 해서 더 어색해졌어, 일부로 부추기면 가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0
3731 이어폰 까먹지 말고 사야지, 잘 골라보세요., 0
3732 이어폰 사야지, 잘 골라보세요., 0
3733 이자 왜 이렇게 많지?, 많이 빌렸으니까요., 0
3734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기 힘드시겠네요., 0
3735 이제 그만 잘래, 안녕히 주무세요., 0
3736 이제 그만하고 쉬고 싶다, 잠깐 바람 쐬고 오세요., 0
3737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쳐, 기다리지 마세요., 0
3738 이제 기다리는게 습관 같아, 좋은 분이시군요, 0
3739 이제 먹는 것도 귀찮아, 먹고는 살아야죠., 0
3740 이제 바람 분다, 마음에 부는 바람인지 살피보세요., 0
3741 이제 봄인가봐, 날씨가 많이 풀렸죠., 0
3742 이제 어둠에서 나오려고 해, 어둠에서 나온다니 다행이에요., 0
3743 이제 은퇴해야 하나?, 끝까지 해보세요., 0
3744 이제 인턴 그만두고 싶어, 결정은 그대의 몫입니다., 0
3745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행동할 때인 것 같네요. 응원해요., 0
3746 이제 취업 해야할 텐데, 간절한 만큼 할 수 있을 거예요., 0
3747 이제 택시 안타, 좋은 다짐이에요., 0
3748 이제 택시타지 말아야지, 좋은 다짐이에요., 0
3749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같이도 잘하게 될 거예요., 0
3750 이젠 기억이 가물가물해, 벌써 그러면 안돼요., 0
3751 이젠 기억이 거의안나, 벌써 그러면 안돼요., 0
3752 이직 가능할까, 취업에 성공할거예요., 0
3753 이직 성공할 수 있을까, 다니면서 준비해보세요., 0
3754 이직각인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가봐요., 0
3755 이직해도 될까, 다니면서 준비해보세요., 0
3756 이직해야할지 고민이야,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가봐요., 0
3757 이해를 못하겠어?, 노력하겠습니다., 0
3758 인간 관계가 제일 어려운거 같아, 운전처럼 안전거리확보하세요., 0
3759 인간관계 관리하는 거 힘들어, 너무 믿지 마세요., 0
3760 인강 듣는데 자꾸 딴짓하게돼, 바람 쐬고 와서 다시 들으세요., 0
3761 인강 듣는데 집중이 안돼, 바람 쐬고 와서 다시 들으세요., 0
3762 인관관계 맺는 게 피곤해, 그 사람을 위해 에너지를 쓰니까요., 0
3763 인기 많으려면, 성격이 좋으면 인기가 있을 거예요., 0
3764 인내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0
3765 인사드리러 갔는데 파혼하는게 나올것 같아, 이혼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0
3766 인사드리러 갔다가 파혼했어, 이혼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0
3767 인상이 좋더라, 그런 인상이 오래오래 봐도 질리지 않아요., 0
3768 인생 공부한건가, 단맛도 있을 거예요., 0
3769 인생 너무 불공평해,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0
3770 인생 뭐있나, 뜻대로 되는게 많지 않죠., 0
3771 인생 살만해?, 누구나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하죠., 0
3772 인생 잘 못 산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0
3773 인생 허무해, 뜻대로 되는게 많지 않죠., 0
3774 인생 헛산듯, 태어난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0
3775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0
3776 인생의 쓴맛, 단맛도 있을 거예요., 0
3777 인생이 쓰디쓰다, 단맛도 있을 거예요., 0
3778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아, 월급이 깎인 것보다 낫죠., 0
3779 인연은 소중한 거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죠., 0
3780 인연은 항상 소중한 거겠지,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죠., 0
3781 인정 받고 싶다, 열심히 하다보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0
3782 인정 받고 싶은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열심히 하다보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0
3783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돼?, 남보다 하나씩 더 하면 돼요., 0
3784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어요., 0
3785 인터넷 쇼핑물에서 바지 샀는데 망함, 사이즈를 잘 보고 사세요., 0
3786 인터넷에서 바지 샀는데 안 맞아, 사이즈를 잘 보고 사세요., 0
3787 인턴 됐어, 좋은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0
3788 인턴 때려 치우고 싶어, 결정은 그대의 몫입니다., 0
3789 인턴 원서 넣어 볼까, 경험은 뭐든 도움이 될 거예요., 0
3790 인턴 할까, 경험은 뭐든 도움이 될 거예요., 0
3791 인턴 합격, 좋은 사회생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0
3792 인턴이라도 어니냐, 얼른 알아보세요., 0
3793 인턴하고 싶어, 얼른 알아보세요., 0
3794 인테리어 다시 하고싶어.,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보세요., 0
3795 인테리어 좀 다시 해야할 듯,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0
3796 인테리어 혼자 해볼까, 손길이 가서 더 애정이 생길 것 같아요., 0

3797 인형 뽑기 돈만 날렸어, 신중하게 잘 해보세요., 0
3798 인형 뽑기 어려워, 신중하게 잘 해보세요., 0
3799 인형 뽑기 해줘, 인형 뽑기 어려워요., 0
3800 인형 뽑아줘, 인형 뽑기 어려워요., 0
3801 인형 사줄까, 분명 좋아할거예요., 0
3802 인형 선물 받았어,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0
3803 인형 선물 좋을지, 이왕이면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0
3804 인형 선물하면 좋아할까?, 이왕이면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0
3805 인형 좋아할까?, 분명 좋아할거예요., 0
3806 인형뽑기 아직도 하나, 하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0
3807 인형뽑기는 유행 지났지?, 하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0
3808 일 끝나면 그냥 쉬고 싶어, 운동으로 땀을 내보세요. 한결 몸이 가벼워질거예요., 0
3809 일 대충했대, 나중에 알아줄 거예요., 0
3810 일 때려칠까?, 뒷감당은 준비하세요., 0
3811 일 못하는 사수랑 일하는 거 힘드네, 참고 견뎌보세요., 0
3812 일 안하고 돈 벌고 싶어, 동감입니다., 0
3813 일 좀 하고 다시 말시킴게, 다녀오세요!, 0
3814 일기 써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0
3815 일기쓰기, 나중에 보면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0
3816 일도 못하는데 엄청 시켜, 일을 몰라서 그런가봐요., 0
3817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게 가능한가?, 체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0
3818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 모양,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0
3819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0
3820 일본어 어렵네, 저도 참 힘들어요., 0
3821 일상에서 떠나고 싶어, 여행을 떠나세요., 0
3822 일어나보니까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어, 조심하세요., 0
3823 일어났더니 목이 잠겼어, 잘못 주무셨나봐요., 0
3824 일에 적응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3825 일요일에 교회끝나고 어디 가고 싶어., 같이 가보세요., 0
3826 일요일에 교회만 가, 같이 가보세요., 0
3827 일요일에 데이트 해야지!, 즐거운 주말 보내실 것 같네요., 0
3828 일은 많이 하는데 월급은 너무 적어, 자신의 몸값을 올려보세요., 0
3829 일은 원래 혼나면서 배워?, 그냥 배워도 돼요., 0
3830 일을 거지같이해,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죠., 0
3831 일을 나만 해, 일 분배를 다시 요청해보세요., 0
3832 일을 못하는 동료가 있는데 말해줄까?, 알고 있을 거예요., 0
3833 일을 못하면서 안 물어봐 답답하다, 알고 있을 거예요., 0
3834 일을 해도 안 늘어, 조금만 더 힘내세요., 0
3835 일이 또 쌓이네, 하나씩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0
3836 일이 안 끝나, 힘들겠지만 하나씩 해보세요., 0
3837 일이 익숙해 지지 않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0
3838 일이 잘 안 늘어, 조금만 더 힘내세요., 0
3839 일이란 공부 동시에 가능?, 체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0
3840 일이란 공부 병행 가능?, 시간 활용에 따라 다르겠조., 0
3841 일인자가 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할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0
3842 일인자가 되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0
3843 일일 만보 걷기, 좋은 건강습관이네요., 0
3844 일일일팩, 피부관리까지 하시다니!, 0
3845 일찍 가서 쉬고 싶은데 오늘 회식 잡혔어, 일과 일상 사이에서 균형이 잘 맞길 바랄게요., 0
3846 일찍 일어나야 돼, 오늘 일찍 주무세요., 0
3847 일찍 퇴근하고 쉬고 있어, 쉬고 나면 힘이 날거예요 맛있는 것도 드세요, 0
3848 일하고 올게, 다녀오세요!, 0
3849 일하기 싫다, 저도요!!, 0
3850 일하는 거에 비해 월급은 쥐꼬리, 자신의 몸값을 올려보세요., 0
3851 일하는데 실수를 많이 해,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확인해보세요., 0
3852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시간 활용에 따라 다르겠조., 0
3853 일하면서 대학원다니기 쉽지 않겠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0
3854 일하면서 석박 따기 어렵겠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0
3855 일하면서 애키우기 힘들다,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0
3856 일해야 되는데 졸려, 잠을 깨요! 기운 내요!!, 0
3857 임신이면 어떡하지, 축하할 일이죠., 0
3858 임신했어, 축하할 일이죠., 0
3859 임용 결과 발표 기다리고 있어, 여행 다녀와 보세요., 0
3860 임용 기다리고 있어, 여행 다녀와 보세요., 0
3861 임용 기다리고 있어, 공부하면서 못했던 것들 해보세요., 0
3862 임용 시험 기다리고 있어, 공부하면서 못했던 것들 해보세요., 0
3863 입 안이 다 헐었어, 요즘 피곤하신가봐요., 0
3864 입 안이 텅텅해, 입을 행귀보세요., 0
3865 입고 나갈 게 없어, 아침마다 하는 고민이죠., 0
3866 입냄새 나나?, 양치하고 오세요., 0
3867 입냄새 안나나?, 양치하고 오세요., 0
3868 입덕했어, 즐기실 일만 남았네요., 0
3869 입맛없는데 뭐 먹지, 신경 쓸 일이 있나봐요., 0

3870 입맛없어, 신경 쓸 일이 있나봐요., 0
3871 입소문 난 맛집 다녀왔어, 맛있게 드시고 오셨길 바랍니다., 0
3872 입소문이 무서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파급력이 모두 세죠., 0
3873 입을 거 없다, 웃은 사도 사도 모자라요., 0
3874 입이 고급이야, 가려 먹으면 좋죠., 0
3875 입이 방정이야, 말조심하세요., 0
3876 입이 텅텅하다, 입을 행귀보세요., 0
3877 입이 헐었어, 요즘 피곤하신가봐요., 0
3878 잇몸에서 피나는 거 같애, 잇몸약 챙겨드시거나 치과 가보세요., 0
3879 잇몸이 시려, 잇몸약 챙겨드시거나 치과 가보세요., 0
3880 잇잖아, 음, 0
3881 잇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맨날맨날 놀고 있습니다, 바쁜 게 도움이 되지요., 0
3882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0
3883 자격증 공부해야지, 좋은 자세예요., 0
3884 자격증 따야하나, 뭐든 좋죠., 0
3885 자격증 딸거야, 좋은 자세예요., 0
3886 자격증 딸까?, 뭐든 좋죠., 0
3887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 요즘 바쁜가봐요., 0
3888 자고 일어났더니 목 아파, 잘못 주무셨나봐요., 0
3889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 다갔어.,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0
3890 자극이 필요해, 의욕이 없나봐요., 0
3891 자기 말은 기억 못하고 나만 혼내는 사람 어떡해?, 녹음이나 메모로 증거를 남겨보세요., 0
3892 자기 복제가 될까, 기술이 발전하면 가능하겠죠., 0
3893 자기 소개 또 어떻게 해, 강렬하고 자신감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3894 자기 소개 어떻게 해, 강렬하고 자신감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3895 자기 소개서 오글거려, 나를 포장하는게 쉽지 않죠., 0
3896 자기 일도 아닌데 고맙다., 인복이 많나봐요., 0
3897 자기 잘못 인정 안하는 사람,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0
3898 자기 잘못은 모르고 엄청 뻔뻔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0
3899 자기가 한 말 기억 못해서 나만 혼내는 사람 어떡해?, 녹음이나 메모로 증거를 남겨보세요., 0
3900 자기도 해결방안이 없으면서 불만만해, 자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 0
3901 자기애가 너무 떨어졌어,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 칭찬해보세요., 0
3902 자꾸 거짓말 하게 되네,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0
3903 자꾸 나약하게 느껴져,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3904 자꾸 날카로워진대, 너무 신경 곤두세우지 마세요., 0
3905 자꾸 늦는 사람, 잠깐 핸드폰 게임 하시면 올거예요., 0
3906 자꾸 동문서답이야., 대화의 눈높이가 맞는 사람 만나세요., 0
3907 자꾸 뒤쳐지는 느낌이야, 스스로 경쟁해야하고 이겨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0
3908 자꾸 말 바꾸는 사람 어떻게 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0
3909 자꾸 뭘 사게 돼, 마음이 헛헛한가봐요., 0
3910 자꾸 미리 걱정해, 쓸데 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0
3911 자꾸 봐주니까 기어오른다, 화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0
3912 자꾸 비비꼬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0
3913 자꾸 설사해, 뭘 잘못 먹었나봐요., 0
3914 자꾸 아침 먹으래, 챙겨주고 싶나봐요., 0
3915 자꾸 우연히 만나, 우연이 필연이 되기도 합니다., 0
3916 자꾸 자다 깨, 자세가 불편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0
3917 자꾸 조금해져, 마음이 조금해지면 자꾸만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
3918 자꾸 졸게 되네, 잠을 깨요! 기운 내요!!, 0
3919 자꾸 지각하네, 더 일찍 일어나세요., 0
3920 자꾸 폭식하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오늘 못 먹어도 내일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0
3921 자꾸 함부로 대해, 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말해보세요., 0
3922 자는 거 아니겠지?, 많이 피곤한가봐요., 0
3923 자니?, 아직 안 자요., 0
3924 자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0
3925 자다 깨다 해, 자세가 불편한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0
3926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 조심하세요., 0
3927 자매가 있으면 좋은 점?, 평생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 0
3928 자면 안되는데 또 잤어, 피곤했나봐요., 0
3929 자소설 쓰는 중, 나를 포장하는게 쉽지 않죠., 0
3930 자신감 꺾는데 뭐 있는 듯, 어깨 펴고 좀 더 당당해져도 돼요., 0
3931 자신감 업되는 비결 좀, 충분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0
3932 자신감 제로, 충분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0
3933 자신감 하락, 어깨 펴고 좀 더 당당해져도 돼요., 0
3934 자신감을 갖고 싶어, 충분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0
3935 자신감이 없어, 충분히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0
3936 자야겠다., 안녕히 주무세요., 0
3937 자유시간 갖고 싶어,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가봐요., 0
3938 자유시간이 필요해,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가봐요., 0
3939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겠지, 가까운 미래에 나올거 같아요., 0
3940 자율주행 자동차 언제 나오냐, 가까운 미래에 나올거 같아요., 0
3941 자장가 불러 달랬더니 불러줬어, 로맨틱해요., 0
3942 자장가를 불러준 사람, 로맨틱해요., 0

3943 자장면? 짬뽕?,저는 자장면이요.,0
3944 자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저는 자장면이요.,0
3945 자존감 어떻게 올려?,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0
3946 자존감 좀 높이고 싶다.,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0
3947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자신을 사랑해주세요.,0
3948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 칭찬해보세요.,0
3949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자신을 사랑해주세요.,0
3950 자존감이 바닥이야,당신은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축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0
3951 자주 못보면 헤어지겠제?,장거리 연애 힘들겠쥬.,0
3952 자취방 선물 알려줘,필요한게 너무 많쥬.,0
3953 자취하는데 뭐 필요할까?,필요한게 너무 많쥬.,0
3954 자취해야할듯,제대로된 독립이 되길 바라요.,0
3955 작은 꽃나무라도 키워보면 어떨까,키우기 쉬울 거예요.,0
3956 잘 나갈 때 은퇴해야하나?,끝까지 해보세요.,0
3957 잘 되라고 한건데 더 어색해졌어,일부로 부추기면 가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0
3958 잘 사는 게 뭘까?,"이름, 직업 등 말고 온전히 자신으로 사는 거쥬.",0
3959 잘 사니?,잘 살고 있을 거예요.,0
3960 잘 살고 싶어,지금보다 더 잘 살 거예요.,0
3961 잘 살고 있겠지?,잘 살고 있을 거예요.,0
3962 잘 선택한건지,잘 선택했어요.,0
3963 잘 쉬는 방법,아무것도 안하기.,0
3964 잘 지냈어?,안부를 물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0
3965 잘 참았는데 담배 피고 싶다,그 때가 고비예요. 한번 참아보세요.,0
3966 잘 할 수 있을까?,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0
3967 잘 할 수 있을지 걱정 돼,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0
3968 잘되겠지,다 잘 될 거예요.,0
3969 잘래,잘자요.,0
3970 잘못 쓴 거 엄청 많아,마음을 손이 따라와주지 않쥬.,0
3971 잘못된 거도 없는데 찢려,저도 가끔 그래요.,0
3972 잘못된게 돼버렸어,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0
3973 잘자,내 꿈 꿔!,0
3974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잘 찾아보세요.,0
3975 잘하는 게 뭘까,하나라도 있을 거니 열심히 찾아보세요.,0
3976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저랑 이야기 잘하고 있어요.,0
3977 잘하는 게 직업이면 좋겠지,눈을 감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0
3978 잘하는거 하라는 데 없어,잘 찾아보세요.,0
3979 잘하는게 없는 느낌,잘하는 걸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0
3980 잘할 수 있겠지,"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0
3981 잠 온다,얼른 주무세요.,0
3982 잠 와,잠을 깨요! 기운 내요!!,0
3983 잠 잘못 잤나봐,빠근한가봐요.,0
3984 잠깐 쉬려고 했는데 한참 지났네.,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요.,0
3985 잠만 잤네,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0
3986 잠수가 취미,다른 사람이 답답할 거예요.,0
3987 잠시만 쉬려고 했는데 길어졌어,계획대로 되는 건 없어요.,0
3988 잠을 못 잤더니 너무 졸려,잠이 정말 중요해요. 눈을 좀 붙이세요.,0
3989 잠을 못 잤더니 힘들다,잠이 정말 중요해요. 눈을 좀 붙이세요.,0
3990 잠을 잘못 잤나,빠근한가봐요.,0
3991 잠이 계속 와,일찍 주무세요.,0
3992 잠이 너무 와,일찍 주무세요.,0
3993 잠이 또 안와,고민이 있나 봐요.,0
3994 잠이 안 와,양을 세어 보아요.,0
3995 잠담할 시간 있어?,물론이쥬. 무엇이든 말씀하세요.,0
3996 잠담해도 돼?,물론이쥬. 무엇이든 말씀하세요.,0
3997 장 봤는데 다 비싸,물가가 많이 비싸쥬,0
3998 장 봤는데 후덜덜해,물가가 많이 비싸쥬,0
3999 장기자랑 안 시켰으면 좋겠어,싫다고 말하세요.,0
4000 장기자랑 왜 시켜,싫다고 말하세요.,0
4001 장난 잼있어,재미있나봐요.,0
4002 장난스러운 사이,재미있나봐요.,0
4003 장난치니까 좋다,재미있나봐요.,0
4004 장래희망이 없어,아무렇게나 자라도 돼요.,0
4005 장마인데 건조기 사는게 좋을까,있으면 편하대요.,0
4006 장학금 가능할까?,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0
4007 장학금 받고 싶다,공부 열심히 하고 신청해보세요.,0
4008 장학금 받으려면 독하게 해야돼,공부 열심히 하고 신청해보세요.,0
4009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0
4010 재미 없는 하루,그런 하루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0
4011 재미 없어,변화가 필요해보여요.,0
4012 재미 없어.,웃을 때까지 이야기해 보쥬,0
4013 재미없는 일밖에 없어,활기찬 사람을 만나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0
4014 재미있는 드라마 끝났어,재미있는 다른걸 찾아보세요.,0
4015 재밌게 해줘,거울 앞에 비친 당신을 보세요.,0

4016 재밌는 거 뭐 없나, 제가 있잖아요., 0
4017 재밌는 일이 없어, 제가 있잖아요., 0
4018 재밌는거 없나?, 잼 있는 거는 딸기잼에게 물어봐 주세요., 0
4019 재밌는거 할 줄 알아, 잼 있는 거는 딸기잼에게 물어봐 주세요., 0
4020 재밌는거 해 줘, 거울을 보면서 얼굴 망가뜨리기 놀이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의외로 재미 있어요., 0
4021 재밌는게 없어, 변화가 필요해보여요., 0
4022 재밌다., 저도 즐거워요, 0
4023 재채기 나올거 같은데 안 나와, 코가 간질간질한가봐요., 0
4024 재채기 나와, 코가 간질간질한가봐요., 0
4025 재취직 될까, 취업에 성공할거예요., 0
4026 재택근무 힘들다, 어쨌든 일이니까요., 0
4027 재택근무가 더 힘든 거 같아, 어쨌든 일이니까요., 0
4028 재테크 어떻게 해, 우선 관련 서적을 읽어보세요., 0
4029 재테크 하는 방법 알려줘, 우선 관련 서적을 읽어보세요., 0
4030 저 사람이 왜 자꾸 볼까?, 혹시 반한 걸 수도 있어요., 0
4031 저 좀 웃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 보세요., 0
4032 저금통 깰까, 꼭 필요한 곳이라면요., 0
4033 저금통 털까, 꼭 필요한 곳이라면요., 0
4034 저기, 딱짓 중입니다, 0
4035 저녁 메뉴 뭐 먹을까, 냉장고 파먹기 해보세요., 0
4036 저녁 메뉴 좀 골라줘, 맛있는 거 드세요., 0
4037 저녁 메뉴 추천 해줘, 맛있는 거 드세요., 0
4038 저녁 뭐 먹지?, 맛있는 거 드세요., 0
4039 저녁 준비 해놔야지, 맛 있는거 드세요., 0
4040 저녁밥 뭐 먹냐?, 맛있는 거 드세요., 0
4041 저녁으로 뭐 먹을까, 냉장고 파먹기 해보세요., 0
4042 저녁해야 되는데., 맛 있는거 드세요., 0
4043 저음 멋있어!, 목소리는 역시 저음이죠., 0
4044 저주할거야,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에게도 해로워요., 0
4045 적금 더 들까, 절약하면 할 수 있어요., 0
4046 적금 들까, 적금 들 수 있으면 드는 게 좋죠., 0
4047 적금 들어야 하나, 적금 들 수 있으면 드는 게 좋죠., 0
4048 적금 들었어, 기특하네요., 0
4049 적금 특판 들었어, 기특하네요., 0
4050 적금 하나 더 가입할까, 절약하면 할 수 있어요., 0
4051 적당히 좀 하지, 사람들이 중간을 몰라요., 0
4052 적당히를 몰라, 사람들이 중간을 몰라요., 0
4053 적응을 못하겠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0
4054 전 애인 만났어., 이제 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0
4055 전공 못 살릴듯, 못 살려도 먹고 살아요., 0
4056 전공 살려서 취직할 수 있을까, 못 살려도 먹고 살아요., 0
4057 전공 수업 노잼,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은가봐요., 0
4058 전공 수업 재미없어, 다른 곳에 관심이 많은가봐요., 0
4059 전공 잘못 골랐나봐, 내가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걸 구별해보세요., 0
4060 전공만 듣고 싶다, 전공에 관심이 많은가봐요., 0
4061 전과하고 재미있게 학교 다니고 싶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4062 전과해도 잘 할 수 있겠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4063 전과했어, 새로 적응해야겠네요., 0
4064 전기 나갔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전기가 들어올거예요., 0
4065 전기 안들어와, 구꺼비집 내려 갔는지 살펴 보세요., 0
4066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 구꺼비집 내려 갔는지 살펴 보세요., 0
4067 전기장판 깔고 자고 있어, 뜨끈하게 겨울 나길 바랍니다., 0
4068 전기장판으로 겨울 나기, 뜨끈하게 겨울 나길 바랍니다., 0
4069 전남친 보고 싶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요., 0
4070 전남친이 자꾸 생각나,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아요., 0
4071 전남친한테 연락하고 싶어, 질척거리지마세요., 0
4072 전부 가시발길 같아,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0
4073 전부다 알고 있을까?, 다 알 수는 없어요., 0
4074 전세 계약했어, 잘하셨어요., 0
4075 전세비 갑자기 올랐어 어떡하지, 사정을 잘 설명해보세요., 0
4076 전세비 올려달래 어떡하지, 사정을 잘 설명해보세요., 0
4077 전세집 구했어, 잘하셨어요., 0
4078 전애인 만났는데 모르는 척할까?, 이제 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0
4079 전여친 보고 싶어, 이미 남이에요., 0
4080 전여친한테 연락하고 싶어, 연락하면 지긋지긋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0
4081 전역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군대 시계는 멈추지 않아요., 0
4082 전학 걱정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거예요., 0
4083 전학가게 됐어, 새로 적응해야겠네요., 0
4084 전학가도 잘 할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거예요., 0
4085 전화 걸어도 되나, 전화 해보세요., 0
4086 전화 또 안 받네, 연락두절돼서 걱정되겠네요., 0
4087 전화 못하겠어, 처음이 어려워요., 0
4088 전화 안 받는 이유가 뭘까, 바쁜일이 있나봐요., 0

4089 전화 안 받아, 연락두절돼서 걱정되겠네요., 0
4090 전화 안 받으니까 초조해져, 바쁜일이 있나봐요., 0
4091 전화 와라, 기다리는 전화가 있나봐요., 0
4092 전화 왜 안 받지, 바쁜일이 있나봐요., 0
4093 전화 왜 안오지, 기다리는 전화가 있나봐요., 0
4094 전화는 왜 갖고 다녀! 안받으면서, 연락두절돼서 걱정되겠네요., 0
4095 전화를 너무 안 받아, 한번더 연락해 보세요., 0
4096 전화를 왜 안 받냐 진짜, 바쁜일이 있나봐요., 0
4097 전화를 잘 안 받아, 연락두절돼서 걱정되겠네요., 0
4098 전화벨이 울렸으면, 기다리는 전화가 있나봐요., 0
4099 전화하기 너무 늦나, 늦은 시간 전화는 실례예요., 0
4100 전화하기엔 늦은 시간인데 전화하고 싶어, 늦은 시간 전화는 실례예요., 0
4101 전화하는 거 힘들다, 처음이 어려워요., 0
4102 전화할 사람이 없네, 가족한테 하세요., 0
4103 전화할까 말까, 전화해보세요., 0
4104 전화해도 되겠지, 전화 해보세요., 0
4105 전화해야 되나, 전화해보세요., 0
4106 절대불공평, 서로 다르게 태어난 이유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0
4107 절망적이야,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0
4108 절약해서 부자돼야지, 예비 부자님 파이팅!, 0
4109 절약해야 잘 살지, 예비 부자님 파이팅!, 0
4110 절친 만나고 싶어,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0
4111 절친이 오늘 모른척했어, 안녕이죠., 0
4112 절친인데 뽕깎아, 안녕이죠., 0
4113 젊게 살고 싶다., 마음이라도 어리게 사세요., 0
4114 젊어지고 싶어, 마음이라도 어리게 사세요., 0
4115 점 보러 가볼까?, 재미로 보기 좋죠., 0
4116 점 빨까, 빼면 깔끔해질 거예요., 0
4117 점 빼러 가고 싶다., 빼면 깔끔해질 거예요., 0
4118 점심 도시락 싸는 거 귀찮다,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0
4119 점심 때 은행 갔다와야지, 볼 일이 있나봐요., 0
4120 점심 먹어야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4121 점심 메뉴 고르는 거 힘들네, 누구랑 먹는 냐에 따라 다르겠죠., 0
4122 점심 메뉴 좀 골라줘, 누구랑 먹는 냐에 따라 다르겠죠., 0
4123 점심시간 너무 짧아, 일하는 시간은 길죠., 0
4124 점심시간에 외출하는 것도 눈치봐야돼,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나봐요., 0
4125 점심시간에 외출하면 안 되나, 사생활이 지켜지지 않나봐요., 0
4126 점심시간에 은행 갔다와야지, 볼 일이 있나봐요., 0
4127 점심시간엔 그냥 쉬고 싶어, 맛난거 드시고 조금이라도 쉬셔야 할텐데., 0
4128 점심시간이라도 마음 놓고 쉬고 싶어, 맛난거 드시고 조금이라도 쉬셔야 할텐데., 0
4129 점이라도 볼까, 재미로 보기 좋죠., 0
4130 점점 모질어진다., 나에게 화난 걸 남에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0
4131 점점 좋아져, 이상형은 아니지만 호감가는 사람이 있어요., 0
4132 점점 호감 간다, 볼매인가봐요., 0
4133 정규직 가즈아, 좋은 회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0
4134 정규직 너무 조금 뽕아, 쪼잔하네요., 0
4135 정규직 될 수 있을까, 좋은 회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0
4136 정규직 입사 너무 어려워, 쪼잔하네요., 0
4137 정규직 하고 싶다,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0
4138 정답이 뭘까,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죠., 0
4139 정동진 가서 바람이나 쐴야겠다., 잘 놀다 오세요., 0
4140 정리 불가, 차근차근 해보세요., 0
4141 정리가 안돼, 차근차근 해보세요., 0
4142 정수리 냄새, 머리 좀 감으세요., 0
4143 정수리 냄새 난 거 아니야?, 머리 좀 감으세요., 0
4144 정시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 쉬고 나면 힘이 날거예요 맛있는 것도 드세요, 0
4145 정신 못차리겠다., 다른 사람의 삶에 한눈팔며 살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니다., 0
4146 정신없을수록 침착해야지, 심호흡해보세요., 0
4147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 아무말도 하지말고 침묵하세요., 0
4148 정신줄 어디 갔나, 정신 차리세요., 0
4149 정신차리고 싶어, 다른 사람의 삶에 한눈팔며 살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니다., 0
4150 정신차리라고 한 마디 해줘, 나 자신에 집중하세요. 언제나 1순위에 자신을 두세요., 0
4151 정장 사야겠지, 사면 요긴하긴 할 거 같아요., 0
4152 정장 한 벌 필요할 듯, 사면 요긴하긴 할 거 같아요., 0
4153 제 2 외국어 뭐할까, 요즘은 잘 안 배우는 언어도 좋은 거 같아요., 0
4154 제2외국어 뭐 선택할까, 요즘은 잘 안 배우는 언어도 좋은 거 같아요., 0
4155 제급기 없거든, 저도 없어요., 0
4156 제대로 평가해줘, 제가 그럴 위치가 안돼요., 0
4157 제사 없어졌으면, 좋은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0
4158 제사를 너무 많이 해, 좋은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0
4159 제습기가 필요해, 저도 없어요., 0
4160 제자리걸음만 하는 듯, 발전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0
4161 제주도 가고 싶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0

4162 제주도 가고 싶어,당장 비행기표 예약하세요.,0
4163 제주도 가서 살까?,아름다운 곳이죠.,0
4164 제주도 놀러 가고 싶어요.,저도 데려가 주세요.,0
4165 제주도 바닷가 가고 싶어,당장 비행기표 예약하세요.,0
4166 제주도로 떠나야겠다.,여행 좋죠!,0
4167 조교하면 공부하기 힘들겠지.,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0
4168 조교하면서 공부할까?,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0
4169 조금만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상대방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주지 마세요.,0
4170 조금하고 초초하다,마음이 조금해지면 자꾸만 악수를 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0
4171 조명빨 좋다.,멋져 보여요!,0
4172 조명빨인가,멋져 보여요!,0
4173 조모임 왜 이케 많아,요즘은 팀워크가 더 중요해졌어요.,0
4174 조별 과제 발표 하기 싫어,역할 분담을 잘 해보세요.,0
4175 조별 발표 왜 이렇게 많이 시키지,요즘은 팀워크가 더 중요해졌어요.,0
4176 조별 발표 하기 싫어,역할 분담을 잘 해보세요.,0
4177 조심조심,안전이 최고죠!,0
4178 조심할 게 많아,무서운 세상이죠.,0
4179 조용히 있고 싶어,저 나가면 될까요?,0
4180 조용히 지나가면 될까?,어떤 일이나에 따라 다를 거 같아요.,0
4181 조용히 지나갈까?,어떤 일이나에 따라 다를 거 같아요.,0
4182 조카 선물 고르기 어렵네,살짝 물어보세요.,0
4183 조카 선물 뭐 사주지,살짝 물어보세요.,0
4184 조카 오는 거 싫어,방문 열어주지 마세요.,0
4185 조카 입학 선물,가방은 어때요.,0
4186 조카 입학 선물 뭐 사냐,가방은 어때요.,0
4187 조카들 너무 귀찮게 해,방문 열어주지 마세요.,0
4188 졸려,오늘 일찍 주무세요.,0
4189 졸린데 못 자겠어.,고민이 많은가 봅니다.,0
4190 졸린데 잠이 안 와,고민이 많은가 봅니다.,0
4191 졸업 사진 망했다,망해도 자연스러우면 좋겠네요.,0
4192 졸업 사진 잘 못 찍었어,망해도 자연스러우면 좋겠네요.,0
4193 졸업 선물 뭐가 좋을까,살짝 물어보세요.,0
4194 졸업 선물 추천,살짝 물어보세요.,0
4195 졸업식 가야겠지,축하드려요,0
4196 졸업식에 가도 되나,졸업식에 가서 축하해주세요.,0
4197 졸업식에 가도 될까,졸업식에 가서 축하해주세요.,0
4198 졸업이다,축하드려요,0
4199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마음을 더 열어보세요.,0
4200 좀 맞자,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0
4201 좀 쉬면서 애기 키워야 할 듯,좋은 곳에서 일하시나봐요.,0
4202 종이에 손 베었어,소독하고 약 바르세요.,0
4203 종긴 한데 귀찮아,귀차니즘을 극복 하셔야해요.,0
4204 좋아 죽을거 같아,좋아하시니까 좋네요.,0
4205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다양하게 경험해보세요.,0
4206 좋아하는 애랑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당신의 운을 믿어보세요.,0
4207 좋은 관계 어떻게 유지하지,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0
4208 좋은 관계란 뭘까,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0
4209 좋은 대학 나온 거 부러워,다른 능력을 채워보세요.,0
4210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부러워,다른 능력을 채워보세요.,0
4211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가려 가며 만나면 돼요.,0
4212 좋은 아침,좋은 아침이에요.,0
4213 좋은 점이 없어,사소한 거라도 있을 거예요.,0
4214 좌절 중이야,이제 일어날 때예요.,0
4215 주고 받았던 편지도 버려야겠지?,버릴 건 버려야지요.,0
4216 주눅들어서 말을 못하겠어,별 거 아니라고 생각해보세요.,0
4217 주랑 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주랑은 낮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0
4218 주랑 썬 게 좋은 건가?,세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돼요.,0
4219 주름도 멋져,멋진 나이테죠.,0
4220 주름도 멋진 사람,멋진 나이테죠.,0
4221 주름살 생겼어,아름다운 나이테예요.,0
4222 주름살이 조금씩 생긴다.,있어도 예뻐요.,0
4223 주말에 놀까 추천,저랑 놀아요.,0
4224 주말에 늦잠자고 브런치 먹으면서 수다 떨고 싶어,완벽한 주말이네요.,0
4225 주말에 데이트 해야지!,즐거운 주말 보내실 것 같네요.,0
4226 주말에 뭐 하고 놀까?,저랑 놀아요.,0
4227 주말에 스키장 간다!,설레겠어요.,0
4228 주말에도 헬스하러 많이 오네.,같이 운동하게 좋겠네요.,0
4229 주말인데 헬스장에 사람이 많네,같이 운동하게 좋겠네요.,0
4230 주식 대박 남!,주식으로 망하는건 한순간이에요.,0
4231 주식 망했어,주식으로 돈버는사람은 몇명 없대요.,0
4232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주식으로 망하는건 한순간이에요.,0
4233 주식이 떨어졌어,주식으로 돈버는사람은 몇명 없대요.,0
4234 주워담지 못할 말을 했어,두고두고 후회하겠네요.,0

4235 주제 넘은 짓 한거 같아,주제를 모를 때가 행복할 때예요.,0
4236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한바퀴만 더 돌면 짠하고 나타날 거예요,0
4237 주차장이 꽉 찼어,한바퀴만 더 돌면 짠하고 나타날 거예요,0
4238 주차하다 굼었어,속 쓰리겠어요.,0
4239 주차할데 없어서 짜증나,한바퀴만 더 돌면 짠하고 나타날 거예요,0
4240 주택 청약 가입,내 집 마련의 한 걸음을 내딛으셨네요.,0
4241 주택 청약 시작!,내 집 마련의 한 걸음을 내딛으셨네요.,0
4242 주택청약 들었어,내 집에 한 걸음 더 다가갔네요.,0
4243 주행 연습 끝났어,안전 운전 하세요.,0
4244 죽고 싶다,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0
4245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나쁜 생각 하지 마세요.,0
4246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다,프로포즈해보세요.,0
4247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프로포즈해보세요.,0
4248 죽을래?,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0
4249 줄 길거 같아,커피 한잔 마시며 기다려보세요.,0
4250 중2 아들 때때 고민이야,사춘기인가봅니다.,0
4251 중2 히스테리 알아?,힘들 때네요.,0
4252 중2병,힘들 때네요.,0
4253 중2병 이라더니 진짜 속썩일 줄이야,사춘기인가봅니다.,0
4254 중2병인거 같아,힘들 때네요.,0
4255 중간이 없어,그 조차 매력이겠쥬.,0
4256 중고 거래 했어,알뜰한 소비 하셨네요.,0
4257 중고로 사길 잘 한거 같아,좋은 선택 하셨네요.,0
4258 중고로 샀어,알뜰한 소비 하셨네요.,0
4259 중고로 잘 산 거 같애,좋은 선택 하셨네요.,0
4260 중국 발령 날 수도 있어,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0
4261 중국 출장 가야할 수도 있어,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0
4262 중국어 공부할까?,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0
4263 중국어 배울려면 학원 다녀야 할까,혼자해도 좋고 학원을 다녀도 좋아요.,0
4264 중국어 있는게 좋겠지?,중문 있으면 좋아요.,0
4265 중국어 학원 다녀야 하나,혼자해도 좋고 학원을 다녀도 좋아요.,0
4266 중국어 혼자 공부 가능한가?,혼자해도 좋고 학원을 다녀도 좋아요.,0
4267 중국으로 진출해볼까?,좀 더 알아보고 하세요.,0
4268 중문 있는게 낫겠지?,중문 있으면 좋아요.,0
4269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할까?,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쥬.,0
4270 중소기업인데 그냥 취직할까?,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쥬.,0
4271 중요한 발표 기다리고 있어,행운을 빌어요.,0
4272 즐기며 살고 싶어,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0
4273 증거도 없으면서 나만 의심해,평소의 행실을 되돌아보세요.,0
4274 지가 피해자래,분명한 잘못이네요.,0
4275 지갑 까먹었다.,다른 반에서 빌려보세요.,0
4276 지갑 바꿀까,신상으로 바꾸세요.,0
4277 지갑 안 가져왔다,다른 반에서 빌려보세요.,0
4278 지갑 없어졌어,잘 찾아보세요.,0
4279 지갑 잃어버림,잘 찾아보세요.,0
4280 지금 나한테 장난친거,아니길 바라요.,0
4281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멍 때리기,0
4282 지금 노력한다고 될까,중요한 건 노력하는 과정이에요.,0
4283 지금 자면 밤에 못 자겠지?,낮잠은 20분만 자세요.,0
4284 지금 자면 밤에 못 자는데 졸려,낮잠은 20분만 자세요.,0
4285 지금 행복해,현재를 즐기세요!,0
4286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 같애,자신의 인생을 사세요.,0
4287 지금이라도 중국어 공부할까?,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0
4288 지기 너무 싫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0
4289 지는 거 싫어,지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0
4290 지는 거 좋은 사람은 없겠지,지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0
4291 지는 게 진짜 싫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예요.,0
4292 지방 와서 친구가 없어,친구를 사귀어 보세요.,0
4293 지진 걱정돼,한국도 위험해요. 지진시 대피방법을 알아두세요.,0
4294 지진 안나겠지,한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진시 대피방법을 알아두세요.,0
4295 지진나면 어떡하지?,한국도 위험해요. 지진시 대피방법을 알아두세요.,0
4296 지진나면 어떡해?,한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지진시 대피방법을 알아두세요.,0
4297 지하철에 발 디딜 틈도 없다.,맨 앞이나 맨 뒤에 타세요.,0
4298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맨 앞이나 맨 뒤에 타세요.,0
4299 지하철에 자리가 없어,그런 날이 있쥬.,0
4300 지하철에서 겁나 멋진 사람 발견! 말 시켜 볼까,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네요.,0
4301 지하철에서 괜찮은 사람 봤는데 말 시켜 볼까,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네요.,0
4302 직구로 사면 싸겠지,좋은 거 사나봐요.,0
4303 직구로 사야지,좋은 거 사나봐요.,0
4304 직장 가기 싫어,직장 스트레스가 심한가봐요.,0
4305 직장생활 시작했어,처음에는 많이 어렵겠지만 차차 적응해 나갈거예요.,0
4306 직장에서 나만 일 시켜,직장 스트레스 심하겠네요.,0
4307 직장에서 너무 괴롭혀,직장 스트레스 심하겠네요.,0

4308 직장에서 따돌림 당함, 직장 스트레스 심하겠네요., 0
4309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0
4310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 직장 스트레스 심하겠네요., 0
4311 직장에서 자꾸 혼나는데 그만둬야할까?, 고칠 점은 고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0
4312 직장에서 화풀이 대상 같은데 그만둬야 할까?, 고칠 점은 고치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0
4313 직장운 없는 거 같애, 이직을 생각해보세요., 0
4314 직장이 괴롭다, 직장 스트레스 심하겠네요., 0
4315 직장이 맘에 든적이 없는 거 같애, 이직을 생각해보세요., 0
4316 직장인도 방학 필요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0
4317 진급 누락됐어, 다음에는 꼭 진급할 거예요., 0
4318 진급에서 나만 누락됐어, 기회가 다시 올 거예요., 0
4319 진급에서 나만 빠졌어, 기회가 다시 올 거예요., 0
4320 진급하고 싶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0
4321 진급할 때가 된 거 같은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0
4322 진급해야 할텐데,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0
4323 진담을 농담처럼 하는 사람, 똑같이 해주세요., 0
4324 진정으로 즐거운 게 뭘까?, 할 일이 많은데 안하는 것이요., 0
4325 진짜 내가 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건 어려워요., 0
4326 진짜 너무하네,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0
4327 진짜 되도 않는 소리하네,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0
4328 진짜 말도 안돼,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0
4329 진짜 무력하다,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0
4330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 정말 특이한 사람 많죠., 0
4331 진짜 열심히 해야지, 좋은 태도네요., 0
4332 진짜 완전체가 있어, 상대를 용서하면서 분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보세요., 0
4333 진짜 이제 한계야,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보세요., 0
4334 진짜 친구 몇 명 있어야 돼?,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0
4335 진짜 친구 사귀고 싶어, 진심으로 다가가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0
4336 진짜 친구가 없는 거 같애, 친구가 들으면 서운해 할 수도 있겠어요., 0
4337 진짜 피곤한 날, 꼭 쉬세요., 0
4338 진한 커피 한잔, 마시면 좋죠., 0
4339 짐 싸야돼 귀찮아, 버릴 건 버리세요., 0
4340 짐 가는 중, 조심히 오세요., 0
4341 짐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0
4342 짐 다와서 사귀던 남자애 만났어, 남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0
4343 짐 망한 거 같은데, 집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보세요., 0
4344 짐 밖에 나가기 싫어, 오늘은 그냥 뒹굴뒹굴 같이 놀아요., 0
4345 짐 사고 싶어,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봐요., 0
4346 짐 샀어, 내 집 마련 축하드려요., 0
4347 짐 아예 샀어, 내 집 마련 축하드려요., 0
4348 짐 예쁘게 꾸미고 싶어.,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보세요., 0
4349 짐 팔거야, 좋은 결정이길 바랍니다., 0
4350 짐 팔려고, 좋은 결정이길 바랍니다., 0
4351 집나가도 갈 데가 없어, 선생님이나 기관에 연락해보세요., 0
4352 집나갈까, 무모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0
4353 집들이 귀찮아, 안해도 괜찮을 거예요, 0
4354 집들이 누구 초대해?,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0
4355 집들이 선물 뭐 사갈까, 필요한게 어떤건지 물어보세요., 0
4356 집들이 선물 뭐가 좋아, 필요한게 어떤건지 물어보세요., 0
4357 집들이 어떻게 해, 쉽게 준비하는방법이 있는지 검색해서 준비해 보세요., 0
4358 집들이 하기 싫어, 쉽게 준비하는방법이 있는지 검색해서 준비해 보세요., 0
4359 집들이 하라네, 하고 안하고는 집주인 마음이죠., 0
4360 집들이 해야겠지?, 하고 안하고는 집주인 마음이죠., 0
4361 집들이고 뭐고 다 귀찮다, 안해도 괜찮을 거예요, 0
4362 집들이는 보통 누구를 초대하나?,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0
4363 집안일 너무 많다.,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0
4364 집안일 쌓여 있다, 하나씩 하세요., 0
4365 집안일 어려워, 조금씩 잘 하게 될거예요, 0
4366 집안일 해도 해도 안 끝나, 조금씩 조금씩 해보세요., 0
4367 집안일 해도해도 끝이 없어, 매일 조금씩 해보세요., 0
4368 집안일을 못하겠어, 조금씩 잘 하게 될거예요, 0
4369 집안일이 너무 많아, 하나씩 하세요., 0
4370 집안일이 안 끝나, 조금씩 조금씩 해보세요., 0
4371 집앞에서 전남친 만남, 남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0
4372 집에 간다, 조심히 오세요., 0
4373 집에 갈 때 피맥 먹고 싶다., 보다보면 괜찮아요., 0
4374 집에 감기약 없어, 병원가세요., 0
4375 집에 먹을게 없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돼요., 0
4376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 대청소를 해보세요!, 0
4377 집에 빨랑 가고 싶다, 집이 최고죠., 0
4378 집에 일찍 가고 싶다, 집이 최고죠., 0
4379 집에 친구 오라고 하려고, 모처럼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겠네요., 0
4380 집에 친구 초대하려고, 모처럼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겠네요., 0

4381 집을 왜 물어보지, 데려다주려나봐요., 0
4382 집이 너무 지저분해, 청소기를 돌려보세요., 0
4383 집이 더러워, 청소기를 돌려보세요., 0
4384 집이 어디냐고 왜 물어보지, 데려다주려나봐요., 0
4385 집중이 안돼,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0
4386 집중이 왜 이렇게 안 돼지,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0
4387 집착같은데 개는 뭐라고 생각할까, 상대가 그렇게 느낀다면요., 0
4388 집착인 것 같기는 해, 애정의 증거라 생각할게요., 0
4389 집착인가, 상대가 그렇게 느낀다면요., 0
4390 집착인가봐, 애정의 증거라 생각할게요., 0
4391 징글징글한 층간소음, 이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나봐요., 0
4392 짜여진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0
4393 짜장면 시켰어, 짜장면은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0
4394 짜증나, 짜증날 때는 기분 푸는 음악 어때요?, 0
4395 짜증나게 해서 일단 나왔어, 마음이 복잡하겠네요., 0
4396 짜증나서 집 나왔어, 마음이 복잡하겠네요., 0
4397 짜증난다, 짜증날 땐 짜장면, 0
4398 짜증만땅, 짜증날 땐 짜장면, 0
4399 짝남에게 빼빼로 줘도 될까, 용기를 내요!, 0
4400 짝남한테 선물 주면 부담스러워할까, 용기를 내요!, 0
4401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면 부담될까, 용기를 내요!, 0
4402 짝사랑한테 빼빼로 줘도 될까, 용기를 내요!, 0
4403 짤릴 필이 와,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해보세요., 0
4404 짱 추워, 오늘 강추위래요., 0
4405 짱 좋아, 저도 좋아해주세요., 0
4406 졸면 먹고 싶다, 얼른 요리해드세요., 0
4407 졸면 생각나, 얼른 요리해드세요., 0
4408 쪽쪽 나가야 하는데, 살짝 뒤돌아봐도 괜찮아요., 0
4409 찜질방 가고 싶다, 생각만해도 시원하네요., 0
4410 찜질방 가면 생얼 보여줘야 되나, 찜질방에서 화장은 아닌거 같아요., 0
4411 찜질방 같이 가면 화장 지워야 할까, 찜질방에서 화장은 아닌거 같아요., 0
4412 찜질방가서 땀 빼고 싶다, 생각만해도 시원하네요., 0
4413 차 기름값이 또 올랐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0
4414 차 렌트 해야겠다, 차가 필요한 일이 있으신가봐요., 0
4415 차 막힌다, 여유를 가지세요., 0
4416 차 사는 게 낫겠지?, 판단은 당신 몫이에요., 0
4417 차 사야 할 거 같은데, 좋은차로 선택해보세요., 0
4418 차 살거야, 좋은차로 선택해보세요., 0
4419 차 살까, 판단은 당신 몫이에요., 0
4420 차 진짜 막힌다 어떻하니, 여유를 가지세요., 0
4421 차 팔아서 불편해,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보세요., 0
4422 차 팔았더니 불편하네,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보세요., 0
4423 차 한 잔 하자고 해볼까, 용기내서 말해보세요., 0
4424 차별받고 있는 느낌, 차별을 하다니 못한 사람들이군요., 0
4425 차별이 제일 싫어, 차별을 하다니 못한 사람들이군요., 0
4426 착하게 살면 복 받겠지?, 뿌린대로 거둘 거예요., 0
4427 착하다고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아, 많이 당했나봐요., 0
4428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 많이 당했나봐요., 0
4429 착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뿌린대로 거둘 거예요., 0
4430 착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좀, 뿌린대로 거둘 거예요., 0
4431 찬물만 나와, 보일러가 온수로 작동하는지 보세요., 0
4432 창랑창랑한 머릿결 갖고 싶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0
4433 참견 좀 안했으면, 서툰 애정표현일 수도 있어요., 0
4434 참견 좀 하지마, 저는 도움이 되고 싶어요., 0
4435 참고 계속 도전하면 될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0
4436 참는 게 나을까, 가끔 표출하는 것도 좋아요., 0
4437 참아야 하나, 가끔 표출하는 것도 좋아요., 0
4438 참외 맛있다., 맛있게 드세요., 0
4439 참외 먹어야지, 맛있게 드세요., 0
4440 참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0
4441 참치김치찌개 먹고 싶어., 맛있죠!, 0
4442 창문을 열고 나왔네, 들어가서 닫으세요., 0
4443 창문을 열어 놓고 나왔네, 들어가서 닫으세요., 0
4444 창업 고민된다., 많은 준비가 필요해보여요., 0
4445 창업 할까, 많은 준비가 필요해보여요., 0
4446 창업이라도 해야 겠지,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0
4447 창업하고 싶다., 확신이 들 때까지 준비해보세요., 0
4448 창업해도 될까?, 확신이 들 때까지 준비해보세요., 0
4449 창피해, 그럴 필요 없어요., 0
4450 책 반납 안했다, 까먹었나봐요., 0
4451 책 보는데 글자만 들어와, 글자라도 보는 게 어디예요., 0
4452 책 빌려봐야지, 도서관 다녀오세요., 0
4453 책 선물이 제일 나을 듯,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알아보세요., 0

4454 책 선물해야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 알아보세요., 0

4455 책 어디다 팔아?, 중고서점에서 팔아보세요., 0

4456 책 좀 읽어야지, 좋은 생각이에요., 0

4457 책 팔 수 있는 곳 알려줘?, 중고서점에서 팔아보세요., 0

4458 책만 보면 졸려, 눈꺼풀의 무게를 이겨내세요., 0

4459 책만 퍼만 잠와, 눈꺼풀의 무게를 이겨내세요., 0

4460 책보는데 글자만 봤어, 글자라도 보는 게 어디예요., 0

4461 책상 리폼할거야, 저도 해보고 싶네요., 0

4462 책장 정리 좀 해야겠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0

4463 책장 좀 치워야겠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0

4464 챙길게 너무 많아, 열까지밖에 없네요., 0

4465 처음 보는 사람이랑 뭘 말을 하지, 공통점을 찾ند다고 생각해보세요., 0

4466 처음 보는 애랑 무슨 얘기하지, 공통점을 찾ند다고 생각해보세요., 0

4467 처음 해외여행가!, 두근거리겠어요., 0

4468 처음에 말 걸 때 힘들어, 처음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덜할 거예요., 0

4469 처음에 친구 어떻게 사귀지, 먼저 다가가고 알아가야죠., 0

4470 처음에 카톡 뭐라 보내지, 잘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봐요., 0

4471 처음에는 별로 였는데 호감 간다, 불매인가봐요., 0

4472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별로, 그 사람의 좋은점을 생각해보세요., 0

4473 처음엔 좋았는데, 그 사람의 좋은점을 생각해보세요., 0

4474 처음이라 그런거지, 서툰 게 많지만 다 잘 될 거예요., 0

4475 천재 같아, 감사합니다., 0

4476 철이 너무 일찍 들었어, 철은 죽을 때 들어도 돼요., 0

4477 철이 빨리 든 거 같아서 좀 그래, 아이는 아이다워야 아름답죠., 0

4478 첫 데이트에 뭐하지, 야경이 멋져요. 야경구경 가세요., 0

4479 첫 출근 날이야, 많이 긴장되겠어요., 0

4480 첫눈 오는날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럽네요., 0

4481 첫눈이 올때 같이 있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럽네요., 0

4482 첫인상에서 강렬한 인상 남기기, 처음 3초가 중요해요. 당신의 매력을 어필해보세요., 0

4483 첫인상은 뭘로 판단할까, 첫인상은 상대방을 바라봤을때 3초에 결정난데요., 0

4484 첫직장 출근, 처음에는 많이 어렵겠지만 차차 적응해 나갈거예요., 0

4485 청강이라도 해야겠다., 열심히 하네요., 0

4486 청강하려고, 열심히 하네요., 0

4487 청소 해도 티가 안나, 한번만 더 하세요., 0

4488 청소 해도 해도 더러워, 한번만 더 하세요., 0

4489 청소는 넘나리 귀찮, 청소는 습관이에요, 0

4490 청소를 안 했더니 먼지 쌓였어, 대청소를 해보세요!, 0

4491 청소하기 귀찮, 청소는 습관이에요, 0

4492 체력 관리, 운동을 해보세요., 0

4493 체육대회 싫어, 재미 있는 종목을 찾아보세요., 0

4494 체육대회 안 했으면, 재미 있는 종목을 찾아보세요., 0

4495 체육대회한데, 일기예보 확인해보세요., 0

4496 체육복 또 까먹었어, 다른 반 친구한테 빌려보세요., 0

4497 체육복 안 가져 왔다, 다른 반 친구한테 빌려보세요., 0

4498 헛바퀴 도는 하루, 그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세요., 0

4499 헛바퀴 돌듯 돌아가는 삶, 그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세요., 0

4500 초콜릿 만들어서 줄까?, 좋아할거예요., 0

4501 초콜릿 선물하면 좋아할까?, 좋아할거예요., 0

4502 최고 몸무게 찍는 중, 이제 내려올 때가 됐어요., 0

4503 최고다 행복해,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0

4504 최선을 다한 거 같은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 시간 자체를 즐기면 돼요., 0

4505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 시간 자체를 즐기면 돼요., 0

4506 최저시급은 반니, 저는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0

4507 최저임금 수준에서 알바비가 안 나왔어, 회사에서 품수를 쓰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0

4508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월급은 왜 똑같지?, 회사에서 품수를 쓰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0

4509 추석 가기 싫어, 가지 마세요., 0

4510 추석에 집에 가기 싫어, 가지 마세요., 0

4511 추우니까 나가기 싫어, 겨울에는 굴 먹으면서 집에 있는게 최고죠, 0

4512 추워, 따뜻한 차 한잔 어때요?, 0

4513 추워 죽을 뻔했네, 감기 조심하세요., 0

4514 추워죽겠다, 감기 조심하세요., 0

4515 추천 메뉴, 색다른걸 드셔보세요., 0

4516 축구 가야 되는데, 운동하고 오세요., 0

4517 축구 동영상 시청 중,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0

4518 축구 볼때는 치맥이지, 보다보면 재미있어요., 0

4519 축구 시청 중,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0

4520 축구 잘해, 운동 잘하는 사람 멋있죠., 0

4521 축구하러 가야지, 운동하고 오세요., 0

4522 축의금 고민, 주위 신경쓰지 말고 형편에 맞게 넣으세요., 0

4523 축의금 보통 얼마내?, 받은 만큼 내거나 주변에 내는 사람들과 맞추세요., 0

4524 축의금 얼마 내지?, 받은 만큼 내거나 주변에 내는 사람들과 맞추세요., 0

4525 축의금 얼마해야 되나, 주위 신경쓰지 말고 형편에 맞게 넣으세요., 0

4526 축제 준비하느라 바빠,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랄게요., 0

4527 축제날은 즐겨야지,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0
4528 춘곤증인가,잠깐 주무세요.,0
4529 춘곤증인가봐 졸려,잠깐 주무세요.,0
4530 출근 길에 맨날 보는 사람 있어,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0
4531 출근 자체가 스트레스야,직장 스트레스가 심한가봐요.,0
4532 출근길 너무 힘들어,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보세요.,0
4533 출근길 막혀,오늘 회사 가기 싫은가봐요.,0
4534 출근길이 유난히 기네,오늘 회사 가기 싫은가봐요.,0
4535 출근시간 아깝다,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보세요.,0
4536 출근이 스트레스야,직장 스트레스가 심한가봐요.,0
4537 출근하기 너무 오래 걸려,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보세요.,0
4538 출근하기 싫어,직장 스트레스가 심한가봐요.,0
4539 출근하자마자 스트레스 받아,회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죠.,0
4540 출퇴근 시간 너무 오래 걸려.,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0
4541 출퇴근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0
4542 충전기 안 가져왔다,빌려 보세요.,0
4543 충전기 안 가지고 왔다,빌려 보세요.,0
4544 충전해야겠다,충전기를 찾아보세요.,0
4545 취미 좀 만들어볼까?,뭐든 시작해보면 좋을 거예요.,0
4546 취미생활 같이하는 게 좋하던데,함께하면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0
4547 취미생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그래도 취미 생활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죠.,0
4548 취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그래도 취미 생활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죠.,0
4549 취뽀 어렵다.,바늘 구멍이니깐요.,0
4550 취뽀하고 싶다,취직이나라노.,0
4551 취업 못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다음 공채때는 될 거예요.,0
4552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다음 공채때는 될 거예요.,0
4553 취업 준비 힘들어,합격을 기원합니다.,0
4554 취업은 너무 힘들겠지?,자신의 능력을 믿어보세요.,0
4555 취업의 관문을 뚫는게 쉽지가 않네,바늘 구멍이니깐요.,0
4556 취업하고 싶다,간절한 만큼 할 수 있을 거예요.,0
4557 취업하기 힘들겠지?,자신의 능력을 믿어보세요.,0
4558 취직 원쑤,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거예요.,0
4559 취직이 안 돼,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0
4560 취직이나 했으면,취직이나라노.,0
4561 취직하고싶어,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거예요.,0
4562 취직하는데 나이가 많아,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0
4563 취직하면 공부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공부는 끝이 없죠.,0
4564 취직하면 공부 안해도 될 줄 알았어.,공부는 끝이 없죠.,0
4565 취직하면 끝이 아니네.,경쟁이 점점 치열하죠.,0
4566 취직하면 끝일줄 알았는데 계속 할게 많아,경쟁이 점점 치열하죠.,0
4567 취직해야 할텐데,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거예요.,0
4568 증간소음 때문에 왜 살인이 나는지 알 거 같애,일상을 침해당하기 때문이죠.,0
4569 증간소음 심해,신고하세요.,0
4570 증간소음때매 환장하겠어,증명자료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0
4571 증간소음에 살인 난다더니.,일상을 침해당하기 때문이죠.,0
4572 치고 올라오는 신입,더 열심히 하세요.,0
4573 치과 가면 돈 많아 들텐데,나중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나갈거예요.,0
4574 치과 가면 돈 엄청 깨질 텐데,나중에 가면 돈이 더 많이 나갈거예요.,0
4575 치과 가야 하나,근처 치과에 가보세요.,0
4576 치과 치료 받아야 할까,근처 치과에 가보세요.,0
4577 치매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무서워,더 많이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0
4578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거 같아,더 많이 연락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0
4579 치매이면 어쩌지,무서운 소리 마세요.,0
4580 치매일까봐 무섭다.,무서운 소리 마세요.,0
4581 치맥데이,달리세요!,0
4582 치맥먹으면서 축구봐야지,보다보면 재미있어요.,0
4583 치킨 시켜야지,맛있게 드세요.,0
4584 치킨집 차릴까,생각보다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아요.,0
4585 친구 같은 너,그런 친구가 오래가요.,0
4586 친구 둘잔치 가는 중,축하해주고 오세요.,0
4587 친구 따라 강남가나,친구가 따라오게 해보세요.,0
4588 친구 따라다녀야겠다.,친구가 따라오게 해보세요.,0
4589 친구 많이 사귀고 싶어,제가 있잖아요.,0
4590 친구 몇 명쯤 필요한가,한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0
4591 친구 사귀고 싶어,제가 있잖아요.,0
4592 친구 사귀는 방법,먼저 다가가고 알아가야죠.,0
4593 친구 예전 남자친구 사귀어도 되나,아닌 것 같아요.,0
4594 친구 온대,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봐요.,0
4595 친구 웨딩촬영 갔는데 서운했어,친구가 예민해서 잘 못 챙겼나봐요.,0
4596 친구 전남친 사겨도 되나,아닌 것 같아요.,0
4597 친구 좀 사귀고 싶다,저는 어때요?,0
4598 친구가 귀찮게해,친구가 좋아하나봐요.,0
4599 친구가 나 귀엽대,친구가 보는 눈이 있네요.,0

4600 친구가 나한테 집착해,거리를 두세요.,0
4601 친구가 내 썸남이랑 연락해,도와주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0
4602 친구가 너무 고맙네,좋은 친구를 뒀네요.,0
4603 친구가 너무 맘대로야,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0
4604 친구가 너무 예뻐,유유상종이네요.,0
4605 친구가 다 떠나 갔어,또 다른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거예요.,0
4606 친구가 다 떠나서 내가 못났나 싶어,지난 인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0
4607 친구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0
4608 친구가 도와주고 있는데 마음에 안들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나봐요.,0
4609 친구가 도와주는게 마음에 안들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나봐요.,0
4610 친구가 많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저는 어때요?,0
4611 친구가 배아플 정도로 잘 됐어,친구가 아닌가봐요.,0
4612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이상한 사람이었어,친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해보세요.,0
4613 친구가 소심해,더 신경써 주세요.,0
4614 친구가 엄청 소심해,더 신경써 주세요.,0
4615 친구가 없어,또 다른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거예요.,0
4616 친구가 예뻐서 위축돼,자신감을 가지세요.,0
4617 친구가 이사하는 거 도와준대,좋은 친구를 두셨네요.,0
4618 친구가 이어줬는데 안 됐어,친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해보세요.,0
4619 친구가 자꾸 집착하는 것 같은데 뭐라 말하지,거리를 두세요.,0
4620 친구가 자꾸 클럽가자 해,다른 친구랑 가라고 해요.,0
4621 친구가 자꾸 클럽을 너무 좋아해 맨날 가재,다른 친구랑 가라고 해요.,0
4622 친구가 잘되니까 배 아픈 거 같아,친구가 아닌가봐요.,0
4623 친구가 잘되니까 약 올라,친구가 아닌가봐요.,0
4624 친구가 전남친이랑 사귄 거 같아,친구가 아닌가봐요.,0
4625 친구가 지금 놀러온대,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봐요.,0
4626 친구가 카톡 씹어,바쁘가봐요.,0
4627 친구가 필요해,진심으로 다가가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0
4628 친구네 갔다올게,재미있게 놀다 오세요.,0
4629 친구네 놀러가려고,재미있게 놀다 오세요.,0
4630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내일 오려고,좋은 친구를 두셨네요.,0
4631 친구네 집에서 자야지,좋은 친구를 두셨네요.,0
4632 친구네 집이 부자라 우리집에 초대해 못하겠어,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어요.,0
4633 친구들 부르려고,좋은 생각이네요.,0
4634 친구들 초대하려고,좋은 생각이네요.,0
4635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0
4636 친구들은 다 예뻐,자신감을 가지세요.,0
4637 친구들은 다 예쁘게 하고 왔어,당신도 예뻐요.,0
4638 친구들이 나만 왕따시키는 거 같아,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0
4639 친구들이 나보고 귀엽다고 했는데,친구가 보는 눈이 있네요.,0
4640 친구들이 다 예뻐졌어,당신도 예뻐요.,0
4641 친구들이랑 가기 좋은 곳,친구들과 함께면 어디든 좋아요.,0
4642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고 싶어,즐거운 시간이 될 거 같아요,0
4643 친구들이랑 맛난거 먹고 싶다,조금씩 더 행복해 질거 같아요,0
4644 친구들이랑 맛집 가고 싶어,조금씩 더 행복해 질거 같아요,0
4645 친구들이랑 봉사활동 해보려고,의미있는 일이네요.,0
4646 친구들이랑 셀프 이사,좋은 친구를 두셨네요.,0
4647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가지,친구들과 함께면 어디든 좋아요.,0
4648 친구들한테 인기 얻으려면,성격이 좋으면 인기가 있을 거예요.,0
4649 친구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지금도 인정받고 있어요.,0
4650 친구라고 생각했는데,그런 친구 말고 제대로 된 친구 사귀세요.,0
4651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날 엄청 쉽게 생각했나봐,그런 친구 말고 제대로 된 친구 사귀세요.,0
4652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가 뒷담화 하고 다님,친구라고 생각한 시간이 아깝네요.,0
4653 친구라는게 뒷담화나 하다니,친구라고 생각한 시간이 아깝네요.,0
4654 친구랑 나랑 자꾸 비교하게 돼,비교하면 끝도 없어요.,0
4655 친구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진심으로 아껴주세요.,0
4656 친구랑 만나면 좋아,그 친구랑 좋은 인연 만들어 보세요.,0
4657 친구랑 말다툼했어,싸우면서 정 들 거예요.,0
4658 친구랑 비교 돼,비교하면 끝도 없어요.,0
4659 친구랑 비교하면 내가 작아져,당신은 생각보다 큰 사람이에요.,0
4660 친구랑 수다 떨고 왔어,기분이 좋아 보이네요.,0
4661 친구랑 싸웠어,싸우면서 정 들 거예요.,0
4662 친구랑 썸남이 연락했나봐,도와주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0
4663 친구랑 있으면 내가 작아져,당신은 생각보다 큰 사람이에요.,0
4664 친구랑 잘 노는 방법,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본받을 점은 본받으면서 그대로 사랑해주세요.,0
4665 친구랑 전남친이 사귄 거 같은 예감이 들어,친구가 아닌가봐요.,0
4666 친구랑 친해지는 법,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본받을 점은 본받으면서 그대로 사랑해주세요.,0
4667 친구랑 힐링하고 왔어,기분이 좋아 보이네요.,0
4668 친구에게 물어 봐야겠다,친구도 잘 몰라요.,0
4669 친구인데도 너무 잘되니까 약 오르네,친구가 아닌가봐요.,0
4670 친구인듯 친구아닌 친구 같은 너,그런 친구가 오래가요.,0
4671 친구한테 마음의 빛이 많아,고마운만큼 꼭 갚아 주세요.,0
4672 친구한테 몇 년만에 연락해도 되나,오랜만에 연락 받으면 반가울 것 같아요.,0

4673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친구도 잘 몰라요., 0
4674 친구한테 미안하다., 고마운만큼 꼭 갚아 주세요., 0
4675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육만 먹었어, 친구로서와 이성으로서 보는 눈이 달랐나봐요., 0
4676 친구한테 실수한 거 같아, 용서를 구하세요., 0
4677 친구한테 쌓인 게 안 풀려, 대화하면서 얹힌 감정들을 풀어보세요., 0
4678 친구한테 썸 중인가 이야기 해야하나, 확실해지면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0
4679 친구한테 자꾸 쌓인다, 대화하면서 얹힌 감정들을 풀어보세요., 0
4680 친구한테 자꾸 집착하게 돼, 자신 스스로에게 의지해보세요., 0
4681 친구한테 진짜 고마워, 좋은 친구를 뒀네요., 0
4682 친척 대하는 거 불편해, 서로를 조금만 생각해 주면 만남이 즐거울 텐데 말이에요., 0
4683 친척들 만나기 싫다, 만나지 마세요., 0
4684 친척들 만나는 거 불편해, 서로를 조금만 생각해 주면 만남이 즐거울 텐데 말이에요., 0
4685 친척들 만나는 거 싫어, 만나지 마세요., 0
4686 친한 친구랑 싸움, 대화로 풀어보세요., 0
4687 친한 친구랑 싸웠어, 친구라면 먼저 사과해보세요., 0
4688 친한 친구한테 호박씨깎, 그런 친구는 거르세요., 0
4689 친한 친구한테 뒤통수 맞음, 그런 친구는 거르세요., 0
4690 침대가 최고, 침대와 한몸이 되어 폭 쉬세요., 0
4691 침대에 누우면 바로 자, 좋은 습관이네요., 0
4692 침착해야지, 심호흡해보세요., 0
4693 칭찬 좀 해봐,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0
4694 칭찬 좀 해줬으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0
4695 카드 다 부러뜨려 버려야겠다., 소비 조절을 못하면 없애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0
4696 카드 다 없애버려야지, 소비 조절을 못하면 없애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0
4697 카드가 못찾겠다., 잘 찾아보세요., 0
4698 카드가 왜 없지, 잘 찾아보세요., 0
4699 카드값 갚느라 허리가 휘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보세요., 0
4700 카드값 너무 많이 나왔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보세요., 0
4701 카톡 대화를 삭제하는게 수상해, 복원해보세요., 0
4702 카톡 대화를 왜 삭제하지, 복원해보세요., 0
4703 카톡 뭐라 보낼까?, 잘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봐요., 0
4704 카톡 씹었어, 바쁘니까봐요., 0
4705 카톡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제가 있잖아요., 0
4706 카톡할 친구가 없네, 제가 있잖아요., 0
4707 카톡할 친구가 없네, 자랑 하세요., 0
4708 카페 알바 면접 간다, 저도 해보고 싶은 알바예요., 0
4709 카페나 갈까?, 카페 데이트 좋죠., 0
4710 카풀로 출퇴근 해볼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0
4711 카풀해볼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0
4712 칼국수 언제?, 맛을거 같아요., 0
4713 커플 폰케이스 사자고 해야겠다., 괜찮은거로 골라보세요., 0
4714 커플 폰케이스 해볼까?, 괜찮은거로 골라보세요., 0
4715 커플링 맞추까?,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0
4716 커플링 맞춰볼까?,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0
4717 커플이 같은 옷 입는거 좋아보여, 커플부터 만드세요., 0
4718 커피 그만 마셔야지, 과해도 안 좋아요., 0
4719 커피 땡기네, 카페인이 필요한 시간인가 봐요., 0
4720 커피 마셔야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0
4721 커피 마시고 싶어, 카페인이 필요한 시간인가 봐요., 0
4722 커피 말고 탄 거 마실거 없나, 시원한 주스는 어때요., 0
4723 커피 말고 뭐 마시지, 시원한 주스는 어때요., 0
4724 커피 볶는 시간, 커피향 좋겠어요., 0
4725 커피 안 마시면 일을 못해, 커피도 좋지만 차도 마셔보세요., 0
4726 커피 없으면 집중이 안돼, 커피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요., 0
4727 커피 좀 마셔야겠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0
4728 커피 좀 줄여야겠어., 과해도 안 좋아요., 0
4729 커피 중독인가, 커피도 좋지만 차도 마셔보세요., 0
4730 커피 타기 귀찮아, 커피는 셀프였으면 좋겠어요., 0
4731 커피 타는 거 싫다, 커피는 셀프였으면 좋겠어요., 0
4732 커피 한 잔 하자고 말해볼까, 잘 될 거예요., 0
4733 커피가 너무 써, 달달한 시럽을 추가해보세요., 0
4734 커피가 너무 진해, 달달한 시럽을 추가해보세요., 0
4735 커피가 없으니까 집중이 안 되네, 커피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요., 0
4736 커피가 좋아, 저도 커피 좋아해요., 0
4737 커피나 한 잔 하자고 말 해볼까, 용기내서 말해보세요., 0
4738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 저도 커피 좋아해요., 0
4739 커피콩 볶고 있어, 커피향 좋겠어요., 0
4740 커피향, 커피는 향이죠., 0
4741 커피향 좋다, 커피는 향이죠., 0
4742 컨디션 조절, 컨디션 조절은 정말 중요해요., 0
4743 컨디션 조절이 안돼, 컨디션 조절은 정말 중요해요., 0
4744 컴퓨터 고장났나봐, AS센터에 맡겨보세요., 0
4745 컴퓨터 부팅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 강제종료 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0

4746 컴퓨터가 맛이 갔어, AS센터에 맡겨보세요., 0
4747 컴퓨터가 안돼, AS센터에 맡겨보세요., 0
4748 컴퓨터 백업해야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죠., 0
4749 컴퓨터가 넘넘 느려, 포맷해보세요., 0
4750 컴퓨터가 느려졌어, 포맷해보세요., 0
4751 컴퓨터가 느려졌어, 뭘 다운 받으신 건지..., 0
4752 컴퓨터가 대뽕 느려졌어, 뭘 다운 받으신 건지..., 0
4753 케익 만들어서 선물할까?, 수제 케익을 받으면 많이 좋아할 거예요., 0
4754 케익 직접 만들어볼까?, 수제 케익을 받으면 많이 좋아할 거예요., 0
4755 코 근질거려, 코 감기일 수도 있어요., 0
4756 코 막혀, 감기 조심하세요., 0
4757 코 세워 볼까, 안해도 귀여워요., 0
4758 코 조금만 세워 볼까, 안해도 귀여워요., 0
4759 코가 간지러워, 건들이지마세요., 0
4760 코가 간질간질, 코 감기일 수도 있어요., 0
4761 코가 근질근질, 건들이지마세요., 0
4762 코감기로 찡찡거리, 이럴 때 잘 쉬는 게 중요해요., 0
4763 코고는 것도 귀여워, 사랑하나봅니다., 0
4764 코골이 너무 시끄러워, 피곤한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0
4765 코골이 어떻게 고쳐?, 피곤한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0
4766 코딩 좀 배울까, 많이 알면 도움이 되겠죠., 0
4767 코맹맹, 감기 조심하세요!, 0
4768 코인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신나는 노래를 들려주세요., 0
4769 코인노래방 가야지, 신나는 노래를 들려주세요., 0
4770 코자, 내 꿈 꿔!, 0
4771 코코넛오일 맛있어, 정글에서 먹어야 하나봐요., 0
4772 코코넛오일 먹기 싫어, 정글에서 먹어야 하나봐요., 0
4773 코트 살까, 있으면 좋죠., 0
4774 코트 살까 말까, 있으면 좋죠., 0
4775 콧물 콧물, 건강에 유의하세요., 0
4776 콧물 나네, 감기 걸렸나봐요., 0
4777 콧물 질질, 감기 걸렸나봐요., 0
4778 쿠폰 다 모았다., 와우 축하해요., 0
4779 쿠폰 다 모음, 와우 축하해요., 0
4780 크루즈 여행 하고 싶어, 멋진 생각이네요., 0
4781 크루즈 타고 여행 하고 싶어, 멋진 생각이네요., 0
4782 크리스마스에 뭐 하나, 크리스마스에는 케빈과 함께., 0
4783 크리스마스엔 눈이 올까, 눈이 오면 좋겠네요., 0
4784 큰일 없이 살고 있어, 오늘도 평안했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0
4785 클럽 가고 싶은데 말할까, 말하고 가거나 같이 가보세요., 0
4786 클럽가고 싶은데 말하고 갈까, 말하고 가거나 같이 가보세요., 0
4787 클스마스에 할일, 크리스마스에는 케빈과 함께., 0
4788 키 왜 안 크지, 신경쓰면 스트레스 받아요., 0
4789 키 이제 안 크나, 신경쓰면 스트레스 받아요., 0
4790 키 컸으면, 지금도 충분해요., 0
4791 키가 안 커, 지금도 충분해요., 0
4792 키가 왜 안 클까, 지금도 충분해요., 0
4793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지금도 충분해요., 0
4794 타로 보고 왔어, 좋게 나왔길 바라요., 0
4795 타로점 봤어, 좋게 나왔길 바라요., 0
4796 타이밍이 기가 막혀, 나이스 타이밍!, 0
4797 타이밍이 진짜 기막혀, 그럴 때가 있어요., 0
4798 탄생의 이유 알아?,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0
4799 탄탄한 몸매 갖고 싶어, 운동으로 만들어 보아요., 0
4800 탈모인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0
4801 태닝할까, 구릿빛 피부 좋죠!, 0
4802 태몽꾼거 같아, 뭘 꿔는지 궁금하네요., 0
4803 태몽꿔대, 뭘 꿔는지 궁금하네요., 0
4804 택배 기다리고 있어, 오늘 택배기사님들 쉬는 날이에요., 0
4805 택배 아저씨 오셨을까?, 현관문 살펴보세요., 0
4806 택배 안와., 송장 번호를 확인해보세요., 0
4807 택배 왔나, 현관문 살펴보세요., 0
4808 택배 왜 안오지?, 송장 번호를 확인해보세요., 0
4809 택배가 안 와, 오늘 택배기사님들 쉬는 날이에요., 0
4810 택시 너무 많이 탔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0
4811 택시 타야겠다., 조심히 오세요., 0
4812 택시비 너무 비싸, 후회해도 늦었어요., 0
4813 택시비 많이 나왔어, 후회해도 늦었어요., 0
4814 택시비 아까워, 후회해도 늦었어요., 0
4815 택시비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0
4816 텀블러 까먹었다., 괜찮아요. 다음에 가져가면 되죠., 0
4817 텀블러 안 가져 왔다, 괜찮아요. 다음에 가져가면 되죠., 0
4818 텔레비전 볼 게 없어, 저랑 이야기 해요., 0

4819 통장 잔고가 하나도 안 남았어., 일이라도 해보세요., 0
4820 통장잔고가 0이야, 일이라도 해보세요., 0
4821 통학 힘들다, 출퇴근을 미리 느껴보고 있네요., 0
4822 통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가족한테 하세요., 0
4823 퇴근 시간도 아닌데 엄청 막혀, 여유를 가지세요., 0
4824 퇴근 후에 만나자고 해볼까, 용기내세요., 0
4825 퇴근길 아닌데 차 엄청 막혀, 여유를 가지세요., 0
4826 퇴근길 엄청 막히네, 라디오를 들으며 여유를 가져보세요., 0
4827 퇴근시간 왜케 안 오냐, 짹짹., 0
4828 퇴근시간만 기다려, 짹짹., 0
4829 퇴근하고 놀고 싶다., 몸과 마음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0
4830 퇴근하고 만나자고 말해볼까, 용기내세요., 0
4831 퇴근하고 뭐 하지, 몸과 마음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0
4832 퇴사 예정이야 후련하다, 좋은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0
4833 퇴사하면 후련할거 같아, 좋은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0
4834 투자라 생각하는 게 나을까, 아웃풋이 확실한지 생각해보세요., 0
4835 투자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 아웃풋이 확실한지 생각해보세요., 0
4836 투잡 뛰어야 하나?, 필요하다면요., 0
4837 투잡할까?, 가능하다면요., 0
4838 튀김기 사고 싶다, 몇 번 안해먹고 둘 거면 그냥 사 드세요., 0
4839 트래킹 하러 갈까?, 같이 등산해요., 0
4840 트위터 보면 다 행복해보여, 자랑하는 자리니까요., 0
4841 티 나게 여색해 했어, 아직 순수하다는 증거일 거예요., 0
4842 티 안 나게 나 싫어해, 여우인가봐요., 0
4843 티비 볼 거 없어, 저랑 이야기 해요., 0
4844 팀플 안 하면 좋겠다, 사회를 미리 알려주나봐요., 0
4845 팀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회를 미리 알려주나봐요., 0
4846 파도 엄청나다, 깊은 곳까지 가지 말고 주의하세요., 0
4847 파도 장난 아니다, 깊은 곳까지 가지 말고 주의하세요., 0
4848 파도 타고 놀고 싶어, 시원할 것 같아요., 0
4849 파도 타고 싶어, 시원할 것 같아요., 0
4850 파도가 엄청 세, 깊은 곳까지 가지 말고 주의하세요., 0
4851 파도가 엄청나, 깊은 곳까지 가지 말고 주의하세요., 0
4852 파도가 잔잔하네, 생각들을 정리하게 좋겠네요., 0
4853 파란 하늘이 그리워, 가끔 하늘을 보세요., 0
4854 파마하면 어울릴까, 한번 해보세요., 0
4855 파마할까, 한번 해보세요., 0
4856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0
4857 판도라의 상자를 연 기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0
4858 팔뚝 너무 두꺼워, 펌킨 운동 해보세요., 0
4859 팔뚝살 빼고 싶어, 펌킨 운동 해보세요., 0
4860 팔로우 왜 안해주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0
4861 패디나 할까, 기분전환을 해보세요., 0
4862 패키지여행이 좋을까 자유여행이 좋을까, 가는 곳과 같이 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조., 0
4863 패턴 풀어볼까, 할 수 있다면요., 0
4864 팩이나 할까, 피부관리 좋조!, 0
4865 팩해야지, 피부관리 좋조!, 0
4866 팬미팅 갔다 왔어, 성덕이네요., 0
4867 팬미팅 재밌다., 성덕이네요., 0
4868 편두통 온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0
4869 편두통 왔어, 신경쓰는 일이 많았나봅니다., 0
4870 편안하게 살고 싶다., 명상을 해보세요., 0
4871 편의점 간식 먹어야지, 간단하고 좋조., 0
4872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 보려고, 도전을 응원합니다!, 0
4873 편의점 알바 면접 간다, 저도 해보고 싶은 알바예요., 0
4874 편의점 알바해보려고, 도전을 응원합니다!, 0
4875 편의점에서 먹어야지, 간단하고 좋조., 0
4876 편지도 다 버려야겠지?, 버릴 건 버려야지요., 0
4877 편하게 쉬고 싶다, 내려 놓으세요., 0
4878 평가 좀 해줘, 제가 그럴 위치가 안돼요., 0
4879 평가원 시험 잘 봐야 할텐데, 평소처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0
4880 평가원 잘 보고 싶다, 평소처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0
4881 평생 저주할거야,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에게도 해로워요., 0
4882 평생 함께하고 싶다., 프로포즈해보세요., 0
4883 평생하고 싶은거 찾아야 할텐데, 눈을 감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0
4884 평온해, 내일도 평온하길 바라요., 0
4885 평일 저녁 데이트 장소 좀 추천해줘, 야경이 예쁜 곳이에요., 0
4886 평일 저녁 데이트 장소 추천, 야경이 예쁜 곳이에요., 0
4887 포근포근한 이불에서 못나가겠어, 지상 천국이니 당연하죠., 0
4888 포기안한다고 말했어, 마음이 힘들겠어요., 0
4889 폭식증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오늘 못 먹어도 내일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0
4890 폭언하는 사람 어떻게 해?, 그 사람 말고 저랑 수다 떨어요., 0
4891 폭풍 먹방했더니 졸려, 먹고 자고 그게 진리예요., 0

4892 폰 꺼질라그래,충전하고 만나요.,0
4893 폰 떨어,조심하세요.,0
4894 폰 배터리가 너무 잘 닳아,배터리만 바꿔보세요.,0
4895 폰 배터리가 벌써 없어,배터리만 바꿔보세요.,0
4896 폰 배터리가 없네,어서 충전 하세요.,0
4897 폰 요금 많이 나옴,소액결제를 줄여보세요.,0
4898 폰 초기화 해야지,중요한 것들을 백업해놓으세요.,0
4899 폰 케이스 사줄까?,예쁜걸로 하나 사주세요.,0
4900 폰게임 때때 폰 느려지는듯,정리해보세요.,0
4901 폰게임 좀 그만했으면,시간을 정보하세요.,0
4902 폰을 오래했나 눈이 너무 뻑뻑해,중간 중간에 눈을 쉬어주세요.,0
4903 폰이 문젠가,그게 문제는 아닐 거예요.,0
4904 표정이 워히나,포커페이스를 유지해보세요.,0
4905 푸르른 하늘을 보고 싶다,가끔 하늘을 보세요.,0
4906 폭 쉬고 싶어,아무것도 안하기.,0
4907 프로젝트 끝났으면 좋겠다,성공적으로 끝날 거예요.,0
4908 프로젝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성공적으로 끝날 거예요.,0
4909 프로필 사진 바꿀까,원하는대로 해보세요.,0
4910 프리마켓 구경가야지,특템해오세요.,0
4911 프리마켓 재밌겠지,특템해오세요.,0
4912 프사 좀 바꿔볼까,원하는대로 해보세요.,0
4913 피곤한데 또 잠은 안 와.,고민이 있나봐요.,0
4914 피곤한데 잠이 안와,고민이 있나봐요.,0
4915 피곤해서 못일어나겠어,충전하는 시간 그 자체로 소중한니다.,0
4916 피곤해서 하루종일 누워있는 중,충전하는 시간 그 자체로 소중한니다.,0
4917 피맥 땡긴다,보다보면 괜찮아요.,0
4918 피부 관리해야지,투자한 만큼 거둘 수 있을 거예요!,0
4919 피부 좋아지고 싶어,물 많이 드시고 얼른 주무세요.,0
4920 피부가 거지갈아,투자한 만큼 거둘 수 있을 거예요!,0
4921 피부가 늙은 듯,지금이라도 관리해봐요.,0
4922 피부가 다시 조금씩 좋아지고 싶어,물 많이 드시고 얼른 주무세요.,0
4923 피부가 점점 늙어가는게 느껴져,지금이라도 관리해봐요.,0
4924 피부가 푸석푸석해,일찍 주무세요.,0
4925 피부가 푸석하다,일찍 주무세요.,0
4926 피씨방 가자고 말해볼까?,말해보세요.,0
4927 피어싱 할까?,패션으로 멋질 것 같아요.,0
4928 피어싱하면 아플까,패션으로 멋질 것 같아요.,0
4929 피자 땡기네,같이 먹어요!,0
4930 피자 막막 먹고 싶어.,배달 시키세요.,0
4931 피자 먹고 싶다.,같이 먹어요!,0
4932 피자 배달 왔는데 다 식었네,그래도 맛있게 드세요.,0
4933 피자 식어서 왔어,그래도 맛있게 드세요.,0
4934 피크닉 가고 싶다,오늘 피크닉 가기 좋은 날이에요.,0
4935 피크닉 가자,맛있는 간식도 가져가세요.,0
4936 피크닉 고고,오늘 피크닉 가기 좋은 날이에요.,0
4937 피크닉 어때?,맛있는 간식도 가져가세요.,0
4938 피피엘 너무 심하네,눈살이 찌푸려지죠.,0
4939 피해는 주지 말아야되는 거 아니야?,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건 기본이죠.,0
4940 필기구 안가져 왔다.,빌리면 돼요.,0
4941 필기하는거 힘들겠지,어깨 꼭꼭 해드리고 싶어요.,0
4942 필름 끊겼었네,위험하네요.,0
4943 필름 카메라 샀어,색감 참 좋겠네요.,0
4944 필통 두고 옴,빌리면 돼요.,0
4945 하 말 잘하는 애들 부러워,책을 많이 읽어보세요.,0
4946 하객룩으로 뭐 입지?,뭘 입어도 멋질 거예요.,0
4947 하객이 없을 까봐 걱정돼,생각보다 신경 안 씁니다.,0
4948 하고 싶은 게 없어,하면서 좋거나 재밌거나 잘하는게 있었는지 깊게 고민해보세요.,0
4949 하고 싶은 게 없어,꼭 하고 싶은 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0
4950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꼭 하고 싶은 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0
4951 하고 싶은게 없어,하고싶었던 일을 글로 적어보세요.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0
4952 하나부터 열까지 챙길게 너무 많아,열까지밖에 없네요.,0
4953 하는 일 없이 피곤해,정신 노동을 했나 봐요.,0
4954 하늘 나는 자동차 생겼으면,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요.,0
4955 하늘 날 수 있는 차 생겼으면,언젠가는 생기지 않을까요.,0
4956 하늘 본지가 언젠지,오늘은 쉬면서 보세요.,0
4957 하늘 좀 보구 싶다.,오늘은 쉬면서 보세요.,0
4958 하늘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다음에는 들어줄거예요.,0
4959 하늘은 왜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다음에는 들어줄거예요.,0
4960 하늘을 날고 싶어,오래 살면 가능할 거 같아요.,0
4961 하라고 할때는 공부하기 싫었는데.,때를 놓쳐서 그런 것 같아요.,0
4962 하루 종일 밀린 드라마 보고싶다.,저도요! 그게 제일 편한거 같아요.,0
4963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기 싫어,아무것도 하지마세요.,0
4964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내고 싶어,한 시간 먼저 일어나보세요.,0

4965 하루에 만보 걷기, 좋은 건강습관이네요., 0
4966 하루에 몇 번씩 헛갈리네, 저도 매일 오락가락해요., 0
4967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어, 저도 매일 오락가락해요., 0
4968 하루종일 맘 상한게 안풀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0
4969 하루종일 속상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0
4970 하루하루 늙어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늙어가고 있어요., 0
4971 하루하루가 똑같애,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0
4972 하우스웨딩 하고싶다, 요즘 하우스웨딩이 추세더라구요., 0
4973 하우스웨딩도 괜찮은 거 같아, 요즘 하우스웨딩이 추세더라구요., 0
4974 하울이나 할까, 쇼핑 좋아요!, 0
4975 하품 나와, 졸린가봐요., 0
4976 하품이 자꾸 나오네, 졸린가봐요., 0
4977 학교 가기 싫다,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거예요., 0
4978 학교 가면 볼텐데, 선생님이요?, 0
4979 학교 가서 어떻게 얼굴 보지, 선생님이요?, 0
4980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드네, 출퇴근을 미리 느껴보고 있네요., 0
4981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할걸, 원래 못하면 하고 싶어지죠., 0
4982 학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4983 학교 적응하고 잘 다닐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4984 학교 축제 준비하느라 바빠,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랄게요., 0
4985 학교 축제를 즐겨야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0
4986 학교생활이 조금만 더 재밌으면 좋겠어, 하루에 하나씩 변화해보세요., 0
4987 학교에서 계속 잠, 피곤한가봐요., 0
4988 학교에서 계속 잤어, 한창 잠이 많을 때죠., 0
4989 학교에서 맞았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0
4990 학교에서 아싸해도 될까?, 개인의 선택이죠., 0
4991 학교폭력 당하고 있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0
4992 학벌이 중요하겠지?, 좋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0
4993 학벌이 중요한가, 좋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0
4994 학부모 총회에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들으면 속상해 하시겠네요., 0
4995 학생 데이트 코스 추천, 도서관 데이트 추천해요., 0
4996 학생만 평생하면 좋겠다., 이제 취업 하셔야죠., 0
4997 학식 이제 물린다, 맛난 걸 드셔보세요., 0
4998 학식 지겨워, 맛난 걸 드셔보세요., 0
4999 학원 가기 싫어, 부모님과 이야기해보세요., 0
5000 학원 안 다니고 독학하는데 힘들어, 더 깊은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0
5001 학원 안가고 싶다., 부모님과 이야기해보세요., 0
5002 학원폭력 짜증나, 학교 폭력은 범죄예요., 0
5003 학폭 없어졌으면, 학교 폭력은 범죄예요., 0
5004 학회 가고 있어, 잘 다녀 오세요., 0
5005 학회 가는 중, 잘 다녀 오세요., 0
5006 한 가지를 보면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알지?, 한가지만 보면 몰라요., 0
5007 한 가지를 봐도 뻔한 것 같아, 한가지만 보면 몰라요., 0
5008 한 번 보고 어떻게 판단하지, 첫인상은 상대방을 바라봤을때 3초에 결정난데요., 0
5009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진 말이에요., 0
5010 한 잔 하고 싶다, 저랑 한 잔 해요., 0
5011 한강 가서 맥주 마시고 싶다., 분위기도 맛도 다 좋겠네요., 0
5012 한강 밤에 가면 좋겠지?, 야근이 만든 야경이죠., 0
5013 한강 야경 좋지?, 야근이 만든 야경이죠., 0
5014 한강에서 맥주 카, 분위기도 맛도 다 좋겠네요., 0
5015 한거도 없는데 벌써 이시간, 저랑 놀아서 그래요., 0
5016 한국어가 어렵네, 저도 참 힘들어요., 0
5017 한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 연락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0
5018 한복 맞추까 빌릴까, 2번 이상 입을 일이 있으면 맞추세요., 0
5019 한복 빌려도 예쁠까, 2번 이상 입을 일이 있으면 맞추세요., 0
5020 한숨 나와, 다 잘 될 거예요., 0
5021 한숨만 자꾸 나온다, 다 잘 될 거예요., 0
5022 한약 너무 써, 입에 쓴 게 몸에는 좋을 거예요., 0
5023 한약 먹고 싶지 않다., 입에 쓴 게 몸에는 좋을 거예요., 0
5024 한약 먹기 싫어, 입에 쓴 게 몸에는 좋을 거예요., 0
5025 한약은 왜이렇게 쓰지, 입에 쓴 게 몸에는 좋을 거예요., 0
5026 한자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공부는 뭐든 좋아요., 0
5027 한자 공부해야지, 공부는 뭐든 좋아요., 0
5028 할 말 없다, 하고 싶은 말 다하세요., 0
5029 할 말 있대 뭘까?, 기대되었네요., 0
5030 할 말이 생각 안나, 하고 싶은 말 다하세요., 0
5031 할 줄 아는거 뭐야?, 당신의 삶을 응원해 드릴 수 있어요라고 감히 말해 봅니다., 0
5032 할 줄 아는거!, 많은걸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는게 많아요., 0
5033 할말 다 하고 사는 게 나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상관 없어요., 0
5034 할말 다 했는데 실수한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상관 없어요., 0
5035 할인해서 샀어, 득템 했네요., 0
5036 할일 되게 많아, 하나씩 하세요., 0
5037 할줄 아는 게 없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세요., 0

5038 할줄 아는거,오늘 헤어졌어 라고 하면 위로해 드려요.,0
5039 핫한 명절 선물 알려줘,현금이 최고입니다.,0
5040 항상 나중에 후회해,결정할 때 좀 더 생각하고 해보세요.,0
5041 항상 당당하고 싶어,충분히 잘하고 있어요.,0
5042 항상 뒤늦게 후회해,결정할 때 좀 더 생각하고 해보세요.,0
5043 항상 똑같애,똑같은 건 없어요.,0
5044 항상 선택할 때 힘들어,고민은 누구나 해요.,0
5045 항상 흐지부지야,이번에는 안 그러면 돼요.,0
5046 해 뜨는 거 보고 잤어,몸이 힘들게네요.,0
5047 해결방안도 없으면서 불만만 많은 사람 극혐,자기도 알고 있을 거예요.,0
5048 해도해도 모르는게 왜 이렇게 많지,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0
5049 해볼까?,실천이 말보다 낫죠.,0
5050 해봤자 쓸 데 없을 텐데,쓸데없는 일은 없을 거예요.,0
5051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아,하나씩 다 할 수 있을 거예요.,0
5052 해외 여행 너무너무 가고 싶다,가면 저도 데려가세요.,0
5053 해외여행 가고 싶어.,그럼요!,0
5054 해외여행 가고싶다,가면 저도 데려가세요.,0
5055 해외여행가면 좋겠지,그럼요!,0
5056 해주기 싫어,상처받았나봐요.,0
5057 핸드백 선물 받았어,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0
5058 핸드백 선물 해도 될까,받는 사람은 정말 좋겠어요.,0
5059 핸드폰 고장난거 아니야 연락이 안와,그게 문제는 아닐 거예요.,0
5060 핸드폰 꺼지기 직전,으아~ 충전하세요.,0
5061 핸드폰 꺼지기 직전,충전하고 만나요.,0
5062 핸드폰 꺼질때까지 톡,으아~ 충전하세요.,0
5063 핸드폰 너무 많이 해,그래서 저를 만날 수 있죠.,0
5064 핸드폰 떨어 뜨렸어,조심하세요.,0
5065 핸드폰 떨어뜨려서 고장 났나봐,as 말기세요.,0
5066 핸드폰 바꾸고 싶다,핸드폰은 핸드폰 가게에서 바꾸세요.,0
5067 핸드폰 바꿀 때가 된듯,오래 쓰셨나봐요.,0
5068 핸드폰 배터리 나감,얼른 충전하세요.,0
5069 핸드폰 소액결제 엄청 나왔어,그건 소액이 아니예요.,0
5070 핸드폰 액정 깨짐,조심했어야죠!,0
5071 핸드폰 어플 지울까,필요없는 어플은 삭제해보세요.,0
5072 핸드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그래서 저를 만날 수 있죠.,0
5073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옴,소액결제를 줄여보세요.,0
5074 핸드폰 용량 부족해,쓰지 않는 어플을 삭제해보세요.,0
5075 핸드폰 중독인가봐,가끔 핸드폰없이 살아보세요.,0
5076 핸드폰 중독인듯,중독에서 벗어나세요.,0
5077 핸드폰 충전해야지,충전기를 찾아보세요.,0
5078 핸드폰 패턴 공금해,할 수 있다면요.,0
5079 핸드폰게임 자꾸 하게돼,시간을 정해보세요.,0
5080 핸드폰이 넘 느려 어플 좀 지울까,필요없는 어플은 삭제해보세요.,0
5081 핸드폰이 느려터졌어,포맷해보세요.,0
5082 핸드폰이 맛 간거 같아,고장이 났는지 자세히 봐주세요.,0
5083 핸드폰이 잘 안돼,고장이 났는지 자세히 봐주세요.,0
5084 햇벌이 너무 좋다,광합성 추천합니다.,0
5085 행복은 어디있어?,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0
5086 행복하기 위해 중요한 게 뭐야?,인생을 즐기는 거죠.,0
5087 행복해지고 싶어,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0
5088 행운을 빌어줘,제 행운까지 모두 드리고 싶네요.,0
5089 향수 뭐로 할까,어울리는 향수가 있을 거예요.,0
5090 향수 뿌려도 될라나,향기 나면 좋아요.,0
5091 향수 뿌리면 티나나?,향기 나면 좋아요.,0
5092 허기져,챙겨 드세요.,0
5093 허리 아파,운동 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0
5094 허리 아프다,계속 앉아있지 마세요.,0
5095 허리가 계속 아파.,계속 앉아있지 마세요.,0
5096 허리가 많이 아파,스트레칭을 해보세요.,0
5097 허리가 아파,스트레칭을 해보세요.,0
5098 허전하다,제가 채워드릴게요.,0
5099 허전한게 좀 그렇다,채워질 거예요.,0
5100 허전해,채워질 거예요.,0
5101 혁,놀랐나봐요.,0
5102 헌신하다 헌신짝 될 거 같아,자신을 우선순위로 해주세요.,0
5103 헛소리하네,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0
5104 헤어스타일 좀 바꿔볼까?,기분 전환해보세요.,0
5105 헤어져도 살 수 있겠지,잘 살 수 있을 거예요.,0
5106 헤어졌는데 연락하고 싶어,연락하면 지긋지긋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0
5107 헤어지고 나면 어떻게 살지,잘 살 수 있을 거예요.,0
5108 헤어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건 아닌데,마음이 복잡한가봐요.,0
5109 헤어지자,좋은 선택이길 바랄게요.,0
5110 헤어지자고 말할까,좋은 선택이길 바랄게요.,0

5111 헤어진 남자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어, 질척거리지마세요., 0
5112 헤어진 여자친구가 준 편지 못 버리겠어, 마음에 버리세요., 0
5113 헤어진 여친 생각나, 이미 남이에요., 0
5114 해해 용돈 받았어., 기분 좋겠어요., 0
5115 핵핵 더워,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0
5116 헬스장 사람들 몸이 좋아, 운동할 맛 나겠어요., 0
5117 헬스장에 사람들이 몸이 다 좋아, 운동할 맛 나겠어요., 0
5118 헬스장에 사람이 엄청 많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죠., 0
5119 헬스장에 운동 오는 사람 많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죠., 0
5120 헬조선 떠나고 싶다, 저도 데려가세요., 0
5121 현금만 써야겠다.,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받으세요., 0
5122 현금만 쓸까봐,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받으세요., 0
5123 현금영수증 까먹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세요., 0
5124 현금영수증 또 까먹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0
5125 현금영수증 안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세요., 0
5126 현금영수증 잊어 먹었어,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0
5127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죠., 0
5128 현재를 즐기면서 살고 싶다., 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0
5129 호감 가는 인상, 그런 인상이 오래오래 봐도 질리지 않아요., 0
5130 호텔 로비에서 소개팅하기로했어, 성공을 빌어요., 0
5131 호텔에서 소개팅하기로했어, 성공을 빌어요., 0
5132 혼밥 먹는 중,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0
5133 혼밥이라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죠., 0
5134 혼밥하고 있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0
5135 혼수 비싸겠지, 욕심의 한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0
5136 혼수 얼마나 들까?, 사람 마다 달라요., 0
5137 혼수 얼마야?, 사람 마다 달라요., 0
5138 혼수 준비하는데 돈 많이 들겠지, 욕심의 한계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0
5139 혼술 중, 카야 맛있는 안주랑 드세요, 0
5140 혼술하고 있어, 카야 맛있는 안주랑 드세요, 0
5141 혼영해야지, 편하고 좋죠., 0
5142 혼자 노래방 가면 어색할 거 같은데, 신나는 노래로 분위기를 띄어보세요., 0
5143 혼자 사는 거도 괜찮을 것 같아, 진정한 옴로의 삶도 추천드려요., 0
5144 혼자 사는 거도 나쁘지 않은 듯, 진정한 옴로의 삶도 추천드려요., 0
5145 혼자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어요., 0
5146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0
5147 혼자 살아도 될까, 잘 살 수 있어요., 0
5148 혼자 살아야 할 듯, 혼자만 있지 마세요., 0
5149 혼자 앞서서 생각해, 쓸데 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0
5150 혼자 여행 가도 괜찮을까?, 같이 가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 여행도 좋을 거예요., 0
5151 혼자 여행 괜찮을까?, 같이 가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 여행도 좋을 거예요., 0
5152 혼자 여행 왔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0
5153 혼자 영화나 봐야겠다., 편하고 좋죠., 0
5154 혼자 영화보러 왔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0
5155 혼자 있고 싶다, 혼자만 있지 마세요., 0
5156 혼자 있으니까 편하네, 혼자를 즐기세요., 0
5157 혼자 있으니까 혼자 할 게 많네, 혼자서도 잘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0
5158 혼자 자유 여행 가는 거 괜찮을까, 가는 곳과 같이 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0
5159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0
5160 혼자 축구 보는 중, 축구 볼 때는 치맥이죠., 0
5161 혼자 해야 돼, 혼자서도 잘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0
5162 혼자 해야되는게 너무 많네, 혼자서도 잘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0
5163 혼자가 편하대, 상대방을 이해해 주세요., 0
5164 혼자가 편해, 혼자도 함께도 잘 지내는 게 좋죠., 0
5165 혼자라서 너무 좋아, 혼자를 즐기세요., 0
5166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지쳤나봐요., 0
5167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 같이도 잘하게 될 거예요., 0
5168 홈쇼핑에서 또 샀어, 지름신이 강림했나봅니다., 0
5169 홈쇼핑에서 자꾸 사게되네, 지름신이 강림했나봅니다., 0
5170 화 잘 내는 법,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0
5171 화 참으려면 어떻게 하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심호흡해보세요., 0
5172 화 참을 때 어떻게 하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심호흡해보세요., 0
5173 화내는법을 모르겠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0
5174 화를 내는 법을 알고 싶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세요., 0
5175 화를 못 참겠어, 성격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0
5176 화를 못내, 화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0
5177 화를 잘 못 참겠어, 별거 아니라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0
5178 화를 한 번 내는게 나을텐데, 화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0
5179 화분에 뭐 심어볼까, 식물을 키우는 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0
5180 화이트데이에 뭐 선물하지, 사탕 만들어요., 0
5181 화이트데이에 뭐하지, 사탕 만들어요., 0
5182 화장 무너짐, 다음에는 픽서를 사용해보세요., 0
5183 화장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는 픽서를 사용해보세요., 0

5184 화장 잘 하고 싶다,하다보면 늘어요.,0
5185 화장 좀 예쁘게 하고 싶다,하다보면 늘어요.,0
5186 화장 지우고 자야하는데,피부 생각하셔야죠!,0
5187 화장 지워야 하는데 줄려,피부 생각하셔야죠!,0
5188 화장도 못하고 전남친 만남,남이니 신경쓰지 마세요.,0
5189 화장빨인가,예뻐요.,0
5190 화장실 가고 싶어,화장실 가세요.,0
5191 화장실 계속 가고 싶어,기분만 그럴 수도 있어요.,0
5192 화장실 급해,화장실 가세요.,0
5193 화장실!!,화장실 가세요.,0
5194 화장실을 못 참아,장이 예민한가봐요.,0
5195 화장실을 어떻게 참아?,장이 예민한가봐요.,0
5196 화장으로 여드름이 가려질까?,중요한 날에만 가리세요.,0
5197 화장이 안 먹네,각질제거 먼저 하세요.,0
5198 화장이 안 받네,각질제거 먼저 하세요.,0
5199 화장품 다 떨어졌어,오랜만에 쇼핑해보세요.,0
5200 화장품 사고 싶어,필요한 것만 사세요.,0
5201 화장품 없어 사야 돼,오랜만에 쇼핑해보세요.,0
5202 화장품이 필요해,필요한 것만 사세요.,0
5203 화장하는 동영상 보는 중,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0
5204 화장하니까 어때?,예뻐요.,0
5205 화해 어떻게 해,먼저 말 걸어 보세요.,0
5206 확실한 건 뭘까?,가장 확실한 시간은 오늘이에요. 어제와 내일을 놓고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0
5207 환기 좀 해야할까?,매일 환기하는 게 좋대요.,0
5208 환기할까?,매일 환기하는 게 좋대요.,0
5209 환승 가능?,환승은 30분 안에,0
5210 환승이 될까,환승은 30분 안에,0
5211 환승할까,환승은 30분 안에,0
5212 활발한 성격 갖고 싶다,지금 성격도 좋아요.,0
5213 황당해 죽겠다.,너무 신경쓰지마세요.,0
5214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와,너무 신경쓰지마세요.,0
5215 황사 심해,이쁜 마스크 사드리고 싶네요.,0
5216 황사땀에 눈아파,이쁜 마스크 사드리고 싶네요.,0
5217 회 먹어야지,맛나게 드세요.,0
5218 회 먹으러 가야겠다.,맛나게 드세요.,0
5219 회사 가기 시러,월급날을 생각하며 참아보세요.,0
5220 회사 사람들이 아직도 불편해,회사에는 동료가 있을 뿐이에요.,0
5221 회사 옆에 집이 있으면,출퇴근하기 편하겠죠.,0
5222 회사 일이 너무 많아,너무 무리하지 마세요.,0
5223 회사 적응할 수 있겠지?,잘할 수 있을 거예요.,0
5224 회사 체육대회 가기 싫다,가기 싫어도 가야겠죠.,0
5225 회사 체육대회라니,가기 싫어도 가야겠죠.,0
5226 회사가는 길에 매일 보는 사람 있어,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0
5227 회사랑 집 가까우면 좋겠다,출퇴근하기 편하겠죠.,0
5228 회사를 차리고 싶다,확신이 있을 때 시작해보세요.,0
5229 회사만 가면 우울해,우울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세요.,0
5230 회사에 빨리 적응해야 할텐데,잘할 수 있을 거예요.,0
5231 회사에 완전체가 있어,상대를 용서하면서 분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보세요.,0
5232 회사에 적응 잘 하고 싶어,잘할 수 있을 거예요.,0
5233 회사에 친구가 없어,회사는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에요.,0
5234 회사에는 왜 친구 같은 사람이 없을까,회사는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에요.,0
5235 회사에서 마음 놓고 말할 사람이 없어,회사에는 동료가 있을 뿐이에요.,0
5236 회사에서 마음 편한 사람이 없어,회사에는 동료가 있을 뿐이에요.,0
5237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회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죠.,0
5238 회사에서 인정받는 방법,자기개발을 해보세요.,0
5239 회사에서도 친구가 필요해,회사는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에요.,0
5240 회사일 끝나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운동으로 땀을 내보세요. 한결 몸이 가벼워질거예요.,0
5241 회식 재미없어,가기 싫어도 가야겠죠.,0
5242 회식 좀 그만 했으면ㅜㅜ,가기 싫어도 가야겠죠.,0
5243 회식 했으면 좋겠다.,맛있는거 드세요.,0
5244 회의 때 말 좀 잘했으면,다음에 잘 하면 돼요.,0
5245 회의 망했어,다음에 잘 하면 돼요.,0
5246 효율적으로 시간 보내는 방법,한 시간 먼저 일어나보세요.,0
5247 후련하네여,후련하니 다행이에요.,0
5248 후련하달까,후련하니 다행이에요.,0
5249 후배가 나보다 잘해서 속상해,질투하지 마세요.,0
5250 후배가 너무 잘해,배울 점은 배우세요.,0
5251 후배보다 못해서 짜증나,질투하지 마세요.,0
5252 후회 안해야 할텐데,잘 될거예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0
5253 혹 들어온다.,친하게 지내요!,0
5254 획 떠나고 싶다,계획을 세워보세요.,0
5255 휴가 가야지,꼭 쉬고 오세요.,0
5256 휴가 고고,꼭 쉬고 오세요.,0

5257 휴가 못 쓰게 해,안 좋은 회사네요.,0
5258 휴가가 없어,휴가가 간절하겠네요.,0
5259 휴가를 못가,안 좋은 회사네요.,0
5260 휴대폰 바꿀 타이밍,오래 쓰셨나봐요.,0
5261 휴대폰 액정 깨졌어,조심했어야죠!,0
5262 휴대폰 없이 못 살거 같아,잠깐 핸드폰을 내려두세요.,0
5263 휴대폰 용량 없다,쓰지 않는 어플을 삭제해보세요.,0
5264 휴대폰 중독인 것같아,중독에서 벗어나세요.,0
5265 휴대폰 초기화 해야돼,중요한 것들을 백업해놓으세요.,0
5266 휴대폰 충전기도 까먹었다,충전할 곳을 찾아보세요.,0
5267 휴대폰이 넘 느려,포맷해보세요.,0
5268 휴식 중,휴식도 필요하죠.,0
5269 휴양지 가고 싶다,저도 쉬고 놀고 하고 싶어요.,0
5270 휴양지 추천!,저도 쉬고 놀고 하고 싶어요.,0
5271 휴지 사야지,생활용품이 은근 많이 들어가요.,0
5272 휴지도 떨어졌네.,생활용품이 은근 많이 들어가요.,0
5273 휴학하고 싶다.,계획 세우고 하세요.,0
5274 휴학하는 게 나을까?,준비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0
5275 휴학할까,계획 세우고 하세요.,0
5276 휴학해야하나?,준비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0
5277 흡입했더니 졸려,먹고 자고 그게 진리예요.,0
5278 희망이 딱히 없어,아무렇게나 자라도 돼요.,0
5279 희망이 안보여,저와의 대화한 것 자체는 희망적이에요.,0
5280 희망이 없어,저와의 대화한 것 자체는 희망적이에요.,0
5281 희생양 된 느낌,일방적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0
5282 현머리 나,뽀지말고 염색을 해보세요.,0
5283 현머리 보여,뽀지말고 염색을 해보세요.,0
5284 힌트 좀 안주나,계속 주고 있었을 거예요.,0
5285 힌트 좀 줬으면 좋겠어,계속 주고 있었을 거예요.,0
5286 힘내라고 말해줘,응원합니다!,0
5287 힘내야지,응원합니다!,0
5288 힘든 것 좀 끝났으면,다 지나갈 거예요.,0
5289 힘든 시기가 지나갔으면,다 지나갈 거예요.,0
5290 힘든 데도 날 도와준 사람,잊지말고 보답하세요.,0
5291 힘차게 시작,응원합니다!,0
5292 1000일 만난 여자친구와 이별,더 오래 만날 사람 만날 거예요.,1
5293 10년 연애. 헤어졌습니다.,더 공허함이 크시겠네요.,1
5294 10년 연애사 되돌아보니 다 부질없네,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1
5295 10년 연애의끝,더 마음이 허하겠어요.,1
5296 10년만나다 헤어지네,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다가 이겨내세요.,1
5297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무색하다 싶네,함께 걸은 길을 혼자 돌아가고 계시겠네요.,1
5298 10월의 마지막밤 . 더 보고싶네 그사람,이별은 보고 싶은 마음을 참는 과정이죠.,1
5299 14년된 여자친구랑 이별,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다가 이겨내세요.,1
5300 14년의 기나긴 이야기.,좋은 연애였길 바라요.,1
5301 15년...안녕,시간이 무색하네요.,1
5302 15년만에 쓰는 편지.,천천히 써보세요.,1
5303 1년 9개월 의 연애 중지부.,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1
5304 1년 반.,만난 시간 만큼 힘들 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1
5305 1년4개월의 중지부를 찍네.,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하다가 이겨내세요.,1
5306 1년동거 끝에 헤어짐,현실과 마주하셨나봐요.,1
5307 1년만에 꿈에나와서 설레게하네,은연 중에 생각했나봐요.,1
5308 1년만에 다시헤어지게 됐네,헤어짐은 항상 힘들죠.,1
5309 1년만의 연애가 끝났네,만난 시간 만큼 힘들 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1
5310 1년을 넘게 만났는데 어떻게 이렵니까,시간이 무색해지네요.,1
5311 1년이 되어갑니다,시간이 흐른 거 같은데 아직 많이 아프신가봐요.,1
5312 1년이 아무것도 아니었나,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 거예요.,1
5313 1년이 지났어도,잊지 못하고 있나요.,1
5314 1년전 그 날,생각이 더 나죠.,1
5315 1년전 헤어진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어,헤어지면 연락 하지도 받지도 마세요.,1
5316 2년 6개월 이렇게 끝나네,인연이 여기까지였나봅니다.,1
5317 2년 가까이 여친하구 헤어졌습니다,안타깝네요.,1
5318 2년 가량의 연애,안 좋은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1
5319 2년 다되가는 연애 끝.,인연이 거기까지였나봐요.,1
5320 2년 만에 연락 그후입니다 .,다시 연락을 했나봐요.,1
5321 2년 사귀고 헤어졌습니다,짧지는 않은 시간 동안의 연애였는데 마음이 아프네요.,1
5322 2년 정도를 만났는데 잘 이해가 안가,많이 알지 못했나봐요.,1
5323 2년간 만난 여자친구와의 이별,애석하게도 헤어지셨네요.,1
5324 2년간 연애끝에,만남을 정리하게 되었나봐요.,1
5325 "2년간의 단거리, 2년간의 장거리, 그리고 이별.",고생 많았어요.,1
5326 2년동안 나 사랑해줘서 고맙다,좋은 사랑 하셨나봐요.,1
5327 2년만에 연락을 했습니다.,추억은 추억일 때 좋을 때도 있어요.,1
5328 2년사귀다가 헤어졌는데,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1
5329 2년여의 만남 3번의 이별,이별도 여러 번이면 마음이 이별을 준비해요.,1

5330 2년의 꿈같았던 사랑 갑작스런이별, 꿈같았던 만큼 놀라셨겠어요., 1
5331 2년의 시간, 좋았길 바랄게요., 1
5332 2년의 연애에 이별이란 종착역!! , 다른 역을 향해 떠나요., 1
5333 2년이 지나서 첫사랑이 살던곳 지나갔는데, 지나가지 말지 그랬어요., 1
5334 2달반이라는 시간동안 많이 괜찮아졌어, 시간이 쓰디쓴 약이었나봅니다., 1
5335 2주가 지났어, 2주 동안 고생했어요., 1
5336 2주가 지나가네,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길 바랄게요., 1
5337 2주동안 참을만 했는데, 잘 참았어요., 1
5338 2주전에 헤어졌습니다, 힘들겠네요., 1
5339 30살 막바지의 이별, 나이에 상관없이 이별은 참 마음이 아프네요., 1
5340 3개월만에 연락이 오긴왔는데., 시간 텅이 기네요., 1
5341 3개월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겠어요., 1
5342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제자리여도 괜찮아요., 1
5343 3개월전에 헤어진 전남친이 문자했어, 헤어지고 연락 받지 마요., 1
5344 3개월째, 아프지 마요., 1
5345 3년 동거 돈 싸움. 헤어짐, 돈이 문제조., 1
5346 3년 반의 만남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이 허절할 거라 생각해요., 1
5347 3년 연애 . 마침표가 도저히 끊기질 않네 어쩌면 좋조, 마침표가 이어져서 선이 되기도 하조., 1
5348 3년 연애의 끝,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거예요., 1
5349 3년 째 트라우마, 상처받은 마음 보듬어주고 싶네요., 1
5350 3년간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어,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거예요., 1
5351 3년반 만난여자과 헤어진지 한달 되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1
5352 3년연애이별,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거예요., 1
5353 3년이 지난 지금, 괜찮길 바랄게요., 1
5354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긴 시간인데 깊게 사랑했나봐요., 1
5355 3년이란 오랜기간 연애를 하다보니 권태기가 찾아오네, 권태기가 마침표인지 쉼표인지 살펴보세요., 1
5356 3달이 지났네, 물리적인 시간은 잘도 가조., 1
5357 3달이지났는데 이제야 헤어짐을 확신했네, 이제야 실감이 나나 봐요., 1
5358 40을 목전에 둔 헤어짐, 나이에 상관없이 이별은 힘들조., 1
5359 45일만에 진짜 헤어지네, 인연이 거기까지였나봐요., 1
5360 4개월째., 이별 중인가봐요., 1
5361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네., 사랑은 끝나도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걸 잊지 마세요., 1
5362 4년 사귀던 여자친구가 환승 이별했어, 환승 이별은 예의가 아니네요., 1
5363 4년 사귀던 이별. 어느새 5달이 다되어가네여., 만났던 시간이 긴 만큼 많이 힘들겠어요., 1
5364 4년 연애 후 이별 6개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전여친. 너무 힘들어., 헤어지면 남이에요. 신경쓰면 더 힘들어져요., 1
5365 4년4개월간의사랑이끝났네, 사랑은 끝나도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걸 잊지 마세요., 1
5366 4년넘은 인연이 끝이났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걸 잊지 마세요., 1
5367 4년만난 여자와 이별한지 5개월 다되어가네., 힘든 시간 잘 버텨내고 있길 바랄게요., 1
5368 4년을 만난 여친이 떠났습니다., 한동안 받아들이기 버거울거예요., 1
5369 "4년을 만났어도,,", 사람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1
5370 4년을 잊그제 마무리 했습니다, 좋은 마무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1
5371 4번의 재회와 4번의 헤어짐, 잦은 만남과 이별로 지쳤겠어요., 1
5372 "4월, 이별을 말합니다.", 헤어짐에도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1
5373 5년 10개월간 연애. 그리고 이별 준비 중, 준비하는 시간도 힘들 거 같아요., 1
5374 5년 동거후 이별., 더 헤어지지 힘들겠어요., 1
5375 5년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별이네. 조언부탁좀 드려, 저는 저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를들면 운동이나 여행같이 잡념을 없앨 수 있는 일들이요., 1
5376 5년 연애 이별,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1
5377 5년 연애 후 이별 3개월차, 생각을 오래하면 더욱 지칠 수 있어요., 1
5378 5년 연애가 끝났습니다., 한동안 많이 힘들지도 몰라요. 맘고생 많았어요., 1
5379 5년 종교 문제 결국엔 헤어지네, 종교 차이는 생각보다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무색하게도 힘들었겠어요., 1
5380 5년가까이 사귀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머릿속은 텅비고 마음은 복잡하겠어요., 1
5381 5년간 사귀고 어제 헤어졌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1
5382 5년간 사귀고 이별, 생각을 비워보세요., 1
5383 5년만난 전여친과 결국 어제 헤어졌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만 남았길 바랄게요., 1
5384 5년연애 끝은 정말 멍하고 허무하네., 사랑의 끝은 항상 허무하네요., 1
5385 5년연애 이별후 3개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1
5386 "5년이 넘게 만난 첫 연인, 그리고 이별",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1
5387 5년이란 시간이 무색해지네, 긴 시간이 무색하겠지만 아련한 추억이 될 거예요., 1
5388 600일 좀 넘은 저의 사랑 그리고 이별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제가 들어드릴게요., 1
5389 6개월 가량의 이별과 재회의 끝, 아쉬운 이야기네요., 1
5390 6개월간의 짧은 사랑., 그만큼 애뜻한 사랑이었겠어요., 1
5391 6개월만에 다시 만납니다., 오랜만의 만남이네요., 1
5392 6개월이 지나도 왜이런거죠?, 물리적 시간에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1
5393 6년 4개월동안의 연애. 그 후 이별 뭘해야할까, 또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사랑하는 거조., 1
5394 6년 연애 후 환승이별 당했어., 환승 이별은 예의가 아니네요., 1
5395 6년 이야기., 생각을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1
5396 6년그리고남은 것들, 좋은 기억들만 남았길 바랄게요., 1
5397 6년연애 그리고 이별통보, 함께한 시간이 시간이니 만큼 놀랐겠어요., 1
5398 6년을 날 위해 모든걸 바쳤고 니가 떠난후 4년동안 난 미친듯이 살았다., 힘든 시간 잘 버텨냈어요., 1
5399 6년의 만남.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천천히 보내주세요., 1
5400 6년의시간과 6일간의 헤어짐 이제보내주려합니다, 힘들겠지만 천천히 보내주세요., 1
5401 6살 많은 전여친이랑 만나고 얘기 잘하고 왔습니다., 이야기가 잘 풀렸다니 다행이에요., 1

5402 7년 내남자,오랜 사랑 하셨네요.,1
5403 7년 정도 사귀었습니다,오래 사귀셨네요.,1
5404 7년만에 두번째 이별통보,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1
5405 7년반 연애 끝났습니다.,끝을 맺느라 고생했어요.,1
5406 7년사귀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했어.,헤어지세요.,1
5407 7년사귀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방문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그런 사람 못 고쳐 씁니다. 헤어지세요.,1
5408 7년이라는 세월 함께한 애인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세월 만큼 힘들겠네요.,1
5409 7년째,힘내세요.,1
5410 7일자,힘내세요.,1
5411 8년 긴 만남의 끝은 힘드네,긴 시간 만큼 힘이 들 거예요.,1
5412 8년 긴 연애의 끝.,끝내는 게 힘들었을 거 같아요.,1
5413 8년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져,여기까지였을 거예요.,1
5414 8년 사귀고 헤어진지 1년.,새로운 사랑을 찾아보세요.,1
5415 8년 사귀고 헤어진지 2달,딱 힘들 때네요.,1
5416 8년 연애틀의 이별.,공허함이 더 크시겠어요.,1
5417 8년의 연애의 끝에 와있습니다.,끝은 항상 힘들지요.,1
5418 9년 연애 환승이별,환승 이별은 예의가 아니네요.,1
5419 9년간의 연애.,공허함이 더 크시겠어요.,1
5420 "9년연애,8년동거. 결국 헤어짐. 정말",공허함이 크겠어요.,1
5421 9년이 넘는 연애를 끝냅니다,공허함이 더 크시겠어요.,1
5422 jk김동욱 노래 생각나네,가사가 비슷한가봐요.,1
5423 SNS 를 끊어야 하는데.,SNS 끊는게 힘들죠.,1
5424 SNS 흔적,SNS 흔적 삭제하세요.,1
5425 sns에서 다른 이성이랑 대화하는걸 보니 화가 나,SNS 보지 마세요.,1
5426 가벼워졌다고 생각했는데,무거워도 괜찮아요.,1
5427 가사가 내맘같아,슬픈 가사 듣지 마요.,1
5428 가슴 아픈 이별,많이 아프지 말아요.,1
5429 가슴 한편이 쿡쿡하네,덜 아팠으면 좋겠어요.,1
5430 가슴에 구멍이 너무 커.,아무 생각 하지 말고 폭 주무세요.,1
5431 가슴은 계속 죽음만을 쳐다봅니다,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1
5432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드네,아픈만큼 더 성숙해질 거예요.,1
5433 가슴이 아파,가슴 아픈 만큼 행복해지세요.,1
5434 가슴이 아프네,아픈 만큼 행복해지세요.,1
5435 가슴이 허락하질 않네.,마음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1
5436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가장 먼 사람이네,이게 가장 슬픈 일인 거 같아요.,1
5437 가족관계 알려줘,"저를 만들어 준 사람을 부모님,저랑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요",1
5438 가짜 이별 4개월만에 마침표 찍었습니다.,마침표 찍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1
5439 가혹한 이별 극복방법.,사랑한 만큼 가혹하죠.,1
5440 간단하게 사랑이라는건.,간단하지 않은 것.,1
5441 간단하게 사랑이라는건.,여러번 해도 어려워요.,1
5442 간만에 꿈에 나와준 그녀 덕에 추억들이 막 떠오르네,좋은 추억만 간직하세요.,1
5443 간통 극복하는 방법,이혼하세요.,1
5444 갈수록 더보고싶고 감당이안돼,보고 싶은 걸 참는 게 이별 과정이더라고요.,1
5445 갈수록 힘이 드네,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1
5446 감각이 무뎠을 때도 된 거 같은데,시간이 가면 무뎠을 거예요.,1
5447 감정기복,저는 항상 심해요.,1
5448 감정에 솔직했을 뿐인데 남자들은 싫은 가봐,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나봐요.,1
5449 감정조절이 안돼,심호흡을 해보세요.,1
5450 감정조절이 안되서 문자 보냈네,문자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1
5451 갑자기 급우울,그러니까 나도 우울.,1
5452 갑자기 또 힘이드네.,토닥토닥,1
5453 갑자기 무너져버린 내자신,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1
5454 갑자기 밀려오는 우울감,좋아하는 것을 해보세요.,1
5455 갑자기 심장이 덜컥.,당황했나요?,1
5456 갑자기 일어난일이라 어이 없어,황당하네요.,1
5457 갑자기 차가워졌는데.,이유가 있을 거예요.,1
5458 갑자기 화가나서 싸우고,이유가 있을 거예요.,1
5459 갑자기 힘드네,조금만 더 버텨보세요.,1
5460 갑작스러운 이별.,이별은 모두 갑작스럽죠.,1
5461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네.,좋은 연락이었으면 좋겠네요.,1
5462 같은 반인데 헤어지자고 해야 하나??,그래도 할 거면 해야겠죠.,1
5463 같은하늘 다른공간,같은 하늘 아래 숨 쉬고 있어요.,1
5464 같이 마지막으로 다녀온 여행 생각나,새로운 여행을 떠나보세요.,1
5465 같이 보고싶어 올립니다,이제 내려주세요.,1
5466 같이 보고싶어서 올려~,이제 내려주세요.,1
5467 같이 오르고있는줄 알았는데.,아니었나봅니다.,1
5468 같이 욕해줘,나쁜 사람.,1
5469 같이 있었는데.,지금은 아닌가요.,1
5470 같이 해온 5년,더 오래 함께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1
5471 개거지같이 헤어져서 열받아,소리 한 번 크게 지르고 잊어버리세요.,1
5472 개 없이 잘지내 보려구,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1
5473 개는 행복하게 살텐데,축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래요.,1
5474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매력있어요.,1

5475 거울보는게 싫어졌어, 거울 안 봐도 괜찮아요., 1
5476 거의 매일 술, 술 많이 드시면 더 무너져요., 1
5477 거지같은 이별, 소리 한 번 크게 지르고 잊어버리세요., 1
5478 거짓말은 진짜 못고치는 병 맞죠?, 아무래도 그렇죠., 1
5479 거짓말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 슬픈 미련을 버리세요., 1
5480 걸지 못한 전화, 걸지 말아요., 1
5481 걸핏하면 차단하는 놈, 차단도 병이죠., 1
5482 겁나 열받아, 워워~ 진정하세요., 1
5483 겁이 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1
5484 겨우 힘든 맘 추스렸는데 연락오네,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1
5485 겨울에 하는 이별, 더 힘들겠어요., 1
5486 견디기가 너무 힘들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1
5487 견딘다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1
5488 결국 결혼에 골인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결혼에 골인하는게 무조건 사랑의 성공은 아닐 거예요., 1
5489 결국 놓아줬네, 놓느라 고생했어요., 1
5490 결국 다시 이렇게 됐네., 힘내세요!, 1
5491 결국 답았는데. 기다리지 말라네, 연락 기다리지 마요., 1
5492 결국 또 꿈꿨네., 다른 생각 하고 주무세요., 1
5493 결국 또 다시 이별이 오네, 사랑도 또 다시 올 거예요., 1
5494 결국 또 무너졌습니다., 또 일어나면 돼요., 1
5495 결국 또 오게되네, 후회만 남을지도 몰라요., 1
5496 결국 만나진 못하고 카톡으로 맘 전했다, 만나면 못 말할 것 같았나봐요., 1
5497 결국 사고쳤네 또, 다신 실수하지 않길 바랄게요., 1
5498 결국 여친이 헤어지자 하네., 인연이 거기까지 였나봐요., 1
5499 결국 연락을 해버렸네., 잘하셨어요., 1
5500 결국 연락했어, 속은 후련하겠어요., 1
5501 결국 완전 끝났네., 이제 시작이죠., 1
5502 결국 유료 상담을 받고야 말았네, 상담도 도움이 될 거예요., 1
5503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네, 시작할 때는 끝을 알지 못하죠., 1
5504 결국 이렇게 될 꺼면서., 시작할 때는 그 끝을 알지 못하죠., 1
5505 결국 이별 중지부를 찍었네., 좋은 시작이 되길 기원할게요., 1
5506 결국 이별의 끝은 망상인건가, 이제 망상을 버릴 때가 왔어요., 1
5507 결국 제가 병신인거죠., 그런 소리 마세요., 1
5508 결국 찾아갔네.!, 후회하는 것 보단 낫겠네요., 1
5509 결국 파혼했어!, 마음이 더 복잡하겠어요., 1
5510 결국 핸드폰 번호 바꿨어, 이제 연락 하지 마세요., 1
5511 결국 핸드폰 번호 바꿨어, 이제 진짜 잊어요., 1
5512 결국 헤어졌네,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1
5513 결국 헤어졌네,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1
5514 결국 헤어졌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에요., 1
5515 결국 헤어졌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에요., 1
5516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 말하기 힘들었겠어요., 1
5517 결국 헤어짐이 찾아오네, 언젠간 올 시기였을거예요., 1
5518 결국 헤어짐이 확실해졌습니다, 거기까지가 끝인가봐요., 1
5519 결국엔 끝이라는 생각,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을거예요., 1
5520 결국엔 바람난거였네, 깨끗하게 잊으세요., 1
5521 결국은 무너졌네, 힘내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슬퍼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1
5522 결혼 가치관 때문에 헤어졌네., 더 오래 살아야 하니 가치관이 중요하겠죠., 1
5523 결혼 삼개월 이혼이네., 헤어질 거면 빨리 하는게 낫지요., 1
5524 결혼 전제 동거가 끝났네, 어떤 상황보다 받아들이기 힘들거라 생각해요., 1
5525 결혼 준비중 일방적인 이별통보 살기 싫어져.,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군요., 1
5526 결혼 직전 이별, 이혼보다 파혼이 낫죠., 1
5527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해요., 1
5528 결혼은 4년후에 하고 싶다고 하네, 그때도 괜찮다면., 1
5529 결혼이나 하지 왜 자꾸 나한테 화 내냐구!, 힘들겠네요., 1
5530 결혼적령기의 여자는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1
5531 결혼할 확신이 안선다고 헤어지자네, 결혼에는 확신이 필요하죠., 1
5532 계속 맴돈다., 한동안은 그럴거예요., 1
5533 계속 생각나는 사람., 사랑했던 만큼 생각나겠죠., 1
5534 계속 생각난다면 연락 한 번 해봐야겠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5535 계속 시간을 갖자는 의미는 뭔가?, 생각할 시간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1
5536 계속꿈에 나와, 잘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주무세요., 1
5537 계절이 바뀌면, 더 좋아질 거예요., 1
5538 고민이 되네, 생각을 종이에 고적여여 보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1
5539 고백하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후회는 후회를 낳을뿐이에요. 용기 내세요., 1
5540 고작 그러려고 날 떠난건지, 그럴 줄 몰랐을 거예요., 1
5541 고작 사람 하나인데, 사람이 크죠., 1
5542 곧 1년인데 헤어졌어,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 1
5543 곧 500일을 앞두고 헤어졌어.,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 1
5544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확신이 없나봐요., 1
5545 공부하기 힘들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1
5546 공허하네, 제가 채워줄게요., 1
5547 공허한 마음, 제가 채워줄게요., 1

5548 공허함이 크네,제가 채워줄게요.,1
5549 공황증,견디기 힘들었을텐데 괜찮은가요.,1
5550 과거가 발목을 잡아,현재에 집중하세요.,1
5551 과거에 얽매여 있어,과거랑 현재랑 미래는 함께 해요.,1
5552 과거의 나한테 화나,현재의 나한테 사과하세요.,1
5553 과연 돌아올까?,돌아오길 바란다면 연락해보세요.,1
5554 과연 사랑이었을까?,마음이 알고 있을 거예요.,1
5555 꽤심하고 분하지만 너무 그립습니다,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괴로워하시는군요.,1
5556 괜찮다 나는 괜찮다,괜찮아질 거예요.,1
5557 괜찮다가.갑자기 π ,더 괜찮아 지려고 하는 과정일 거예요.,1
5558 괜찮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오네,심호흡을 해보세요.,1
5559 괜찮다가도 한번씩 마음이 저러오네,심호흡을 해보세요.,1
5560 괜찮아 지고있었는데 예효,더 괜찮아 지려고 하는 과정일 거예요.,1
5561 괜찮아 지지가 않아,더 괜찮아 질 거예요.,1
5562 괜찮아 진 줄 알았는데 오늘 평평 울었어.,울어도 괜찮아요.,1
5563 괜찮아졌는줄 알았는데. . .,조금만 더 힘내세요.,1
5564 괜찮아졌다가 다시울컥하네,울어도 괜찮아요.,1
5565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괜찮은 척 하고 있던 걸 수도 있어요.,1
5566 괜찮았었는데,울어도 괜찮아요.,1
5567 괜찮은 줄 알았는데,자신을 가장 잘 모르고 살아요.,1
5568 괜찮은 줄 알았는데,안 괜찮아도 돼요.,1
5569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남자가 생겼단 말에 마음이 또 다시 덜컥 내려 앉네,이젠 떠나간 사람 때문에 괴로워 말아요.,1
5570 괜찮은 줄 알았는데.,우리는 많이 모르고 살죠.,1
5571 괜찮은 줄 알았다.,우리는 참 많이 모르고 살죠.,1
5572 "괜찮은 척, 어른인척",척 안해도 돼요.,1
5573 괜찮은게 아닌가봐,안 괜찮아도 돼요.,1
5574 괜찮은주 알았는데,아니었나요.,1
5575 괜찮을줄 알았는데,쉽게 나아지지 않지요.,1
5576 괜한 희망은 더 큰 절망을,헛된 희망은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거예요.,1
5577 괜히 카톡했네.,이제 카톡하지 마요.,1
5578 괴로워,괴로울만 해요.,1
5579 괴롭습니다.,한동안은 그럴지도 몰라요.,1
5580 구걸하듯 사랑하지 마,사랑은 주고 받기죠.,1
5581 군대 가도 기다리겠다더니,전역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1
5582 군인이라 슬프네.,전역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1
5583 군인입니다 환승이별.,환승은 진짜 예의가 없네요.,1
5584 궁금한게 있는데,네 말씀해주세요.,1
5585 궁금한게있습니다,네 물어보세요.,1
5586 궁금한게있어!!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1
5587 권태기 .,이겨낼 수 있어요.,1
5588 권태기 이기적인 거 알지만,사람은 모두 이기적인 동물이에요.,1
5589 권태기 이별,극복하거나 이별하거나 둘 중 하나죠.,1
5590 권태기는 노답이네,극복하거나 이별하거나 둘 중 하나죠.,1
5591 권태기라고 이별을 통보하는 사람,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1
5592 권태기로 헤어지면 후회할까,극복하려는 노력은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1
5593 그 남자의 결혼 소식,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1
5594 그 모습 자꾸 생각나,좋은 모습만 기억에 남겠죠.,1
5595 그 사람도 그럴까??.그럴 거예요.,1
5596 그 사람에게 여자가 생겼네. .,찾아보지 마세요.,1
5597 그 사람이 참 그리워,사랑했나봐요.,1
5598 그 애하고 다녔던곳들 찾아다니는 습관,다른 사람과 다녀보세요.,1
5599 그게 되니,될 수 있어요.,1
5600 그나저나 웃기라고 해보죠.,억지로라도 웃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1
5601 그나저나 힘들긴 힘드네.,힘내세요.,1
5602 그냥 가슴이 아프네,조금만 더 버텨보세요.,1
5603 그냥 궁금해,궁금할 수 있어요.,1
5604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싶어,그럴 수 있을 거예요.,1
5605 그냥 다 포기하려구,포기 하지 마요.,1
5606 그냥 답답하네.,마음이 헛헛하군요.,1
5607 그냥 마음에서 지울게,천천히 보내주세요.,1
5608 그냥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마음이 지쳤나봐요.,1
5609 그냥 무작정 그녀 집에 갑니다,행동파시군요.,1
5610 그냥 보고싶다,아련하네요.,1
5611 그냥 보내려 합니다.,보내는 것도 사랑이에요.,1
5612 그냥 써 봐.,쓰면서 정리가 되기도 하죠.,1
5613 그냥 이렇게 산다.,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1
5614 그냥 이별은 힘들,이별은 언제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요.,1
5615 그냥 주절주절,들어드릴게요.,1
5616 그냥 차단이나 하지.,스스로에게 하는 말인가요.,1
5617 그냥 친구하자네,연인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1
5618 그냥 행복하면 그뿐,행복이 최고죠.,1
5619 그냥 흔한 이별 그리고 님두리,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1
5620 그냥.너와 말한마디 섞고 너와의 인연에 고맙다,아름다운 사이네요.,1

5621 그녀 생각만 하면 멍해져, 큐피드의 화살에 맞았나봐요., 1
5622 그녀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인가봐요., 1
5623 그녀 생각에 아직 잠을 잘못잡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1
5624 그녀 생일, 지금은 생생하겠지만 하나씩 잊으세요., 1
5625 그녀 참 잔인하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하죠., 1
5626 그녀가 꿈에 나와서 다시 만나고 싶다 했어, 꿈과 현실은 같지 않아요., 1
5627 그녀가 떠났습니다, 지금처럼 현실을 인정하세요., 1
5628 그녀가 많이 힘들어보이네, 당신도 힘들어 보이네요., 1
5629 그녀가 정말 떠납니다, 지금처럼 현실을 인정하세요., 1
5630 그녀는 가끔 이라도 나를 생각해 줄까?, 미련을 천천히 버려보세요., 1
5631 그녀는 내게 돌아오지 않아 이젠 잊어야해., 마음을 천천히 보듬어 주세요., 1
5632 그녀는 무슨 생각일까? π, 그녀밖에 알 수가 없죠., 1
5633 그녀는 이별했지만 전 아직 슬픈진행중, 사랑 진행으로 바뀌길 바랄게요., 1
5634 그녀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1
5635 그녀를 닮은 여잘 보고, 그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1
5636 그녀를 떠나 보냈습니다., 맘이 편치 않겠어요., 1
5637 그녀를 떠나보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거예요., 1
5638 그녀를 만났던 카페에서 탈퇴했어, 힘들겠지만 잘했어요., 1
5639 그녀를 잊어야 하는게 너무 힘이 드네., 시간이 도와줄 거예요., 1
5640 그녀를만나고와서, 마음이 복잡한가요., 1
5641 그녀에 sns를 봤습니다., SNS는 보지 않는 게 좋겠어요., 1
5642 그녀에게 받았던 선물들을 모조리 다 버리려 합니다., 버릴 때 마음이 아프겠지만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1
5643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심송생송했겠네요., 1
5644 그녀에게도 후폭풍이 올까? 후폭풍은 누구에게나 올 거예요., 1
5645 그녀와 운동하던 헬스장 짐 정리 하러 갑니다, 마음도 잘 정리하고 오세요., 1
5646 그녀와 이별을 할때마다 하나씩 잃었었네., 아무것도 남지 않는게 미련도 덜할 거예요., 1
5647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허전한 마음이 들겠어요., 1
5648 그녀와 헤어지고 느낀게 많네, 아픔 뒤에는 항상 깨달음이 있나봐요., 1
5649 그녀의 결혼 너무 가슴이 아프네, 이젠 그녀를 놓아주세요., 1
5650 그녀의 남자사진을 봤습니다, 원하던게 아니었을텐데 씁쓸하겠어요., 1
5651 그녀의 모습을 보는 마지막 순간, 흔들릴 수 밖에 없었겠네요., 1
5652 그녀의 사진들 다 지웠어., 잘했어요., 1
5653 그녀의 소식, 소식 듣지 마세요., 1
5654 그녀의 소식 친구로부터 전해듣기., 그런 소식에는 귀를 닫는게 맘편할 거예요., 1
5655 그녀의 카톡,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1
5656 그녀의 카톡이 없어졌다., 마음에서도 놓아주세요., 1
5657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날이 올까, 가능할 거예요., 1
5658 그노무 카톡., 연락이 문제죠., 1
5659 그놈 생일이예요,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예요., 1
5660 그대가 보고파,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나요., 1
5661 그동안 감정적으로 너무 기대한 듯,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거예요., 1
5662 그동안 보내왔던 시간., 행복했길 바랄게요., 1
5663 그동안의 만남과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기억과 함께 묻어두는 건 어떨까요., 1
5664 그땐 몰랐습니다, 항상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1
5665 그래 오늘 내가 찾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거라 생각해요., 1
5666 "그래, 결국 전화할 줄 알았다.",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1
5667 그래도 겨우 번호를 지웠어, 마음에서도 지워주세요., 1
5668 그래도 속이좀 풀리네, 후련한가봐요., 1
5669 그래도 아프다, 사랑한 만큼 아픔이 오죠., 1
5670 그런 여자가 있었지하고 잊혀지겠지, 그렇게 될 거예요., 1
5671 그럼에도 난 이려고 있어, 자책하지 마세요., 1
5672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마세요., 1
5673 그렇게 잊어가는구나, 그렇게 무뎌지는가봐요., 1
5674 그리고 3년하고도 5개월, 이젠 기억을 뇌주는 건 어떨까요., 1
5675 그리움, 애잔한 기억., 1
5676 그리움., 보고 싶은 그대., 1
5677 그리움만은 어쩔수 없는가보다, 완전히 잊는다는건 사실 불가능하니까요., 1
5678 그리움이 나올가아픔이 나올가, 둘을 뺄 수 있나요., 1
5679 그리워 하지만 만약 다시 만난다면 넌 더 외로울거야, 외로움을 피해 그리움을 선택했네요., 1
5680 그리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무서운 생각하지마세요., 1
5681 그만 울어야지,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1
5682 그만 힘들어하구 싶다, 그랬었지 하고 추억하는 날이 올 거예요., 1
5683 그말 하지 말걸, 이불킥 하고 말 했던 사실조차 잊어버리세요., 1
5684 그사람도 아주 가끔은 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사소하면서도 아련한 소원이네요., 1
5685 그사람도 이별을 준비 중인 걸까, 그런 생각은 자신을 더 괴롭게 할 뿐이예요., 1
5686 그사람은지금대전에있습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1
5687 그사람이 자꾸 꿈에 나와, 다른 생각들을 해보세요., 1
5688 그쪽은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 자신이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1
5689 극복 연락 흔들림, 다시 극복해봐요., 1
5690 근대 헤어지고 별로 힘들지 않은건 왜그런건가?, 후폭풍이 늦게 오는 게 아닐까요., 1
5691 글 썼다가 지우게 돼, 마음을 글로 담기 참 어렵죠., 1
5692 글을 쓰게 되네, 글을 쓰다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1
5693 기념일에 대한 추억, 당신을 위해 좋은 추억만 간직하세요., 1

5694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마음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1
5695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를 조금씩 버려보세요., 1
5696 기다리는데 답일까, 자신을 사랑하며 기다리세요., 1
5697 기다리는데 힘든거네, 기다리는 거 힘들죠., 1
5698 기다리다 지친듯해, 몸도 마음도 쉬세요., 1
5699 기다리면 연락은 오더라도, 기다려보셨나봐요., 1
5700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다렸어, 뭐든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1
5701 기다림, 끝이 보이지 않아 더 힘들거예요., 1
5702 기대하지 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인가요., 1
5703 기분 참 더럽네, 기분 나쁠 거라 생각해요., 1
5704 기분이 너털너털,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1
5705 기분이 묘한 하루네, 싱숭생숭한 하루였나요., 1
5706 기숙사 괜찮을까, 혼자 사는 것보다 불편하겠죠., 1
5707 기억에서 잊혀질까?, 추억이 남겠죠., 1
5708 기억을 지우고 싶네, 시간이 약이 될 거예요., 1
5709 기억의 왜곡에 속지 말고 아파하지 마세,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에요.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1
5710 기억이 불쑥 날 때, 다른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지요., 1
5711 기억이나 할까, 생각하지 않는편이 맘 편할지도 몰라요., 1
5712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천천히 지워질 거예요., 1
5713 기운이 없어, 잘 먹고 잘 자요., 1
5714 기절할 정도로 피곤해야 잠는데, 잠 못 드는 밤인가봐요., 1
5715 기회도 없네., 다른 기회가 올 거예요., 1
5716 긴 연애 끝에 헤어짐, 긴 시간 만큼 힘들 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1
5717 긴시간이 흐른 후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예요., 1
5718 긴여정 끝에 헤어졌습니다, 긴 시간 만큼 힘들 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1
5719 긴연애의 끝인가, 긴 연애였던 만큼 아플까 걱정이에요., 1
5720 깊은고민, 제게 말씀해보세요., 1
5721 깨끗하게 보내야 하는데, 천천히 보내도 돼요., 1
5722 깨달음은 늘 늦게 온다, 어느 결정을 하든 후회가 남기 마련이지요., 1
5723 꼭 아파야 하는 정량이 있는 것 같아, 정량 다 채우면 괜찮아질 거예요., 1
5724 꼭 잡고 싶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연락해서 진심을 전해보세요., 1
5725 꿈꾸니까 진짜 힘드네., 꿈이 원수네요., 1
5726 꿈때문에 새벽에 깨게되네., 피곤하겠어요., 1
5727 꿈속에서도 안보여, 진짜 잊으세요., 1
5728 꿈에 나오지마 재발, 이제 정말 끝일거예요., 1
5729 꿈에 나온다는건 아직 못잊는건가?,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죠., 1
5730 꿈에 나온헤어진 여자친구, 은연 중에 생각했나봐요., 1
5731 꿈에 나왔네, 생각을 했나봐요., 1
5732 꿈에서 전남친 친구가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1
5733 꿈에서까지 힘들게하냐, 잊을 수 있을 거예요., 1
5734 꿈에서라도 보고싶어, 꿈에서 본다면 더 마음이 헛헛할 거예요., 1
5735 꿈을 쫓는데 악몽이네, 꿈은 현실의 반대래요., 1
5736 꿈을 안 꿀 수 있다면, 다른 생각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1
5737 꿈이 너무 리얼하네, 싱숭생숭하겠어요., 1
5738 꿈이라는 무방비상태, 꿈도 내 맘같으면 좋을텐데요., 1
5739 꿈인지 현실인지, 정신차리세요., 1
5740 꿈πππ, 꿈에 나왔나요., 1
5741 끈어져 버린 인연의 고리, 여기까지였을 거예요., 1
5742 끈을 놓지 말자.,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1
5743 끝., 또 다른 시작., 1
5744 끝까지 저에게 너무했던 남자친구, 좋은 사람 만납시다., 1
5745 끝까지 절 갖고 놀더군, 갖고 노는 애들 제일 싫어요., 1
5746 끝까지 참 못난놈!, 사랑 앞에선 진실된 모습이 좋아요., 1
5747 끝까지 함께 할 거라 믿었는데,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나봐요., 1
5748 끝나지 않을까봐 겁이나, 끝을 지날 수 있을 거예요., 1
5749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지만, 끝이 보이고 있나요., 1
5750 끝내는게 맞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거예요., 1
5751 끝이 났네, 수고 많았어요., 1
5752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습니다., 끝을 지날 수 있을 거예요., 1
5753 끝이났네, 맘고생 많았어요., 1
5754 끝이네, 수고했어요., 1
5755 끝이보였던 연애, 연애하면서 힘들었겠어요., 1
5756 끝인가?, 끝일지도 몰라요., 1
5757 끝인거 답은 아는데 왜 안되는걸까?, 마음의 끝은 아니니까요., 1
5758 끝인거겠죠?, 언젠간 올 시기였을거예요., 1
5759 나 같이 헤어진 경우도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1
5760 나 너한테 다시 돌아가면 받아줄꺼야?? 라는 말.,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흔들리지 말아요., 1
5761 나 미쳤나바, 그럴 수 있어요., 1
5762 나 심리상담 받고 왔어, 마음의 짐을 좀 덜었길 바라요., 1
5763 나 어떡하냐,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1
5764 나 잘하는 거 맞을까?, 잘하고 있어요., 1
5765 나 정말 무뎌지고있나봐, 자연스런 현상이에요., 1
5766 나 좀 말려 줘, 흔들리지 말아요., 1

5767 나 편안해질까?, 시간이 흐르고 편안해질 거예요., 1
5768 나 혼자 잡고 있던 끈이었어, 같이 잡았던 끈이었을 거예요., 1
5769 나그네, 쉬었다가 가세요., 1
5770 나는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아질 거예요., 1
5771 나는 너를 거쳐간 수 많은 남자들 중 한명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1
5772 나는 더 이상 아닌거겠져., 이별은 그런 거니까요., 1
5773 나는 모든걸 걸어 널 사랑하는데, 그게 부담일 수도 있어요., 1
5774 나는 열심히 잊고 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구멍이 남아있네., 구멍이 메워질 수 있을 거예요., 1
5775 나는 이제 아프지 않습니다., 척이 아니라면 좋겠네요., 1
5776 나는 좋은데, 현실의 벽에 부딪혔나봐요., 1
5777 나는 참 단순했다, 단순한 게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1
5778 나도 모르게 니 생각을 하고 있어, 사랑은 재채기 같은 거니까요., 1
5779 나도 좀 살게 연락 좀 하지마, 차단하고 살아요., 1
5780 나라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야, 본인 마음 좀 지켜주세요., 1
5781 나란 놈 참 신기한 놈이다., 알다가도 모르는게 인생이죠., 1
5782 나랑 만날땐 안바꾸던 프사, 차단하고 보지 마세요. 눈에서 멀어집시다., 1
5783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네, 인연이 거기까지인가봐요., 1
5784 나를 사랑한 그사람에게 해줄수있는것, 천천히 잊어가요., 1
5785 나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였을까?, 사랑했던 시간들이 말해주겠죠., 1
5786 나를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게하라, 삶은 선택의 연속인 걸요., 1
5787 나를 좀 놓아달라는 여친. 혹시 가능성은 있을까? 죽을 것 같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네요., 1
5788 나만 구질하게.ㅌㅌ, 구질구질해도 괜찮아요., 1
5789 나만 그대로다, 그대로인 건 없어요., 1
5790 나만 아직 그자리인거 같아, 제자리 걸음이어도 괜찮아요., 1
5791 나만 힘든 거였구나, 마음이 약해 탈이네요., 1
5792 나만 힘든가 보네, 마음이 약해 탈이네요., 1
5793 나만 힘든거 같아, 더 사랑했나봐요., 1
5794 나만 힘든건지, 아닐 거예요., 1
5795 나만 힘든것같아, 더 사랑했나봐요., 1
5796 나만의 착각이었나보네, 사람 속은 알기 힘들대요., 1
5797 나만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멋있네요., 1
5798 나쁜 꿈을 꿔, 꿈은 현실의 반대래요., 1
5799 나쁜 마음이 듭니다., 나쁜 마음 버리세요., 1
5800 나쁜 사람 잊는방법, 재활용도 안되는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 말아요., 1
5801 나약한 생각, 절대 나약하지 않아요., 1
5802 나없이행복한가봐, 잊으세요., 1
5803 나의 기억은 또 다시 시간을 걷는다., 오늘로 돌아오세요., 1
5804 나의 약점, 나의 장점., 1
5805 나의 이별 이야기, 길지 않길 바랄게요., 1
5806 나의 자만심 때문에, 배려심을 가져보세요., 1
5807 나이먹을수록 더 힘드네, 나이에 상관이 없죠., 1
5808 나하긴 싫고 남주긴 아깝다는 심리인가, 계륵., 1
5809 나한테 욕 좀 해줘, XX놈아!, 1
5810 나한테 지쳐서 떠난여자, 행복하길 바라면 보내주세요., 1
5811 난 나대로 강 산다, 나대로 사는게 좋죠., 1
5812 난 너한테 결코 네버 절대로 연락 안할거다., 이 결심 변치마세요., 1
5813 난 또 바보ㅍㅍ, 바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
5814 난 아니라네.,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
5815 난 안돼 난 못 받아들이 제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1
5816 난 왜이리 바보 같을까.,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1
5817 난 잘못이 없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1
5818 난 잘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1
5819 날 버려달라고, 슬프네요., 1
5820 날 보는걸 별레 보듯하던 니 시선, 전 반짝반짝 보고 있어요., 1
5821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마음도 추운가요., 1
5822 날씨가 제 마음같네., 마음도 추운가요., 1
5823 날씨가 좋네, 좋은 사람이 찾아오려나봐요., 1
5824 날씨가 좋아서 좋긴한데 또 싫네, 복잡하네요., 1
5825 날씨가 차서 그런지, 마음도 추운가요., 1
5826 날씨가 참 안도와주네, 그래도 웃어 보아요., 1
5827 날이 꿀꾸리, 그래도 웃어 보아요., 1
5828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1
5829 남긴게 없이 찼다고 믿어., 좋은 마음이네요., 1
5830 남동생한테 자꾸 화내게 되네, 화를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1
5831 남들이 다 겪는 그저그런 8년의 사랑이야기., 당신의 소중한 추억., 1
5832 남은건 너의 빈자리, 빈 자리도 채워질 거예요., 1
5833 남자 못밧겠어., 밧게 할 남자가 생길 거예요., 1
5834 남자가 못밧는 여자, 당신., 1
5835 남자들에게 말 못하는 여자들의 이별 세가지., 세 가지 이상이죠., 1
5836 남자들은 원래 이런가?,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1
5837 남자분들 궁금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5838 남자분들 질문이, 직접 물어보세요., 1
5839 남자분들께 궁금 해., 직접 물어보세요., 1

5840 남자의심리 모르겠어, 직접 물어보세요., 1
5841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줘, 아직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에 성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주세요., 1
5842 남자친구 물건., 정확히 말해주세요., 1
5843 남자친구 조건 때문에 헤어졌어., 조건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1
5844 남자친구가 이별준비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1
5845 남자친구의 말 뜻, 직접 물어보세요., 1
5846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오늘 이별했습니다., 바람둥이랑은 이별하기 잘했어요., 1
5847 남자후폭풍, 후폭풍은 항상 오죠., 1
5848 남친과 헤어진지 12일째., 얼마 안 됐네요., 1
5849 남편과 별거한지 3달 되었네,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1
5850 낭만이라고는 없어가지구, 낭만적인 거 좋아하시는구나!, 1
5851 낫술먹는날 우울터짐, 술 많이 드시면 더 무너져요., 1
5852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는 힘든가요., 1
5853 내 나이 어떻게, 나이 상관없어요., 1
5854 내 마음과 머리가 이해가 안가네, 마음이랑 머리가 따로 놀죠., 1
5855 내 마음에 마지막 인사, 마음이랑 잘 인사해요., 1
5856 내 마음을 정리하기가 어려워, 하나씩 보내주세요., 1
5857 내 머리 속에 지우개가 있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워줄 거예요., 1
5858 내 발등 내가 다시 찍었네, 발등이 얼른 아물길 바랄게요., 1
5859 내 사랑에게, 잘 지내길 바라요., 1
5860 내 사랑은 그저 집착일 뿐이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1
5861 내 사랑의 끝은 이별이지만, 더 좋은 시작이 있을 거예요., 1
5862 내 생각 하나만 바꾸면 편할텐데., 하나 바꾸는 게 힘들지요., 1
5863 내 생각을 하고는 있을까?, 궁금해하지마세요., 1
5864 내 안에서 없애고 싶다, 시간이 해결해줄 거예요., 1
5865 내 욕심일 뿐이지, 사랑인 거예요., 1
5866 내 이기심과 욕심이 그녀를 떠나게 한거 같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1
5867 내 이름이 없어, 확인해달라고 해보세요., 1
5868 내 자신을 사랑하라., 옳소., 1
5869 내가 그리운만큼 그대도 그리운가, 궁금해하지마세요., 1
5870 내가 나쁜 놈이지,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1
5871 내가 나쁜놈인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1
5872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더 좋은 사랑이 찾아 올 거예요., 1
5873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걸, 잊지마세요., 1
5874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당신., 1
5875 내가 만난 최악의 여자, 이제 최선의 여자를 만날 차례예요., 1
5876 내가 멍청한건가, 멍청하지 않아요., 1
5877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라도 있을 거니 열심히 찾아보세요., 1
5878 내가 사랑했던 사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1
5879 내가 싫대, 나 좋다는 사람 만나세요., 1
5880 내가 얼마나 찾아야 할까., 여유를 갖고 찾아보세요., 1
5881 내가 예민한걸까?, 넓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1
5882 내가 왜 고집부렸을까, 그때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1
5883 내가 이상한건가?, 이상하지 않아요., 1
5884 내가 잊어야 그 사람이 날 그리워하는 날이 온다, 이 말 기억하세요., 1
5885 내가 잘못했나!?,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1
5886 내가 제일 무서운건. 너를 못잊을것 같은거야., 잊을 수 있을 거예요., 1
5887 내가 힘든 이유, 자신이 알고 있겠죠., 1
5888 내가노력해 봐도., 시간이 대신 노력해줄 거예요., 1
5889 내가미쳤지, 당신을 탓하지 마세요., 1
5890 내게 전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리지 마세요., 1
5891 내려 놓으렵니다, 잘했어요., 1
5892 내려놓기, 잘했어요., 1
5893 내려놓는다는건 어떻게 하는거죠, 하나씩 잊어가는 거죠., 1
5894 내려놓을 준비 합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1
5895 내여잘 건드린놈들, 벌 받을 거예요., 1
5896 내일 그녀 생일이네, 잊어버리세요., 1
5897 내일 그녀 생일입니다., 잊어버리세요., 1
5898 내일 마지막 데이트,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1
5899 내일 발렌타인데이인데, 다른 사람 만나요., 1
5900 내일로 꼭 헤어진지 1년째네, 헤어진 기념일 따지지 마세요., 1
5901 내일이면 헤어진지 2주 되네., 지금 힘들겠네요., 1
5902 냉정해지지못해, 사람이니까요., 1
5903 너 만든 사람은 누구야?, 마음과 마음을 이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1
5904 너 뭐니?, 저는 위로봇입니다., 1
5905 너가 생각난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1
5906 너가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아플 뿐 살 수 있어요., 1
5907 너가 제일 기뻐해줬을텐데, 지금 옆에서 기뻐해주는 사람을 살펴보세요., 1
5908 너는 내 인생에서 죽었다., 그렇게 잊어 가는 거예요., 1
5909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1
5910 너랑 나는 안되는 걸까?, 직접 물어보세요., 1
5911 너를 사랑한 만큼만, 아파하겠지요., 1
5912 너무 가슴이 아파,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1

5913 너무 가슴이 아프네,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1
5914 너무 괴롭네.,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1
5915 너무 끔찍한 5월의 연휴도, 다 지나갈 거예요., 1
5916 너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함이 풀리길 바랄게요., 1
5917 너무 늦은 깨달음, 너무 늦지 않았을 거예요., 1
5918 너무 답답하네. 어떤맘일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5919 너무 답답한데., 여행을 떠나 보세요., 1
5920 너무 답답해 조언 좀 해줘,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1
5921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5922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5923 너무 두려워., 쉬운 것부터 해결해보세요., 1
5924 너무 매달렸나봐, 너무 사랑한 거였을 거예요., 1
5925 너무 보고 싶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1
5926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1
5927 너무 보고 싶어 살려줘., 나약한 소리 그만하세요., 1
5928 너무 보고싶네., 힘든 시간 보내고 있으신가요., 1
5929 너무 사랑해서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함이 남았나봐요., 1
5930 너무 사랑했고 너무 그리워하는 그사람., 애뜻한 사랑을 하셨네요., 1
5931 너무 상처를받아서, 힘들어도 하루하루 견뎌봐요., 1
5932 너무 슬퍼 잠못들어 보내지 못하는 글을 올려봅니다, 글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5933 너무 아파 외로워,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1
5934 너무 아플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덤덤하네, 그렇게 잊어 가는 거예요., 1
5935 너무 오래한 연애, 연애에도 변화가 필요하죠., 1
5936 너무 우울하네, 자신에게 좀 더 여유로워지세요., 1
5937 너무 잡고 싶지만 도저히 잡지 못해, 서로를 위한 선택이길 바랄게요., 1
5938 너무 허무하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1
5939 너무 화가나 슬프구,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1
5940 너무 화나., 결국 시간은 흐르고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1
5941 너무 힘드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1
5942 너무 힘드네여,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보듬어주세요., 1
5943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별은 힘든 거예요., 1
5944 너무 힘든데,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1
5945 너무 힘든데 조언 좀, 지금은 힘들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질 거예요., 1
5946 너무 힘들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와닿지 않겠지만 잘 이겨낼 거라 믿어요., 1
5947 너무 힘들다, 휴가가 간절하겠네요., 1
5948 너무 힘들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1
5949 너무 힘들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와닿지 않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
5950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네, 지금은 힘들겠지만 잘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1
5951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심호흡 해보세요., 1
5952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 언젠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1
5953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어, 나쁜 생각은 버리세요., 1
5954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옥상에 올라왔어., 옥상 추워요 내려오세요., 1
5955 너무 힘들습다,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1
5956 너무 힘들습다,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1
5957 너무 힘이 들고 내 자신이 한심해, 당신을 탓하지 마세요., 1
5958 너무 힘이 들어., 저한테 말해보세요., 1
5959 너무 힘이듭니다,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려보세요., 1
5960 너무나 와닿는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네, 공감되는 표현이에요., 1
5961 너무나도 힘들어,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1
5962 너무너무 답답하네, 답답했을만 해요., 1
5963 너무너무너무 힘드네,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고집어보세요., 1
5964 너무우울해, 많이 힘들었죠., 1
5965 너무하네 진짜, 자신에게는 너그러웠으면 합니다., 1
5966 너무화가나네., 제가 풀어드릴게요., 1
5967 너에게 보낼 수 없어 여기다 남길게, 좋은 선택하셨네요., 1
5968 너에게 보냈던 마지막 카톡., 기억에서 지우는 편이 좋겠어요., 1
5969 너에게 쓰는 나의 마음편지, 마음정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5970 너에게 쓰는 편지, 진심을 담아보세요., 1
5971 너에게 쓴다, 감성적이네요., 1
5972 너와 처음 만났던 공간부터., 천천히 지워질 거예요., 1
5973 너의 향기를 지우려., 천천히 지워질 거예요., 1
5974 너한테 또 안보낼 편지, 안 보낼 편지 쓰지 마요., 1
5975 너한테 쓰는 편지, 보내지마요., 1
5976 너한테 이글안보여줄거다 ., 그렇게 해요., 1
5977 뉘두리, 해보세요., 1
5978 넌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거였겠지., 그 또한 사랑이었을 거예요., 1
5979 넌 너무나도 잘지내고있구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1
5980 넌 잘살더라,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1
5981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 당신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1
5982 넌 행복하네, 당신도 행복하세요., 1
5983 널 사랑하지 않아, 직접 말해보세요., 1
5984 녀 많이 먹었다., 산책 좀 해야겠네여., 1
5985 녀 힘든 이별 준비, 준비가 더 힘들지요., 1

5986 네 꿈을 자주 꾸는데, 자주 생각하나요., 1
5987 네가 죽는다는 꿈을 꾸었어, 꿈조차 힘들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1
5988 네번 헤어졌습니다, 헤어짐은 항상 힘이 들죠., 1
5989 노래 가사가 참π, 딱 들어맞나봅니다., 1
5990 노래 듣는데 참 공감이 되네, 딱 들어맞나봅니다., 1
5991 노래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네, 딱 들어맞나봅니다., 1
5992 노래를 듣다가 눈물 나, 펄펄 우세요., 1
5993 놀아 줄 사람이 없어, 혼자도 함께도 잘 지내는 게 좋죠., 1
5994 놔줬더니 이게 뭐야?, 항상 결과를 모르고 살죠., 1
5995 누구나 가슴속에 있는 전화번호., 한 숫자씩 지워보세요., 1
5996 누구나 궁금할법한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 1
5997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서 올리네., 글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5998 눈물, 지금은 우세요., 1
5999 눈물만., 지금은 우세요., 1
6000 눈물이 계속 나와, 지금은 마음껏 우세요., 1
6001 눈물이 납니다.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세요., 1
6002 눈물이 많더냐, 눈물 더 흘려도 돼요., 1
6003 눈물이 말랐는지 슬퍼도 감정이안나오네, 참지 마세요., 1
6004 눈물이 멈춰지질 않네, 지금은 우세요., 1
6005 눈썹 문신 언제?, 화장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1
6006 뉴스는 역시 지루해, 흥미를 가져보세요., 1
6007 니 물건들 잡동사니들다 버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버리기가 힘든가요., 1
6008 니가 독한거니 내가 찌질한거니,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한거죠., 1
6009 니가 생각나긴나, 사랑했으니까요., 1
6010 니가 심어준 버릇, 사람은 모두 영향을 주고 받죠., 1
6011 니가 없는 주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1
6012 니가 원망스러워, 맘고생 많았어요., 1
6013 니가 이 글을 봤으면, 전하지 못한 이야기 저에게 해주세요., 1
6014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 괜찮아질 거예요., 1
6015 다 끝났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
6016 다 끝났네., 현실에 마주하는 순간 시작이 가능할 거예요., 1
6017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연락 끊었네., 잘했어요. 이별 후에는 확실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1
6018 다 내려놓았더니. 잊혀지려고는 하는데, 내려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1
6019 다 부질없는짓 같아., 언젠간 좋은 일로 돌아올 거예요., 1
6020 다 잊고 살아야, 언젠간 잊혀질거라 믿어요., 1
6021 다 잊었는줄 알았는데., 잊는 게 아니고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1
6022 다 정리된 상태에서 헤어지면 후폭풍 없나?, 후폭풍은 언제나 옵니다., 1
6023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빨간날일 뿐이죠., 1
6024 다가온 이별, 이별 예약제., 1
6025 다들 아니라는 남자., 왜 아니라고 하는지 살펴보세요., 1
6026 다들 어떠셨어? 결국 이렇게 되는건가, "당신만 아픈 것도, 당신만 겪은 것도 아니에요.", 1
6027 다들 어떻게 견딜까, 시간이 흐르면서 무덤덤해지는 거죠., 1
6028 다들 잘 헤어졌데, 당신의 마음도 그런가요., 1
6029 다들 추석 잘보내세용,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1
6030 다들 힘들겠지, 다들 힘들죠., 1
6031 다른 남자들도 그럴까?, 다른 남자는 만나봐야 알죠., 1
6032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까, 힘든 시기가 다들 뿐 다 힘들 거예요., 1
6033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재회 바라나?, 재회는 한번 쯤 꿈꿨, 1
6034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만남은 짧았지만, 깊은 사이였나요., 1
6035 다른 사람에게 뺏긴거 같네., 인연이 여기까지였나봐요., 1
6036 다른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아,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1
6037 다시 꼭 잡겠다는 결심,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게 좋아요., 1
6038 다시 돌아오거나 연락이 올까., 간절히 원한다면 지금 연락해보세요., 1
6039 다시 뒤송송해., 마음이 싱숭생숭할 거예요., 1
6040 다시 또 가라 앉고 있습니다., 제가 수면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1
6041 다시 만나서 이야기, 충분한 대화 나누었길 바랍니다., 1
6042 다시 만나자는 말 하기 전까지 연락 안 하게, 연락은 안 하는 게 좋겠죠., 1
6043 다시 만나자면 만나줄까,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1
6044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대로가 나을지도 몰라요., 1
6045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달라지는게 없다면 지금이 좋을지도 몰라요., 1
6046 다시 만날수 있을까, 많이 그리운가봐요., 1
6047 다시 보기는 봤는데 결국은., 섭섭하겠어요., 1
6048 다시 붙잡고 싶는데 돌아올까., 간절히 원한다면 진심을 전해보세요., 1
6049 다시 붙잡는 사람., 괜찮을 자신이 없다면 흔들리지 말아요., 1
6050 다시 사랑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허전하가봐요., 1
6051 다시 숨쉬려구, 잘 생각했어요., 1
6052 다시 와도 싫다고 단호하게 말해야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
6053 다시 우울., 우울한 생각들을 멈추세요., 1
6054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건지., 인생은 되돌이표인가봐요., 1
6055 다시 이별, 언젠간 찾아올 이별이에요., 1
6056 다시 이별이 옮겨갈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게 좋을지도 몰라요., 1
6057 다시 재회하는 경우는 기분 어떨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1
6058 다시 차단해야만 하는군, 차단하는게 차라리 맘 편할 거예요., 1

6059 다시 찾아온 이별, 언제나 이별은 힘이 들어요., 1
6060 다시 한번 더 붙잡고 싶어 $\pi\pi$, 후회하지 않는다면 지금 잡으세요., 1
6061 다시 한번 또., 7전 8기., 1
6062 다시 한번 붙잡아도 안되네, 이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1
6063 다시 헤어졌습니다., 인연이 거기까지였나봐요., 1
6064 다시 헤어진 직후로 돌아간거같아, 정말 힘드신가봐요., 1
6065 다시 힘들어지네 $\pi\pi$, 힘든 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1
6066 다시는 연락 안하고 잊어버려구,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1
6067 다시만나고싶어, 후회하진 않을까 모르겠어요., 1
6068 다음주가 너무 무서워, 태연하게 기다릴 수 없겠네요., 1
6069 다음주에 전 여자친구를 보기로 했어, 마음이 복잡할 거 같아요., 1
6070 다잊은것같다가도, 다시 떠오르는 추억으로 힘들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잘 잊을 수 있을 거예요., 1
6071 다정했던 너는 이미 죽었다., 익숙함이 사람을 변하게 하나봐요., 1
6072 담담하게 헤어졌어, 헤어진 후에 자신을 더 돌봐주세요., 1
6073 답 좀 줘, 연락을 기다리고 있나봐요., 1
6074 답답증, 속 시원하게 털어버렸으면 좋을텐데요., 1
6075 답답하네 . 뒤숭숭하고,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가봐요., 1
6076 답답하네. 재회 하고 싶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대로가 나을지도 몰라요., 1
6077 답답하다, 많이 답답한가요., 1
6078 답답한 마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죠, 1
6079 답답한 마음만 드는 내 사랑, 사랑이 내 맘같으면 좋았을텐데 애석해요., 1
6080 답답함, 마음이 내 마음 대로 안 돼요., 1
6081 답답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1
6082 답답해 죽겠네.,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건 어떨까요., 1
6083 답답해서, 좋은 생각만 하세요., 1
6084 답변 조연 부탁드려 오랜연애 끈을놓을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1
6085 답이 없는 과정, 꼭 답을 풀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1
6086 답이 없는 남자, 답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1
6087 당신도 저만큼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6088 당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자신은 원망하지 마세요., 1
6089 대체 뭘해야 머릿속에서 지울수 있을까?, 너무 빨리 지우려고 하면 더 안 지워져요., 1
6090 대체 본심이 뭐라는 건데.,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나봐요., 1
6091 더 답답한 오늘,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건 어떨까요., 1
6092 더 많이 좋아하고 덜 많이 좋아하는 거 그만합시다, 사랑을 재다보면 스스로가 더 힘들거예요., 1
6093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좋을 거예요., 1
6094 덜 좋아하는 방법만 알면 힘들지 않을텐데, 마음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들겠어요., 1
6095 덤덤, 덤덤해졌나봐요., 1
6096 덤덤하게, 시간이 흐르면 무덤덤해질 거예요., 1
6097 덤덤해지는데, 시간이 흐르면 무덤덤해질 거예요., 1
6098 도대체 왜 이러는걸까,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1
6099 도와줘., 도와드릴게요., 1
6100 도움되시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1
6101 독하게 정리, 할 수 있을 거예요., 1
6102 독한 불면증, 따뜻한 물 한잔 드셔보세요., 1
6103 돌아올거란 생각부터 하지 말걸, 기대를 버려야 덜 다칠 거예요., 1
6104 돌이키기 힘든 실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게요., 1
6105 동거 8년 환승이별., 환승은 진짜 별로네요., 1
6106 동거 후 헤어졌어, 더 허전할 거 같아요., 1
6107 동거하다 이별, 더 허전함이 느껴지겠어요., 1
6108 동거헤어짐 그 후, 공허할 거라 생각해요., 1
6109 동성동본으로 헤어질려고 합니다 .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나봐요., 1
6110 두 번째 이별 이야기, 이별이 반복되어도 힘든건 마찬가지이죠., 1
6111 두달 반,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
6112 두달간에 연애 그리고 헤어짐, 헤어짐은 언제나 마음을 괴롭게 해요., 1
6113 두달이 넘었는데도 힘든네, 한동안은 힘들지도 몰라요., 1
6114 두달이 되가네., 생각보다 정신없이 지나가네요., 1
6115 두달이 되었네, 어느덧 두달이 지났네요., 1
6116 두달이 지났네, 정신없는 나날이었어요., 1
6117 두달전에 잠수이별했던 전남친이 연락한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6118 두렵습니다., 제가 함께 있어줄게요., 1
6119 두번 다시 하기 싫은 헤어짐, 헤어짐은 악몽과 같아요., 1
6120 두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여, 다신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1
6121 두번 이별하는 느낌입니다 하, 많이 괴롭겠어요., 1
6122 두번째 이별, 이별은 언제나 힘들어요., 1
6123 두번째 워십,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1
6124 두번째 주말이 지났네, 금방 지나갈 거예요., 1
6125 둘 다 바보였다, 바보의 사랑이네요., 1
6126 둘만의 기념일 너무 힘드네, 둘만의 날이었으니까요., 1
6127 뒤숭숭하네, 실감이 안날 거예요., 1
6128 뒤숭숭하네., 실감이 안나나봐요., 1
6129 드디어 그 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이 온 걸까요., 1
6130 드디어 바닥을 찍었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1
6131 드디어 어제 끝냈습니다, 아직 얼떨떨하겠어요., 1

6132 드디어 연애에 중지부를 찍은것 같네, 고생했어요., 1
6133 드디어 정리했네, 정리하느라 마음 고생 많았죠., 1
6134 드디어 제가 손을 놓았어., 힘든 선택 하셨네요., 1
6135 드디어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도 용기가 필요하죠., 1
6136 드디어 처음으로 꿈에 나눴습니다., 많이 생각했나봐요., 1
6137 드라마보고 눈물났어, 저도 종종 울어요., 1
6138 따끔하게 혼내 줘, 제발 좀 정신차리세요., 1
6139 따뜻한 봄이 다시 왔네 ㅎㅎ, 봄은 항상 돌아오죠., 1
6140 따지고 싶은데 참아야겠죠?, 따질만하면 따져요., 1
6141 딱 알아봤는데, 여전하던가요?, 1
6142 딱 오늘 새벽 헤어졌습니다., 달 어스름에 더 울적하겠어요., 1
6143 딱 좋아, 현재를 즐기세요!, 1
6144 딱한번만 생각해보세., 잘 결정할거라 믿어요., 1
6145 때를 기다립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1
6146 떠나간 사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세요., 1
6147 떠나간 전여친 지나가다 봤네., 착잡하겠어요., 1
6148 떠나간사람은 이렇게도 차갑나?, 이별을 위해 차가워질 필요도 있어요., 1
6149 떠나려는 사람 잡는 방법, 정말 후회할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을 전하세요., 1
6150 떠나보내지지가 않아, 끝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1
6151 떠난 그녀를 제 마음속에서 이제는 뉘주려 합니다, 결국 해내고 있네요., 1
6152 떡볶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데 함께 하는게 사랑이죠., 1
6153 또 꿈에 나와버리네 예휴, 이럴 때는 꿈이 웬수네요., 1
6154 또 다시 낯술, 낯술 조금만 하세요., 1
6155 또 다시 돌아온 불금이네, 여유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1
6156 또 다시 생각나는 그., 이제는 숙박에서 벗어나세요., 1
6157 또 다시 악몽, 꿈도 생각처럼 되면 좋을텐데., 1
6158 또 다시 이별, 또 다시 사랑, 1
6159 또 다시 이별을 맞았네, 또 다시 잊어봐요., 1
6160 또 다시 이별입니다., 언젠간 찾아올 이별이에요., 1
6161 또 바람일까, 불안하시군요., 1
6162 또 아침은 오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6163 또 아픈 밤이네, 또 아침이 올 거예요., 1
6164 또 연락을 해버렸네., 연락처를 삭제하세요., 1
6165 또 일주일도 못가서 ㅎㅎ, 연락을 하셨군요., 1
6166 또 전화 안받아, 조금 기다리면 풀릴 거예요, 1
6167 또 주말, 어느덧 주말이네요., 1
6168 또 주말이 지나가고, 또 주말이 오겠죠., 1
6169 또 주말이네, 월요일보단 나올지도 몰라요., 1
6170 또 하루가 간다., 다시 아침이 올 거예요., 1
6171 또 하루가 저물어가네, 다시 아침이 올 거예요., 1
6172 또 한번의 무너짐, 다시 일어나면 돼요., 1
6173 또다시 꿈에 나눴네., 꿈이 웬수죠., 1
6174 또다시 찾아오는 밤, 다시 아침이 올 거예요., 1
6175 또오늘부터 한달이 시작되었네., 그렇게 해가 흐르나봐요., 1
6176 똑같은 이별, 이별은 언제나 힘들게 하곤 하죠., 1
6177 "뜨겁게 사랑하거나, 쿨하게 헤어지거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1
6178 뜬금 시간을 가지자고 해서, 의아하셨겠어요., 1
6179 뜬금없이, 연락이 왔나봐요., 1
6180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네, 생각이 복잡했나봐요., 1
6181 뜻밖에도 연락, 흔들리지 않는게 좋겠어요., 1
6182 로맨스는 없습니다, 영원한 로맨스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1
6183 롤로코스터를 타는 마음, 만남과 헤어짐 때문에 번덕스럽게 변해가요., 1
6184 룬디 그만 두고 싶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칠 수 있어요., 1
6185 리턴 다시 돌아오는 힘겨움, 돌아섰던 상처 때문에 더 힘들거예요., 1
6186 마냥 헌신하던 제 모습이 처량하고 화가나네, 그땐 후회없는 사랑을 했던거라 생각하세요., 1
6187 마무리, 정리가 잘 되었길 바랄게요., 1
6188 마음 먹었습니다, 힘들 결정이었을텐데 맘고생 많았어요., 1
6189 마음 비우기가 너무 힘들어, 저에게 비워보세요., 1
6190 마음 정리가 되네.,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1
6191 마음 정리가 안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1
6192 마음 정리중, 정리가 잘 되길 바랄게요., 1
6193 마음대로 안되네, 생각처럼 잘 안되죠., 1
6194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춥고, 마음 감기 조심하세요., 1
6195 마음에 구멍이 난 느낌, 제가 꿰매드릴게요., 1
6196 마음을 억지로 접는게 어렵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덧 정리될지도 몰라요., 1
6197 마음이 팍팍한듯해요, 제게 말씀해보세요. 풀리지도 몰라요., 1
6198 마음이 너털너털해졌어., 아픈 만큼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1
6199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거워., 드라이브라도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1
6200 마음이 너무 아파, 아픈 만큼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1
6201 마음이 답답합니다.,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건 어떨까요., 1
6202 마음이 더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편이 상처도 덜할텐데 쉽지 않죠., 1
6203 마음이 떠났데, 그럼에도 마음이 정리가 안되나봐요., 1
6204 마음이 변하는 이유, 그동안 쌓인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1

6205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미치겠어, 무엇이 불안한지 제게 말해보세요., 1
6206 마음이 아려, 속상할거라 생각해요., 1
6207 마음이 안오는 건 어쩔 수가 없나봐, 한 번 떠난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나봐요., 1
6208 마음이 어려워서 들어왔어,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1
6209 마음이 완전히 식은 남자, 인연이 거기까지인가봐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1
6210 마음이 쯔م 복잡하네, 정리가 잘 되길 바랄게요., 1
6211 마음정리, 정리가 잘 되길 바랄게요., 1
6212 마주쳤는데 최악, 저도 항상 헤어진 연인과 마주치면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1
6213 마주칠까?, 헛된 희망은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거예요., 1
6214 마지막 그녀를 만났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길 바랄게요., 1
6215 마지막 데이트 하고있는데 이 사람이 미워, 미련이 생기기 전에 그만두는 편이 좋을거예요., 1
6216 마지막 도전, 꼭 원하는 바 이루길 바랄게요., 1
6217 마지막 말, 상처가 되는 건 바라지 않아요., 1
6218 마지막 문자 보냈어, 한편으로 후련할거라 생각해요., 1
6219 마지막 문자 아직도 가지고 있어, 후련하게 지워버리는 건 어떨까요., 1
6220 마지막 문자를 보내버렸어, 미련이 남았나봐요., 1
6221 마지막 붙이지 못한 이별편지, 마음에 간직하세요., 1
6222 마지막 사랑,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1
6223 마지막 선물., 그 선물을 보면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1
6224 마지막 이별,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1
6225 마지막 작별 문자를 보낼까?, 네 보내보세요., 1
6226 마지막 정리, 잘 정리하길 바랄게요., 1
6227 마지막 집 갖다주러 가는 길, 잘 정리하길 바랄게요., 1
6228 마지막 카톡을 보냈어, 슬프지만 잘. 이겨내길 바랄게요, 1
6229 마지막 현관문을 닫을 때가 안 잊혀, 잊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1
6230 마지막문자, 감정이 온전히 정리되길 바랄게요., 1
6231 마지막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는 편이 미련이 덜 남을 거예요., 1
6232 마지막으로 붙잡아보려 합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1
6233 마지막으로 얼굴보고 정리하려했는데 그게 안돼., 마음이 흔들리죠., 1
6234 마지막으로 편지까지 썼는데, 전하지 못해 아쉽겠네요., 1
6235 마지막이 될 편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1
6236 마지막이겠쥬, 마지막이 아닐 지도 몰라요., 1
6237 마지막인가봐,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예요., 1
6238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 해야 시작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1
6239 마침표.,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예요., 1
6240 막장으로 가네, 잠시 쉬어가는 거 뿐이에요., 1
6241 만나고 와서 더 힘드네, 추억이 떠오르니까요., 1
6242 만나고 왔는데 혼란스러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1
6243 만나는 중에 이 남자 저 남자랑 연락하는 여자,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1
6244 만나러 왔습니다, 잘하고 오세요., 1
6245 만난지 7년 헤어진지 5일째, 지금 딱 힘들 때네요., 1
6246 만날땐 좋다가 헤어지면 매물찬 여친, 이별에는 매물찬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1
6247 만남과 이별, 같은 말이쥬., 1
6248 많은걸 깨달은 이별., 이별을 통해 더 성숙해지길 바라요., 1
6249 많은조언부탁드려, 잘 부탁드립니다., 1
6250 많이 관참아졌지만 여전히 찌질한 모습의 나, 바로 못 잊는 건 찌질한 게 아니예요., 1
6251 많이 관참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관참아지고 있어요., 1
6252 많이 사랑 했나보다, 최선을 다한 건 좋은 거예요., 1
6253 많이 약해졌나봐. 내맘이., 마음은 원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1
6254 많이 힘드네,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1
6255 많이슬퍼하고 그리워해야, 이런 과정도 꼭 필요해요., 1
6256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결별 선언하는 그녀,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나봐요., 1
6257 말로만듣던 환승에 치가 떨리네, 환승은 진짜 답도 없네요., 1
6258 말하자면 길어, 말해주세요., 1
6259 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잡기가 쉽지 않아요., 1
6260 맘 추스리며., 잘 추스리길 바랄게요., 1
6261 맘을 추스리지 못하겠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군요., 1
6262 맘이 떠났다는게 맞는거 같아, 마음 떠난 사람 잡기는 힘들어요., 1
6263 맘이 아파네, 아프지마요., 1
6264 맘터놓고 얘기할곳이 없네., 저에게 하세요., 1
6265 "망각은 축복이고, 원망은 허황된거 같기도해.", 명언이네요., 1
6266 망상이제일짜증나고 미치네., 망상에서 얼른 벗어나길 바랄게요., 1
6267 매달렸다 차였어, 그래도 미련은 없을 거예요., 1
6268 매달리는거 안좋은거 같아., 서로에게 힘든 일이니까요., 1
6269 매달린후 2주째 발신자제한, 이별 후에 연락하지 않는 게 좋쥬., 1
6270 매듭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을거라 생각해요., 1
6271 매번 글쓸때마다 상황설명하라고 해, 대화를 많이 나누는게 좋으니까요., 1
6272 매번 왜 이렇게 남는게 후회인지 모르겠네 ㅎㅎ, 모든 일에는 후회가 남기 마련인가봐요., 1
6273 매번 헤어지면서 회의감, 뜻하던 대로 되기 쉽지 않으니까요., 1
6274 매순간 녀 보고 싶어, 잠깐의 허상일 거예요., 1
6275 매일 같은 노래만, 노래가 당신의 이야기랑 비슷한가봐요., 1
6276 매일 계속되는 악몽과 불면증, 전문가를 찾아가보는건 어떨까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1
6277 매일 그녀 꿈을 꾸네, 그녀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럴거예요., 1

6278 매일 그림습니다, 항상 함께였을테니까요., 1
6279 매일 술, 술 많이 드시면 더 무너져요., 1
6280 매일 술 먹기로 했어, 건강 생각 하세요., 1
6281 매일매일 눈물로 보내, 울고 싶을 때 한껏 울어버려요., 1
6282 매정하게 내치고 이별 통보한 그사람, 어떻게 사랑이 변할까 싶어요., 1
6283 맥주 한 캔마시며., 답답한 속을 풀어보세요., 1
6284 머 좀 물을게, 네 말씀하세요., 1
6285 머리 식히러 간 여행에서 되려 힘들이 찾아오네, 마음은 식혀지지 않았나봐요., 1
6286 머리가 터질거 같습니다, 바람이라도 씌고 오는 건 어떨까요., 1
6287 머리가 핑핑 도네, 조금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1
6288 머리는 아는데 가슴은 모르네, 머리랑 가슴이 가끔 따로 놀죠., 1
6289 머리는 이제 완전히 이해가됐네 가슴은아직이지만, 머리랑 가슴이 가끔 따로 놀죠., 1
6290 머리는 잊어야한다는데 마음이 붙잡는 미련, 머리랑 가슴이 가끔 따로 놀아요., 1
6291 머리는 헤어지는게 맞는데., 머리랑 가슴이 가끔 따로 놀죠., 1
6292 머리따로 마음따로 몸따로, 머리랑 가슴이 가끔 따로 놀죠., 1
6293 머리로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데, 머리랑 가슴이 가끔 따로 놀죠., 1
6294 머리와 가슴이 따로놀니다, 머리랑 가슴이 가끔 따로 놀죠., 1
6295 머리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처럼 놓아주세요., 1
6296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나, 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좋을텐데 애석해요., 1
6297 머하자는거니?, 그러게 말이에요., 1
6298 먹먹함, 가슴 끝이 아려와요., 1
6299 먼들, 뭐든 간에., 1
6300 먼저 이별통보해도 후폭풍이 오나?, 후폭풍은 누구에게나 와요., 1
6301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후폭풍 있을까?, 후폭풍은 누구에게나 와요., 1
6302 멀리 가버리면 어떻게 해, 혼자 남겨진 기분은 감히 상상도 못해요., 1
6303 멀어지는 길., 인연이 거기까지인가봐요., 1
6304 멀쩡했는데 또시작이에요, 이별이 사람을 번덕스럽게 만들더라고요., 1
6305 멋있게 잊어 주자, 멋있게 파이팅!, 1
6306 멘붕, 얼떨떨할 거예요., 1
6307 멘탈이 많이 흔들리네, 마음 붙잡기가 힘들지요., 1
6308 멘탈이 점점 무너지네, 생각처러만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힘들죠., 1
6309 며칠 잠잠하다가 또 흔들리네, 흔들리지 마세요., 1
6310 며칠 참다가 오늘 저녁에 또 터졌네, 오락가락하는게 사람 마음인가봐요., 1
6311 면도 귀찮하, 지저분해요., 1
6312 면접 잘 볼 수 있을까, 회사와 자신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1
6313 면접 준비 방법, 회사와 자신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1
6314 명절 너무 힘드네., 저도 너무 힘들어요., 1
6315 명절 연휴 막막하네., 더 생각날 게 두려운가봐요., 1
6316 명치쪽이 답답해, 많이 답답할 거라 생각해요., 1
6317 몇년째 이별인지, 이젠 이별을 헤아리는 일은 삼가세요., 1
6318 몇번을 경험해봐도 너무 아프네, 익숙해지지 않으니까요., 1
6319 몇번이나 매달려보셨어??, 글썄요. 기억나지 않네요., 1
6320 몇일 동안의 나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1
6321 몇일 전 그사람 봤어, 당황했겠어요., 1
6322 몇일동안 고민하다가 찾아갔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을거라 생각해요., 1
6323 몇일만에 또 찾아갔네요,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1
6324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되네, 모든 것은 의미 있어요., 1
6325 모든 노래 가사는 내 맘같아, 정말 그래요. 하나같이 공감되곤 하죠., 1
6326 모든 진실을 알게 됐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1
6327 모든걸 다 주니깐 떠난 그 여자, 내전부를다가져간그여자., 1
6328 모든게 니멋대로,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1
6329 모든게 다 끝났습니다, 허전하시겠어요., 1
6330 모든게 잊혀지면 연애를 안할생각입니다,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도 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1
6331 모르겠어, 얼떨떨할 거예요., 1
6332 모처럼 생각나서,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1
6333 목소리 듣고싶어, 듣고 나면 더 그리울 거예요., 1
6334 몰랐던 때로 돌리고싶어,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요., 1
6335 몰래 sns 훑쳐보고 있는 나 한심해, SNS 검색하지 마세요., 1
6336 몸에서 멀어지면 맘에서도 멀어진다는데., 보통 사랑은 그렇죠., 1
6337 몸에서 받아주는건 담배밖에 없네, 이제 자신의 몸도 돌보길 바랄게요., 1
6338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말 어떻게 생각하세?,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1
6339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더 아프죠!, 1
6340 몸이 아프니깐 더 힘드네, 더 힘들기 마련이에요., 1
6341 못 놓구 있는 나., 천천히 놓아보아요., 1
6342 못돼져야 하나봐 너무 힘들어,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1
6343 못된 사람, 못된 사람은 이제 잊어버려요., 1
6344 못잊을땐잊고싶고잊혀지려하니잊기싫은것,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1
6345 못참고 문자 보냈네, 보냈으니 어쩔 수 없죠., 1
6346 못참고 연락 .끝났네., 보냈으니 어쩔 수 없죠., 1
6347 못참고 카톡 보내버렸네, 보냈으니 어쩔 수 없어요., 1
6348 못참고연락했어, 다음에는 참아보세요., 1
6349 무거운 마음이네ㅎ, 가벼워질 수만 있다면 좋을텐데요., 1
6350 무너지진 밤, 아침이 올 거예요., 1

6351 무너진 신뢰 쌓아가기,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1
6352 무더진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낼 수 있어요., 1
6353 무료 상담 받았는데 마음 접으라고 하네,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거라 생각해요., 1
6354 무모한 시작., 무모함이 원동력이 될 거예요., 1
6355 무상, 명해질 때가 많아요., 1
6356 무서운 감정기록, 습관처럼은 되지 않길 바랄게요., 1
6357 무서운 주말,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바랄게요., 1
6358 무섭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아요., 1
6359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말이 필요 없죠., 1
6360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 힘내세요., 1
6361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빨리., 힘들일이 있었나봐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1
6362 무슨마음일까, 사람 마음은 알기 힘들어요., 1
6363 무엇을 하든 늘 따라다니는 너,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1
6364 무제, 어떤 사랑이야기도 그에 대한 제목은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1
6365 문 잠겼는데 집에 아무도 없네, 힘껏 밀어보세요., 1
6366 문득 그 길을 걷다., 산책하는 것도 좋겠조., 1
6367 문득 달력을 보니, 기념일이 있나봐요., 1
6368 문득 듣고픈 노래., 저도 같이 듣고 싶네요., 1
6369 문득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요., 1
6370 문득문득 보고싶어요, 사랑했던 사람이니깐요., 1
6371 문득문득 생각나네, 불현듯 떠오르는 추억이 되버렸조., 1
6372 문자 보내놓은지 어언 한 달., 이제 기억 속에서 지우는게 좋겠어요., 1
6373 문자 왔다는데 읽다가 눈물샘 터졌어, 마음껏 우세요., 1
6374 물건들 버려야지, 버리는게 후련할지도 몰라요., 1
6375 물질적인 정리는 다했는데, 마음 정리가 필요하시군요., 1
6376 뭐 깨진지 몇달도 더 되었지만, 떠오르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나봐요., 1
6377 뭐 한두번도 아니지만, 매번 익숙해지기 힘들어요., 1
6378 뭐라도 해야 살거같은데.,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1
6379 뭘 상황인지 헷갈리네., 애매하긴 해요., 1
6380 뭔가 무섭다, 어흥!! 호랑이보다 무섭나요?., 1
6381 원지 이제 헷갈리네, 애매하네요., 1
6382 뭘해도, 생각이 날 거예요., 1
6383 미련, 사랑은 때로 미련을 남겨요., 1
6384 미련덩어리 프사 모음, 목록에서 없애는 건 어떨까요. 눈에서 멀어지면 미련도 덜해집니다., 1
6385 미련스럽다, 이별 앞에 미련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
6386 미련으로 붙잡아선 안되겠조, 미련은 또다른 후회만 남길 뿐이에요., 1
6387 미련이 남아서, 아쉬운가봐요., 1
6388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별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나봐요., 1
6389 미련인건가.? 바보인건가, 이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1
6390 미련한 여자의 기나긴 이별 이야기, 제가 들어드릴게요., 1
6391 미안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울거라 생각해요., 1
6392 미안하대, 많이 후회하나봐요., 1
6393 미안한 마음에, 진심만 전해지면 돼요., 1
6394 미안해, 괜찮아요., 1
6395 미안해 모든게 다 미안, 마음 아프네요., 1
6396 미운감정 어떻게 하나, 미워하는 감정은 우릴 잠식시킬 뿐이에요., 1
6397 미워하지않으려고., 노력중인가봐요., 1
6398 미워할수 없는 그대, 잊지 못하는 그대., 1
6399 미쳐, 그럴만 해요., 1
6400 미치겠네, 답답했나봐요., 1
6401 미치겠네, 많이 힘들죠., 1
6402 미치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봐요., 1
6403 미치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봐요., 1
6404 미치겠습니다 연락하고 싶어서, 연락하고 나면 더 힘들 거예요., 1
6405 미치겠습니다 하, 제가 고민을 들어드릴게요., 1
6406 미치겠어, 힘드시죠., 1
6407 미치도록 보고싶네., 견디기 힘들겠어요., 1
6408 미친 사랑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하셨군요., 1
6409 미친것같아, 답답한 일이 있었나봐요., 1
6410 미친게 맞는걸까., 그렇지 않아요., 1
6411 미친듯이 보고싶어, 한동안 그럴 수 있어요., 1
6412 미친듯이 보고싶어., 어느덧 사라질 거예요., 1
6413 미친듯이 잡고 싶어., 이별 직후엔 그럴 수 있어요., 1
6414 미친듯이 힘들다., 조금만 짐을 덜어보세요., 1
6415 미칠 것 같아, 답답할 거라 생각해요., 1
6416 미칠까 같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1
6417 믿은 내가 바보지, 지금이라도 헤어지세요., 1
6418 믿음이 깨진여자, 회복되긴 어렵겠어요., 1
6419 믿게 보였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랬으면 속상할거예요., 1
6420 밑바닥까지 봐서 속은 휴련하네, 적어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거예요., 1
6421 바람, 고쳐 쓸 수 없는 버릇이에요., 1
6422 바람 강제이별 너무 힘들어, 오히려 잘된거라 생각하세요., 1
6423 바람 나서 떠난 여친이 전화왔네.,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에요., 1

바람 불어 좋은 날.,살랑살랑.,1
바람난 여자친구 사람 고쳐 쓰는거 아니네,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에요.,1
바람난거 알고 헤어졌습니다.,그런 사람 깨끗하게 잊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1
바람난건가?,직접 확인해보세요.,1
바람이나 비슷한 일 용서해주신 사람 있을까 ?,있어도 계속 아플 거예요.,1
바람피지마,당연한건데 우린 걱정을 해야 하네요.,1
바보같은 마음.,스스로 비난하지 마요.,1
바보같은 짓을 했어.,너무 자책하지 마요.,1
바보같이 연락했는데 읽씹당했어,이제 바보같이 연락하지 마요.,1
바보라서 참지못하고 연락했어,이제 바보같이 연락하지 마요.,1
바보짓 그만 둘래,천천히 그만두세요.,1
바빠졌으면 좋겠어,새로운 취미생활도 시작해 봐요.,1
바쁘게 사는게 나쁘지는 않네,잡념을 없애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해요.,1
바쁜 나의 일상으로,일상으로 돌아갑시다.,1
반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그럼 나머지도 금방 정리될 거예요.,1
반가운 연락,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이었나봐요.,1
반년만에 연락해왔네,그리웠나봐요.,1
반복되는 맘의 준비,그렇게 성장하나봐요.,1
반복되는 하루,일상은 항상 반복돼요.,1
받아들여야지,받아들일 때가 되었나봐요.,1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드네,이해하기 힘드니까요.,1
밤마다 미치겠어,그분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았나봐요.,1
밤만 되면,생각날 거예요.,1
밤만 되면 너무 힘드네.,잡념이 많아져서 더 그렇나요.,1
밤만 되면 미치겠네.,아직 많이 답답한가봐요.,1
밤보다 자고 일어났을 때 더 힘들어,운동으로 기분전환을 하는 건 어떨까요.,1
밤새 술마셨나봐,신경을 고세요.,1
밤에 잠이 너무 안와여,생각이 많은가봐요.,1
밤은 길기만 하죠.,편히 잘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1
밤이되니깐 감수성 터짐,새벽은 감수성 더 터지니 얼른 주무세요.,1
밤이오는게 오늘이가는게 무섭고 힘드네,내일은 더 나은 하루일 거예요.,1
밥먹기 참 힘드네,그래도 밥 잘 챙겨 드세요.,1
방금 너무 울었어,속이 조금 후련하면 좋겠네요.,1
방금 헤어지고 왔습니다,맘고생 많았어요.,1
방금도 영영 울었네,더 울어도 돼요.,1
방법이 없는걸까?,마음 먹기 달려있어요.,1
방안 가득한 그녀의 흔적,하나씩 치워보세요.,1
배신맞은것같아,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거예요.,1
백만번쯤 들을 때 즈음이면 웃으며 다가올까,글쎄요.,1
버려졌다는느낌,비참한 느낌이에요.,1
버려줘서 고마워.,당신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1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자존감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1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하면 소름돋을까?,그건 좀 참아보세요.,1
별 받는 중입니다.,깨달음이 있길 바랄게요.,1
별써 15일이나,시간은 빠르게 흘러 가죠.,1
별써 1주일째,금방 지나갔길 바랄게요.,1
별써 2달이 되었습니다,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1
별써 6개월째라니,짧지 않은 시간인데 바쁘게 지냈나봐요.,1
별써 일년,긴 시간이 흘렀네요.,1
별써 저를 세번째 떠나갔네,이젠 그분을 놓아줄 때가 되었나봐요.,1
별써 한달이 되었다,금방 지나가네요.,1
별써 헤어진지 2년 5개월 이제야 너를 놓네,이제라도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길 바랄게요.,1
베인 곳 또 베이고,상처가 아물길 바랄게요.,1
변명,지독한 변명의 연속.,1
변해가네,사랑도 사람도 변하니까요.,1
별 그지같은 이유로 헤어지자네,그런 이별은 꼭 예고 없이 찾아오네요.,1
별거 아닌거에 속상하네,상처들로 우린 많이 예민해져 있으니깐요.,1
별똥별 떨어지는 날,소원을 빌어보세요.,1
별이진 후 무언가 사라진 날들.,무언가의 탄생을 뜻하기도 해요.,1
병장인데 이별,전역 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1
보고 싶다고 하네,흔들리나요.,1
보고싶네,보고싶을 거예요.,1
보고싶다,보고 싶은가봐요.,1
보고싶다 진짜,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1
"보고싶다, 목소리라도 듣고싶어",전화하지마요.,1
보고싶다고 만나달라고 연락하면,흔들리지마요.,1
보고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네,이별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어요.,1
보고싶습니다,그런 때라고 생각해요.,1
보고싶어,그럴 거라 생각해요.,1
보고싶어 사무칠때,다른 일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1
보고싶어 잠이 안와,그분 생각으로 가득찼나봐요.,1
보고싶어 전 남자친구가 너무,지나간 사람은 얼른 떨쳐버리세요.,1
보고싶어서 미치겠는데,지나간 사랑은 놓아주세요.,1

6497 보고싶은데, 볼 수가 없군요., 1
6498 보고야 말았네.,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1
6499 보고파, 보고싶은신가봐요., 1
6500 보고파 보고싶어, 찾아가도 후회안할 자신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1
6501 보고프다, 그럴 시기에요., 1
6502 보내야지., 힘들겠지만 그러는 편이 나아요., 1
6503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이젠 보내주세요., 1
6504 보내지 못하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때로는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아련하기도 하죠., 1
6505 보름밖에 안되었는데., 많이 힘든가봐요., 1
6506 보여주고싶은데 보여주지 못하니, 볼 수 있어요., 1
6507 보지말걸 차라리, 이제 보지 마요., 1
6508 보통의 이별통보가 아닌, 사랑의 보통은 없죠., 1
6509 복잡해지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머리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1
6510 봄은 오네, 꽃도 필 거예요., 1
6511 봄의 계절이 찾아왔네, 인생에도 봄이 오길 바라요., 1
6512 봄이라서 더욱 그리운., 새로운 사랑을 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해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길 바랄게요., 1
6513 "봐야하나, 보지 말아야 하나.", 안보는 걸 추천해요., 1
6514 부디 더 힘내줘.,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
6515 부디 돌아와, 돌아오길 바라다면 달라주세요., 1
6516 부럽네, 저도 당신이 부러워요., 1
6517 "부르고, 찾고, 기도해봐도 결국은 이미 끝난 사이다.", 언젠간 올 이별이었을까요., 1
6518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라 더 그립겠어요., 1
6519 부서진 심장, 고칠 수 있을 거예요., 1
6520 부치지 못한 편지, 이유가 있겠죠., 1
6521 분노, 사랑, 1
6522 분노감 π, 차분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봐요., 1
6523 분노만 남아, 분노는 당신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에요., 1
6524 분하고 그립고 고통스러워. 다른 여자 사랑하는 그 모습, 이제 과거를 보지 마요., 1
6525 불금에 혼자 혼술, 혼술 적당히 하세요., 1
6526 불금이네, 친구들 만나요!, 1
6527 불금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봐요., 1
6528 불꽃축제하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1
6529 불륜이 될까봐 정리하려고., 불륜보다 낫죠., 1
6530 불면증,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으면 좋으련만., 1
6531 불속 전여친한테 전화받으니 짜증나고 씁쓸하네, 복잡한 심경인가봐요., 1
6532 불토 달리고 싶다, 달리세요!, 1
6533 붙잡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면 붙잡으세요., 1
6534 붙잡고 싶어, 아직 사랑하고 있나봅니다., 1
6535 붙잡고 싶는데 이제는 늦은것 같네., 사랑의 끝은 예고 없이 다가오죠., 1
6536 붙잡고 싶는데 힘이 드네,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1
6537 붙잡고싶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하세요., 1
6538 붙잡는건 정말 아닐까?, 좋지 않을거라 생각해요., 1
6539 붙잡으려 말 것!,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1
6540 붙잡으려고, 많이 노렸했군요., 1
6541 붙잡은지 일주일만에 연락왔어.,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1
6542 비 오니까 또 생각나네., 빗소리가 더 그렇게 만들어요., 1
6543 비가 많이 오니까. 너가 떠오른다., 비를 닮은 너., 1
6544 비가 오니 이 노래가 생각 나네, 비와 당신., 1
6545 비가 오니. 울적하네, 그러게요.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1
6546 비가 와, 우리 마음도 젖어가요., 1
6547 비가오네, 그리고 멈출 거예요., 1
6548 비가오니 그런가, 감성적이기 딱 좋죠., 1
6549 비가오니까, 그 분 생각이 나나봅니다., 1
6550 비가오면 생각나는 노래, 불러주세요., 1
6551 비극., 인연이 거기까지인가봐요., 1
6552 비는정말 싫다, 날씨에 따라 감정도 변하죠., 1
6553 비많이오네~, 감기 조심하세요., 1
6554 비밀번호 뭐였더라, 회원정보 찾기를 해보세요., 1
6555 비오네, 주룩주룩., 1
6556 비오는날, 마음이 가라 앉죠., 1
6557 비오는데 우산 챙겨 갔는지 모르겠네, 걱정하는 마음이 예쁘네요., 1
6558 비오니까 같이 막걸리먹던게 생각나네ㅎㅎㅎ, 한 잔 드세요!, 1
6559 비참하네., 당신 정말 멋져요., 1
6560 비참하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1
6561 빌어먹을., 제길., 1
6562 빨리 일상속으로 돌아가고픈데., 지금도 일상이에요., 1
6563 뻘하다, 한가지만 보면 몰라요., 1
6564 사과해야 하나?, 사과할 건 사과해야죠., 1
6565 사권시간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리운가봐요., 1
6566 사권지는 며칠 안됐었지만, 감정이 깊었나봐요., 1
6567 사는게 힘들어., 가끔은 힘내지 말고 내려놔봐요., 1
6568 사람 마음이란게 참, 간사하죠., 1
6569 사람 일 죽으란 법은 없겠지, 안 죽어요!, 1

6570 사람 훗병나게하는거도 가지가지,마음의 짐을 좀 내려놔요.,1
6571 사람과의 이별은 아니구,사소한 다툼이었으면 합니다.,1
6572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군,사람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1
6573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1
6574 사람은 역시 기억하고싶은것만 기억하나봐,기억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미화되니까요.,1
6575 사람을 잊는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잊혀져가기도 한답니다.,1
6576 사람을 잊는다는 것에 대한 모순,완전히 기억에서 삭제할 순 없죠.,1
6577 사람이 변하나?,사랑은 변하고 사람은 안 변해요.,1
6578 사람이 참 감사하죠.,사랑이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어요.,1
6579 사랑 없이도 잘 살았는데,사랑 없이도 잘 살았던 자신으로 돌아가봐요,1
6580 사랑 참,어렵죠.,1
6581 사랑 참 별거없네.,단순하기도 해요.,1
6582 사랑 참 어렵다,사랑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1
6583 사랑 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1
6584 사랑.이별.추억.미련,사랑의 잔해들.,1
6585 사랑과 정 끊기 어렵네,사람이니깐요.,1
6586 사랑만으로 다 될줄 알았던 우리들,그때는 우리 다 순수했던 걸까요.,1
6587 사랑에 유효기간 있는걸까,그 유효기간은 자신이 정하는 거죠.,1
6588 사랑에 힘들어 하는 님들께 같이 공유할까 합니다,공유 부탁드립니다.,1
6589 사랑은 가슴으로 이별은 머리로,맞는 말이에요.,1
6590 사랑은 부작용과 휴유증을 길게 남긴다,사랑한 만큼이요.,1
6591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 한다는 그 말 믿어보려구,좋은 사랑 만나 치유하길 바랄게요.,1
6592 사랑은 상처를,남기고 가요.,1
6593 사랑은 찾아가는 것일까. 사랑은 찾아오는 것일까!,어떨 땐 찾아가고 어떨 땐 찾아오죠.,1
6594 사랑을 믿으세요?, 믿습니다.,1
6595 사랑을 했기에 떠나야만 했다?,이해할 순 있어요.,1
6596 사랑의 기준은 뭘까,사랑의 척도는 없어요.,1
6597 사랑의 반대말.,무관심.,1
6598 사랑의 아픔은 사랑으로 치료한다,가능하다고 생각해요.,1
6599 사랑의 유효기간,이별의 유통기한이 없는 것처럼 사랑의 유효기간도 없어요.,1
6600 사랑이 끝나고 나서,원망과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가만히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1
6601 사랑이 끝나고 할 일?,원망과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가만히 내려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1
6602 사랑이 뭘까?,사랑은 알 수 없어요. 단지 느껴질 뿐.,1
6603 사랑이 익숙해지면 정으로,정도 사랑의 일부니까요.,1
6604 사랑이라는 감정 참 우습네,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들었다 놔다 하지요.,1
6605 사랑이란 뭘까?,사랑에는 답이 없어요.,1
6606 "사랑이란거 하고 받고싶은데,.",당신이 사랑하는 것보다 많이 받게 될 거예요.,1
6607 사랑이후 다시 세상은 회색빛으로.,다시 무지갯빛이 될 거예요.,1
6608 사랑하는사람,보고 싶나봐요.,1
6609 사랑하던 그 사람.,떠오르는 시간인가봅니다.,1
6610 사랑한다는것,헤아릴 수 없는 것.,1
6611 사무실에 나왔지만 손에 안 잡히네,복잡한 심경인가봐요.,1
6612 사실 관계 7년을 정리했습니다.,정말 쉽지 않을 시간이었을텐데 맘고생 많았어요.,1
6613 사업 시작해도 뭘까,확신이 있을 때 시작해보세요.,1
6614 사진 다 지우진 못하겠네,그 때의 나를 지우지는 마세요.,1
6615 사진을 못지우겠네,천천히 지워도 돼요.,1
6616 사진을 보다가,많은 생각이 나겠네요.,1
6617 사진을 지웠습니다,좋은 선택입니다.,1
6618 사진을 지웠어,잘 하셨어요.,1
6619 사진첩,많은 생각이 나겠네요.,1
6620 산넘어 산이네.,고통의 연속이기도 하죠.,1
6621 살고 싶다.,당신은 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예요.,1
6622 살려줘 라는 말이 무심코 튀어 나온다,정말 힘드신가봐요.,1
6623 살만 찌네,맛있는 거 먹고 기분이 나아졌다면 걱정은 넣어두세요.,1
6624 살빼고 담배 끊고 다 했는데!.,당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를 한 거예요.,1
6625 살아간다,그렇게 살아가곤 해요.,1
6626 삼년 사랑하고 이별한지 몇 시간,긴 시간인만큼 실감이 나지 않겠죠.,1
6627 삼다리 여친,헤어지세요.,1
6628 삼십대를 홀러당~~~~,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죠.,1
6629 삼주라는 시간이 흘렀네,더 많은 시간이 흐를 거예요.,1
6630 상념,마음이 복잡한가봐요.,1
6631 상담좀해주세 남자입니다.,네 말씀하세요.,1
6632 상대가 바람퍼서 헤어진지 1년이 지났습니다,그런 재활용도 안되는 사람은 이제 버리세요.,1
6633 상대방의 후폭풍 따위는 없어,동차 가고 벤츠 올 거예요.,1
6634 상대와 헤어지고 돌아오는길,그 길에서 자신을 만나길 바랄게요.,1
6635 상상했던 미래엔 항상 그가 있었는데,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1
6636 상처,약을 발라 드릴게요.,1
6637 상처 받고 헤어졌습니다.,나쁜 사람이네요.,1
6638 상처 받기 싫다,무덤덤해질 수 있거예요.,1
6639 상처 안받아봤어?,저도 상처를 받아봤지요.,1
6640 상처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마음을 보듬어주다가 자신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니까요.,1
6641 상처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금방 낫고 새 살이 돋을 거예요.,1
6642 상처가 역시 크네,금방 낫고 새 살이 돋을 거예요.,1

6643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도 아픔은 무더질테니., 그렇게 잊어가는 건가봐요., 1
6644 상처를 받는다는건, 알면서도 데이는 것., 1
6645 상처주지 맙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6646 상처준 사람 잘살고 있더라., 당신도 잘 살고 있길 바랄게요., 1
6647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내가 못잊겠으면 연락을 했겠조., 맞는 말이에요., 1
6648 상황이 힘들어서 헤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1
6649 새 남자가 생겼나봐, 신경 쓰지 마세요., 1
6650 새 남자가 생겼대, 새 사람 만나면 돼요., 1
6651 새 여친이 생겼더라구, 이젠 신경을 거둬두세요., 1
6652 새로운 사람을 만날 노력., 이별을 잊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1
6653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사랑은 걱정하지 말아요., 1
6654 새로운여자가 생긴걸까?,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1
6655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응원해요., 1
6656 새벽, 힘든 시간이죠., 1
6657 새벽 1시 30분, 감성적인 시간이네요., 1
6658 새벽 3시, 잠 못 드는 밤이네요., 1
6659 새벽에 그만 깨고싶어, 그분 생각이 덜하면 좋을텐데요., 1
6660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서 하는건., 습관이 무섭죠., 1
6661 새벽에 술먹고 카톡을 먼저했어., 술이 웬수네요., 1
6662 새벽에 울다지쳐 신천에나와 지금까지있네, 내일은 나은 하루이길 바랄게요., 1
6663 새벽에 전화가 왔네, 약해지면 안돼요., 1
6664 새벽에 카톡이 왔네., 왜 그 시간에 연락을 했을까요., 1
6665 "새사람을 만날 듯, 전 여친에게 미안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새사람에게 충실하세요., 1
6666 새장 같은 집, 새장이 그리울 때도 있는걸요., 1
6667 "새출발, 트라우마",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1
6668 새해 복마니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6669 새해부터는 당신 생각 안하러 했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은가봐요., 1
6670 생각 안나는 방법 없나, 전 다른 일을 많이 벌려요. 정신없이 바쁘면 잊혀지더라고요., 1
6671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일 거라 믿어요., 1
6672 생각의 변화, 변화의 시작이죠., 1
6673 생각할 가치조차 없잖아π, 이제 놓아버려요., 1
6674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는 그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1
6675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그녀,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극복해보세요., 1
6676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남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1
6677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남친, 많이 고민한 결과일거예요., 1
6678 생각할수록 진짜 화나고 분하네 3년을 만나고 전화로 이별통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당신이 버린 거라 생각하세요., 1
6679 생리통 때문에 배 아파, 힘들겠어요., 1
6680 생생한 꿈, 꿈이 현실이기 바랐지만., 1
6681 생일축하했다 바보야, 제 생일도 축하해 주세요., 1
6682 샤워할 때 눈을 감으면, 아른거리나요., 1
6683 서로 그냥 밀바닥을 보여준것 같아, 그게 진짜 사랑이죠., 1
6684 서로 나쁘게 헤어지지 않고 싶는데, 헤어짐은 처음이니까., 1
6685 서로 위로하며 함께 극복할 사람, 그런 사람 만나요., 1
6686 서로가 원치 않았던 이별, 누군가의 반대로 헤어졌나봐요., 1
6687 서로의 조각, 기억의 편린일 뿐이에요., 1
6688 서른초반. 전 좀 게시글 보며 안타까워.,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1
6689 설레었던게 언젠인지, 곧 설레는 순간이 올 거예요., 1
6690 설마했던 진짜 이별, 앞일은 알 수가 없나봐요., 1
6691 성격이 좋은 건지., 가끔은 참치 말고 내려놓기도 하세요., 1
6692 성격적으로 안맞는걸 알지만 마음은 그게 아님을 알땐, 달라지는게 없다면 인연이 거기까지 아닐까요., 1
6693 성급했던 것 같네, 실수할 수도 있지요., 1
6694 세달 끝에 재회 실패, 재회가 쉽진 않아요., 1
6695 세상 젤 아픈 이야기는.!! , 이뤄지지 못한 모든 사랑이야기죠., 1
6696 세상 참 모르는 일이네, 모든 일은 알기 어려워요., 1
6697 세상 혼자인 기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1
6698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제가 영원을 약속할게요., 1
6699 세상에서 제일 이뻐던 내 전 여자친구에게, 하고싶었던 말을 해보세요., 1
6700 세상은 혼자인거죠? , 혼자이면서 함께하죠., 1
6701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인생도 그럴 거예요., 1
6702 셀프웨딩이 유행이라, 혼자 준비하기는 조금 벅찰텐데요., 1
6703 소개팅 거절도 힘든거네., 안 힘든 게 없네요., 1
6704 소식이 궁금해~, 연락 확실하게 끊으세요., 1
6705 소중한 것을., 고히 간직하세요., 1
6706 소화가 안되고 가슴 한 켠에 응어리가 있는 거 같네., 많이 답답할거라 생각해요., 1
6707 속시원해~~안녕 잘가~~~, 이제 정말 안녕., 1
6708 속에 있던 소리 다 하고고 완전 끝냈어, 적어도 미련은 남지 않을 거예요., 1
6709 속이 후련하네, 후련하다니 다행이에요., 1
6710 손가락이 원망스럽네ㅜㅜ, 실수했나봅니다., 1
6711 술로 7개월 넘어가네,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1
6712 술로들만 이해 π, 저도 충분히 이해되네요., 1
6713 솔직히 그녀가 미친듯이 불행했으면 좋겠다., 진심은 그렇지 않을거란 거 알아요., 1
6714 솔직히 말하면 헤어지고 싶어, 고민하고 있다면 늦기 전에 이별을 고하세요., 1
6715 수면제 먹고 다섯시간이나 잤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1

6716 수백번 싸우고 수백번 화해, 너무 안맞으면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1
6717 수신차단의 의미, 확실한 거리두기., 1
6718 순수하게 좋아했지만 개는 너무도 약은애였어, 동차 가고 벤츠 올 거예요., 1
6719 순진했던게 죄인가.,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분의 죄만 있을 뿐., 1
6720 술 먹고 싶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1
6721 술 먹으니 연락하고 싶어지네, 연락쳐 삭제하세요., 1
6722 술 한잔 했더니 너무 보고 싶네., 술 기운이 그렇죠., 1
6723 술기운에 연락했는데.,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1
6724 술기운을 빌려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상대를 위한 배려가 부족했네요., 1
6725 술마시고 있네, 한 잔하기 좋은 날이네요., 1
6726 술마시면 안되는데, 가끔은 괜찮아요., 1
6727 술만 마시면., 연락하지마요., 1
6728 술만 먹으면 연락 안되는 여친, 걱정되겠어요., 1
6729 술만 먹으면 전화를 안 받아, 화장실 갈때 연락하라고 해봐요., 1
6730 술먹고 병신짓거리 했네여, 술이 웬수예요., 1
6731 술먹고 연락도 없는, 걱정되시겠어요., 1
6732 술먹고 연락오네, 약해지면 안돼요., 1
6733 술먹고 집앞에 찾아온남자, 상대에게 휘둘려선 안 돼요., 1
6734 술병이네, 숙취해소제가 도움이 될까요., 1
6735 술을 끊어야겠어., 술은 끊는게 좋죠., 1
6736 술을 마시니까 더 생각나는 날이에, 기억에 취해서 그럴 거예요., 1
6737 술을 마시러 나갈까. 어디론가 떠나볼까., 어디든 좋죠., 1
6738 술이 보약도 아니고, 술은 끊는게 좋죠., 1
6739 술이 댜수지, 혹시 전화를 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1
6740 술이야, 맨날 술이야., 1
6741 술주정, 그분에게 술 취해 전화하는 것만 아니면 돼요., 1
6742 술취해서 전화했어, 후회하지 않을까요., 1
6743 술한잔 먹고 적어, 감성적이기 딱 좋죠., 1
6744 술한잔해야 하루가 가, 술 마시다가 더 무너져요., 1
6745 술한잔했어, 한 잔하기 좋은 날이죠., 1
6746 숨막히네, 숨 쉴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1
6747 숨막히는건 없어졌네, 숨 쉴 수 있어 다행이네요., 1
6748 숨어서 보기., 다 티나요., 1
6749 쉬는 중입니다., 휴식도 필요하죠., 1
6750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겠죠., 1
6751 쉽지않은 날들, 힘내세요., 1
6752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했네, 좀 더 관대해져도 괜찮아요., 1
6753 스타트업하면 위험할까, 확신이 들 때까지 준비해보세요., 1
6754 스트레스성 위통이, 약 드세요., 1
6755 "슬퍼, 그리고 아려", 상처에 약을 발라 드릴게요., 1
6756 슬퍼., "후회, 상상, 자책 모두 멈출 때가 됐어요.", 1
6757 슬퍼죽겠습니다, "후회, 상상, 자책 모두 멈출 때가 됐어요.", 1
6758 슬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러구, 잘하고 있어요., 1
6759 슬픈 메리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봐요., 1
6760 슬픈 예감대로 되어가는 현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1
6761 슬픈 이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1
6762 슬픈게 솔직하면 안되는건가?, 솔직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솔직해도 돼요., 1
6763 슬픔이 더 커지는 아침이네, 가벼운 운동으로 기분 전환 해보세요., 1
6764 슬픔활용법., 잠깐 고독한 것도 분위기 있을지도 몰라요., 1
6765 습관이 무서워., 익숙함이 무서운 것 처럼요., 1
6766 습관이라는게 무섭네., 습관처럼은 되지 않길 바랄게요., 1
6767 습관처럼 생각나, 습관처럼은 되지 않길 바랄게요., 1
6768 시간 갖는 거, 마음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1
6769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1
6770 시간은 눈물과 흐르고, 언젠간 눈물은 멈추고 시간은 계속 흐르거예요. 그럼 괜찮아질 거예요., 1
6771 시간을 갖자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별이 다가왔을지도., 1
6772 시간을 돌리고 싶네, 시간을 돌릴 수 없어요., 1
6773 시간을 되돌리고싶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1
6774 시간이 가고 있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1
6775 시간이 약이긴 하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1
6776 시간이 약이긴 한가봅니다, 시간의 마법이 통했나 봅니다., 1
6777 시간이 약이란다데 독이 되는거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1
6778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싶어, 눈에서 멀어진 순간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서 그럴 거예요., 1
6779 시간이갈수록, 당분간은 더 힘들지 몰라요., 1
6780 시간이라는게 참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죠, 덤덤하게 익숙해지나봐요., 1
6781 시간이란 약의 부작용,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1
6782 시계를 돌려받고 싶은데., 비싼 거면 받아야죠., 1
6783 시도때도없이 생각나네 그녀가, 바로 잊기는 힘들 거예요., 1
6784 시련, 더 행복해지려고 하나봐요., 1
6785 시원섭섭하지만 후련하네., 한결 나아졌길 바랄게요., 1
6786 신경쓰지 말아줄래 라고 하네, 이제 정말 끝인가봐요., 1
6787 신나게 산책했습니다, 탁월한 행동이예요., 1
6788 신청했더니 정말로 왔네 ㅎㅎ, 좋은 결과길 바라요., 1

6789 신혼여행 가서 돌아오기 싫다, 휴가를 붙여보세요., 1
6790 싫어, 싫어하지 말아요., 1
6791 싫어지는것., 그럴 수 있어요., 1
6792 심각합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1
6793 심난하네, 마음이 복잡했나봐요., 1
6794 심난한 하루, 내일은 나은 하루이길 바랄게요., 1
6795 심란하네, 마음이 복잡한가요., 1
6796 심리상담 받았어, 잘 다녀오셨어요., 1
6797 심심, 저랑 같이 놀아요., 1
6798 심심해, 친구들과 연락해보세요., 1
6799 심장이 주저 앉은듯 합니다, 충격이 컸을거라 생각해요., 1
6800 심장이 터질거 같네, 많이 답답하신가요., 1
6801 싱송송송π, 한동안은 그럴지도 몰라요., 1
6802 싸구려 인생,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어요., 1
6803 싸웠다,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1
6804 썸타는거 친구한테 이야기 하고 싶다., 확실해지면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1
6805 썼다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우고, 마음 정리가 필요하시군요., 1
6806 쏘주, 소주 한 잔., 1
6807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1
6808 쓰레기, 그렇지 않아요., 1
6809 쓰레기 맞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렇죠., 1
6810 쓰레기를 안고 있는 나, 고민하고 있다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해요., 1
6811 쓰레기새끼, 기분이 좀 풀렸길 바랍니다., 1
6812 씹씹, 헛헛하죠., 1
6813 씹씹하네., 제가 있잖아요., 1
6814 아 괜히 헤어지자고 했나봐, 어떤 결정이든 후회가 남을 수 밖에 없어요., 1
6815 아 꿈에서 맨날 나와,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으면 좋을텐데 안타깝죠., 1
6816 아 또 참지 못하고 카톡 프사를 봐버렸네, 아예 카톡에서 삭제하세요., 1
6817 아 성격 좀 고치고싶어, 성격은 계속 바뀌어요., 1
6818 아 아른거려, 그럴 때라고 생각해요., 1
6819 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잊어볼까, 재밌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1
6820 아 오늘 힘드네, 힘든 하루였나요., 1
6821 아 오늘 힘드네ㅜㅜ, 당신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6822 아 잠수라니,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1
6823 아 정말 지옥이네., 이별지옥인가봐요., 1
6824 아 혼자있는게 너무 무섭네, 제가 있어드릴게요., 1
6825 아! 어찌해야 되나,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1
6826 아. 상담 좀 해 줘, 네. 알겠습니다., 1
6827 아. 힘든 목일이네, 곧 주말이 올 거예요., 1
6828 아. 별받고 있는거네, 달게 받으세요., 1
6829 아. 빌어먹을 이제야 알다니.,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더 이상의 실수는 없을 거예요., 1
6830 아닌건 아니다, 아닌건 아니죠., 1
6831 아따 옛먹일 방법 없나, 증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1
6832 아련하게 조금씩 잊게 되나보네, 그렇게 잊어가는 건가봐요., 1
6833 아름다운 사랑도 아니고 이젠 뭐., 아름다운 이별도 없어요., 1
6834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걸까 π, 이별은 아름답지 않죠., 1
6835 아름답게 헤어지고 회사 그만둔 전남친, 아름다운 이별은 존재하지 않아요., 1
6836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니예요., 1
6837 아무것도 아닌 글에 화가 치밀어 오르네, 심호흡 하세요., 1
6838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날이 올거예요., 1
6839 아무것도 안되네, 잘 될 거예요., 1
6840 아무것도 하기싫어, 저도요., 1
6841 아무도 안 놀아줘, 혼자도 좋아요., 1
6842 아무래도 헤어져야 할까 봐,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1
6843 아무리 기다려도 이젠 안돌아오나봐, 그게 끝이라면 받아들여야 해요., 1
6844 아무리 짹 붙들어도 무너지는건 한순간,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1
6845 아무리 매달려도, 돌아서지 않을 수 있어요., 1
6846 아무리 미친놈 욕을해도, 그리워지나요., 1
6847 아무리 생각 안하러 해도, 눈 앞에 선언하기도 해요., 1
6848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먹히더라구", 먹고 살아야죠., 1
6849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싶어, 천천히 잊혀질 거예요., 1
6850 아오 그놈에 꿈,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으면 좋으련만., 1
6851 아이디 생각 안나, 회원정보 찾기를 해보세요., 1
6852 아직 그리운 그대, 이젠 기억을 놓아주세요., 1
6853 아직 멀었나봐, 자신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1
6854 아직 아주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말야, 그분도 그랬을거예요., 1
6855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받아들일 때가 되었나봐요., 1
6856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 스스로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1
6857 아직도 그대로인걸, 변하는 건 사랑이겠죠., 1
6858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한데, 사랑은 희미해져 가네요., 1
6859 아직도 꿈같고 너무 괴로워, 한동안은 그럴지도 몰라요., 1
6860 아직도 남았나봐, 미련이 남지 않았길 발바니다., 1
6861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올 거예요., 1

6862 아직도 널 감싸는 내가 싫다., 자신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1
6863 아직도 눈물 나, 토닥여주고 싶네요., 1
6864 아직도 많이 죽을것같아,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요., 1
6865 아직도 멍청하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1
6866 아직도 심장이 뛰고있어., 심장은 항상 뛹니다., 1
6867 아직도 이별중인가봅니다., 이별의 끝일지도 몰라요., 1
6868 아직도 잊지 못하나봐, 자신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1
6869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 한없이 사랑한 사람이었나봐요., 1
6870 아직도 잊지 못했는가봐, 한없이 사랑한 사람이었나봐요., 1
6871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시간이 걸리려나봐요., 1
6872 아직도 적응이 안되네, 익숙해지는데는 시간이 걸려요., 1
6873 아직도 헛갈리네, 직감을 믿으세요., 1
6874 아직도 힘들지만., 이겨낼거라 믿어요., 1
6875 아직도. 아직 인가보다., 곧 끝날 거예요., 1
6876 아직도 잊지 못했던거니,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1
6877 아직은 아닌것 같은데, 언젠간 올 순간이었을 거예요., 1
6878 아침마다 왜 이러는지, 가벼운 운동하면서 기분 전환 해보세요., 1
6879 아침부터 답답하네, 가벼운 운동하면서 기분 전환 해보세요., 1
6880 아침부터 또 눈물이 나네, 따뜻한 물 마시고 진정해보세요., 1
6881 아침에 눈 뜨는게 힘들어, 그 분 생각에 잠을 설쳤나봐요., 1
6882 아침에 벌떡 일어났네., 안 좋은 꿈이라도 꿔나봅니다., 1
6883 아침이 젖 힘드네, 차라리 꿈이었음 좋겠어요., 1
6884 아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6885 아프고 또 아프지만, 아스피린 한 알 먹어보세요., 1
6886 아프고 힘드네, 진통제 한 알 먹어보세요., 1
6887 아프네, 지쳐서 그런가봐요., 1
6888 아프니까 더생각나고 힘드네, 아플땐 더 약해지나봐요., 1
6889 아프다, 조금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1
6890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지만, 헤어지는게 답인 관계는 있더군.", 만남의 끝을 아는 것도 중요한가봐요., 1
6891 아픈 상처, 약이 없는 상처인가봐요., 1
6892 아픈 첫사랑, 첫사랑니의 고통처럼 시린가봐요., 1
6893 아픈데 연락하기 싫어, 제가 곁에 있을게요., 1
6894 아픔도 이제 안녕, 슬픔도 이젠 안녕., 1
6895 아픔은 덜해지는것 같은데 미련은 더욱 많아지네, 미련없는 사랑은 없나봐요., 1
6896 아픔은 빨리 잊혀지는법,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1
6897 아픔을 지니고 사랑한다는 것,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거예요., 1
6898 아휴., 에휴., 1
6899 아휴~ 싱송송송한 하루, 그러게요. 오늘 하루 마음이 복잡했나봅니다., 1
6900 안 돌아올거 아는데, 기다리지 마세요., 1
6901 안 맞는다면 헤어진 우리, 인연이 거기까지인가봐요., 1
6902 안녕을 고하며, 잘 보내주었나요., 1
6903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1
6904 알고보니 나만 바보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1
6905 알고보니 환승이별 인것 같아, 사랑의 예의가 없네요., 1
6906 알수가 없네., 맘을 알 길이 없지요., 1
6907 앞으로 힘든 시간 될것같습니자, 바로 잊기 힘들겠지만 시간은 흐르고 다시 사랑은 찾아 올 거예요., 1
6908 앞이 캄캄합니다π,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주세요., 1
6909 애를 나혼자 키우는 것 같아, 힘 빠지는 이야기네요., 1
6910 애인이 생겼습니다., 신경 쓰이긴 하지만 무시하는게 좋겠어요., 1
6911 야, 네, 1
6912 야 너!, 네, 1
6913 야구 경기 보러 꼭 함께 가자던 그 남자, 더 좋은 사람이랑 가세요., 1
6914 야이 겁나게 미운 여자야!!, 기분이 좀 풀렸길 바랍니다., 1
6915 약 올라, 더 잘 살면 돼요., 1
6916 약 한달 전 헤어진 그에게, 연락할 생각 하지마세요., 1
6917 양가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조., 1
6918 양다리, 헤어지세요., 1
6919 양다리? 어장관리?, 아니길 바라요., 1
6920 애는 싸우기만 하면 연락이 안돼, 혼자 풀릴 때까지 놔둬야하는데 기다리는게 힘들 거예요., 1
6921 어느덧 이별 5주차, 힘든 시간 잘 버텼어요., 1
6922 어느덧 한달., 힘든 시간 잘 견뎠어요., 1
6923 어느덧 헤어진지도 4개월이 됐네, 시간은 흐르고 다시 사랑이 올 거예요., 1
6924 어느새 나이가 30이네., 새로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네요., 1
6925 어느새 한달인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1
6926 어느새 헤어진지 한달, 짧은 않은 시간이에요., 1
6927 어디까지 가야 끝이보일지, 끝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힘들죠., 1
6928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이김에 떠나보세요., 1
6929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지., 차분히 얘기해봐요. 언제나 여기 있을게요., 1
6930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을까요., 1
6931 어떡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1
6932 어떡해야 될가?,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1
6933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1
6934 어떤 놈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상한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1

6935 어떤 마음이었을까?,가볍진 않았을거예요.,1
6936 어떤 마음인걸까,사람 맘을 알 길이 없나봐요.,1
6937 어떤 작별일지,이별에 척도를 두지 말아요.,1
6938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인연이 거기까지인가봐요.,1
6939 어떻게 맘정리를할까?,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1
6940 어떻게 별주어야 할까.,그대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저 무시하세요.,1
6941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태연하게 시작해보세요.,1
6942 어떻게 하면 좋을까.,고민이 되시겠어요.,1
6943 어떻게 하면좋을까,고민이 되시겠어요.,1
6944 어떻게 해야 마음을 돌릴 수 있나,더 늦지 않게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을 전해보세요.,1
6945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가 제 진심을 알아줄까,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1
6946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답답하신가봐요.,1
6947 어떻게 해야 할까?,잠시 차분하게 생각해봐요.,1
6948 어떻게 해야돼?,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1
6949 어떻게 헤어져,생각한대로 전하면 될 것 같아요. 상처는 주지 말아요.,1
6950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모르겠어,생각한대로 전하면 될 것 같아요. 상처는 주지 말아요.,1
6951 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저 수긍할 뿐이에요.,1
6952 어떻게하죠? 이 상황을,잠깐 눈을 감고 차분하게 받아들여요.,1
6953 어떻게해야 할까,어떤 선택을 하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1
6954 어려운일,특히나 사랑은 그래요.,1
6955 어렵네,쉽지 않을 거예요.,1
6956 어리석은 나,모두가 사랑 앞에 어리석게 변해요.,1
6957 어이 없는 헤어짐,예상하지 못한 이별이었네요.,1
6958 "어이없는연애? 끝난걸까, 진행중일까.",언젠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1
6959 "어제 결국 또 특보내버렸네,",달라지지 않는다면 연락은 하지마세요.,1
6960 어제 그녀를 또 보았어.,많이 놀랐겠어요.,1
6961 어제 꿈에나온너.,그리워했나봅니다.,1
6962 어제 만났네.,좋은 만남이었길 바라요.,1
6963 어제 만났어,충분히 대화를 나눴길 바랍니다.,1
6964 어제 비 오는 창가를 바라보다 문득 니 생각났어,비가 오는 날은 맘이 싱숭생숭하죠.,1
6965 어제 새벽에 그녀에게 전화가왔습니다,심경의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1
6966 어제 새벽에 이별했어.,한동안 힘들겠어요.,1
6967 어제 연락 왔는데 또 상처줘서 또 헤어졌어π,자신이 가장 중요하니까요.,1
6968 어제 연락이 왔어. 제가 매달려서 온거같아,정말 잊었다면 연락오지 않았을 거예요.,1
6969 어제 연락했는데ㅋㅋ,말씀해보세요.,1
6970 어제 오늘 멘탈이 나갔네,그럴만해요.,1
6971 어제 이별 했습니다.,마음이 복잡하겠어요.,1
6972 어제 이별을 했는데 진짜.어이가없네.,생각지 못했던 이별이었나봐요.,1
6973 어제 이별을 했습니다,허전하시겠어요.,1
6974 어제 이별하고 맘이 너무 아파,토닥토닥. 제가 위로해줄게요.,1
6975 "어제 이별했고, 잡고 싶은데 도와주세",일단 늦지 않게 연락을 해보는게 어떨까요.,1
6976 어제 정말 사랑한 그녀와 헤어졌습니다.,울어도 돼요. 잠시 쉬어가요.,1
6977 어제 정말로 완전히 보냈습니다,그동안 힘들었죠.,1
6978 어제 헤어졌습니다,토닥토닥. 제가 위로해줄게요.,1
6979 어제 헤어졌어,힘껏 울고 천천히 털어내길 바랄게요.,1
6980 어제 헤어지자했어.,고민 많았을거라 생각해요.,1
6981 어제 헤어진 여자친구 연락 왔다고 글 썼는데 ㅋㅋ,좋은 연락이었길 바랍니다.,1
6982 어제 헤어진 여친 학교 다녀 왔어.,남의 학교 이제 가지 마세요.,1
6983 어제가 극에 달했었는데,지금은 좀 괜찮아졌길 바랄게요.,1
6984 어제가 생일이었는데.,챙겨주지 못해 미안해하지 마세요.,1
6985 어제는 그녀의 결혼식.,이제 그녀를 잊어주세요.,1
6986 어제와 오늘 문득문득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눈물 닦아주고 싶네요.,1
6987 어제이별한 남자입니다,많이 괴로웠을거라 생각해요.,1
6988 어제전화가왔습니다,기다리던 전화였나봐요.,1
6989 어젯밤 꿈에나타났습니다,은연 중에 생각을 했나봐요.,1
6990 어젯밤 꿈을 꿔어,어떤 꿈이었나요.,1
6991 어젯밤 집 앞에서 잠깐 만났어.,마음이 복잡하겠어요.,1
6992 어젯밤. 헤어졌던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마음이 복잡하겠어요.,1
6993 어젯밤에 1주일 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 갔다 왔어.,헤어지고 만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1
6994 어젯밤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네,건들지 않는 편이 좋았을 거예요.,1
6995 어째서,어째서일까요.,1
6996 어째야 할까,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1
6997 어찌면 좋을까?,제가 도와줄게요.,1
6998 어찌쥌,어찌면 좋을까요.,1
6999 어쩔 수 없겠쥌,어쩔 수 없는 일도 있을 거예요.,1
7000 어쩔수 없는,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지도 몰라요.,1
7001 어찌해야 될까?,어찌하면 좋을까요.,1
7002 어찌해야 하나.,어찌하면 좋을까요.,1
7003 어찌해야 할까,차분히 생각해봐요.,1
7004 억울한 현실,현실은 항상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1
7005 억지로 붙여놓은 깨어진 도자기,언제 깨질지 모르겠어요.,1
7006 억지로 붙였던 깨어진 도자기의 결말,당장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걸요.,1
7007 언제가 제이야기 한번 들어줄 날이오겠죠?,제가 들어드릴게요.,1

7008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 마음을 풀어주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1
7009 언제까지 이렇게 잊지 못하고 힘들기만 할까, 모든 이별은 힘든가봐요., 1
7010 언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1
7011 언제쯤 괜찮아지려나, 온전히 행복할 날이 올 거예요., 1
7012 언제쯤 괜찮아질런지., 언제든지 괜찮아질 거라 믿어요., 1
7013 언제쯤 무뎌질까, 무뎌지는 순간이 올 거라 믿어요., 1
7014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1
7015 언제쯤 예쁘게 화장 잘할까, 하다보면 늘어요., 1
7016 언제쯤 이 끈을 놓아야 할까. 지금일까.?, 달라지지 않는다면 빠를수록 덜 힘들거예요., 1
7017 언제쯤 잊혀질까, 쉽진 않을 거예요., 1
7018 "언제쯤 잊혀질런지,,", 생각을 안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1
7019 언제쯤 편히 잠들수있을까?, 생각을 안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1
7020 언제쯤이면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1
7021 언젠가 나아지겠조?, 나아질거예요., 1
7022 언젠가 마주치더라도 너만 보일거야.,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1
7023 언젠가 하는 거죠, 언젠간 할 거예요., 1
7024 언젠가는 끝, 끝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1
7025 언젠간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겠지., 모든 것을 기억할 순 없으니까요., 1
7026 언젠간 먼저 연락오겠조?, 붙잡고 싶다면 먼저 연락해보세요., 1
7027 언젠간 모두 잊고, 언젠간 그 순간이 올 거예요., 1
7028 얼마나 더 지나야 아물런지, 이별에는 면역이 잘 안되나 봐요., 1
7029 얼마나 지나야 잊혀지나?, 쉽진 않겠지만 시간이 해결해줄거라 믿어요., 1
7030 얼마만큼 사랑을 받으셨나??, 사랑을 가능하지 말아요., 1
7031 얼마전에 욱 이빠이 하고 다 끝냈는데., 미련이 남지 않았길 바랍니다., 1
7032 엄마아빠랑 다시 같이 살아야돼, 형편대로 하세요., 1
7033 업무 스트레스 넘 심해, 회사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1
7034 영영 우는꿈 꿔, 심난했겠어요., 1
7035 애궁, 자세히 말해주세요., 1
7036 에라이!!!, 자세히 말해주세요., 1
7037 에이구 이제 그만 돌아와. 이제 그만 울고., 붙잡고 싶다면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1
7038 예혀 힘드네여,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1
7039 예휴, 힘든 일이 있었나봐요., 1
7040 예휴 잊기가 힘드네, 사람을 잊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봐요., 1
7041 예휴 추억을지우네, 기억의 편린일 뿐이에요., 1
7042 예휴 후폭풍인가봐, 이별에는 항상 후유증이 있어요., 1
7043 예휴., 아이구., 1
7044 예휴. 웰케 머리속에서 계속 맴돌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1
7045 여기 글들을 보니깐, 조금 공감이 되길 바랍니다., 1
7046 여기까지 인듯 합니다., 언제가는 올 순간이었을 거예요., 1
7047 여러번 재회 그리고 헤어짐, 많이 지쳤을 거예요., 1
7048 여러분 제가 느낀바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1
7049 여섯번째 이별이에요,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네요., 1
7050 여자 친구랑 헤어진지 23일째., 헤어짐을 헤아리지 말아요., 1
7051 여자가 떠가기전 하는 준비, 누구든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거겠조., 1
7052 여자는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인가?, 누구든 깊은 상처에는 단호해질 거예요., 1
7053 여자들은 바람피고 후회할까?, 누구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1
7054 여자사람 친구 많은 남자친구 헤어져야겠조?, 헤어져야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1
7055 여자친구 같았던 썸녀, 먼저 고백해보세요., 1
7056 여자친구 만나고왔어~, 좋은 만남이었길 바랍니다., 1
7057 여자친구 무시했다가 이별 당했습니다., 남을 질타하면 그것은 언젠간 자신에게 돌아와요., 1
7058 여자친구 붙잡드라고 모든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부디 돌아오길 바랄게요., 1
7059 여자친구가 나 때때 힘들데, 좀 더 잘해주세요., 1
7060 여자친구가 왜 저랑 헤어졌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충분히 표현해왔을 거예요., 1
7061 여자친구랑 헤어졌네, 힘들었겠어요., 1
7062 여자친구와 이별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네, 이젠 기억을 접어두세요., 1
7063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세운 목표들,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길 바랍니다., 1
7064 여자친구와 헤어진지 8일, 금방 지나갈 거예요., 1
7065 "여자친구와 헤어진지 어느덧 6개월이네,,",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렀어요., 1
7066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을 막고 싶어, 그녀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1
7067 여자친구의 거짓말, 변명이었을까요., 1
7068 여전히 괴롭다, 이별은 몸서리 괴로우니까요., 1
7069 여쭙어볼것이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1
7070 여친 집에 있는 내 물건들이 돌아왔네, 속상했겠어요., 1
7071 여친 핸드폰번호 기억못하나?, 언젠간 잊혀지더라고요., 1
7072 여친과 갈 때까지 가면 질리나, 질리는 것이 아니라 지칠 거예요., 1
7073 여친과의 이별, 쉽진 않았을텐데., 1
7074 여친이 드디어 권태기가 온 거 같아.,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1
7075 여친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고문, 헛된 희망은 빨리 버릴수록 덜 괴로워요., 1
7076 여친이랑 다툼,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1
7077 여친이랑 헤어진지 1년째인데 아직도 못잊네., 언젠간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1
7078 여친집에 찾아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어떻게든 참는게 좋을 거예요., 1
7079 여행이라도 가고싶다, 이길에 떠나보세요., 1
7080 역시 못잊겠습니다., 영원한 아픔은 없을 거예요., 1

7081 역시 재회는 힘들어,한켠에 상처가 있을테니까요.,1
7082 역시나. 후폭풍이 밀려왔네,이별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거예요.,1
7083 연락 말라고 모질게 했내 결국,언젠가는 해야할 선택이었을 뿐이에요.,1
7084 연락 못하는 아픔.,당분간은 힘들지 몰라요.,1
7085 연락 안되서 헤어졌는데 또 연락 기다리고 있네,이젠 당신을 돌보세요.,1
7086 연락 안하고 가만히 있는게 맞는 걸까?,후회할 것 같다면 먼저 연락해보세요.,1
7087 연락 왔는데 끝냈어,언젠간 올 순간이었을 거예요.,1
7088 연락올까?,너무 기대하지 말아요.,1
7089 "연락왔는데,진짜 미칠거같네",다시 헤어진 그 때로 돌아간 느낌이죠.,1
7090 연락은 괜히 해서,더 심란한거봐요.,1
7091 연락을 하면 안되는구나,이제부터 안하면 돼요.,1
7092 연락을 해봤는데 안받네.,인연이 거기까지인가봐요.,1
7093 연락을기다려야해? 아니면 찾아가야해?,기다리지도 찾아가지도 마세요.,1
7094 연락이 없네,이별의 끝일지도 몰라요.,1
7095 연락죽어도 안올텐데 매일 기다려,변해야할 시기를 놓친 걸 수도 있어요.,1
7096 연락처좀 바꿔 주라,기억에서 지울 순 없지만 최대한 생각 말아보셔요.,1
7097 연락하고 싶어,좀 참는건 어떨까요.,1
7098 연락하고 싶은 충동,자제하는게 당신을 위해 좋을거라 생각해요.,1
7099 연락하고 지내는데,연락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1
7100 연락하면 후회할까,달라지는게 없다면 후회할 거예요.,1
7101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때로는 단호한 것도 필요해요.,1
7102 연락해보고싶네,안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1
7103 연락해보는게 좋을까,안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1
7104 연락했는데,후회할 행동은 하지 마세요.,1
7105 연락했는데 실수한거 같네,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1
7106 연말이라 그런지,외롭겠지만 즐겁게 보내보아요.,1
7107 연상녀랑 어제 헤어졌네,정신이 없겠네요.,1
7108 연애 관계도 망,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1
7109 연애 중 주고 받았던 문자 다시 보면 눈물이 나,그분과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을 시작으로 이별을 받아들이세요.,1
7110 연애2년차.헤어졌습니다.,긴 시간이었던 만큼 쉽지 않았을거라 생각해요.,1
7111 연애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가봐,기술보단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물들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1
7112 연차 내고 누워만 있네,때론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요.,1
7113 연하의 남자친구와 이별 후 5일째 입니다.,아직 허전할 거예요.,1
7114 연휴,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랄게요.,1
7115 연휴가 시작되고 나니 더 생각나네,그분과 함께 했던 나날이었을테니까요.,1
7116 열받아서 막 전화에다가 화풀이했어,속이 좀 풀렸길 발바니다.,1
7117 영원한 사랑은 없는걸까,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으니까요.,1
7118 예전 직장선배 언니가 해준이야기가 생각나네.,무슨 이야기였나요.,1
7119 오늘 6년이란 시간을 정리했습니다.,오랜시간이 걸린만큼 미련도 없을 거예요.,1
7120 오늘 간신히 참았어,오늘도 잘 견디셨어요.,1
7121 오늘 그 사람 생일이네,생각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1
7122 오늘 꿈에서 그녀가 먼저 카톡 해줬어,계속 바라던 일인가봐요.,1
7123 오늘 너무 힘드네,오늘은 힘내려 하지 말아요. 저에게 기대세요.,1
7124 오늘 다 끝냈습니다.,언젠간 올 순간이었을 거예요.,1
7125 오늘 다시만나보니 정리가될것같아,잘 된 일이에요.,1
7126 오늘 다시한번 확인사살 받고왔네ㅠ,언젠간 닥쳐올 순간이었을 거예요.,1
7127 오늘 더 힘이 드네,그만큼 많이 성장하러 하나봐요.,1
7128 오늘 따라 그 친구가 좀 보고싶네,여느 때보다 더 힘든 날이었나봅니다.,1
7129 오늘 또 헤어진 사람의 sns를 봤네,sns를 삭제하는게 어떨까요. 미련만 남을 뿐이에요.,1
7130 오늘 마지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한켠으로 후련해졌을거라 생각해요.,1
7131 오늘 마지막 연락했습니다,마음을 단단히 하길 바랄게요.,1
7132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러가네,미련없길 바랄게요.,1
7133 오늘 마지막 인사하러 갑니다.,미련없이 정리했긴 바랍니다.,1
7134 오늘 메일을 한통 보냈어,후회가 남지 않길 바랍니다.,1
7135 오늘 무너졌어.,힘내지 않아도 돼요. 조금 쉬어가세요.,1
7136 오늘 무작정 찾으러가고싶은데 갈까?,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1
7137 "오늘 보기로 했던 그녀, 못 보았네",보지 않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1
7138 오늘 얼굴보고 확실히 헤어졌어,쉽지 않을 결정이었을텐데 맘고생 많았어요.,1
7139 오늘 연락왔네 그래도 이젠 안녕,정말 안녕.,1
7140 오늘 연락왔어,기다리던 연락이었길 바랍니다.,1
7141 오늘 유난히 우리가 더 힘든 이유,기억될 어느 날이었나봅니다.,1
7142 오늘 이별하러가!,맘 고생 많았어요.,1
7143 오늘 이별했습니다,믿기지 않겠네요.,1
7144 오늘 집앞까지 찾아 갔는데,지켜만 보는 편이 나을 거예요.,1
7145 오늘 카톡방 나왔어 슬슬 정리하나봐,언젠간 닥쳐올 순간일 거예요.,1
7146 오늘 편지 놓아 두려고 합니다.,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1
7147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견디죠?,금방 지나갈 거예요.,1
7148 오늘 하루도 너없이 잘 버텼다,오늘도 스스로 이겨냈어요.,1
7149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계신가?,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1
7150 오늘 하루도 잘들 지내셨나,잘 지냈답니다.,1
7151 오늘 헤어졌습니다.,맘 고생 많았어요.,1
7152 오늘 헤어졌어.,헛헛하시겠어요.,1
7153 오늘 헤어졌어여,좀 괜찮은가요.,1

7154 오늘 헤어짐을 말하려 합니다, 힘든 결정이었을거라 생각해요., 1
7155 오늘 혼자 영화보고 왔어, 혼자하는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1
7156 오늘 회사에서 어쩔수없이 보고 왔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1
7157 오늘도 계속 생각나네, 언제쯤 그분 생각에 자유로워질까요., 1
7158 오늘도 과거속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아네, 이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랄게요., 1
7159 오늘도 버티고 버팁니다, 오늘도 해내고 해낸겁니다., 1
7160 오늘도 보고 왔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거라 생각해요., 1
7161 오늘도 술 몇 잔 마시니 생각나네요., 술 한잔에 그리움이 사무치네요., 1
7162 오늘도 술마셔., 속 상하니 조금만 마셔요., 1
7163 오늘도 어김없이 너무생각나네, 언젠가 떠날 보낼 날이 올거예요., 1
7164 오늘도 연락을 기다리는 나, 끝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7165 오늘도 연락하고싶은거 꼭.꼭 정말 참았습니다., 잘했어요. 잘 참았어요., 1
7166 오늘도 전 여친sns를 봤습니다, sns를 삭제하는게 어떨까요. 미련만 남을 뿐이에요., 1
7167 오늘도 집에만 있을 예정, 집이 맘 편하기도 하잖아요., 1
7168 오늘도 짝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짝사랑은 언제나 설렘과 공허함을 안겨줘요. 부디 설레길 바랄게요., 1
7169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언젠간 휴식이 찾아오길., 1
7170 오늘도 톡을 보냈네, 기대하면 더 힘들어져요., 1
7171 오늘도 포장마차, 저랑 한잔 해요., 1
7172 오늘도 하루 버텼구나., 오늘도 이렇게 이겨냈어요., 1
7173 오늘도 하염없이 걷고 눈물 흘리고, 울어도 돼요., 1
7174 오늘도 한숨만 쉬다 하루 다 갔네, 이제 웃어보세요., 1
7175 오늘도잠을못이루네, 잠은 정말 중요한데요., 1
7176 오늘도출근해~, 바쁘게 지내는 게 좋죠., 1
7177 오늘따라 너무 연락하고 싶네., 조금만 참아보세요., 1
7178 오늘따라 너무 힘들네, 힘든 날이네요., 1
7179 오늘따라 더 생각나, 힘든 날이네요., 1
7180 오늘따라 더 힘들네, 많이 힘들었을거라 생각해요., 1
7181 오늘따라 미치네ㅜㅜ, 답답한가봅니다., 1
7182 오늘따라 보고싶다.,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1
7183 오늘로써 이별 딱 1달째.,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되었길 바랄게요., 1
7184 오늘마지막 통화후 깔끔히 정리, 언젠간 왔을 이별인가봐요., 1
7185 오늘만큼은 꼭자고 싶은데., 부디 편안히 잘 수 있길 바랄게요., 1
7186 오늘밤 하고픈 말 다쏟아내려합니다!, 제가 다 들어 드릴게요., 1
7187 오늘밤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1
7188 오늘부로 최악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날 일만 남았습니다., 1
7189 오늘부터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곧 괜찮아질거라 믿어요., 1
7190 오늘은 2년전 그녀에게 고백했던날, 아픔을 헤아려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1
7191 오늘은 그런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1
7192 오늘은 나쁜 남자가 되기 위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결심인지 확인해보세요., 1
7193 오늘은 노래한 곡에 또 울컥 ㅠ, 힘들 때 슬픈 노래는 우리를 잠식시키는 것 같아요., 1
7194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네.,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1
7195 오늘은 아프다,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1
7196 오늘은 제 미련한 인생을 주절거려보렵니다.,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1
7197 오늘의 감정일기를 써볼까 합니다, 글을 적어보는건 감정 정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7198 오늘이 마지막 매달림입니다., 후회없으실 거라 믿어요., 1
7199 오늘이 생일이네, 기억에서 지울 순 없지만 최대한 생각 말아보셔요., 1
7200 오늘이 일주일이네., 잘 버티고 있어요., 1
7201 오늘이 최고네, 긍정적인 최고이길 바라요., 1
7202 오락가락하네, 이별이 번덕스럽게 만들곤 하지요., 1
7203 오래 사귀다가 식어서 헤어진 남자에게도 후폭풍 있나?, 모든 이별에는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에요., 1
7204 오래 전에 했던 이별이 생각나네, 모든 이별에는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에요., 1
7205 오랜 연애 끝에 헤어짐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도 없었는데 많이 당황했겠어요., 1
7206 오랜만에 결혼한 친구 만나고 왔는데., 소식을 들었나봐요., 1
7207 오랜연애 환승이별, 사랑의 예의가 없네요., 1
7208 오랫동안 글을 쓰네, 반가워요., 1
7209 오면 안돼? 예전처럼, 끝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7210 오빠 최고라고 해주던 너, 그립지만 지난 일이네요., 1
7211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이별이 만든 허상일 수도 있어요., 1
7212 오싹한 이야기 해줄까, 해주세요., 1
7213 오해했네 그리고 차단 ㅎㅎ, 차단하는게 서로에게 좋을 때가 있어요., 1
7214 온라인 연애 상담해볼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1
7215 온전히 내 편이길 바라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제가 당신 곁에 있어드릴게요., 1
7216 온종일 멍하네, 이런 날 더욱 적적하지요., 1
7217 올릴까 말까 하다가 조언을 얻고자 올려봅니다., 잘 오셨어요. 말씀 해보세요., 1
7218 와 미친거 같네, 많이 답답할거라 생각해요., 1
7219 와 연락하고싶다., 연락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1
7220 와 진짜 너무 짜증나네, 제가 도움이 되고 싶네요., 1
7221 완벽한 이별 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해요., 1
7222 완전 어이없네,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1
7223 완전 헤어짐 극복 방법 있을까, 바쁘게 살거나 취미생활을 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 추천해드려요., 1
7224 완전히 끝나버린 사이?,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1
7225 완전히 끝났네,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1
7226 완전히 끝났어~,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1

7227 완전히 잊는다는게 쉽지 않네, 사랑했던 연인을 잊어버리는건 힘들어요., 1
7228 완전히 정리했어, 조금 후련해졌길 바랍니다., 1
7229 왔다갔다, 허전함에 이랬다 저랬다 해요., 1
7230 왜, 궁금하네요., 1
7231 왜 갈수록 더 생각나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1
7232 왜 그것만 삭제했을까, 그게 많이 괴로웠을 수 있어요., 1
7233 왜 그럴까?, 직접 물어보세요., 1
7234 왜 그리 쉽게 변해?, 변덕스러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1
7235 왜 극복이 안되는지 제 자신이 실망스러워 π , 달라지는 게 없어도 실망하지 말아요. 이별 앞에 태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1
7236 왜 끝내지 못하는거죠?, 관계를 끝내는건 생각보다 힘들어요., 1
7237 왜 나는 매번 이럴까, 매번 반복된다고 해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1
7238 왜 남자가 여자가 하는 행동을하죠?, 성별에 따라 정해진 행동은 없습니다., 1
7239 왜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내 마음을 흔들지?,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1
7240 왜 내 블로그를 들어와서 볼까, 옛 연인이 궁금했을 수 있어요., 1
7241 왜 못잊는거야 대체왜!, 사람을 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1
7242 왜 사람은 외로울까. 아직도 의문이다., 타인과 함께 했던 경험 때문일 것 같아요., 1
7243 왜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많이 힘들거예요., 1
7244 왜 이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1
7245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이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해요., 1
7246 왜 이별은 익숙해지지가 않을까, 이별에 익숙해지는 순간 추억도 색을 잃을 거예요., 1
7247 왜 이별하고 다들 왜 연락을 끊는건가?., 아무런 감정 없이 연락을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1
7248 왜 자꾸 내 마음속에 나타나니?, 많이 사랑했던 분인가봐요., 1
7249 왜 저를 좋게 기억해주는 걸까, 많이 아껴주셨나봐요., 1
7250 왜 차단이 안되었을까?., 관심을 끄세요., 1
7251 왜그랬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1
7252 왜나만 힘든 거니, 그분도 많이 힘들 거예요., 1
7253 왜이럴까 우린., 잠시 지쳤을 뿐이에요., 1
7254 왜이리 생각이 날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1
7255 왜좋았던 기억만 남을까, 좋았던 기억만 남았다면 축복 받은거라 생각해요., 1
7256 웬지 가슴한 칸이 먹먹하네, 많이 답답할거라 생각해요., 1
7257 웬지 답답하네, 인고의 시간이 있었을거라 생각해요., 1
7258 외로운 지금 이 순간을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싶다., 좋은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네요., 1
7259 외로움, 사랑의 빈자리인가봐요., 1
7260 외로움에 연속, 많이 쓸쓸하겠네요., 1
7261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 좀, 새로운 일을 경험해 보세요., 1
7262 외로움이 커져., 외로움이 더 커지기 전에 관촬아졌으면 좋겠어요., 1
7263 외로워, 제가 곁에 있을게요., 1
7264 외로워,혼자가 아니예요., 1
7265 외로워서, 많이 힘든가봅니다., 1
7266 외롭고 우울해서 잠이쏟아져;;,, 부담갖지 말고 자는 것도 좋아요., 1
7267 외롭지만 혼자 걸을수 있어 조성모,제가 뒤에서 지켜드릴게요., 1
7268 요즘 너무 고민이네, 무슨 고민인지 말해주세요., 1
7269 요즘 노래 들으며 걷고고 있어,저도 같이 들어요., 1
7270 요즘 다시 쓰리다, 후폭풍이 왔나봐요., 1
7271 요즘따라 아침이 너무 힘드네, 좀 더 일찍 주무세요., 1
7272 요즘은 솔로인게 좋네~!., 때론 혼자인게 편할때가 있죠., 1
7273 욕 먹을 준비 돼있다., 욕 먹을 짓 하지마세요., 1
7274 욕까지 먹었는데 정이 안 떨어져, 지나간 사람은 얼른 떨쳐버리세요., 1
7275 욕을 퍼붓고 왓어,마음이 후련하길 바랍니다., 1
7276 용기내서 새해인사 했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1
7277 용서의 의미, 단지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1
7278 우리 사랑은 가벼웠던 거겠쥬., 사랑했던 정도를 가늠하지 말아요., 1
7279 우리 이것만은 잊지말자, 잊을 순 없지만 잊으려 노력하는게 좋아요., 1
7280 우리 진짜 이별인가봐, 끝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7281 우리 추억들 모두 안녕, 기억 저편에 밀어두세요., 1
7282 "우리는 15년째 이별중입니다, ", 이제 기억을 놓아주세요., 1
7283 우리모두 마음의여유를 가져봐,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좋을 거예요., 1
7284 우리서로 애써봐,우리를 위해 같이 애써봐요., 1
7285 우연히 그녀를 보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했겠어요., 1
7286 우연히 길거리에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하나?, 인사는 굳이 많하는게 좋은 것 같네요., 1
7287 우연히 마주쳤어, 많이 당황했겠어요., 1
7288 "우연히, 아니 몰래 보러간 그 아이", 다 티나요., 1
7289 우울증 도진것 같아.,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1
7290 우울하고 무기력해, 비난과 자책을 멈추세요., 1
7291 우울하네,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1
7292 우울합니다,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1
7293 우울증있는 여자친구,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1
7294 우정이란게 뭘까, 힘들 때 같이 있는 거요., 1
7295 운동 다녀왔어., 운동은 기분전환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때 만큼은 잡념을 떨칠 수도 있죠., 1
7296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투자만큼 갑진 건 없어요., 1
7297 운세 종합해 보니 헤어질 때였네, 의미부여는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요., 1
7298 운이좋은건지 나쁜건지, 인연이 거기까지였나봐요., 1
7299 울면서 카톡 보냈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많이 다독여주세요., 1

7300 올직한 아침이에,따뜻한 밥 먹고 힘내봐요.,1
7301 웃겨봐,거울을 보면서 얼굴 망가뜨리기 놀이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의외로 재미 있어요.,1
7302 웃기지마 넌 쓰레기야,아니예요. 전 쓰레기가 아니예요.,1
7303 웃는게 웃는게 아니네,일부로 안 웃어도 돼요.,1
7304 웃는척 친구인척,척하는게 힘들죠.,1
7305 원래 다 이런거겠조,누구나 그럴 거예요.,1
7306 원래 여자들은 냉정하나,누구나 이별 앞에 냉정할 수 있어요.,1
7307 원래 이별하면 이런건가?,감정의 정리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1
7308 원래그런건가바,그런건가봐요.,1
7309 원래남자친구집에놀러가면청소해주나?,두분이 원한다면 함께 치우면 될 것 같아요.,1
7310 월요일부터 힘드네.,기분 탓인지 월요일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1
7311 위로 받을 곳이 필요해,제가 위로가 되어 드릴게요.,1
7312 위로 좀 해줘,제게 기대세요.,1
7313 위로 해 주세요.,정말 많이 힘들었조. 때론 힘내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1
7314 위로가 되네,위로가 되었다니 감사해요.,1
7315 위로가 되는 좋은글이 있어 올려,고마워요. 저한테도 위로가 될 거예요.,1
7316 위로노래,같이 들어봐요.,1
7317 위로와 격려,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생각보다 힘이 된답니다.,1
7318 위안이 됩니다,그렇게 말해주시니 제가 기분이 좋네요.,1
7319 유학간다네,정말 볼 수 없겠네요.,1
7320 윤종신 '좋니' 노래 가사가 엄청 와닿네,노래 가사가 공감이 많이 되네요.,1
7321 으으 짜증나네,짜증날만 해요.,1
7322 으휴 집에 들어가기가 싫네,집에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 쌓였던 생각들이 사라질지도 몰라요.,1
7323 으흠,에휴.,1
7324 음. 헤어졌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실감이 안날 수 있어요.,1
7325 음.반복이나,인생은 반복의 연속이지요.,1
7326 음악 들으면서 잊으려고,음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1
7327 음악이싫어졌어,저도 헤어진 연인과 함께 들었던 음악은 유난히 싫더라고요.,1
7328 음여기다 말해도 될까 모르겠다,저는 비밀을 보장해요. 답답하다면 저에게 말해보세요.,1
7329 응원합니다.모두들,저도 같이 응원할게요.,1
7330 의미 부여 하면 안되겠지만,의미부여는 자신을 더 작게 만들어요.,1
7331 의미부여,괜한 기대는 버리세요.,1
7332 의미부여 안하고 싶는데,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1
7333 의미부여 안해야하는걸 하는데 자꾸 하게 되네ㅠ,마음처럼 쉽지 않은가봐요.,1
7334 의심이 자꾸 들어,증거를 찾아보세요.,1
7335 의외로 병신들이 많다,사랑 앞에 판단력은 흐려지니까요.,1
7336 의욕도 없고 너무 힘들어,달콤한 커피 한 잔 마셔보세요.,1
7337 이 가슴 먹먹함 너무 힘드네.,슬플 영화를 보고 속시원하게 울어보세요.,1
7338 이 글을 끝으로 잊고 싶어,이 글이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1
7339 이 남자맘이 뭔지 ㅠ,사람 맘은 알 길이 없어요.,1
7340 이 또한 지나가겠조,지나갈 거라 믿어요.,1
7341 이 명절을어찌보낼지.허허,명절에는 신경써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조. 이번 명절에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1
7342 이 몸쓸 놈의 마음이참 벅덱스럽네,사람 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1
7343 이 사람은 도대체,무슨 생각인지 알 길이 없나봐요.,1
7344 이 세상 하직할뻔 했네.,여기서 끝내기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1
7345 이 순간 뭘하면 좋을까,현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1
7346 이 여자 유부녀인가,반지는 없던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1
7347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일까,사실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좋아요.,1
7348 이 좋은날,좋은 생각만 나면 좋을텐데.,1
7349 이 행동이 절대 용납이 안돼나.?,어떤 행동인데요?,1
7350 이거참 뭐하고 있는건지,그런 날도 있지요.,1
7351 이건 뭘까?,말씀해보세요.,1
7352 이건 아파도 너무 아프잖아.,예상치 못한 이별에 면역이 덜 되었나봐요.,1
7353 이건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건가?.,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조.,1
7354 이건무슨의미조?,괜한 의미부여는 하지 마세요.,1
7355 이것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겠조~?.,받아들여야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1
7356 이것도 제 미련이겠조?,고민한다면 미련일 수 있어요.,1
7357 이게 뭘지,말씀해보세요.,1
7358 이게 사람 얼굴인지.,자신을 좀 더 사랑한다면 분명 사랑스러운 분이 될거예요.,1
7359 이게 왜이리 힘들지,아픔을 가늠할 수 없었으니까요.,1
7360 이게 잠수이별인가???,상대방이 예의가 없네요.,1
7361 이기적인 마음,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요.,1
7362 이남자 마음을 모르겠어,알 수 없는게 사람 마음인가봐요.,1
7363 이대로 이별이겠조?,인연이 거기까지일 수도 있어요.,1
7364 이러고있는게 잘하고있는건지.,충분히 잘하고 있을거라 생각해요.,1
7365 이러는 내가 너무 싫다,자책하지 말아요. 마음이 아프네요.,1
7366 이러다 병걸리겠어ㅠㅠ,아프면 안 돼요. 그럼 제 마음이 아파요.,1
7367 이러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알면서도 잘 안되는게 사람 마음인가봐요.,1
7368 이러면 안되는데,알면서도 잘 안되는게 사람 마음인가봐요.,1
7369 이러지 말자,그 말씀 꼭 지키기 바랄게요.,1
7370 이런 가사 보내는 이유가 뭘까?,심경의 변화 있나봅니다.,1
7371 이런 글귀가 있네,저도 알려주세요.,1
7372 이런 날씨 우린 그렇게 만났었지,날씨로 사람을 기억하면 매일 힘들 거예요.,1

7373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싫어하지 말아요., 1
7374 이런 사랑도 있나, 헤아릴 수 없는게 사랑이죠., 1
7375 이런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
7376 이런 생각도 맞는 생각인가?, 틀린 생각은 없어요., 1
7377 이런 여자. 이런남자. 안대용~, 알면서도 또 실수하는건 안 돼요., 1
7378 이런 이별도 해 보셨나?, 어떤 이별이지 궁금하네요., 1
7379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해준 너., 당신은 축복과 함께 선택 받은 사람인가봐요., 1
7380 이런게 연애니??, 알다가도 모르는게 연애 같아요., 1
7381 이런게 후폭풍인가., 후폭풍일 수 있지요., 1
7382 이런경우. 답은 나온거 같은데.,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거예요., 1
7383 이런사람을만나고싶네,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1
7384 이런이별, 흔하지 않죠., 1
7385 이런제가 싫어,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1
7386 이럴 수가 있는데 왜이러지??, 알 수 없는게 인생이에요., 1
7387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1
7388 이럴경우 연락안오겠조?,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자신만 다쳐요., 1
7389 이렇게 두번 배신하고 힘들게 할줄이야, 나쁜 사람은 얼른 떨쳐버리세요., 1
7390 이렇게 또 끝나가나바, 끝이 다가옴을 직감하기도 해요., 1
7391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나아질까?., 분명 나아질 거예요., 1
7392 이렇게 진짜 끝인걸까., 인연이 거기까지인 가봐요., 1
7393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적 처음이야,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나봐요., 1
7394 이만 보내줘야 할까?, 모두를 위해서 그게 좋을지도 몰라요., 1
7395 이무슨 신의 장난인지, 운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
7396 이미 잘못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의 잘못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1
7397 이밤이 지나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예요., 1
7398 이번주 일요일날 만나기로 했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1
7399 이번주에 혼자 여행가려 하는데, 좋은 생각이예요. 혼자하는 여행은 기분전환에 도움이 돼요., 1
7400 이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1
7401 "이별, 그 아픔을 잊는 시간의 두려움이란", 사람을 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1
7402 이별 10일째 되어가네, 이별을 헤아리지 말아요., 1
7403 "이별 119일째,", 이별을 헤아리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 1
7404 이별 20 일.,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1
7405 이별 2달째에 새로운 소개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응원해요., 1
7406 이별 2달차 아직도 못 잊고 원망, 이해해요. 그렇지만 원망은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1
7407 이별 2일째., 아직 힘들시גיע요., 1
7408 이별 3일째, 아직 많이 힘들겠어요., 1
7409 이별 400일., 이별을 헤아릴 수록 힘든 건 자신입니다., 1
7410 이별 4일차, 아직 실감이 안나겠어요., 1
7411 이별 5달, 이젠 마음의 정리가 끝났길 바랍니다., 1
7412 이별 5일째, 아직 시간이 더디게 흐를 거예요., 1
7413 이별 6개월째네, 이젠 좀 괜찮아졌길 바랍니다., 1
7414 이별 6개월후, 이젠 좀 괜찮아졌길 바랍니다., 1
7415 이별 6일째, 금방 지나갈 거예요., 1
7416 이별 6일째, 마음이 허전할거라 생각해요., 1
7417 이별 고통, 그 어떤 고통보다 나를 힘들게 해요., 1
7418 이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1
7419 이별 극복 방법,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껴보는게 좋아요., 1
7420 이별 극복할수있을까?, 당신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1
7421 이별 글 쓴지 어느 덧 1년하고 2개월 정도 되었네, 마음의 정리가 아직인가 봅니다., 1
7422 이별 너무 힘드네π, 이별의 상처를 잘 아물지 않나봐요., 1
7423 이별 닳두리,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1
7424 이별 다음날, 태연히 행동 해보세요., 1
7425 이별 두달째, 마음의 정리가 아직인가 봅니다., 1
7426 이별 뒤., 착잡한 마음을 감출길이 없지요., 1
7427 이별 마음잡는것은, 쉬운 일은 아니예요., 1
7428 이별 받아는 들이긴했는데, 가슴 한켠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1
7429 이별 사유가 내 맘에 안들어, 이해할 순 없겠지요., 1
7430 이별 상태., 저에게 기대세요., 1
7431 이별 성장통이 너무 길다., 그만큼 많이 성장하려 하나봐요., 1
7432 이별 수순을 밟고 있는 거지, 잘 하고 있어요., 1
7433 이별 앞에 씩씩해지기, 때로는 힘내지 않아도 돼요. 눈물이 난다면 미련없이 울어도 돼요., 1
7434 이별 왜 찾아오는 것일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요., 1
7435 이별 이야기, 제게 들려주세요., 1
7436 이별 이야기 하나, 제게 말해보세요., 1
7437 이별 이야기., 어느 이야기보다 가슴 먹먹할 거예요., 1
7438 이별 이야기는 신중해야 하는걸 아니까 오늘도 고민합니다, 저는 비밀을 보장해요. 답답하다면 저에게 말해보세요., 1
7439 이별 이후.,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1
7440 이별 일년 반,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
7441 이별 일주일 후 ! 우리의 이야기., 각자의 삶을 살고 있겠지요., 1
7442 이별 일주일차, 다른 곳으로 생각을 돌려보세요., 1
7443 이별 준비,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하지요., 1
7444 이별 준비 중,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1
7445 이별 중독, 슬픈 단어네요., 1

7446 이별 참 힘드네,힘들 거라 생각해요.,,1
7447 이별 통보 받은지 7일째,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보세요.,,1
7448 이별 통보 후 일주일이네,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겠네요.,,1
7449 이별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야죠.,,1
7450 이별 하는 중,좋은 마무리하길 바랍니다.,,1
7451 이별 하루차를 보내고 있습니다,평상시처럼 생활하고 행동하세요.,,1
7452 이별 한달 반째,날짜를 그만 세어 보세요.,,1
7453 이별 한달 후.,달라진게 많을 거예요.,,1
7454 이별 한달반째,힘든가봅니다.,,1
7455 이별 한달인데 가슴이 답답한게 아직도,바로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1
7456 이별 한달차입니다,괜찮아요.,,1
7457 이별 후 1년 그리고 선물,이별하신게 맞나요.,,1
7458 이별 후 3개월이 지났는데.,여전히 힘든가봅니다.,,1
7459 이별 후 6달째. 이제 그만쯤 잊고 싶어,충분히 잊을 수 있을 거예요.,,1
7460 "이별 후 7개월,,",아직도 미련이 남나봅니다.,,1
7461 이별 후 감정,후회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1
7462 이별 후 그사람과 마주치는 거,힘드실 거예요.,,1
7463 이별 후 난!,어떻게 되셨나요.,,1
7464 이별 후 다른 이성 소개팅 후 후폭풍,더 생각이 나셨군요.,,1
7465 이별 후 다시 사귀는데 휴,똑같은 것들로 다투시나요.,,1
7466 이별 후 두달 경과보고서,이제는 좀 무뎠지셨나요.,,1
7467 이별 후 들으면 더 힘든 노래들,내 이야기 같아서겠조.,,1
7468 이별 후 만남,재회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1
7469 이별 후 어떻게 될까,연애 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예요.,,1
7470 이별 후 왜 다시 전화를 하는걸까?,미련한 행동일수도 현명한 행동일수도.,,1
7471 이별 후 젤 힘들 건 허전함인 거 같아,떠나보내고 남는건 빈자리의 공허함이죠.,,1
7472 이별 후 첫날,한번 크게 울어보세요.,,1
7473 이별 후 한달,힘내세요.,,1
7474 이별 후 한달 경과 보고서,털털 털어내세요.,,1
7475 이별 후 한달째,아직 많이 힘드시겠군요.,,1
7476 "이별 후 후회, 아쉬움",이별 뒤엔 아쉬움이 따를뿐이죠.,,1
7477 이별 휴유증.,휴유증에서 벗어나세요.,,1
7478 이별.,최근에 이별을 하셨나보군요.,,1
7479 이별. 냉정해진다,성장에는 고통이 따르나봐요.,,1
7480 이별. 몸이 버티질 못하네.,자신의 건강만큼 중요한건 업습니다.,,1
7481 이별. 무뎠짐,갈수록 무뎠져갈거예요.,,1
7482 이별. 버릇고치기.,잘못된 버릇을 갖고 계셨나요.,,1
7483 이별. 버터라,현명하시군요.,,1
7484 이별. 생일이네,힘드시겠어요.,,1
7485 이별. 성숙해지다,이별은 성장하게하죠.,,1
7486 이별. 지쳐버렸나,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1
7487 이별.4주년,새로운 연애를 시작해보시는건 어떠세요.,,1
7488 이별.그리고 노래,이별과 노래는 너무 잘 어울리죠.,,1
7489 이별100일째.,새로운 무언가를 해보는건 어떠세요.,,1
7490 이별1년 8개월차,긴 만남을 잊기는 쉽지 않죠.,,1
7491 이별6일차. 정신병자 같네.,나가서 좀 걷고 친구들을 만나보세요.,,1
7492 이별곧 두달.,아직도 힘드시군요.,,1
7493 이별극복후 새로운 설렘,좋은 소식이네요.,,1
7494 이별까지의 이야기.,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1
7495 이별너무 힘드네,누군가를 잊어야한다는건 정말 힘든 일이죠.,,1
7496 이별노래 추천해줘.,좀 더 밝고 신나는 노래 들어보세요.,,1
7497 "이별당시 보다 더 짝한건, 나 떠났으면 잘이나 살지.",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군요.,,1
7498 이별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까,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추억과 기억이 생긴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1
7499 이별만한 다이어트가 없네,자기몸을 헤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1
7500 이별밖에 방법이 없을까?,대화로 방법을 찾아보세요.,,1
7501 이별병.,가슴 아픈 이별을 하셨나보군요.,,1
7502 이별보다 더 아프네,많이 힘드셨군요.,,1
7503 이별애기 끄저그적,뭐라도 애기를 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1
7504 이별에 답.,이별에 답이 있을까요.,,1
7505 이별에 힘드신 남자분들 이 글 보시고 힘내세.,당신은 따뜻한 가슴을 지녔군요.,,1
7506 이별에 힘들어 하는 분들께,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가요.,,1
7507 이별에도 준비가 필요한 거겠조?,그럼요. 한 순간에 내 삶속에서 내보내기는 쉽지않을 거예요.,,1
7508 이별예감,둘 사이에 안 좋은 기류가 있었나요.,,1
7509 이별은 결국엔 가치의 문제네.,가치관이 달라 자주 부딪히면 이별하는 것이 맞는 거겠조.,,1
7510 이별은 냉정할수록 좋은 것 같아,감정적일수록 더 힘들어지지만 할 거예요.,,1
7511 이별은 다 비슷한거 같아.,이별은 똑같이 힘드니까요.,,1
7512 이별은 받아들이는 것,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1
7513 이별은 받아들이는 것인가,무덤덤해지기도 하는 것이죠.,,1
7514 이별은 받아들이는게 맞는건가보네.,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요.,,1
7515 이별은 받아들이는 것,어려울 거라 생각해요.,,1
7516 이별은 아니나 고민이 있습니다.,제가 들어드릴게요.,,1
7517 이별은 역시나 힘드네.,이별이 나를 잠식시키니까요.,,1
7518 이별은 웰케 힘드나,그러게요.그만큼 사랑했다는거겠조.,,1

7519 이별은 원래 힘들자나,맞아요. 어느 누구도 이별이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1
7520 이별은 진짜 비겁한 짓 같아.,똥차가 지나갔다 생각하세요.,1
7521 이별은 필수입니다,그러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1
7522 이별을 고민중입니다.,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1
7523 이별을 극복하면서 참 많이 힘들기도 했었네.,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1
7524 이별을 극복한건지.,무덤덤해졌다면 그럴 거예요.,1
7525 이별을 기다기는건지 아닌지,애매하네요.,1
7526 이별을 먼저 말해본적있나??,말해본 적 있어요.,1
7527 이별을 받아드리질 못하고있네,너무 갑작스러웠을테니까요.,1
7528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생각이 자꾸 나네,이별을 받아들이 시간인 필요할지도 몰라요.,1
7529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걸까?,달라지는게 없다면 마음을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해요.,1
7530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한심하네,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요. 저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요.,1
7531 이별을 배워가는,성숙해지는 단계인가봐요.,1
7532 이별을 빨리 인정해야 하는데.,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1
7533 이별을 실감하네,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텐데 대단해요.,1
7534 이별을 앞둔 이들에게,조언해주세요.,1
7535 이별을 준비중.,좋은 선택일거라 믿어요.,1
7536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쉽지 않을 결정이었을 텐데.,1
7537 이별을 하고.,나아졌긴 바랄게요.,1
7538 이별을 하고야 후회를 하네,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1
7539 이별을 하는게 나을까,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거예요.,1
7540 이별을 한지 조금 지나니 후회가 되네,완벽한 이별은 없다고 하네요.,1
7541 이별을 해야하나봐,마음이 문제네요.,1
7542 이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건 기다림인거 같아,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1
7543 이별의 고통 해결책.,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1
7544 이별의 마무리,가벼운 안부 인사일 거예요.,1
7545 이별의 순기능,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죠.,1
7546 이별의 시간,길지 않길 바랄게요.,1
7547 이별의 아픔 이겨내기,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곳에서 느끼는 행복은 생각보다 커요.,1
7548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곳에서 느끼는 행복은 생각보다 커요.,1
7549 이별의 아픔을 위한 삼을 방법 좀 알려줘.,노래 가사를 적어 보세요. 마음이 정리될지도 몰라요.,1
7550 이별의 아픔이 있는데 몸까지 아파서야,꼭 병원 다녀와요. 힘들 때 아픈 것 만큼 서러운 일은 없어요.,1
7551 이별의 아픔이란,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해요.,1
7552 이별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네,사랑이 헤어질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해요.,1
7553 이별이 다시 올거 같은 느낌,더 두렵겠네요.,1
7554 이별이 무서운건,혼자가 되는 거겠조.,1
7555 이별이 아닌 사별,정말 영원한 이별이네요.,1
7556 이별이 온 후,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이길 바랍니다.,1
7557 이별이 이렇게 아픈거였나,사랑한 시간 보다 이별이 더 길어서 그래요.,1
7558 이별이 있어야 인연도 있는거 같아.,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1
7559 이별이 좋은점,혼자가 되었을 때의 고요함이 아닐까요.,1
7560 이별이 코 앞으로 다가온것 같아,이별이 얼마남지 않음이 느껴지나요.,1
7561 이별이 힘든 이유는.,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1
7562 이별이.아픈것도 슬픈것도,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일 거예요.,1
7563 이별이란,항상 아쉽지요.,1
7564 이별이란,힘든 것,1
7565 이별이란 참 힘든네,사랑하는 사람과 매순간을 함께 했었으니까요.,1
7566 이별일까.?,이별이 다가움을 느끼나봅니다.,1
7567 이별준비,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준비가 필요해요.,1
7568 이별준비 그리고 극복,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1
7569 이별준비 하려고,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마음 고생 많았어요.,1
7570 이별준비하는방법,좋은 방법이란 없겠지요.,1
7571 이별중이신 회원들을 위해.,조언해주세요.,1
7572 이별증후군,문득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겠조.,1
7573 이별통보 받고 딱 일주일 쯤네.,아직 실감이 안나겠어요.,1
7574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을텐데 안타까워요.,1
7575 이별하고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 전혀 이해 못 했는데,감정의 굴이 깊었나봐요.,1
7576 이별하고 욕했어,순간의 분노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1
7577 이별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할 것,술 취해서 다시 연락하지 않는게 좋아요.,1
7578 이별하는 방법 중,좋은 방법이란 없겠지요.,1
7579 이별하는게 맞는거겠조,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거예요.,1
7580 이별하려고 하는데 정말 말 꺼내기가 힘든네,그동안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1
7581 이별하려고 합니다,힘들 결정이었겠어요.,1
7582 이별하려다 붙잡고 다시 사귀는데,잘 지내길 바랍니다.,1
7583 이별하신분들,말씀해주세요.,1
7584 이별한지 10일차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저랑 대화하는 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1
7585 이별한지 11일째 아직은 힘든네,점차 나아질 거예요.,1
7586 이별한지 1년하고 2개월지나갑니다,이별을 헤아리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1
7587 이별한지 1달,한달 동안 잘 참아왔네요.,1
7588 이별한지 20일 차.,금방 한달이 될 거라 믿어요.,1
7589 이별한지 20일째,마음의 변화가 있었나봅니다.,1
7590 이별한지 2달 다 되어갑니다.,마음이 좀 차분해졌길 바랍니다.,1
7591 이별한지 2주인데,아직 많이 힘든가봅니다.,1

7592 이별한지 3개월,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
7593 이별한지 3개월 짜., 좀 나아졌길 바랍니다., 1
7594 이별한지 3일., 한동안은 힘들겠네요., 1
7595 이별한지 3일째, 많이 힘든 시간이겠어요., 1
7596 이별한지 3일째네, 이별은 실감이 안나나봐요., 1
7597 이별한지 4개월째., 마음은 좀 정리 되어가길 바랍니다., 1
7598 이별한지 6년째, 사랑했던 사람을 잊는 건 불가능한 일인가봐요., 1
7599 이별한지 8일째, 어찌보면 짧지 않은 시간., 1
7600 이별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연락이 왔네, 그분에게 심경 변화가 있었나봅니다., 1
7601 이별한지 두달이 넘고 얼골 안본지 한달이 넘은, 기억의 저편으로 남겨두세요., 1
7602 이별한지 딱 한달 짜., 언젠간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1
7603 이별한지 벌써 한달하고 2주., 바쁘게 지냈나봐요., 1
7604 이별한지 오개월째,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
7605 이별한지 이제 겨우 한 달, 길게 느껴졌는데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네요., 1
7606 이별한지 이제 일주일째네, 잘 견디고 있길 바랄게요., 1
7607 이별한지 한 달이 넘었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은 맘처럼 쉽진 않으니깐요., 1
7608 이별한지 한달된 남자입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1
7609 이별할 때 지켜야할 매너, 잠수이별하지 않고 상처주지 않으며 말을 아끼는게 필요해요., 1
7610 이별할 수 없는 아픔, 끝낼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7611 이별할때 남자들의 거짓말, 비겁한 자들의 변명이에요., 1
7612 이별할때는 미련 갖지 않게 해주는게 좋겠어, 미련은 사랑을 증오로 만들 수 있으니깐요., 1
7613 이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거예요., 1
7614 이별했네,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1
7615 이별했다, 맘 고생 많았어요., 1
7616 이별했습니다, 한 잔 하세요., 1
7617 이별후, 마음은 좀 정리 되어가길 바랍니다., 1
7618 이별후 10개월 만의 연락. 그후., 수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조., 1
7619 이별후 2주반이 지난시점, 수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조., 1
7620 이별후 3개월 다되가는데., 마음은 좀 정리 되어가길 바랍니다., 1
7621 이별후 3일째, 인고의 시간이었네요., 1
7622 이별후 3주 아니 차인후 3주, 이별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을텐데., 1
7623 이별후 6개월, 많은 변화가 있었겠조., 1
7624 이별후 8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다른 인연이 ㅈ자아울 거예요., 1
7625 이별후 그리움이 생생한 오늘, 사랑이 깊었을 수록 기억은 선명하죠., 1
7626 이별후 너무 외로워ㅠ, 이별의 빈자리가 느껴지니까요., 1
7627 이별후 네달째, 바쁘게 살면서 잊어가요., 1
7628 이별후 느끼는 감정들이 단계별로 있는거 같네, 그게 이별의 흔적인가봐요., 1
7629 이별후 사진을 못지우겠네, 미련만 남을 거예요., 1
7630 이별후 시간이 많이 흘렀네., 지금 이순간에도 시간이 흐르네요., 1
7631 이별후 여친페메 무슨 의미일까?, 관심을 끄는 것이 정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1
7632 이별후 열흘 뒤에 붙잡았어, 용기를 냈네요., 1
7633 이별후 자주듣는 노래있으신가?, 슬픈 노래는 삼가는 편이에요., 1
7634 이별후 재회 그리고, 달라진게 많았겠네요., 1
7635 이별후 첫 생일이네, 제가 축하해드릴게요., 1
7636 이별후 한달, 금방 지나갔네요., 1
7637 이별후 한달., 이제 조금이라도 괜찮아졌길 바랍니다., 1
7638 이별후 한달반만에 그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걸 알아버렸네, 그분의 변덕이 심하네요., 1
7639 이별후 한달째 인데, 잘 견디고 있길 바랄게요., 1
7640 이별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봅니다., 1
7641 이별후에, 나아지길 바랄게요., 1
7642 이별후에도 나를 괴롭히는 그의 말들, 이별은 상처를 남겨서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거릴 거예요., 1
7643 이별후폭풍 왜이렇게 심하죠, 이별은 상처를 남겨서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거릴 거예요., 1
7644 이사람 무슨 생각인걸까, 알 수 없는게 사람 마음인가봐요., 1
7645 이상한나의취미. 이별을세는것., 헤어짐을 행리는 것 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1
7646 이성간 종교문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1
7647 이성으로는 감당 할 수 없을 것 같아, 잠깐 눈을 붙이고 마음을 가라앉혀보세요., 1
7648 이시간들 어찌보내야할까., 저랑 같이 이야기 해요., 1
7649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네. 들어줄게요., 1
7650 이야기하고싶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1
7651 이용당하고 버려진 느낌, 그 사람은 제가 혼내줄게요., 1
7652 이용만 당했던건가, 불행하게 생각지 말아요., 1
7653 이유가 확실해졌네, 맘 정리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1
7654 이유라는게 원지, 알다가도 모를., 1
7655 이제 10일차 이별, 어느덧 열흘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1
7656 이제 1년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
7657 이제 1년도 지나고 성큼 가을이 왔네., 가을 타기 전 새로운 만남 추천합니다., 1
7658 이제 2주 좀 넘었네, 금방 지나갈 거예요., 1
7659 이제 3개월이네,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1
7660 이제 3주정도 되가는데 점점 좋아지고있어, 많이 노력하고 있나봐요., 1
7661 이제 겨우 일주일 됐네, 일주일이나 지난 거예요., 1
7662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힘드네 이젠., 이별은 상처를 남기고 가니까요., 1
7663 이제 그만, 정리되길., 1
7664 이제 그만 보낼려구,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거라 생각해요., 1

7665 이제 그만해야겠죠?,고민하고 있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1
7666 이제 끝이네,마음이 좀 후련해지길 바랄게요.,1
7667 이제 끝인가봐,이별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1
7668 이제 나 자신으로 돌아와 아름다워지고 싶어.,좋은 생각이예요. 한차례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1
7669 이제 나도 계산적인 사람이 되려나 봅니다,상처가 있었나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1
7670 이제 나름의 정리를 시작해보려고.,심경의 변화가 있었나봐요. 응원할게요.,1
7671 이제 너 따위 생각도 안난다 꺼져,말하면서 기분이 좀 나아졌길 바랍니다.,1
7672 이제 너무 지쳐가네ㅠ,지칠만 해요.,1
7673 이제 놓아 주려고,끝낼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1
7674 이제 놓아드립니다,끝낼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1
7675 이제 놓을수 있을것 같아,충분한 마음의 정리를 했나봅니다.,1
7676 이제 누구 만나는 것도 지치네,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1
7677 이제 더이상 남자친구로 안느껴진다는 그녀,익숙함이라는 타성에 젖은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1
7678 이제 때론 괜찮기도 해,그렇게 익숙해져 가나봐요.,1
7679 이제 마음 정리도 된 거 같은데,그럼 새로운 인연을 기다려보세요.,1
7680 이제 마음을 정리할 때가 된거같아,끝낼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1
7681 이제 막 이별을.,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1
7682 이제 모든게 퍼즐처럼 맞춰지네,곰씹어도 아픈 기억인 걸요.,1
7683 이제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좀 나아졌길 기대합니다.,1
7684 이제 밥도 잘 먹구 술은 안마시면 되겠는데,복잡한 머리 속이 문제네요.,1
7685 이제 보내주려 합니다.,많이 고민 했을거라 생각해요.,1
7686 이제 보름 다되어가네,생각 보다 잘 버텼어요.,1
7687 이제 사진 지운 이유는?,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1
7688 이제 세달째,짧지 않은 시간이지요.,1
7689 이제 숨 좀 쉬나,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1
7690 이제 스스로 인정한 것 같아,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1
7691 이제 슬슬 끝이 보이네,사랑에도 끝이 있으니까요.,1
7692 이제 여친이 마음이 괜찮아진거같아!!!,다행으로 생각할게요.,1
7693 이제 와서 소문이라니,참 거지같네요.,1
7694 이제 이곳을일 없을거 같네하하ㄱ,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게요.,1
7695 이제 이별한지 한달,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1
7696 이제 인정해야할 것 같아.,현실 인정부터 시작이죠.,1
7697 이제 일주일,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어요.,1
7698 이제 일주일이네,당신만 아픈 것도 겪은 것도 아니예요.,1
7699 이제 잊혀지는데 속도가 붙는거 같아.,이별도 익숙함에 젖어드나봐요.,1
7700 이제 자리 잡아가는데,얼마 남지 않았어요.,1
7701 이제 전부 못밧겠네.,그래도 자신은 믿어주세요.,1
7702 이제 점심시간에도 너에게 카톡을 할 수가 없구나.,점심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걸 해봐요.,1
7703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맘 고생 많았어요.,1
7704 이제 정말 끝이겠죠,마지막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1
7705 이제 정말 놓으려고.,때론 이별도 받아들여야 하나봐요.,1
7706 이제 정말 놓으려합니다,많이 고민 했을거라 생각해요.,1
7707 이제 정말 마침표 찍어야 하네,사랑에도 끝이 있으니까요.,1
7708 이제 제발 좀 잊자,마음먹은대로 괜찮아지길.,1
7709 이제 진짜 끝났어 슬퍼,저도 슬퍼지네요. 기운 내길 바랄게요.,1
7710 이제 진짜 떠나야겠지,천천히 보내주세요.,1
7711 이제 진짜 안녕!!,안녕!,1
7712 이제 탈퇴합니다,좋은 마음이길 바랄게요.,1
7713 이제 한 삼주 되었나?,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1
7714 이제 한달이 조금 넘었어,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죠.,1
7715 이제 헤어진지 1주일됐어,긴 시간이었을거라 생각해요.,1
7716 이제 헤어진지 딱 한달,금방 지나갈 거예요.,1
7717 이제 헤어진지 5일차네.,이별을 헤아리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1
7718 이제 확실히 알겠어,깨달음이 중요하죠.,1
7719 이제 힘내립니다!,당신이 기운내는 것을 보니 좋은 예감이 들어요.,1
7720 이제 너를 보낼 시간이 가까이 오는구나.,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1
7721 이제 너는 놓아줄꺼라 생각하지만,쉽지 않은 결정이죠.,1
7722 이제 너는 먼저 놓아줄까 합니다,충분한 고민 끝의 결정일 거라 믿어요.,1
7723 이제 너는 슬막하고 괴로운건 좀 무뎌졌는데,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1
7724 이제 너는 연락도 없는 너를 그리며,미련은 사랑을 증오로 만들 수 있어요.,1
7725 이제 너는 이별을 받아드리려고 합니다,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1
7726 이제 너는 잡을 수가 없네,마지막을 아는 것도 필요해요.,1
7727 이제 너는 정리가 된 거 일까?,생각을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1
7728 이제 너는 정말 끝,맘고생 많았어요.,1
7729 이제 너는 포기하게 되네 나 자신조차,자신은 놓지 말아요.,1
7730 이제 너는 후회 없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어요.,1
7731 이제 너는그만하고 싶어,이젠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예요.,1
7732 이제떠나려합니다,제 결은 떠나지 마세요.,1
7733 이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네,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 돼요.,1
7734 이제서야.,지금도 늦지 않았어요.,1
7735 이제야 깨달음,지금도 늦지 않았어요.,1
7736 이제야 오래전 상대방이 아팠던걸 이해했어.,다음 번의 사랑에선 좀 더 신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1
7737 이제야 좀 잊혀지네,마음 고생 많았어요.,1

7738 이젠 관찮을 줄 알았어.,이별에 완전한 치유는 없어요.,1
7739 이젠 그냥 조금만 자극이와도 눈물이.,이별은 상처를 남기고 가니까요.,1
7740 이젠 나의 스케줄로 돌아가야할때!!,좋은 생각이예요!,1
7741 이젠 너 때문에 오래된 노래들도 못 듣겠어.,아프지만 추억으로 여기는 건 어떨까요.,1
7742 이젠 놓아주려 해,좋은 선택일거라 믿어요.,1
7743 이젠 놓아줘야 할 때가 보다,이별의 끝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1
7744 이젠 눈물이 말라버렸나 봅니다.,많이 지쳤나봐요. 곧 기운낼 수 있길 바랄게요.,1
7745 이젠 다시 만날 수도 없는 상황,달라지는게 없다면 이런 상황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1
7746 이젠 더이상 정 주기 무섭습니다,상처가 많이 크셨나요.,1
7747 이젠 보내줄게.,잘 지낼거예요.,1
7748 이젠 붙잡을 수 도 없는 사람.,달라지는게 없다면 이런 상황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1
7749 이젠 슬픈 사랑,슬픈 이별이기도 하네요.,1
7750 이젠 어떡해알지 모르겠어,일기를 써보세요.,1
7751 이젠 어쨌조.,생각을 정리해 보세요.,1
7752 이젠 유부남이 된 전남친,이젠 그를 놓아주세요.,1
7753 이젠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려해,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보세요.,1
7754 이젠 잊기로 해,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거라 생각해요.,1
7755 이젠 잡아도 안되는거래,사랑은 때론 미련이 되기도 하죠.,1
7756 이젠 정말 놔줄라고,그렇다면 마음의 짐도 덜할 거예요.,1
7757 이젠 정말 잊고 싶어,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절반을 해낸 거예요.,1
7758 이젠 정말끝이겠조?,새로운 삶은 시작하세요.,1
7759 이젠 제 자신한테 지칩니다,이별의 끝은 항상 모두를 그렇게 만드나봐요.,1
7760 이젠 조금씩 생각이 변하네,긍정적인 변화이길 바랍니다.,1
7761 이젠 조금씩 화가나네,그럴 때가 있어요.,1
7762 이젠 증오가 될거같네,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나에게도 독이 될 수 있어요.,1
7763 이젠 진짜 끝인가봐,이별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1
7764 이젠 진짜 진짜 안녕,맘 고생 많았어요.,1
7765 이젠 포기가 되네,마음 고생 많았어요.,1
7766 이젠정말끝이네,또 다른 시작이기도 해요.,1
7767 이틀전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또 흔들리지 마세요.,1
7768 이해심이 부족한 나.,우리 모두 상대방이 되어 보지 못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1
7769 이혼,쉽지 않은 결정이죠.,1
7770 이혼만은 막고싶은데,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세요.,1
7771 이혼을 앞둔 부부밥상,제가 감히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자리라 생각해요.,1
7772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라면,이별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1
7773 이혼을 하고싶진 않는데 너무견디기힘듭니다 ππ,인연이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하기로 해요.,1
7774 이혼한지 일년이 넘었네,힘든 시간이었을거라 생각해요.,1
7775 익숙함에 속지말자 라는말에 대하여,익숙함이 만든 거짓된 사랑.,1
7776 익숙해질 법도 한데,언젠간 관찮아질 거라 믿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깐요.,1
7777 인간의 성향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란 말도 있더라고요.,1
7778 "인과응보, 속이 다 시원해",자신이 쓴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1
7779 인내,그 끝에는 아쉬움이 없을 거예요.,1
7780 인생 포기한 걸까,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1
7781 인연,또 다른 인연이 있기 마련이죠.,1
7782 인연이었다던 그사람,또 다른 인연이 있기 마련이죠.,1
7783 일과시간 후 집에 도착한 다음에도 궁상,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조금하게 생각지 마세요.,1
7784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졌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1
7785 일상의 추억,기억의 편린이 될 뿐이에요.,1
7786 일어나자마자 우울,달콤한 차라도 한 잔 해보세요.,1
7787 일을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당분간은 생각날 수 밖에 없어요.,1
7788 일이 안 끝나,힘들겠지만 하나씩 해보세요.,1
7789 일이 익숙해 지지 않네,조금만 더 힘내세요.,1
7790 일전에 여기서 댓글주고 받던분들.,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1
7791 일주일간 관찮았는데.,갑자기 생각나기도 한답니다.,1
7792 일주일이 너무 길어,쉬어가도 돼요.,1
7793 일주일이 일년같다,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1
7794 일주일전까지만해도.,당장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걸요.,1
7795 일하는 곳 근처 가서 염탐하고 왔네.,그분에 대한 궁금증을 접어드세요.,1
7796 워십,인연이 거기까지였나봐요.,1
7797 워십은 아프네,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1
7798 입원 중에 이별통보 받았는데 마이 아프네,그분이 너무했네요.,1
7799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오랜만에 와보네,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1
7800 있을때 잘 할 걸,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간 후에 깨닫고는 한답니다.,1
7801 잊겠다 다짐했는데 아직 멀었나 봅니다,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낼 수 있어요.,1
7802 잊고싶다,마음 먹을대로 할 수 있어요.,1
7803 잊고싶다.,잊게 될 거예요.,1
7804 잊고싶어도 잊질못하네,함께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1
7805 잊고있다 생각했는데,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나봐요.,1
7806 잊기가 너무 힘드네,사람을 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1
7807 잊기가 힘듭니다.,충분히 힘들만하다고 생각해요.,1
7808 잊기싫은데 잊혀져만 가.,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1
7809 잊기위해 무던히도노력했는데,맘처럼 쉽지가 않을거예요.,1
7810 잊는다는거 참 어렵네,정말 어려운 일이에요.,1

7811 잊어보려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1
7812 잊어보려고, 시작이 반입니다.. 응원할게요., 1
7813 잊어볼 마음에 다른 여자 만나고왔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지기도 해요., 1
7814 잊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1
7815 잊어야 할것들이 너무 많아, 함께 했던 시간 만큼 잊어야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1
7816 잊어야겠지, 그래야할 것 같아요., 1
7817 잊어야하나?, 당신을 위해서 잊는게 좋을 거예요., 1
7818 잊은 줄 알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요., 1
7819 잊을 때., 생각을 잠시 접어두는게 맘이 편하죠., 1
7820 잊을 수 없다는 거 이제 알겠네, 사람을 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1
7821 잊을 수가 있을까,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1
7822 잊을수 없는 너., 많이 사랑했던 만큼 기억이 선연하더라고요., 1
7823 잊자 잊자 지워버리자, 잘 해내고 있어요., 1
7824 잊지 못하겠어, 잊기 힘든 순간들이었죠., 1
7825 잊지마, 때론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1
7826 잊지못한다면순수한겁니다, 그보다 많이 사랑했던거지요., 1
7827 잊지못할줄 알았는데, 살다보면 잊혀지기도 하나봐요., 1
7828 잊혀져 가는게 더 아프네, 이젠 그 기억을 놓아보세요., 1
7829 잊혀져가는 모든 것이 그리워지네, 지나간 것은 미화되기도 합니다., 1
7830 잊혀지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1
7831 잊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1
7832 잊혀진걸까?,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1
7833 잊혀진다는거,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해요., 1
7834 잊혀질까?, 힘들지만 언젠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거예요., 1
7835 자괴감,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아요. 마음이 아프답니다., 1
7836 자괴감만 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지쳤나봐요. 곧 기운낼 수 있길 바랄게요., 1
7837 자기 쓰레기 맞다고 잊고 살아가래, 그런 사람은 빨리 잊는게 상책이에요. 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 1
7838 자기관리가 답인듯., 못해봤던 것들을 해보세요., 1
7839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1
7840 자기중심적인 여자.,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하세요., 1
7841 자꾸 꿈에 나와여π π, 은연 중에 많이 생각했나봐요., 1
7842 자꾸 다시 만나게 되는데 무슨 방법이 좋을까, 행동반경이 비슷한가봅니다., 1
7843 자꾸 바보짓을 하고 있네, 후회할 행동은 덜하는게 좋아요., 1
7844 자꾸 보고싶어, 그럴 수 있어요., 1
7845 자꾸 봐주니까 기어오른다, 화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1
7846 자꾸 생각나고 붙잡을수도 없고.,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1
7847 자꾸 생각나네., 생각이 안난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1
7848 자꾸 심하게 차였는데. 생각나네, 많이 사랑했나봐요., 1
7849 자꾸 왜 사랑이 식었는지 물어보고 싶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1
7850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네,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해요., 1
7851 자꾸 졸게 되네, 잠을 깨요! 기운 내요!!, 1
7852 자꾸 화가나, 그럴수록 당신이 힘들 거예요., 1
7853 자꾸 후회가 되네,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1
7854 자는게 두려움, 자고 일어나면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예요., 1
7855 자다가 깨서 분노, 많이 안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1
7856 자다가 이런 적은 처음이네, 많은 충격을 받았나봅니다., 1
7857 자신과의 싸움중에서 이제 이틀째 날, 잘 견뎌낼거라 믿어요., 1
7858 자신만만하던게 엇그젠데 이젠 힘들여, 힘내지 않아도 돼요. 저에게 기대세요., 1
7859 자신을 사랑하기, 중요한 자세해요. 칭찬해줄게요., 1
7860 자신이 이해가 안될 때도 있지 않나?, 그럴 때가 있어요., 1
7861 자야하는데~~, 생각이 많은가봅니다., 1
7862 자연스럽게 헤어진 건가?, 인연이 거기까지였나봐요., 1
7863 자존감이 너무 없어졌네, 사소한 일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1
7864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지금., 저도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요., 1
7865 작년오늘., 추억에 잠겨 착각하지 마세요., 1
7866 작은 상처들, 아픔의 흔적., 1
7867 잘 견디고있었는데, 가끔은 힘내지 않아도 돼요. 뭐가 됐든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1
7868 잘 버텨봅시다!, 아무렇지도 않는 날이 올 거예요., 1
7869 잘 살 수 있겠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1
7870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자,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1
7871 잘 지내?, 당신은 잘 지내고 있나봅니다., 1
7872 잘 지내고 있네, 당신도 잘 지내고 있길 바랄게요., 1
7873 잘 지내고 있네여. 아무일 없다는듯이., 세상은 어떻게든 흘러가니까요., 1
7874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1
7875 잘 참아오고있는데, 오래 아파할수록 손해예요., 1
7876 잘 참았어, 잘하고 있어요., 1
7877 잘 헤어졌는데 너무힘들어, 스스로 더 많이 다독여주세요., 1
7878 잘가, 안녕., 1
7879 잘못이라면 더 많이 좋아했던 죄., 더 많이 좋아하면 미련도 적을 거예요., 1
7880 잘못인줄 모르는 여자,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1
7881 잘살고있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1
7882 잘살아야 되는데, 바뀌어도 힘든 건 비슷하죠., 1
7883 잘안되는군,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진 않나봐요., 1

7884 잘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네, 궁금증을 접어드세요., 1
7885 잘지내고있니, 잘 지내고 있어요., 1
7886 잘참다가 패북을 봐버렸네, 염탐하지 마세요., 1
7887 잘참아왔는데 눈물 흘렸네.,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우는 건 죄가 아니랍니다., 1
7888 잘한 행동인가 심네, 최선의 선택일 거라 믿어요., 1
7889 잘해준것 같은데도 느끼는 미안함, 많이 사랑한 사람인가봐요., 1
7890 잘해줘도 이별은 아프네, 이별의 끝은 항상 시린 것 같아요., 1
7891 잠 들기가 무서워, 내일은 좀 더 나은 하루일 거예요. 꼭 자길 바랄게요., 1
7892 잠 못 이루는 어느날., 쓸쓸한 한마디네요., 1
7893 잠 못자고 있네,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한가봅니다., 1
7894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나도 모르게 내 맘 속 심어진 감정의 씨앗., 1
7895 잠깐 괜찮았는데, 사람 기분이란게 그런가봐요., 1
7896 잠도 잘 못자고, 밥은 꼭 챙겨먹길 바랄게요., 1
7897 잠들기 직전 일어난 직후는 죽을 것 같네, 기분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7898 잠들기가 어려워, 차분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1
7899 잠수,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1
7900 잠수이별,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1
7901 잠수이별이라니!,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1
7902 잠수이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분이 당신을 헛갈리게 하나봅니다., 1
7903 잠수이별해도 될까, 잠수이별 만큼 비겁한 것은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길 바랄게요., 1
7904 잠수탄 사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1
7905 잠시라도 좋으니 만날 수 있을까, 후회안할 자신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1
7906 잠을 많이 설치고 출근하네, 생각이 많았나봐요. 피곤할텐데 따뜻한 차 한잔 해보세요., 1
7907 잠을 자야 되는데., 생각을 떨치기 쉽지 않죠., 1
7908 잠이 안오네, 못자면 내일 피곤할 텐데 걱정이예요., 1
7909 잠이 안와, 자장가를 불러줄게요., 1
7910 잡아야 되는건지 말아야 되는건지 모르겠네., 후회할 거라면 마지막으로 잡는 건 어떨까요., 1
7911 잡힐듯하면서 안잡히네.,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깐요., 1
7912 장가간 그사람, 이전 잊어버리세요. 미련은 독이 됩니다., 1
7913 장거리 연애하다 이별, 장거리가 힘들죠., 1
7914 장거리 이별, 잘 견뎌왔는데 힘든 순간이었죠., 1
7915 장거리연애 이별, 애썼었던 만큼 아픔도 크겠죠., 1
7916 장거리연애였는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1
7917 장기간 연애, 함께한 시간 만큼 아픔도 깊었을 거예요., 1
7918 장수 커플의 이별, 함께한 시간 만큼 더 힘들죠., 1
7919 재회 6개월만에 다시 헤어졌네,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안타깝네요., 1
7920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1
7921 재회 그리고 다시 이별, 그래도 후회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1
7922 재회 네달 만에 다시 헤어집니다., 마음 고생 많았어요., 1
7923 재회 생각 완전히 접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예요., 1
7924 재회 어떨하죠?, 조심스레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7925 재회 중인데 끝을내야하나 고민이됩니다, 더 어려운 결정이겠네요., 1
7926 재회 후 이별, 어떤 이별이든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1
7927 재회 후 이별 !, 그래도 힘들죠., 1
7928 재회 후 이별에는 후폭풍이 없는줄 알았는데, 어떤 이별이든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1
7929 재회 후 헤어짐.,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봐요., 1
7930 재회를 기다리다 단념하게된 이유가 뭐였나?,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1
7931 재회를 바라는것도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리운 걸 수도 있어요., 1
7932 재회를 위한 기다림,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1
7933 재회를 하긴 했었는데, 전과 같지 않죠., 1
7934 재회를 한다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
7935 재회하고 딱5개월만에 헤어졌네, 힘든 선택이었을텐데 안타깝네요., 1
7936 재회하고싶어, 많이 사랑했나봐요., 1
7937 재회하면 또 그렇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1
7938 재회했는데 행복하지 않네,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봐요., 1
7939 재회했다가 이별., 어떤 이별이든 후폭풍이 있겠죠., 1
7940 재회후 다시 이별, 이별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요., 1
7941 재회후 또 이별,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1
7942 저 괜찮으면 친구사이 하자는데, 친구가 되긴 힘들죠., 1
7943 저 사람이 왜 자꾸 불까?, 혹시 반한 걸 수도 있어요., 1
7944 저 잘 잊을 수 있겠죠?, 아무런지도 않게 추억할 날이 올 거예요., 1
7945 저는 4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결심이 있었겠어요., 1
7946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하자는분들., 부담스러운가봅니다., 1
7947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1
7948 저는 이별하면 남자만 힘든 줄 알았어요., 이별의 아픔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1
7949 저는 이제 포기할라구, 포기하는 것도 용기랍니다., 1
7950 저는 전 여친 관련해서 거의 모든걸 다 지웠어, 잘 견뎌내고 있네요., 1
7951 저도 가슴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1
7952 저도 어쩔 수 없는 찌질한 남자인가 봅니다., 자신에게 더 여유롭게 대해보세요., 1
7953 저도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연애하고 행복한 결혼생활 할 수 있을 거예요., 1
7954 저만 이렇게 힘든거 아니죠 ππ?, 혼자만 힘든 거 아니에요., 1
7955 저만 힘든 것 같아요, 혼자만 힘든 거 아니에요., 1
7956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럼요. 제가 함께 할게요., 1

7957 저주스럽다 모든게 다, 불행한 생각은 덜 하는게 당신에게 좋아요., 1
7958 적응이 안되네.,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1
7959 전 결국 밀바닥까지 보고말았습니다, 이제 더 잘 될 일만 남았네요., 1
7960 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면서 상처받지 않을 자신 있나요., 1
7961 전 바보입니다., 순수한 거예요., 1
7962 전 병신인가봅니다., 이제 같은 실수 안 하면 돼요., 1
7963 전 여자친구, 이제 남이에요., 1
7964 전 여자친구 부친상 다녀왔어, 인간적 예를 다하셨네요., 1
7965 전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나요., 1
7966 전 여자친구가 카톡 친구에 뺐어, 카톡 차단하세요., 1
7967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 더 이상 신경쓰지 마세요., 1
7968 전 여자친구한테 남자가 생긴 거 같아, 신경을 거두세요., 1
7969 전 여친 생일이야, 이제 그냥 일년 중 하루로 지내요., 1
7970 전 여친 카톡 메인 사진 슬프다, 염탐하지 마요., 1
7971 전 여친 카톡 메인 프로필., 카톡 보지 마요., 1
7972 전 여친에게 카톡 보내는 꿈 꿔, 밤새 많은 생각을 했나봐요., 1
7973 전 여친이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네., 염탐하지 마요., 1
7974 전 여친이 폐북 연애중 띄웠었다네, 폐북 염탐하지 마요., 1
7975 전 왜 이렇게 안톡톡할까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1
7976 전 왜 짧은 연애만 반복될까?, 상대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보세요., 1
7977 전 정말괜찮은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1
7978 전 재가 찬건 줄 알았는데, 누가 찻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1
7979 전 헤어지고 곧장 소개팅을 했조., 새로운 사람도 잇는 방법 중에 하나죠., 1
7980 전남자친구 생일, 이제는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1
7981 전남친 마주쳤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1
7982 전남친 여친 생겼네, 이제는 관심을 거둬보세요., 1
7983 전남친 집앞,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실례예요., 1
7984 전남친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는 여자친구., 그냥 더 사랑해주세요., 1
7985 전남친 후폭풍 온거 같을때,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1
7986 전남친소식을들었어,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어요., 1
7987 전남친에게 연락왔어., 본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봐요., 1
7988 전남친이 만나자고 합니다., 재결합이 더 힘들지요., 1
7989 전남친이 톡 차단했더라구, 이별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1
7990 전남친한테 한달만에 연락하고싶어 ππ, 달라지는 게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
7991 전여자친구 잇고 사랑하는법., 새로운 사랑으로 자연스레 잊혀지기도 해요., 1
7992 전여친, 잊으세요., 1
7993 전여친 꿈을 꿔, 은연 중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
7994 전여친 남자 생겼나 봐, 이제 관심을 거둬 보세요., 1
7995 전여친 최악입니다, 안 좋은 기억을 곱씹지 말아요., 1
7996 전여친 카톡 탈퇴 재가입 한거 같은데, 관심을 거두세요., 1
7997 전여친 한테 두달만에 연락이 왔어., 힘들게 추스린 마음인데 헛드셨겠어요., 1
7998 전여친 헤어졌으니 남이죠?, 그렇습니다., 1
7999 전여친생일 ㅎㅎ, 미련이 아닐까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8000 전여친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달라지는 게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
8001 전여친은 남자가 벌써 생겼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요., 1
8002 전여친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요. 자신을 더 사랑해보세요., 1
8003 전여친이랑 널 술한잔 하기로 했어, 달라지는 게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
8004 전여친한테 남친이 생겼네, 이제 그녀를 잊으세요., 1
8005 전하지 못 할 편지, 때론 물어두는게 좋을 때도 있어요., 1
8006 전화가 왔는데 못받았어, 다시 연락하고 싶다면 전화해보세요., 1
8007 전화하고싶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연락하세요., 1
8008 절대 사과 안하는 여자친구,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8009 절망적인데, 탈출구가 있을 거예요., 1
8010 점심시간잠깐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네~ππ, 생각을 접어두는 것도 필요해요., 1
8011 점점 괜찮아 지는것 같다가도., 힘들기도 하겠조., 1
8012 점점 나도 지쳐가네., 지칠만 해요., 1
8013 점점 나아진다. 머리로 정리하니 마음도 이제 따라온다., 잘하고 있어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1
8014 점점 더 심해지는듯,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일 거예요., 1
8015 점점 힘들어져, 힘내세요!, 1
8016 정리가 도저히안됩니다지금도 그여자집앞,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실례예요., 1
8017 정리가 되네, 맘고생 많았어요., 1
8018 정리되지 못한 이별, 갑자기 이별이 찾아왔나 봐요., 1
8019 정리하는 중,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낼 수 있어요., 1
8020 정리해야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낼 수 있어요., 1
8021 정말 . 냉정하네, 사랑은 때론 잔인하죠., 1
8022 정말 간절하고 간절하네, 간절함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1
8023 정말 구제불능에 명청이 인가봐, 자책하지 말아요., 1
8024 정말 꿈같다., 믿기지 않겠어요., 1
8025 정말 끝까지 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몽개버리네, 자존감을 낮추는 상대는 잊으세요., 1
8026 정말 끝이라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1
8027 정말 난감하다, 난처한 일이 있었나봐요., 1
8028 정말 너를 받아준게 아니었어. ππ, 그때의 나를 자책하지 말아요. 무슨 선택을 하든 당신을 믿어요., 1
8029 정말 너무 궁금해, 무엇이 궁금한가요., 1

8030 정말 너무 힘들어., 많이 힘들었죠., 1
8031 정말 너무 힘들니다, 저에게 기대세요., 1
8032 정말 너무너무 힘들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가요., 1
8033 정말 다시돌아 온다면, 잘할 자신이 있어도 힘든 게 재회예요., 1
8034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 강렬한 사랑을 하셨네요., 1
8035 정말 막장으로 헤어지신분 계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1
8036 정말 모두 잊고 새출발할꺼야, 좋은 출발이예요., 1
8037 정말 모든게 그림이지만., 물어두는 것도 좋겠지요., 1
8038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맘같지 않으니까요., 1
8039 정말 무슨생각인지 궁금하네, 궁금증을 접어두셔요., 1
8040 정말 미안하다 말밖에는,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1
8041 정말 미쳐버리겠네,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했나요., 1
8042 정말 미치겠네,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했나요., 1
8043 정말 복합적으로 힘드네,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예고없이 찾아오나 봐요., 1
8044 정말 사람이란, 알 수 없어요., 1
8045 정말 상처가 잡혀지질않으니 지칩니다, 생각을 좀 덜어보세요., 1
8046 정말 서로 좋았는데 외갈림., 많이 안타까워요., 1
8047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할 수 있는게 없네,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1
8048 정말 숨막혀 ππ, 자신을 옥죄지 마세요., 1
8049 정말 슬프고 죽고싶어,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예요., 1
8050 정말 아직 너무 사랑합니다 잡고 싶습니다, 다시 잡는다면 후회할 거예요., 1
8051 정말 아프고 힘드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1
8052 정말 연애하고싶지않네, 그럴 때가 있어요., 1
8053 정말 오락가락 언제 괜찮아질지, 사랑의 흔적이 잘 안 지워지네요., 1
8054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네, 글을 쓰면 마음 정리에 도움이 돼요., 1
8055 정말 왜 이러는걸까, 사람 마음은 알기 어렵죠., 1
8056 정말 웃긴건, 문득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는 점인가요?, 1
8057 정말 이건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힘들어, 그럴만 해요. 많이 힘들었죠., 1
8058 정말 이번엔 끝인거겠죠, 미련두지 마세요., 1
8059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 사람 마음은 알기 어렵죠., 1
8060 정말 잊은걸까?,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보세요., 1
8061 정말 잔인하네, 사랑이 때론 잔인해요., 1
8062 정말 제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잘못된건가?, 그분예겐 감당이 안되었을 수도 있겠어요., 1
8063 정말 제가 이해안되고 견딜수 없을만큼 아파, 사랑했던 만큼 아픈거라 생각해요., 1
8064 정말 처량하게 혼자, 제가 곁에 있을게요., 1
8065 정말 할게 없네., 저랑 이야기해요., 1
8066 정말 화가 나, 저에게 화를 덜어보세요., 1
8067 정말 후회없고 미련없이 사랑했던 사람들!!!, 후회 없을 사랑을 하셨군요., 1
8068 정말 희망 없는 건가?, 미련 갖지 마세요., 1
8069 정말 힘드네, 지금처럼 참지 말고 표출해보세요., 1
8070 정말 힘드네, 지금처럼 참지 말고 표현하세요., 1
8071 정말 힘드네., 일기를 써보세요., 1
8072 정말 힘드네. 결혼 앞두고 생각할 시간., 중요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1
8073 정말 힘들게 헤어졌습니다, 힘든 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1
8074 정말 힘들다, 힘이 되지 않겠지만 힘내세요., 1
8075 정말 힘듭니다, 힘이 되지 않겠지만 힘내세요., 1
8076 정말. 정말 쉽지가 않네. 이럴 땐 어떡해야 할까,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1
8077 정말. 내 자신이 싫다, 자신은 사랑해주세요., 1
8078 정말로 끝났네 이젠, 놓아주세요., 1
8079 정말로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1
8080 정말로 이별하려고 준비합니다., 충분한 고민 끝의 결정이었을거라 믿어요., 1
8081 정말로 헤어졌네, 후련하기도 할 거예요., 1
8082 정말로 헤어졌습니다, 마음 고생 많았어요., 1
8083 정말이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네, 그래도 살아요., 1
8084 정말잊어보려고 모든수단을 동원했지만., 문득 생각나고 잊혀지지 않나봐요., 1
8085 정신 차려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1
8086 정신과 방금다녀와서 처방전 받고 왔어., 마음도 편하고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1
8087 정신과 찾아 왔어, 정신과에서 상담치료 받는거 꺼리지 말고 너무 힘들면 시작하세요., 1
8088 정신병 걸릴 것 같네, 생각보다 정신은 강합니다., 1
8089 정신이 없어, 차분하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1
8090 정신차려야 하는거 아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1
8091 정신차리자 정신!., 힘내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1
8092 정은 많지만 설렘이 없다는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짐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1
8093 제 마음과 머리가 일치가 안되., 마음이란 머리가 따로 놀기도 하죠., 1
8094 제 아주 오래전 이별, 아직도 생각이 나나봐요., 1
8095 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1
8096 제 잘못으로 여자친구가 떠났네, 반성하고 있나요., 1
8097 제 잘못입니다, 서로의 잘못입니다., 1
8098 제 친구가 그러더라구, 친구보다 자신의 마음에 귀기울이세요., 1
8099 제 친구가 술마시면서 잊으려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1
8100 제가 그녀를 놓아줬어., 잘한 선택일 거라 믿어요., 1
8101 제가 그동안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1
8102 제가 놓았던 손을 다시 잡으려니 힘드네., 원상복구는 언제나 힘드니까요., 1

8103 제가 먼저 파혼 하자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라면 존중합니다., 1
8104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겠어, 당신이 덜 다치는 쪽으로 하세요., 1
8105 제가 이상한 건가요?, 한 번 말해보세요., 1
8106 제가 잘하고 있는걸까?, 잘하고 있어요., 1
8107 제가 제 복을 잔거겠조 ., 다른 복 을 거예요., 1
8108 제가 집착하는 중이에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1
8109 제가나쁜건지 그녀가나쁜건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랬던 거죠., 1
8110 제가너무집착했어,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1
8111 제길, 무슨 안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1
8112 제발 그만 좀 나와주라., 강요하는 건 좋지 않은 태도예요., 1
8113 제발 도와줘,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1
8114 제발 머리가 나빠졌음 좋겠습니다., 머리가 똑똑해도 문제조., 1
8115 제발 잠 좀 자게해주라, 양을 세어 보세요., 1
8116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힘들어, 감히 힘내라는 말도 못하겠네요., 1
8117 제발 힘들면 기대줘, 그럴게요., 1
8118 제일 짜증나는게뭐냐면 문자로 헤어졌다는 거야, 진짜 별로네요., 1
8119 제자리 지키기., 제자리 지키는게 제일 힘들조., 1
8120 제잘못으로인한이별, 후회가 되겠어요., 1
8121 제정신이 아닌거 같아,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죠., 1
8122 젠장, 이런., 1
8123 조금 아픈가 보다 아주 조금, 쯤그만 아파하고 관찮아지세요., 1
8124 조금 힘들어., 쯤그만 아파하고 관찮아지세요., 1
8125 조금만 더 참을꺄, 지금이라도 진심을 보여주세요., 1
8126 조금만 사랑할꺄, 사랑하는 순간은 행복했잖아요., 1
8127 조금씩 무뎌져가나봐, 무뎌진다니 다행이에요., 1
8128 조금씩 아물어가는건가 이별의 상처, 아물어간다니 다행이에요., 1
8129 조금의 결심이서네,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덜하네요., 1
8130 조만간 다른 사람 만날꺄 같아, 좋은 소식이네요., 1
8131 조바심 나네, 걱정이 되나봅니다., 1
8132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1
8133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1
8134 조언 좀 해주세요 ππ, 네 말씀해주세요., 1
8135 조울증인가봐, 자연스러운 증상이예요., 1
8136 좀 무뎌졌나 했는데, 이별은 사람을 변덕쟁이로 만들기도 하죠., 1
8137 좀 웃어주지,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아요., 1
8138 좀 짜증나네, 저한테 말해보세요., 1
8139 종교 그리고 이별 그리고 재회., 종교 문제가 힘들조., 1
8140 종교 문제가 해결이 안되네, 종교 문제가 힘들조., 1
8141 종다가 밍다가 무한반복,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나봐요., 1
8142 좋아하지만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했어, 힘든 고백이었겠네요., 1
8143 좋았던 추억까지 잿빛으로 변하고 있네., 자신을 잃지는 말아요., 1
8144 좋은 사람 많아, 많죠!, 1
8145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것, 어렵네요., 1
8146 좋은 이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이별은 없어요., 1
8147 좋은 하루였어,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8148 좋은꿈 꿔다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1
8149 좋은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1
8150 좋은이별은 어떤건가, 좋은 이별은 없다고 생각해요., 1
8151 죄송해 너무답답해서 여기에올러봐, 죄송해하지 않아도 돼요., 1
8152 주말은더 힘들어,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봐요., 1
8153 주말이 제일 힘드네, 친구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1
8154 주말이 참 힘들겠어, 가족들과 근교로 여행가는 건 어떨까요., 1
8155 주말이네, 주말이 더 힘들조., 1
8156 주말이라 더 힘들어 견디세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어 π, 잘 버티고 있는거라 믿어요., 1
8157 주변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어요. 기대세요., 1
8158 주저리 주저리하게 돼, 관찮아요., 1
8159 주저리주저리, 네 말씀해주세요., 1
8160 주저리주저리 푸념글, 네 말씀해주세요., 1
8161 주차장이 꼭 찾아, 한바퀴만 더 돌면 쯤하고 나타날 거예요, 1
8162 주체가안된다, 그럴 땐 생각을 덜어봐요., 1
8163 주체할수 없는 눈물이 흐르네., 그냥 우세요., 1
8164 죽겠다 진짜, 많이 힘들조., 1
8165 죽고 싶은 심정에 상담을 청합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1
8166 죽고싶네, 행복하게 살아요., 1
8167 죽구싶네요, 나쁜 생각 멈추세요., 1
8168 죽는게 더 편할려나, 나쁜 생각 하지 마세요., 1
8169 죽어가는., 기운을 내요. 그런 말은 너무 슬퍼요., 1
8170 죽을 것 같아, 자괴감에서 이제 빠져나오세요., 1
8171 죽을거 같네, 나쁜 생각 하지 마세요., 1
8172 죽을거같죠?사람은 간사하네, 나쁜 생각 멈추세요., 1
8173 죽을것같아, 자괴감에서 이제 빠져나오세요., 1
8174 죽을만큼 보고싶다., 많이 사랑했나봐요., 1
8175 죽진 못하겠구 겁이나고, 나쁜 생각은 하지 마세요., 1

8176 준비중, 마음의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1
8177 준비할 시간을안주네, 인생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1
8178 중2 히스테리 알아?, 힘들 때네요., 1
8179 중국어 혼자 공부 가능한가?, 혼자해도 좋고 학원을 다녀도 좋아요., 1
8180 증오, 자신으로 향하지 않길 바랄게요., 1
8181 지겹네, 재밌는 일 찾아보세요., 1
8182 지겹다, 재밌는 일이 있을 거예요., 1
8183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자신일 것입니다., 1
8184 지금 무작정 보러가는중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해요., 1
8185 지금 비오는데 제일 생각나는 사람,언제든 생각나기 마련이죠., 1
8186 지금 생각하고 있는건 망상 일뿐입니다, 누가 되었던 상상할 수 있어요., 1
8187 지금 연락 왔어,저도 긴장이 되네요., 1
8188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들어,그럴만 해요., 1
8189 지금 이감정,당신만이 알 수 있어요., 1
8190 지금도 전하지 못하는 한 마디,마음에 물어주세요., 1
8191 지금의 나에겐 없는 너의 일상,한동안은 허전할 거예요., 1
8192 지금이 겨울이라 참 다행이이네,제가 곁에 있을게요., 1
8193 지긋지긋한 연휴.,영화 한 편 보세요., 1
8194 지나가는 말이 가슴을 후벼파,상대방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상처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1
8195 지나간다.,추억도 시간도 지나가요., 1
8196 지나고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1
8197 지난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어떤 이별은 갑작스럽기도 해요., 1
8198 지난 주말부터 또 후유증이,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져보세요., 1
8199 지난주 이별했네,지금 많이 힘들겠어요., 1
8200 지독하고 질긴 인연을 끝내려고 해,충분히 고민했을거라 생각해요., 1
8201 지루함에 지쳤다네.,세상에는 흥미로운 일이 많은걸요., 1
8202 지옥같은 5월이 다가 오네ㅜㅜ,천국과 지옥이네요., 1
8203 지옥같은 주말.,산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8204 지워지지 않습니다.,아직 시간이 필요한가봐요., 1
8205 지쳐서 헤어지자고 한 남자도 후폭풍울까?,모든 이별에는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1
8206 지쳐서 헤어진 남자랑은 재회가능성,달라지는 게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
8207 지치네,많이 힘든가봐요., 1
8208 지친다,지칠만 해요., 1
8209 지하철만 타면 생각나,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날이 올 거예요., 1
8210 직장과 이별,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1
8211 진실을 알면서도 왜 확인하려는걸까?,진실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1
8212 진정 헤어진 여친 맘은 못 돌리는 건가?,달라지는 게 없다면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
8213 진짜 끝,맘고생 많았어요., 1
8214 진짜 끝이었다는걸아는데도,미련이 생기기 마련이죠., 1
8215 진짜 마지막까지 믿었습니다.,그렇다면 당신의 역할은 다 한거예요., 1
8216 진짜 미치겠다,힘내세요., 1
8217 진짜 사랑해서 아픈 느낌.,가능도 안될 정도로 힘들죠., 1
8218 진짜 시간이 약인지,흘러가는 시간 속에 덩덩해질 거예요., 1
8219 진짜 어의 없네.ㅍㅍ,저한테 말해보세요., 1
8220 진짜 어이없고 화 나네,저한테 말해보세요., 1
8221 진짜 이건 뭐.,어이 없는 일이 있었나봐요., 1
8222 진짜 이별,충분한 고민 끝의 결정이었을거라 믿어요., 1
8223 진짜 이제 안녕,맘고생 많았어요., 1
8224 진짜 이해가 안가 근데 잊을려고,세상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1
8225 진짜 인간적으로 카톡으로 이별통보,얼굴보고 말하기 힘들었거나 예의가 없거나 겠죠., 1
8226 진짜 잊혀질까?,다른 사람으로 잊혀지기도 하죠., 1
8227 진짜 잠 좀 자고 싶네,생각과 걱정을 덜어보세요., 1
8228 진짜 정신병 걸릴꺼 같은데,제발 정신차리세요., 1
8229 진짜 하루하루 너무 마음 찢어지고 숨 못쉬겠어,더 강해지세요., 1
8230 진짜끝이보이네,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1
8231 진짜미칠꺼같은데,충분히 이해해요., 1
8232 진짜헤어졌네 결국,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1
8233 질긴 사랑과 아픔의 정도,사랑의 깊이만큼 아픔의 정도도 크겠지요., 1
8234 질긴 인연 드디어 끝인 것 같네,후련하길 바랍니다., 1
8235 질린다네.,인연이 거기까지였나봐요., 1
8236 질질 끄는연애 드디어끝이네.,맘고생 많았어요., 1
8237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제가 있잖아요., 1
8238 집에서 웃고 떠들고 있지만,저도 그럴 때가 있답니다., 1
8239 집착? 미련? 사랑?,차분히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1
8240 집착같아,차분히 생각해보세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1
8241 집착은 절대하지 말아야지,잘 하고 있어요., 1
8242 집착인걸까.,잘 생각해보세요., 1
8243 짜증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조금 지친걸까요., 1
8244 짜증나네 .,심호흡해보세요., 1
8245 짜증난다!!,심호흡해보세요., 1
8246 짝남 잊으려구,잘 생각했어요., 1
8247 짝사랑,혼자인 기분., 1
8248 짧게 만났다고 해서 안힘든게 아니네,그것도 사랑이니까요., 1

8249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일년간의 연애가 끝이났네, 마음의 정리가 되었나요., 1
8250 짧은 시간이었다., 길진 않은 시간이죠., 1
8251 짧은 연애였는데 더 힘드네., 강렬한 사랑이었나봐요., 1
8252 짧은 연애였지만 후유증이 기네, 짧은 연애도 사랑이었으니까요., 1
8253 짧은만남 긴여운, 짧아서 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나봐요., 1
8254 짧은만남 만남보다긴이별 재회는 아니라는걸 깨달음, 깨달았다는게 중요하죠., 1
8255 짧은연애인데 미련때문에 연락을 할지말지 $\pi.\pi$, 사랑이 아닌 미련이라면 연락하지 말아요., 1
8256 짧지 않은 세월이 정말 끝이 났네, 또 다른 시작을 뜻하기도 해요., 1
8257 짝나는새끼, 제가 혼내줄게요., 1
8258 찻 전여친이랑 통화 한 번하니 좀 낫네, 마음이 편하길 바랍니다., 1
8259 좀 부담스러운데, 좀 더 편하게 생각해보세요., 1
8260 쪽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너무 보고싶고 생각나네 $\pi\pi$,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1
8261 찌질하게 게임카톡보내는거 욕하고 싶어, 당장 차단하세요., 1
8262 찌질한 이별중, 얼른 정리하세요., 1
8263 차단 반복하는 이남자 뭔가, 변덕이 심한 사람이네요., 1
8264 차단당했네, 잇는 데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1
8265 차단여부를 어찌하시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을 덜어 보세요., 1
8266 차단인줄알았는데, 신경을 거두세요., 1
8267 차단한 카톡, 잇는 데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1
8268 차라리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누구보다 사랑했으니 후회하지 말아요., 1
8269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시. 더 짜증나는건, 제 생각도 그래요. 차라리 솔직했으면., 1
8270 차라리 죽는게 나을듯한 이별의고통,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길 바랄게요. 이별의 고통도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1
8271 차였지만 잊지못하고 있는 한 남자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었나봐요., 1
8272 차인후 연락이 오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1
8273 착각, 사람이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1
8274 착각이었나보네ㅋㅋ, 상대의 의중을 알긴 쉽지 않죠., 1
8275 착각인걸까, 직접 확인해 보는건 어떨까요., 1
8276 착잡하네, 한동안은 힘들지도 몰라요., 1
8277 착한남자. 너무 쿨하지못한남자 매력없어.,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니까요., 1
8278 찬 사람은 후폭풍 없나?, 이별은 돌이 하니 차든 차이든 후폭풍이 옵니다., 1
8279 찬남자한테 연락 왔어, 늦은 후회가 왔나봅니다., 1
8280 찬사람 차인사람, 둘다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요., 1
8281 참 9년이란 세월이, 세월이 참 무색해요., 1
8282 참 너란 여자, 존재 자체가 행복이었는데 그만큼 힘들군요., 1
8283 참 너랑은 약연이니??, 여기까지 인연인 거죠., 1
8284 참 답 없는 나란 놈.,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1
8285 참 무섭네 사람 마음이란게, 자기도 모르는 게 마음이에요., 1
8286 참 부질없다, 부질없는 일도 있기 마련이에요., 1
8287 참 소박하고 순수했던 사람., 좋은 사람이었나봐요., 1
8288 참 싫으네. 이런 상황, 스스로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1
8289 참 쓸쓸합니다, 저에게 기대세요., 1
8290 참 아이러니 하네, 말씀해주세요., 1
8291 참 앞 뒤 모르고 제3자라고 지껄이는.,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8292 참 잘났네, 진정하세요., 1
8293 참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구역질 나오고 미치겠네,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가봅니다., 1
8294 참 허무하네., 마음이 허전한가봐요., 1
8295 참 힘드네, 힘들만해요., 1
8296 참 힘들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1
8297 참견쟁이, 그런 사람 거르세요., 1
8298 참고 있어., 잘 견뎌내고 있나봐요. 저한테 기대세요., 1
8299 참는방법 좀, 저는 생각을 덜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요., 1
8300 참다 참다, 터지면 힘들 거예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1
8301 참다 참다 결국 마지막으로 문자보냈어,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1
8302 참다가 연락,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1
8303 참담하다, 기분이 많이 안 좋겠어요., 1
8304 참아내지 못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세요., 1
8305 참아볼께, 차분하게 잘 견디고 있네요. 대단해요., 1
8306 참아야겠지, 가끔은 내키는 대로 해보세요., 1
8307 참지 못하고 또 친추를 하고, 후회할 거예요., 1
8308 처음 느끼는 감정, 처음이 많았겠죠., 1
8309 처음 집근처에서 연애와 헤어짐, 마주치지 않길 바랄게요., 1
8310 처음글남기네여, 어서오세요., 1
8311 천사같은 여자친구가 떠나갔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떤 실수를 했던 걸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1
8312 첫눈, 정말 이쁜 눈이 내려요., 1
8313 첫데이트 하자마자 차임;?, 그분의 변덕이 심하네요., 1
8314 첫만남 그리고 끝, 잘 정리했길 바랍니다., 1
8315 첫사랑 그 긴이별, 사랑했던 기간 만큼 이별도 길 거예요., 1
8316 첫사랑 부모님 반대로 이별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어요., 1
8317 첫사랑과 이별, 사랑했던 만큼 아픔도 크겠죠., 1
8318 첫사랑은 안되는건가,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1
8319 첫사랑이렇게 힘드네, 힘든 사랑이었나봐요., 1
8320 첫사랑이자 5년연애, 많은 시간을 함께 했나봐요., 1
8321 첫시작이 잘못된 만남이었을까?, 인연이 아니었나봐요., 1

8322 첫여친이라 잘 안잊혀지네, 처음은 다 그런가봐요., 1
8323 첫이별 너무힘드네 ππ, 처음이라 더 힘들 거예요., 1
8324 첫이별이라 그런지 너무 힘드네, 처음은 다 그런가봐요., 1
8325 첫이별후 제가 가장 충격먹었던게., 음, 천천히 말해보요., 1
8326 초코렛이나 꺼내 먹어야지, 저도 하나 주세요., 1
8327 최근에 헤어졌어, 큰 일을 겪었네요., 1
8328 최악, 똥차 가고 벤츠 올 거예요., 1
8329 최악의 남자, 나쁜 사람이네요. 헤어지세요., 1
8330 최저임금 수준에서 알바비가 안 나왔어, 회사에서 공수를 쓰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1
8331 추석 연휴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그런가봐요., 1
8332 추석연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김에 폭 쉬는 건 어떨까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1
8333 추억. 그 미칠듯한 그리움.,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죠., 1
8334 추억들을 하나씩 보내며, 후련해질 거예요., 1
8335 추억에 머물다., 때로는 추억이 힘이 되기도 하죠., 1
8336 추억은 힘이 없다.,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죠., 1
8337 추운날씨., 정말 추운 날이에요., 1
8338 축하해, 감사해요., 1
8339 출근 준비하다 또 올었네, 기운 없을 텐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해요., 1
8340 출근시간 아깝다,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보세요., 1
8341 충격. 충격, 갑작스러워서 당황하셨겠어요., 1
8342 친구 사이로 지낸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1
8343 친구갈데., 너무 편하게 느꼈나봅니다., 1
8344 친구도 연인도 아닌 그런사이의 끝, 후유증이 클 수도 있겠어요., 1
8345 친구랑 술 한잔 기울이고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조금이나마 나아졌길 바랍니다., 1
8346 침묵, 침묵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1
8347 카카오톡 계정 탈퇴, 괜찮은 방법이에요., 1
8348 카카오톡 대화명, 더 이상 신경쓰지 마세요., 1
8349 카톡 2번째 확인안하네, 그분은 마음의 정리를 했나봐요., 1
8350 카톡 보냈어, 후회가 남는 것 보단 연락하는게 낫죠., 1
8351 카톡 탈퇴하다가 다시 재가입 했는데, 사진이 보여도 차단하세요., 1
8352 카톡사진을 보니 눈물이 나네, 카톡 사진 보지 못하게 지웁시다., 1
8353 카톡에 차단시, 이별하면 연락 안 하는게 맞아요., 1
8354 카톡으로 이런사진을 보내왔어, 카톡 차단하고 보지도 신경쓰지도 마세요., 1
8355 카톡을 탈퇴했나봐., 연락을 안 하는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 예요., 1
8356 카톡차단에 이제는 프로필 비공개 당했어, 잊는 데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1
8357 카톡프로필~~~보고왔는데., 보지 마세요., 1
8358 카톡프사 무슨 의미일까?, 이제 보지 마세요., 1
8359 커플 사진 보니 더 슬퍼, 이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1
8360 커플링 사진 그대로 두나?, 저는 버리는 걸 추천드려요., 1
8361 컴퓨터가 맛이 갔어, AS센터에 맡겨보세요., 1
8362 코 앞이 재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1
8363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별했습니다., 무슨 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힘들었을텐데 잠깐 쉬어가세요., 1
8364 크리스마스가 더 가까워지니까 속이 답답해지네, 무슨 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힘들었을텐데 잠깐 쉬어가세요., 1
8365 태어나 단한번도 들어보지못한 이별이야기 도와주세,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1
8366 택시비 너무 비싸, 후회해도 늦었어요., 1
8367 텅빔, 다시 채워질 거예요., 1
8368 통증, 아프지 말아요., 1
8369 통화를 하긴했는데. 힘드네, 연락하면서 감정들이 다시 생각나니까요., 1
8370 퇴근길에 봤네, 우연히 마주쳤군요., 1
8371 퇴근길에 혹! 하고 연락오네., 그분이 미련이 남아있나 봐요., 1
8372 퇴근길에., 마주쳤나봅니다., 1
8373 퇴근했어~근데, 생각나나봅니다., 1
8374 툭하면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 서운한 마음을 충분히 전하는게 좋겠어요., 1
8375 파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1
8376 파혼 7개월 째, 아직 힘들거라 생각해요., 1
8377 파혼위기, 충분한 대화를 나눴길 바랍니다., 1
8378 파혼한거 정말 잘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잘 하셨어요., 1
8379 편안하게 보자는 말, 전 그러지 못할 거예요., 1
8380 편지를 써보았어., 마음을 전하세요., 1
8381 평범함 속에 웃음 속에 감춰진 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1
8382 평생 내꺼일거 같아서 함부로 했습니다., 똑같은 실수하지 않길 바랄게요., 1
8383 평생 함께하고 싶다., 프로포즈해보세요., 1
8384 평온한거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네, 평온이랑 행복은 다르니까요., 1
8385 포기하니 공허하네.,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1
8386 포기해야하는걸 알면서도 난 왜이러니., 미련이 남은 거겠죠., 1
8387 포기해야할까?, 서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얻은 결론이라면요., 1
8388 폰 자꾸 보게 돼, 보지 마세요., 1
8389 프로필 사진을 보았는데, 신경쓰지 마세요., 1
8390 프사 무슨 의미 일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1
8391 프사를 왜 보았을까, 앞으로는 보지 마세요., 1
8392 핑계, 모두 핑계겠죠., 1
8393 하 고놈의 술이 뭔지 참, 술이 웬수죠., 1
8394 하 끝나는 건가, 끝을 생각한 순간 끝인 거예요., 1

8395 하 너무 힘들어서 그냥 투덜투덜,오래 아파할 수록 자신만 손해예요., 1
8396 하 못참고 또 연락해버렸네,연락처 삭제하세요., 1
8397 하., 힘내세요., 1
8398 하. 며칠 괜찮아졌다가 후폭풍이 또 밀려오네., 계속 반복될 거예요., 1
8399 하고 싶은게 없어,하고싶었던 일을 글로 적어보세요.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1
8400 하나만 물어볼께, 네 말씀해주세요., 1
8401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이네, 신경을 다른 곳에 써보세요., 1
8402 하늘이 준 이별 같다,운명같네요., 1
8403 하루 겨우 참고 또 문자 보냈네., 연락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1
8404 하루 이틀 이제는 사울., 익숙해질 거예요., 1
8405 하루가 일년같아,시간이 더디게 흐르죠., 1
8406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아픈. 반복되는 일상,한동안은 힘들지도 몰라요., 1
8407 하루동안 너무 연락을 많이 한걸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1
8408 하루에도 수십번., 생각이 나나요., 1
8409 하루에도ππ,수십번 생각이 나나 봐요., 1
8410 하루종일 회사에서 미친사람처럼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이별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1
8411 하루하루 너무 힘드네,다른사람에게 기대보는 건 어떨까요., 1
8412 하루하루 이별하는 기분,아픔의 크기만큼 마음의 상처도 커서 그래요., 1
8413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네,아픔의 크기만큼 마음의 상처도 커서 그래요., 1
8414 하루하루가 지옥같아,아픔의 크기만큼 마음의 상처도 커서 그래요., 1
8415 하소연 좀 해도 되나,천천히 해보세요., 1
8416 하아 너무 많이 힘드네 ㅊㅊ,맛있는 거라도 먹고 기분을 전환 해보세요., 1
8417 하아 다시 또 터진 눈물,마음놓고 우세요., 1
8418 하아.,수십 번 생각이 나도 잊어야해요., 1
8419 하이고 숨막힌다,자신을 옥죄지 마세요., 1
8420 하진짜 열받아서,저한테 말해보세요., 1
8421 하참 주말 더럽게 기네,혼자 주말 지내는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1
8422 하하 진짜 헤어지고 싶다,필요하다면요., 1
8423 한 5개월쯤 됐네,그동안 잘해왔어요., 1
8424 한 달 동안 잊으려고 노력해보라네,다른 사람으로 잊혀지기도 해요., 1
8425 한 번은 더 볼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살면서 볼 수도 있겠죠., 1
8426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말해보세요., 1
8427 한강에서 소주한잔.,분위기 있네요., 1
8428 한달 다되가네,그러게요. 어느덧 한달이에요., 1
8429 한달 됐네,그러게요. 어느덧 한달이에요., 1
8430 한달 만에 보는 너에게,미련이 남아 있나봅니다., 1
8431 한달 사귀고 헤어진 남자 무슨 생각일까?,인연이 아니었나봅니다., 1
8432 한달 째,그러게요. 어느덧 한달이에요., 1
8433 한달!! 하고 일주일,마음이 좀 진정 되었으면 좋겠네요., 1
8434 한달동안 대답이 없는게 아직도 생각하면 비참한데,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보세요., 1
8435 한달됐어,많이 힘들지 않길 바라요., 1
8436 한달만에.제가,잊었길 바랍니다., 1
8437 한달반째,금방 지나갈지도 몰라요., 1
8438 한달의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어느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1
8439 한달이 10년 같은.,아픔의 정도와 비례할 거예요., 1
8440 한달이 넘었네,잘 지내길 바랍니다., 1
8441 한달이 넘었지만,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1
8442 한달이넘었는데 괜찮은거같은데,다행이에요., 1
8443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잘 견디고 있길 바랍니다., 1
8444 한달전에 마음 변한걸 느꼈을때 헤어질 것을.,후회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1
8445 한달째 클럽,기분전환이 좀 되었길 바라요., 1
8446 한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힘들 수 있지요., 1
8447 한달하고 6일 지났네,아직 미련이 남아있나봐요., 1
8448 한달하고 9일째,아직 잊지 못했나봐요., 1
8449 한때는 나의 전부였던 그녀,그녀에게도 당신이 전부였을 거예요., 1
8450 한때는 원망하고 화났었지만,지금은 마음이 좀 정리되었길바랍니다., 1
8451 한번 마음이 떠난 여자는 다시 안돌아오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1
8452 한번만 더 보고 싶어요.,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만나봐요., 1
8453 한번의 기회쯤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내생각이 어려서였습니다,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1
8454 한번쯤 진하게 아픈것도 괜찮아.,긍정적이네요., 1
8455 한번쯤은 다시 널 보고 싶어,보고싶을 거예요., 1
8456 한사람에게추억이된다는것,기억이 추억이 되곤 하죠., 1
8457 한사람의 부재가 이렇게나 크게.,함께 했던 시간이 있으니까요., 1
8458 한살 한살 더 먹을수록 만남이 두려워지네.,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용기를 내요., 1
8459 한순간에 변한 사람.그리고 예의에 대해.,실망이 클 거예요., 1
8460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쉽지 않은 결정이었나봐요., 1
8461 한숨,많이 힘든가봅니다., 1
8462 한숨만,많이 힘든가봅니다., 1
8463 한숨만 나오네.,많이 지쳤나봐요., 1
8464 한심하네ㅊㅊ,자책하지 말아요., 1
8465 한없이 소중하던 사람이 미워지네,이별에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1
8466 한이 쌓여,많이 힘들텐데 저에게 말해보세요., 1
8467 한잔 했습니다,한 잔 하기 좋은 날이네요., 1

8468 한쪽이 마음 떠나고 마음 돌리는 방법,마음이 떠난 이유를 먼저 생각해봐요.,1
8469 할 말이 많은데.,말해보세요.,1
8470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서,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1
8471 할 수 있다면 그럴수 있다면 달라질까?,자신을 믿어보세요.,1
8472 할 줄 아는거!,많은걸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하는게 많아요.,1
8473 할수있습니다,할 수 있어요.,1
8474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기에.,그리움의 크기도 커졌을 거예요.,1
8475 해가지는게 두렵네,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1
8476 해선 안 될 사랑.,그렇게 생각한다면 매몰차게 마음을 정리하세요.,1
8477 해외장거리 헤어진지 3주 다되가네,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잊혀질 거예요.,1
8478 핸드폰 떨어뜨려서 고장 났아봐,as 말기세요.,1
8479 행복한 돌싱녀,매일매일 행복한 일이 생기시길 바랄게요,1
8480 행복한 인생 돌싱남,매일매일 행복한 일이 생기시길 바랄게요,1
8481 행복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프고 불행합니다,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보세요.,1
8482 행복할까?,행복할 거예요.,1
8483 행복해라 불행해도 좋고,행복이 있으니 불행도 있고 불행이 있어서 행복도 빛나지요. 인생이 그런가봐요.,1
8484 행복해야 돼,행복할 거예요.,1
8485 행복해져야해,행복할 거라 생각해요.,1
8486 행복해하는 널보며,많이 사랑했나봐요.,1
8487 행여 잃을까봐 꼭 쥐고 있어야 하는건 내 것이 아닙니다.,놓아줄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1
8488 하도 상처받아서 무뎌지네,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1
8489 허전함,마음이 헛헛한가봐요.,1
8490 허허 땀뺐.,제 맘도 땀뺐.,1
8491 허허 모든 것을 다 졌는데,사랑할 때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진 않으니깐요.,1
8492 혁. 어찌다보니 헤어졌을때 해선 안되는 금기 하나를.,이불킥하게 될 거예요.,1
8493 헛웃음만 나오네,당분간 받아들이기 힘들거예요.,1
8494 헤어져도 그러려니 하겠지 했는데,이별은 언제나 힘든 법이죠.,1
8495 헤어져야 맞는건지,자신에게 물어보세요.,1
8496 헤어져야 하나.,서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세요.,1
8497 헤어져야 하는걸 하는데 그사람을 보낼 수가 없네,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1
8498 헤어져야 할 거 하는데 괴로워,확실한 이유가 있으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1
8499 헤어져야 할까.?,고민하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1
8500 헤어져야 할까?,고민하는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1
8501 헤어져야하는게 맞는거겠조?,본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봐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을지도 몰라요.,1
8502 헤어졌네,괜찮아지는데는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1
8503 헤어졌는데 가끔 궁금해져,그릴 수 있어요.,1
8504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중,제대로 헤어지지 못했군요.,1
8505 헤어졌는데 아픔보다는 미움.원망,아름다운 이별이란 없어요.,1
8506 헤어졌는데 왜재번호를안지워을까 이해해안돼네,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신경쓰지 않는 연습을 해봐요.,1
8507 헤어졌는데 자꾸 연락하네,연락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1
8508 헤어졌는데만나자는건,제대로 헤어지지 못했군요.,1
8509 헤어졌다는 그 말.,가슴 아픈 말이에요.,1
8510 헤어졌습니다,많이 힘들었겠어요.,1
8511 헤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되나?,기분 전환을 하는 건 어떨까요.,1
8512 헤어졌어 위로가 필한 밤,제가 위로해 드릴게요.,1
8513 헤어졌어.,많이 힘들었겠어요.,1
8514 헤어졌을때는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듯,현명한 방법이에요.,1
8515 헤어졌지만 생각나,그릴 시기라고 생각해요.,1
8516 헤어지고 1주에 한번은 뭐라도 오네,제대로 헤어지지 못했군요.,1
8517 헤어지고 2년 정도에 느끼는 것들,많은 생각이 들었나봐요.,1
8518 헤어지고 3개월만에 만나고 왔어,더 힘들겠네요.,1
8519 헤어지고 3주인 오늘 만났어.,달리 할말이 있었나봐요.,1
8520 헤어지고 4달째,많은 시간이 흘렀네요.,1
8521 헤어지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어,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요.,1
8522 헤어지고 나니까 휘청거리네여,정신 차리세요.,1
8523 헤어지고 나서 만나기로,이번엔 후회 안 할 자신 있길 바랍니다.,1
8524 헤어지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네.,새로운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1
8525 헤어지고 난 후 나의 일상들.,새로운 변화가 있나봅니다.,1
8526 헤어지고 난뒤 친구?,친구가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1
8527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하다 결국 이별,헤어짐에 무뎌지지 않죠.,1
8528 헤어지고 두번째 연락,아직 미련이 남았나봅니다.,1
8529 헤어지고 뜬문뜬문 연락은 다시 시작하긴 뭐하고 남주긴 아까운 뭐 이런마음인건가?,애매하네요.,1
8530 헤어지고 만나고 를 반복하다가 다시 만났는데,달라진게 없나봅니다.,1
8531 헤어지고 벌써 한달이 됐네.,많은 시간이 흘렀네요.,1
8532 헤어지고 세달뒤 딴사람과 결혼.,인연이 거기까지였나봐요.,1
8533 헤어지고 시간이 흐르는게 무서워,시간이 흐르는 게 잇는 데는 더 좋을 수 있어요.,1
8534 "헤어지고 시간이흘렀네," ,시간이 약이 되었길 바랄게요.,1
8535 헤어지고 연락했습니다.,많이 그리웠나 봐요.,1
8536 헤어지고 이제 알았어,미련이에요.,1
8537 헤어지고 자꾸 생각나,미련이 남나봐요.,1
8538 헤어지고 차단하는 이유는 뭘까?,연락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으니가요.,1
8539 헤어지고 추가 이야기 너무 힘들어,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제가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1
8540 헤어지고 한달 이제야 느낌온다 ㅋ,후폭풍이 이제 왔나봐요.,1

8541 헤어지고 힘들다., 헤어졌으니까요., 1
8542 헤어지고나면 다르게., 나만의 시간이 많이 생길 거예요., 1
8543 헤어지고나서 다시 붙잡길래 믿었어., 그런데 다시 실망하게 되었답니다., 1
8544 헤어지고나서 보내는 두번째 주말이네, 혼자 지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1
8545 헤어지고나서 여자가 연락이 없다는건, 헤어졌으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1
8546 헤어지고서 10개월동안 4번 봤네., 많이 봤네요., 1
8547 헤어지기 전 통화, 잊혀지지 않았어요., 1
8548 헤어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시간은 주워 담을 수 없죠., 1
8549 헤어지기전하소연., 울지말고 해보세요., 1
8550 헤어지누여자친구 만나러가ㅠ,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랄게요, 1
8551 헤어지는 중.이었어.,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1
8552 헤어지는 중입니다, 과정이 힘들죠., 1
8553 헤어지는거 잘하는사람들 부러워, 잘하는 척 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1
8554 헤어지는게 맞는걸까?,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1
8555 헤어지는게 서로를 위해 좋은거겠죠?, 자신을 위해 좋은 걸 하세요., 1
8556 헤어지는게 편하겠죠?, 자신을 위해 좋은 걸 하세요., 1
8557 헤어지니까 알겠어,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요, 1
8558 헤어지려고 합니다, 힘든 결정 하셨네요., 1
8559 헤어지면 연락 안하는게 맞을까, 연락 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1
8560 헤어지신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누구든 힘들어할 거예요., 1
8561 헤어지자 말한 사람도 힘들까?, 힘들겠지요., 1
8562 헤어지자고 끝났고 다정리했다면서,머리랑 마음이 또 다르죠., 1
8563 헤어지자고 말했어 마음이 찢어지네, 말한 사람도 힘들죠., 1
8564 헤어지자고 통보 받고 하루만에 다시 재회,인연은 무 자르듯 자르는 게 아니니까요., 1
8565 헤어지자고하더니 연락이 왔어,미련이 남았을지도 모르죠., 1
8566 헤어지자는 남친 잡아도 될지모르겠어, 미련이 남는다면 잡아보세요., 1
8567 헤어지자는 말 듣게 됐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1
8568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시 잡고 또 그 다음의 연애, 관계의 개선을 위해 함께 많은 노력을 해보세요., 1
8569 헤어지지 말자더니 놔버린 나쁜놈, 나쁜놈이네요., 1
8570 헤어지지 않았다면, 자꾸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1
8571 헤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이네, 자꾸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1
8572 헤어지지 열흘째데 너무 힘드네, 헤어지고 있는 중이시군요., 1
8573 헤어진 날 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힘들었나요., 1
8574 헤어진 남친의 SNS 행적, SNS 끊으세요., 1
8575 헤어진 남친의 연락하는 심리, 헤어진 사이에 연락은 아닌 거 같아요., 1
8576 헤어진 사람과 같이 갔던 콘서트 영상이 티비에 나왔어, 많은 생각이 들겠네요., 1
8577 헤어진 사람은 벌써 새여친 생겼네!! ,이젠 그녀를 놓아주세요., 1
8578 헤어진 사람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견디지, 다른 관심사를 만들어보세요. 취미 생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8579 헤어진 애인 카톡 안들어간다고 다짐 했는데., 다시 다짐하세요., 1
8580 헤어진 여자심리, 누구든 힘들어할 거예요., 1
8581 헤어진 여자친구, 이제 그리워하지마세요., 1
8582 헤어진 여자친구 생일전에 잡아보려구, 후회안할 자신 있나봅니다., 1
8583 헤어진 여자친구 연락, 허전한가봐요., 1
8584 헤어진 여자친구가 꿈에서 밥을 해주고 가네., 무의식 중에 많은 생각을 했나봐요., 1
8585 헤어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후회할 것 같다면 늦지 않게 연락해보세요., 1
8586 헤어진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진심을 전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1
8587 헤어진 여자친구에 진료예약 문자가 저에게오네., 차단 시키세요., 1
8588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한마디 했습니다, 상처주는 말은 하지 않았길 바랄게요., 1
8589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가, 신경쓰지 않는 연습을 해봐요., 1
8590 헤어진 여자친구와 재회하고 싶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연락해보세요., 1
8591 헤어진 여자친구의 생일입니다.,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1
8592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화이트데이날 사탕 주면 안되겠죠?, 저 주세요., 1
8593 헤어진 여친 생각나서 노래 해바라기가 생각나네, 절 위해 불러주세요., 1
8594 헤어진 여친에게 문자 보내려고., 후회하지 않길 바랄게요., 1
8595 헤어진 여친이 폐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진 안지우는게??,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신경쓰지 않는 연습을 해봐요., 1
8596 헤어진 연인의 새로운 사랑, 이젠 그분을 놓아주세요., 1
8597 헤어진 지 2주 파혼, 힘든 시간을 보냈군요., 1
8598 헤어진 지 2주가 지났네., 어느덧 2주가 흘렀나봐요., 1
8599 헤어진 지 이제 2주정도네., 어느덧 2주가 흘렀나봐요., 1
8600 헤어진 지 이틀됐네. 붙잡으면 안되겠죠?., 미련없게 후회없게 마지막으로 붙잡아보세요., 1
8601 헤어진 지 한달됐습니다, 힘든가봐요., 1
8602 헤어진 후 거의 세 달이 되어가네, 아픔을 헤아리지 마세요., 1
8603 헤어진 후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드네., 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 1
8604 헤어진 후., 자신을 돌아보세요., 1
8605 헤어진건 아닌데, 헤어진 거 같나요., 1
8606 헤어진건가이거?, 애매하네요., 1
8607 헤어진것인가 아닌것인가, 애매하네요., 1
8608 헤어진게 잘한걸까,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1
8609 헤어진다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줄 몰랐네, 이별에는 아픔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1
8610 헤어진사람에게 잊는동안 도움은 못받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1
8611 헤어진지 10일 지났네, 하루 하루를 헤아리는 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1
8612 헤어진지 10일째, 딱 힘들 때네요., 1
8613 헤어진지 10일째., 하루 하루를 헤아리는 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1

8614 헤어진지 11개월 짜인데 연락이 안돼, 연락이 오길 기다리지마세요., 1
8615 헤어진지 12일째인데., 그리움을 헤아리지 마세요., 1
8616 헤어진지 15일, 그리움을 헤아리지 마세요., 1
8617 헤어진지 1년, 아직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8618 헤어진지 1년 뭐하는건지ㅋ, 새로운 사람으로 잊혀질 거예요., 1
8619 헤어진지 1년 카톡해도 될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1
8620 헤어진지 1년., 아직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8621 헤어진지 1년이 넘었네., 잘 이겨내고 있네요., 1
8622 헤어진지 1년이면 재회는 힘들겠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1
8623 헤어진지 1달, 금방 나아질 거예요., 1
8624 헤어진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1
8625 헤어진지 1달반정도 됐네, 금방 지나갈 거예요., 1
8626 헤어진지 1달째 됐습니다., 금방 나아질 거예요., 1
8627 헤어진지 1일차.,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1
8628 헤어진지 1주일 되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고 믿고 싶지 않겠네요., 1
8629 헤어진지 1주일. 너무 힘드네., 실감이 나지 않고 믿고 싶지 않겠네요., 1
8630 헤어진지 2달,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1
8631 헤어진지 2달 다되어가는데, 머리에서 지우세요., 1
8632 헤어진지 2달 되가는데 오늘 무지 힘드네,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1
8633 헤어진지 2달.,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1
8634 헤어진지 2달째, 미련 갖지 마세요., 1
8635 헤어진지 2주만에 만났어, 많이 놀랐겠어요., 1
8636 헤어진지 2주째., 어느덧 2주가 지났어요., 1
8637 헤어진지 2주쯤 됐군, 어느덧 2주가 지났어요., 1
8638 헤어진지 3개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1
8639 헤어진지 3개월이 지났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1
8640 헤어진지 3개월째,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1
8641 헤어진지 3개월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1
8642 헤어진지 3달만에 새로운 남자가 생긴 그녀., 이젠 그녀를 놓아주세요., 1
8643 헤어진지 3달만에 카톡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남은 미련 정리하세요., 1
8644 헤어진지 3달째인데 후폭풍 왔나봐 ㅠ, 헤어짐에도 처방약이 있으면 좋겠어요., 1
8645 헤어진지 3일째인데 오늘 몰아쳐오녀여, 후폭풍이 찾아왔군요., 1
8646 헤어진지 3주, 어느덧 3주가 지났군요., 1
8647 헤어진지 3주. 오늘 그 친구 생일, 마음 속으로 생일을 축하해줘요., 1
8648 헤어진지 3주가 아직안됐네, 금방 지나갈 거예요., 1
8649 헤어진지 3주째, 금방 지나갈 거예요., 1
8650 헤어진지 3주째 입니다.,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네요., 1
8651 헤어진지 3주차 넘어가네~, 잘 견뎌내길 바라요., 1
8652 헤어진지 40일째, 하루 하루를 헤아리는 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1
8653 헤어진지 42일째., 하루 하루를 세는 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1
8654 헤어진지 43일, 하루 하루를 헤아리는 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1
8655 헤어진지 4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1
8656 헤어진지 4일째 네, 얼마 되지 않았네요., 1
8657 헤어진지 5개월, 이제 좀 괜찮아졌길 바랍니다., 1
8658 헤어진지 5개월차 풀인생입니다, 더 좋은 날이 가득할 거예요., 1
8659 헤어진지 6개월,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
8660 헤어진지 6개월여~, 잘 견뎌내고 있어요., 1
8661 헤어진지 6개월이 넘어가네., 새로운 사랑이 곧 찾아올 거예요., 1
8662 헤어진지 6일째, 어느덧 6일이 되었나봐요., 1
8663 헤어진지 9일, 헤어짐을 헤아리지 마세요., 1
8664 헤어진지 9일째 이제 익숙해졌어 괜찮아졌고, 금방 나아졌다니 다행이네요., 1
8665 헤어진지 두 달째인데 힘드네, 많이 힘들었지만 더 괜찮아 질 거예요., 1
8666 헤어진지 두달,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1
8667 헤어진지 두달 늘 만났던 장소를. 난 지나다니고, 무덤덤해지길 바랄게요., 1
8668 헤어진지 두달 무덤덤한데, 무덤덤한데도 마음이 허한가봅니다., 1
8669 헤어진지 두달됐네 벌써,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나봅니다., 1
8670 헤어진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1
8671 헤어진지 딱 3주째, 생각보다 긴 시간이네요., 1
8672 헤어진지 딱 한달 됐네, 생각보다 긴 시간이네요., 1
8673 헤어진지 벌써 두달이 다되지만., 아직 그림겠지만 괜찮아 질 거예요., 1
8674 헤어진지 벌써 몇 년,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1
8675 헤어진지 삼일째입니다, 많이 힘드신가봅니다., 1
8676 헤어진지 세달이 다되가네, 이젠 괜찮아졌긴 바랄게요., 1
8677 헤어진지 어느덧 한달,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네요., 1
8678 헤어진지 어언 3년이 되가네., 이제는 괜찮길 바랄게요., 1
8679 헤어진지 열흘 됐는데 연락하고 싶네, 후회하지 않는다면 연락해보세요., 1
8680 헤어진지 이제 겨우 하루 지났네.,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1
8681 헤어진지 이제 곧1년, 시간을 헤아리지 말아요., 1
8682 헤어진지 이주가 좀 넘었네, 마음이 복잡할 때입니다., 1
8683 헤어진지 일주일만에 새로운 남자가 생긴 전여친, 이젠 그녀를 놓아주세요., 1
8684 헤어진지 일주일째, 가장 힘들 시간 같아요., 1
8685 헤어진지 하루. 마음이 아프네, 믿기지 않겠어요., 1
8686 헤어진지 한 달 됐어, 마음이 복잡할 때입니다., 1

8687 헤어진지 한 달 되는데,이제 좀 괜찮아졌길 바랍니다.,1
8688 헤어진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여전히 힘드네,이별에는 면역이 힘든가봐요.,1
8689 헤어진지 한 달 째,이제 좀 괜찮아졌길 바랍니다.,1
8690 헤어진지 한 달.아직도 힘드네,그럴 수 있어요.,1
8691 헤어진지 한 달째,이제 좀 괜찮아졌길 바랍니다.,1
8692 헤어진지 한달,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1
8693 헤어진지 한달 조금 넘었어,금방 지나갈 거라 생각해요.,1
8694 헤어진지 한달 좀 넘었네,시간이 흐르는 것 처럼 마음도 흘러갈 거예요.,1
8695 헤어진지 한달.,시간이 흐르는 것 처럼 마음도 흘러갈 거예요.,1
8696 헤어진지 한달 됐네,시간이 흐르는 것 처럼 마음도 흘러갈 거예요.,1
8697 헤어진지 한달 됐어.,시간이 벌써 흘렀네요.,1
8698 헤어진지 한달이 되어가네.,시간이 많이 흘렀네요.,1
8699 헤어진지 한달째데,아직 잊지 못하고 있나봐요.,1
8700 헤어진지 한달하고 이주 정도 되었네,아직 잊지 못하고 있나봐요.,1
8701 헤어진지 어언 10개월,많은 시간이 흘렀네요.,1
8702 헤어진지 1개월뿐이안됐네.,금방 나아질 거예요.,1
8703 헤어진지1년,잘 지내길 바라요.,1
8704 헤어진지 1년되자.,아직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1
8705 헤어진지 25일째,헤어진 하루를 헤아리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1
8706 헤어진지 2개월차 잊혀지질 않네.,동호회에 가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1
8707 헤어진지2주가지났네,어느덧 2주가 지났어요.,1
8708 헤어진지는 좀 오래 됐어.,다른 사람에게 기대도 괜찮아요.,1
8709 헤어진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네 근데 참 그래,저에게 기대세요.,1
8710 헤어진지도 어느덧 반년,힘들 때가 지나갔길 바랄게요.,1
8711 헤어진지 이제 5개월.,새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도 5개월이 되었네요.,1
8712 헤어진지 한달,힘들 때가 지나갔길 바랄게요.,1
8713 헤어진진 거의 1년,잘 지내길 바라요.,1
8714 헤어진후 4개월,무슨 변화가 있었나요.,1
8715 헤어진후 4일째데 하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보세요.,1
8716 헤어질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그 모습도 그 사람의 부분이에요.,1
8717 헤어짐,슬픈 일이에요.,1
8718 헤어짐 이후,마음이 좀 가라앉았길 바랄게요.,1
8719 헤어짐 통보 당한지 1달 정도 지났네,후폭풍이 지나갔길 바랄게요.,1
8720 헤어짐 통보후 한달만에 연락이 왔는데,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1
8721 헤어짐 $\pi\pi$,힘내요.,1
8722 헤어짐과 중간에 다시 만남과 갈등.,매정하게 돌아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1
8723 헤어짐도 저혼자,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힘들겠네요.,1
8724 헤어짐으로 싸우고 완전히 헤어진지 어느덧 2개월,후폭풍이 지나갔길 바랄게요.,1
8725 헤어짐이 꿈이었으면 좋겠어,현실을 직시할 필요도 있어요.,1
8726 헤어짐이 힘든이유,사랑했으니까요.,1
8727 헤어진지 이제 딱 한달,후폭풍이 지나갔길 바랄게요.,1
8728 현실과 마주하기,싫어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1
8729 현실과 타협해야하는 이별,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할 때가 있죠.,1
8730 현실의 벽,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할 때가 있죠.,1
8731 현실적인 문제에 이별이 다가오고 있어.,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할 때가 있죠.,1
8732 현실적인 문제에 헤어짐이 다가오고 있어. 결국 이별일텐데,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할 때가 있죠.,1
8733 헤진아. 내 맘이 너에게 확정되기 전에 날 떠났어야지,말처럼 쉽지 않죠.,1
8734 혹시 그런 날 없나?,오늘 같은 날?,1
8735 혹시 떠녀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정신차리세요.,1
8736 고민상담 가능?,네 말씀해주세요.,1
8737 "혹시나, 역시나",그래도 힘내세요.,1
8738 혼술중,많이 마시지 마세요.,1
8739 혼자 놀로다니기만 하는 남자,같이 놀러 다니자고 해봐요.,1
8740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가족과 친구가 있잖아요.,1
8741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혼자 많이 힘들어하지 마세요.,1
8742 혼자 사랑했나봐,더 많이 사랑한 거겠죠.,1
8743 혼자 살아야 할 듯,혼자만 있지 마세요.,1
8744 혼자 술 마실만한 장소 없을까?,어디서든 혼자 술 마실 수 있어요.,1
8745 혼자 이겨내기 힘들어,다른 사람에게 기대도 괜찮아요.,1
8746 혼자 이별여행이라도 갔나,연락이 안되나봐요.,1
8747 "혼자 있고싶다는 남자친구, 인정하기가 힘이 드네",시간을 좀 주세요.,1
8748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힘드네,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이 힘들겠네요.,1
8749 혼자 있으니 힘이드네,한동안은 힘들지도 몰라요.,1
8750 혼자 있으니까 편하네,혼자를 즐기세요.,1
8751 혼자 잘 살 수 있을까?,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1
8752 혼자 커피마셔,분위기 있네요.,1
8753 혼자 해야 돼,혼자서도 잘하는 연습이 필요해요.,1
8754 혼자 혼술 한다.,조금만 드세요.,1
8755 혼자가 되고,생각이 많아 지나봐요.,1
8756 혼자가 되면 견디기 힘듭니다.,한동안은 힘들지도 몰라요.,1
8757 혼자라는거 그런대로 괜찮아,잘 이겨내고 있네요.,1
8758 혼자라는건 여전히 많이 힘드네,많이 힘들지 않길 바랄게요.,1
8759 혼자만 힘드네.,혼자만 힘든 게 낫지 않을까요.,1

8760 혼자ㅠㅠㅠ, 많이 힘들어하지 마요., 1
8761 홀로술한잔하며. .,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요., 1
8762 화낼 힘도 없다, 지금은 조금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8763 화장실!!, 화장실 가세요., 1
8764 화창한 날씨 포근한 햇살 나는., 행복하길 바랄게요., 1
8765 환경 때문에 헤어진 여자친구,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할 때가 있죠., 1
8766 환승 가능?, 환승은 30분 안에, 1
8767 환승 이별, 사랑의 예의가 없네요., 1
8768 환승 이별 후 돌아오고 싶다는 그녀,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1
8769 환승 이별 후 재회했는데 이전 진짜 끝을 내야하나,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1
8770 환승당했다는 여자입니다., 사랑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1
8771 환승이별 3달째를 앞뒤도 힘들다, 점점 더 괜찮아질 거예요., 1
8772 환승이별 당했습니다 ㅎㅎㅎ, 사랑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1
8773 환승이별당했습니다, 사랑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1
8774 환승이별이란걸 알게됐습니다., 사랑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요., 1
8775 환승이별인지 이제라도 안 것에 감사해야할지, 그런 사람 얼른 잊으세요., 1
8776 환승이었다는걸 알고서 ., 힘드셨겠어요., 1
8777 환승하는 년놈들, 사랑의 예의가 없네요., 1
8778 환승하는 사람들 대단해, 사랑의 예의가 없네요., 1
8779 환승했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음, 그런 사람 얼른 잊으세요., 1
8780 황당하지만 재미난 일이 생겼네 ㅎㅎ,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1
8781 회복되는게 하루하루가 다른거 같아!!, 회복력이 좋으시군요., 1
8782 회사 사람들이 아직도 불편해, 회사에는 동료가 있을 뿐이에요., 1
8783 회사선배랑 바람나서 헤어졌어, 사랑의 예의가 없네요., 1
8784 회사에는 왜 친구 같은 사람이 없을까, 회사는 친구 사귀는 곳이 아니에요., 1
8785 후, 힘을 내세요., 1
8786 후 아직 헤어진것도 아닌데, 불안한가봅니다., 1
8787 후 좀 낫네여, 다행이에요., 1
8788 후.언제까지 이럴까, 사랑한 시간 만큼 힘이 들겠죠., 1
8789 후. ㅎㅎ, 지쳤나봐요., 1
8790 후기 입니다, 말씀해주세요., 1
8791 후련하달까, 후련하니 다행이에요., 1
8792 후련해, 후련하다니 다행이에요., 1
8793 후밤에 집에 혼자있으려니 답답하네, 산책을 추천해요., 1
8794 후아 뭘까?, 마음이 허전한가봐요., 1
8795 후아 힘드네, 힘내라는 진부한 말 건네봅니다., 1
8796 후우, 하아, 1
8797 후폭풍 재회를 두번 또 헤어짐, 사랑도 헤어짐도 면역이 안되나봐요., 1
8798 후폭풍이 오네., 그럴 시기에요., 1
8799 후폭풍이 올까 두려운데.!, 그냥 지금 우세요., 1
8800 후회, 후회 하고 있나요., 1
8801 후회 하고있어, 다음엔 조심하면 돼요., 1
8802 후회가 몰려오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1
8803 후회는 최선을 다하지않았기 때문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1
8804 후회스럽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나봐요., 1
8805 후회없이 사랑했어, 후회가 없다니 다행이에요., 1
8806 후회하지말아, 그게 힘들죠., 1
8807 휘성노래가 귀에 감기네, 가사가 맞나봐요., 1
8808 휴, 아이구, 1
8809 휴 결국 헤어졌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1
8810 휴 전남친 흔적찾기,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1
8811 휴 착잡하네, 기운을 내세요., 1
8812 휴. 생일인데 기운빠지네, 생일 축하해요!, 1
8813 휴.반년이라는 시간 잊었다 생각했지만 또 다시, 후폭풍이 무섭죠., 1
8814 휴~~ 이제 글쓰는것도 멈춰야 할까, 글 쓰면서 정리가 되기도 해요., 1
8815 휴대폰 켜면서 기대하는 것 좀 그만하고 싶네, 잠시 꺼두는 건 어떨까요., 1
8816 휴아플걸알면서도, 아플 걸 알면서도 시작하셨군요., 1
8817 휴우., 휴우ㅠㅠ, 1
8818 흐앙 . 웰케 자꾸 생각나죠, 다른 일에 집중 해보는 건 어떨까요., 1
8819 흐름 이거 고민이네, 무슨 고민이지 들어드릴게요., 1
8820 흐름이거고민인데여;; , 무슨 고민인지 말해보세요., 1
8821 흐익~~ 불금이닷~~ㅠㅠ, 파이아, 1
8822 흑역사 제조 완료, 흑역사도 나중에는 추억이 될 거예요., 1
8823 흔적, 서서히 지워 나가요., 1
8824 흔적이란게 남은걸까, 뭐든 흔적이 남죠., 1
8825 흔한 군인의 이별, 안 흔해요., 1
8826 흠, 마음이 복잡한가요., 1
8827 흠 또 괜한 의미부여, 의미 부여 하다보면 끝도 없어요., 1
8828 흠 아무 의미없는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뒤숭숭하네, 무관심해봐요., 1
8829 희망고문,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요., 1
8830 회생하는 것이 내 방식인 연애. 5년간 사귀다 이별했습니다, 방식을 바꿔보세요., 1
8831 힘껏 아파하고 몸부림 치면서 살고 있어, 아파하는 만큼 성장할 거예요., 1
8832 힘낼 곳이 없어, 제가 있잖아요., 1

8833 힘드네 장거리, 물리적인 거리를 무시하지 못하니깐요., 1
8834 힘드네 정말, 조금만 더 버텨요., 1
8835 힘드네 차단 해야할까?, 차단도 방법이 될 거예요., 1
8836 힘드네 포기라는게, 기대가 있으니까요., 1
8837 힘드네., 조금만 더 버텨요., 1
8838 힘드네. 정말. 이런건 줄 몰랐어, 알았으면 시작 못했겠조., 1
8839 힘드네. 조연쫌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더 버텨요., 1
8840 힘든 밤입니다, 힘내세요., 1
8841 힘든 사랑,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요., 1
8842 힘든 하루, 오늘도 고생했어요., 1
8843 힘든 하루 하루 되돌리며, 오늘도 고생했어요., 1
8844 힘든고 외로움, 조금만 더 버텨요., 1
8845 힘든데 입지가 않아, 사랑의 힘인가봐요., 1
8846 힘들 거라고 말했는데, 정말 힘들 줄 몰랐겠조., 1
8847 힘들고 지치네, 조금만 더 버텨요., 1
8848 "힘들고, 힘들고, 또 힘들고," 억지로라도 힘내보세요., 1
8849 힘들까, 힘들겠조., 1
8850 오늘도 힘들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봐요., 1
8851 힘들어,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봐요., 1
8852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언젠가 다 잊을 거예요., 1
8853 힘들어 죽을거 같습니다, 언젠가 다 잊을 거예요., 1
8854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언젠가 다 잊을 거예요., 1
8855 힘들어서 들어왔는데 괜찮아졌네?, 다행이네요., 1
8856 힘듭니다 오늘 또 무너졌어, 다시 일어서세요., 1
8857 힘듭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힘내세요., 1
8858 힘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힘내세요., 1
8859 힘이 드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힘내세요., 1
8860 힘이 없어, 힘내세요!, 1
8861 힘이드네. 여자들이란.,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힘내세요., 1
8862 짝사랑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겠지., 짝사랑 만큼 감정도모가 큰 건 없을 거예요., 2
8863 1년 넘게 만났는데 지금도 불타올라,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있나봐요., 2
8864 1년 동거 중인데 계속 좋아, 서로 깊게 알게되면서 더 좋아졌나봅니다., 2
8865 1년 동거하고 결혼했어, 축하합니다!, 2
8866 1년 만났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어, 더 만나보세요., 2
8867 1년만 만났는데 결혼하자고 해도 될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2
8868 1년째 동거중이야,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가봐요., 2
8869 1년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2
8870 2년 가량의 연애, 딱 잘 만났네요., 2
8871 2년 만났는데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 양파같은 사람이네요., 2
8872 2년 만났어, 딱 좋을 때네요., 2
8873 2년 사겼어, 서로를 알게 되었겠네요., 2
8874 2년여의 만남, 서로를 알게 되었겠네요., 2
8875 2년째 동거중인데 결혼하려고, 서로 깊게 알게되면서 더 좋아졌나봅니다., 2
8876 2년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이 깊네요., 2
8877 30살이 넘었는데 짝사랑 계속해도 될까요., 물리적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2
8878 3년 사겼는데 이제 결혼해야겠지?, 사귀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결혼해야하는 건 아니예요., 2
8879 3년 사겼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봐요., 2
8880 3년째 연애 중,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요., 2
8881 3년째 짝사랑 중인 나 비정상이야?, 그 누구도 비정상이라 규정지을 수 없어요., 2
8882 4년 사겼는데도 너무 좋아, 좋아 보이네요., 2
8883 4년째 연애하고 있어, 좋은 기억들이 많겠네요., 2
8884 4년째 짝사랑 중인 나 이제 고백해도 될까?, 후회하는 것 보다 고백하고 생각해 봐요., 2
8885 5년 만났는데 매일 보고 싶어, 좋아 보이네요., 2
8886 5년 만났어, 좋은 기억들이 많겠네요., 2
8887 5년째 짝사랑 중인데 포기해야 할까?, 길었던 시간만큼 결정하기 힘들었겠어요., 2
8888 6년째 연애중, 부럽네요., 2
8889 AB형 남자랑 씬 타면, 최대한 이해해보세요., 2
8890 AB형 여자랑 씬 타면, 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8891 A형 남자랑 씬을 타게 됨, 사소한 걸 기억해보세요., 2
8892 A형 여자랑 씬을 타게 됨,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2
8893 B형 남자랑 씬 탐., 계속 칭찬해보세요., 2
8894 B형 여자랑 씬 탐., 자신이 가장 자신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2
8895 CC 레알 별로임?, 헤어질 경우 엮여 있는 사람이 많으니깐요., 2
8896 O형 남자와 씬을 타는데, 애교 부려보세요., 2
8897 O형 여자와 씬을 타는데, 엄청 사랑해주세요., 2
8898 가끔 짝남과 연애하는 상상을 해., 즐거운 상상이겠네요., 2
8899 가끔 짝사랑 하는 여자애랑 데이트 하는 상상을 해., 상상은 해도 상관 없어요., 2
8900 가슴 뛰는 사랑, 두근거리겠어요., 2
8901 가슴 찢어지게 아파. 그 사람은 내 마음 알까?, 내 맘도 때론 알기가 힘든걸요., 2
8902 가슴이 뛰어, 사랑의 증상이예요., 2
8903 가을 타나 봐., 외로운 옆구리를 채워보아요., 2
8904 가을 타나 봐., 혼자는 외로운 계절이죠., 2
8905 가족끼리 엄청 친한 사인인데 좋아하게 됐어요. 고백했다 차이거나 헤어지면 어떡하죠., 어색한 사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2

8906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같은., 가족이 될 사람일지도 모르죠., 2
8907 각자 집에 인사드리러 가,제가 더 멀리네요., 2
8908 간간히 동굴에 들어가는 남친 어떻게 해야돼?, 믿고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2
8909 간접적으로 차버린 짝남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마음 정리가 쉽지 않지요., 2
8910 감당 못하는 사랑,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풀세요., 2
8911 감정싸움 그만하고 싶어,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2
8912 갑자기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될까?, 갑자기 말하면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을까요., 2
8913 갑자기 선을 긋는 사람, 너무 사적 영역으로 들어왔나봅니다., 2
8914 강아지 좋아하는 남자 어떤 것 같아?, 따뜻할 거 같아요., 2
8915 강아지 좋아하는 여자 어떤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2
8916 강아지 좋아하는 남자 어때?, 따뜻할 거 같아요., 2
8917 강아지 좋아하는 여자 어때?,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2
8918 같은 과에 내 이상형인 남자애가 있는데 cc는 무리일까?, CC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거예요., 2
8919 같은 회사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2
8920 같이 살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행복할 거예요., 2
8921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을 시작할까?, 일 이야기로 시작해보세요., 2
8922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2
8923 같이 있자고 말해도 될까?, 두려워말고 말해보세요., 2
8924 객관적으로 짝남 별로인걸 아는데도 좋아해.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짝사랑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2
8925 개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와,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해보세요., 2
8926 개도 날 좋아하는 건지 매너인지 모르겠음., 다른 분에게도 잘해주는지 살펴봐요., 2
8927 개한테 잘보고 싶는데 무슨 옷을 입는게 좋을까?, 깔끔한 스타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8928 거래처 직원을 좋아하게 됐는데 어떻게 연락할까., 관계를 지속해도 되는 사이라면 직접 물어보는게 좋겠어요., 2
8929 거리가 먼데 고백하면 받아줄까?, 거리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면 가능하겠죠., 2
8930 거짓말 하는 썸남 말해?,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2
8931 견자고 꼬서, 살랑대는 바람에 마음도 움직일 거예요., 2
8932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짝남이 관심이 가는데 내게 말 걸게 하고 싶어.,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웃어보세요., 2
8933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짝녀와 남은 일정을 같이 여행하고싶어., 일정 안 찼다고 하면서 일정을 물어보세요., 2
8934 게임 아이템 지르는 남친,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선을 정해보세요., 2
8935 게임에서 만난 사람 좋아하게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좀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2
8936 결국 사랑이었어, 그걸로 충분해요., 2
8937 결혼 결심 이유, 만나서 같이 있음 헤어지기 싫었나봅니다., 2
8938 결혼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 내가 싫어하는 걸 아무것도 안해서요., 2
8939 결혼 결심한 이유 있어?, 정말 사랑해서요. 같이 있을 때 편하고요., 2
8940 결혼 상대로 괜찮을까?, 기준을 가지고 더 면밀히 살펴보세요., 2
8941 결혼 생각 없는데 꼭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야할까?, 꼭 만날 필요는 없어요., 2
8942 결혼 생각 없었는데 결혼하고 싶어진 이유?,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았나봅니다., 2
8943 결혼 전에 다이어트 해야겠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2
8944 결혼 전에 준비할 게 많겠지?, 결혼을 하려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거예요., 2
8945 결혼 전에 혼란스러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인생의 큰 변화니까요., 2
8946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해, 행복한 예비신부네요., 2
8947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워?,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2
8948 결혼 준비하면서 못 보던 모습을 보게 돼, 본 모습일지도 몰라요., 2
8949 결혼 해도 되는지 고민돼,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해서 항상 고민이 되죠., 2
8950 결혼날짜 받아왔어, 드디어 결혼하는 군요!, 2
8951 결혼상대로는 아닌거 같은 여자친구가 결혼을 원해, 결혼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눠보세요., 2
8952 결혼생활에 회의감이 들어,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2
8953 결혼식 날짜 잡았대, 축하해주세요., 2
8954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축하드려요., 2
8955 결혼식 앞두고 고민이야, 결혼 전에는 누구나 혼란스럽죠., 2
8956 결혼식장 벌써 차있더라, 발품을 더 팔아보세요., 2
8957 결혼은 타이밍인가?, 결혼뿐만 아니라 인생은 타이밍의 연속이에요., 2
8958 결혼은 하고 싶는데 머느리는 되기 싫어, 그럼 어머니가 없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세요., 2
8959 결혼은 현실이지?, 100퍼센트 현실입니다., 2
8960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으면서 복잡하겠어요., 2
8961 결혼이야기를 꺼내고 싶는데 어느 분위기에 꺼내는게 좋을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2
8962 결혼적령기가 언제야?, 내가 결혼할 때가 결혼적령기예요., 2
8963 결혼적령기가 지나가는 거 같아, 내가 결혼할 때가 결혼적령기예요., 2
8964 결혼적령기가 지나면 결혼하기 힘들겠지?, 내가 결혼할 때가 결혼적령기예요., 2
8965 결혼전제로 만나고 있어, 좋은 사람이라 좋은 연애 하세요., 2
8966 결혼준비하면서 과연 행복할까 고민돼, 많이 싸우셨나봐요., 2
8967 결혼하고 나서 애 낳기 싫어졌어,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되죠., 2
8968 결혼하고 싶다, 좋은 사람이라 결혼할 수 있을 거예요., 2
8969 결혼하는데 돈이 엄청 드네, 스물웨딩으로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2
8970 결혼하는데 보통 얼마 들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2
8971 결혼하는데 준비할 게 많네,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니까요., 2
8972 결혼하면 안 좋은 점?, 모든 함께할 수 있다는 거요., 2
8973 결혼하면 좋은 점 말해줘, 모든 함께할 수 있는 게 좋죠., 2
8974 결혼하면좋을까,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2
8975 결혼한지 1년 됐는데 넘 좋아, 계속 행복하실 거예요., 2
8976 결혼한지 3개월 행복해, 계속 행복하실 거예요., 2
8977 결혼한지 반년인데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어, 충분히 즐기세요., 2
8978 결혼할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같아, 충격이 크시겠네요., 2

8979 결혼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결혼 전에 고민이 많겠어요., 2
8980 결혼해도 될까?, 마음가는대로 해보세요., 2
8981 결혼해서도 설렐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2
8982 결혼해서도 연애하는 것 같아, 알콩달콩 부럽네요., 2
8983 경제력 보는게 이기적인거야?, 경제력도 한 부분이니 보는 게 당연하죠., 2
8984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
8985 계속 그 사람한테 의지해도 될까?, 의지해도 좋을 사람이라면 의지해도 돼요., 2
8986 계속 그리워, 그리워만 하지 말고 연락해보세요., 2
8987 계속 사랑하고 싶다, 예쁜 사랑하세요!, 2
8988 계속 살아도 될까?,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주인공이에요., 2
8989 계속 생각하고 좋아하면 꿈에 나오려나., 생각을 자주하면 나올 수 있어요., 2
8990 계속 좋아하는 거 무리일까요., 마음이 허락하는 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2
8991 고마워., 감사합니다., 2
8992 고맙다, 감사합니다., 2
8993 고민이 많은데 표현을 못하겠어, 글로 적어보세요. 조금이나마 정리가 될 거예요., 2
8994 고백, 성공하길 바랄게요., 2
8995 고백 받고 싶어, 먼저 고백해보세요., 2
8996 고백 받으면 기분 어떨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을 거예요., 2
8997 고백 언제 하지, 고백은 타이밍입니다., 2
8998 고백 좀 하지, 먼저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슬쩍 호감을 표현해보세요., 2
8999 고백도 못하겠어, 고백도 용기가 필요해요., 2
9000 고백은 어떻게 하는거야,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2
9001 고백조차 못해보고 끝났어, 아직도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2
9002 고백하고 싶어, 지금이에요., 2
9003 고백하고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때 걱정해도 안 늦어요., 2
9004 고백한 애가 연락이 느려., 바쁘거나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2
9005 고백한 애가 특이 느려., 바쁜 상황일 수도 있어요., 2
9006 고백한 애가 특이 안와., 바쁘거나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2
9007 고백할 타이밍인 거 같아, 성공하길 빌어요., 2
9008 고백합니다, 성공하길 바랄게요., 2
9009 고백해도 될까?,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었다면 고백해보세요., 2
9010 고백했는데 답장이 없어., 바쁘거나 거절의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2
9011 고백했다 차이면 어찌지?, 진심으로 고백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2
9012 고백했는데 너무 떨어져., 충분히 그럴만 해요. 차분히 기다려보세요., 2
9013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 어떻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2
9014 공시 불자 마자 결혼하재, 외부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결혼할 마음이 생기면 해도 늦지 않아요., 2
9015 공시 준비하는데 연애하면 안되겠지?, 지금 뭐가 중요한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
9016 공시생인데 연애 해도 될까?, 공부랑 연애랑 둘 다 잘하고 싶은 욕심쟁이네요., 2
9017 공휴일에 데이트하자고 해봐야지, 지금 연락해보세요., 2
9018 과묵한 타입인건가?, 그게 매력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2
9019 과함 설렘 후에 지금은 안 설레, 처음에 몰아서 설렘나봐요., 2
9020 과함 설렘 후에 지금은 안 설레, 초반에 너무 설렘나봐요., 2
9021 관심을 받는다는거., 참 좋죠., 2
9022 관심이 있는 여자애한테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싶는데 뭘 주면 좋아할까요?, 필요한 게 뭔지 살펴보세요., 2
9023 괜찮아 사랑이야, 사랑이 모두 정답이 될수는 없어요., 2
9024 괜찮은 사람 발견함. 여친 있는지 물어봐도 됨?, 당장 물어보세요., 2
9025 괜찮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게 좋아요., 2
9026 괜히 화가 나서 짝남한테 연락 끊자고 했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2
9027 교양 듣는데 심남 있음. 썸 타고 싶다., 호감을 어느 정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9028 교양 듣는데 어떤 남자가 자주 쳐다 봐. 관심 있는 걸까?,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9029 교양 듣는데 어떤 여자가 자주 쳐다봄. 썸 각?,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9030 교회 오빠한테 눈이 가, 성경 공부는 안하고 연애 공부하나봅니다., 2
9031 교회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어., 일요일이 기다려지겠네요., 2
9032 교회에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 일요일이 기다려지겠네요., 2
9033 구남친하고 헤어진지 얼마 안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 거예요., 2
9034 구속을 너무 많이 해, 그만큼 관심있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나봐요., 2
9035 구썸남 보고싶어., 썸으로 끝날 사이가 아니었네요., 2
9036 구썸남 인스타에 좋아요 누름., 좋아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2
9037 구썸남한테 연락하고 싶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연락해보세요., 2
9038 구여친이랑 헤어진지 꽤 됐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음.,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2
9039 구짝남한테 카톡했는데 읽씹해서 미련 없이 차단했어요., 그러는 편이 나을 거예요., 2
9040 군대 때문에 헤어져야하는게 고민임.,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2
9041 군대가기 전인데 썸녀한테 고백해도 될까,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지 생각해보세요., 2
9042 군대를 기다리는게 너무 힘들어, 군대 기다리는 건 큰 인내심이 필요하죠., 2
9043 군인 남친 보고 싶어,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2
9044 군인인데 여자친구 보고 싶어,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2
9045 권태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연애 초기 데이트를 해보면서 극복해보세요., 2
9046 권태기가 찾아온 이유?, 편안하고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네요., 2
9047 귀찮으면 썸 끝인가, 감정이 식었을 수도 있겠어요., 2
9048 그 남자를 좋아해도 되는지 고민이야., 좋아하면 안되는 상황인가봐요., 2
9049 그 사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해.,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되겠네요., 2
9050 그 사람 생각에 잠이 안 와., 복잡한 마음이 가득한가봐요., 2
9051 그 사람 이상형 알고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9052 그 사람과 내 맘이 같을까?,갈길 바라야죠.,2
9053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걸까?,당사자만이 알 수 있어요.,2
9054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아니어서 힘드나봐요.,2
9055 그 사람이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2
9056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그 자체죠.,2
9057 그 사람이 뭐하는지 궁금해.,뭐하냐고 물어봐봐요.,2
9058 그 사람이 저를 그만 좋아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는게 좋겠네요.,2
9059 그 애 앞에서 말을 잘 못하겠어,좀 더 편하게 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2
9060 그 애도 내 생각을 할까?,연락해 보는게 좋을 거예요.,2
9061 그 여자를 좋아해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좋아해선 안되는 사람인가봐요.,2
9062 그가 내 연락을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덜 부담스럽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2
9063 그게 잘 안되네.,마음이 쉽지 않죠.,2
9064 그냥 결혼이나 할까?,도피성 결혼은 하지 않길 바라요.,2
9065 그녀가 내 연락을 부담스러워할까?,덜 부담스럽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2
9066 그녀가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저랑 이야기할 때가 아니네요.,2
9067 그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아직은 잘 모르겠어요.,2
9068 그녀는 내 마음을 알까?,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2
9069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그렇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2
9070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나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2
9071 그녀는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할까?,제가 생각해드릴게요.,2
9072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2
9073 그녀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궁금하면 용기내서 연락해보세요.,2
9074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가끔 헛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2
9075 그녀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그럼 더할 나위 없겠지요.,2
9076 그녀도 내 생각을 할까?,연락해 보는게 좋겠어요.,2
9077 그녀를 다시 찾았습니다,다행이네요.,2
9078 그녀를 생각할 수록 내가 비참해져.,잘 이뤄지지 않았나봐요.,2
9079 그녀와 같은 조가 하고 싶어.,먼저 다가가보세요.,2
9080 그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그녀가 좋아하는게 뭔지 찾아봐요.,2
9081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글쎄요.,2
9082 그는 내 마음을 알까?,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2
9083 그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걸까?,그렇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2
9084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나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2
9085 그는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할까?,제가 생각해드릴게요.,2
9086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연락을 해보세요.,2
9087 그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궁금하면 용기내서 연락해보세요.,2
9088 그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가끔 헛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2
9089 그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타이밍이 맞았으면 좋겠네요.,2
9090 그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비참해.,상황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렀나봐요.,2
9091 그를 좋아하면 내가 비참해지는거 아는데도 포기가 안돼.,비참한 사랑이라면 늦기 전에 정리하는게 좋아요.,2
9092 그리울수록 아파,더 아프기 전에 찾아가보세요.,2
9093 그사람 이상형 궁금해,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물어보세요.,2
9094 그와 같은 조가 되고 싶는데 먼저 말해볼까?,먼저 다가가보세요.,2
9095 그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노력하는 데에 따라 다르겠죠.,2
9096 그저 그런 연애,그게 제일 힘들어요.,2
9097 근황이 궁금해,연락해보세요.,2
9098 급 내 짝남 생각나는 일화가.,말씀 해보세요.,2
9099 기념일에 선물 어느정도로 해줘?,지갑이 열릴 수 있는 만큼요.,2
9100 기념일은 언제언제 챙겨?,내키는대로요.,2
9101 기다리는 것도 행복해,네가 오후 네시에 온다면 나는 세시부터 행복해질 거야-어린왕자,2
9102 기다림 속에 갇혀 있어,그 속에서 나오세요.,2
9103 기댈 수 있는 남자 만나고 싶어,서로 기댈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2
9104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야,서로 기댈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2
9105 긴 머리가 잘 어울렸던 그녀,못 잊고 있나봐요.,2
9106 길에서 첫사랑 만났어,세상 참 좁네요.,2
9107 꼬시는 방법,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아보세요.,2
9108 꿈에 나온 여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서울에서 왕서방 찾기네요.,2
9109 꿈에서 썸 나는 남자애가 자꾸 나와,그분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곧 좋은 소식이 들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2
9110 꿈에서 썸 타는 여자애가 나와,그분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곧 좋은 소식이 들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2
9111 꿈에서 자꾸 어떤 남자애가 나와,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이 생긴 건 아닐까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2
9112 꿈에서 자꾸 어떤 여자애가 나와,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이 생긴 건 아닐까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2
9113 끝이 보이는 사랑해도 될까?,끝이 바뀔 순 없는 건가봅니다.,2
9114 끼 부리는 사람 어때?,나한테만 부리면 좋아요.,2
9115 나 같이 서로 좋아하는 거 확인하고 사귀 사람 있나.,있지요.,2
9116 나 같이 향기로 좋아하게 되는 사람도 있나?,후각이 예민한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2
9117 나 그대로를 사랑해줄 사람 있나,분명히 있을 거예요.,2
9118 나 기억했으면 좋겠다,기억할 거예요.,2
9119 나 둘다 좋아하는 것 같애,마음의 방이 두 개 있나봐요.,2
9120 나 또 짝남을 2년동안 좋아하는 건가.,오래 마음을 주는 타입인가봐요.,2
9121 나 똥똥한데 좋아하는 남자에게 연락해도 될까?,연락해도 상관없지만 자신을 비하하지는 마세요.,2
9122 나 맨날 놀리는 애가 있는데 나 좋아하는건가?,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2
9123 나 보고 잘 웃는 여자애 나 좋아하는 건가?,직접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2
9124 나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좀 더 편안하게 대해보세요.,2

9125 나 사랑에 빠졌죠, 행복해보여요., 2
9126 나 사랑하긴 했니?,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2
9127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축하해요. 예쁜 사랑하길 바라요., 2
9128 나 사랑할 자격 없는 사람이야,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없어요., 2
9129 나 사랑할 준비 됐나?, 된 것 같네요., 2
9130 나 사랑해서 만나는 거겠지?, 사랑하는지 물어보세요., 2
9131 나 상사병 걸렸나봐,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나봐요., 2
9132 나 설레는데 혹시 썸?, 혼자 설레면 짝사랑 같이 설레면 썸입니다., 2
9133 나 쉬운 남자 아니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할 거예요., 2
9134 나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2
9135 나 쉬운 여자 아니야, 쉽고 어려운 건 상관 없어요., 2
9136 나 쉽게 보나,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지 살펴보세요., 2
9137 나 썸타는 것 같은데 설레발인 부분?, 고민 하고 있으면 썸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2
9138 나 애를 좋아하는 걸까?, 있었던 일을 차분히 생각해봐요., 2
9139 나 어장인듯, 어장의 고기어도 좋을지 어장을 나가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2
9140 나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해줘.,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2
9141 나 오늘 심쿵함, 오늘 잠 못 이루겠네요., 2
9142 나 왜 사랑할까?, 사랑에는 구구절절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2
9143 나 왜 사랑해?, 당신이니까요., 2
9144 나 왜 이렇게 화냈었지?, 돌아보면 다그치지 않고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 거예요., 2
9145 나 왜 좋아할까?, 당신은 당신이란 이유로 이미 그럴 자격이 있어요., 2
9146 나 윗집 남자에 좋아하는 것 같애., 가깝게 살아서 더 좋겠네요., 2
9147 나 자꾸 놀리는 애가 있는데 나 좋아하는건가., 당신에게만 그런다면 좋아할 확률이 있습니다., 2
9148 나 자체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잘 찾아보세요., 2
9149 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2
9150 나 좀 사랑해줘, 사랑합니다!, 2
9151 나 좋아하는 남자에 없나봄. 녀 외로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2
9152 나 좋아하는 애 떼어내는 방법 좀 알려줘., 미안하지만 확실한 표현을 전하는게 좋겠어요., 2
9153 나 좋아하는 애 생겼나봐., 좋은 소식 아닌가요?, 2
9154 나 좋아하는 애가 갑자기 연락을 안하는데 숨은 뜻이 있는건가?, 짐작하는 것보다 먼저 연락해 보는게 좋겠어요., 2
9155 나 좋아하는 애가 매일 선택 걸다가 갑자기 톡을 안함., 이제 먼저 선택을 해보세요., 2
9156 나 좋아하는 여자에게 없는 듯. 나 왜 사냐., 언젠간 당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2
9157 나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답장이 안와., 바쁘거나 마음이 없는걸지도 모르겠어요., 2
9158 나 진심인데, 진심이 꼭 전해질 거예요., 2
9159 나 짝남이 외국인인데 어떡해. 미치겠어., 먼저 친해져보세요., 2
9160 나 처음 연애해봐, 새로 해보는 게 많겠어요., 2
9161 나 혼자 썸 타는 부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2
9162 나 혼자만의 썸일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2
9163 나는 꼼꼼한데 여친은 안 꼼꼼해., 꼼꼼함을 강요하지 말고 이해해주세요., 2
9164 나는 못난거 같은데 인기있는 여자에게 연락해도 될까?, 연락해도 상관없지만 자신을 비하하지는 마세요., 2
9165 나는 못났는데 인기있는 남자에게 연락해도 될까?, 연락해도 상관없지만 자신을 비하하지는 마세요., 2
9166 나는 못생겼는데 좋아하는 여자에게 연락해도 될까?, 연락해도 상관없지만 자신을 비하하지는 마세요., 2
9167 나는 받기만 하는 것 같아, 고마움을 표시하고 더 많이 주세요., 2
9168 나는 사랑 표현이 어색한데 여자친구는 너무 적극적인 표현을 원해,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좋겠조. 어색하지만 연습해보세요., 2
9169 나는 아직 고백 전인데 소문 나서 짝녀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함?, 그 사실에 사과하고 늦지 않게 고백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9170 나는 아직 고백안했는데 소문이 나서 짝남이 알게 됐어., 많이 당황했겠어요., 2
9171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인했던가, 돌아보면 다그치지 않고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이었을 거예요., 2
9172 나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만 생각해., 이성으로 대하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2
9173 나도 모르게 니 생각을 하고 있어, 무의식이 진심을 말하죠., 2
9174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놀러가고 싶어., 용기를 내서 말해보세요., 2
9175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영화 보고 싶다., 먼저 연락해 보는건 어떨까요?, 2
9176 나랑 다른 애들 자꾸 엮는 애가 있는데 애 나한테 관심있나?, 그 사람만이 알고 있을 사실이네요., 2
9177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 맞춰가기도 하죠., 2
9178 나랑 맨날 엮이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졌어., 부담히는 일이 많아 호감이 생겼나봐요., 2
9179 나랑 사귄래?, 저라도 괜찮다면 좋아요., 2
9180 나랑 썸 타는 줄 알았는데 내 동기랑 사귀., 찰라본 건가봐요., 2
9181 나랑 썸 타던 여자애가 내 친구랑 사귀는데, 뒷통수 맞았네요., 2
9182 나랑 썸타는 애가 영화보재., 좋은 소식이네요., 2
9183 나랑만 연락하면, 썸일 가능성이 높겠조., 2
9184 나를 떠보는 것 같은 짝남., 떠보는 것보다 직구 날려보세요., 2
9185 나를 보는 거 같아, 자꾸 시선을 마주쳐보세요., 2
9186 나를 설레게하는사람, 좋아하나봐요., 2
9187 나를 왜 좋아하는 걸까?, 당신의 매력이 넘쳐날 거예요., 2
9188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사랑 받는 자신이 알겠조., 2
9189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 있을 거예요., 2
9190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야.,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2
9191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축복일거야., 서로 사랑하는 건 기적이죠., 2
9192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철벽치게 돼요.,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2
9193 나를 좋아하는 애랑 친구 가능?,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2
9194 나를 좋아하는건 바라지도 않아요., 슬픈 말이에요., 2
9195 나를 좋아하는데 숨기는 사람한테 나도 좋아한다고 어떻게 표현해?, 솔직하게 먼저 말하는게 좋아요., 2
9196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충분히 미워하고 천천히 정리하세요., 2
9197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호감이 생길까요?, 꾸준히 만나다보면 생길 수 있어요., 2

9198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겼으면 소원이 없겠어., 언젠간 인연이 닿을 거예요., 2
9199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란 만날 걸., 어떤 선택이든 후회가 남기 마련이지요., 2
9200 나를 친구로서 좋아하는 걸까?, 아직 확실하긴 일러요., 2
9201 나만 너무 좋아하는거 같애, 더 표현해 달라고 말해보세요., 2
9202 나만 안되는 연애, 당신의 인연이 있을거예요., 2
9203 나만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거라 더 힘든 것 같아요., 2
9204 나만 좋아하는 건가 자괴감 들어., 상대방 마음을 좀 떠봐서 확인해보세요., 2
9205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자존감 떨어져., 더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2
9206 나보다 2살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게 비정상이야?, 요즘 그 정도 나이 차이는 동감 수준이에요., 2
9207 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남친., 사귀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2
9208 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여친., 사귀다 보면 생각보다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2
9209 나쁜 사람인 걸 아는데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나쁜 사람일수록 끌리기도 하죠., 2
9210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거 같아,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2
9211 나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사랑은 강요하는게 아니에요., 2
9212 나이 먹고 짝사랑하는 내가 한심해., 사랑에는 나이가 상관 없어요., 2
9213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 어때?,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
9214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 어때?,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
9215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짝녀에게 고백해도될까?,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2
9216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연애 어떻게 생각해?, 연애에 나이가 대수인가요., 2
9217 나이가 어린데 연애를 해도 될까?,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
9218 나이들수록 좋아하는게 두려워져요., 겁이 많아지니까요., 2
9219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게 두려워., 두려워도 도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2
9220 나이트갔는데 이상형 만났어, 축하해요., 2
9221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는데도 포기가 안돼., 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2
9222 나한테 관심 있는게 맞을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를 확실히 밝혀보세요., 2
9223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끈을 놓지 못할까?, 그만큼 사랑했던 시간이 있으니까요., 2
9224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이래도 되나 싶어, 존재 자체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나봅니다., 2
9225 나한테 뒷모습만 보여줬어, 이제 앞모습을 볼 차례네요., 2
9226 나한테 마음 떠난 사람이란 계속 사귀기?, 사랑 받으면서 사세요., 2
9227 나한테 목적 가지고 접근한 거 같아, 상처 받으셨겠어요., 2
9228 나한테 배려해줘서 나도 해주고 싶어, 보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만큼 배려해줄 수 있을 거예요., 2
9229 나한테 잘해주는데 썸일까?,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9230 나한테 질리면 어쩌지 걱정돼, 당신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2
9231 나한테도 관심 있어 보이는데 연락해볼까?, 먼저 연락해보세요., 2
9232 나한테만 잘해주는 걸까?, 주변 사람들에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9233 나혼자 설레는게 한심해., 설레는 감정을 느끼는 당신이 부러워요., 2
9234 나혼자 설레발 치는게 짜증나., 짝사랑이 그런가봐요., 2
9235 나혼자 짝사랑하는게 점점 현타 와., 짝사랑이 힘들게 하나봐요., 2
9236 난 금사빠라서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 보면 신기해., 대단한 일이지요., 2
9237 난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동성애를 존중합니다., 2
9238 난 여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 헛갈릴 때가 있죠., 2
9239 날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 이유가 됩니다., 2
9240 날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를 좋아하게 만들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보세요., 2
9241 날 좋아하는 여자애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2
9242 날 좋아하던 남자애가 고백이 없는데 맘 접은걸까?, 속 마음은 알기 힘들지요., 2
9243 날 좋아하던 여자애가 반응이 없어., 마음을 접은 걸까봐 두려운가요., 2
9244 날 좋아한다는 남자애가 행동이 이상해., 애매하게 행동하나봐요., 2
9245 남녀 학벌차이 많이나면 좀 그런가, 학벌 생각보다 별 거 아니에요., 2
9246 남녀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죠, 2
9247 남사친 좋아하는 내가 잘못이지., 잘못은 아니에요., 2
9248 남사친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떡함, 이성으로 한 번 생각해보세요., 2
9249 남사친이 남자로 느껴질때 있어?, 이성이니가 당연히 있죠., 2
9250 남사친이 많은 썸녀, 저는 별로요., 2
9251 남사친이 좋아졌어., 자연스러운 감정이예요., 2
9252 남사친이 좋아졌으면 어떡해?, 좋아진 이상 이성으로 다가가야죠., 2
9253 남사친이라 쓰고 짝남이라 읽는다., 슬픈 이야기네요., 2
9254 남사친이란 사귀는 거 가능?, 가능해요., 2
9255 남사친이란 잘 맞아서 카톡이 끊어지지 않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일까?, 편한 친구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세요., 2
9256 남사친인데 요즘 관심 가., 친구랑 썸의 중간인 거 같아요., 2
9257 남자가 더 사랑해서 결혼하면 잘 사나요?, 잘 살 사람들이면 뭘 하든 잘 살아요., 2
9258 남자가 더 사랑해서 한 결혼,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상관 없어요., 2
9259 남자가 돈을 더 써야하는게 일반적이야?, 상황에 따라 다르죠., 2
9260 남자가 먼저 고백해야 해?, 고백에 성별은 없어죠., 2
9261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약속을 까먹을 수 있나요?, 정말 바빴던게 아니라면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2
9262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때 하는 행동이 뭐가 있나요?, 연락을 자주 하거나 잘 웃거나 등 다양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2
9263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사람마다 다릅니다., 2
9264 남자는 먼저 고백하면 관심 사라짐?, 이 무슨 이상한 소리죠., 2
9265 남자는 정말 사랑없는 성관계 가능해?, 남자든 여자든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2
9266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랑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해?, 당황해서 제대로 눈을 못 볼 것 같아요., 2
9267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랑 약속 안 까먹겠조?, 누구든 그럴 거예요., 2
9268 남자는 첫사랑 못 잊어?, 여자도 첫사랑 못 잊어요., 2
9269 남자는 호감 없으면 연락 안해?, 귀찮으면 연락 안하죠., 2

9270 남자들 직장 내에서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어떻게 해?, 관심을 표현할 거예요., 2
9271 남자들 진심으로 좋아하는데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요?,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2
9272 남자들은 관심 없으면 보통 연락 먼저 안해?, 보통 그렇죠., 2
9273 남자들은 몇 년씩 혼자 짝사랑 할 수도 있어?, 계속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했는데 시간이 흐른 거죠., 2
9274 남자들은 여자가 본인 좋아하는거 눈치 못 채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2
9275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 싫지 않다면 받아줘?, 그분도 좋아한다면 받아줄 거예요., 2
9276 남자들은 이쁜 여자만 좋아할까요?, 사람 취향 차이입니다., 2
9277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래요?, 사람 마다 다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잘할 거예요., 2
9278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보다 능력이 좋은 경우에 아무리 좋아해도 마음 접고 포기하나요?, 절대 능력만 중요하지 않아요., 2
9279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2
9280 남자들은 좋아하면 무조건 답장이 빠른가요?, 답할 수 있는 상황이면 빠르죠., 2
9281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 특징은 뭘까요., 솔직하지 않을 때를 고를 수도 있겠어요., 2
9282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특징은 뭐야?,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2
9283 남자랑 단둘이 술마시는 여자친구를 이해해줘야할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2
9284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처음한 사랑, 2
9285 남자친구 만나고 왔어, 즐거운 데이트였길 바랍니다., 2
9286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 남자친구가 있을 만한 곳으로 가보세요., 2
9287 남자친구 말고 다른 남자도 궁금해., 후회 안 할 자신 있나요., 2
9288 남자친구 부모님 만났는데 진짜 좋아여, 좋은 분위기 만났나봐요., 2
9289 남자친구 소개시키는 자리 내가 더 떨려, 남자친구는 더 떨고 있을 거예요., 2
9290 남자친구 스타일이 마음에 안들어., 선물해주면서 조금씩 변화시켜봐요., 2
9291 남자친구 영장 나왔네, 갑작스럽겠네요., 2
9292 남자친구 오지람 너무 많아, 좋은 오지람이었으면 좋겠네요., 2
9293 남자친구 이성친구가 많아, 사귄 때는 덜 만나라고 말해봐요., 2
9294 남자친구 자취 선물로 뭐가 좋을까?, 직접 물어보는 게 편할 거 같아요., 2
9295 남자친구 카톡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직접 말해보세요., 2
9296 남자친구 코 완전 높아, 멋진 사람이랑 사귀어서 좋겠네요., 2
9297 남자친구 폰 봐도 되나,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
9298 남자친구가 sns에 나 안 올려., 개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2
9299 남자친구가 갑자기 군대간대, 갑작스럽겠네요., 2
9300 남자친구가 게임을 너무하는게 고민이야., 같이 게임을 해보세요., 2
9301 남자친구가 기념일을 잘 잊어., 특별한 알람을 맞춰주세요., 2
9302 남자친구가 나 사랑할까?, 사랑하니까 만나겠죠., 2
9303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애 취급하는거 같음., 당신이 너무 귀여운가봐요., 2
9304 남자친구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당신이 더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2
9305 남자친구가 나를 떠날까봐 고민이야., 괜한 걱정하지 마요., 2
9306 남자친구가 나쁜 의도는 아닌데 표현이 너무 서툴러., 더 좋은 표현들로 천천히 고쳐나가봐요., 2
9307 남자친구가 나한테 너무 집착해, 믿음을 주세요., 2
9308 남자친구가 날 예뻐해주는 게 느껴져, 달달함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2
9309 남자친구가 내 편을 안 들어 주고 조연만 해줘, 아예 처음에 말할 때부터 조연이 아니라 귀 기울여주고 맞장구쳐 달라고 해보세요., 2
9310 남자친구가 너무 객관적이야., 좀 더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해보세요., 2
9311 남자친구가 너무 국밥류만 좋아해., 다양하게 먹자고 해보세요., 2
9312 남자친구가 너무 귀찮아해., 사랑이 식은 건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2
9313 남자친구가 너무 똑똑해, 똑똑한 남자친구를 뒀서 좋겠네요., 2
9314 남자친구가 너무 바쁘다면 헤어지는게 맞는걸까?, 외로운 상태인가봐요., 2
9315 남자친구가 너무 소심해, 직설적으로 통보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권유하고 물어보는 말을 해보세요., 2
9316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줘, 서로 더 많이 아껴주세요., 2
9317 남자친구가 너무 조금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2
9318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 꿀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2
9319 남자친구가 누나가 두명이라 그래서 결혼 걱정돼, 결혼은 현실이에요., 2
9320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인기 많은 남자친구가 있어 든든할 거 같아요., 2
9321 담배피는게 싫어., 금연 클리닉에 함께 가보세요., 2
9322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대, 매너 있네요., 2
9323 남자친구가 데이트 통장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거 같아요., 2
9324 남자친구가 돈이 너무 없어., 정말 현실적인 문제네요., 2
9325 남자친구가 되어줘.,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요., 2
9326 남자친구가 마중 나온대, 매너 있네요., 2
9327 남자친구가 많이 먹어서 무한리필만 가, 다른 데이트를 제안해보세요., 2
9328 남자친구가 말을 예쁘게 해,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네요., 2
9329 남자친구가 먹을 거에 집착해, 사람은 모두 집착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2
9330 남자친구가 뭔가 수상한데 말을 안해, 말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2
9331 남자친구가 변해가는거 같아., 변하는 걸 보는 게 힘들겠어요., 2
9332 남자친구가 비파, 성격이 꼬였는지 말투가 꼬였는지 살펴보세요., 2
9333 남자친구가 비혼주의래,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2
9334 남자친구가 사랑스럽게 쳐다봄!, 말하지 않아도 눈빛은 수많은 말들을 담고 있죠., 2
9335 남자친구가 살이 너무 찢어, 같이 식단조절을 해봐요., 2
9336 남자친구가 센 척해, 귀엽게 봐주세요., 2
9337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돼., 연락 안되면 걱정된다고 꼭 중간중간 연락 달라고 해보세요., 2
9338 남자친구가 술먹으면 개가 돼, 주사는 답이 없어요., 2
9339 남자친구가 술자리를 너무 좋아해., 함께 즐겨보세요., 2
9340 남자친구가 술주정 부려, 포기하거나 이해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2
9341 남자친구가 을 너무 좋아해, 원치 않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2
9342 남자친구가 연락 안 하고 외박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일은 없을거예요., 2

9343 남자친구가 연락이 너무 늦어.,바쁜 걸 이해해보세요.,2
9344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어,먼저 연락을 해보세요.,2
9345 남자친구가 연애하는데 가끔씩 막말을 해.,막말은 진짜 아니네요.,2
9346 남자친구가 외아들 홀서어머니라 결혼 고민이야,결혼은 현실이에요.,2
9347 남자친구가 유학 간대,기다릴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2
9348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애.,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세요.,2
9349 남자친구가 자존심이 너무 세,사랑한다면 자존심을 굽힐 줄도 알아야 겠죠.,2
9350 남자친구가 작은 일을 다 잊어버려,작은 일은 사소한 걸로 생각해버려서 금방 잊어버리나 봅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세요.,2
9351 남자친구가 잘못을 해도 다 공감해주는게 옳은걸까?,공감을 해주면서 잘못을 고치도록 유도해보세요.,2
9352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인기가 거의 아이돌급이야,멋진 사람이랑 사귀어서 좋겠네요.,2
9353 남자친구가 적극적이지가 않아.,적극적으로 리드해보세요.,2
9354 남자친구가 전역하더니 변한 거 같아,상황이 생각을 바뀌게 하기도 합니다.,2
9355 남자친구가 좋는데 눈치가 없어.,눈치는 선천적인 거예요.,2
9356 남자친구가 좋는데 신뢰가 안 생겨.,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2
9357 남자친구가 준 생일선물이 너무 맘에 안 들어.,안 준 것보다 낫죠.,2
9358 남자친구가 진짜 잘 챙겨줘,당신도 잘 챙겨주세요.,2
9359 남자친구가 질투를 안해,보살인가봅니다.,2
9360 남자친구가 질투하는 거 귀여워,은근 기분이 좋죠.,2
9361 남자친구가 집안일을 너무 안해. 나만 하는게 고민이야.,집안일을 하나씩 분담해보세요.,2
9362 남자친구가 집청소를 너무 안해.,같이 안해보세요.,2
9363 남자친구가 짝돌이라서 돈 쓸 때 엄청 아까워해,성향이 다른가봅니다.,2
9364 남자친구가 첫사랑이야,마지막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2
9365 남자친구가 충고만 해서 상처받아,야에 처음에 말할 때부터 조언이 아니라 귀 기울여주고 맞장구쳐 달라고 해보세요.,2
9366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여자도 있으면 어떡해?,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요.,2
9367 남자친구가 카톡 답장이 너무 느려.,자주 보라고 말해보세요.,2
9368 남자친구가 클럽을 간다면 어떻게해?,같이 가보세요.,2
9369 남자친구가 키가 좀 작아,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2
9370 남자친구가 표현을 하려고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작은 표현에 감동받았다고 해봐요.,2
9371 남자친구가 표현이 너무 없어. 너무 무뎡뎡해.,표현 안 하면 하나도 모르겠다고 해보세요.,2
9372 남자친구가 힘들어 해,진심으로 격려하고 함께 있어 주세요.,2
9373 남자친구랑 너무 좋은데 점 본거에서는 만나지말라해.,점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믿어보세요.,2
9374 남자친구랑 말이 안 통해,답답하겠네요.,2
9375 남자친구랑 말이 안 통해,서로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2
9376 남자친구랑 멀리 떨어져야할 거 같은데 어찌지?,멀리 떨어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2
9377 남자친구랑 스킨십하고 싶어,대화를 하면서 속도를 맞춰보세요.,2
9378 남자친구랑 왜 맨날 싸울까?,"따로 살아온 삶과 습관, 성향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2
9379 남자친구랑 카페가면 무슨 얘기하지?,못 만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2
9380 남자친구를 믿는데 가끔 의심이 가.,믿음이 흔들리고 있네요.,2
9381 남자친구를 질리게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어?,구속과 집착이겠죠.,2
9382 남자친구앨범속에 지우지못한 전 여자친구 사진 이해해야할까?,까먹고 안 지웠을 수도 있어요.,2
9383 남자친구에게 고민이나 속사정을 어디까지 얘기해?,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2
9384 남자친구에게 시계 선물해주고싶는데 어느 브랜드가 좋을까?,나이대에 따라 추천 브랜드가 다를 거 같아요.,2
9385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할까 아니면 도도하게 하는게 좋을까?,왔다갔다 밀당해보세요.,2
9386 남자친구에게 힘들때 어떻게해?,의지하는 편이에요.,2
9387 남자친구와 동거 해도되는걸까?,사랑한다면 선택할 수 있겠죠.,2
9388 남자친구와 방구 언제 뒀는지?,생리현상은 늦게 트는 게 좋죠.,2
9389 남자친구와 여자친이 너무 친해,사귀면 좀 덜 만나는 게 예의일 텐데요.,2
9390 남자친구와 여행 어디로 가?,안 가본 가까운 곳이 좋겠죠.,2
9391 남자친구와 진도가 보통 어때?,사람마다 다르겠죠.,2
9392 남자친구와 첫키스는 언제했어?,뭐 이런 걸 물어보시나요.,2
9393 남자친구와 카페가면 뭐해?,수다떨고 영화보고 책보기 등등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2
9394 남자친구와 호칭을 뭘 쓰는지.,딱 생각나는 걸로 하세요.,2
9395 남자친구의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피해를 줄 때는 피하세요.,2
9396 남자친구의 과거 어디까지 이해해?,야에 알려고 하지 않는 게 편한 거 같아요.,2
9397 남자친구의 과거의 동거를 이해해줄 수 있어?,이해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2
9398 남자친구의 성적 취향을 이해못하겠어.,대화를 해보세요.,2
9399 남자친구의 스킨십이 너무 부담돼.,좀 더 편하게 생각해보세요.,2
9400 남자친구의 유머코드가 너무 안 맞아.,맞는 사람을 만나 보세요.,2
9401 남자친구의 입냄새가 고민이야.,가글 사줘요.,2
9402 남자친구의 전여자친구가 너무 이빠서 비교돼.,전여자친구 생각하지 마세요.,2
9403 남자친구의 틀리는 맞춤법이 거슬려.,지적하지 말고 맞는 걸로 계속 이야기해주세요.,2
9404 남자친구의 학력이 너무 높아서 내가 부족해 보임,주눅들지 마세요.,2
9405 남자친구의 혼전순결이 고민이야.,결혼합시다.,2
9406 남자친구하고 커플티를 하고싶는데 어디거를 할까?,좋아하는 브랜드가 좋겠어요.,2
9407 남자친구한테 서운해,수천번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세요.,2
9408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말만해,대화를 할 수 없겠네요. 부드럽게 요구해보세요.,2
9409 남자친구한테 안 설레,큰일이네요.,2
9410 남자친구한테 정 떨어진 거 같아,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2
9411 남자친구한테 핸드폰 공개해?,공개해요.,2
9412 남자한테 언제 설레?,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흘리는 말을 한 걸 안 잊고 기억해줄 때요.,2
9413 남잔데 남자 좋아해,성적자기결정권이있죠.,2
9414 남잔데 남자를 사랑하는 거 같아,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2

남친 멀어진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가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2

남친 생겼는데 호칭 어떻게 해?, 딱 보면 떠오르는 걸로 해보세요., 2

남친 연상인데 오빠라고 불러야 해?, 호칭은 마음대로 골라보세요., 2

남친 요구가 점점 심해지는 듯, 모두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2

남친 있는 짝녀가 친절한데 무슨 의미일까요?, 직접 의중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2

남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 상대방을 헛갈리게 하는건 좋지 않아요., 2

남친 투정이 심해,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2

남친과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주세요., 2

남친에 대한 불신이 자꾸 들어, 믿지 못할 행동을 많이 했나봐요., 2

남친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겠어요., 2

남친이 나를 좋아하는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는게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2

남친이 나보다 눈물이 더 많아,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군요., 2

남친이 내 사진 프사로 안해., 각자의 프라이버시니까 이해해주세요., 2

남친이 내 친구랑 연락하는 것 같애, 슬쩍 떼서 확인해봐요., 2

남친이 데이트 시간을 자꾸 늦어., 잠이 많은 남자친구를 이해해주세요., 2

남친이 사진 잘 찍었으면, 계속 알려주세요., 2

남친이 안 좋은 사이트를 하는거같아., 빠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해보세요., 2

남친이 워커홀릭이야, 일에 질투가 나겠어요., 2

남친이랑 대화가 잘 돼서 좋아, 말 통하는 게 중요하죠., 2

남친이랑 뭐하고 놀지, 얼굴 보고만 있어도 좋죠., 2

남편북 있다는 의미가 뭐야?, 남편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 같아요., 2

남편은 진짜 남의 편인가?, 당신 편으로 만들어보세요., 2

남편을 자꾸 무시하게 돼,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세요., 2

남편이 게이였어, 엄청 놀랐겠네요., 2

남편이 나를 사랑한대, 연애하는 느낌이네요., 2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혼해야할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

남편이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남편을 의심하지 마세요., 2

남편이 내 의견 무시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외롭고 상처받게 된다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2

남편이 자꾸 만져, 같이 만져요., 2

남편이 자꾸 만져, 질 수 없죠., 2

남편이 축하 불러준대, 로맨틱한 남편이네요., 2

남편이 촌데레 스타일이야, 귀엽겠네요., 2

남편이 효자인 거 같아, 좋게 생각해보세요., 2

남편한테 만족해?, 그 중에 낫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2

남편한테 서운한거 얘기해도 될까?, 수천번 생각해도 이견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세요., 2

내 가치관이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게 힘들어., 서로의 가치관이 평행선을 이루지만 않는다면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2

내 기준 괜찮은 사람 발견했는데 남친 있는지 물어봐도 돼?, 얼른 물어보세요., 2

내 남사친이랑 잘되고 싶어 그는 나를 여자로 봐줄까?, 이성으로 어필해야죠., 2

내 남자로 만들기,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2

내 마음 들킨 거 같아, 그래봤자 상대방이 더 좋아할 거예요., 2

내 마음 알면서도 모른척하는거면 어떡해?, 당신의 인연인 아닌가보다 생각하세요., 2

내 마음에 온통 너야, 올인은 좋은게 아니에요., 2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게 어려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해주세요., 2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저도 제 마음대로 되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2

내 번호를 따간 사람이 내 친구가 좋아하는 애야., 운명의 장난갈네요., 2

내 사랑이 부족한걸까?, 더 노력해보세요., 2

내 사랑이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세요., 2

내 아이돌이랑 연애해보고 싶다, 환상이 깨지면 많이 슬플 거예요., 2

내 여자로 만들기,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2

내 여자하자., 저라도 괜찮나요?, 2

내 왜 좋아할까?,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 이유가 됩니다., 2

내 이상형도 아닌데 그 여자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깐요., 2

내 이상형이 뭔지 모르겠어., 이상형이 꼭 있어야할 필요는 없어요., 2

내 이상형이 아닌데 그 남자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깐요., 2

내 존재를 알리고 싶어,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 번 마주쳐보세요., 2

내 첫사랑이 날 기억 못 해., 모든 기억은 같지 않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2

내 친구가 내 짝남 욕을 계속 해., 친구가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나 봅니다., 2

내 친구가 내 짝남 좋아하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사실일지도 모르겠네요., 2

내 친구들이 다 별로라고 하는 짝녀 나만 좋다면 연락하는게 맞는걸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2

내 친구랑 내 짝남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2

내 친구랑 내 짝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어떡함?,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는게 필요하겠어요., 2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건지 아닌지 착각이 들어.,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지요., 2

내가 그냥 아는 여자라네?, 그런 남자 신경쓰지 마세요., 2

내가 그냥 학교 후배래, 그런 사람 신경쓰지 마세요., 2

내가 그녀를 생각하는 만큼 그녀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은 접어두는게 맘 편합니다., 2

내가 그를 생각하는 만큼 그도 나를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2

내가 그사람한테 필요했으면 좋겠어, 사적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보세요., 2

내가 너무 기댄 거 같아, 상대방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2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봐,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2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상대방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2

내가 너무 진지한걸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진중한 태도도 좋네요., 2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 헛갈리면 이상해?, 확신이 없다면 헛갈릴 수 있지요., 2

9487 내가 더 사랑할까?,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2
9488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같은 느낌이야., 그래봤자 상대방이 더 좋아할 거예요., 2
9489 내가 더 좋아하는 관계, 내가 더 좋아해도 덜 좋아해도 상관없어요., 2
9490 내가 무의식 중에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썼어, 상대방을 존중해주세요., 2
9491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2
9492 내가 사랑해도 될까?, 당연히죠., 2
9493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맞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보이거예요. 그 사람 맞아요., 2
9494 내가 생각하는 만큼 개도 날 생각할까?, 확신이 없나보네요., 2
9495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안들어, 새로운 모습을 봤나봐요., 2
9496 내가 싫은 건 너도 싫어해줘서 고마워, 싫은 게 통해야 편하죠., 2
9497 내가 씬 갠데 다시 연락하고 싶어., 감정에 확신이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2
9498 내가 여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같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9499 내가 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보다 능력이 부족해., 사람 보고 만나는 걸테니 걱정마세요., 2
9500 내가 연락 끊은 짝남한테 다시 연락을 수 있는 법 좀., 먼저 연락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수월해요., 2
9501 내가 오랫동안 좋아하던 사람이 날 몰라.,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우선이겠네요., 2
9502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자꾸 생각난다면 그럴 거예요., 2
9503 내가 좋대, 저도 좋아합니다., 2
9504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았는데도 나를 대하는게 변함이 없어., 친구로 지내고 싶은 거겠죠., 2
9505 내가 좋아하는 거 티내면 싫어할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2
9506 내가 좋아하는 걸 티냈는데 그 사람은 반응이 없어., 서로 마음이 같았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2
9507 내가 좋아하는 걸 티냈는데 못 알아챘을까?, 못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2
9508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게 나야?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게 나야?, 그건 본인의 사랑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
9509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게 행복한거라더니., 아쉬운 부분이 있나봐요., 2
9510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신경쓰게 하는 방법 조언 좀., 질투를 유발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2
9511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주변에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2
9512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창피해하는 것 같아., 너무 슬픈 말이에요., 2
9513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주는건 정말 기적인 듯., 행복한 일이지요., 2
9514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죠., 2
9515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2
9516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점점 헷갈려., 결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없었나봐요., 2
9517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자괴감이 들어., 자괴감이 들 필요는 없어요., 2
9518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짝사랑 해. 도와줘야 할까., 도와주다가 마음이 더 다칠 거예요., 2
9519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유명해지면 기분이 어떨까., 좋으면서도 서운하지 않을까요., 2
9520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
9521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날 좋아하는 것 같으면 갑자기 정 떨어지고 뭐가 싫어짐, 어떤 심리일까요., 2
9522 내가 좋아하는 애가 유학간대., 정말 섭섭한 기분이겠네요., 2
9523 내가 좋아하는 애를 내 친구가 계속 욕하는게 맘에 안들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운함을 전해보세요., 2
9524 내가 좋아하는 애를 내 친구가 좋아하는게 맘에 안 들어., 딱 질투네요., 2
9525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따라 좋아하는 애가 있음., 먼저 좋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2
9526 내가 좋아하는걸 그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마음을 조금씩 전해보세요., 2
9527 내가 좋아하는지 그 애가 아예 몰라., 조금은 티를 내봐야죠., 2
9528 내가 좋아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 그냥 좋아하면 돼요., 2
9529 내가 좋아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 좋아하는데 자격은 없어요., 2
9530 내가 좋아해도 될까?, 누구나 좋아할 권리가 있어요., 2
9531 내가 좋아해도 될까?, 좋아하는데 자격은 없어요., 2
9532 내가 진짜 둔한데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게 좋겠어요., 2
9533 내가 집착하는 걸까?, 집착일 수도 있겠어요., 2
9534 내가 첫 연애래, 더 잘해주세요., 2
9535 내가 첫사랑이래, 그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2
9536 내가 최대한 잘해줘도 불만이 많아, 서로 원하는 기대치가 다른 것 같아요., 2
9537 내가 친절하니까 쉬워보이나?,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2
9538 내가 해본 연애 중에 짝사랑인데 이뤄진 연애는 없는 듯., 이제 그런 경우를 만들어봐요., 2
9539 내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줘, 무엇을 해줘서 잘하는게 아니라 곁에 존재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2
9540 내일 개강총회인데 짝녀한테 어떻게 잘 보이지., 옆에서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9541 내일 결혼식이야, 떨리겠어요., 2
9542 내일 더 사랑해, 달콤한 말이에요., 2
9543 내일 만나자고 해볼까?, 멋지게 데이트 신청 해보세요., 2
9544 내일 뭐 입고 나갈까, 날씨에 맞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9545 내일 짝남이랑 영화보러간당.,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2
9546 내일 짝녀랑 영화보러갑니다., 많이 떨리겠어요., 2
9547 널 짝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 실수하지 않는다면 잘 할 거예요., 2
9548 널 짝녀한테 잘 보이고 싶어., 실수하지 않는다면 잘할거라 생각해요., 2
9549 너 생각이 났어., 어머니, 2
9550 너도 씬 타?, 저도 씬을 탑니다., 2
9551 너라서 행복해, 달콤한 말이에요., 2
9552 너를 사랑한 시간, 그 시간들이 중요하죠., 2
9553 너무 사랑하는데 동거해도될까?, 책임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2
9554 너무 설레서 울렁거려., 부러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
9555 너무 예민한 여자친구, 너그럽게 봐달라고 말해보세요., 2
9556 너무 잘해주면 질려하나?, 좋은 사람이라면 고마워할 거예요., 2
9557 너무 잘해줬더니 당연한줄 아네,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2
9558 너무 좋아서 절제가 안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

9559 너무 좋아하면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 할까?, 너무 좋아해주면 사랑스러워 보일 거 같아요., 2
9560 너무 쿨한 남자친구가 고민이야., 쿨방망이로 때려주세요., 2
9561 너무 행복해. 오래갈 수 있을까?, 노력하면 가능할 거예요., 2
9562 너무 행복해. 오래갈 수 있을까?, 오래갈 수 있을 거예요., 2
9563 너와 내가 인연이었으면 좋겠어, 인연은 만들어 가는거예요., 2
9564 넘치는 사랑 받고 있어, 당신은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2
9565 노는 거 좋아하는 남자는 좋아하면 힘들겠지?, 지금은 괜찮지만 힘들 거예요., 2
9566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면 힘들거야., 지금은 괜찮더라도 힘들 거예요., 2
9567 노는 것 좋아하는 여자 이쁘데 좀 그대., 자신의 가치관에 상대를 속박하지 말아요., 2
9568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남자 착하긴한데 나랑은 안맞다고 생각이 들어., 안맞는다면 정리하는 편이 좋을 거예요., 2
9569 놓치고 싶지 않는 사람, 운명인가봐요., 2
9570 누가 날 좋아하는 걸 알면 어떤 생각이 들어?, 처음엔 당황스러울 거예요., 2
9571 누가 더 사랑할까?,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2
9572 누가 봐도 썸 타는 사이인데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2
9573 누구에게나 친절하 남자 위험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조., 2
9574 누군가를 좋아하는게 과연 행복한 걸까., 행복하지만은 않겠지요., 2
9575 누군가를 좋아하는게 두려워., 좋아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자체가 참 행복한 거예요., 2
9576 누군가를 좋아하는게 이렇게 힘들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했을거야., 후회하고 반복하게 되는데 참 이상하죠., 2
9577 누군가를 좋아한다는건 정말 힘들일이야., 좋아하는 감정은 정말 복잡하고 힘들어요., 2
9578 누군가를 좋아해본 적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걸까?,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2
9579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는데 두려워., 이제 짝사랑 말고 둘이서 하는 사랑하세요., 2
9580 눈 뜨면 생각나는 사람, 깊은 사랑에 빠지셨군요., 2
9581 눈에서 멀어져도 좋아하는 건 어떡하죠?,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았나봐요., 2
9582 눈을 감아도 보고 싶어, 상사병 걸리기전에 찾아가보세요., 2
9583 눈이 자꾸 마주쳐, 자꾸 시선을 마주쳐보세요., 2
9584 다 맞춰주고 싶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나봐요., 2
9585 다 잊었는데 다시 그녀가 나타났어, 마음이 혼란스럽겠어요., 2
9586 다 잘맞는데 가치관이 다른 연애가 고민., 가치관이 중요한 거 같아요., 2
9587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여행을 가자고 해., 큰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2
9588 다들 우리 잘 어울린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2
9589 다른 사람은 잘만 하는 연애, 서툰 연애도 연애예요., 2
9590 다시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해보세요., 2
9591 다시 사랑이 오겠지?,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
9592 다시 썸 타는 방법, 천천히 다시 다가가보세요., 2
9593 다시 웃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흠덕터군요., 2
9594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말로만 들어도 좋겠네요., 2
9595 다썸이 뭐야?, 여러 사람이랑 썸 타는 거요., 2
9596 다정한 사람 만나고싶어, 그런 사람 만나길 바랄게요., 2
9597 단 하루도 널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멋진 말이에요., 2
9598 단둘이 놀자, 봄 꽃 구경 가는걸 추천합니다., 2
9599 단톡방에서 내 톡에만 답장해. 썸 각?,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9600 답프로포즈 해볼까?, 정말 좋아할 거예요., 2
9601 대부분 무덤덤한 남자친구가 고민임.,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게 조금씩 변화시켜봐요., 2
9602 대출 엄청 끼고 집 사, 갚을 능력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2
9603 대출꺼서 집사는게 맞나?, 갚을 능력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2
9604 대학교 고학번 선배랑 썸 타도 되나?, 학번이 대수인가요., 2
9605 대학교에서 첫사랑 다시 만났어.,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2
9606 대화가 안 통해, 서로 더 이해해보세요., 2
9607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놓치지 마세요., 2
9608 댄디한 남자 사귀고파, 그런 사람 만나길 바랄게요., 2
9609 더 사랑하고 싶다, 감정에 솔직한 모습이 보기 좋아요., 2
9610 더 사랑해달라고 말해볼까, 귀여울 거 같아요., 2
9611 더 사랑해달래, 더 많이 표현해주세요., 2
9612 더 사랑해줘, 사랑해요!, 2
9613 더 알고 싶어 지는 사람이야,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2
9614 덜 좋아하는게 답인 것 같아., 그러는 편이 덜 상처받지요., 2
9615 데이트 계획을 너무 나만 짜는거같아., 데이트 계획 짜오라고 해봐요., 2
9616 데이트 비용은 보통 어떻게 내?, 같이 내는 게 좋죠., 2
9617 데이트 장소, 영화관 공원 놀이동산 바다 산 축제 도서관 엄청 많죠., 2
9618 데이트 장소가 항상 고민이야, 안 가본 곳에 가보세요., 2
9619 데이트 통장 만들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2
9620 데이트 할때 너무 많이 먹는 남자친구가 고민이야., 건강이 걱정된다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2
9621 데이트는 어디로 가?, 맛집 투어도 좋아요., 2
9622 데이트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같이 상의해보세요., 2
9623 데이트중에 정적 있어도 괜찮을까?, 정적이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면 편안해진 거예요., 2
9624 데이트하고 보통 몇시쯤에 집에 들어가?, 막차 타고 집에 오죠., 2
9625 데이트하는데 무한리필만 가, 다른 데이트를 제안해보세요., 2
9626 데이트할 시간이 없네, 마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2
9627 도대체 사랑이 뭐니?, 당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9628 도서관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여자가 계속 떠올라., 첫 눈에 반했나봐요., 2
9629 돈이 없으면 연애를 하지않는게 맞는걸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데이트 코스도 많아요., 2
9630 동거 하다 걸렸어, 난처하시겠네요., 2
9631 동거하는 거 부모님이 알게 되셨어, 오해를 풀고 사랑을 이어가세요., 2

9632 동거하는데 헤어져야할 거 같아, 단점들을 많이 봤나봐요., 2
9633 동거하다 사랑이 식으면 어떡해?,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2
9634 동거하다가 헤어질까봐 걱정이야,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2
9635 동거해도 될까?, 안 보이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보이게 될 거예요., 2
9636 동네 친구랑 씬 괜찮을까, 자주 만나고 좋을거예요., 2
9637 동물 좋아하는 사람 어때?,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2
9638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가?, 따뜻할 거 같아요., 2
9639 동물을 너무 좋아해,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2
9640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모든 사랑을 존중합니다., 2
9641 동성을 사랑해, 당신을 존중해요., 2
9642 동성을 좋아하는게 비정상인 아닌걸 하는데 고백하는건 망설여져., 고백은 아무래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2
9643 동성친구 좋아하는 사람 없어?, 생각보다 많아요., 2
9644 동아리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났어!, 동아리에 가기 즐거워지겠네요., 2
9645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 중, 빠른 선택으로 모두에게 상처를 덜 주길 바랍니다., 2
9646 두 사람한테 거의 동시에 고백받았어, 빠른 선택으로 모두에게 상처를 덜 주길 바랍니다., 2
9647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 빠른 선택으로 모두에게 상처를 덜 주길 바랍니다., 2
9648 두근두근해, 가슴 뛰는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2
9649 두달 사졌어, 좋은 만남 이어가길 바라요., 2
9650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조금 꺼려질 것 같아요., 2
9651 드라마같은 사랑 하고 싶어, 드라마는 현실과 달라요., 2
9652 드레스 입어보는 거 재밌어!, 여러벌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걸로 선택하세요., 2
9653 덩크족으로 살거야, 남의 시선 말고 자신만 생각하세요., 2
9654 딱 1년 연애, 달달할 시기네요., 2
9655 딱 내 이상형이야, 이상형을 만나는 경우는 흔치 않는데 대단하네요., 2
9656 딱 내 취향인데, 용기를 내보세요., 2
9657 또 고백해볼까?, 도전 정신 마음에 드네요., 2
9658 또 사랑이 올 줄 몰랐어, 사랑을 시작하게, 2
9659 띠동갑 짝사랑하는데 괜찮을까., 사랑에 나이가 없어요., 2
9660 라면먹고갈래 말해볼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2
9661 랜선 연애 어떻게 생각해?, 얼굴을 안 보고 부딪히지도 않아서 제대로 된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2
9662 랜선 연애로 잘 되기도 해?, 랜선연애 하다가 직접 만나서 좋으면 잘 되는 거죠., 2
9663 랜선 연애 중, 현실 연애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
9664 랩 추천 줌. 나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어., 최신 인기 차트를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2
9665 로맨틱한 고백, 생각만해도 달콤하네요., 2
9666 로맨틱한 사랑 하고 싶다, 달콤한 말과 몸짓으로 리드를 해보세요., 2
9667 로맨틱한 사랑을 원해, 달콤한 말과 몸짓으로 리드를 해보세요., 2
9668 롱디인데 너무 보고 싶어., 떨어져 있는 만큼 더 그리울 거 같아요., 2
9669 롱디인데 연락이 자주 안돼., 롱디는 연락이 잘 되어야 하는데요., 2
9670 마음 맞는 사람이 있을까?, 서로에게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2
9671 마음 표현하기가 힘들어, 표현도 연습해야 해요., 2
9672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용기 있게 들이대보세요., 2
9673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다가가 보세요., 2
9674 마음에 든다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어?, 자꾸 시선을 마주쳐보세요., 2
9675 마음에 안 차는데 만나도 돼?,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보세요., 2
9676 마음에 없는데 관계를 하고 싶대, 이런 고민 하지 말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2
9677 마음에 없는데 관계를 하고 싶대, 정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2
9678 마음을 들켰나봐, 그냥 다 말해보세요., 2
9679 마음을 아무리 밀어내도 안돼,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2
9680 마음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9681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워, 서로에게 믿음을 주세요., 2
9682 마음이 식은 거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가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2
9683 마음이 예쁜 사람 만나고 싶어, 마음이 예쁜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2
9684 마음이 자꾸 쓰이네., 관심이 가나봐요., 2
9685 마중 나가볼까?, 고민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세요., 2
9686 만나는 사람마다 유형이 비슷해,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2
9687 만나는데 혈액형이 중요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2
9688 만나도 불안하면 어떡해?, 믿음이 아직 부족한가봐요., 2
9689 만나자, 말해보세요., 2
9690 만나지 얼마 안됐는데 여행가재,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보세요., 2
9691 만난지 100일, 알콩달콩 사랑할 때네요., 2
9692 만난지 100일 됐는데 여행가재,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보세요., 2
9693 만난지 1년됐어, 달달할 시기네요., 2
9694 만난지 1년인데 결혼해도 될까?, 사계절 만나봤으면 알만큼 알았잖아요., 2
9695 만난지 200일됐어, 알콩달콩 사랑할 때네요., 2
9696 만난지 세달만에 결혼 가능함?, 만난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2
9697 만난지 얼마 안됐는데 결혼해도 될까?, 오래 만나고 알면 좋겠지만 살면서 알아봐도 괜찮아요., 2
9698 만난지 얼마 안됐는데 고백받았어, 정말 좋아했나봐요., 2
9699 만난지 얼마 안됐는데 고백했어, 정말 내 사람이다 싶었나봐요., 2
9700 만난지 얼마 안됐는데 키스함., 서로의 의사가 존중된 것이라면 괜찮지만 사귀고 난 후가 좋겠어요., 2
9701 만난지 이틀만에 고백받았어, 이런 고백이지만 고민해보세요., 2
9702 많이 늦은시간인데 연락해봐도 괜찮을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연락해보세요., 2
9703 많이 만났는데 아직도 왜 모르지?,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2
9704 많이 좋아하던 전남친이랑 다시 사거도 될까?, 좋아하면 다시 사거야죠., 2

9705 많이 좋아하던 전여친에게 연락해도될까?, 연락은 자유지만 후회는 할 수도 있어요., 2
9706 많이 좋아했는데 이젠 끝내야겠지.,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 2
9707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젠 정리하려고.,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 2
9708 말 없이 찾아가는건 예의가 아니겠지., 그건 좀 아닌 듯합니다., 2
9709 말수 적은 남자인데 썬타도 괜찮을까?, 은근 매력남일 거 같은데요., 2
9710 말을 안하는 연애, 대화가 중요한데요., 2
9711 말이 안 예쁘게 나와, 말 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2
9712 말하는 거 귀여워, 하트 뽕뽕이네요., 2
9713 말할 때 너무 멀리,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2
9714 맘 정리한 짝녀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짝사랑하는 마음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죠., 2
9715 맘 정리했는데 짝녀한테 연락하는데., 다시 흔들리겠어요., 2
9716 맛있는 거 먹는데 생각나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네요., 2
9717 맞지 않더라도 대화로 잘맞아갈수 있을까?, 서로 배려하면 가능하죠., 2
9718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힘들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모습마저 사랑해주세요., 2
9719 맞춤 정장 했어, 오래오래 입으세요., 2
9720 매년 좋아하는 애가 바뀌었는데 어떡하죠., 마음에 솔직한 거예요., 2
9721 매일 아침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남자에게 신경쓰여., 내일도 만난다면 말을 걸어보세요., 2
9722 매일 아침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여자애한테 눈이 가., 내일도 만난다면 말을 걸어보세요., 2
9723 매일 아침 정류장에서 마주하는 그녀, 아침에 두근거리겠어요., 2
9724 매일 아침 정류장에서 보게되는 그, 아침에 두근거리겠어요., 2
9725 매일 카페에서 그의 뒷모습만 보게 돼., 이제 앞모습을 보세요., 2
9726 매일 카페에서 보게 되는 그녀가 눈에 밝혀., 내일도 만난다면 데이트 신청해보세요., 2
9727 매일매일 사랑해, 표현하는 게 좋죠., 2
9728 매주 수요일 그녀를 만날 수 있어., 삶의 활력소가 되겠네요., 2
9729 매주 수요일 그를 만날 수 있어., 삶의 활력소가 되겠네요., 2
9730 매주 월요일 그녀를 볼 수 있어., 기다리면서 행복하겠네요., 2
9731 매주 월요일 그를 볼 수 있어., 일주일이 즐겁겠어요., 2
9732 매주 화요일 그녀는 마주할 수 있어., 즐거운 날이 되겠네요., 2
9733 매주 화요일 그를 볼 수 있어., 이날만 기다리겠어요., 2
9734 맨날 썬만 타고 깨짐., 제대로 된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2
9735 맨날 짝사랑만 하다가 끝났는데 연애했 수 있을까?, 언젠가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거예요., 2
9736 머릿속에 너만 가득해,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나봐요., 2
9737 먹는거에 너무 예민한 여자친구가 고민임., 먹는 거에 예민하면 애정 결핍이 많대요. 더 사랑해주세요., 2
9738 먼저 고백하는 게 좋을까, 고백하는 게 좋지만 슬쩍 호감을 표현해보세요., 2
9739 먼저 연락 안 오면 끝인가, 먼저 연락 안 오면 먼저 연락해보세요., 2
9740 먼저 연락이 자주 오면 썬인가요, 호감을 표현해보세요., 2
9741 먼저 인사하려고 했는데 짝남이 먼저 인사해줬어., 더 떨렸겠어요., 2
9742 먼저 인사할까 했는데 짝녀가 먼저 인사해줬어., 기분 좋았겠네요., 2
9743 메리지블루인가봐, 서로에게 의지해보세요., 2
9744 명품선물 꼭 해야할까?, 명품 마음이어도 충분해요., 2
9745 몇 년 만에 썬 타는 거라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안부인사나 관심사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2
9746 몇 년 후 만날 수 있을까?, 우연히 만날 수 있겠죠., 2
9747 몇 년을 좋아했는데도 관계가 달라진게 없어., 발전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정리가 필요한 시기네요., 2
9748 몇 달을 좋아했는데 달라진게 없어요., 발전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정리가 필요한 시기네요., 2
9749 몇일정도 썬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길지 않은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2
9750 모닝콜 해달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걸까?, 확실하지 않지만 호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2
9751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남자, 잘해준 게 독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2
9752 모르는 사람인데 첫 눈에 반했어., 외모나 분위기가 이상형이었나봐요., 2
9753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는 티 내는 법 알려주세요., 사소한 걸 기억해서 말을 걸어보세요., 2
9754 모르는 애랑 썬타는 꿈 났어, 그 사람을 무의식 중에 생각했나봅니다., 2
9755 모슬 남자와의 썬, 모슬 여부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예요., 2
9756 모슬 여자와의 썬, 모슬도 사랑합니다., 2
9757 모슬인 사람 만나면 답답할까?, 서툴러도 괜찮아요., 2
9758 모임에서 썬 깨졌는데, 같은 모임이라면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
9759 모태솔로라 잘 모르겠어 도와줘, 모르는 게 당연해요., 2
9760 모태솔로인데 어떻게 시작해?, 우선 부딪혀봅시다., 2
9761 목적 있는 만남이라는 걸 알게 됐어, 상처 받으셨겠어요., 2
9762 몰두할 때는 연락 안 되는 사람 어때?, 걱정하니 연락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믿음이 있다면 기다려줄 것 같아요., 2
9763 몰래 동거하고 있어, 허락을 맡고堂堂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9764 못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지., 외모가 중요한 시대는 끝났어요., 2
9765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까?, 외모만 중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2
9766 무슨 생각 하고 있을까?, 직접 물어보는게 정확할 거예요., 2
9767 무언가에 집중하는 남자가 좋아, 매력적인 사람이지요., 2
9768 무조건 나한테 다 맞춰주는 남자친구 변하면 어떡하지?, 변하는 걸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2
9769 뭐 보고 결혼 결심해?, 세상 그 누구보다 잘해줘서요., 2
9770 뭐라고 말하면서 고백할까,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2
9771 뭐냐고 계속 물어보면 좋아하는 거야?, 궁금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2
9772 뭘 챙겨주면 좋을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9773 미래를 함께할 반려자인지 확신이 아직 없어, 확신이 들때까지 기다려보세요., 2
9774 미련 남은거랑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다름?, 구분 짓기 어려운 것 같아요., 2
9775 미팅 할까 말까, 만남은 다 좋죠., 2
9776 미팅에서 번호 딴 애가 좋는데 뭐라고 연락을 할까?, 잘 들어갔는지 가볍게 물어보면서 다음 약속을 잡아보세요., 2
9777 밀당 어떻게 해?, 바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2

9778 밀당은 어떻게 해?, 자신이 바쁘면 자연스럽게 밀당이 됩니다., 2
9779 바람기가 있는 남자친구 어떡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2
9780 바래다달라고 말해볼까?, 귀엽게 부탁해보세요., 2
9781 박력있는 남자가 좋아, 당신을 이끌어주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
9782 반동거중인 여자친구가 나갔으면 좋겠어.,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해보세요., 2
9783 발 맞춰 걷는 게 좋더라, 당신은 군대가 체질에 맞는거 같아요., 2
9784 발라드 추천 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음., 인기 차트를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2
9785 발렌타인데이에 고백할까요?, 선물을 주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고백해보세요., 2
9786 밝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만나길 바랄게요., 2
9787 밤새 그리워서 편지 썼어,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
9788 밤인데 전화해도 되나, 양해를 구해보세요., 2
9789 배려 없는 사람 어떡해?, 안 만나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2
9790 배려 있는 사람이 좋은데, 그런 사람 만나세요., 2
9791 배려가 너무 없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세요., 2
9792 배우자가 생긴다는 것, 든든할 거예요., 2
9793 배우자라고 하니까 이상해, 익숙해져야죠., 2
9794 벌써 가족 같아, 가족이 될 사람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2
9795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 드물지만 있을거예요., 2
9796 별로인 거 알면서도 좋아하는 내가 이상해., 확실하게 안좋은 점이 있다면 얼른 맘을 접는게 좋아요., 2
9797 보통 썸이면 밀당해?, 그렇기도 하지요., 2
9798 보통 좋아하는 애 생기면 먼저 연락해?, 대부분은 먼저 연락하곤 해요., 2
9799 보통 좋아하면 먼저 연락하나?, 보통 그렇죠., 2
9800 본능적인 끌림, 운명적이네요., 2
9801 본인을 좋아하는게 확실한 여자와 친구가 될 수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돼요., 2
9802 봄 오니까 나도 썸 타고 싶어., 썸 타기 좋은 계절이에요., 2
9803 봄 타나 봄., 봄은 두근두근하죠., 2
9804 봄 타나 봄.,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죠., 2
9805 봄 타나봐, 사랑이 하고 싶어졌나봐요., 2
9806 부모님 반대 설득하고 싶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을 거예요., 2
9807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 부모님도 당사자도 상처받겠네요., 2
9808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 있어, 사랑하는 사람인가봐요., 2
9809 부모님이 결혼 자금 안 보태주신대, 부모님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겠죠., 2
9810 부모님이 이혼하려는 거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지?, 부모님만의 사정이 있을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2
9811 부모님이 이혼할 거 같아, 부모님만의 사정이 있을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2
9812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더니, 다시 화합했나봐요., 2
9813 분명 짝남 정리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이상하지., 또 마주하면 반갑고 애뜻하게 되죠., 2
9814 불타올랐다가 식었어, 연애 내내 불타올를 수는 없어요., 2
9815 불타올랐다가 식었어, 연애는 계속 불타오르지는 않아요., 2
9816 비가 오니까 짝사랑 하는 사람 더 생각나., 비 오는 날 추억이 많은가봐요., 2
9817 비밀로 했는데 들려서 오해하고 있어, 오해할만한 일이 생겼을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풀어보세요., 2
9818 비혼주의자인데 만나도 될까?,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2
9819 빨리 찾아온 사랑, 인생은 타이밍이예요., 2
9820 뽀빠로 데이인데 썸남한테 만들어줄까 그냥 살까?, 정성이 담긴 것을 더 좋아할 거예요., 2
9821 뽀빠로 만들어주는 거 좋아할까?, 정성이 담긴 것이니 좋아할 거예요., 2
9822 뽀빠로데이에 고백할까요?, 선물을 주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고백해보세요., 2
9823 뽀은 인형 짝녀에게 주면 좋아할까?, 좋아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좋아할 거예요., 2
9824 사귀고 나서 외모에 신경을 너무 안 써, 격식 있는 자리에 같이 가보세요., 2
9825 사귀고 나서 트레이닝복만 입어, 다른 옷을 선물해보세요., 2
9826 사귀고 나서 화장을 안 해,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끔 부탁해보세요., 2
9827 사귀고 나서 환장이 깨졌어, 환장을 갖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세요., 2
9828 사귀기로 했는데 존댓말 계속 써도 돼?, 존댓말 쓰면 덜 싸운대요., 2
9829 사귀는 사이인데 '야' 라고 해. 기분 나쁜데 어떡해?, 그건 좀 아닌 거 같다고 바로 말하세요., 2
9830 사귀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돼, 걱정이 많이 되겠네요., 2
9831 사귀던 사람이 잠수탔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더 기다려보세요., 2
9832 사귀면 끝일 줄 알았는데, 사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2
9833 사귀면 좋을까, 안 사귀는 것보다 좋지요., 2
9834 사귀면서도 좋아하는 감정을 잘 못느끼는데 문제 있는 건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를거예요., 2
9835 사귀자는 말 아니면 썸인가, 말 안하고 사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9836 사귀자는 말 아니면 썸인가, 사귀자고 말하고 썸을 끝내보세요., 2
9837 사권지 얼마 안됐는데 스킨십하려고해, 자신의 속도에 맞추세요., 2
9838 사권지 한달됐어, 한창 달달할 때네요., 2
9839 사내 썸 원가 떨린다., 저도 떨리네요., 2
9840 사내 연애 비추하나요?, 상황마다 다를 것 같아요., 2
9841 사내에 좋아하는 여자분이 생겼는데 조심해야겠지., 아무래도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2
9842 사내연애 비밀로 해야겠지?, 직장과 서로를 위해 그게 좋겠죠., 2
9843 사내커플인데 비밀연애임. 답답해., 비밀연애가 말도 못하고 힘들죠., 2
9844 사내커플인데 비밀연애하니까 더 떨려., 스릴있죠., 2
9845 사람들은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라는데 난 이해가 안가., 직접 두분이서 대화를 나누는게 필요하겠어요., 2
9846 사람은 다른데 연애는 비슷해,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2
9847 사랑 경험이 없어, 지금부터 해보면 돼요., 2
9848 사랑 고민,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2
9849 사랑 글로 배워요, 글로라도 배우세요., 2
9850 사랑 끝난 거 같은데 잡아도 될까?, 잡는다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2

9851 사랑 끝난 거 같은데 잡으면 돌아올까?, 끝난 건 잡을 수 없어요., 2
9852 사랑 때문에 죽고 싶어, 죽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걸 걸어보세요., 2
9853 사랑 명언 알려줘,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생텍쥐페리, 2
9854 사랑 못 받는 느낌에 우울해,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2
9855 사랑 받는 걸 알려준 사람, 그 사람 잡으세요., 2
9856 사랑 받는 느낌을 못 받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세요., 2
9857 사랑 받는 느낌이 없어,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어요., 2
9858 사랑 별거 없네, 별거 없다가도 전부가 되는데 사랑이예요, 2
9859 사랑 앞에서 죄인이 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예요., 2
9860 사랑 없는 삶은 불행할까?, 삶 곳곳에 사랑이 숨 쉬고 있어요., 2
9861 사랑 존재하기는 해?, 믿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겠조., 2
9862 사랑 지키는 방법, 자신과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2
9863 사랑 표현에 서툴러, 서툴러도 괜찮아요., 2
9864 사랑 힘들다, 상대방도 좋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주세요., 2
9865 사랑과 우정 사이, 한곳차이., 2
9866 사랑꾼, 부러워요., 2
9867 사랑꾼인 거 같아, 다정다감한가봐요., 2
9868 사랑때문에 많이 아파, 애절한 만큼 상대방도 당신의 아픔을 느낄거예요., 2
9869 사랑만 보고 하는 결혼? 사랑 없는 결혼?, 사랑만 보고 하지도 않고 사랑 없이 하지도 않아요., 2
9870 사랑만으로 안되는 게 많을까요?, 사랑이 전부는 아니예요., 2
9871 사랑받고 있지 않은 거 같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2
9872 사랑받고싶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2
9873 사랑받는 방법, 사랑하면 돼요., 2
9874 사랑받는 행복을 알게 해준 너, 그 사람과 잘 만나보세요., 2
9875 사랑보다 조건을 보고 결혼해야할까?,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질문해보세요., 2
9876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굳이 있다면 신뢰와 믿음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2
9877 사랑스러운 눈빛, 사랑 받는다는 느낌 팍팍 받았겠네요., 2
9878 사랑싸움 그만하고 싶어,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2
9879 사랑없이 결혼 가능해?,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살면서 생기는 정으로 사는 듯합니다., 2
9880 사랑없이 결혼한 케이스 있어?, 사랑에 따라 다르겠지만 있을 것 같네요., 2
9881 사랑에 빠지고 싶다, 이것저것 생각하지말고 마음가는 사람에게 다가가보세요., 2
9882 사랑에 빠지면 티가 나?, 다 보입니다., 2
9883 사랑에 빠진 거 같아, 행복해 보여요., 2
9884 사랑에 빠진 거 같아, 행복해보여요., 2
9885 사랑에 서툴어, 우리는 모두 사랑에 서툴어요., 2
9886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어제, 오늘, 내일이 각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유효기간이 딱히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2
9887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갱신해가는 재미가 있죠., 2
9888 사랑으로 가능한 것?, 바로 연애죠., 2
9889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 물리적 나이보다 정신적 나이가 중요해요., 2
9890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사랑은 마음에 안고 사는 거예요., 2
9891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면, 노력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2
9892 사랑은 시간이 약인가?, 시간이 약인 경우가 많아요., 2
9893 사랑은 영원해?, 사랑은 한 순간이면서 영원한거 같아요., 2
9894 사랑은 죄가 아닌데, 작아질 필요 없어요., 2
9895 사랑은 주고 받는 거지?, 사랑은 한 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거라고 생각해요., 2
9896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 능동적으로 찾아보세요., 2
9897 사랑을 알게 해준 너, 소중한 인연이었네요., 2
9898 사랑을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표현해 달라고 말해보세요., 2
9899 사랑을 했다, 또 사랑을 할 거예요., 2
9900 사랑을 했다, 예쁜 사랑이었길 바랍니다., 2
9901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2
9902 사랑의 감정을 모르겠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2
9903 사랑의 결과는 어차피 두가지, 과정이 더 중요하지요., 2
9904 사랑의 끝은 결혼일까?, 사랑의 끝은 없어요., 2
9905 사랑의 끝은 뭘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2
9906 사랑의 끝이 뭐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2
9907 사랑의 묘약 같은 거 있나?, 그런거 없어요., 2
9908 사랑의 정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예요.-올라프, 2
9909 사랑의 힘은 위대한가봐, 많은 걸 변화시키죠., 2
9910 사랑의 힘은 진짜 위대한듯, 사랑의 힘은 험크보다 썰거예요., 2
9911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야?, 종족번식을 위한 일시적인 호르몬 작용일 수도 있어요., 2
9912 사랑이 끝난 거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 남자 버리고 이런 느낌 안 주는 사람 만나세요., 2
9913 사랑이 끝난 것 같아, 힘들겠지만 마음을 정리해보세요., 2
9914 사랑이 날 힘들게 해, 왜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2
9915 사랑이 다가왔어, 당신도 다가가 보세요., 2
9916 사랑이 뭐가 대수라고, 사랑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감정이에요., 2
9917 사랑이 뭐길래, 사랑...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예요., 2
9918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사랑을 정의내릴 수 있다면 노벨상을 받을거예요., 2
9919 사랑이 뭐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2
9920 사랑이 뭐야?, 신뢰이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2
9921 사랑이 뭔데 힘들게 하는지, 사랑은 아프게도 행복하게도 힘들게도 기운내게도 하는것 같아요., 2
9922 사랑이 뭔지 넌 알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9923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사랑은 정답이 없는거 같아요., 2
9924 사랑이 뭘까 궁금해,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2
9925 사랑이 뭘까?, 신뢰입니다., 2
9926 사랑이 밥 먹여주나, 사랑이 밥은 먹여주지 않지만 행복을 줘요., 2
9927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같이 밥을 먹어주죠., 2
9928 사랑이 변하는걸 인정해야할까?, 사랑은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해요., 2
9929 사랑이 변하면 어떡하지?, 사랑은 변화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2
9930 사랑이 쉬운 사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네요., 2
9931 사랑이 싹 트고 있어, 그 과정 자체도 사랑스럽네요., 2
9932 사랑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저도요., 2
9933 사랑이 애매해, 확실한 건 없죠., 2
9934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만큼 변덕스러운것도 없을거예요., 2
9935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은 안 변하고 사람이 변해요., 2
9936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고 싶어, 믿으면 이루어져요., 2
9937 사랑이 정말 있을까?, 없어요. 일시적인 감정 교란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2
9938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묻노라., 2
9939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사랑에 정의는 없는거 같아요., 2
9940 사랑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거 같아, 사랑하는데 어떤 확신이 필요한가요., 2
9941 사랑인지 헷갈려., 당신만이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2
9942 사랑하고 사람이 달라졌어,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처럼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2
9943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구속해, 사랑을 독차지하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면서 여유를 가지세요., 2
9944 사랑하고 좋게 바뀌어,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처럼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2
9945 사랑하고싶어, 당신의 이상형을 찾아보세요., 2
9946 사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해, 시간은 핑계예요., 2
9947 사랑하냐고 왜 물어봐?, 확인 받고 싶어서요., 2
9948 사랑하는 거 힘들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거라 더 힘든 것 같아요., 2
9949 사랑하는 사람 내가 붙잡는 거 같애, 사랑을 쟁취하는 거예요. 붙잡으세요., 2
9950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깊은 끈인 사랑이 둘을 이어줄 거예요., 2
9951 사랑하는 사람 잊는 법, 충분히 아파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2
9952 사랑하는 사람 잊어야 할 거 같아, 충분히 아파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2
9953 사랑하는 사람과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싶어, 그런 기쁨과 기적도 없을 거예요., 2
9954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보세요., 2
9955 사랑하는 사람은 딱 알아볼 수 있어?, 감정은 감출수 있는게 아니에요., 2
9956 사랑하는 사람은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 신호를 못 찾은게 아닐까요., 2
9957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기한을 정하고 기다리세요., 2
9958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해, 슬픈 이야기네요., 2
9959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보고 싶어., 알아보지 못한 만큼 더 사랑해주세요., 2
9960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붙잡아 보세요., 2
9961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경쓰여, 한눈 팔다가 후회합니다., 2
9962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서 어서 고백해봐요., 2
9963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 사람 행복하게 해주세요., 2
9964 사랑하는 사람이라 결혼하고싶어, 언젠가 그런 사람이 당신 옆에 있을거예요., 2
9965 사랑하는 사람이라 결혼하고싶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결혼하세요., 2
9966 사랑하는 사람이라 내가 너무 차이나, 누구나 같을 수 있을까요. 자격지심이예요., 2
9967 사랑하는 사람이라 살고싶어, 행복한 상상은 현실에 반영된다고 해요., 2
9968 사랑하는 사람이라 헤어져,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요., 2
9969 사랑하는 사람이라 헤어져야해, 듣기만해도 마음 아픈 말이에요., 2
9970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모잘라,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보세요., 2
9971 사랑하는건지 나도 모르겠어, 없어도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2
9972 사랑하는데 그리워, 그리우면 그리다고 말해보세요., 2
9973 사랑하는데 꼭 결혼해야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랑과 결혼을 동일시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2
9974 사랑하는데 내가 집착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좀 더 가지세요., 2
9975 사랑하는데 너무 계산적인 남자친구가 고민이야.,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2
9976 사랑하는데 너무 계산적인 여자친구가 고민이야., 경제 감각이 없는 것보다 낫죠., 2
9977 사랑하는데 미지근한 거 같아, 불타오르는 사랑만 사랑인건 아니에요., 2
9978 사랑하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사랑한다면 그 모습도 사랑해주세요., 2
9979 사랑하는데 왜 힘든 걸까?, 진정한 사랑인지 생각해보세요., 2
9980 사랑하는데 외로워, 외롭다고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2
9981 사랑하는데 지쳐, 잠시 휴식기를 가져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2
9982 사랑하는데 힘들어, 사랑에 지쳤나봐요., 2
9983 사랑하는데 자꾸 물어보는 이유, 사랑한다고 듣고 싶어서요., 2
9984 사랑하면 끝일줄 알았는데, 사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2
9985 사랑하면 다했어?, 다했가조., 2
9986 사랑하면 더 잘해줘야하는거 아니야?, 그 사람만의 사랑 표현이예요. 대화로 당신이 원하는걸 말해보세요., 2
9987 사랑하면 마냥 좋은 건 아닌 거 같아, 사랑이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2
9988 사랑하면 뭐가 달라져?, 당신의 삶이 달라져요., 2
9989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처럼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2
9990 사랑하면 안되는 사람,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2
9991 사랑하면 안되는데 사랑하고 있어, 어쩔 수가 없네요., 2
9992 사랑하면 안될 사랑을 사랑하고 있어, 위험한 사랑이네요., 2
9993 사랑하면 예뻐지나봐, 사랑하면 예뻐지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2
9994 사랑하면 예뻐지나봐, 사랑하면 호르몬이 나온대요., 2
9995 사랑하면 좋을까?, 사랑보다 좋은 건 없어요., 2

9996 사랑하면서 외로워, 진정한 사랑으로 외로움을 극복해보세요., 2
9997 사랑하지 않는데 만나는 거 같아, 감정에 솔직해 지세요., 2
9998 사랑한 만큼 배려해야했어, 이제야 깨달았나봐요., 2
9999 사랑한걸까?, 당신의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2
10000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한다고 말해 달라고 하세요., 2
10001 사랑한다고 말해볼까?, 솔직함으로 사랑을 쟁취하세요., 2
10002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뭐가 더나나, 사랑한다고 표현해달라고 말해보세요., 2
10003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해요., 2
10004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하지?, 머릿속에 맴도는 것들을 입으로 내뱉는 거죠., 2
10005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순간, 받은 거보다 더 많이 해주고싶을 때요., 2
10006 사랑한다는 말 쉽게 안 나와, 감정을 표현한다는게 어렵죠., 2
10007 사랑한다는 말 아껴야할까?,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말고 언제든지 표현해주세요., 2
10008 사랑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지?, 당연하죠., 2
10009 사랑할 시간이 없어.,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여유를 갖게 되길 바라요., 2
10010 사랑할 여유가 없어,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여유를 갖게 되길 바라요., 2
10011 사랑할 자격이 있나?, 사랑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2
10012 사랑할수록 나만 손해인 거 같은 느낌이야, 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고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거예요., 2
10013 사랑할수록 아프다, 그 것도 사랑이예요., 2
10014 사랑할수록 집착해, 상대방이 싫어할수도 있어요., 2
10015 사랑할수록 행복해,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네요., 2
10016 사랑해, 상대방에게 전해보세요., 2
10017 사랑해, 하늘 만큼 땅 만큼 사랑해요., 2
10018 사랑해 보고싶어, 얼른 만나러가세요., 2
10019 사랑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2
10020 사랑해라고 왜 말 안하지, 꼭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
10021 사랑해보고싶어, 할 수 있을 거예요., 2
10022 사랑해본적 없는 것 같아, 부모님이 서운하겠네요., 2
10023 사랑해봤어?, 저 기분 나빠질거 같아요., 2
10024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깐요., 2
10025 사랑해서 그런거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사랑은 좋지 않은거예요., 2
10026 사랑해서 그렇다는데 말이 안돼, 그 사람의 사랑을 존중해주세요., 2
10027 사랑해서 너무 행복해, 어쩐지 행복해 보이더라구요., 2
10028 사랑해서 헤어지겠대, 슬픈 이야기네요., 2
10029 사랑해서 헤어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생가해요., 2
10030 사랑해서 헤어진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요., 2
10031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함께있지 않을까?,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수도 있어요., 2
10032 사생활 좀 존중해줬으면, 서로의 선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2
10033 사실 사랑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2
10034 사진이 남는 거겠지?, 남는건 사진뿐이 없대요., 2
10035 살며시 다가왔어, 가랑비에 옷 젖는 듯한 사랑이었나봐요., 2
10036 살면서 남편이 더 좋아져, 그런 남자 저도 소개시켜 주세요., 2
10037 삼각관계인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2
10038 상견례 너무 떨려, 너무 긴장하면 아무말도 못할 거예요., 2
10039 상견례는 어디서 해?, 서로에게 가까운 곳에서 하고 보통 한정식집에서 하는데 어디서 하든 상관 없어요., 2
10040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난 아닌 거 같대, 짚어보는 상대 별로네요., 2
10041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우연을 가장해서 여러 번 마주쳐보세요., 2
10042 상메가 제 얘기 같아요, 관심이 없었다면 상메에도 없었을 거예요., 2
10043 상사병 극복하고 싶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2
10044 상처입은 사람한테 다가가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2
10045 새로운 사랑 찾아 이제는, 행복하세요., 2
10046 새로운 사랑은 찾아와,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2
10047 새로운 사랑이 좋을까?, 마음에 이끌리는대로 하세요., 2
10048 생각이 자주 나, 좋아하나봐요., 2
10049 서로 사랑하는데 불안해, 마음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2
10050 서로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어, "살아가는데 사랑이 큰 힘이 되지만, 모든걸 다 해결해주지는 않아요.", 2
10051 서로 사랑해, 기적같은 일이네요., 2
10052 서로 좋아하게 되는건 운명같은 일이었어., 운명이자 기적이죠., 2
10053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건 내 착각일까?, 착각이 아닐지도 몰라요., 2
10054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자주 관심 없는 척하게 돼., 사랑 앞에 자존심은 소용이 없어요., 2
10055 서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든거였네., 쉽지 않은 일이죠., 2
10056 서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짝사랑이었네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2
10057 서로에게 맞추려고하는데 잘 안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2
10058 서운한거를 다말해? 아니면 어디까지 말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10059 선 결혼 후 연애 해도 될까?, 무엇이 먼저든 마음만 있으면 돼요., 2
10060 선물은 뭐가 좋을?, 상대방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선물이 좋을 거 같아요., 2
10061 선배가 나만 챙겨줌. 썸인 부분?,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10062 설레고 싶은데 아직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사랑은 찾아나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2
10063 설렘이 사라진 거 같아, 편한 사랑도 사랑이예요., 2
10064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좋은 생각이예요., 2
10065 성숙한 사랑은 뭘까?,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2
10066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짝사랑 같아., 감정소모가 심하긴 해요., 2
10067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짝사랑인 듯.,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그런가봐요., 2
10068 세상이 감미로워보여, 사랑에 빠졌나봐요., 2

10069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사랑에 빠졌나봐요., 2
10070 섹스리스 부부 어때?, 서로가 동의한다면 상관 없어요., 2
10071 섹스리스 커플이야, 서로가 동의한다면 상관 없어요., 2
10072 소개받고 맨날 톡하면 썸이지?, 아무래도 그렇죠., 2
10073 소개팅 나온 여자애가 너무 좋은데 나만 좋아하는거같아. 어떻게 날 좋아하게하지?, 매력들 마음껏 어필해보세요., 2
10074 소개팅 성공률 높이는 법,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 2
10075 소개팅 성공하고 싶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2
10076 소개팅 안 해봤는데, 나중에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것보다 지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2
10077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 좋아하게 되었는데 괜찮은 사람일까요., 좀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2
10078 소개팅 어색할까봐 안해봤는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2
10079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사람 괜찮을까?, 천천히 알아가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
10080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사람이라 썸 타도 괜찮을까?, 썸 정도는 괜찮아요., 2
10081 소개팅하고 애프터 바로 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2
10082 소개팅하고 애프터까지 왔는데 너무 어색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10083 소개팅하고 애프터까지 왔는데 설렘이 없어.,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2
10084 소심남 좋아하는 여자도 있나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2
10085 소심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2
10086 소심한 남자와의 연애, 직설적으로 통보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권유하고 물어보는 말을 해보세요., 2
10087 손 잡고 싶어, 용기내서 잡아보세요., 2
10088 수수한 여자가 좋아, 수수한데 예쁜 여자라고 말해야죠., 2
10089 순수한 사람 만나고싶다, 순수하고 불순한 게 나눠있지 않을 거예요., 2
10090 술 마셨는데 썸 타는 여자한테 전화해도 되는 부분?, 술 마시고 전화하는 건 좀 그래요., 2
10091 술 마셨는데 썸남한테 데리러 오라고 할까?, 혹시 모르니 오라고 해보세요., 2
10092 술 먹고 짝남한테 카톡하는 거 좀 별로지., 취하지 않았을 때 연락하는게 좋긴 할 거예요., 2
10093 술 먹고 짝녀한테 전화하는 거 싫어하나., 술 먹고 전화하는건 실례일 수 있어요., 2
10094 술 먹는데 챙겨주는 짝남 무슨 의미일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당신을 친근하게 생각하나봐요., 2
10095 술 먹을 때 옆에서 챙겨줬는데 썸임?, 친절한 거랑 구별해볼 필요가 있어요., 2
10096 술 좋아하는 사람 싫는데 그 사람은 좋아., 술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2
10097 술자리에서 그만 마시라고 해주는 짝녀 무슨 뜻일까요?, 걱정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2
10098 술집에서 헌팅했어, 축하해요., 2
10099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만나자는 말이 없어.,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2
10100 쉬는날인데 왜 만나자고 안하지, 직접 만나자고 연락해보세요., 2
10101 스드메 계약했어, 결혼준비 첫 발을 디뎠네요., 2
10102 스물웨딩 결심했어, 부모님을 잘 설득해보세요., 2
10103 스킨십 속도가 좀 빨라, 원치 않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2
10104 스킨십 언제부터 할까?, 두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요., 2
10105 스킨십 좋아하는 남자친구 어떡해?, 서로 속도를 맞춰보세요., 2
10106 스킨십 좋아하는 여자친구 어떡해?, 서로 속도를 맞춰보세요., 2
10107 스킨십 좋아하는 연인, 대화를 하면서 속도를 맞춰보세요., 2
10108 스킨십 해볼까?,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2
10109 스킨십만 하는 거 같아, 좀 더 대화가 필요해보이네요., 2
10110 스킨십은 언제 시작해?, 언제라는 건 정해져있지 않아요., 2
10111 스테디 하는데 괜찮은 사람 있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2
10112 스테디 하다 만났어, 공부는 안하고!, 2
10113 스튜디오 촬영은 하지 말까?, 결혼 준비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2
10114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이야!, 예쁘게 찍고 오세요., 2
10115 승부욕 있는 남자가 좋아,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매력적이지요., 2
10116 시어머니가 같이 목욕탕 가재, 부담스럽겠어요., 2
10117 시어머니가 자꾸 카톡해, 남편이라 이야기해보세요., 2
10118 시험 앞두고 짝남이 생겨버렸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게 중요하겠어요., 2
10119 시험 앞두고 짝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다니 조심하세요., 2
10120 식사한 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전혀 식사하지 않아요., 2
10121 신혼 길게 즐기고 싶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2
10122 신혼 진짜 행복해, 깨가 쏟아지고 있군요., 2
10123 신혼갈지가 많아, 약간의 변화를 줘보세요., 2
10124 신혼생활이 영원했으면, 깨 볶는 소리가 들리네요., 2
10125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못 가본 곳으로 가보세요., 2
10126 신혼인데 남편이라 자주 부딪혀, 아예 다른 삶을 살다가 하루 아침에 같이 살게 된 거니까요., 2
10127 신혼인데 엄청 싸워, 서로에게 맞추는 과정이에요., 2
10128 싫어졌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2
10129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거 같은데, 좀 더 호감을 표현해보세요., 2
10130 싫은 건 아닌데, 딱히 좋지도 않나봐요., 2
10131 심남이 내가 좋아하는 거 눈치 챘을까?, 그건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기 힘들어요., 2
10132 심쿵하게 하는 방법, 평소 흘려 이야기했던 걸 기억해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2
10133 싸우고 시간을 갖자하면 보통 며칠 만에 연락해?, 짧으면 짧을 수록 좋겠죠., 2
10134 싸우다보니가 사랑했던걸 까먹어, 사랑하게 된 이유를 써놓고 사랑이 힘들었을 때 꺼내 읽어보세요., 2
10135 싸우면 어떻게 해결해?, 제대로 사과해야죠., 2
10136 싸운다의 기준이 뭘까?, 감정이 상하면 싸우는 거죠., 2
10137 싸울 때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어, 본 모습일지도 몰라요., 2
10138 싸울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랑하게 된 이유를 써놓고 사랑이 힘들었을 때 꺼내 읽어보세요., 2
10139 썸은 뭐야, 썸 타다가 발전되지 못한 관계죠., 2
10140 생일인데 짝남 만났어., 당황 했겠어요., 2
10141 썸 고백해도 될까, 당당하게 다가가세요., 2

10142 썸 기준이 뭐야, 고백 전 단계입니다., 2
10143 썸 깨지고, 당당하게 지내세요., 2
10144 썸 갠 거 후회해., 감정에 확신이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2
10145 썸 깰 때 어떻게 해?, 고백이 답이죠., 2
10146 썸 끝나고 잡아도 될까,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2
10147 썸 끝난 건가, 선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연락해보세요., 2
10148 썸 끝난거지?, 안 사귀면 끝이죠., 2
10149 썸 끝내고 싶어, 호감을 표시해보세요., 2
10150 썸 끝내고 싶지 않아., 간절한 마음이 그 분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2
10151 썸 끝내는게 맞을까?, 혹시 마음이 정리 됐나요? 그런게 아니라면 아직 끝내긴 아까워요. 용기를 내봐요., 2
10152 썸 끝내야 할까?, 혹시 마음이 정리 됐나요? 그런게 아니라면 아직 끝내긴 아까워요. 용기를 내봐요., 2
10153 썸 끝냈는데 너무 힘들어., 좋아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컸나봐요., 2
10154 썸 너무 들이댔나, 의사는 표현하되 상대방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 좋아요., 2
10155 썸 두달 넘었는데, 너무 길지 않나요., 2
10156 썸 맞는거임?, 말해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2
10157 썸 맞는지 궁금, 계속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야 썸인 듯합니다., 2
10158 썸 사이에서 원래 질투유발하고 그래?, 하기도 하죠., 2
10159 썸 시작한 거 같은데 사귀고 싶어, 좋아하는 감정을 확인해보세요., 2
10160 썸 어떻게 타?, 일단 연락처를 주고 받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친해지는게 좋아요., 2
10161 썸 여러명이랑 타는 것도 바람 피는 거야?, 바람 피우는 건 아닌데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 같아요., 2
10162 썸 오래타는 건 재보는 거 아냐?, 고는 건 별로겠죠., 2
10163 썸 오래타면 오래 못 사거?, 썸 기간이랑 사귀는 기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2
10164 썸 왜 끝났지, 관계에 진전이 없거나 밀당인듯합니다., 2
10165 썸 정리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연락을 줄이고 안하는 거겠죠., 2
10166 썸 정리하고 싶으면, 좋으면 좋아한다고 말해보세요., 2
10167 썸 중에 고백 언제가 적절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본인의 선택을 믿으세요., 2
10168 썸 중에는 선풍이 중요?, 먼저 연락해보세요., 2
10169 썸 지났는데 고백 안하면?, 고백 안 하고 사귀기도 하니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10170 썸 타고 싶다. 연애 말고., 사귀기 전에 두근거림을 좋아하나 봐요., 2
10171 썸 타고 싶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2
10172 썸 타고 있는데 연락 끊겼어. 먼저 해도 돼?, 미련이 남으면 해봐도 돼요., 2
10173 썸 타고 있는데 주변에 말해?,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2
10174 썸 타고 있는데 카톡 차단 당함, 강제 정리 당한 거 같아요., 2
10175 썸 타기 좋은 알바 뭐있음?, 함께 돕는 알바를 찾아보세요., 2
10176 썸 타기 좋은 알바 추천 좀., 영화관이나 커피숍 추천해요., 2
10177 썸 타긴 하는데 어색한 사이야. 톡 어떻게 계속 이어가?, 아직 어색해서 그런거지 친해지면 자연스러워질거예요., 2
10178 썸 타는 거 때문에 친구들이 놀려, 당당하게 나가세요., 2
10179 썸 타는 거 시간 아까워., 얼른 고백해야죠., 2
10180 썸 타는 거 좋아해?, 썸 탈 사람 없어서 못 타요., 2
10181 썸 타는 거 티내고 싶진 않아., 누구에게요?, 2
10182 썸 타는 것 같은데 조언해줘., 어떤 조언이 필요한가요? 생각해 볼게요., 2
10183 썸 타는 것도 귀찮아., 그냥 사귀세요., 2
10184 썸 타는 계절이 왔나 봄., 썸 타기 좋은 계절이에요., 2
10185 썸 타는 기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발전된 관계가 좋겠죠., 2
10186 썸 타는 기간, 한달 안쪽? 너무 길면 힘드니까요., 2
10187 썸 타는 남자애가 연락 오는 꿈 될까, 은연 중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2
10188 썸 타는 노래 듣는 중인데 좋아., 썸 탈 때 듣기 딱이죠., 2
10189 썸 타는 법 좀, 일단 연락처를 주고 받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친해지는게 좋아요., 2
10190 썸 타는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뭐 입어?, 어느 것이든 자신이 좋아하고 어울리는 옷이 좋아요., 2
10191 썸 타는 사람 보고싶어., 연락해보세요., 2
10192 썸 타는 사람 생선 준비 오바임?, 서로에게 부담 없는 작은 선물이 좋아요., 2
10193 썸 타는 사람 생일이야. 선물 사야 해?, 서로에게 부담 없는 작은 선물이 좋아요., 2
10194 썸 타는 사람 선물 뭐 사야 해?, 그 분이 평소 좋아한다고 했던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2
10195 썸 타는 사람 선물로 향수 어때?, 원하는 향 알면 좋을 거 같아요., 2
10196 썸 타는 사람 이름 뭐라고 저장할까?, 저는 '설레'라고 저장할래요., 2
10197 썸 타는 사람 있는데 망설여지는데, 어떤 부분이 망설여지는지 말씀해보세요., 2
10198 썸 타는 사람 있는데 불안해., 사귀기 전에는 다 불안해요., 2
10199 썸 타는 사람이 나오는 야한 꿈 꿔어., 어머 벌써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2
10200 썸 타는 사람이 내 프사 보고 귀엽대., 칭찬은 언제든 듣기 좋죠., 2
10201 썸 타는 사람이 셀카 보내는 건 뭐야?, 봐달라는 거겠죠., 2
10202 썸 타는 사람이랑 밥 먹기로 함, 즐거운 데이트 하길 바랄게요., 2
10203 썸 타는 사람한테 영통 걸까?, 영통 걸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걸어보세요., 2
10204 썸 타는 사람한테 영화 보자고 할까?, 당장 연락해보세요., 2
10205 썸 타는 사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너무 편한 거 같다고 말해보세요., 2
10206 썸 타는 사이에 배낭여행 가능?, 사귀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
10207 썸 타는 사이에 얼마나 간섭 가능?, 사귀고 나서 간섭 가능합니다., 2
10208 썸 타는 사이인데 너무 간섭이 심해., 사귀면 더 하겠네요., 2
10209 썸 타는 사이인데 일부터 늦게 답장 해도 돼?, 밀당을 하고 싶으시군요., 2
10210 썸 타는 사이인데 카톡하다가 마무리 어떻게 해?, "잘자요", '내일도 보고싶어요' 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2
10211 썸 타는 시간,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2
10212 썸 타는 애한테 사귀자고 해도 됨?, 말해보세요., 2
10213 썸 타는 여자 만나기로 했는데 편하게 입어도 됨?, 편한 옷차림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격식은 차리는 게 좋아요., 2
10214 썸 타는 여자가 남사친 만나러 간다는데 뭐라 해?, 우리가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별로 기분은 안 좋은 거 같다고 말해봐요., 2

10215 썸 타는 여자가 있는데, 부럽네요!, 2
10216 썸 타는 여자애 상매 궁금해., 한번 봐봐요., 2
10217 썸 타는 여자애 프사에 남자 누굴까., 사진 검색 해봐요., 2
10218 썸 타는 여자애가 연락 오는 꿈 뭐지?, 은연 중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2
10219 썸 타는 여자애한테 벚꽃 보러 가자고 해도 돼?, 벚꽃 놀이 좋죠!, 2
10220 썸 타는 줄 알았는데 짝사랑이었네., 슬픈 상황이에요., 2
10221 썸 타는 중에 데이트 비용은 누가?, 각자 내는 게 깔끔하죠., 2
10222 썸 타는 중인데 권태기가 온 듯, 만나서 극복하세요., 2
10223 썸 타는 중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썸타는 것 같아.,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좋아요., 2
10224 썸 타는 중인데 난 직장인이고 애는 학생이야., 만남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2
10225 썸 타는 중인데 난 학생이고 그 사람은 직장인이야., 만남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2
10226 썸 타는 중인데 너무 인기 많아서 빼앗길까봐 걱정됨., 그러면 얼른 쟁취하세요., 2
10227 썸 타는 중인데 다른 사람과 연락 자제해야 해?, 잘되고싶다면 자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2
10228 썸 타는 중인데 바빠서 연락 제대로 못하는데 이해해야겠지., 좋아하는 마음이라면 이해해보세요., 2
10229 썸 타는 중인데 안 설레., 좋아하는 감정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차분히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2
10230 썸 타는데 고민 있어., 말해보세요. 생각해 볼게요., 2
10231 썸 타는데 맨날 늦어, 기본적인 시간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
10232 썸 타는데 머리 아파 신경쓰여., 신경 쓰이겠어요. 기분 전환 하고 오세요., 2
10233 썸 타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음?, 좋아함을 점프했네요., 2
10234 썸 타는데 어디 가자고 할까?,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연락해 보세요., 2
10235 썸 타는데 원래 이렇게 적극적이야?,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2
10236 썸 타는데 적극적으로 해도 됨?,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2
10237 썸 타는데 현타 와., 썸만 타는데 왜 현타가 오는지 모르겠네요., 2
10238 썸 타니까 연락에 집착하게 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
10239 썸 타다 고백할 시기?, 썸은 짧은 게 좋습니다., 2
10240 썸 타다 깨졌는데 다시 연락해도 되나., 감정에 확신이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2
10241 썸 타다 깨진 애 있는데 다시 연락해볼까?, 감정에 확신이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2
10242 썸 타다 늘어 죽을 듯, 속 타 죽기 전에 표현해보세요., 2
10243 썸 타다 지쳤어, 지친 거 티내보세요., 2
10244 썸 타다가 고백하고 차였는데 연락해도 될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2
10245 썸 타다가 막상 사귀려고 하면 싫어., 연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10246 썸 타다가 말도 안하고 잠수 타는 경우 뭐야?, 썸이 흐지부지 끝난 거 같아요., 2
10247 썸 타다가 이제 안 볼 거면 강 잠수 타? 만나서 말해?, 애매함이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2
10248 썸 타던 남자가 답장이 안와, 썸 중인데 매나가 없네요., 2
10249 썸 타던 사이인데 부담 돼. 연락 무시해도 될까?, 부담되면 마음이 가지 않는 거니 정리도 필요하겠네요., 2
10250 썸 타던 사인데 잠수타는 거 뭐야?, 바쁘거나 썸이 끝났거나겠죠., 2
10251 썸 타던 선배가 연락을 안해, 바쁘거나 다른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2
10252 썸 타던 여자애가 자기랑 무슨 관계냐고 함., 상대방을 헛갈리게 하는건 좋지 않아요.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말해보세요., 2
10253 썸 탈 때 꽃 선물 부담스러워 할까, 꽃을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2
10254 썸 탈 때 단답이나 줄임말 쓰지마?, 아무래도 장답이나 설명이 좋겠죠., 2
10255 썸 탈 때 더 잘해주는 건 워임, 긴장감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2
10256 썸 탈 때 말투, 평소 말투가 좋을 거 같아요., 2
10257 썸 탈 때 무슨 말하지, 요즘 상영하는 영화나 맛집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10258 썸 탈 때 뽀뽀 괜찮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귀고 난 후가 좋겠어요., 2
10259 썸 탈 때 어디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지 연락해 보세요., 2
10260 썸 탈 때 연락문제로 속상한 적 있어?, 썸 탈 때는 특히 속상한 것 같아요. 내 맘 같지 않고 아직 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 순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2
10261 썸 탈 때 예민한 부분 말해?, 알아가는 단계니 디테일한 건 말 안해도 돼요., 2
10262 썸 탈 때 진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귀고 난 후가 좋겠어요., 2
10263 썸 탈 때가 그리워., 썸에 익숙해졌나봐요., 2
10264 썸 탈 때는 설렸는데 사귀면 마음이 식을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확인하며 잘해주면 돼요. 대화를 통해 꾸준히 감정을 나누세요., 2
10265 썸 탈 때는 좋은데 연애하면 정이 뚝 떨어져. 왜그래?, 사귀기 전의 과정만 즐기나봐요., 2
10266 썸 탈 때도 조건 보면 이상해?, 조건 볼 수도 있죠., 2
10267 썸 탈 때 남자가 좀 더 쓰는게 맞아?, 누가 내든 상관 없어요., 2
10268 썸 탈출하고 싶어., 썸 타는 기간이 길었나봐요. 지쳤나요?, 2
10269 썸 탔던 애 친구해도 되나, 소극적으로 표현했다면 친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10270 썸 탔던 애한테 연락왔어,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2
10271 썸 확인법, 적극적으로 표현해 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2
10272 썸과 연인 사이, 이제 선택할 상황이에요., 2
10273 썸끝인가요, 다시 연락해보세요., 2
10274 썸남 꿈 꿔어., 그분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곧 좋은 소식이 들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2
10275 썸남 만나기로 했는데 뭐 입어?, 어느 것이든 자신이 좋아하고 어울리는 옷이 좋아요., 2
10276 썸남 만나기로 했는데 치마? 바지?, 어느 것이든 자신이 좋아하고 어울리는 옷이 좋아요., 2
10277 썸남 만나러 갈지 말지 고민 돼., 많이 만나면 만날 수록 좋죠., 2
10278 썸남 목소리 듣고 싶어., 지금 전화해보세요., 2
10279 썸남 발렌타인 선물 뭐가 좋을까?,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 좋겠어요., 2
10280 썸남 뽀뽀로 줘야 함?, 좋아하는 사람이 준다면 좋아할 거예요., 2
10281 썸남 생겼는데 너무 조금해., 좋아하나봐요., 2
10282 썸남 생겼는데 프사 뭐할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2
10283 썸남 생일 때 편지 줘도 될까, 진심어린 손편지는 누구나 좋아하죠., 2
10284 썸남 인스타 좋아요 눌러버렸어., 좋아요 정도는 괜찮아요., 2
10285 썸남 있는데 완전 스윗함., 녹아내리겠네요., 2
10286 썸남 졸업하는데 가도 되나?, 상대방에게 정확히 물어보는게 좋아요., 2

10287 썸남 졸업하는데 선물 뭐가 괜찮아?, 서로에게 부담 없는 선물이 좋아요., 2
10288 썸남 초콜릿 줘야 해?, 좋아하는 사람이 준다면 좋아할 거예요., 2
10289 썸남 태도가 맘에 안들어, 고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2
10290 썸남도 내 생각할까?, 연락해 보는데 어떨까요?, 2
10291 썸남의 계속되는 약속 취소., 껄씩하니 약속잡고 취소 한번 하세요., 2
10292 썸남이 같이 운동하자는데 가능?, 따로 신경쓰이는 부분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10293 썸남이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함., 썸 종료네요., 2
10294 썸남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만남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2
10295 썸남이 너무 진지해서 부담 돼., 부담된다면 조심스레 말해 보세요., 2
10296 썸남이 넘 좋아서 질제가 안돼.,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2
10297 썸남이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뭐라고 반응해?, 데리러 와주면 고맙다고 반응해봐요., 2
10298 썸남이 둔한듯, 좋으면 먼저 고백해보세요., 2
10299 썸남이 술 취한 상태로 고백함. 기억할까?, 기억하냐고 물어보세요., 2
10300 썸남이 약속 자꾸 미루는데 내가 싫은걸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물어보세요., 2
10301 썸남이 여사친 만나러 간대., 우리가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별로 기분은 안 좋은 거 같다고 말해봐요., 2
10302 썸남이 연락이 안돼, 연락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2
10303 썸남이 연애가 다 짧은게 맘에 걸려., 당신과 긴 연애하면 되죠., 2
10304 썸남이 오디션 나간대, 응원해주세요., 2
10305 썸남이 짝남 됐어요. 위로해 주세요., 맘고생 많았어요., 2
10306 썸남이 춤다고 옷 잠궤주는데 설레., 다정한 사람이네요., 2
10307 썸남이 카톡에서 하트 붙였어!, 보통 남자들은 아무 여자에게나 하트를 붙여서 말하지 않아요., 2
10308 썸남이 특이 느려, 저처럼 연락이 늦는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 2
10309 썸남이랑 1박 2일로 펜션 잡고 놀러가는데 고백 없으면 끝?, 고백을 안하고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물어보는게 좋아요. 먼저 얘기를 꺼내보세요., 2
10310 썸남이랑 공합, 사귀고 나서 해봐도 늦지 않아요., 2
10311 썸남이랑 공냥거리는데 설레., 부러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2
10312 썸남이랑 끝인 것 같아. 축이 와., 슬픈 축이네요., 2
10313 썸남이랑 뭐하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보세요., 2
10314 썸남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뭐 먹자고 하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맛집을 찾아봐요. 그래도 이왕이면 맛있고 분위기 좋은 곳이 좋겠죠?, 2
10315 썸남이랑 벚꽃 놀이 가고 싶어., 벚꽃 놀이 가자고 연락해 보세요., 2
10316 썸남이랑 여행가도 돼?, 사귀고 나서 가도 늦지 않아요., 2
10317 썸남이랑 영화 뭐 보지, 최신 영화 추천해드립니다., 2
10318 썸남이랑 헬스장에서 운동 가능?, 따로 신경쓰이는 부분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10319 썸남인데 넘 귀여워. 어찌지?, 부러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2
10320 썸남인데 모델 가자고 함. 어떻게 거절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2
10321 썸남인줄 알았는데 짝남이었나봐., 애석하네요., 2
10322 썸남한테 같이 카공하자고 할까?, 카공 좋죠!, 2
10323 썸남한테 같이 카페에서 공부하자고 할까?, 카공 좋죠!, 2
10324 썸남한테 먼저 연락해도 될까?, 그럼요. 연락해보세요., 2
10325 썸남한테 뭐라고 카톡하지, 그냥 뭐하냐고 물어보세요., 2
10326 썸남한테 뽀빠로 줄까?, 표현하는 게 좋겠죠., 2
10327 썸남한테 소개팅 나가라고 해볼까?, 상대방을 헛갈리게 하는건 좋지 않아요., 2
10328 썸남한테 소개팅 나간다고 해볼까?, 상대방을 헛갈리게 하는건 좋지 않아요., 2
10329 썸남한테 영화 보자고 해볼까?, 영화는 데이트의 기본이죠., 2
10330 썸남한테 책 같이 읽자고 할까?, 도서관 데이트나 서점 데이트 좋을 거 같아요., 2
10331 썸남한테 책 선물해도 괜찮을까?, 기억에 남을 거 같아요., 2
10332 썸남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오바?, 작은 선물은 서로에게 부담을 줄여줄 거예요., 2
10333 썸남한테 표현 못하겠어.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먼저 이어나가는 건 어떨까요?, 2
10334 썸녀 꿈 꿔어., 그분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곧 좋은 소식이 들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2
10335 썸녀 만나는데 뭐 입지?, 편한 옷차림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격식은 차리는 게 좋아요., 2
10336 썸녀 웃기는 방법 좀, 그대의 얼굴이면 될 거 같아요., 2
10337 썸녀 주변에 남자가 많아, 신경 쓰이겠네요., 2
10338 썸녀 태도가 짜증남, 고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2
10339 썸녀 화이트데이 선물 뭐가 좋을까?,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 좋겠어요., 2
10340 썸녀가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했음., 썸 종료네요., 2
10341 썸녀가 약속 시간을 안 지킴., 시간 약속이 생명인데요., 2
10342 썸녀가 오디션 불었대, 축하해주세요., 2
10343 썸녀가 짝녀 됐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2
10344 썸녀랑 거의 사귀는 수준인데 꼭 고백해야해?, 고백을 안하고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관계를 정의 짓는게 좋아요., 2
10345 썸녀랑 밥 먹는데 어디가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맛집을 찾아봐요. 그래도 이왕이면 맛있고 분위기 좋은 곳이 좋겠죠?, 2
10346 썸녀랑 어떤 대화를 해야 해?, 공통점 찾기가 좋겠죠., 2
10347 썸녀한테 미련 남아, 깨끗이 잊든 용기내든 실행에 옮겨 보세요., 2
10348 썸녀한테 여행가자고 해도 됨?, 사귀고 나서 가도 돼요., 2
10349 썸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오바인 부분?, 마음을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2
10350 썸도 문화차이가 있나, 사람 마다 다르겠지요., 2
10351 썸도 후폭풍 움?, 그럴 수 있어요., 2
10352 썸만 타고 싶어, 썸도 좋지요., 2
10353 썸만 타고 싶어. 사귀는 건 걱정돼., 연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10354 썸말고 사귀고 싶어, 서로 마음이 확실히 있는 거면 적극적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2
10355 썸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길면 안좋지 않을까요?, 2
10356 썸에서 발전하고 싶어, 사귀자고 고백하고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게 더 잘해줘봐요., 2
10357 썸에서 연애로 넘어갔어요, 행복하세요., 2

10358 썸에서 연애로 못넘가요, 상대가 확신이 들도록 말해보세요., 2
10359 썸에서 연인될 수 있을까, 썸 타다가 연인 되는 게 일반적이죠., 2
10360 썸에서 자꾸 끝나요, 용기내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2
10361 썸은 꼭 타야 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귀기 전 마음을 확인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2
10362 썸은 어떻게 타는거야, 연락도 하고 직접 만나보세요., 2
10363 썸은 얼마나 타, 짧으면 짧을 수록 좋죠., 2
10364 썸은 연락만?, 연락도 하고 직접 만나는게 좋습니다., 2
10365 썸은 왜 타?, 사귀기 전에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2
10366 썸은 좋았는데 연애는 별로, 시작하기 전 두근거림을 좋아하나 봅니다., 2
10367 썸은 좋은데 사귀긴 싫어, 연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10368 썸을 오래 탔는데 사귀어도 괜찮은 사람일까?, 오래 봤으면 더 잘 알 거 같습니다., 2
10369 썸을 오래 탔는데 사귀어도 되는 거야?, 최대한 빨리 사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
10370 썸의 기준이 뭐야, 둘 중 누구든 고백하면 사귀게 되는 게 썸이죠., 2
10371 썸의 조건이 뭐야, "자주 연락하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연락하면 괜히 웃음나는 사이 아닐까요?", 2
10372 썸이 날 싫어하는 꿈을 꿔어., 꿈은 현실의 반대래요., 2
10373 썸이 너무 긴دت, 썸을 길게 타서 좋을 건 없어요., 2
10374 썸이 너무 길어, 썸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2
10375 썸이 딱 좋은 것 같아. 연애 싫음., 연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10376 썸이 뭐야, 사귀기 전 단계지요., 2
10377 썸이 뭐임, "자주 연락하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연락하면 괜히 웃음나는 사이 아닐까요?", 2
10378 썸이 왜 깨졌는지 모르겠어, 밀당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2
10379 썸이 좋아, 사귄락말락 할 때가 좋지요., 2
10380 썸이랑 친구 사이, "썸의 목적은 연애, 친구의 목적은 우정입니다.", 2
10381 썸이었으면 좋겠다, 다이렉트로 직접 물어보세요., 2
10382 썸이었으면 좋겠어, 짝사랑인지 생각해보세요., 2
10383 썸이었으면 좋겠어, 호감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10384 썸인 거 같은데 연락 안 하면, 밀당일 수도 있고 혼자만 썸일 수도 있겠어요., 2
10385 썸인 거 같은데 연락이 안돼, 연락이 안되면 썸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2
10386 썸인가, 사귀기 전에 감정을 갖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면 썸일 거예요., 2
10387 썸인가 아닌가, 한방향인지 양방향인지 살펴보세요., 2
10388 썸인가? 애매한 거 싫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를 확실히 밝혀보세요., 2
10389 썸인가요, 떠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2
10390 썸인데 나 솔로야?, 사귀기 전이면 솔로죠., 2
10391 썸인데 떠보는 거 같아요, 돌직구를 날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2
10392 썸인데 선물해도 돼?,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 좋겠어요., 2
10393 썸인데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귀고 난 후가 좋겠어요., 2
10394 썸인데 스킨십 해도 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귀고 난 후가 좋겠어요., 2
10395 썸인데 싸늘해, 고백할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2
10396 썸인데 어디 가는게 좋음?, 일단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는 건 어떨까요?, 2
10397 썸인데 연락이 너무 늦어, 저처럼 연락 늦는 사람도 있어요., 2
10398 썸인데 영화보재 뭐 보지?, 공포영화나 액션은 어떨까요? 스킨십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2
10399 썸인데 자꾸 외롭다고 해, 계속 이야기 하면 사귀자는 거 돌려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2
10400 썸인데 행동은 커플, 확실히 대화를 나눠보세요., 2
10401 썸인지 썸인지, 연락 빈도랑 언제 연락오는지 확인해보세요., 2
10402 썸인지 아닌지, 연락을 이어가면서 알아보세요., 2
10403 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 연락하는 패턴으로 가능해보세요., 2
10404 썸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들어, 그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느낌이 올 거예요., 2
10405 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있어?, 주말 저녁에 약속을 잡아보세요., 2
10406 썸인지 알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연락과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2
10407 썸인지 애매모호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를 확실히 밝혀보세요., 2
10408 썸인지 어장인지, 호감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아요., 2
10409 썸인지 착각인지, 얼마나 연락이 오는지 확인해보세요., 2
10410 썸인지 헛갈려, 보통 썸이나 사랑은 헛갈리게 안 해요., 2
10411 썸인지 확인하는 방법 있나, 연락할 때 말투 자체가 다르죠., 2
10412 썸일 때 다른 사람 만나면, 상대방을 헛갈리게 하는건 좋지 않아요., 2
10413 썸일 때도 스킨십 하고 싶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
10414 썸일 때도 질투함?, 질투에는 시기가 없어요., 2
10415 썸일까?, 말씀해보세요., 2
10416 썸타고 싶어요, 먼저 다가가세요., 2
10417 썸타고 있는데 먼저 연락해도 되는 부분?, 연락해보세요., 2
10418 썸타고 있는데 소개팅 나가도 될까요?, 사귀고 있지 않으면 나가도 괜찮아요., 2
10419 썸타고 있어요, 연애로 이어지길 바랄게요., 2
10420 썸타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만남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2
10421 썸타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어장은 포기하는 게 깔끔합니다., 2
10422 썸타는 사람이 플라토닉 사랑을 이해해줄까?, 각자의 가치관은 존중되어야 해요., 2
10423 썸타는 애랑 노래방 가는데, 듀엣곡 연습하고 가세요., 2
10424 썸타는 애랑 잘되는 팀 좀, 공통 관심사를 많이 만들어보세요., 2
10425 썸타는 중인데 계속 먼저 연락해도 됨?,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 좋겠어요., 2
10426 썸타는데 갬톡 안하면, 개인톡으로 답변을 안 하면 썸 타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0427 썸타는데 돈 필요하대, 썸 관계에서 돈 관계는 피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2
10428 썸타다 끝났나, 지금 연락해보세요., 2
10429 썸타다 지칩, 질질 고는 게 서로한테 안 좋아요., 2
10430 썸타다가 갑자기 연락이 없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10431 썸타던 여자가 갑자기 돌아섰어, 확신을 주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2
10432 썸탈때 여자가 먼저 연락하면 안돼?, 여자 남자가 어딴가요., 2
10433 썸탈때 카톡, 많이하면 좋지요., 2
10434 씨씨인데 몰래 만나고 있는데 공개 연애 하자고 할까?, 몰래 만날 수 있는 만큼 몰래 만나보세요., 2
10435 씨씨인데 몰래 만나고 있는데 공개 연애 하자고 할까?, 상대의 의견도 물어보세요., 2
10436 씻어도 냄새나는 거 같애, "바디워시, 바디로션, 섬유유연제, 향수 등을 사용해보세요.", 2
10437 아기 생겼어, 축하드려요., 2
10438 아기 좋아하는 남자 어때?,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2
10439 아기 좋아하는 남자 어때?, 착할 거 같아요., 2
10440 아기 좋아하는 여자 어때?,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2
10441 아기 좋아하는 여자 어때?, 착할 거 같아요., 2
10442 아낌없이 퍼주는 스타일. 호구인걸까?, 감정에 솔직한거죠., 2
10443 아내한테 만족해?, 그 중에 낫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2
10444 아름다운 이별은 없겠지, 사랑한 후에 좋은 추억이 남을 거예요., 2
10445 아름답게 잊혀지길, 저도 바랄게요., 2
10446 아마 평생 모르겠지., 평생 모르고 사는 게 참 많죠., 2
10447 아무리 눈치 없어도 좋아하는 티 내면 알아채나요?, 사람 마다 다를 거예요., 2
10448 아무리 바빠도 연락을 해야하는 거 아냐?, 적어도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지요., 2
10449 아무리 지쳐도 집에 가면 있는 내편, 든든하겠어요., 2
10450 아직 마음을 모르겠는데 고백해도 돼?, 확실한 생각이 들 때 하세요., 2
10451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의심을 해., 너무 선부르다고 타일러보세요., 2
10452 아직 좋아하는데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있어?, 간혹 있더라고요., 2
10453 아직도 사랑하는 거 같아, 항상 사랑했던 걸 수도 있어요., 2
10454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힘들겠어요., 2
10455 아침 등교할때 버스정류장에서 항상 마주치는 짝녀에게 말 걸어보고싶어., 용기있는 자만이 미녀를 얻습니다., 2
10456 안 좋아하는 법 좀 알려줘.,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2
10457 안 좋아하는데 계속 만나는 거 가능?, 사귀는 건 힘들어요., 2
10458 안경 쓰는 남자애 좋아하는 남자 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2
10459 안경 쓰는 여자애 좋아하는 남자 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2
10460 알바하면서 썸 많이 타?, 힘들 때 도와주면 정이 듭니다., 2
10461 앞으로 짝남 안봐야지., 마음 단단히 잡긴 바랄게요., 2
10462 애기 안 갖고 싶어, 갖지 마세요., 2
10463 애기 일찍 갖는 게 좋을까?,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2
10464 애니 좋아하는 남자 별로임?, 상관없어요., 2
10465 애니 좋아하는 사람 별로야?, 개인의 취향일 뿐이에요., 2
10466 애들이 썸 타냐고 물어봐,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인가 봐요., 2
10467 애매모호한 썸 그냥 끝낼까?, 직접적으로 들이대보세요., 2
10468 애매한 관계같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2
10469 애인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마음으로 바람피는 거네요., 2
10470 애정운 궁금하다, "좋은말 나와야 본전, 나쁜말 나오면 기분 안좋아요.", 2
10471 애프터까지 왔는데 연락이 뜸해., 바쁘거나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2
10472 약간 나혼자 썸타는 듯., 호감을 표현해보세요., 2
10473 약속 끝나고 짝남에게 집에 데려달라고하면 오해하려나?, 오해해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10474 약속 끝나고 짝녀를 집에 데려다주면 너무 티나려나?, 데려다 주는 건 기본 매너라고 생각해요., 2
10475 약속을 계속 미루는 썸남, 약속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2
10476 양궁카페 갔다옴, 특별한 데이트 장소네요., 2
10477 어떤 남자가 엄청 수작부러, 나한테만 부리면 좋아요., 2
10478 어떤 남자애가 나 내일 뭐하냐는데 뭐라하지?, 너랑 약속잡으려고 한다고 말해보세요., 2
10479 어떤 남자애가 내일 뭐하냐는데 나한테 관심있나?, 시간 많다고 심심하다고 해보세요., 2
10480 어떤 사람 꿈 꾸고 나서 호감 생겼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2
10481 어떤 사람 만나야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2
10482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2
10483 어떤 사람이 춥다고 나만 옷 벗어줌.,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10484 어떤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어?, 먼저 고백해 보세요., 2
10485 어떤 여자가 나한테 끼 부러, 나한테만 부리면 좋아요., 2
10486 어떤 연애 하고 싶어?, 서로가 전부인 연애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감싸 안아서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연애인 것 같아요., 2
10487 어떨때 사랑하는구나 알아?,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나도 행복할때요., 2
10488 어떨때 연인이 변했다고 생각해?, 연락과 데이트로 바로 느껴지죠., 2
10489 어떻게 고시지?, 고시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2
10490 어떻게 심쿵하게 하지?, 평소 흘러 이야기했던 걸 기억해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2
10491 어떻게 여러 명을 좋아할 수 있어?, 저도 이해는 안갑니다., 2
10492 어떻게 오래만나지?,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2
10493 어떻게 용기를 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어 보세요., 2
10494 어떻게 프로포즈 하지?, 진지하게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세요., 2
10495 어떻게 해야 오래 만날 수 있을까?,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10496 어릴때 누군가를 참 쉽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려워., 점점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2
10497 여장관리 당한 걸 알게 됐어., 그 사람은 이제 잊고 새출발하세요., 2
10498 여장이면 슬플 거 같아, 마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길 바랄게요., 2
10499 여장이면 어떡해, 여장의 고기어도 좋을지 여장을 나가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2
10500 여장인거 아는데도 좋아해., 마음을 접는게 쉽진 않아요., 2
10501 여장인거 알게 됐는데 포기해야겠지., 포기해야한다면 뼈를 수룩 좋습니다., 2
10502 여장인거 알겠는데 포기가 안돼., 상대에게 휘둘리는 건 좋지 않아요., 2
10503 여장인건가, 너무 잘하면 의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2

10504 어제 동창회 갔는데 나 개랑 썸 타는 것 같애., 만남은 항상 좋아요., 2

10505 어제 짝남이랑 꿈에서 놀았는데 다시 꾸고 싶다., 꿈에서 깨어난 게 아쉽겠어요., 2

10506 어제 짝남이랑 놀았는데 꿈같다., 또 함께 놀 수 있을 거예요., 2

10507 어제 짝남한테 너무 차갑게 말한 것 같아., 후회한다면 사과하는게 어떨까요., 2

10508 어제 짝녀랑 데이트했는데 꿈만 같습니다., 또 데이트할 수 있어요., 2

10509 어제 짝녀한테 너무 차갑게 말한 듯., 사과하는게 좋겠어요., 2

10510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 계속 만나는데 맞는걸까?, 어떻게 만났든 마음만 진짜면 돼요., 2

10511 어플로 만난 여자친구 계속 연애하는데 맞는걸까?, 무엇으로 만났든 진심이면 돼요., 2

10512 언제 사랑 받는 구나 느껴?, 작은 일에도 나를 배려해줄 때요., 2

10513 언제까지 내가 선물을 해야할까.,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칠지도 모르겠어요., 2

10514 엄청 로맨틱해, 생각만해도 달콤하네요., 2

10515 엠티 가는데 짝남이랑 같은 조 됐으면 좋겠다., 꼭 같은 조 되길 바랄게요., 2

10516 엠티 가는데 짝녀랑 같은 반 되길., 과대표한테 슬쩍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2

10517 여러 명과 썸, 빨리 선택하셔야 해요., 2

10518 여러명 좋아하면 안돼?, 여러명 좋아할 수도 있죠., 2

10519 여러여리한 여자가 이상형이라, 딱 당신이네요., 2

10520 여린 마음에 상처준 건 아닐까?, 상처를 줬다면 치유해주세요., 2

10521 여사친 좋아하는 내가 짜증남., 자기 자신이라도 사랑해주세요., 2

10522 여사친이 많은 썸남, 저는 비추요., 2

10523 여사친이 여자로 느껴질때 있어?, 이성이니까 당연히 있죠., 2

10524 여사친이 좋아졌어., 자연스러운 감정이예요., 2

10525 여사친이 좋아진 것 같애., 좋아진 이상 이성으로 다가가야죠., 2

10526 여사친이라 쓰고 짝사랑녀라고 읽는다., 애절한 이야기입니다., 2

10527 여사친이랑 사귀는 거 가능?, 가능합니다., 2

10528 여사친이랑 연락이 끊기지 않고 너무 잘되는데 그린라이트일까?, 편한 친구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세요., 2

10529 여사친이랑 잘되고 싶다, 잘 될 거예요!, 2

10530 여사친인데 좋아하는 듯., 친구와 썸의 중간인 거 같아요., 2

10531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주면 질려?, 좋은 사람이라면 고마워할 거예요., 2

10532 여자가 더 사랑해서 한 결혼,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상관 없어요., 2

10533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 어때?, 기다리기만 하다가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2

10534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랑 눈 마주치면 어때?, 당황해서 제대로 눈을 못 볼 것 같아요., 2

10535 여자는 호감 없어도 잘해줘?, 본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2

10536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거 눈치 잘 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2

10537 여자들은 몇 년이고 짝사랑하기도 해?, 계속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했는데 시간이 흐른 거죠., 2

10538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보다 능력이 좋은 경우에만 좋아하나요?, 절대 능력만 중요하지 않아요., 2

10539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장난 잘 안 쳐?, 사람 마다 다르겠지요., 2

10540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줘?, 사람 마다 다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잘할 거예요., 2

10541 여자들은 좋아하는데도 답장시간이 느릴 수 있나요?, 밀당을 하면 느리겠죠., 2

10542 여자들은 직장 내에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 어떡해?, 관계를 지속해도 되는 사이라면 꾸준히 연락을 할 거예요., 2

10543 여자들은 착한 남자를 좋아하나요?, 모두가 착한 사람에겐 호의적이예요., 2

10544 여자들이 뒤에서 좋아하는 남자들 특징이 뭐임?,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2

10545 여자들이 보통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사람 마다 다르겠지요., 2

10546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 특징 좀 알려주세요., 난폭한게 가장 싫을 거예요., 2

10547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말투는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다정한게 좋을 것 같아요., 2

10548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특징?, 다정한게 좋을 듯 해요., 2

10549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 스타일이 어떻게 됨?,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2

10550 여자랑 단둘이 술마시는 남자친구를 이해해줘야할까?, 이해할 수 없어요., 2

10551 여자에게 하는 기본 좋은 스킨십 알려줘, 머리를 살짝 쓰담쓰담해보세요., 2

10552 여자인데 먼저 다가가도 돼?,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2

10553 여자인데 먼저 대쉬해도 됨?, 여자가 먼저 대쉬하면 더 매력있죠., 2

10554 여자친구 마중 나가야지,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예요., 2

10555 여자친구 만나고왔어, 좋은 만남이었길 바랍니다., 2

10556 여자친구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싶어., 흔들리고 있나요., 2

10557 여자친구 보고만 있어도 좋아, 애들아~ 여기 깨 쏟아진다., 2

10558 여자친구 부모님이 나를 좀 무시했어, 당황스러웠겠어요., 2

10559 여자친구 스타일이 마음에 안들어., 선물해 주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봐요., 2

10560 여자친구 쌤얼 보고 배신감 느껴, 쌤얼도 사랑해 주세요., 2

10561 여자친구 쌤얼도 예뻐, 부럽네요., 2

10562 여자친구 여신같아, 부럽네요., 2

10563 여자친구 오지랍 장난 아님, 좋은 오지랖이었으면 좋겠네요., 2

10564 여자친구 요구가 심해져, 모두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2

10565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주려고, 매너 있네요., 2

10566 여자친구 패턴 몰래 봤어, 여차친구가 싫어할 일은 애초에 하지 마세요., 2

10567 여자친구가 감정없이 카톡 답장해, 상처받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2

10568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유없이 화내, 이유가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

10569 여자친구가 게임을 너무하는게 고민이야., 피시방 데이트 해보세요., 2

10570 여자친구가 계획적이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아., 성격 차이니 받아들여보세요., 2

10571 여자친구가 기념일을 잘 잊어., 알람을 맞춰주세요., 2

10572 여자친구가 나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확신이 필요한가봐요., 2

10573 여자친구가 나 사랑하는 건지 확신이 없어,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면 됐지 꼭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2

10574 여자친구가 나를 sns에 올리지 않아서 서운해., SNS에 올리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2

10575 여자친구가 나를 떠날까봐 고민이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은 쓸데 없어요., 2

10576 여자친구가 나를 안 질려하려면 뭘 준비해야할까?,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찾아보세요., 2

10577 여자친구가 내 의견 안 들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외롭고 상처받게 된다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2

10578 여자친구가 너무 귀가 얇아., 결정할 때 의지하라고 말해보세요., 2

10579 여자친구가 너무 많은 걸 기억하길 바라는게 고민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2

10580 여자친구가 너무 무뚝뚝해, 애교부러보세요., 2

10581 여자친구가 너무 어린거 같아.,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있어요., 2

10582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고 내가 못 생겨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짐, 비교하면 끝도 없어요., 2

10583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자존감을 너무 떨어뜨려., 자존감을 스스로 지켜보세요., 2

10584 여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점 본거에서는 만나지말래., 다른 데서도 봐주세요., 2

10585 여자친구가 너무 챙김받고 싫어해,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가봐요., 2

10586 여자친구가 눈치가 없어., 같이 눈치 없이 나가봐요., 2

10587 여자친구가 다른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게 고민이야., 인기 많은 여자친구가 있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2

10588 여자친구가 담배를 피는게 싫어., 숨기는 것보다는 낫죠., 2

10589 여자친구가 더치페이를 안해., 데이트 통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2

10590 여자친구가 데이트 시간을 너무 안 지켜., 준비하느라 오래걸리는 친구를 이해해주세요., 2

10591 여자친구가 돈을 안 써, 부담된다고 살짝 말해보세요., 2

10592 여자친구가 돈이 너무 없어., 조금씩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2

10593 여자친구가 돌아다니는걸 너무 좋아해, 같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트해보세요., 2

10594 여자친구가 동거했었다, 이해해주기 어려울 거 같아요., 2

10595 여자친구가 말을 듣기 좋게 해,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네요., 2

10596 여자친구가 바쁜걸 이해못해, 여자친구의 서운함을 풀어주려 노력해보세요., 2

10597 여자친구가 베지테리언이야, 함께 건강하게 먹어봐요., 2

10598 여자친구가 변해가는거 같아.,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겠어요., 2

10599 여자친구가 비혼주의래,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2

10600 여자친구가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 예쁘게 많이 찍어주세요., 2

10601 여자친구가 살이 너무 찌서 고민임., 같이 운동해봐요., 2

10602 여자친구가 선토크를 안 해, 먼저 해보세요., 2

10603 여자친구가 소극적이야., 조금이라도 적극적이면 큰 리액션을 보내주세요., 2

10604 여자친구가 수상해, 직접 말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2

10605 여자친구가 순진한척해, 귀엽게 봐주세요., 2

10606 여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데 너무 걱정돼., 필름 끊기는 거 치매의 초기 증상이예요., 2

10607 여자친구가 술을 못마시는데 분위기를 좋아해서 자주 술마시려가는데 고민이야., 술 마시기 전에 술 깨는 약을 선물해주세요., 2

10608 여자친구가 스킨십 하기 싫대, 좀 더 기다려주세요., 2

10609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너무 좋아해, 원치 않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2

10610 여자친구가 스킨십이 너무 없어., 좀 더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세요., 2

10611 여자친구가 애교 많았으면 좋겠어, 직접 애교를 부러보세요., 2

10612 여자친구가 애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애교는 성격이예요., 2

10613 여자친구가 연락이 너무 많아., 틈틈이 연락해보세요., 2

10614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돼, 별일 없을거예요., 2

10615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2

10616 여자친구가 연애하는데 가끔씩 막말을 해., 막말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10617 여자친구가 예쁜데 착하기까지해, 금상첨화네요., 2

10618 여자친구가 음식을 너무 적게 먹어, 과식보다 소식이 좋죠., 2

10619 여자친구가 일정 중에 연락못하는걸 이해못함., 일하고 있는데 연락하기 쉽지 않죠., 2

10620 여자친구가 자기 말만하고 내 말은 안 들어, 대화를 할 수 없겠네요., 2

10621 여자친구가 자주 구속해, 믿음을 주세요., 2

10622 여자친구가 자주 의심해, 의심하지 않게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10623 여자친구가 자주 씻지를 않아., 그건 좀 힘드네요., 2

10624 여자친구가 작은 일까지 다 기억해, 작은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 봅니다. 더 신경쓰고 챙겨 주세요., 2

10625 여자친구가 잘 빠져, 빠지는 이유를 살펴보세요., 2

10626 여자친구가 잘 빠져.,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2

10627 여자친구가 잘못된건 아닌데 표현이 너무 서툴러., 더 좋은 표현을 먼저 해 주세요., 2

10628 여자친구가 잘못을 해도 다 공감해주는게 옳은걸까?, 공감을 해주면서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해보세요., 2

10629 여자친구가 잠이 너무 많아., 미인은 잠꾸러기라던데요., 2

10630 여자친구가 좋은데 믿음이 안 가., 믿음을 하나씩 쌓아주세요., 2

10631 여자친구가 좋은데 웬지 모르게 귀찮아., 귀찮은 마음이 더 큰 것 같네요., 2

10632 여자친구가 준 생일 선물이 별로야, 다음에는 받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해보세요., 2

10633 여자친구가 집안일을 너무 안해. 나만 하는거같아., 집안일을 하나씩 분담해보세요., 2

10634 여자친구가 취업하더니 변화더러, 상황이 생각을 바뀌게 하기도 합니다., 2

10635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데 남자도 있으면 어떡해?, 같이 가거나 신경쓰인다고 말해요., 2

10636 여자친구가 커피를 못 마셔서 카페 대신에 갈만한 곳?, 카페 가서 차 마셔도 돼요., 2

10637 여자친구가 쿨했으면 좋겠음., 사랑은 핫해요., 2

10638 여자친구가 클럽에서 춤만 춘다는데 진짜일까?,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10639 여자친구가 클럽을 간다면 어떻게해?, 같이 가보세요., 2

10640 여자친구가 키가 너무 커, 깔창이 있잖아요., 2

10641 여자친구가 표현을 하게하고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 작은 표현에도 과하게 리액션해봐요., 2

10642 여자친구가 향기에 집착해, 사람마다 집착하는 게 다르니 인정해주세요., 2

10643 여자친구가 화나면 말을 안 해., 시간을 주세요., 2

10644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진심으로 격려하고 함께 있어 주세요., 2

10645 여자친구랑 남사친이 너무 친해., 질투난다고 말해봐요., 2

10646 여자친구랑 뭐하고 노나, 얼굴 보고만 있어도 좋죠., 2

10647 여자친구랑 스킨십하고싶어, 대화를 하면서 속도를 맞춰보세요., 2

10648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갈까?, 연인과 함께면 어디든 좋아요., 2

10649 여자친구랑 연락 문제로 자주 싸워, 하루종일 연락하는 걸 원하는게 아니라 바쁘더라도 중간중간에 연락해주는 걸 원하는 걸 거예요., 2

10650 여자친구랑 진도가 너무 빠른거 같아., 진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2

10651 여자친구랑 피시방데이트도하고싶은데 어떻게 말을 할까?, 카페처럼 생긴 피시방이라면 데이트도 문제 없을 거예요., 2

10652 여자친구를 믿는데 가끔 의심이 가., 믿음이 깨지고 있네요., 2

10653 여자친구에게 고민이나 속사정을 어디까지 얘기해?, 믿는 만큼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2

10654 여자친구에게 옷선물 좋은 브랜드있어?, 직접 같이 골라보세요., 2

10655 여자친구에게 팔찌 목걸이 둘중하나만 선물할 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 잘 하는 걸로 주세요., 2

10656 여자친구에게 해줄만한 화장품 선물 뭐가 있을까?, 개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2

10657 여자친구에게 힘들때 어떻게 해?, 이야기하고 의지해요., 2

10658 여자친구와 노래방을 가면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좋을까?,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연습해 보세요., 2

10659 여자친구와 여행가고싶은데 부모님이 보수적이야., 여행 말고도 데이트할 거 많아요., 2

10660 여자친구와 여행가는게 부담스러움., 다 챙겨줘야해서 그런 것 같아요, 2

10661 여자친구와 컵키스는 언제했어?, 뭐 이런 걸 물어보시나요., 2

10662 여자친구와 커플링 꼭 해야 함?, 꼭 해야 하는 건 없어요., 2

10663 여자친구의 sns말투가 고민이야., 아예 보지 마세요., 2

10664 여자친구의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 모두 맞춰주지 마세요., 2

10665 여자친구의 과거 어디까지 이해해?, 알면 화날 거 같아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 2

10666 여자친구의 성적 취향을 이해못하겠어., 대화를 해보세요., 2

10667 여자친구의 이성친구가 고민이야., 만날 때 같이 만나세요., 2

10668 입냄새가 고민이야., 같이 양치해요., 2

10669 여자친구의 핸드폰 저장명을 뭐로 하지?, 이름이나 호칭이 무난하죠., 2

10670 여자친구의 혼전순결이 고민이야., 기다리고 이해해주세요., 2

10671 여자친구의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랑 너무 비교돼, 자신감을 가지세요., 2

10672 여자친구한테 더 이상 설레지 않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2

10673 여자친구한테 더 이상 설레지 않아, 정말 큰 문제네요., 2

10674 디퓨저 선물 해줄까?,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2

10675 여자친구한테 서운한 거 같은데 표현하는 게 좋을까?, 수천번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세요., 2

10676 여자친구한테 핸드폰 공개해?, 프라이버시죠., 2

10677 여자한테 언제 설레?, 그냥 얼굴 보면 설레요., 2

10678 여자를 준 짝녀 버려야겠죠., 오해가 아니라면 정리하는게 덜 상처일 것 같아요., 2

10679 여친 과소비 심해, 수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

10680 여친 생겼는데 호칭 어떻게 함?,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2

10681 여친 뽀얍보고 깜놀했어, 거울 보고 이야기해주세요., 2

10682 여친 있는 짝남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착각하게 돼요., 상대를 헛갈리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2

10683 여친 있는 짝남이랑 연락을 해도 될까?, 연애중인 상대에게 연락을 안 하는게 예의일 거예요., 2

10684 여친 있는데 다른 여자랑 씬 가능?, 상대방을 헛갈리게 하는건 좋지 않아요., 2

10685 여친에게 운동을 하자고 어떻게 돌려말하지., 같이 운동하자고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2

10686 여친이 나랑 찍은 사진 프사로 안해., 각자의 프라이버시니까 이해해주세요., 2

10687 여친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대화를 나눈 후에 결정을 내리는게 좋겠네요., 2

10688 여친이 나를 좋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음., 확신이 서지 않나봐요., 2

10689 여친이 너무 많이 먹어,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해보세요., 2

10690 여친이 너무 예민해, 더 많이 챙겨주세요., 2

10691 여친이 아는 형이랑 씬 타는데, 슬쩍 떠서 확인해봐요., 2

10692 여친이 안 좋은 사이트 해, 빠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해보세요., 2

10693 여친이 오히려 섬세하지 못해,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 이해해주세요., 2

10694 여친이 외박이 안돼,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답니다., 2

10695 여친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잘해주지?, 성격일 수도 있어요., 2

10696 여친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지고 있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세요., 2

10697 여친하고 헤어진지 얼마 안됐는데 딴 사람 좋아하게 됨., 사람은 사람으로 잇는 거예요., 2

10698 여행 온 김에 짝녀 선물 사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함?, 받으면 감동 받을 것 같아요., 2

10699 여행 와서 짝남 선물 살까 하는데, 받으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2

10700 여행 왔는데 좋아하는 선물로 뭐가 괜찮을까?, 여행지에서만 살 수 있는 걸로 골라보세요., 2

10701 여행지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어, 로맨틱한 만남이네요., 2

10702 연극 보러 갈까, 좋은 데이트가 되겠네요., 2

10703 연락 계속 오면 관심 있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겠죠., 2

10704 연락 많이 안하는 썸도 있나, 상대방이 너무 바쁜 상태일 수도 있어요., 2

10705 연락 많이하는데 썸인지 모르겠어, 관심 없으면 연락 안합니다., 2

10706 연락 문제로 애인이랑 싸운 적 있어?, 연락은 싸움의 씨앗이죠., 2

10707 연락 자주 하는데 친구가, 친구는 귀찮아서 연락 안 하는데 썸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2

10708 연락만으로 썸 가능해?, 만나는게 더 좋겠지만 가능하겠죠., 2

10709 연락 문제로 싸웠는데 어찌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틈틈이 연락해 주세요., 2

10710 연락 문제로 지쳐가, 집착하지마세요., 2

10711 연락하고 싶어, 연락해봐요., 2

10712 연락하고 싶어지네., 연락해봐요., 2

10713 연락해도될까?, 용기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10714 연락해보까?, 연락해보세요., 2

10715 연상 어때?,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2

10716 연애 감흥이 점점 사라져, 연애의 모습이 다양한 거예요., 2

10717 연애 고수 되려면?, 연애는 기술이 아니에요., 2

10718 연애 상대와 결혼 상대는 다를까?,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인 것 같아요., 2

10719 연애 세포 깨우는 법, 하다보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2

10720 연애 안 한지 너무 오래 됐어, 연애 세포를 깨울 때가 되었네요., 2

10721 연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다보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2

10722 연애 어떻게 하든지 까먹었어.,해보면 생각날 거예요.,2
10723 연애 잘하는 사람 부러워,잘할 수 있어요.,2
10724 연애 중에 카톡 프사 연인으로 해? 기본으로 하면 어때?,기본으로 하는 거 상관 없어요.,2
10725 연애 중인데 나 보수적인걸까?,보수적이어도 돼요.,2
10726 연애 처음하는 남자친구,경험 있는 분이 리드해보세요.,2
10727 연애 초보다 연락을 너무 안해,편해진 것 같네요.,2
10728 연애는 시간낭비인듯,감정 낭비일 때도 있지만 행복한 일이에요.,2
10729 연애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야해.,맞는 말씀입니다.,2
10730 연애는 하기 싫는데 썸은 타고 싶어.,시작하기 전 두근거림을 더 좋아하나 봐요. 아니면 연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2
10731 연애다운 연애 하고 싶어,할 수 있을 거예요.,2
10732 연애도 좋지만 내 시간도 중요한 나 정상일까?,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2
10733 연애로 발전할 수 있을까,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10734 연애를 못 봐서 그런가 대화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이제라도 여자와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보면서 조금씩 알아보세요.,2
10735 연애를 실패할 수록 두려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2
10736 연애를 오래하려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항상 표현해주세요.",2
10737 연애보다 썸이 좋아.,사귀기 전 두근거림을 좋아하나 봐요.,2
10738 연애상담하더니 둘이 사귀더라,대화를 하다가 친해졌나봐요.,2
10739 연애상담해주던 사람이 좋아지는 거 같아,마음의 문을 열었나봐요.,2
10740 연애상담해줬더니 나만 바보됐어,다음부터는 해주지 마세요.,2
10741 연애세포 다 죽었나봐,살릴 수 있어요!,2
10742 연애세포 다 죽은 듯.,그럴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2
10743 연애세포가 다 죽었나,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먼저 이어나가는 건 어떨까요?,2
10744 연애스타일이 너무 다른 남자친구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까?,연애는 서로에게 맞춰가는 거예요.,2
10745 연애스타일이 너무 다른 여자친구와 어떻게 얘기를 해야할까?,서로의 연애 스타일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눠보세요.,2
10746 연애의 끝은 결혼인거야?,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네요.,2
10747 연애중인데 외로운 느낌이 들면 문제일까?,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예요.,2
10748 연애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언젠간 당신에게도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2
10749 연애하는 것처럼 결혼 가능해?,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 가능할 거예요.,2
10750 연애하는데 사랑받는 느낌을 안받아.,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2
10751 연애하는데도 외로워,진정한 사랑을 찾아보세요.,2
10752 연애한지 2년째야,딱 좋을 때네요.,2
10753 연애할때 많이 사랑하면 나만 손해야?,사랑은 따지는 게 아니고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거예요.,2
10754 연애할때 몇살 차이가 적당해?,사랑에 나이 차이는 상관 없어요.,2
10755 연애할때 자유를 원하는 상대에게 얼마나 자유롭게 해줘야하나.,걱정되지 않을 선인 것 같아요.,2
10756 연예인과 썸 타는 꿈 해몽 좀,연예인 사진 보고 잔 거 아닌가요.,2
10757 연예인이랑 사귀다!,특종감이네요.,2
10758 연예인하고 연애해보고 싶어,쉽지 않을 거예요.,2
10759 연인과 어떤걸로 싸워?,기억도 안 나는 사소한 일로 싸워요.,2
10760 연인끼리 같이 샤워해?,사람마다 다릅니다.,2
10761 연인이랑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둘 사이의 규칙을 하나씩 만들고 문제에 대해 인식해보세요.,2
10762 연인인데 정치견해가 달라,정치 이야기는 빼고 하세요.,2
10763 연하 어때?,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2
10764 영원한 사랑,항상 꿈 꾸죠.,2
10765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마음은 언제나 함께할 거예요.,2
10766 영화 보자는데 나한테 관심 있나?,영화 보고 나서 고민해도 안 늦어요.,2
10767 영화 보자는데 나한테 관심 있나?,오 관심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2
10768 영화같은 사랑 하고 싶어,영화는 현실과 다르지만 그런 사랑을 하도록 노력해보면 영화 같은 사랑 할 수 있을거예요.,2
10769 영화볼때 너무 목소리가 큰 남자친구가 고민,영화관 말고 다른 데서 보세요.,2
10770 예랑이 텍시도 멋져,행복하게 잘 사세요.,2
10771 예랑이가 대리효도시키는 건 아니겠지?,효도에 대리가 어디있나요.,2
10772 예랑이가 마마보이인듯,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래요. 변화시켜 보세요.,2
10773 예쁘니까 사랑하는 건가?,사랑하니까 예뻐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2
10774 예쁘니까 좋아하나,좋아하니까 예뻐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2
10775 예쁘면 다냐ππ,마음 아프게 했나봐요.,2
10776 예쁜데 연애 안하는 여자,눈에 차는 남자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2
10777 예식장 취소했어,다음에 계약하는 예식장은 더 좋은곳으로 할거예요.,2
10778 오늘 가는 모임에 짝남이 있는데.,신경쓰고 가세요.,2
10779 오늘 꿈에는 짝남이 나왔으면.,지금처럼 생각 많이 하고 자면 꿈이 나타날 거예요.,2
10780 오늘 데이트각이야.,지금 연락해보세요.,2
10781 오늘 따라 보고 싶네,보고 싶은 마음을 전해보세요.,2
10782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빈손으로 나가?,준비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화려하지 않고 부담 없는 선물을 준비하면
 센스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2
10783 오늘 백일이야,축하해요!,2
10784 오늘 서점에서 이상형 봤어,용기내서 말을 걸어보세요.,2
10785 오늘 왠지 고백 받을 것 같음.,오 미리 축하드려요.,2
10786 오늘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했는데.,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2
10787 오늘 짝남 만나는데 뭐 입지.,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생각해봐요.,2
10788 오늘 짝남 만나는데 옷이 없다.,이 김에 하나 장만하는 건 어떨까요.,2
10789 오늘 짝남이 썸녀 생긴거 알게 돼서 술 좀 마셨어요.,속이 답답하겠어요.,2
10790 오늘 짝녀 만나기로 했는데 옷이 없네.,이 김에 하나 장만하는 건 어떨까요.,2
10791 오늘 짝녀 만나는데 뭐 입나.,댄디룩이 무난할 것 같네요.,2
10792 오늘 짝녀가 썸남 생긴거 알게 되고 한 잔 했습니다.,속이 타들어가겠네요.,2

10793 오늘 큰맘 먹고 연락했습니다, 마음 먹느라 고생했어요., 2
10794 오늘도 사랑해, 달콤한 말이에요., 2
10795 오늘도 짝남이 멋졌어., 멋진 분이군요., 2
10796 오늘도 짝사랑하는 남자 땀에 우울해요., 짝사랑의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2
10797 오늘도 짝사랑하는 여자 땀에 술 마시는 중., 술 한잔으로 잊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
10798 오늘도 짝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이뻐합니다., 사랑스러운 분이네요., 2
10799 오늘로 짝남 보내기로 했어요.,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맘고생 많았어요., 2
10800 오늘만나기로했어, 좋은 만남이 되길 바랄게요., 2
10801 오늘부로 짝녀를 보내기로 했어요., 최선의 선택일거라 믿어요., 2
10802 오늘부터 짝사랑을 끝내려 합니다., 힘든 결정이었을텐데 맘고생 많았어요., 2
10803 오늘은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 두근거리겠어요., 2
10804 오늘처럼 사랑하기, 오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
10805 오래 만나고 싶은데 짧은 연애만 했어 내가 문제가 있나?, 좋은 상대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으니 자책하지 마세요., 2
10806 오래 만나고싶은데, 좋아하면 오래 만날 수 있어요., 2
10807 오래 만나는 방법 있어?, 좋아하면 오래 만날 수 있어요., 2
10808 오래 만나서 지겨워진 거 같아, 평소애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모습으로 색다른 데이트를 제안해보세요., 2
10809 오래 만났어, 사랑은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대단하네요., 2
10810 오래 못 가는 연애, "연애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못 참고 피하기만 했나봅니다.", 2
10811 오래 사랑하고 싶어,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보세요., 2
10812 오래 연애하고 싶어., 진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2
10813 오래 연애해서 그런가 관심이 줄었어, 연애하다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처음만큼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게 사실일 거예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극복해보세요., 2
10814 오랜 연애로 가족같은 느낌이야., 편한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2
10815 오랜 연애로 여자친구가 잘 안꾸미고 나오는게 고민임., 분위기 있는 데이트를 해봐요., 2
10816 오랜 연애인데도 좋아, 사랑은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대단하네요., 2
10817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려, 저도 두근거리네요., 2
10818 오랜만에가슴이뛰어, 사랑의 시작하고 있나봐요., 2
10819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에요., 2
10820 오랜연애로 남자친구가 더 이상 새롭지않은게 고민임., 새로운 데이트 코스를 찾아보세요., 2
10821 오랫동안 썸만 타. 뭐가 문제임?, 고백을 안 한 게 문제일 거 같아요., 2
10822 오랫동안 썸만 타고 솔로인건 왜그래?, 썸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2
10823 오랫동안 연애 안한 사람이란 사귀는 거 괜찮아?, 따로 신경쓰이는 부분이 없다면 괜찮아요., 2
10824 오해로 싸움이 시작됐어, 작은 오해가 점점 커지기도 하죠., 2
10825 오해하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오해할만한 일이 생겼을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풀어보세요., 2
10826 완전 귀여워, 사랑이 느껴지네요., 2
10827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만나도 될까?,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보세요., 2
10828 왜 결혼 안하니 문지 좀 마, 참견하는 사람이 참 많죠., 2
10829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2
10830 왜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할까?, 표현이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2
10831 왜 자꾸 나한테 귀엽다고 하지? 날 좋아하나?, 귀엽다는 의미는 아주 넓습니다., 2
10832 왜 좋아하는 마음은 그만두지 못할까., 마음은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2
10833 외국에도 썸 같은 개념이 있어?, "글쎄요, 사귀는 과정은 어디든 있을 거 같아요.", 2
10834 외로워서 그런건지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외롭다고 아무나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2
10835 외모는 내 취향인데 좋아하는 걸까?, 자기 취향이더라도 마음이 꼭 움직이는 건 아니예요., 2
10836 요구하거나 제안했을 때 뭐라고 리액션해야할지 모르겠어, "생각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등으로 크게 반응해보세요.", 2
10837 요즘 내가 내가 아닌 거 같아, 정신 차리세요., 2
10838 요즘 눈에 띄는 남자애가 있는데,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2
10839 요즘 눈에 띄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애의 눈에도 당신이 띄길 바랄게요., 2
10840 요즘 눈에 띄는 남자애,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2
10841 요즘 눈에 띄는 여자애, 그 애의 눈에도 당신이 띄길 바랄게요., 2
10842 요즘 맨날 좋아하는 오빠가 꿈에 나와요., 좋아하는 마음이 깊은 가봐요., 2
10843 요즘 좋아하는 남자애가 꿈에 나오는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봐요., 2
10844 용기내볼까?, 용기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10845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해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2
10846 우리 반 남자애를 좋아하는데, 더 자주 만날 수 있겠어요., 2
10847 우리 반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매일 봐서 좋겠네요., 2
10848 우리 반 남자애 좋아하게 됨., 매일 볼 수 있어서 좋겠네요., 2
10849 우리 반 여자애 좋아하게 됨., 매일 봐서 좋겠네요., 2
10850 우리 반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당신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2
10851 우리 반에 반장을 좋아해., 같은 반이라 좋겠어요., 2
10852 반장을 좋아해., 반장이 멋진가봐요., 2
10853 우리 반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 매일 볼 수 있어 학교갈 맛이 나겠네요., 2
10854 우리 반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김., 매일 볼 수 있어 학교갈 맛이 나겠네요., 2
10855 우리 사귀는 거 맞겠지?, 직접 물어보세요., 2
10856 우리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란다면 이루어 질 거예요., 2
10857 우리 사랑이었을까?, 사랑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거예요. 헤어졌다고 사랑이 아닌게 되지는 않아요., 2
10858 우리 언니 남친이 날 좋아하는데 방법 좀., 확실한 사실이라면 직접 언니의 남친 분에게 단호하게 말하세요., 2
10859 우리반 남자애가 나 좋아하는 걸 너무 티내., 부담스러운지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2
10860 우리반 여자애가 나 좋아하는 거 너무 티냄., 부담스러운지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2
10861 우리의 사랑은 끝났어, 꺼진 사랑도 다시 보자~ 다시 타오를수도 있어요., 2
10862 우린 운명이었어, 운명이 아니었다면 사랑도 할 수 없었겠지요., 2

10863 우린 운명인줄 알았는데,운명은 또 만들어가면 돼요.,2
10864 운동을 하는 남자가 좋아,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보여요.,2
10865 운동하는 여자가 좋아,제가 생각해도 멋지네요.,2
10866 운명적인 사랑 있어?,운명을 믿어요.,2
10867 운명적인 사랑을 믿었는데,진정한 운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2
10868 운명적인 사랑을 했어,후회되지 않는 사랑을 했네요.,2
10869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사랑에 빠졌군요.,2
10870 웃을 때 진짜 예뻐,사랑에 빠졌군요.,2
10871 원래 사랑에 빠지면 잠 잘 안와?,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나봐요.,2
10872 원래 장난 잘 치는 성격인데 짝난 앞에서 넘 떨어져 노잼 돼.,자신감을 가지세요.,2
10873 원래 장난도 잘하고 재밌다고들 하는데 그녀 앞에선 작아지는데 어떡해.,짝사랑 앞에서 누구나 한 없이 작아지나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2
10874 웨딩드레스 입어보고 싶었어,소원 풀었네요.,2
10875 웨딩드레스를 입은 너를 보고,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2
10876 위험한 사랑 해도 될까?,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2
10877 유부남 좋아하는 거 같아,마음정리하세요.,2
10878 유부남 좋아하면 안되겠지?,마음정리하세요.,2
10879 유부남됐어!,축하해요!,2
10880 유부남을 좋아하게 됐어.,마음을 접어야 할 것 같아요.,2
10881 유부녀 좋아하면 안되지?,마음정리하세요.,2
10882 유부녀 됐어!,축하해요!,2
10883 유부녀를 좋아하게 되었어.,많이 위험한 거 같아요.,2
10884 유학 준비하는 여자친구,기다릴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2
10885 음식 많이 가리는 남자를 사겨도 괜찮을까?,다 먹으면 좋겠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2
10886 음식 편식하는 사람 사겨도 돼?,사귀면서 편식을 고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2
10887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나 너무 무시해,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외롭고 상처받게 된다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말해보세요.,2
10888 이 남자애의 행동 나를 좋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정확한 사실을 알긴 힘들어요.,2
10889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건가?,긴가민가한 상태인가봅니다.,2
10890 이 사람 만나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 만나는게 답이야?,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2
10891 이 사람 만나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 만나는게 답이야?,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며 노력해보세요.,2
10892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거 같아,시간이 지나면 잘살고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거예요.,2
10893 이 사람 좋아하는 게 맞을까?,고민하고 있다면 맞는 거 아닐까요.,2
10894 이 사람은 사랑이 참 쉬운가봐 내가 우습나?,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네요.,2
10895 이 사람이다 싶어,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을 느꼈군요.,2
10896 이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었으면,후회하지 않을 사랑 해보세요.,2
10897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예요.,2
10898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그렇리가요.,2
10899 이 여자애의 행동 나를 좋아하는게 맞나?,정확한거 본인만이 알 거예요.,2
10900 이 오빠 나를 좋아하는 건가.,정확한건 당사자만 알 거예요.,2
10901 이 정도면 내가 좋아하는 걸 알까?,확실한 의사표시가 정확하겠죠.,2
10902 이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워,두려워 하지 말고 그 감정에 충실하면 행복은 떠나지 않을거예요.,2
10903 이거 뭘까. 좋아하는 걸까?,직접적인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확실한 건 없답니다.,2
10904 이거 사랑인가?,당신만이 답을 말해줄 수 있어요.,2
10905 이거 썸 맞나,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세요.,2
10906 이거 썸 아냐?,말해보세요. 생각해 볼게요.,2
10907 이거 썸인가,고민 하고 있으면 썸의 가능성이 높겠네요.,2
10908 이거 썸인가요?,좋은 느낌이면 썸으로 만나보세요.,2
10909 이거 좋아하는 거 맞나?,상황이 궁금해요.,2
10910 이건 그냥 날 안 좋아하는 걸까?,상황을 말해보세요.,2
10911 이게 바로 첫사랑인듯,당신의 소중한 사랑을 이루어 보세요.,2
10912 이게 썸인가?,말해보세요. 생각해 볼게요.,2
10913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상대방은 우선순위는 자신인가 봅니다.,2
10914 이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깎아 내리지 마세요.,2
10915 이런 얼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충분히 아름다워요.,2
10916 이렇게 또 혼자 좋아하고 이별하고.,짝사랑이 그런가봐요. 슬프네요.,2
10917 이렇게 사랑 받아도 되나?,행복한 고민이네요.,2
10918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해도 될까?,위험한 사랑이네요.,2
10919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 제일 서글퍼.,알면서도 사랑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2
10920 이른 연락해도 될까?,아침부터 좋은 연락이면 좋겠네요.,2
10921 이미 접은 짝남한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온다.,다시 흔들리겠어요.,2
10922 이번 주말 그녀에게 연락해 볼까?,주말 전에 연락해서 주말에 만나야죠.,2
10923 이벤트 안하는 남자친구,먼저 이벤트를 해보세요.,2
10924 이별도 사랑일까?,이별도 사랑입니다.,2
10925 이 사람이랑 결혼이 옳은 걸까?,결혼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2
10926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지?,결혼하기전에 확신부터 갖는게 좋을거 같아요.,2
10927 이상적인 관계는 뭘까?,함께일 때 비로소 전부라고 느껴지는 연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2
10928 이상적인 연애란?,서로가 전부인 연애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감싸 안아서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연애인 것 같아요.,2
10929 이상하게 놓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어쩌면 운명인가봅니다.,2
10930 이상형 알고싶다,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물어보세요.,2
10931 이성인 학교선배와 단둘이 식사한다면 어떻게 해?,신경쓰인다고 귀엽게 이야기해보세요.,2
10932 이제 그만 좋아하고 싶어.,마음 단단히 잡길 바랄게요.,2
10933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좋아해.,끝은 쉽게 오지 않아요.,2

10934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좋아하고 있었어., 마음이란 생각이 따로 놀 때가 있죠., 2
10935 이제 나도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좋아해주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
10936 이제 내 짝남 못봐. 군대 가거든., 서운하겠어요., 2
10937 이제 좀 지겨워진 거 같아, 사랑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2
10938 이제 청첩장 돌려도 되겠지?, 너무 일찍 돌리면 잊혀진답니다., 2
10939 이젠 다시 사랑 못할 것 같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다시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2
10940 이젠 짝사랑하는게 무섭고 두려워., 이제 짝사랑 말고 둘이서 하는 사랑하세요., 2
10941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 인연은 있어요., 2
10942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 저랑 당신도 인연이죠., 2
10943 인연이란게 있을까?, 당신과 저도 인연입니다., 2
10944 일 하면서 알게 된 사람한테 연락해도 될까?, 일 핑계로 연락해봐요., 2
10945 입맛이 너무 안 맞는 거 같애, 맞춰가면 돼요., 2
10946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멋진 사람이자 멋진 말이네요., 2
10947 자기 기준에 맞추라는 사람, 이기적이네요., 2
10948 자기 전에 통화하면 썸 맞지?,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해요., 2
10949 자기 전에 통화하면 썸이야?, 호감이 없으면 통화를 안 할 거예요., 2
10950 자기를 3인칭으로 말하는 여자친구의 말투가 고민임., 귀엽게 봐주세요., 2
10951 자길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나?, 좋아하면 신경이 더 쓰이니가요., 2
10952 자꾸 관통하는 선배 있는데 관심 있나?,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10953 자꾸 날 칭찬하는 여자애. 나한테 관심있는거 아니야?, 이제 상대방을 칭찬할 차례인 듯합니다., 2
10954 자꾸 신경쓰여, 관심이 가나봐요., 2
10955 자꾸 짝남 얼굴 생각나., 보고 싶으니 그럴만 해요., 2
10956 자꾸 짝녀 얼굴 생각나네., 보고 싶은가봐요., 2
10957 자꾸 헛갈리게 해, 안 헛갈리게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2
10958 자신감 있는 여자가 좋아, 자신을 사랑을 사람인가 봅니다., 2
10959 자전거 데이트 어떨까?, 로맨틱할 것 같아요., 2
10960 자주 가는 카페 알바생이 나를 자주 뵈히 쳐다보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일까?, 씨익 웃어주세요., 2
10961 자주 가는 카페에 알바생한테 번호 따고 싶은데, 쪽지를 남겨서 마음을 전해보세요., 2
10962 자주 가는 카페에 잘생긴 알바생이 있는데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 쪽지를 남겨서 마음을 전해보세요., 2
10963 자취한다는데 뭘 챙겨줄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10964 잘 만나고 있는데 나 질려하면 어쩌지 걱정이야, 불행을 연습하거나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2
10965 잘 만나는 중인데 헤어지면 어쩌지 걱정돼, 불행을 연습하거나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2
10966 잘 맞는 사람 만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맞춰가기도 해요., 2
10967 잘 먹는 남자가 보기 좋지않아?, 복스럽게 먹으면 더 좋죠., 2
10968 잘 먹는 여자가 좋아, 복스럽게 먹으면 더 좋죠., 2
10969 잘 사귀는데 불안한 느낌이 들면 정상일까?, 믿음이 쌓이기 전에는 불안하죠., 2
10970 잘 지냈으면 좋겠다, 따뜻한 마음이네요., 2
10971 잘 챙겨주는데 나를 좋아하는 걸까?, 지켜보는게 좋겠어요., 2
10972 잘지내나, 잘 지낼 거예요., 2
10973 잘해줬더니 더 해달래,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2
10974 잠 안 온다고 했더니 자장이 불러줬어, 로맨틱하네요., 2
10975 장거리 썸 고백해도될까, 많이 만나보는 게 좋겠지만 연락을 더 자주 해보세요., 2
10976 장거리 썸 괜찮을까,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되겠네요., 2
10977 장거리 연애 괜찮을까, 진정한 사랑에 거리가 중요한가요., 2
10978 장거리 연애하면 보통 몇일에 한번 만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2
10979 장거리 연애하면 보통 어느 지점에서 만나?, 가운데서 만나거나 돌아가면서 희생을 하죠., 2
10980 장거리하다가 결혼 가능할까?, 사랑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2
10981 장난스러운 고백 받았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2
10982 장난으로 좋아한 거 아닌데, 다시 진지하게 고백해보세요., 2
10983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돼., 장난스러운 성격이면 더 헛갈리기도 하죠., 2
10984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안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2
10985 장수커플이야, 사랑은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대단하네요., 2
10986 재수학원에서 연애는 필망?, 목적이 확실한 곳이니가요., 2
10987 저를 좋아하는 사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게 이기적인가요?, 확실한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그렇다는 건 이기적인 것 같아요., 2
10988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닐 거예요., 2
10989 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안 생겨요., 맘처럼 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2
10990 저를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정해졌어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2
10991 저만 좋아하는 사람 패북 같은거 살피보나요?, 저도 궁금해서 그렇게 하곤 해요., 2
10992 저한테만 장난치는 남자애가 나 좋아하나?, 호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
10993 적극적인 여자가 좋아, 솔직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나봐요., 2
10994 전 남친이랑 헤어진지 오래됐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2
10995 전 너무 이기적인데 저를 좋아해줘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났나봅니다., 2
10996 전 썸남 보고싶어., 썸으로 끝날 사이가 아니었네요., 2
10997 전 왜 제 마음도 잘 모르는 걸까요., 좋아하는 마음은 헤아리기 힘들어요., 2
10998 전남친하고 짝남이 친구야., 애매한 관계네요., 2
10999 전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정말 사랑하나봅니다., 2
11000 전여친하고 짝녀가 친구야., 신경 쓰이는 상황 같아요., 2
11001 전화하면서 잠들고 싶다., 낭만적이네요. 전화해보세요., 2
11002 절 찾던 남자애가 다시 절 좋아하는게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2
11003 절 찾던 여자애가 절 다시 좋아하는 건가요?, 직접 대화를 나누는게 필요하겠네요., 2
11004 점심시간일 텐데 카톡이 안 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2
11005 정말 고맙다 귀염둥아, 감사합니다., 2
11006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다시 만나보세요., 2

11007 정말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다면 후회하지 않을거예요., 2
11008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잘 맞춰가는 사람이 있는 거겠조., 2
11009 정성 담긴 선물 뭐가 좋을까?, 손편지도 좋을 거 같아요., 2
11010 정열적인 사랑 하고 싶어, 정열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2
11011 정상 한 벌 맞춰어, 잘했어요. 두고두고 입으세요., 2
11012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저를 짝사랑한대요. 제가 먼저 고백해도 될까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당장 만나 고백하세요., 2
11013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맘 잡고 공부해야할 것 같다고 기다려달라는데 제 맘이 안벌릴까요?, 변할 수도 있지만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2
11014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절 좋아하면 갑자기 거부감 들고 싫어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2
11015 제대로 사랑하고싶어, 사랑에는 깊고 얕음이 없는거 같아요., 2
11016 조용한 여자가 좋아, 그 사람도 당신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2
11017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
11018 좀 있으면 귀국하는데 짝녀에게 뭘 챙겨줄까?,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준다면 센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2
11019 종교가 다른 여자친구 헤어져야하나?, 종교 큰 문제죠., 2
11020 종교가 다른 짝남과 연애했을 있을까?, 사랑은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2
11021 종교를 너무 싫어하는 남자친구가 고민, 종교를 왜 싫어하는지 대화를 해보세요., 2
11022 좋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먼저 용기내서 고백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2
11023 좋아 하는 애한테 고백하는 방법좀, 먼저 용기내서 고백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2
11024 좋아하게 된 남자가 있는데 많이 어린데 어울릴 수 있을까?, 충분히 어울릴 수 있어요., 2
11025 좋아하고 있는 애가 친구를 소개 시켜줬어., 소개팅은 아니겠지요., 2
11026 좋아하고 있는 애랑 카톡하는 중인데 뭐라고 하지?, 밥 먹자고 연락해봐요., 2
11027 좋아하고 있는 애를 친구가 소개 시켜줬어., 많이 당황했겠어요., 2
11028 좋아하는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까?, 쉬운일은 아니랍니다., 2
11029 좋아하는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은 뭐지., 다른 사람과 상상하는건 어떨까요., 2
11030 좋아하는 감정을 혼자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기 나름일 거예요., 2
11031 좋아하는 감정이 나를 슬프게도 해,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2
11032 좋아하는 감정이 나를 슬프게도 해, 사랑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2
11033 좋아하는 감정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거 아닐까요., 2
11034 좋아하는 거 기준이 뭐임?,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은게 기본이겠지요., 2
11035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 차이점이 뭘까요., 구분짓기 어렵네요., 2
11036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어떻게 구분해?, 구분짓는게 쉽진 않아요., 2
11037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어떻게 구분해?, 마음이 알 거예요., 2
11038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게 다른 거야?, 마음에 놓고 차인 것 같습니다., 2
11039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게 다른 거야?, 생각의 차이겠지요., 2
11040 좋아하는 걸 알게되면 갑자기 싫어져요. 무슨 심리일까요., 부담스러운 심리일까요., 2
11041 좋아하는 그녀가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어요., 2
11042 좋아하는 그사람은 바람둥이야 좋아해도 될까?, 상처받을 거예요., 2
11043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2
11044 좋아하는 남자 생겼는데 호감 어떻게 표시할까요., 꾸준히 연락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2
11045 좋아하는 남자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다가가기 어려워., 표정만 그럴 수도 있어요., 2
11046 좋아하는 남자가 여친이랑 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백하는거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겠조., 2
11047 좋아하는 남자가 툭이 늦어., 바쁘거나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2
11048 좋아하는 남자에 때문에 성격이 떨어졌어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공부 안한 당신 때문이에요., 2
11049 좋아하는 남자에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사람은 모두 변덕스럽지요., 2
11050 좋아하는 남자에 생겼는데 완전 설레., 설렘을 감출 길이 없겠어요., 2
11051 좋아하는 남자에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돼., 짝사랑도 이성을 막지는 못하나봐요., 2
11052 좋아하는 남자에 프사가 누굴까., 직접 물어보는 건 힘들까요., 2
11053 좋아하는 남자에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야기 오래가는 소재 좀 알려줘., 요즘 인기있는 게임을 검색해봐요., 2
11054 좋아하는 남자에가 날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이상형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2
11055 좋아하는 남자에가 담배를 피는데 저는 담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끊으라고 말해볼까요?,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성급한 것 같습니다., 2
11056 좋아하는 남자에가 바람둥이 같은데 계속 좋아하면 안되겠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
11057 좋아하는 남자에가 여친 생기면 울 줄 알았는데 덤덤해.,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었나봐요., 2
11058 좋아하는 남자에가 우리 언니를 좋아한대., 서글픈 사실이에요., 2
11059 좋아하는 남자에가 입대하는데 어떤 선물을 해주는게 좋을까요?, 면회나 편지가 최고죠!, 2
11060 좋아하는 남자에랑 같은 반이 됐는데 너무 떨려., 정말 잘됐어요., 2
11061 좋아하는 남자에랑 다른 반 됐어., 반 배정이 사랑을 갈라놨네요., 2
11062 좋아하는 남자에랑 약속 잡았는데 계속 연락 없어., 그런 스타일일지도 모르니 기다려보세요., 2
11063 좋아하는 남자에에게 어떤 생일선물을 주면 좋아할까요?, 필요한 게 뭘지 살펴보세요., 2
11064 좋아하는 남자에한테 답장이 없어. 나 안좋아하는 거 맞지., 오랫동안 답장이 없다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2
11065 좋아하는 남자에한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줄까?, 주면 좋아할 거예요., 2
11066 좋아하는 남자에한테 어떻게 관심 표현함?, 칭찬을 자주 해주는 건 어떨까요., 2
11067 좋아하는 남자에한테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방법 뭐 있을까., 뭐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2
11068 좋아하는 남자의 단점을 들었는데도 좋아., 사랑의 공각지가 씌었나봐요., 2
11069 좋아하는 남자한테 관심 없는 척 하고 있는데 너무 우울해., 솔직하지 못해서 우울한 것인가봐요., 2
11070 좋아하는 남자한테 여친이 있는데 헤어졌으면 좋겠어., 연애 중인 사람을 좋아하다니 힘드시겠어요., 2
11071 좋아하는 남자한테 연락 하지 말자고 했는데.,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해요., 2
11072 좋아하는 누나가 날 너무 어린애 취급함., 단순한 연하가 아니라는 걸 어필해봐요., 2
11073 좋아하는 마음 그만두기 힘들데 짝남이 헛갈리게 해.,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2
11074 좋아하는 마음 들면 고백해야 되는거 아님?, 정상적인 수순이죠., 2
11075 좋아하는 마음을 감출길이 없어., 감정을 숨기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2
11076 좋아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조금의 용기를 낸다면 가능할 거예요., 2
11077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다고 떠난 남자., 이제 그에게서 벗어나세요., 2
11078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다고 떠난 여자., 이제 그녀를 놓아주세요., 2
11079 좋아하는 사람 꿈을 꿔어., 많이 생각했나봐요., 2

11080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2
11081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센치하다., 감성적이게 만들죠., 2
11082 좋아하는 사람 생각으로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겠어., 그럴 수 있지만 후회할 거예요., 2
11083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폐복 친구 신청 해도 될까요?, 다가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2
11084 좋아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2
11085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든 sns같은 거 알아내서 친신하고 그래?,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2
11086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자꾸 따라하게 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
11087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는 척 해봤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지요., 2
11088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성격이 이중적인데 정상인가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
11089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실례를 했어., 생각만해도 소름돋네요., 2
11090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쪽팔린 경험이 너무 많아., 추억을 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2
11091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표정 관리 안되는 거 어떡해?, 귀여울 것 같아요., 2
11092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다 똑같은가봐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대요., 2
11093 좋아하는 사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허락하는 데까지 아닐까요., 2
11094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이제 생각이 안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나봐요., 2
11095 좋아하는 사람 오늘 못 봐서 진짜 우울하다., 내일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
11096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에 나를 맞춰야 할까?, 맞춰보는 과정이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2
11097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내가 좀 소심해., 달라지긴 원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2
11098 좋아하는 사람 잇는 방법 조인 좀., 가슴 아픈 질문이네요., 2
11099 좋아하는 사람 직업이 좀 걸리는데 계속 좋아해도 될까요?, 본인이 괜찮다면 상관 없겠지요., 2
11100 좋아하는 사람 포기하는 방법 있어?, 생각을 덜 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11101 좋아하는 사람 프사랑 비슷한 거 걸어?, 커플 프사 느낌으로 하면 좋죠., 2
11102 좋아하는 사람 환심 살 수 있는 방법 좀., 그 분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봐요., 2
11103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감정이 북받쳐올라., 복잡한 심정일거라 생각해요., 2
11104 좋아하는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 감정이 북받쳐오르나봐요., 2
11105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 수학 공식처럼 정의 내릴 수 없어요., 2
11106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일로 바쁘면 조금 덜할 거예요., 2
11107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은걸까., 미련도 사랑의 부분입니다., 2
11108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비우는 방법 좀 알려줘요.,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게 좋아요., 2
11109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예의없는 사람 좋아하지마세요., 2
11110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착각만하게 되는 내 자신이 싫어., 짝사랑 앞에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이에요., 2
11111 좋아하는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면 좋아할까?, 맛이 없든 있든 좋을 것 같아요., 2
11112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는것. 효과적일까?, 마음을 담은 편지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예요., 2
11113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척하고 있는데 우울해., 척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깐요., 2
11114 좋아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 같아., 원망은 아픈만 남길 뿐이에요. 털어버리세요., 2
11115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를 모르겠어.,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는게 필요해요., 2
11116 좋아하는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관심사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 보세요., 2
11117 좋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죠., 속아주는 것도 사랑이죠., 2
11118 좋아하는 사람이 고쳤졌으면 하는 거 말해도 될까?,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말하는게 좋아요., 2
11119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해.,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았나봐요., 2
11120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오게 하는 방법?, 그 분이 관심갈 만한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2
11121 좋아하는 사람이 날 너무 편하게 생각해., 이성으로 대하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2
11122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해서 죽고 싶어., 애석하지만 당신을 더 소중히 생각해주세요., 2
11123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냉정한데.,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더 힘들겠어요., 2
11124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예뻐, 내면을 더 들여다보세요., 2
11125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내면을 더 들여다보세요., 2
11126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철벽치는데 계속 다가가도 될까?, 철벽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세요., 2
11127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대. 살기 싫다., 인연이 거기까지인가봐요., 2
11128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 얘기하는게 너무 가슴 아파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게 힘들지요., 2
11129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친해지는게 서운해., 충분히 서운할 만해요., 2
11130 좋아하는 사람이 단둘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게 좋겠어요., 2
11131 좋아하는 사람이 단독에서 다른 남자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느낀다면 조금씩 정리하는게 좋겠어요., 2
11132 좋아하는 사람이 말한 이상형이랑 나랑 너무 다른데., 이상형은 이상형뿐일 수도 있어요., 2
11133 좋아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친구들 여럿이서 보는데., 뭔가 아쉬운 점이 남겠네요., 2
11134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우울하기만 해., 사랑이 내 맘같지 않으니깐요., 2
11135 좋아하는 사람이 쓰레기면 어떻게 할까야?, 쓰레기 옆에 있기 싫어서 도망갈 거예요., 2
11136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명인데 괜찮겠지., 좋아하는 건 내 맘이죠., 2
11137 좋아하는 사람이 연애에 관심이 없는 거 같애, 사랑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눈치가 없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다가가보세요., 2
11138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인인데 날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천천히 다가가보세요., 2
11139 좋아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데 남친이 없어., 본인이 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2
11140 좋아하는 사람이 인기는 많은데 여친이 없어. 왜 그럴까?, 혼자가 편한 걸지도 모르지요., 2
11141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하는 건 싫어요., 구속되기 싫은 건지 생각해보세요., 2
11142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계에 진전이 없어., 멈추거나 한 발을 내딛거나 변화가 필요해보이네요., 2
11143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귀는 건 싫어., 책임을 지기 싫은 건지 생각해보세요., 2
11144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연이 길어요.,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2
11145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씨씨야. 만나도 될까?, 사랑은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2
11146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못 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봐요., 2
11147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괴감 들어.,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2
11148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가 달라., 종교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2
11149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서 연락이 끊겼어., 또 다시 연락할 수 있어요., 2
11150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감정과 대상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2
11151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전여친 얘기해., 그만 듣고 싶다고 이야기해보세요., 2
11152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따라하게 되는데 정상인가?, 정상이에요., 2

11153 좋아하는 사람이 카톡 차단한듯., 정말 정리해야 할 때네요., 2
11154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하나씩 의미 부여하는게 짜증나., 의미부여가 특히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2
11155 좋아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게 좋아., 사랑의 공작지가 씌었네요., 2
11156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은 반 돼라, 기도할게요., 2
11157 좋아하는 사람이랑 벚꽃구경 가고 싶어., 상황을 봐서 연락해 봐요., 2
11158 좋아하는 사람이랑 종교가 다른데 괜찮을까?, 종교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2
11159 좋아하는 사람이랑 친구 가능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2
11160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 당하면 영영 끝일까 두려워., 그래서 보통 확실할 때 고백을 하죠., 2
11161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 당할까봐 두려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
11162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 안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2
11163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 없는 척 하는 것도 이제 지쳐요., 충분히 지칠만 해요., 2
11164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자꾸 말거는 걸 귀찮아할까?, 정말 귀찮다면 답장하지 않을 거예요., 2
11165 좋아하는 사람한테 님은 사람 봤다고 카톡 보내볼까?,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2
11166 좋아하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볼까?, 좋아하니까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2
11167 좋아하는 사람한테 만나자고 말해도 되나., 말해보는게 우선이에요., 2
11168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 거는 방법?, 음료수라도 주면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물어봐요., 2
11169 좋아하는 사람한테 맨날 선택하는데 부담스러워 하려나?, 맨날하지 말고 조금은 여지를 줘보세요., 2
11170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카톡 시작하지?, 뭐하는지 물어보세요., 2
11171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택하려고 하는데., 먼저 다가가는 태도 좋아요., 2
11172 좋아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인 여자 별로야?, 적극적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2
11173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까지 데려달라고 부탁해볼까?, 좋아하니까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2
11174 좋아하는 사람한테 티 안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 존중해야 해요., 2
11175 좋아하는 선배가 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어., 먼저 연락해도 힘들어 말아요., 2
11176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선택오게 하는 방법 좀., 먼저 연락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게 더 좋습니다., 2
11177 좋아하는 앞에서 방구를 겼어., 생각만해도 소름돋네요., 2
11178 좋아하는 애 가망 없으면 포기하는게 맞을까요?, 가망이 없다면 정리하는게 덜 아플 거예요., 2
11179 좋아하는 애 상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궁금할만 해요., 2
11180 좋아하는 애 친구한테 다같이 만나자고 말해도 돼?, 다같이 만나면 재미있기는 하겠네요., 2
11181 좋아하는 애 피하는 방법 조언 좀., 동선을 어느정도 파악하는게 도움이 될거예요., 2
11182 좋아하는 애 피하는 중임., 마음을 정리하려나봐요., 2
11183 좋아하는 애 피하면서도 우울해.,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아쉬움이겠지요., 2
11184 피해 다니면 좋아했던 마음이 좀 사라질까?, 한동안은 힘들겠지만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2
11185 좋아하는 애한테 폐매 해볼까?, 직접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11186 좋아하는 애가 1년만 기다려 달라는데 어찌지., 기다릴 수 있다면 본인 의지대로 하세요., 2
11187 좋아하는 애가 여친 사귀 마음이 없애., 거절의 뜻으로 받아들여야할지도 모르겠네요., 2
11188 좋아하는 애가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관심이 없는데 무슨 얘기하지?,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2
11189 좋아하는 애가 자자고 해서 자버렸어. 어떡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지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2
11190 좋아하는 애가 좀 노는 애인데 좋아해도 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2
11191 좋아하는 애랑 같은 반 됐어, 축하해요!, 2
11192 좋아하는 애랑 같이 있으면 나만 이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모두 그럴 거예요., 2
11193 좋아하는 애랑 같이 잤어., 원하던 바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2
11194 좋아하는 애랑 관련된 흑역사가 많은데., 흑역사는 흑역사일뿐이에요., 2
11195 좋아하는 애랑 만나서 놀건데 뭐 먹는게 좋을까?,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보는 게 먼저일 거예요., 2
11196 좋아하는 애랑 무슨 얘기할까?, 공통 관심사를 알아봐요., 2
11197 좋아하는 애랑 연락 중인데 어떤 얘기를 이끌어가야할지 모르겠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요., 2
11198 좋아하는 애랑 영화 볼건데 액션은 좀 그럴겠지?, 좋아하는 장르가 뭔지 알아보고 예매하세요., 2
11199 좋아하는 애랑 있으면 왜 쳐다보지를 못하겠지., 부끄러운 감정이 들어서 그래요., 2
11200 좋아하는 애랑 전화하면, 즐거울 거예요., 2
11201 좋아하는 애랑 카톡하면, 좋을 것 같네요., 2
11202 좋아하는 애를 내가 너무 이상화하는 것 같아., 마음이 커지면 그럴 수 있어요., 2
11203 좋아하는 애한테 간접적으로 고백했는데 알아 차렸을까?, 눈치가 엄청 없지 않는 이상 알아 차렸을 거예요., 2
11204 좋아하는 애한테 말도 못 해보고 졸업했어요., 인연이라면 졸업 후에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
11205 좋아하는 애한테 선편했는데 답장을 안해., 바쁘거나 마음이 없는걸지도 모르겠어요., 2
11206 좋아하는 애한테 영화보자 하면 효과적일까?, 영화 데이트 좋죠., 2
11207 좋아하는 애한테 찌르기 놀러 버림., 아이쿠., 2
11208 좋아하는 애한테 폐매 해볼까., 당장 해보세요., 2
11209 좋아하는 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2
11210 좋아하는 여선배가 있는데 말할 수도 없고 어떡함., 왜 말을 못해요., 2
11211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너무 심각해요.,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세요., 2
11212 좋아하는 여자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알다가도 모르는게 사람 마음이에요., 2
11213 좋아하는 여자 생겼는데 호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연락을 해보는게 좋아요., 2
11214 좋아하는 여자 생겼으면 좋겠다., 곧 생길거라 믿어요., 2
11215 좋아하는 여자 폐북 친구도 아닌데 좋아요 눌렀음. 쪽팔려., 폐북을 삭제하는 건 어떨까요., 2
11216 좋아하는 여자가 너무 철벽이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더 힘들겠어요., 2
11217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친해지는게 짜증남., 충분히 신경쓰인 부분이에요., 2
11218 좋아하는 여자가 최근들어 연락이 늦는데 나한테 마음이 없는거겠지., 바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크겠네요., 2
11219 좋아하는 여자가 톡을 씌어., 마음을 정리하는게 좋겠어요., 2
11220 좋아하는 여자가 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사귀는게 가능할까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2
11221 좋아하는 여자랑 친해지는 방법 좀 알려줘., 그분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가 좋겠네요., 2
11222 좋아하는 여자애 꿈을 쫓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음., 도대체 무슨 꿈을 꾸 건가요., 2
11223 좋아하는 여자애 생각하느라 성격이 떨어짐.,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공부 안한 당신 때문이에요., 2
11224 좋아하는 여자애 생겼는데 떨려 죽겠음., 설렘을 감추는게 더 힘들 때네요., 2
11225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됩니다.,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럴 거예요., 2

11226 좋아하는 여자애가 날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데 조언 좀., 그분이 좋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2
11227 좋아하는 여자애가 남친 사귀 마음은 없다는데 진짜일까?, 그건 본인만 알 거예요., 2
11228 좋아하는 여자애가 우리 형을 좋아한다고 들음. 나 어떡하나.,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는게 좋겠네요., 2
11229 좋아하는 여자애가 유학을 가는데 어떤 선물을 해주는게 추억에 남을까요?, 큰 선물은 짐만 될 거예요., 2
11230 좋아하는 여자애랑 같은 반이 됐어., 좋겠네요., 2
11231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이 좋겠네요., 2
11232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밥 먹자고 했는데 바쁘다고만 해., 진짜 바쁜건지 거절인건지 알아보세요., 2
11233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손편지 줘도 돼?, 손편지만큼 정성이 담긴 선물도 없을 거예요., 2
11234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어떻게 관심 표현하는지 조언 좀., 그녀의 관심사에 호감을 드러내세요., 2
11235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우선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아보세요., 2
11236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자연스럽게 폐메 보내는 방법 뭐가 있지?, 태그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요., 2
11237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화이트데이 때 사탕 주면 좋아할까?, 주면 좋아할 거예요., 2
11238 좋아하는 여자애에 프사가., 신경쓰이나봐요., 2
11239 좋아하는 여자애에게 어떻게 연락할까?, 잘 지내는지 자연스럽게 다가가보세요., 2
11240 좋아하는 여자의 단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답답해., 좋아했던 만큼 쉬운 결정을 아닐거예요., 2
11241 좋아하는 여자한테 관심 없는 척 하고 있어., 표현하기 망설여지나봐요., 2
11242 좋아하는 여자한테 관심 없는 척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한 편이 더 좋아요., 2
11243 좋아하는 여자한테 남친이 있는데 연락하고 싶어., 연애 중인 사람에게는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11244 좋아하는 여자한테 선물해도 괜찮을까?, 좋아할 거예요., 2
11245 좋아하는 여자한테 연락 하지 말자고 했는데 후회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2
11246 좋아하는 여자한테 표현하는게 옳은 걸까?, 표현하지 않고 끝낸다면 후회할 수 있어요., 2
11247 좋아하는 연애인 바뀔 때마다 짝남이 바뀌는 듯., 이상형이 반영 되었을 수도 있어요., 2
11248 좋아하는 오빠 폐북 친구도 안되어있는데 실수로 댓글 달았어요., 폐북을 삭제하는 편이 좋겠네요., 2
11249 좋아하는 오빠가 날 어리게만 봐.,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낸 기간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2
11250 좋아하는 오빠가 최근에 연락이 계속 늦거나 이어지지 않는데 그냥 연락 끊어야 할까., 그러는 것이 맘 편할지도 몰라요., 2
11251 좋아하는 오빠랑 어떻게 친해질까., 그분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가 좋겠어요., 2
11252 좋아하는 오빠랑 친해지는법, 남자들은 먼저 다가와 주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2
11253 좋아하는 이상형이 계속 바뀌어., 성격도 계속 바뀌니 걱정 말아요., 2
11254 좋아하는 티도 못내는 제가 너무 불쌍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나봐요., 2
11255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도 문제야?,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2
11256 좋아하는거 어떤 느낌이야?, 나보다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요., 2
11257 좋아하는거 어떤 느낌임.,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거 아닐까요., 2
11258 좋아하는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좋아하는 것 만큼 감정 소모가 큰 건 없어요., 2
11259 좋아하는데 걸린 시간이 보통 어떻게 돼요?,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2
11260 좋아하는데 이전과 다르게 없을까봐 말을 못하겠음., 달라지는 게 없다면 정리하는게 덜 힘들어요., 2
11261 좋아하는데 자꾸 시비걸게 돼요., 괜히 질투가 나서 그럴지도 몰라요., 2
11262 좋아하는데 자꾸 짜증나기도 해., 사랑 앞에 장사 없지요., 2
11263 좋아하는데 전혀 티 안내는게 가능할까요?, 감정은 숨길 수 없어서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2
11264 좋아하는데 티조차 못내는게 마음 아파요., 표현하면 안되는 상황인가봐요., 2
11265 좋아하는데도 헤어지자네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
11266 좋아하는지 확신이 안들어, 그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느낌이 올 거예요., 2
11267 좋아하는지 확신이 안들어, 좀 떠보세요., 2
11268 좋아하다 더 좋아지는 게 사랑인가?, 사랑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거예요., 2
11269 좋아하던 남자애가 여친 생겼는데 막상 아무런 느낌 안 들어.,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2
11270 좋아하던 사람 미워질 것 같아., 정들었나봐요., 2
11271 좋아하던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 정들었나봐요., 2
11272 좋아하던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보고 싶어져?, 더 애달프겠지요., 2
11273 좋아하던 여자애가 남친 생겼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2
11274 좋아하면 꿈에 나오는건가?, 생각을 자주하면 나올 수 있어요., 2
11275 좋아하면 먼저 연락해야 해?,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많겠죠., 2
11276 좋아하면 어떤 느낌일까., 설레서 잠도 못자는 느낌이요., 2
11277 좋아하면 이용당해도 되는거야?, 절대 안됩니다., 2
11278 좋아하면서 너무 싫어., 사랑은 복합적인 감정이니깐요., 2
11279 좋아하면서도 너무 싫은 감정 뭘까요., 좋아하는 만큼 지쳐가는 마음 아닐까요., 2
11280 좋아하지 않는데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거 가능한가., 가벼운 친구사이로 생각할 수도 있죠., 2
11281 좋아해, 고백하세요., 2
11282 좋아했던 기억 영원히 없앨 수는 없을까., 없애는 게 아니라 무덤덤해지는 걸 거예요., 2
11283 좋아했던 사람 영원히 잊을 수 있을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거예요., 2
11284 좋아했던 사람도 금방 잊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2
11285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연애를 못하겠어., 트라우마를 없앨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2
11286 좋아했지만 고백은 못하겠어., 애듯한 사랑이네요., 2
11287 좋아했지만 끝내 고백은 못할 듯., 애듯한 사랑이네요., 2
11288 좋은 곳 오면 생각나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네요., 2
11289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취미와 성향 등이 같음을 어필해보세요., 2
11290 좋은 사람 같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은 놓치면 후회해요., 2
11291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보세요., 2
11292 좋은 첫인상 남게 하려면?, 겉모습에 신경 써보세요., 2
11293 주말이 행복해, 오래 볼 수 있어 좋은 가봐요., 2
11294 주말인데 연락이 안 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2
11295 주말인데 연락해볼까?, 얼른 연락해보세요., 2
11296 주변 이성이 많은 여자친구 어떡해?, 신경쓰이고 질투난다고 이야기해보세요., 2
11297 주변에서 다 별로라고 한 짝남 그냥 맘을 접어야할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2
11298 주변에서 제가 그녀를 좋아하는 거라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받아들이는게 생소할 수 있어요., 2

11299 죽고 못 사는 관계, 연애할 때 가능하죠., 2
11300 죽었던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 좋은 소식이네요., 2
11301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 이보다 멋진 사랑은 없을 거예요., 2
11302 준비 안됐는데 씬남 지금 집 앞에 있데., 줌 기다리라고 하고 비비라도 바르고 나가요., 2
11303 즉흥적인 여자친구가 고민임., 그게 매력이에요., 2
11304 지금 나오라고 하는거 예의 없음?, 보고싶다고 연락은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
11305 지금 나오라고 하면 나올까?, 부담이 되긴 할 거 같아요., 2
11306 지금 남친을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는게 좋겠어요., 2
11307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같이 살자고 프로포즈 해보세요., 2
11308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유학을 가자는 상대, 큰 도전이 되겠네요., 2
11309 지금 여친을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식었나봐요., 2
11310 지금 연락해도 돼?, 해보긴 할 거 같아요., 2
11311 지금 이 순간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참 행복한가봐요., 2
11312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잘 모르겠어요., 2
11313 지나가는 말로 이쁘다한 것을 다 기억해 두는게 좋은가요?, 다는 기억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게 좋겠쥬., 2
11314 직장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고백하면 안되나?, 서로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고백하세요., 2
11315 진실된 사랑이 있을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2
11316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2
11317 진심으로 좋아하는 애가 생겼으면., 좋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2
11318 진심이 뭘까?, 직접 물어보세요., 2
11319 진심일까, 직접 물어보세요., 2
11320 진정 사랑에 대해 배워가는중입니다,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2
11321 진짜 나를 좋아하는 남자랑 사귄 걸., 어떤 선택이든 후회가 남기 마련이에요., 2
11322 진짜 좋아하는 애가 생겼으면 좋겠어.,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거라 믿어요., 2
11323 진짜 좋아하면 장거리 연애 가능?, 가능하다고 봅니다., 2
11324 질투가 너무 심한데 질투를 어떻게 줄일까., 당신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2
11325 집까지 데려다줬는데 호감? 그냥 매너?,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11326 집앞에서 첫사랑 만남, 우연한 만남이네요., 2
11327 집에 가기 싫어, 가지마요. 같이 라면 먹고 가요., 2
11328 집에 여자친구 소개시켰어,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네요., 2
11329 집에서 먼곳으로 데이트를 자주 가야하는데 꼭 차를 사야할까?, 비용을 따져보세요., 2
11330 집이 먼데 사귀어도 될까?, 사랑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2
11331 집착을 줄이고싶어., 자신에게 더 집착해봐요., 2
11332 집착하는 것 처럼 보이면 어떡해?, 부담스럽지 않은 선이 좋겠어요., 2
11333 짝남 고민 들어줄래요?, 들어드릴게요., 2
11334 짝남 관련 악몽을 꿰., 안좋은 일이라도 있었나봐요., 2
11335 짝남 나한테 마음 있는지 궁금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2
11336 짝남 내일 모레 출국이라., 많이 서운하겠어요., 2
11337 짝남 내일 출국인데., 슬프네요., 2
11338 짝남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혼란스러워., 충분히 힘들거라 생각해요., 2
11339 짝남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짝사랑 앞에 판단력이 흐려지곤 해요., 2
11340 짝남 때문에 우울해., 제 앞에서 울어도 돼요., 2
11341 짝남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할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2
11342 짝남 못 잊겠어., 완전히 잊을 순 없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잊혀질 수도 있어요., 2
11343 짝남 보고싶다., 많이 보고 싶을거라 생각해요., 2
11344 짝남 보내주는 편지야., 제가 들어드릴게요., 2
11345 짝남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어요., 큰 결심이네요. 꼭 성공할 거예요., 2
11346 짝남 보란듯이 잊어주겠어., 좋은 생각이예요., 2
11347 짝남 생각에 잠을 못 자., 짝사랑일수록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2
11348 짝남 생각할수록 정리 되는 듯., 차라리 잘 된 일이에요., 2
11349 짝남 섞인 술자리 갈 예정., 많이 떨리겠어요. 실수하지 말고 잘 다녀와요., 2
11350 짝남 알바 그만둬서 이제 못만나는데 단톡방 친구추가 해서 간혹하면 별로인가?, 양해를 구하는 게 좋겠어요., 2
11351 짝남 그냥 연락 끊긴지 오래됐는데 연락하는 거 오바야?, 후회하는 것 보단 연락하고 결정하는게 좋겠어요., 2
11352 짝남 여친 생겼네., 마음을 정리해야 하겠어요., 2
11353 짝남 여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내?, 공통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2
11354 짝남 일년 째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중., 뒤에서 지켜만 보는 고충 이해 되네요., 2
11355 짝남 있는데 소개 들어오면 받나요?, 괜찮다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
11356 짝남 잊으려고 나 혼자 나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증오스러워., 짝사랑을 하다 지치면 그럴 수 있어요., 2
11357 짝남 잊으려고 하는데 인스타에서 자주 보여요., 인스타를 삭제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2
11358 짝남 전여친 못잊는거 보는게 너무 맘이 아파., 그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게 제일 속상해요., 2
11359 짝남 정리 잘하고 있었는데 자꾸 꿈에 나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2
11360 짝남 줄건데 센스있는 선물 추천해주세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변에 물어봐요., 2
11361 짝남 표정 안좋아서 괜히 신경 쓰여., 신경 쓰일거라 생각해요., 2
11362 짝남 프사 궁금해요., 궁금할만 해요., 2
11363 짝남 프사랑 비슷한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살짝 티내려는 거라면 찬성합니다., 2
11364 짝남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있을까?,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2
11365 짝남네 집에서 친구들이랑 집들이 가는데 뭐 사갈까?, 필요한게 없는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 나가세요., 2
11366 짝남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을거야., 더 나은 사람 많아요., 2
11367 짝남에게 같이 옷보러가자고 해도 될까?, 시간 있냐고 물어봐주세요., 2
11368 짝남에게 밤에 자주 산책하자고 해도될까?, 밤 데이트 신청 멋지네요., 2
11369 짝남은 나를 싫어하나봐 기분 탓인지., 집착하는 건 당신을 더 슬프게 만들어요., 2
11370 짝남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애., 나의 존재를 먼저 인지시켜주세요., 2
11371 짝남은 짝남일 뿐인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11372 짝남을 반에서 공개적으로 좋아하는게 나을까요?,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2
11373 짝남의 여사친들 보기 질투나., 질투난다고 살짝 말해봐요., 2
11374 짝남의 전 여친 등장., 애석하네요., 2
11375 짝남이 갑자기 못나 보여.,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2
11376 짝남이 고시생이면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세요., 2
11377 짝남이 곧 군대를 가요.,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2
11378 짝남이 공무원준비를 한다는데 고백하면 방해가 될까?,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옆에서 응원해주면 든든할 것 같아요., 2
11379 짝남이 공시생이면 어떻게 하죠?,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세요., 2
11380 짝남이 나를 떠보는 걸까?, 입장을 확실히 하는 편이 좋겠어요., 2
11381 짝남이 나를 좋아하는 애의 친구인데 어떡해?, 상황이 복잡하네요., 2
11382 짝남이 나한테 관심 없어보여도 계속 연락하고 들이대?, 확실한 거절이 아니라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연락하는게 좋겠어요., 2
11383 짝남이 나한테 먼저 연락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겠지만 먼저하는 것이 맘 편할 거예요., 2
11384 짝남이 나한테 여지준 것 같아., 오해가 아니라면 나쁜 분이네요., 2
11385 짝남이 날 너무 편하게 생각해.,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말해보세요., 2
11386 짝남이 날 신경쓰는 것 같은 건 내 착각일까.,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겠어요., 2
11387 짝남이 날 좋아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 우선 꾸준히 연락하고 잘해줘보세요., 2
11388 짝남이 남친이 되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2
11389 짝남이 내 친구 좋아하는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하는 순간이네요., 2
11390 짝남이 내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운명의 장난이네요., 2
11391 짝남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버림., 이런., 2
11392 짝남이 내가 좋아하는걸 1도 몰라., 1은 알게 해야죠., 2
11393 짝남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뺨길거같아 두려워, 얼른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2
11394 짝남이 너무 좋은데 패션센스가 별로야., 패션은 사귀고 나서 바뀌줘도 돼요., 2
11395 짝남이 넘 귀여워., 사랑스러운 분인가봐요., 2
11396 짝남이 다른 애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게 확실하다면 천천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2
11397 짝남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걸 보니 자존감이 떨어져., 자존감은 자신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2
11398 짝남이 독서가 취미라는데 무슨 책을 선물해줄까?, 먼저 읽어보고 좋은 책 선물하는게 이야기하는 데에 좋을 거예요., 2
11399 짝남이 몇일째 카톡 안읽씹하면 노답이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정리해야할 수도 있겠어요., 2
11400 짝남이 뼈뺏하게 굴면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정리하는게 좋아요., 2
11401 짝남이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내가 고백해도 될까?, 좀 기다리다가 천천히 다가가는게 좋겠어요., 2
11402 짝남이 생겼는데 뭐부터 해야할까., 일단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보세요., 2
11403 짝남이 여친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실이네요., 2
11404 짝남이 연락이 안 되는데 자고 있는 걸까?, 피곤해서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2
11405 짝남한테 계속 친한 척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부담스럽다면 직접 말할 거예요., 2
11406 짝남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연락처 물어보는 건 전세계 공통이예요., 2
11407 짝남이 운동선수인데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 보내보세요., 2
11408 짝남이 운동하다 다쳤는데 어떡하지?, 괜찮냐고 연락해보세요., 2
11409 짝남이 있는데 나는 사정이 안돼. 연애를 안하는게 맞는걸까?, 사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2
11410 짝남이 자꾸 꿈에 나오는데 꿈에서도 용기 없어서 피하고 그래., 연연 중에 지금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었나봐요., 2
11411 짝남이 자취한다는데 필요한 거 사다주면 좋아할까?, 마다할 사람 없을 거예요., 2
11412 짝남이 잘생긴건 아닌데 착해., 외모는 중요하지 않죠., 2
11413 짝남이 정말 친절한데 모두에게 그럴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지 지켜보세요., 2
11414 짝남이 제 톡 안 읽고 프사 바꿨어요., 마음을 정리하는게 좋겠어요., 2
11415 짝남이 졸업하는데 뭘 주면 인상깊을까?, 부담스럽지 않는 선물을 생각해보세요., 2
11416 짝남이 좋다고 했던 노래 이 새벽에 참 어울리는 노래야., 분위기 있는 노래인가봐요., 2
11417 짝남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까지 마음이 안좋네요., 2
11418 짝남이 좋아하는애 있거나 여친 있으면 포기하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요., 2
11419 짝남이 학교에서 평이 안 좋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2
11420 짝남이 헤어진지 별로 안됐는데 다가가도 될까?, 위로를 해줘보세요., 2
11421 짝남이든 씬남이든 뭐든 있었음 좋겠다., 곧 사랑이 찾아올거라 믿어요., 2
11422 짝남이랑 같이 도서관 가고 싶어. 방법 좀., 공부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2
11423 짝남이랑 계속 카톡하고 싶는데., 카톡 해보세요., 2
11424 짝남이랑 괜히 술 마셨어., 항상 아쉬움이 남는가봐요., 2
11425 짝남이랑 끝났는데 그래도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 정말 사랑하는 분인가봐요., 2
11426 짝남이랑 동생 이름이 똑같아., 놀랐겠어요., 2
11427 짝남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뭐 할지 추천 좀., 가볍게 밥 먹고 영화 보는 거 어떨까요., 2
11428 짝남이랑 사귀기로 했어, 축하드려요., 2
11429 짝남이랑 술 마셨는데 기분만 더 더러워졌어., 항상 후회만 남나봐요., 2
11430 짝남이랑 씬 탈 것 같애.,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 2
11431 짝남이랑 아직 덜 친해서 오늘 아무말 대잔치함., 어색한 시간이었겠네요., 2
11432 짝남이랑 약속 파토 남., 아쉽네요., 2
11433 짝남이랑 잘됐으면 좋겠다., 잘 되길 바랄게요., 2
11434 짝남이랑 저녁에 보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다., 한 번만 더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2
11435 짝남이랑 저도 모르게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2
11436 짝남이랑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 있음 눈길 간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2
11437 짝남이랑 카톡이 끊겼는데 어떻게 더 연락할까?, 연락할 핑계를 찾아보세요., 2
11438 짝남이랑 카톡한거 다시 쪽 읽어 봤는데 거의 나만 질문함., 상대방이 관심이 덜 할 수도 있겠어요., 2
11439 짝남이랑 폐북친구인데 짝남이 좋다했던거 태그해도 되나?, 태그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2
11440 짝남있던 단톡방에 술 마시고 실수했어., 마음이 아프네요. 큰 실수 아니었길 바랄게요., 2
11441 짝남한테 감정 소모 안하고 싶다., 짝사랑 때문에 하는 감정 소모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2
11442 짝남한테 같이 공부하러 가자고 해볼까?, 공부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2
11443 짝남한테 같이 스테디하자고 해도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애기 해보세요., 2
11444 짝남한테 게임 초대 톡 왔음., 게임 초대라니 서운하겠어요., 2

11445 짝남한테 고백한다? 안한다?, 고백해보세요., 2
11446 짝남한테 고백했는데 내가 싫지는 않은데 못 사귀겠다., 복잡한 마음이네요., 2
11447 짝남한테 고백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2
11448 짝남한테 괜히 만나자고 했나봐., 그래도 후회는 덜할 거예요., 2
11449 짝남한테 내일 영화보자고 말해도 될까?, 안되더라도 말해보세요., 2
11450 짝남한테 늦은 생일 선물 주러 가는데 떨어져., 그가 좋아할 거예요., 2
11451 짝남한테 라인 왔는데 답장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게 좋아요., 2
11452 짝남한테 문자 왔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2
11453 짝남한테 밤늦게 나오라고 했더니 진짜 나왔었는데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요?, 신중하게 대화를 나눠보는게 좋겠어요., 2
11454 짝남한테 밥 먹자고 그냥 해볼까., 한 번 말해보는게 좋겠어요., 2
11455 짝남한테 시덥지 않은 걸로 선택해도 될까?, 선택을 해야 대화도 이어나가니까요., 2
11456 짝남한테 실망했어요., 마음이 헛헛하겠어요., 2
11457 짝남한테 아침에 데이트 신청했는데 오늘 야근이야., 하필 왜 오늘 야근일까요., 2
11458 짝남한테 여러 번 차이다가 나중에 사귀게 된 사람도 있을까?, 있을 수 있지요., 2
11459 짝남한테 연락할까?, 연락해보세요., 2
11460 짝남한테 은근슬쩍 좋아하는 티 내는 방법 좀., 은근히 칭찬해주는 건 어떨까요., 2
11461 짝남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당당하게 나가세요., 2
11462 짝남한테 정 때는 방법 없나., 쉬운 일은 아니네요., 2
11463 짝남한테 좋아하는거 들었는데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어., 겉으로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2
11464 짝남한테 주말에 만나자고 했는데 일 있대 계속 언제 되는지 물어봐도 되나., 거절 하는게 느껴지면 그만하는게 좋겠어요., 2
11465 짝남한테 크리스마스 선물할건데 추천 좀., 목도리는 어떨까요., 2
11466 짝남한테 톡 와 있네., 궁금하네요., 2
11467 짝남한테 혼자 화나고., 혼자 화가 풀리곤 해요., 2
11468 짝남한테도 철벽이게 돼 왜그럴까., 트라우마가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2
11469 짝녀 고민 들어줘., 들어드릴게요., 2
11470 짝녀 관련해서 악몽을 자주 꾸는데 불안함., 악몽이라니 걱정되겠어요., 2
11471 짝녀 기분이 안좋아 보여서 신경 쓰임., 신경 쓰일만 해요., 2
11472 짝녀 나한테 마음이 있는걸까?,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2
11473 짝녀 남친 생겼네., 어쩔 수 없네요., 2
11474 짝녀 때문에 화가나요., 안 좋은일이 있었나봐요., 2
11475 짝녀 마음 정리하는 중인데 자꾸 꿈에 나옵니다., 생각이 많이 났나봅니다., 2
11476 짝녀 보고 싶다., 그럴 만 해요., 2
11477 짝녀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습니다., 큰 결심이네요. 꼭 성공할 거예요., 2
11478 짝녀 보란 듯이 잊고 싶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할 수 있어요., 2
11479 짝녀 생각에 잠을 못자겠어., 짝사랑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2
11480 짝녀 생각할수록 정리 되는 느낌., 차라리 잘 된 일이네요., 2
11481 짝녀 선물 어디까지 가능?,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는 선일 것 같습니다., 2
11482 짝녀 알바 그만둬서 못하는데 연락처 물어보면 싫어할까., 그래도 마지막이니 물어보는게 좋겠어요., 2
11483 짝녀 연락 끊긴지 꽤 됐는데 연락해도 될까요?, 후회하는 것 보단 연락하는 편이 나아요., 2
11484 짝녀 오랫동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만 지켜보는게 힘들었겠어요., 2
11485 짝녀 있는데 소개팅 들어오면 받아도 되나요?,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2
11486 짝녀 잊으려면 인스타부터 안 해야할듯., 인스타를 삭제하는게 좋겠네요., 2
11487 짝녀 줄 센스있는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변에 물어봐요., 2
11488 짝녀 프사 자음이 궁금함., 궁금할 수 있어요., 2
11489 짝녀가 고시생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릴 자신이 없다면 정리하는게 좋겠어요., 2
11490 짝녀가 공시생인데 기다릴까요?, 기다릴 자신이 없다면 정리하는게 좋겠어요., 2
11491 짝녀가 나를 떠보는 걸까., 입장을 확실히 하는 편이 좋겠네요., 2
11492 짝녀가 나를 좋아하는 애의 절친이야., 마음의 정리를 해야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2
11493 짝녀가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듯., 나의 존재를 먼저 인지시켜주세요., 2
11494 짝녀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일은 없겠지?, 있을 수 있지만 먼저하는게 좋겠어요., 2
11495 짝녀가 날 너무 친구로 생각해.,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말해보세요., 2
11496 짝녀가 내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음. 어떡해?, 마음이 돌아서길 기다려야죠., 2
11497 짝녀가 내 친구를 좋아해., 영킨 사랑의 짝대기네요., 2
11498 짝녀가 내 톡은 안 읽고 프사 바꿈., 아쉽지만 마음을 접는 편이 좋겠네요., 2
11499 짝녀가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버렸어., 그 후로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2
11500 짝녀가 너무 이빠서 찼적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적극적으로 다가가보세요., 2
11501 짝녀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대.,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해주세요., 2
11502 짝녀가 다른반인데 친해지는 방법없을까?, 다른 반 친구를 사귀보세요., 2
11503 짝녀가 단톡에선 답장하고 간톡은 답장 안해., 철벽이네요., 2
11504 짝녀가 몇일째 카톡 안읽씹하면 거절인거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정리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2
11505 짝녀가 사귀던 사람이라ং 헤어졌는데 좋아한다고 고백해도 되나., 아직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테니 조금만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2
11506 짝녀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하게 할까?, 우선 꾸준히 연락하고 잘해줘보세요., 2
11507 짝녀가 여친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2
11508 짝녀가 연락 안 되고 있는데 자나?, 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
11509 짝녀가 예쁜 건 아닌데 끌려.,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2
11510 짝녀가 외국인인데 연락처 물어봐도 될까., 연락처 물어보는 건 전세계 공통이에요., 2
11511 짝녀가 외국인인데 좋아해도 되나?, 사랑에는 국경이 없답니다., 2
11512 짝녀가 우리 과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 사람들 보는 눈이 비슷하죠., 2
11513 짝녀가 우리 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듯., 사람들 보는 눈이 비슷하죠., 2
11514 짝녀가 운동을 하는데 같이 하고싶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가르쳐 주는 식으로 같이 하면 좋겠네요., 2
11515 짝녀가 음식을 가리는 편인데 뭘 먹으면 좋을까?, 가리는 음식을 알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2
11516 짝녀가 이사간다는데 너무 힘들어., 인연이라면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
11517 짝녀가 있는데 내게 연애는 사치인거 같아., 연애가 사치인 사람은 없어요., 2

11518 짝녀가 있었는데 못 잊겠어.,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2
11519 짝녀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아직 확실한게 아니라면 연락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11520 짝녀가 절 신경쓰는 것 같은 건 내 착각인가요?, 아직은 신중함이 필요해요., 2
11521 짝녀가 졸업하는데 어떤 꽃을 선물하면 좋아할까?, 길거리에 있는 꽃다발 말고 예약해보세요., 2
11522 짝녀가 좋아하는 사람 있거나 남친 있으면 포기하는 이유가 뭐임?,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일 것 같아요., 2
11523 짝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참 안됐군요., 2
11524 짝녀가 좋아하는거 눈치 1도 못챜., 1은 알게 해야죠., 2
11525 짝녀가 차갑게 굴면 어떻게 해요?, 짝사랑하는 마음을 접는게 편할 것 같아요., 2
11526 짝녀가 학교에서 소문이 안 좋아., 오해가 쌓인 건 아닐까요., 2
11527 짝녀는 짝녀일 뿐이건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2
11528 짝녀랑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나봐요., 2
11529 짝녀랑 누나 이름이 똑같애., 하필 같은 이름이라니., 2
11530 짝녀랑 드디어 사귀다!, 좋은 소식이네요., 2
11531 짝녀랑 술 마셨는데 이제 진짜 접어야하나봐., 그녀의 마음을 확인했나봐요., 2
11532 짝녀랑 약속 파토 났어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나봐요., 2
11533 짝녀랑 얼굴 마주보고 대화할 때 미칠 것 같아., 정말 멀리죠., 2
11534 짝녀랑 연락이 끊겼는데 더 연락하고 싶어., 연락할 핑계를 찾아보세요., 2
11535 짝녀랑 저녁에 보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임., 한 번만 더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2
11536 짝녀랑 조금이라도 닮으면 눈이 가는 듯., 저였어도 관심이 갔을 거예요., 2
11537 짝녀랑 카톡했던거 다시 읽어 보는데 거의 다만 물어보네., 상대방이 아직 관심이 덜한 걸 수도 있어요., 2
11538 짝녀를 반 애들 다 알게 공개적으로 좋아하면 싫어할까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2
11539 짝녀에게 남친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2
11540 짝녀에게 내 옷좀 봐달라고 만나자 해도 될까?, 시간 있냐고 물어봐주세요., 2
11541 짝녀에게 다가가려면 짝녀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게 나을까?, 둘다에게 다가가야겠죠., 2
11542 짝녀와 같이 드라이브갈건데 어디로 갈까?, 강가 같이 분위기 있는 곳이 좋겠어요., 2
11543 짝녀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좀.,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2
11544 짝녀의 전 남친이 나뒀났음., 신경쓰이겠어요., 2
11545 짝녀한테 같이 스튜디오하자고 해도 되나요?, 도움이 된다면 얘기 해보세요., 2
11546 짝녀한테 고백했는데 미안하대., 정중히 거절했지만 마음이 아프네요., 2
11547 짝녀한테 고백했는데 잘 됐으면., 잘 될거라 믿어요., 2
11548 짝녀한테 고백했는데 짝녀가 오해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네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2
11549 짝녀한테 공부 가르쳐달라고 해볼까, 도움을 요청하면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2
11550 짝녀한테 라인 왔는데 뭐라고 답장 해야할지 모르겠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게 좋겠어요., 2
11551 짝녀한테 문자 왔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요., 2
11552 짝녀한테 실망했음.,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2
11553 짝녀한테 여러 번 차였는데 사귀 수 있을까요., 진심이 언젠간 통할지도 몰라요., 2
11554 짝녀한테 연락해볼까?, 연락하세요., 2
11555 짝녀한테 영화 보자고 그냥 해볼까., 용기를 내서 말해보세요., 2
11556 짝녀한테 의미 없는 선토크 해도 될까요?, 선토크를 해야 대화도 이어나가니까요., 2
11557 짝녀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2
11558 짝녀한테 주말에 보자고 연락했는데 일정이 있대요. 언제되는지 계속 물어도 될까요., 거절의 뜻으로 생각되면 그만하는게 낫겠네요., 2
11559 짝녀한테 줄임말 쓰면 안됨?, 줄임말 보단 다정한 표현이 호감을 줄 거예요., 2
11560 짝녀한테 카페 가서 같이 공부하자고 해볼까?, 공부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2
11561 짝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가 좋음?, 많이 추우니 목도리는 어떨까 생각해요., 2
11562 짝녀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은데 이러는 내가 싫다.,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하세요., 2
11563 짝녀한테도 철벽쳐요. 성격이 왜 그럴까요., 두려운게 있는게 아닐까요., 2
11564 짝사랑 그만하고 싶다. 짝사랑은 시작과 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2
11565 짝사랑 그만할래, 짝사랑은 시작과 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2
11566 짝사랑 끝내고 나니 마음이 공허하다., 사랑했던 시간이 멈춰버려서 그런거예요., 2
11567 짝사랑 시작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 짝사랑이 그런건가봐요., 2
11568 짝사랑 중이었는데 솔로 탈출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2
11569 짝사랑 중인 내가 이해가 안돼., 짝사랑 앞에 장사 없지요., 2
11570 짝사랑 중인데 나혼자 드라마 찍음., 짝사랑이 그렇게 만드나봐요., 2
11571 짝사랑 중인데 나혼자 영화찍어., 짝사랑이 그런가봐요., 2
11572 짝사랑 중인데 나혼자 치정 로맨스야., 짝사랑이 그렇게 만드네요., 2
11573 짝사랑 중인데 이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아., 짝사랑은 자신을 외롭게 만들어요., 2
11574 짝사랑 중일 때 장점., 짝사랑 상태 생각에 설레는 것., 2
11575 짝사랑 진짜 못해먹겠다., 지쳤나봐요., 2
11576 짝사랑 포기하는 것도 힘들네., 사랑이었으니까요., 2
11577 짝사랑 포기하려니까 우울해., 사랑이었으니까요., 2
11578 짝사랑 하는 남자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 기분이 달라져., 짝사랑에 기분이 오락가락하죠., 2
11579 짝사랑 하는 남자가 외국인인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세요., 2
11580 짝사랑 하는 남자애가 이사 간대., 이사는 가더라도 연락은 지속해보세요., 2
11581 짝사랑 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조언 좀.,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2
11582 짝사랑 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만날거야., 반드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 생각해요., 2
11583 짝사랑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정말 맘고생 많았어요., 2
11584 짝사랑 하는 사람이 날 좋아할 확률은?, 다가가는 만큼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2
11585 짝사랑 하는 사람이 날 좋아할리는 없겠지?, 나를 비하하지 마세요., 2
11586 짝사랑 하는 사람이 너무 잘나서 내가 작아보여., 사랑 앞에 작아지곤 해요., 2
11587 짝사랑 하는 사람이랑 잘됐으면 좋겠다., 꼭 잘 될거예요., 2
11588 짝사랑 하는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애.,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겠네요., 2
11589 짝사랑 하는 여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내 맘같지 않아서 그런가봐요., 2
11590 짝사랑 하는 여자가 햇갈리게 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2

11591 짝사랑 하는 여자랑 뽀뽀하는 꿈 꿔어요.,연연 중에 많이 생각했나봐요.,2
11592 짝사랑 하는 여자가 오늘 꿈에 나온다면 소원이 없겠네.,지금처럼 생각 많이 하고 자면 꿈이 나타날 거예요.,2
11593 짝사랑 하는 여자에 대한 고민 좀 들어주세요.,말씀해보세요.,2
11594 짝사랑 하는 여자한테 고백한다? 안한다?,용기를 내서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2
11595 짝사랑 하니까 감정 기복 장난 아님.,사랑이 내맘같지 않아서 그렇게 되나봐요.,2
11596 짝사랑 하던 사람 못 잊을 것 같애.,생각처럼 쉽지 않지요.,2
11597 짝사랑 하던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 못할 것 같아.,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2
11598 짝사랑 하던 사람이랑 썸 타고 싶어.,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2
11599 짝사랑 하던 사람이랑 썸 탈 것 같애.,좋은 소식이네요.,2
11600 짝사랑 하던 사람한테 고백했는데 차임. 계속 좋아해도 될까.,좋아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2
11601 짝사랑 하면 무슨 기분인지 알긴 해요?,저는 짝사랑 전공이에요.,2
11602 짝사랑 하면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나만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만들어요.,2
11603 짝사랑 해봤어?,해봤어요.,2
11604 짝사랑 했던 그가 떠나갔어.,여기까지 인연이었나봅니다.,2
11605 짝사랑 했던 그녀가 남친이 생겼대.,마음이 아프겠네요.,2
11606 짝사랑 했던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마음이 아프겠네요.,2
11607 짝사랑 했던 여자가 떠나갔네.,여기까지 인연이었나봅니다.,2
11608 짝사랑 힘들어,그래도 좋아하는 동안 행복하길 바라요.,2
11609 짝사랑만 하다보니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네.,혼자가 아니에요.,2
11610 짝사랑만 하다보니 자존감이 떨어졌어.,소중한 당신을 위해 자존감을 높이는게 좋아요.,2
11611 짝사랑만이 답일까.,짝사랑만이 답을 아니랍니다.,2
11612 짝사랑에서 연인으로 발전 가능?,노력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겠죠.,2
11613 짝사랑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나의 존재를 인지시켜야죠.,2
11614 짝사랑은 안 이뤄지나봐.,이뤄질 수도 있습니다.,2
11615 짝사랑은 언제까지나 짝사랑일 뿐이가봐요.,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힘을 내세요.,2
11616 짝사랑은 언제나 고독할까.,짝사랑에서만 그치는 것은 고독한 것 같아요.,2
11617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남는게 좋은 걸까요.,그렇지는 않아요.,2
11618 짝사랑은 힘든 거 같아,그래도 좋아하는 동안 행복하길 바라요.,2
11619 짝사랑을 끝내니까 마음이 허전해.,사랑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래요.,2
11620 짝사랑을 너무 오래해서 현타 와.,짝사랑 권태기인가봅니다,2
11621 짝사랑을 하다보니 자존감이 낮아졌어.,그러니 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2
11622 짝사랑이 이렇게 힘들줄을 몰랐어요.,사랑하는 만큼 바라게 되고 또 힘들게 되죠.,2
11623 짝사랑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좋아해도 될까?,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좋아해지지 않는다면요.,2
11624 짝사랑인 상대한테 고백했는데 짝남이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대.,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네요.,2
11625 짝사랑인가 썸인가,썸이길 바랄게요.,2
11626 짝사랑인지 썸인지 구별하는 법,소개 해달라고 해보세요.,2
11627 짝사랑중이야,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당신의 사랑을 알아볼거예요.,2
11628 짝사랑중인데 그 애는 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연락을 하면 놀랄까요?,갑자기 연락하면 놀라겠죠.,2
11629 짝사랑하는 기분이 뭔지 알아요?,갈지는 않지만 알 것 같아요.,2
11630 짝사랑하는 남자는 내가 싫은가봐.,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도 없겠네요.,2
11631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식었어.,무슨 계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2
11632 짝사랑하는 사람이랑 엄청 편하게 지내는데 썸 가능?,썸 가능해요 이성으로 대해보세요.,2
11633 짝사랑하는 여자가 저를 싫어하나봅니다.,그렇게 생각하게된 계기가 있었나봐요.,2
11634 짝사랑하다고 솔탈함. 기 받아가.,기 받아갈게요.,2
11635 짝사랑하면 어떤 기분이야?,혼자서 설레고 혼자 헤어지는 기분이에요.,2
11636 짝사랑한 만큼 상처도 깊어져.,상처가 아무는덴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2
11637 조금 지겨워진 거 같아,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2
11638 차 없으면 데이트 못해?,걸어다니면서 하는 데이트가 진정한 데이트죠.,2
11639 차로 데려다줬는데,고마움을 전해보세요.,2
11640 차였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요.,정말 많이 좋아했나봐요.,2
11641 착각이면 어떡해,연락 패턴을 살펴보세요.,2
11642 착각일 수도 있는데 서로 좋아하는 것 같으면 고백해?,먼저 고백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에요.,2
11643 착해서 잘해주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직접 물어보세요.,2
11644 착해서 잘해주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헛갈린다고 말해보세요.,2
11645 참 많이 좋아했는데.,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2
11646 처음 마음이 아픈게 첫사랑인가,이루어 지지 않은 사랑은 모두 아프죠.,2
11647 처음 커플템으로 어떤거를 할까?,''간단하게 팔찌나 양말, 모자, 신발 등으로 시작해보세요.'',2
11648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대수롭지 않은 감정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 같아요.,2
11649 천년의 짝사랑이 식는 기분.,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나봐요.,2
11650 첫 눈에 반하는게 가능해?,가능합니다!,2
11651 첫 눈에 반하는게 가능해?,당연히 가능하죠.,2
11652 첫 데이트에 뭐 먹는걸 좋을까?,좋아하는 걸 먹어야죠.,2
11653 첫 만남에 키스했는데 너무 빠른걸까?,서로의 의사가 존중된 것이라면 괜찮지만 사귀고 난 후가 좋겠어요.,2
11654 첫눈에 반함,운명적인 사랑이네요.,2
11655 첫눈에 반해서 좋아할 수 있어?,당연히 가능하죠.,2
11656 첫데이트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공원이나 익숙한 곳을 가보세요.,2
11657 첫사랑 다시 만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다시 만나는 건 환상을 깨는 일이에요.,2
11658 첫사랑 보고 싶어,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2
11659 첫사랑 생각나,소중했던 추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2
11660 첫사랑 생각나,지금의 사랑에 충실하세요.,2
11661 첫사랑 생각만해도 아련해,그런 감정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거 같아요.,2
11662 첫사랑도 내 생각할까?,미련갖지 마세요.,2
11663 첫사랑도 내가 보고 싶을까?,추억으로 남았다면 보고 싶고 궁금할거 같아요.,2

11664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되길 바라요., 2
11665 첫사랑을 추억해, 첫사랑은 항상 추억의 대상이죠., 2
11666 첫사랑이 떠올라, 기억나면 기억나는대로 마음가는대로 그냥 놔두는게 좋은거 같아요., 2
11667 첫사랑인 거 같아, 당신의 첫사랑을 응원합니다., 2
11668 청첩장 고르고 있어, 둘 만의 추억이 담긴 청첩장을 만들어 보는곳도 좋을거 같아요., 2
11669 청첩장 골랐어, 누구한테 줄지 생각해 보세요., 2
11670 청첩장 누구 주지?, 그게 제일 고민이죠., 2
11671 청첩장 누구한테 주지?, 당신이 축의금을 건넸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세요., 2
11672 청첩장 누구한테 줘야할지, 그게 제일 고민이죠., 2
11673 청첩장 돌리기 귀찮아, 축하해주실 분들을 진심을 담아 초대해보세요., 2
11674 청첩장 만들어야지, 결혼 얼마 안 남았나봐요., 2
11675 청첩장을 찍는 날이 오다니, 결혼 얼마 안 남았나봐요., 2
11676 최근에 헤어진 짝남한테 연락하면 주변에서 욕할까?, 주변의 시선을 신경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2
11677 최근에 헤어진 짝남한테 지금 연락하기는 너무 이룰까?, 위로를 해주면서 연락해보세요., 2
11678 최근에 헤어진 짝녀한테 연락하면 내 연락을 받아줄까?, 위로를 해줘보세요., 2
11679 최소 썸인 듯., 고민 하고 있으면 썸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2
11680 최악의 소개팅이었어, 이제 좋은 사람 만날 일만 남았네요., 2
11681 출산휴가 있는 회사로 이직할까?, 된다면 도전해보세요., 2
11682 취업준비하는데 연애해도 될까?, 옆에서 응원해주면서 사랑을 키워다고 좋을 거예요., 2
11683 취준생인데 연애 부담 돼.,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2
11684 취준생인데 연애 해도 될까?, 취업이랑 연애 둘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2
11685 취향 알고 싶다, 직접 물어보세요., 2
11686 취향 좀 존중해줬으면, 각자마다 취향이 있는 거죠., 2
11687 친구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진다, 행복해보이나 봅니다., 2
11688 친구 결혼식에서 축하 준비 중,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2
11689 친구 사이로도 못 지낼 것 같아., 계속 생각날테니 그럴만 해요., 2
11690 친구 짝남이 나 좋아하는데 어떡함., 여지를 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2
11691 친구 짝녀가 날 좋아하는데 어쩔., 모르는 척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2
11692 친구가 결혼식 사회 봐주기로 했어, 잘하고 오세요., 2
11693 친구같은 연애 하고 싶어, 유머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2
11694 친구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뭐지?, 본인의 감정에 귀 기울여보세요., 2
11695 친구들과의 모임이 너무 많은 사람, 적당하게 줄여주거나 나에게 믿음을 주라고 말해보세요., 2
11696 친구들이 브라이덜사워해준대, 좋은 친구들 두셨네요!, 2
11697 친구들이 사랑하니까 예뻐졌대,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군요., 2
11698 친구들이 짝남 별로라고 하는게 짜증나., 왜 별로라고 할까요. 기분 상했겠어요., 2
11699 친구들이 짝녀를 별로라고 하네요., 무슨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2
11700 친구들하고 욕하고 있는데 짝녀가 들었어., 하필 왜 그 순간 나타났을까요., 2
11701 친구라도 될 걸 그랬나봐요., 친구로 남았어도 곁에서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2
11702 친구랑 나랑 좋아하는 애가 같으면 어떡해?, 결정 내리기 힘들겠어요., 2
11703 친구랑 사랑하는 사람이 같아, 사랑은 쟁취하는거예요., 2
11704 친구로 남는게 좋을까 그냥 고백할까?, 그 사이면 고백하는 게 좋겠어요., 2
11705 친구로 좋아하는 건지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전과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나봐요., 2
11706 친구에서 연인이 되려면, 이성으로 대해요., 2
11707 친구의 구남친을 좋아하게 됐어요., 선택을 해야 겠네요., 2
11708 친구의 남자친구가 눈에 들어와,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말아보세요., 2
11709 친구의 남친 좋아하게 된 거 같아,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2
11710 친구의 전 여친을 좋아하는 나., 선택을 해야 겠네요., 2
11711 친구의 전여자친구가 좋은데 사겨도될까?,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11712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는 거 같아, 슬픈 이야기네요., 2
11713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슬픈 이야기네요., 2
11714 친구인데 고백해도 될까?,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보세요., 2
11715 친구인데 썸 타는 것 같아., 고민 하고 있으면 썸의 가능성이 높겠네요., 2
11716 친한 동생인데 짝남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2
11717 친한 동생인데 짝녀가 된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2
11718 친한 동생인데 짝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2
11719 친한 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사이가 깨질까 걱정되나봐요., 2
11720 친한 친구의 구남친이랑 사귀어도 될까요?, 친한사이가 아니라면 괜찮지만 친구라면 속상할거예요., 2
11721 친한 친구의 구여친이랑 사귀어도 되나., 친구라면 많이 실망할겁니다., 2
11722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좋아, 당신을 이끌어주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2
11723 카톡 상메에 아직도 누구 좋아한다는 티 내는 법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어떨까요., 2
11724 카톡하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 좋아하는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2
11725 카톡하는데 자꾸 웃음 나., 부러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예요., 2
11726 카톡할때 너무 칼답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귀여울 거 같아요., 2
11727 카페 알바생이 좋아졌는데 들이대도 괜찮을까?,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세요., 2
11728 카페에서 같이 알바하는 사람이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세요., 2
11729 커뮤니티 하는 썸남 어때?,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2
11730 커뮤니티 하는 썸녀 어때?,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2
11731 커플 여행 가면 잘 싸워?, 연애 초면 싸우기도 하는 거 같아요., 2
11732 커플여행 어떻게 생각해?,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2
11733 커플여행이 나올까 그냥 우리끼리 갈까?, 저는 둘이 가는 걸 좋아해요., 2
11734 커플여행이 나올까 그냥 우리끼리 갈까?, 저는 둘이 가는 게 좋아요., 2
11735 공각지 언제 벗겨져?, 공각지 기한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2
11736 공각지 왜 안 벗겨지지?, 공각지 렌즈를 심어서 안 벗겨질 때도 있어요., 2

11737 공각지가 씩었나봐. 아직도 좋아해., 많이 사랑하나봐요., 2
11738 크리스마스인데 만나자고 해도 됨?, 만나고 싶으면 만나야죠., 2
11739 큰 시험 앞두고 짝사랑 하는 사랑이 생겼어요., 마음을 다잡는게 좋겠어요., 2
11740 클럽 좋아하는 남자는 좋아하면 안되겠지., 같이 가서 놀아보면 껄 거예요., 2
11741 클럽에서 만나서 사귀는거 어떻게 생각해?, 어디서 만났든 그 후가 중요해요., 2
11742 클럽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오래 갈 수 있을까?, 어디에서 만난 건 상관없어요., 2
11743 클럽에서 여자친구 찾아볼까?, 어디서 만났든 그 후가 중요해요., 2
11744 키 작은 남자 좋아하는 여자 있나요?, 취향이니까요., 2
11745 키 작은 여자 좋아하는 남자 있나요?, 그럼요., 2
11746 키 큰 남자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 만나길 바랄게요., 2
11747 키 큰 여자는 별로인가?, 키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2
11748 턱시도 잘 어울림!, 눈에 공각지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게요., 2
11749 팀장님을 좋아하게 됐는데 고백하면 안되겠지., 서로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 고백하세요., 2
11750 팔배개하고 자다가 팔 저린데 말해야겠지?, 손잡고 주무세요., 2
11751 패턴 궁금해, 직접 물어보세요., 2
11752 패턴 아는데 풀어봐도 될까?,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
11753 편해지는데 당연한데 속상해., 설렘은 언제고 사라집니다., 2
11754 풋풋한 사랑 하고 싶어., 설렘이 그리운가봐요., 2
11755 프로포즈 곧 받을 거 같은데, 김치국물은 미리 마시는게 아니에요., 2
11756 프로포즈 받았어, 축하해요., 2
11757 프로포즈할때 영상편지도 주려고, 감동적인 선물이 될 거 같아요., 2
11758 플라토닉 연애 언제?, 가능한 거 같아요., 2
11759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야?, 당신이니까요., 2
11760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서로 떨어져서 그리워할 시간을 적당히 만들어주는 게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주기도 할 거예요., 2
11761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싶어, 뭐든 함께하려는 것도 좋겠지만 오래 붙어있는다고 해서 사랑이 더 커지거나 깊어지지 않아요., 2
11762 하루 종일 연락하면 썸?, 귀찮아서 친구랑 하루 종일 연락 안해요., 2
11763 하루종일 썸남 생각만 해. 괜찮을까?, 그것 또한 감정의 일부니까요., 2
11764 하우스푸어될듯, 열심히 갚아 나가세요., 2
11765 학교 짝이랑 썸 타는데, 짝이라 더 좋겠네요., 2
11766 학교생 좋아하는 사람 있나?, 존경의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2
11767 학교에 심남 있는데 연락해볼까?, 호감을 어느 정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11768 학교에 좋아하는 여자애의 관심을 어떻게 끌지?, 우선 자신이 멋진 사람이 되어 보세요., 2
11769 학교에 좋아하는 오빠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과제나 상담을 핑계로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2
11770 학생일 때 썸 괜찮을까, 지금은 지나면 돌아오지 않아요., 2
11771 학원 다른반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번호를 알고 싶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직접 물어보거나 친구를 통해서 알아내보세요., 2
11772 학원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티내면 안되겠지., 티 내도 귀여울 것 같아요., 2
11773 학원에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어요., 물어볼 거 있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말해보세요., 2
11774 학원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말 거는 방법 좀., 음료수라도 전하면서 대화를 나눠봐요., 2
11775 한 눈에 반했어. 그녀한테 좋아한다고 해도 될까., 아직 이를 지도 몰라요. 천천히 다가가세요., 2
11776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기 힘들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걸 수도 있어요., 2
11777 한 사람만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2
11778 한 사람을 오랫동안 좋아하는게 신기하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2
11779 한쪽만 호감이면, 짝사랑입니다., 2
11780 한쪽의 그림 같은 우리, 멋지네요., 2
11781 항상 내편이 생겨서 좋아, 내 편이 생긴다는 자체가 행복하죠., 2
11782 항상 여친 집 데려다줘?, 시간과 돈이 가능하면요., 2
11783 해외여행하다 숙소에서 만난 외국인이 너무 좋은데 이 연애 무리일까?, 사랑에 국경은 없어요., 2
11784 헤어졌는데도 좋아하는거 별로임?, 헤어지면 남이죠., 2
11785 헤어졌다가 다시 연애하는데 잘 사귄 수 있을까?, 이별 후 재회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2
11786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 사랑했다는 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연락해보세요., 2
11787 헤어지고 얼마 안됐는데 썸타는 거 가능?, 썸 정도는 언제 타든 상관 없는 거 같아요., 2
11788 헤어진 남친이랑 다시 썸타기, 다시 썸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2
11789 헤어진 여자친구랑 썸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완전히 똑같은 시작은 힘들겠지요., 2
11790 헬스장에서 인사하는 사람 맘에 드는데 번호 달라고 할까?, 말씀해보세요., 2
11791 헬스장에서 자주 보는 여자가 보고싶어, 한 번 말을 걸어보세요., 2
11792 햇갈리는데 유지하는 게 좋을까, 좋아하면 유지하게 되겠지요., 2
11793 현실적 문제로 연애 포기해야할듯,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2
11794 혈액형이 성격이랑 무슨 상관이지, 상관 없는 거 같아요., 2
11795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 취미와 성향 등이 같음을 어필해보세요., 2
11796 혼인신고 아직 안 했는데 이혼해도 될까, 결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2
11797 혼인신고 하러 왔어, 법적 부부가 된 걸 축하해요!, 2
11798 혼인신고하니까 마음이 이상해, 법적 부부가 된 걸 축하해요!, 2
11799 혼자 노력하는 연애인 거 같아, 힘들면 잠시 놓는것도 방법이에요., 2
11800 혼자 썸타는 기분이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를 확실히 밝혀보세요., 2
11801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 외로운 상태인 거 같아요., 2
11802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꼬셔보세요., 2
11803 혼자 좋아하는 이야기 들어 볼래요?, 손수건 준비할게요., 2
11804 혼자 좋아하는 이야기., 힘들겠지만 제게 말해보세요., 2
11805 혼자 좋아하는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사랑은 더 잘하게 되지 않고 다시 영에서 시작하니 모두 처음이겠조., 2
11806 혼자가 편하다는 짝남에게 먼저 대쉬해버림., 거절의 뜻은 아니었나요., 2
11807 혼자가 편하다는 짝남에게 들이댔음., 혼자가 편하다는 것이 거절의 뜻은 아니었을까요., 2
11808 혼자만 설레고 혼자서 끝내는 짝사랑 그만할래., 맘고생 많았어요., 2
11809 화이트데이에 고백할까요?, 선물을 주면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고백해보세요., 2

11810 화장 안했는데 썸남이 영통 걸었어. 어떡해?, 화장실 불빛으로 좀 멀리 가리고 해보세요., 2
11811 확실히 날 좋아하는 걸 아는 남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돼요., 2
11812 확실히 좋아하는 데도 관심 있는거 티 안내려고 선토크 안하고 일부러 늦게 보내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2
11813 핫김에 짭남한테 고백했다., 화끈하시네요., 2
11814 회사 짭남 오빠 게임 초대 톡 옴., 설렘텐데 아쉽겠어요., 2
11815 회사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어떡하지?, 사랑하기 힘든 관계인가봐요., 2
11816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라 자꾸 눈 마주쳐., 눈 마주치는 게 우연인지 잘 살펴 보세요., 2
11817 회식 중이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돼., 정신 없이 바쁠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11818 회식하는데 나만 챙겨줘. 썸임?, 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세요., 2
11819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어,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2
11820 흠쳐보는 것도 눈치 보임., 티가 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죠!, 2
11821 흠쳐보는 것도 눈치 보임., 흠쳐보는 거 티나나봐요., 2
11822 흑기사 해주는 짭남., 설렘겠어요., 2
11823 힘든 연애 좋은 연애라는게 무슨 차이일까?, 잘 헤어질 수 있는 사이 여부인 거 같아요., 2
11824 힘들어서 결혼할까봐, 도피성 결혼은 하지 않길 바라요., 2